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 호

평양 근로자사 1967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1 호 (2 9 9)

차 례

워싱톤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 소장에게 보내는

김일성수상의 회답서한

미국 워싱톤 서북구역 위픈플레이스 3900번지

조선문제연구소 소장 김동중 앞

당신의 1966년 11월 12일부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편지를 우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표시로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와 관련한 당신의 제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립장은 당신에게 보낸 1965년 1월 8일부 회답서한에서 이미 상세하게 천명한바 있습니다.

당신은 이번 편지에서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초보적인 조치로서 동일한 수의 쌍방대표들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체 유관국가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느 쁠럭불가담국가에서 회합할데 대한 문제를 새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남북간의 접촉과 협상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잘 알려져있는바와 같이 우리는 남북조선의 대표들이 서울이나 평양에서 혹은 쌍방이 합의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회합할것을 한두번만 제의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제의하고있는 그러한 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남북쌍방의 대표들이 자주통일의 원칙에 기초하여 한자리에 모여앉아 협상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라의 통일위업을 달성하는데서 일보전진으로 될것입니다.

조국의 장래와 민족의 운명을 근심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가능성도 다 리용하여 민족분렬의 비극을 청산하고 나라를 통일하는 전민족적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며 또 하고있습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우리는 항상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인 통일문제를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원칙에서 민주주의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립장에서 출발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일관하여 제기하고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도는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통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중앙정부

를 수립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전후에만도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위한 1954년 제네바회의에서와 그 이후 수차에 걸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들에서 이러한 방안을 거듭 제의하였습니다.

우리의 방안은 외국군대의 철거를 선결조건으로 하고있습니다. 외국군대가 국토를 강점하고있는 조건에서 민족의 자주성과 인민대중의 의사표시의 자유가 보장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북조선에는 어떠한 외국군대도 없습니다. 문제는 《유엔군》의 간판하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국군대를 철거시키는데 있습니다.

남북총선거는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온갖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는 동시에 정당활동의 완전한 자유와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실시되여야 합니다. 모든 정당, 단체 및 개별적인사들이 남북조선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수 있게 되여야 하며 인민들이 남북조선의 현실을 자유롭게 볼수 있고 모든것을 스스로 판단할수 있게 되여야 하며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서는 어느 길로 나아갈것인가를 마음대로 론의하고 자체로 해당한 결론을 지을수 있게 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조성한 기초우에서 일반적이며 평등적이며 직접적이며 비밀투표의 방법에 의한 남북총선거를 실시한다면 각계각층인민대중의 총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통일적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안이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하고있으며 이 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오늘도 역시 전력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실현되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비록 완전한 통일이 달성되기전이라도 단절된 민족적련계를 회복하기 위한 과도적인 대책으로서 남북조선련방제안을 1960년 8월에 제의하였습니다. 이 련방제안은 남북조선에 수립된 현존정치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두고 두 지역간의 경제문화적 및 사회적 련계와 협조를 강화할것을 예견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련방제의 실시는 완전한 통일로는 되지 않지만 남북간의 리해를 증진시키고 조국의 통일을 촉진하는데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을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분렬로 인한 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통일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적문제와는 관계없이 남북간의 경제문화적교류를 실현할것을 제의하였으며 갈라진 부모, 처자, 친척, 친우들의 절실한 념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남북간의 래왕과 우선 서신거래라도 실현할것을 거듭 제의하였습니다.

1960년11월에 소집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회의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문제를 다시금 전면적으로 토의하고 남북조선의 경제문화적협조를 실현하며 남조선에서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도모할데 대한 의견서와 함께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남북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은 조국통일을 촉진하는데서 선차적의의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왔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회의와 제2기제6차회의를 비롯한 일련의 기회에 남북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하며 호상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협정을 체결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밖에도 기아와 빈궁속에서 신음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업자들과 고아들을 북반부에 받아들여 직업과 생활을 보장해주며 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공부를 시킬것과 리재민들을 구제할 대책도 여러번 제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인내성있는 노력을 한시도 중단한적이 없습니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1964년 3월에 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3차회의는 우리 정부의 발기에 의하여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련석회의를 소집하거나 남북조선 각계대표들간의 접촉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민족적단합과 협조를 실현할것을 제의하였으며 남조선의 파괴된 경제를 바로잡으며 인민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매년 200만석의 쌀, 10만톤의 강재, 10억키로와트시의 전력, 1만톤의 화학섬유와 기타 세멘트, 목재, 기계류들을 남조선에 제공할것과 남조선의 실업자들을 공화국북반부에 받아들여 그들에게 직업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1965년 5월에 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회의에서도 우리는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며 조국의 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구국대책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정당하고 합리적인 제안들은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남북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있습니다.

남북간의 접촉과 교류를 실현하며 통일의 길을 개척하여나갈데 대한 요구는 남조선사회계에서도 부단히 제기되여왔으며 또 억누를수 없는 요구로서 계속 제기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과업인 조국의 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들과 인내성있는 노력은 남조선당국자들의 응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처음부터 반대하였을뿐아니라 완전한 통일에 앞서 남북련방제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거부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정치문제와는 관계없이 경제, 문화 교류를 실현하자는 제안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남북간의 서신거래라도 실시하자는 제안까지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북간의 어떠한 접촉도 반대하고있으며 조국통일에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떠한 제안도 덮어놓고 거부하고있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신도 잘 알고있을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제안들을 모조리 반대하고있을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높아가고있는 통일의 지향에 대하여 가혹한 탄압으로 대답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고사하고 남북간의 경제, 문화 교류와 서신거래 및 인사래왕의 실현을 주장하는것조차 《국시》를 위반하는 《반역》행위로 몰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통일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른바 《유엔감시하의 선거》에 의한 통일에 대하여 운운하는것뿐입니다.

이것은 민족의 내부문제에 외세를 끌어들이려는것입니다. 유엔은 조선문제에 관여할 어떠한 자격도, 권한도 없으며 더우기 우리 나라에서 유엔은 미제국주의자

들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리용되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말하는 《유엔감시하의 선거》에 의한 통일이란 결국 남조선에 수립된 미제의 식민지통치제도를 북조선에까지 연장하려는것입니다. 남조선당국이 《유엔감시하의 선거》를 구실로 계속 미제국주의에 매달리고있는것은 남조선을 외래침략세력에 내맡겨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자기들의 부당한 립장을 스스로 드러내놓는것에 불과합니다.

최근년간 그들은 외래제국주의의 침략세력에 더욱더 의거하면서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남북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죄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남조선에 우리 민족의 철천의 원쑤인 일본군국주의세력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일협정》을 발판으로 하여 남조선에 기여들고있는 일본군국주의는 남조선을 침략하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저해하는 위험한 세력으로 등장하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또한 미제국주의의 침략적전쟁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동족상쟁을 위한 새전쟁준비에 몰두하며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한편 남조선《국군》을 대대적으로 남부웰남에 파견하고있습니다. 남조선청장년들을 미국의 웰남침략전쟁의 탄알받이로 내모는 《국군》의 웰남파병은 철두철미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복무하고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용서 못할 범죄행위입니다.

그들은 그 선행자들도 감히 하지 못한 이러한 매국행위를 가리기 위하여 《민족자주》와 《애국》의 간판을 내걸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말하는 《자주》요, 《자립》이요, 《근대화》요 하는것은 외세를 끌어들이며 나라를 팔아먹는 자기들의 민족반역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라를 외래제국주의에 내맡기고 자주독립을 이룩하며 외래독점자본들에 의거하여 자립경제를 건설하거나 나라를 근대화한다는것은 승냥이에게 맡겨 양을 키우겠다는것과 같은것입니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족주체와 자주자립의 길이 아니라 외세의존과 매국배족의 길을 걷고있으며 민족적단합과 조국의 통일에는 어떠한 관심도 가지고있지 않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조국통일문제가 우리 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는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때문에 그들이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그처럼 계속 애원하며 미군의 보호하에서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인민을 두려워하고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무엇때문에 그들이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반대하며 동족간의 래왕과 서신거래까지 그처럼 완강하게 반대하겠습니까?

전체 우리 인민의 불타는 념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패망한지 2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국의 통일이 실현되지 못하고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에 아부굴종하면서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정책과 민족분렬정책의 충실한 집행자로 되고있는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군사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남조선에서 실제적통치권을 틀어쥐고있습니다. 그들은 강점 첫날부터 우리 민족의 분렬을 획책하여왔으며 남조선을 발판으로 북반부에까지 자기의 지배를 확대하려고 책동

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다니면서 우리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고있습니다.

외세에 의거하여서는 결코 민족의 분렬을 청산할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엔이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또 그 어떠한 나라도 우리에게 통일된 조국을 선사하려라고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당신도 정당하게 강조하고있는바와 같이 조국의 통일은 우리들 자신의 일이고 우리 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며 또 오직 자주적으로만 해결될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서는 그것이 유엔이든 무엇이든 외세의 간섭을 추호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 정부는 항상 자신의 문제를 자기의 주견과 결심에 따라 처리하고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주권을 확고히 견지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에 대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고있다는것은 세상에 잘 알려져있습니다.

남조선에도 자주적인 정권이 서거나 혹은 남조선이 중립화라도 된다면 우리 인민자신의 손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사실상 큰 난관은 없게 될것입니다.

문제는 남조선이 미국군대의 강점하에 있으며 미국의 지배하에 있는데 있습니다. 미군의 남조선주둔과 미국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은 우리 조국통일의 근본장애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조국통일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또한 외래침략세력의 발판으로 되고있는 매국세력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지난날에는 일제의 번견이였고 그후에는 미제의 주구로 변신하였으며, 오늘 미일제국주의의 충실한 앞잡이로 되고있는 박정희와 같은 매국노들은 타도되여야 합니다. 그러한 세력을 그대로 두어두고서는 외세의 간섭을 배제할수 없으며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할수 없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의 전체 애국력량이 단합하여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완강한 반미구국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남북조선의 전체 애국력량이 굳게 단합하여 투쟁한다면 우리는 능히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진심으로 원하는 모든 조선사람들은 그가 분렬된 조국의 어느 지역에 살건 그리고 국내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없이 남조선에서 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합류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위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민족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조국의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사상의 차이, 신앙의 유무, 과거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그와 함께 손잡고나아갈것입니다. 비록 조국과 민족앞에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면 그를 환영할것이며 그와 함께 나아갈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민족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게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기울일것입니다. 우리는 외세를 반대하고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원칙에서 출발한것이라면 그 누구의 어떠한 방안에 대하여서든지 협의하고 공통점을 찾기 위하여 노력할 용의를 가지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원래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을 대표한적이 없으며 또 결코 대표할수도 없습니다. 동족을 등지고 외세에 매달려 권력을 유지하고있는자들이 인민을 대표한다고는 누구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당신은 미제침략자들에게 남조선의 모든것을 내맡겨 우리 인민들이 온갖 민족적멸시와 억압을 받게 할뿐아니라 인민대중에게 파쑈적탄압을 가하고 애국자들을 박해하며 그우에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끌어들이며 동족의 피까지 미국의 침략전쟁의 제물로 바치고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인민을 대표할수 있다고 감히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지금이라도 외세의존정책을 버리고 자주적립장에 돌아선다면 그때에는 우리가 그들과도 중립국이나 혹은 합의되는 임의의 장소에서 협상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자면 남조선당국자들이 응당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접수하여야 할것입니다.

1) 미국침략군대의 철거를 요구할것.

2) 범죄적인 월남파병을 중지하고 이미 파견된 《국군》을 완전히 철수할것.

3) 매국적 《한일협정》을 취소할것.

4) 조국통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였다는 리유로 체포구금된 일체 정치《범》들과 애국자들을 석방할것.

5) 파쑈적탄압을 중지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 등 사회, 정치 생활에서 민주주의적자유를 보장하며 조국통일에 대하여 마음대로 론의할수 있게 할것.

남조선당국자들이 이러한 조항들을 실천할것을 맹세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비록 조국과 인민앞에 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조국통일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길을 공동으로 모색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민족반역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남조선당국자들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립장을 취하지 않을수 없지마는 외세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정당, 단체 및 개별적인사들과는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협상할것을 원하고있습니다. 이들과는 어느 때든지 합의되는 임의의 장소에서 조국의 통일방도를 협의할 준비가 되여있으며, 민족분렬의 비극을 청산하기 위하여 흔연히 힘을 합쳐나아갈것입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인민앞에 제기되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며 우리 세대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우리는 결코 분렬된 조국을 후대에게 넘겨줄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할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념원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것입니다.

끝으로 당신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응당한 기여를 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는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 성

1967년 1월 4일

조 선 평 양

남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는것은 혁명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

권 혁

오늘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을 추진시키는것은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가장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해서는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조선혁명의 기지인 공화국북반부는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로선과 현명한 령도밑에서 정치, 경제, 군사의 각 방면에 걸쳐 불패의 력량으로 되였다. 특히 당대표자회결정에 무한히 고무된 당원들과 인민들은 혁명기지를 한층더 굳게 다지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는 남조선의 혁명력량 준비와 혁명발전에 크게 달려있다.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준비하며 혁명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며 그 주위에 광범한 군중을 결속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전투적이고도 탄력성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며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운동의 발전을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98페지).

1

다 아는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부대이며 최고형태의 조직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계급적조직으로서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적극 투쟁할뿐만아니라 그 투쟁의 선두에 서서 대중을 이끌고나가는 선봉대이다.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자기들의 강력한 선봉적, 조직적 부대를 가지지 않고서는 혁명에서 승리할수 없다.

그것은 혁명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이 노는 결정적인 역할과 관련된다.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속에 맑스—레닌주의사상을 보급하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킴으로써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을 자기 주위에 결속하며 혁명투쟁에 나서도록 한다.

당은 항상 조성된 정세와 계급들간의 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혁명발전의 전망을 예견하며 그에 기초하여 전략전술을 세우고 대중에게 투쟁방향과 방도를 밝혀줌으로써 혁명을 빨리 전진시키며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정권을 잡고 새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조직동원한다.

맑스—레닌주의당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것은 그가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맑스—레닌주의사상과 리론으로 무장하고 근로대중속에서 가장 우수한 투사들을 유일한 원칙과 강철같은 규률로 결속시킨 조직적부대로,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뿌리박은 최고형태의 조직으로서 잘 꾸려져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몰아내고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고 자신의 자유와 해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을 옳게 지도할수 있는 강력한 전위부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가져야 하며 그가 자기 역할을 원만히 할수 있도록 꾸려야 한다.

남조선의 현정세발전은 맑스—레닌주의당을 시급히 꾸릴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현남조선정세의 중요특징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악랄한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침략과 전쟁정책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이며 그로 인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새로운 더 심각한 위기가 조성되고있는것이다.

미제와 괴뢰도당의 식민지적략탈, 전쟁정책에 따르는 경제적위기와 무거운 군사적부담으로 남조선인민들의 빈궁은 극도에 달하고있으며 더우기 일제의 재침략책동과 월남파병으로 인하여 민족의 존엄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사회적불안은 날로 증대되고있다.

로동자들은 최저생계비의 3분의 1도 못되는 기아임금과 가혹한 로동조건으로 하여 실로 인간이하의 생활을 강요당하고있으며 수백만을 헤아리는 실업자들은 당장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 농민들도 해마다 120만호이상이 절량에 허덕이며 태반의 농가가 빚때문에 조만간 폐농할 위협에 직면하고있다.

대부분의 소상인들은 더는 장사를 계속할수 없는 형편이며 중소기업들도 자금과 판로가 없고 세금과 빚때문에 무더기로 쓰러져가고있다. 하급《공무원》의 생활도 말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그들속에서까지 일가족 집단자살사건이 일어나고있다.

더는 그대로 살아갈수 없게 된 남조선근로대중의 통치자들에 대한 불평불만과 반항은 날로 커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못살겠다》,《무슨 변이 일어나야 한다》,《하늘땅이 맞붙으라》,《전쟁이라도 콱 터져라》,《통일만이 살길이다》라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이것은 참을수 없는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대중의 몸부림이며 사회의 변혁을 목마르게 바라는 그들의 지향의 표현이며 혁명의 폭풍우가 다가오고있는 징조이다.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성과와 사회주의력량의 급속한 장성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불같은 지향을 더욱더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을뿐만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치고있다.

세계도처에 군대를 늘어놓고 침략과 략탈을 일삼는 미제는 사면팔방에서 얻어맞고 내리막길을 걷고있다.

모든 사실들은 혁명의 객관적정세가 점차 성숙되여가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객관적정세만으로는 아직 혁명이 일어날수 없으며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도 승리할수 없다.

혁명이 일어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혁

명의 객관적정세와 함께 주체적인 요인이 갖추어져야 한다.

오늘 남조선에서 혁명과 반혁명간의 력량관계가 전반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다. 남조선혁명력량은 투쟁을 통하여 계속 장성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혁명력량은 첨예화되고있는 사회정치적모순을 해결하리만큼 준비되여있지 못하다. 혁명운동은 아직 전면적으로 목적의식적이며 조직적인 운동으로 되지 못하고있으며 혁명의 주체적력량은 반혁명력량을 때려엎으리만큼 충분히 준비되여있지 않다.

반혁명력량을 종국적으로 타승하기 위해서는 맑스—레닌주의당을 튼튼히 꾸리며 현단계에 있어서의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를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킴으로써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다》(우와 같은 문헌, 97페지).

이 방침은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며 로동자, 농민과 청년학생, 지식인들과의 련합을 실현하고 각계각층 광범한 군중들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며 반혁명세력을 고립약화시킴으로써만 달성될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당은 혁명력량의 가장 골간적인 부분이며 혁명력량을 준비하는 주체로서 혁명의 주체적요인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혁명력량의 투쟁능력과 준비정도는 주로 맑스—레닌주의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에 의존하는바 그것은 사실상 당이 어떻게 꾸려져있는가에 달려있다.

혁명의 주력군은 혁명에 동원될수 있는 사회의 기본계급인 로동자, 농민과 그 속에 뿌리박은 맑스—레닌주의당을 의미한다. 따라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는 사업은 우선 당을 꾸리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뿐만아니라 맑스—레닌주의당이 꾸려지지 않고서는 통일전선도 할수 없으며 설사 통일전선이 이룩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견고할수 없다.

때문에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력량을 시급히 준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을 잘 꾸리는가 못꾸리는가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

남조선혁명운동의 경험은 튼튼히 꾸려진 맑스—레닌주의당의 통일적인 령도가 없이는 혁명력량의 장성도 혁명운동의 성과적발전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8. 15후 남조선의 정세는 매우 유리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로동당은 지도부에 박헌영, 리승엽 간첩종파도당이 기여들었고 적대분자, 이색분자, 준비되지 못하고 검열되지 못한 자들을 당에 막 쓸어넣음으로써 진정한 혁명적핵심을 가진 맑스—레닌주의당으로 될수 없었다. 따라서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당의 존재를 유지할수도 없었다.

전후에도 1960년 4월 인민봉기 등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였으나 맑스—레닌주의당이 잘 꾸려지지 못하고 통일적지도가 보장되지 못하였기때문에 그것을 결정적투쟁에로 발전시킬수 없었다. 따라서 남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는것은 혁명운동 자체발전의 요구로부터 더욱 절박하게 제기된다.

2

현시기 남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의 지도적골간을 준비된 공산주의적지도핵심들로 꾸리는것이다.

공산주의적지도핵심이란 맑스—레닌

주의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인민과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여있으며 어떤 시련속에서도 혁명적 지조를 지킬수 있을뿐만아니라 독자적으로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맑스—레닌주의 전략전술적원칙에 의거하여 운동을 능숙하게 조직지도할수 있는 준비된 혁명가를 말한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원래 지도적골간과 당원대중으로 구성된다.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을 건설함에 있어서 지도적골간의 형성은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당의 건설과 그 활동, 혁명의 성과적수행도 그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맑스—레닌주의당은 계급투쟁속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것이지만 결코 스스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오직 공산주의적지도핵심의 목적의식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건설될수 있으며 공고발전될수 있는것이다.

당의 지도적골간이 준비된 공산주의적지도핵심으로 꾸려져야 조성되는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발전시켜 나갈수 있으며 혁명조직들을 옳게 장악지도하고 혁명에 대한 당의 통일적인 령도를 보장할수 있다.

남조선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하다. 남조선혁명의 주되는 대상인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국제헌병이다. 그들은 이러저러한 형태로 식민지통치를 해왔고 세계도처에서 혁명을 교살한 력사를 가진 매우 음흉하고 악랄한 적이다.

남조선의 반혁명세력도 8. 15직후시기와는 달리 미제에 의하여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적지 않게 육성되였으며 괴뢰정권을 가지고 인민을 억압하고 혁명을 반대하는 데 이골이났다.

특히 우리 나라는 국제적으로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이 날카롭게 맞서고있으며 치렬한 투쟁이 전개되고있는 곳이다.

혁명과 반혁명간의 치렬한 계급투쟁은 혁명력량의 투쟁전술뿐만아니라 적들의 반혁명적술책도 상대적으로 발전시키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남조선정세와 혁명운동발전에 복잡성을 조성하며 당건설과 혁명운동지도에서 더욱 세련된 전략전술과 능숙한 령도예술을 요구한다.

때문에 오늘 남조선에서 당의 지도적골간을 준비된 공산주의적지도핵심들로 튼튼히 꾸리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고 혁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심고리로 된다.

공산주의적지도핵심은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자라나고 배출된다. 혁명에 투신하려는 각오와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실지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대중의 신망을 쟁취하며 투쟁경험을 쌓고 맑스—레닌주의리론과 전략전술을 깊이 연구파악함으로써 지도핵심으로 된다.

남조선혁명가들과 혁명조직들의 가장 절박한 당면과업은 준비된 공산주의적지도핵심을 더많이 길러내며 그들로써 당의 지도적골간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또한 투쟁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혁명가들로 당조직들을 질적으로 꾸리며 원쑤들을 반대하는 실천적투쟁을 통하여 당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은 당원들을 통하여 광범한 근로대중과 련계를 맺으며 그들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현한다. 따라서 당의 전투력은 당대렬의 질과 량에 달려있다.

적들의 파쑈적폭압이 심한 조건에서는 당원들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당원의 질적수준이 높지 않고서는 간고한 투쟁을 장기간 해나갈수 없으며 당조직의 전투력

과 신축성을 보장할수 없다. 과거 남조선로동당의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당원의 수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일이 잘 되는것은 아니다.

비록 적은 수의 당원이라도 그들이 일당백의 우수한 선전선동가로, 조직자로 된다면 광범한 군중을 각성시키고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당원의 량적장성을 무시해도 좋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이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단위와 부문에 배치할만한 당원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때문에 당대렬을 부단히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원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들속에서 투쟁을 통하여 단련되고 검열되였으며 대중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있는 혁명투사들만을 당에 받아들이며 당원들의 정치사상적수준과 투쟁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양훈련사업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당의 전투력은 당조직의 질적구성, 량적장성과 함께 당력량배치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적들의 파쑈폭압이 심한 조건에서 우선 당력량을 보존하고 확대하며 혁명의 매시기에 당앞에 나서는 정치적임무와 조직적과업을 수행하는데 유리하고 큰 의의를 가지는 중심지역과 부문에 중점적이며 집중적으로 포치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다른 모든 고리들을 해결하며 한 고리를 풀고 거기에 의거하여 성과를 확대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언제나 당의 조직성과 기동성을 높이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당조직을 보존할수 있도록 당조직구조와 형태를 짜는것이 필요하다.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는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다른 하나의 문제는 대중운동과 투쟁을 강화발전시키는것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는 사업과 대중운동과 투쟁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은 서로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당을 꾸리는 목적은 대중을 각성시키고 결속하며 혁명투쟁을 옳게 령도하여 승리에로 이끄는데 있다. 당은 군중계몽교양과 군중조직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대중투쟁을 강화발전시키는 행정에서 성과적으로 꾸려지게 된다.

이것은 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호상관계에서 우러나오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의 힘의 원천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과의 튼튼한 련계에 있다. 당이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야 적의 어떤 폭압속에서도 자체를 유지보존할수 있으며 대중속에서 파악이 있는 선진투사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여 대오를 확대강화하면서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이끌어갈수 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만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할수 있으며 당자체를 공고히 할수 있다》(우와 같은 문헌, 99페지).

당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속에서 사상정치교양사업을 앞세우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맑스—레닌주의를 보급하며 대중을 정

치적으로 각성시키는 사상정치교양사업은 혁명과 당건설의 출발점이다.

맑스—레닌주의가 광범히 선전보급되여야 당을 지지하고 따라오는 대중이 생기고 공산주의운동의 사회적분위기가 조성되며 그속에서 혁명가들이 생겨나고 지도핵심이 자라나게 된다.

대중속에 맑스—레닌주의사상을 보급하고 자연발생적인 로동운동을 목적의식적인 혁명운동으로 전환시키며 공산주의운동을 대중적지반우에 올려세워야 당을 확대강화하며 혁명을 발전시킬수 있다. 대중을 각성시키지 않고서는 광범한 대중을 조직에 결속할수도 없으며 투쟁에 동원할수도 없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와 괴뢰도당은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반공》 숭미사대주의사상선전을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고 집요하게 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미 왕군 3대를 내려오면서 귀에 젖도록 공산주의에 대한 비방중상을 들어왔으며 대국숭상과 민족허무주의사상의 영향을 받아왔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반공》선전에서 과거 박헌영, 리승엽 도당들이 저지른 죄행의 후과를 악랄하게 리용하고있다. 박헌영, 리승엽 도당은 당의 군중로선과 계급로선을 위반하고 당원들과 인민들을 극좌적인 투쟁에 내몰아 대량적으로 체포학살당하게 하였으며 능히 손잡고 같이 나갈수 있는 사람들까지 배척함으로써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말아먹었다.

적들은 이러한 사정을 리용하여 인민들속에 투쟁에 대한 공포증,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불신을 조성하여 그들을 혁명의 편에서 떼내려 하고있다. 적들의 이러한 책동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있으며 그들의 정치적 각성을 저애하고있다. 때문에 대중을 정치적으로 계몽각성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숭미사대주의사상과 《반공》사상을 뿌리빼는것이다.

숭미사대주의사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과 침략적본성을 폭로하고 인민대중이 헐벗고 굶주리며 무권리한 까닭을 밝혀주는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들의 《반공》선전의 반인민적, 매국배족적 목적을 발가놓고 맑스—레닌주의선전과 결부시키면서 공화국북반부사회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인식시키며 공산주의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바로잡는것이 중요하다.

대중속에서 사상정치교양사업은 대중의 수준에 맞게 그들이 당하고있는 절실한 문제에서부터 점차 높고 깊은 문제에로 발전시켜 나가며 합법적인 선전과 비합법적인 선전을 잘 결합시키는것이 중요하다.

군중조직사업은 당의 대중적지반을 확대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중을 조직에 결속하여야 그들을 투쟁에 조직적으로 광범히 동원할수 있으며 사상교양사업도 더잘 할수 있다. 군중을 조직에 결속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없으며 그들에 대한 당의 령도도 원만히 실현할수 없다.

《…대중조직은 광범한 군중을 망라하는 조직으로 되여야 하며 진정으로 계급적리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적조직으로 되여야 하며 원칙상 합법적조직으로 되여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99페지).

이러한 대중적조직에 로동자, 농민들을 결속시키고 그들을 각성시켜 당주위에 튼튼히 집결시키게 된다면 당은 믿음직한 외곽단체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현재 남조선에는 각양각색의 대중단체들이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대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를 불문하고 그들속에 들어가 사업해야 한다. 군중을 교양하여 당주위에 묶어세우며 대중단체들을 군중의 계급적리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적조직으로 발전시켜야 당의 영향력을 부단히 확대할수 있으며 더 많은 대중을 쟁취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며 그의 력량을 확대발전시킴에 있어서 대중투쟁을 강화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중투쟁을 통하여서만 당조직을 질적으로 꾸릴수 있으며 빨리 확대할수 있다.

혁명의 력사는 투쟁—혁명적실천이야말로 군중을 평상시보다 몇배나 빨리 각성시키며 그들을 검열하고 단련하는 학교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은 대중투쟁을 통해서만 단련되고 검열된 선진분자들을 받아들여 자기대열을 확대강화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자기주위에 튼튼히 결속할수 있다. 또한 대중투쟁을 통하여 당원들이 준비된 혁명가로 더욱 단련될수 있으며 그들속에서 유능한 지도핵심이 배출될수 있다. 투쟁속에서 단련된 당조직만이 참으로 전투적인 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대중에 대한 령도적역할을 충분히 수행할수 있다.

당은 투쟁과정에서 정세발전을 계속 촉진시켜나갈수 있다. 정세발전이 촉진되고 혁명운동이 강화될수록 당을 꾸리는 사업이 또한 촉진되며 따라서 혁명운동은 더욱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면서 발전하게 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대중투쟁을 맑스—레닌주의전략전술원칙에 립각하여 옳게 조직지도하는것이다.

현시기 남조선에서의 대중투쟁은 인민들의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결합시킴으로써만 점차 높은 단계에로 발전해나갈수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괴뢰군의 월남파병 및 일제의 재침기도와 파쑈화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혁명발전의 요구이다. 이것은 당건설과 혁명운동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들은 파쑈적탄압을 반대하고 언론, 출판, 집회, 시위 및 파업의 자유와 모든 정당, 사회단체의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싸워야 하며 맑스—레닌주의당의 합법적지위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당면한 모든 투쟁을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며 정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키는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경험은 대중투쟁에 있어서 합법적 및 반(半)합법적 투쟁을 위주로 하고 그에 비합법적인 투쟁을 결합하는것이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에 적응한 전술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사실 남조선실정에서 비폭력적인 투쟁과 함께 필요할 때는 폭력투쟁도 전개하며 여러가지 투쟁형태와 방법을 배합하여 능숙하게 적용해야만 혁명운동을 가일층 발전시킬수 있는것이다.

대중투쟁을 조직지도함에 있어서 당조직을 보존하고 혁명력량을 축적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좌우경적편향을 경계하여야 한다.

력량관계와 정세를 정확히 타산하지 않고 모험적인 투쟁을 벌린다면 당조직을 적들앞에 로출시키고 파괴당하게 하며 혁명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반면에 투쟁이 간고하다

고 하여 유리한 정세가 오기만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당을 꾸릴수 없고 당이 대중속에 뿌리박을수도 없으며 정세를 호전시킬수도 없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좌우경적편향을 경계하면서 백방으로 대중투쟁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

남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는 사업은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혁명의 요구이며 남조선 공산주의자들과 근로대중앞에 나선 신성한 의무이다.

오늘 남조선에는 맑스—레닌주의당을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다.

남조선로동계급은 혁명의 령도계급으로서 력사무대에 나타난 첫시기부터 농민들과 동맹하고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선두에 서서 싸워온 전통을 가지고있다. 그들은 오늘도 적의 폭압속에서 꾸준히 투쟁하고있다.

근로대중의 빈궁과 불만이 극도에 달하고 대중의 각성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선진분자들속에서는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지향이 높아가고있으며 투쟁의 시련속에서 혁명의 지도자들과 핵심들이 자라나고있다.

뿐만아니라 오늘 남조선혁명운동은 일제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세하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것은 조국의 절반땅인 공화국북반부에 강력한 혁명기지가 있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그러하다.

남조선의 혁명가들은 비상한 혁명적 각오를 가지고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투쟁함으로써 강력한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고 혁명에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반공》으로 저들의 범죄행위를 가릴수 없다

방 학 세

공산주의는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밝혀주는 가장 선진적인 사상이다.

공산주의사상은 오늘 전세계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심장을 틀어쥐고있으며 그들을 사회적, 민족적 해방을 위한 줄기찬 투쟁에로 고무하고있다.

공산주의사상의 더욱더 증대되는 견인력, 그 과학적정당성과 혁명적위력, 자본주의, 제국주의멸망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승리의 전망은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통치계급들에게 극도의 공포와 증오를 자아내게 하였다.

공산주의와 《반공산주의》간의 충돌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계급사회가 존재하는한 국내 및 국제무대에서의 계급투쟁의 반영으로서 불가피한 사회적현상이다.

공산주의가 세상에 나타난 첫날부터 반동계급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가장 두려운 적수로 인정하고 《반공》의 길에 나섰다.

맑스주의가 처음 출현한 1840년대에 벌써 구라파의 모든 반동세력들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성스러운 토벌을 위하여 련합되였다》(공산당선언).

로동운동이 장성하고 더욱더 큰 승리를 달성하는데 따라 반동들의 《반공》책동도 더욱 강화되였다. 사회주의10월혁명후 사회주의국가가 출현하고 공산주의사상이 현실에 구현되기 시작한 조건에서 제국주의반동세력은 《반공》을 근로자들에 대한 더욱 가혹한 탄압과 나라의 파쑈화, 범죄적인 대외침략을 《정당화》하는 정치사상적수단으로 리용하였다.

히틀러는 독일국내에서 파쑈적인 테로폭압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사건》과 같은 범죄적인 《반공》소동을 조작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을 백방으로 비방중상하였으며 《반공》을 로동계급과 모든 진보적요소들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과 학살만행의 구실로 삼았다. 그는 또한 《반쏘》, 《반공》의 구호하에 흉악한 침략전쟁을 벌려놓았다. 《반공》의 구호하에 일본의 도죠도, 이딸리아의 무쏘리니도 동일한 길을 걸었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국독점자본가들은 히틀러, 도죠, 무쏘리니의 길로 나가면서 《반공》의 선두에 나섰다. 그들은 《반공》의 구실하에 세계정복의 망상을 실현해보려고 끊임없는 침략책동을 감행하면서 국내에서는 로골적인 파쑈화의 길로 나갔다.

그들은 공산주의에 대하여 온갖 비방중상을 퍼부으면서 《반공》의 구실하에 《타프트하트리법》, 《맥카란법》, 《공산당규제법》등 수백건의 악법들을 조작하였다. 또한 《존비취협회》, 《3케이단》, 《미국애국단》등 천여개의 파쑈테로단체들을 내세워 공산주의자들과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온갖 박해와 폭행을 가하였으며 국회내에 《비미행동조사위원회》를 조작하여 모든 진보적인사들을 공직에서 추방하고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대외적으로 그들은 있지도 않는 《공

산주의위협》으로부터의 《자유세계의 수호》라는 간판을 걸고 해외군사기지들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각종 침략적군사동맹들을 조작해냈다. 미제는 《반공》을 구실로 세계도처에서 침략전쟁과 무력간섭을 자행하고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마구 간섭하고있다.

미제는 《반공》을 공공연하게 대내외정책의 기초로 선포하고있다. 사실상 미제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기 위하여 국가기구의 모든 힘과 저들의 군사경제 및 사상정치적력량을 동원하고있다. 미제는 《반공》기구들과 선전망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있으며 대외《반공》선전에만도 미국에서 가장 큰 성인 국무성의 예산과 동일한 5억딸라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미제의 《반공》선전에서 중심내용을 이루는것은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악의에 찬 비방중상,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허위적인 《리론적극복》이며 《미국식생활양식》, 자본주의제도의 미화분식이다.

미제는 특히 공산주의세계관에 《자유민주주의》를 대치시키면서 극소수 착취자들의 《민주주의》인 부르죠아민주주의를 전체 인민의 민주주의로 가장하고 인민대중의 진정한 민주주의인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그 어떤 《협소한 층》의 전횡으로 허위선전하고있다.

미제의 《반공》선전에서 기본적인 수법은 선행 파쑈스트들로부터 물려받은 《거짓말의 반복》이다. 이미 히틀러의 악명높은 저서 《나의 투쟁》에서 그는 《대중의 심정은 원시적으로 단순하기때문에 자그마한 거짓말보다 오히려 대규모적인 거짓말에 의해서 간단히 속아넘어간다》고 하였으며 또한 《아무리 무식한자라도 알지 않고서는 못배길정도로 반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선전의 효과는 상실된다》라고 떠벌렸다. 오늘 미제도 역시 《반공》선전에서 항상 허위날조와 반복의 수법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그들은 학교교과서로부터 시작하여 대중적인 통속잡지, 군대내의 선전물, 어용학자들의 소위 《리론론문》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는 악이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하는 허황한 내용을 계속 반복선전하고있다.

미제의 《반공》소동은 바로 금융과두들의 최대리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민들에게서 온갖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빼앗고 그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극악한 파쑈테로통치의 위장물이다.

《반공》—이것은 또한 남의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여 그를 예속화하기 위한 식민지통치의 수단이며 침략과 전쟁정책에 복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도구이다. 미제는 자국인민과 세계인민들을 반대하는 저들의 흉악한 범죄행위들을 《반공》의 간판으로 가려보며 하고있는것이다. 미제에게 있어서 《반공》은 멸망에 직면한 저들의 운명을 구출해보려는 발악적책동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기적인 정치사상적수단이다.

* *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위한 《반공》소동은 그들이 강점하고있는 남조선에서 가장 흉악한 형태로 실시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괴뢰들은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공》의 간판을 내걸고 그것으로써 저들의 흉악한 범죄적행위들을 가려보려고 발악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반공》을 남조선에서 자기들의 파쑈테로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자기들의 횡포한 파쑈테로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온갖 기만책동을 다하고있으며 특히 〈반공〉을 중요한 정

치, 사상적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90페지).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침략자 미제는 첫날부터 《반공》의 구호밑에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군사기지화정책에 항거하여나선 인민대중의 정당한 진출을 총검으로 탄압하여왔으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인민들의 초보적인 요구마저 야수적으로 유린말살하면서 파쑈테로통치를 실시하여왔다.

리승만집권시기에는 주로 괴뢰경찰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괴뢰군력량을 배합하여 파쑈테로통치를 실시하였다면 박정희집권시기에는 주로 괴뢰군을 전면에 내세우고 《중앙정보부》와 괴뢰경찰력을 배합하여 로골적인 군사파쑈테로통치를 실시하고있다.

경찰파쑈테로통치로부터 군사파쑈통치에로의 이행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뒤흔들리고있으며 그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군사정변》이후 《반공을 국시의 제1주의》로 삼고 《반공》태세를 더욱 강화하는것을 첫째가는 임무로 규정하였다.

그들은 《반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폭압기구들을 신설확장하였고 그 인원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50여개의 폭압기구들이 신설확장되였다. 지금 남조선에는 5만명의 미군과 60여만명의 괴뢰군, 1만 5,000명의 《중앙정보부》성원과 그 산하에 있는 37만여명의 밀정들, 4만여명의 괴뢰경찰과 32만명의 경찰정보원, 그리고 2만명의 괴뢰방첩대밀정들이 욱실거리고있다.

이것들은 보수정당들과 로조단체들에는 물론 각종 기관, 매개 직장, 동, 리 심지어는 학원에까지 포치되여 《용공분자》를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정치활동정화법》, 《반공법》,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하여 수많은 각종 《반공》악법들을 련이어 조작함으로써 군사파쑈테로통치를 《합법화》하며 하고있다.

이러한 악법들의 횡포성은 우선 그것이 종래의 악법들에 비하여 《범죄》구성의 요건과 적용범위가 확대되였을뿐만아니라 그 형량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가중된데서 나타나고있다.

《반공》의 구호밑에 조작한 이러한 악법들은 남조선에서 공산주의와 중간세력의 활동을 탄압하는데 리용되고있을뿐만아니라 지어는 지식인, 학생, 기성보수세력들의 정치활동에 이르기까지 통제간섭하며 그들을 配제하는 도구로 리용되고있다.

그들은 바로 《반공》이란 구호를 휘두르면서 농민들의 초보적인 정치적권리와 땅에 대한 절박한 요구를 압살하고있으며 민주주의적로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생존의 권리를 위한 시위와 파업, 8시간로동제의 실시 및 임금인상을 위한 로동자들의 각종 투쟁을 탄압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반공》의 구호밑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자기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출판사들을 무더기로 폐쇄하며 개별적기자들에게도 야만적박해를 가하고있다. 그들은 《경향신문》이 《하루는 책보, 이틀은 깡통》이란 기사를 실었다고 하여 《반공법》위반으로 사장이하 2명의 기자를 구속하였다. 고려대학교에 조직되였던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성원들은 《반공법》위반이란 명목으로 《군사재판》에 넘어가 사형을 비롯한 중형을 언도받았으며 일제의 재침책동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같은 《죄》명으로 체포, 구금, 학살당하였다.

또한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보수야당들의 정치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반

공》을 리용하고있다.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괴뢰경찰에 구속된 야당인들의 90%가 《반공법》적용에 의한것이라고 한다.

심지어 미제와 그의 주구들은 조국통일과 서신거래, 인사래왕이란 말만 해도 《반공법》을 휘두르면서 인민들을 탄압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부르죠아신문은 《남북평화통일》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반공법》위반죄에 걸려 기소되였으며 《민사당》 창당준비위원장도 《부분적인 남북교류를 주장》한 탓으로 구속되였으며 기타 수많은 지식인, 언론인, 작가, 예술인, 학생들이 조국통일에 대하여 말했다는 리유로 체포, 투옥, 학살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남조선의 한 부르죠아신문은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안듣는자들을 때려잡는데 <공산당>이라는 무기처럼 편리한 연장은 없다… <공산당>은 과연 더없이 편리한 무기이다》라고 야유하는 어조로 비난하였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발광적인 파쑈테로통치로 하여 겁에 질린 남조선의 야당 보수정객들까지도 《반공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비난하고있다.

박정희도당은 당장 통일이 실현되면 남조선이 《적화》될 위험이 있기때문에 통일문제는 《70년대후반기》에 가서나 론의될수 있다고 떠벌리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을 미제의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만들며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그들의 매국배족적본질을 드러내놓을뿐이다.

〈남조선에서 <반공>은 인민들을 탄압하며 정치적반대파를 제거하는것으로부터 전쟁소동을 일으키며 동족상쟁을 고취하는데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만병통치의 약>으로 되고있다. <반공>의 간판밑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소동이 벌어지고있으며 또한 <반공>의 간판밑에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략이 허용되고있으며 수많은 청장년들이 남부월남의 죽음터로 끌려가고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90페지).

미제는 《공산주의침략》으로부터 《자유우방국가》를 보호한다는 구실하에 남조선강점을 계속 《합리화》하며 하고 있다.

최근에도 미국무장관 러스크와 국방장관 맥나마라는 국회내의 군사위원회에서 《우리는 한국에 미군 2개사단을 계속 유지할것이다. 그 리유는 북조선의 군사적위협이 항상 존재하고》있기때문이라고 떠벌렸다.

미제는 《반공》의 구호하에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음흉한 목적을 발광적으로 추구하고있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지난시기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반영한 우리 당의 정당한 통일방안을 거부하고 《북진통일》나발을 불면서 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소동을 벌리였으며 오늘도 동족상쟁을 계속 고취하고있다.

얼마전에 남조선에 기여들었던 미국대통령 죤슨은 군사분계선을 돌아다니면서 《월남전쟁이 계속 확대되는 경우 한국전선의 재개까지 보게 될것이다》라고 하면서 목청을 돋우어 《북진》을 추동하였다.

이에 힘을 얻은 박정희는 《지난날의 소극적반공을 지양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몰아내는 적극적인 승공의 자세를 정립해야 할것》이라고 나발을 불어댔다.

《반공》의 구호하에 최근 미제와 괴뢰도당들은 《북진전쟁준비》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그들은 《조선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괴뢰군을 62만으로부터 67만으로 증강하고있으며 《장비의 현대화》라는 미명하에 《호크》와 《나이크허큐리스》 등 유도무기와 전술적핵무기 등 대량적살상무기들과 각종 함선, 전차, 포들을 계속 남조선에 끌어들이

고있다.

또한 김포, 군산, 여이도를 비롯한 수많은 항공기지들과 진해, 인천, 목포, 부산, 삼척, 포항을 비롯한 30여개의 항만기지들을 확장하고있으며 전시수송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도로인 《방사선고속도로》 등의 건설공사들을 급속히 추진시키고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사비지출은 《군사정변》이후에 2배에 해당하는 480억원으로 대폭 증대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남조선 전역에 걸쳐 《전시태세》를 강화하면서 전쟁소동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사훈련을 강화하고있는바 지어는 예비병을 긴급동원하는 전쟁소동까지 벌리고있다. 최근 적들은 분계선연선에서 모험적인 전쟁도발사건들을 빈번히 일으키고있다.

미제는 또한 《반공》의 구호밑에 남조선을 아세아침략에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남조선괴뢰들을 일본을 비롯한 아세아의 반동들과 군사적으로 결탁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육성하에 재생된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망상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재침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제시대의 《황군》장교인 충실한 주구 박정희가 미제의 사촉밑에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것을 기회로 하여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일제는 남조선에서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선결문제라고 하면서 소위 《원조》를 자청해나서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일제의 상품수출은 《군사정변》이후에 무려 3배로 장성되여 남조선 총수입량의 40%를 차지하고있다. 일제는 또한 남조선의 《2차5개년계획》기간에 도입될 외자총액의 50%이상을 《담당》하기 위한 막후책동을 벌리고있다.

《반공》의 구호하에 일제는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침투도 강화하고있다. 최근에 폭로된 《달리는 황소작전》계획은 《조선전쟁》의 재개를 전제로 하고 일본 《자위대》를 《조선전쟁》에 참가시킨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반공》의 구호하에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사이에는 쌍무적군사협정들을 통하여 사실상 3각군사동맹이 형성되였으며 미제의 배후조종밑에 《한일공동작전체계》가 이미 수립되였다.

이와 같이 미제는 《반공》의 구호하에 남조선을 전초기지로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돌격대로 삼아 조선에서 또다시 모험적인 전쟁을 도발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반공》의 구호하에 자기의 침략계획을 실현함에 있어서 남조선을 가장 중요한 대포밥공급지로 리용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에서 감행하고있는 침략전쟁에 남조선을 직접 끌어들였다.

이미 약 5만명의 남조선괴뢰군이 미제의 값싼 대포밥으로 웰남에 가있으며 앞으로 3만명의 괴뢰군을 《평화군단》이란 명칭과 군속이란 신분으로 또다시 파견하기로 되여있다.

박정희도당은 인민대중은 물론 기성 보수정객들로부터도 《청장년들의 피를 팔아 정권을 유지》하려는 《청부전쟁》이라는 비난을 받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웰남파병의 목적이 《공산주의를 퇴치하고 웰남의 안전을 수호》하는데 있다느니, 《두나라의 반공태세》를 강화하려는데 있다느니 하면서 《반공》의 구호로 이 매국배족행위를 합리화하려 하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반공》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테로통치와 전쟁정책을 합리화하고 일제의 재침을 허용하며 청장년들을 남부웰남의 죽음터에 대포밥으로 팔아먹는 등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사상적수단에 지

나지 않는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저들의 범죄적목적에 《반공》을 리용하기 위하여 야수적인 폭압만행과 함께 악랄한 《반공》선전을 계속 강화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줄곧 감행하고있는 《반공》선전은 류례를 찾아볼수 없으리만큼 악랄하며 공산주의사상과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극도로 악의에 찬 중상과 비방,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차 있다.

최근시기에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반공》선전을 더욱 발악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적들의 《반공》선전은 종전까지만 하여도 공산주의사상의 침습을 막기 위한 《방공(防共)》에 주력하였다면 최근에 와서는 《모든 점에서 북한을 릉가하며》 공산주의를 《사상적으로 이긴다》는 《승공(勝共)》, 《공공(攻共)》에로 이전하고있다.

생활의 론리에 따라 남조선인민들이 점차 저들의 《반공》선전을 접수하지 않을뿐만아니라 그들속에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동경이 커가고있는 조건에서 적들은 또한 《민족주의》의 구호하에 《반공》선전을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민족주의를 공산주의에 대한 방파제로》 삼고 《민족주의》의 간판밑에 자기들의 온갖 침략적이며 매국배족적인 범죄행위를 가려보려고 책동하고있다.

⁂ ⁂

미제와 그 주구들은 어떠한 《반공》소동으로써도 저들의 범죄행위를 가릴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을 속일수 없으며 어떠한 폭압과 기만책동으로도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

력사는 《반공》소동에 매여달리는자들이 례외없이 멸망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공산주의사상이 이 세상에 나온이래 구라파와 아세아의 모든 반동세력들은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를 없애보려고 온갖 물질적 및 정신적 수단을 다 동원하여 덤벼들었다.

그러나 결국 망한것은 그들자신이였고 공산주의사상을 막을수 없었다. 파씨스트 히틀러가 그러하였으며 무쏘리니가 그러하였고 도죠가 그러하였다. 미제의 힘에 의거하여 공산주의를 반대해보려고 날뛴 리승만과 장개석의 운명이 그러하였다.

현시기 《반공》의 구호하에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침략정책도 총파산의 운명에 처해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사회주의와 혁명력량에 악랄하게 도전하고있으나 전반적추세로 보아 객관적정세는 의연히 사회주의와 혁명력량에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력량에 불리하게 발전하고있다.

특히 미제는 공산주의와 결전을 벌리고있는 웰남전선에서 돌이킬수 없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다. 미제는 근 40만에 달하는 자국병력과 수많은 추종국가 고용병까지 동원하여 웰남에서 패배를 만회하기 위한 이른바 《계단식전략》을 쓰고있으나 계속 심대한 패배를 당하고있다.

미제는 비단 웰남뿐만아니라 라오스, 타이, 도미니카, 꼴롬비아, 베네수엘라, 에꽈도르 등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자로서의 응당한 징벌을 받고있다.

미제는 지어 《동맹국》들로부터도 버림받고 더욱 고립되여가고있다. 오늘 프랑스를 비롯한 미제의 《동맹국》들은 웰남전쟁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미제의 《반공》전쟁모험에 잘 뛰여들려 하지 않고있으며 많은 대외정책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심각하게 대립되고있다.

《반공》괴수인 미제국주의자들의 멸망의 징조는 더욱더 뚜렷해지고있다.

공산주의승리와 제국주의멸망—이것은 현시기 사회발전의 기본추세이다.

이 추세는 조선에서도 례외로 될수 없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오늘 남조선에서 《반공》소동을 격화시키고있는 사실은 그들의 식민지통치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앞에 극도로 당황망조하여 자신을 《민주주의》로 분장하는것까지도 집어치우고 《반공》의 구호하에 파쑈테로통치에 매여달리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남조선괴뢰들은 그 어떤 기만술책으로도 인민들을 속일수 없으며 그들의 투쟁을 무마할수 없다. 그들은 저들의 매국배족적책동을 《반공》소동이나 그 어떤 허위적인 《민족주의》로써 결코 정당화할수 없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박정희일당은 그들의 매국배족행위를 반공산주의간판으로 가리려고 시도하면서 자신을 민족주의자로 가장하고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술책은 성공할수 없으며 그들이 미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의 주구라는 사실을 결코 숨길수 없다. 우리와 남조선괴뢰들파의 대립은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와의 대립인것이 아니라 애국자와 매국노간의 대립이다》(《조선로동당 창건 20주년에 제하여》, 단행본, 33페지).

《반공》은 애국애족, 민권민생, 자주자립, 자주통일과 결코 량립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체험을 통하여 《반공》의 구호하에 감행되는 원쑤들의 범죄행위를 점차 깨닫고 이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고있다.

《한일협정》의 체결, 국군의 웰남파병, 침략적인 《원조》 등으로 인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미제에 대한 환상이 깨여지고있으며 점차 반미기세가 높아가고있다. 《한일협정체결의 주범은 바로 미국이다》, 《우리는 웰남사태에 양키들의 총알방패가 될수 없다》 등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구호들은 그 구체적표현이다.

미제의 주구 박정희괴뢰정권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진출도 현저히 강화되고 있다. 이미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투쟁을 통하여 현괴뢰정권의 타도를 일정에 제기한지 오래다.

최근년간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투쟁에 약 200만명의 각계각층인민들이 참가하였으며 《나라팔고 족배드는 매국정권을 타도하자!》, 《박정희독재 뿌리뽑자!》 등의 구호를 들고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지금도 남조선인민들은 《한일협정의 무효화》, 《생활처지의 개선》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있다. 특히 그들속에서는 《웰남파병 반대투쟁》기세가 점차 높아지고있다.

이와 같이 《반공》의 구호하에 감행되고있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범죄행위는 남조선인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고있다.

남반부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무한히 고무하고있는것은 맑스—레닌주의사상,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이다.

맑스—레닌주의는 온갖 반동세력의 비방중상과 발악적인 항거를 짓부시면서 이미 10억이상의 인구가 사는 광대한 지역에서 현실에 구현되였으며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기치로 되고있다.

맑스—레닌주의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찬연히 열매를 맺고있다.

북반부인민들은 이미 맑스—레닌주의를 자기의 사상으로, 리념으로 접수하였고 공산주의자들의 령도밑에 경제와 문화의 번영을 이룩하고있다.

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떠드는 《반공》소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을 보고 판단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의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오늘날 자기들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점차 깨닫고 있다.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는 파쑈테로통치에서 신음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희망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현시기 남조선에서 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켜 반혁명을 고립시키고 혁명력량을 장성시키는데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공》책동을 폭로하고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공》사상을 뿌리뽑는것은 가장 긴급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남조선에서 《반공》사상은 오랜 력사적근원을 갖고있다. 주민구성에서 소부르죠아계층의 비중이 극히 높으며 대중의 문화수준이 비교적 낮은 기반우에 과거 36년간 일제가 악랄하게 《반공》사상을 주입하였으며 해방후 미제와 그 주구들이 광란적인 《반공》선전을 진행하여왔다.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들의 《반공》선전의 영향을 받고있으며 이것은 남조선혁명발전에 하나의 큰 장애로 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을 《반공》사상의 영향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을 폭로하고 그들의 침략적본성과 남조선사회의 식민지적성격을 발가놓으면서 《반공》사상을 반대하고 《반공》책동을 분쇄하는 적극적인 정치사상적진공전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외세의존사상을 반대하고 자주자립사상을 선전하며 민족허무주의사상을 반대하고 민족주체의식을 높이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공》, 사대주의 사상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인민들을 자주자립정신으로 교양하며 그들속에서 민족적궁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을 고취하는것이 필요하다. 민족자주의식이 높아질 때 그들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더욱 용감히 나서게 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공》사상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또한 맑스—레닌주의원리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적들이 《반공》선전에서 공산주의사상을 외곡하고 비방중상하는데 주력하고있는조건에서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인민대중속에 광범히 선전하여 그들에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옳은 인식을 배양하는것은 가장 절실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맑스—레닌주의사상선전에서는 특히 남조선 로동자, 농민대중에게 북반부사회제도의 본질과 그 우월성을 정확히 인식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북반부사회제도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져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맑스—레닌주의사상을 접수하고 혁명투쟁에 적극 나서게 될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04폐지).

적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반공》선전을 반대하는 사상정치사업은 대중의 수준에 맞게 그들이 당하고있는 절실한 문제로부터 점차 높고 깊은 문제에로 발전시켜 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적들의 《반공》책동은 그 매국배족적이며 반인민적인 본성과 허황성으로 하여 파산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타승하고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들의 《반공》선전을 진공적으로 분쇄하며, 《반공》의 이름밑에 감행되는 원쑤들의 파쑈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축적, 장성시킴으로써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준비있게 맞이하도록 해야 한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공》책동을 반대하는 정력적인 정치사상사업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이 높아지고 광범한 대중이 혁명적열의와 용감성을 가지고 투쟁에 떨쳐 나선다면 남조선혁명운동은 빠른 속도로 발전할것이며 남조선혁명의 승리, 조국의 통일은 드디여 실현되고야 말것이다.

농업생산과 과학기술적지도

김 계 현

우리 당대표자회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촌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중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당대표자회의 력사적인 보고에서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농촌경리에서는 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며 농촌지원을 계속 강화하며 협동농장들의 관리운영수준을 높임으로써 알곡생산을 훨씬 증가시키는 동시에 공예작물과 남새생산, 축산업, 과수업 등 모든 부문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앞에 제시된 이 과업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킴으로써 우리의 혁명기지를 공고히 꾸리고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관철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전체 농업부문일군들은 당이 제시한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의 촉진과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훌륭히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오늘 농촌경리부문앞에 제시된 방대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업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농업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는 기업적지도의 기본구성부분이다.

《기업적지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이다. 농업생산도 공업생산과 같이 하나의 기술공정이다. 농촌경리에서 기술의 역할은 더욱 높아가며 생산과정은 기술적으로 더욱 복잡하여지고있다. 지금은 기술을 떠나서는 농사를 지을수 없으며 기술을 모르고는 농사를 지도할수 없다》(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원래 대규모적인 사회주의농촌경리는 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필수적인 전제로 요구한다. 개인경리에서는 개인농자신들이 기술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농사일을 처리한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하에서는 모든 생산자들이 유일적인 지도에 의하여 움직이며 이러한 지도에서 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농촌경리를 제대로 운영해나갈수 없다.

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특히 기술혁명이 급속히 추진되고있는 우리 농촌의 절박한 현실적요구이다.

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최근년간 급속히 강화되였다. 특히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가리킨 길을 따라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원이 일층 강화됨으로써 농촌에서 기술혁명의 과업이 더욱 빨리 추진되였다. 지난 5～6년어간에만 하여도 저수지능력은 137.9%, 양수장능력은 205.5%로 장성되여 관개몽리면적이 113%로 늘어났으며 뜨락또르대수는 243.1%, 자동차대수는 441.9%로 장성되였다. 지금 뜨락또르만 하여도 매농장당 5대이상씩 차례지고있다. 전기화, 화학화에서도 큰 전진이 이루어져 농촌리의 96%, 농가호수의 81.3%에 전기가 들어갔고 경지정당 화학비료의 시비량은 1.8배로, 농약공급량은 1.7배로 장성하였다. 또한 농

촌경리는 일층 다각적으로 발전하게 되였고 그 집약화수준도 급속히 높아졌으며 농산, 축산, 과수, 잠업 등 각 부문들에 여러가지 선진영농기술이 널리 도입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농업생산과정은 더욱 복잡한 기술공정으로 전변되였다.

이것은 단위면적에 집중되는 과학기술수단들의 량과 종류가 훨씬 많아졌으며 매영농시기에 과학기술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문제들이 비할바 없이 증대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제 와서는 규모가 작고 부문구조와 기술공정이 단순하던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농촌경리를 도저히 운영할수 없게 되였다.

다른 한편 기술혁명의 심화와 농업과학기술발전자체의 합법칙성에 의하여 농업과학기술은 날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과정을 밟고있다. 오늘 농업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전문화된 여러 부문들과 많은 일군들의 공동의 활동에 의하여 추진되고있다. 이에 따라 자연과의 투쟁방법이 더욱 다양하여진 동시에 과학기술의 적용공정이 일층 복잡하여졌다. 이렇듯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농업과학기술의 성과들은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리용되여야 응당한 효과를 낼수 있다.

농업생산과정에 새로운 과학기술이 더욱 광범히 도입되면 될수록 응당 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더 높은 수준에 끌어올려야 한다. 이것은 특히 농업생산과정이 생명을 가진 유기체를 다룬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농업생산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농작물의 구체적 생육조건을 신중히 타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업생산과정에 과학기술적성과를 도입할 때에는 특별한 신중성과 구체적인 지도가 요구된다. 아무리 훌륭한 과학기술적성과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조건에 맞게 리용하지 못할 때에는 효과를 나타낼수 없으며 지어는 농사에 해를 줄수도 있는것이다.

오늘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우리 나라 농촌경리발전의 예비를 동원하는 결정적방도로 된다.

우리 당대표자회는 현존경제토대의 합리적리용을 현시기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농업부문에서도 이미 마련된 물질기술적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 중심적인 과업으로 되고있으며 바로 여기에 농업생산장성의 거대한 예비가 있다.

과학기술적지도의 강화는 급격히 장성된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내포하고있는 방대한 잠재력을 동원하는 열쇠이며 농업근로자들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물질적성과로 전변시키는 담보이다. 농업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하여야만 전국을 뒤덮고있는 관개체계의 위력을 더욱 발휘시키고 뜨락또르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의 리용률을 제고할수 있으며 화학비료와 농약의 효과성을 높이고 토지의 단위당수확고를 훨씬 증가시킬수 있다.

이 모든것은 과학기술적지도의 강화가 현시기 우리 나라 농촌경리발전의 초미의 문제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당은 이미 우리 나라 농촌경리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장래전망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그 지도수준을 높이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왔다. 우리 농촌의 현실과 지난 수년간의 경험은 우리 당의 이 예견성있는 조치의 정당성과 현명성을 확증하여주고있다.

당은 오늘 이미 달성한 성과와 경험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농업지도기관들의 지도수준을 높이고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를 확고한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움으로써 농업생산의 새로운 앙

양을 보장할것을 요구하고있다.

＊ ＊

최근 김일성동지는 황해남도를 비롯한 일련의 농촌지대를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농업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과업들을 명시하였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현시기 우리 나라 농촌경리발전의 절실한 요구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농업생산의 새로운 앙양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지침으로 된다.

오늘 농업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에서 선차적문제는 물관리를 잘하는것이다.

논벼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마다 가물과 홍수가 심한 우리 나라에서 물문제는 의연히 영농사업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당은 농촌기술혁명에서 수리화를 선차적과업으로 제기하고 한재와 수재를 방지하는데 커다란 력량을 돌렸으며 농업생산의 전과정에서 물관리를 잘할데 대하여 시종일관 깊은 주목을 돌려왔다.

이미 대규모적관개체계가 확립된 우리의 조건에서 오늘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관개시설들을 정비보강하고 그 리용률을 높이며 물을 농사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우리 인민의 줄기찬 토력투쟁으로 확립된 관개체계는 우리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그것은 우리의 영농사업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당과 국가는 이 관개체계를 정비보강함으로써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기 위하여 해마다 투자를 계속하고있다. 농업부문에서는 대상과 선후차를 옳게 가리면서 여기에 돌려지는 국가투자를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저수지, 구조물들과 수로를 상시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하며 더 많은 물을 잡고 큰 밑천이 든 물이 헛되이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들을 더욱 치밀히 강구하여야 한다.

오늘 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물을 과학적으로 공급하고 리용하는 체계를 확립하는것이다.

물은 땅의 성질과 농작물의 생육조건에 맞게, 농작물이 요구하는 시기에 필요한 량만큼 대주어야 큰 효과를 낼수 있는것이다. 따라서 과학적타산이 없이 논고나 막았다 열었다 하는것으로는 물관리를 다했다고 할수 없다. 물깊이, 물온도, 물소비량 등을 세밀하게 측정해야 하며 농작물의 생육시기별로 물을 과학적으로 대고 빼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

물관리에서 제기되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홍수와 관련한 피해를 방지하는것이다. 특히 많은 비가 내리는 7~8월 홍수기에 물이 고여있으면서 농작물에 주는 피해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섬멸전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농작물이 비록 몇시간만이라도 물에 잠기게 되면 그 자체의 생화학적과정이 정지되거나 파괴되여 수확에 큰 손실을 가져오는것이다.

양수기를 대대적으로 생산공급하고 디젤기관들과 전기동력, 뜨락또르동력 등을 최대한 리용하여 양수능력을 높이며 철도, 도로의 배수구를 늘여 짧은 시간내에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내리는 차제로 뽑아낼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또한 하천정리를 잘하고 밭에 물빼는 도랑도 치는 등 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밀히 강구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에서 계속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것은 토지관리를 잘하는것이다.

토지는 공업에서의 기계설비와 같이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이다. 공업부문에서 기계를 아끼고 그것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것과 같이 토지를 사랑하며 그것을 더 좋은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농업부문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된다.

우리는 새 땅을 더 얻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주로 있는 땅을 보호하고 개량하여 모든 땅에서 더 많은 소출을 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우선 농경지가 함부로 비생산적목적에 류용되는 현상과 강력히 투쟁하여야 하며 공장, 광산의 폐수로 오염되거나 미광에 덮여 못쓰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사방야계공사, 다락밭조성, 산림보호 등을 잘하여 홍수로 인한 땅의 류실을 적극 방지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토지를 적극 개량하는것이 중심적과업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는 진펄논, 저습논, 산성화된 땅이 여러곳에 있으며 여름까지는 작황이 좋았다가도 가을에 가서 소출이 떨어지는 땅도 적지 않다. 이러한 땅들을 적극 개량하면 모두 소출이 높은 땅으로 만들수 있다. 우리는 우선 이런 땅부터 시작하여 토지개량사업에 더욱 큰 힘을 몰려야 한다.

땅을 개량하기 위하여서는 해당한 땅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알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칠, 칼시움, 마그네시움, 망간, 붕소 등 원소가 부족한 진펄논, 저습논을 개량하는데 있어서는 광재라든가 객토를 내는것이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된다. 정주군 오산협동농장에서는 진펄논에 남포제련소의 동광재를 정당 1톤씩 내여 소출을 740키로그람씩 더 높였고 황철평로광재를 정당 1톤씩 내여 소출을 460키로그람씩 더 높인 경험을 가지고있다. 산성화된 땅을 개량하는 사업에도 계속 힘을 돌리는 동시에 우리는 화학비료의 공급량이 증가되는 사정을 타산하여 토양에 유기물질을 축적하기 위한 사업을 더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

토지의 비옥도를 체계적으로 높이며 수확고를 증대시킴에 있어서 과학적시비체계를 확립하는 문제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화학비료도 땅의 성질과 농작물의 요구에 맞게 질소, 린, 카리 성분을 배합하여주어야 하며 이외 각종 미량원소성분들을 적당히 안발침하여주어야 한다.

당은 지금 우리 나라 원료원천에 근거한 린, 카리비료의 공업적생산을 추진시키며 앞으로는 복합비료를 만들어 공급할 대책들을 예견하고있다. 우리는 초목회, 가금분 등 린, 카리성분이 있는 비료원천들과 각종 미량원소들이 포함되여있는 원천들을 모조리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화학비료의 리용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들에 더 큰 주의를 돌리는것이 중요하다. 화학비료를 잘 보관관리하며 농작물이 요구하는 가장 적당한 시기에 시비하며 비료성분이 해당 농작물에 완전히 흡수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료창고도 짓고 비료를 농작물에 주어야 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내주는 체계를 세워야 하며 농장원들로 하여금 논에서는 물고를 막고 비료를 뿌리며 밭에서는 곡식의 그루밑을 파고 묻어주게 하는 등의 세심한 사업조직이 있어야 한다.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작물과 품종을 적지적작의 원칙에 립각하여 정확히 배치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토양, 기후조건은 앞골짜기와 뒤골짜기가 다르고 같은 포전이라 하여도 필지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지대별, 포전

별, 필지별로 그리고 한필지내에서도 이러저러한 모든 조건들을 타산하여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여왔다. 또한 길가에는 들깨를 심고 울타리밑에는 줄당콩을 심고 퇴적장근방에는 호박을 심고 터밭가운데는 고추나 남새를 심고 그 주변에는 옥수수나 수수를 심는 등으로 땅의 위치에 따라서도 작물배치를 세밀히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살리면서 여기에 선진과학이 달성한 성과들을 옳게 배합하여 작물과 품종의 배치를 잘하는것은 농업생산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된다.

특히 기후, 토양, 로력 등 제조건을 종합적으로 타산하면서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작물 및 품종 배치를 고착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지금 일부 경우에 해당 지방의 땅, 기상조건과 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수확품종》이라 하여 일률적으로 심음으로써 작물과 품종배치를 뒤흔들리게 하는 실례들이 있다.

작물과 품종배치를 고착시켜야만 경종체계를 과학적으로 세울수 있으며 해당작물과 품종의 재배에서 계통적으로 경험을 쌓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종자체계도 확립할수 있다.

우리는 다수확품종이라 하더라도 자기 지방의 구체적조건에서 시험재배를 하여 충분한 경험을 쌓은 뒤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제도를 세워야 하며 주관적판단으로 똑똑한 근거와 파악이 없이 작물과 품종의 배치를 변동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작물 및 품종 배치에서는 해당지방에서 가장 많은 수확을 내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 옥수수가 잘되는데서는 옥수수, 콩이 잘되는데서는 콩, 고구마가 잘되는데서는 고구마를 심어야 한다. 이런 원칙에서 광범한 군중의 지혜와 과학기술력량을 밀접히 배합하여 매개 지역별, 포전별, 필지별로 가장 적당한 작물과 품종을 선택하고 그것을 고착시키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종자문제를 잘 해결하는것은 농업생산지도에서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는 《농사군은 죽어도 종자는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농업생산에서 종자의 중요성을 말하여주는것이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농업과학과 기술이 종자의 개량에 많은 힘을 돌리고있다. 우리는 종자문제만 잘 해결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에도 15~30%의 소출을 더 낼수 있다.

당은 농업생산에서 종자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육종 및 채종 사업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에 올려세우며 종자의 생산, 정선, 보관, 건조, 소독, 농약처리, 공급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유일적인 체계에 의하여 보장할 방침을 제시하고있다. 이것은 농민들의 부담을 덜면서 생산성이 더 높은 종자를 생산에 대대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우리는 농업과학기관들과 국가채종농장 그리고 매개 군의 채종전문협동농장 등을 더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임으로써 당의 이 방침을 훌륭히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채종 및 육종 사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서 오래동안 재배하여온 우수한 품종들의 원종, 원원종을 생산하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면서 보다 더 좋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배합하여야 한다.

당면하게는 매개 협동농장들에서 종자의 선정, 보관, 처리를 과학기술적요구에 엄격히 의거하여 진행함으로써 생산의 장성을 보장하여야 할것이다.

기계화가 광범히 추진되고있는 오늘 기계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개선하는것은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에서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기계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개선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기계화수단들의

리용률을 높여 기계화작업의 범위와 종류를 확대함으로써 농민들의 고된 로동을 덜고 농업로동의 생산능률을 훨씬 제고할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된다. 현재 농촌경리에 있는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높이는것만으로도 우리는 농업의 기계화를 크게 촉진할수 있다.

뜨락또르의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부속품들을 제때에 충분히 공급하며 뜨락또르운전수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함으로써 우리는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 하루빨리 끌어올려야 할것이다.

현존기계설비들을 잘 리용하도록 하면서 아직도 많은 로력이 들고 시기성을 요하는 수확작업을 비롯하여 논벼생산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할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농업로동의 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기계수단들과 함께 중소농기계와 소농기구들을 더 잘 만들어 제때에 농촌에 공급하는것이 필요하다. 중소농기계와 소농기구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병사의 저격무기와도 같이 중요한 생산도구들이다. 기계화작업의 범위와 종류가 확대되여도 농업생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중소농기구는 여전히 중요한 몫을 담당하여야 한다. 큰 기계만 생각하면서 중소농기계와 소농기구들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이 모든 중소농기구들을 더 좋은 재료로, 더 간편하고 더 능률적인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축산업과 과수업은 농산부문과 함께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중요구성부문들이다. 우리는 알곡생산을 비롯한 농산부문을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는 동시에 축산업, 과수업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들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축산업에서는 사료기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하여 소, 토끼, 양, 염소 등 초식가축을 위주로 하면서 가금, 돼지 등을 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산간지대보다도 기후가 온화하고 야산이 많고 2모작으로 사료작물을 많이 심을수 있는 평야지대에 축산업을 더 발전시킬수 있는 큰 예비가 있다. 당은 황해남북도, 평안남도를 비롯한 평야지대를 농산물의 기지로서뿐 아니라 축산물생산의 기지로 급속히 발전시킬것을 예견하고있다.

우리는 당이 가리키는바대로 논전작과 밭2모작, 과수원간작 등으로 사료작물을 많이 심는 한편 페경지, 공한지, 하천저수지주변, 야산과 뎌을 리용하여 공고한 사료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군중적운동으로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모든 가금과 가축들의 종축체계를 잘 세우고 생산성이 높은 젖소를 더많이 기르며 우리 나라에서 유리한 토끼를 대대적으로 사육하며 기르기 쉽고 젖을 많이 내는 염소와 기타 가금, 가축들을 많이 길러 고기, 젖, 알 등을 비롯한 각종 축산물생산을 급격히 증대시켜야 할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과수업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회의 이후 과수면적은 비약적으로 확장되였으며 새로 조성된 과수원들은 이미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다.

인민들의 생활향상과 외화획득을 위한 우리의 귀중한 밑천인 과수원들의 관리에서 현시기는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고비로 되고있다. 대다수 과실나무들의 년령으로 보아 지금 그 관리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장래의 생산성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과수원관리에서 오늘 중심적문제로 되는것은 전정 및 수관형성작업을 과학기술적요구에 엄격히 의거하여 진행하는것이다. 이 작업을 얼마나 질적으로 정확히 하는가에 따라 과수원들의 장래운명이 좌우된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유능한 일군들로 전정작업을 정확히 진행케 하고 전반적비배관리를 잘함으로써 모든 과수원들에서 열매가 열리는 시기를 앞당기며 정당 수확고를 높여야 할것이다.

또한 로력과 기타 모든 조건을 타산하면서 고급품종 그리고 비료와 농약이 적게 들고 빨리 따먹을수 있는 품종들로 과수면적을 더 늘이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에서 제기되는 이상과 같은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농업의 실태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기초자료들을 갖추어야 한다. 물, 땅, 농업기상, 사료기지 등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서 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거하여서만 물관리와 토지개량, 그리고 작물 및 품종배치를 더 잘할수 있고 채종 및 육종 체계, 시비체계와 농작물의 관리체계를 보다 정확히 세울수 있다.

이로부터 오늘 당은 농업의 모든 실태를 더 정확히 료해장악하기 위한 조사사업을 대대적으로 조치하고있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이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시켜야 한다.

우선 관개하천실태조사에서는 물이 고이는 지대와 그 물을 뽑기 위한 공사대상, 저수지로부터 논판까지의 수로 및 구조물, 대소강하천, 해안방조제 등 일체 대상을 조사하여 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과학적인 급수 및 배수 체계를 세울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야 한다.

토양조사에서는 넓은 면적의 논밭을 단위로 몇가지 큰 지표만을 분석할것이 아니라 협동농장별, 포전별 토양의 형태학적, 기계적 및 화학적, 미생물학적분석을 다 잘하여야 하며 다량원소와 함께 몰리브덴, 붕소, 동, 아연, 규소, 망간, 코발트 등 미량원소의 함유량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한필지의 논밭을 조사해도 언제 개간했고 오늘까지 어떤 작물과 품종을 심어왔는가, 시비조직은 어떻게 했고 어떤 병충해를 받아왔는가, 수확고는 어떠했는가 등을 력사적으로 연구분석해야 하며 농업기상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에서는 강수량, 온습도 등 기본지표들과 함께 해당지대에서 살구꽃이 언제 피는가, 종달새가 언제 우는가 등 자연동식물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과수원, 뽕밭 등을 포함하여 모든 대상을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조사장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태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는 농업생산의 각 부문별로 당면 및 전망 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관철해나감으로써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를 빠른 기간내에 더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며 알곡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할것이다.

* · *

농업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에서 제기되는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업을 직접 담당수행하는 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 무차 간곡하게 교시한바와 같이 지도일군들은 기계나 논밭을 보기전에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광범한 농촌근로자들과 농업과학자, 기술자들을 잘 교양하고 그들이 모두 자각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여야만 제반 과학기술적대책들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고 농업생산이 급속히 발전할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우선 물관리공, 뜨락또르운전

수, 과실나무전정사, 가축사양공 등과 같은 기술관리의 전초선에 선 농업근로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생산의 전과정이 더욱더 복잡한 기술공정으로 전환되고 영농작업의 매개 행정에 과학기술이 더깊이 침투되고있는 오늘 이들은 생산자들인 동시에 기술관리를 직접 실현하는 사람들이다. 농촌에 공급되는 제반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리용하는 사람들도 광범한 농업근로자들이며 농작물의 생육과정에 과학기술을 적용하는 사람들도 생산자대중들이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도 모두 이들의 손을 거쳐 생산에 도입되며 그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물관리를 담당한 사람들, 뜨락또르와 련결기를 운전하는 사람들, 비료와 농약을 뿌리는 사람들 등 기술관리의 전초선에 서있는 사람들을 잘 선발배치하고 그들의 책임성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은 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업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대렬을 기술혁명의 초소들을 능히 담당할수 있는 일군들로 꾸리는것이 중요하다. 평북도 녕변군 구산협동농장에서는 땅을 잘 아는 실농군을 물관리, 비료주기작업 등에 고착시켜 물과 비료의 효과성을 높인 좋은 경험을 가지고있다. 농사경험도 있으며 과학기술지식도 능히 습득하고 적용할수 있는 일군들에게 이러한 초소를 맡겨야만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풀릴수 있다.

동시에 이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자기가 맡은 초소가 오늘 농업생산과 기술혁명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는것을 자각하고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것으로써 당과 혁명에 기여하겠다는 높은 책임감을 간직하게 하여야 한다.

이들에게는 또한 사업에 필요한 과학기술지식을 반드시 가르쳐주어야 한다. 물을 관리하는 일군이라면 응당 벼의 생육시기별로 적당한 물온도, 물깊이를 비롯한 일정한 원리들을 알게 하여야 하며 비료주기작업을 담당한 일군들에게는 질소, 린, 카리 비료성분들과 미량비료성분이 곡식이 자라는 시기에 따라 어느 정도 요구되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등의 지식을 알고있어야 한다. 이래야 모든 일군들이 자각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술관리를 잘할수 있다.

농업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농업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야만 기술혁명수행에서와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해결할수 있으며 광범한 농촌근로자들의 기술수준을 빨리 제고시켜 그들을 기술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킬수 있다.

우리는 모든 농업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 나라의 실정 특히는 해당지방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가장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그들의 력량을 집중하게 하여야 한다.

우선 현재 대대적으로 조직되고있는 실태조사사업에 과학자, 기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매개 지역의 구체적 실태들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이것은 당면한 기술적지도를 위해서뿐 아니라 그들의 과학연구사업을 위해서도 절실한 의의를 가진다.

농업과학자, 기술자들이 약동하는 현실에 침투될 때 그들의 과학연구사업은 실천의 요구에 더 잘 적응될것이다. 농업과학자, 기술자들은 응당 우리 농업의 구체적실천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문제의 해결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당면한 문제들을 위주로 하면서 전망적

인 문제들을 배합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농업과학자, 기술자들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생산자대중속에서 나온 선진적인 싹들을 적극 지지하고 완성하며 그들의 귀중한 경험들을 일반화하는것이다. 대중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싹들은 모두 농업생산실천의 절실한 요구들을 반영하는것들이다. 이것을 지지장려하고 과학기술력량을 배합하여 완성하는것은 과학기술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과학자, 기술자들로 하여금 연구실, 실험실의 울타리를 벗어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며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에 그들의 과학기술지식을 옳게 배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는 대중이 쌓은 귀중한 경험들을 리론적으로 분석체계화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키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자, 기술자들은 대중의 기술지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과학과 기술의 사명은 생산자들을 선진과학기술로 무장시키고 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보장하는데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 기술의 원리와 그 적용방법 등을 해설선전하는 글도 많이 쓰고 대중속에 그것을 알려주는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생산자들이 과학기술의 성과를 능숙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를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모든 과업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을 비롯한 각급 농업지도기관들과 그 일군들의 기업적 지도수준을 높임으로써만 해결될수 있다.

기술적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기업적 지도는 우리의 농업지도기관들의 본래의 사업방법이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설한 목적자체가 농업생산에 대한 행정식지도를 퇴치하고 기업적지도 특히는 과학기술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선 중요한것은 경영위원회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이다…경영위원회의 본래의 사명에 부합되게 협동농장들을 반드시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아직도 남아있는 행정식지도의 낡은 틀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고유한 지도방법, 기업적 방법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우리 나라 농촌경리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며 오늘 농업부문지도일군들 앞에 우리 당이 제기하고있는 중요한 혁명임무이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는데서 매개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훌륭히 발휘되여야 한다.

각급 농업지도기관들과 농업지도일군들은 낡은 사업방법, 낡은 사상잔재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화하여야 하며 자기의 지도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에 적극 힘써야 한다.

이러한 기초우에서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농촌근로자들, 농업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며 특히는 그들의 사업조건을 잘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농민들의 로동조건과 주택, 연료, 부식물 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생활조건을 적극 개선하며 농업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활동조건들을 더욱 잘 보장하여줄 때 당이 제시한 모든 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실현될것이다.

우리의 모든 농촌지도일군들은 현시기 농업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우리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영예로운 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대규모기업소와 중소규모기업소의 배합

홍 승 은

우리 당대표자회는 대규모기업소들과 중소규모기업소들을 계속 병행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중요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대규모기업소들과 중소규모기업소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발전의 매단계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과업과 현실적인 경제기술적가능성들에 기초하여 대규모기업소들과 중소규모기업소들을 합리적으로 결합하여왔다.

현시기 대규모공장들과 중소규모공장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발전시키는것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며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을 실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규모기업소와 중소규모기업소의 발전을 적절히 배합하는 방침을 시종일관하여 실시하여왔으며 여기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대규모생산과 중소규모생산의 발전을 적절히 배합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생산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의 극복을 촉진하는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레닌도 일찌기 인민경제부구건설에서 《…방대한 식량, 원료 및 연료의 국가예비를 조달하거나 수송하지 않아도 되는 지방의 소규모공업을 발전앙양시키》(레닌전집 제32권, 491페지)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대규모생산은 물론 사회주의적생산의 기본형태이며 그에 고유한 경제기술적우월성을 가지고있다. 대규모기업소는 현대적기계설비와 선진기술에 기초하며 생산과 로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직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제품의 원가를 낮출수 있게 한다.

그러나 대규모기업소의 건설에는 많은 기본건설투자가 요구된다. 또 투하된 자금의 회전기간도 길다. 뿐만아니라 생산지와 소비지의 접근, 지방경제의 발전, 지방원료, 자재 및 로력의 리용에서 일정한 제한성을 가진다.

대규모공장, 기업소들의 이러한 제한성은 거기에 중소규모공장, 기업소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발전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극복할수 있다. 중소규모공장, 기업소들은 국가의 큰 투자없이 지방의 원료, 자재, 로력을 리용하여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킴으로써 지방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 그것은 전국 도처에 널리 분포될수 있으며 따라서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을 촉진하고 도시와 농촌을 더욱 접근시킬수 있게 한다.

대규모기업소와 중소규모기업소들을 배합하여 발전시킨다면 그것들은 각기 자체의 우월성을 더잘 발휘할수 있으며 서로서로의 부족점을 보충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을 힘있게 촉진시킬수

있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부터 벌써 대규모 기업소와 중소규모기업소를 적절히 배합하여 발전시키는 방침을 실시하였다.

해방후 우리 당은 중요산업국유화를 실시함으로써 생산력발전의 광활한 길을 열어주고 대규모기업소들의 복구발전에 힘쓰는 동시에 중소규모기업소 특히 인민소비품생산부문에서 중소기업소들의 발전에 심중한 관심을 돌렸다. 그리하여 대규모공장, 기업소들에서 복구발전이 진행되고 생산이 급속히 장성되였으며 중소규모공장, 기업소들의 생산도 현저히 장성됨으로써 해방후 파괴된 경제의 복구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였다.

경제건설에서 중소규모기업소를 적극 리용하는 우리 당의 방침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그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중소규모공업기업소들은 전시피해를 적게 입었을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손쉽게 복구할수 있었으며 간편하고 단순한 기술체계를 가지고 비교적 정상적인 생산을 유지할수 있었다.

또한 중소규모지방공업기업소들은 전시조건에서도 자원과 수요가 있는 임의의곳에 신속히 이설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었다.

우리 당은 전시에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현대적대규모공업기지들을 꾸리는 동시에 지방공업의 특성과 유리성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그것을 광범한 지역에 분포발전시키도록 하였다. 전시에 국가는 지방공업에 필요한 투자를 실시하고 긴요한 원자재들을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그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방조를 주었다.

지방공업은 일부 식료품들을 비롯한 일용필수품들의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이리하여 지방공업생산액은 전시조건에도 불구하고 1949년의 수준을 거의 유지하였으며 전선과 후방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전후복구시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당은 대규모중앙경공업기업소들의 복구, 확장 및 신설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거기에 국가적력량을 돌리는 동시에 중소규모지방공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전후인민경제의 복구건설과업의 요구에 상응하게 지방공업을 정비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당은 지방공업기업소들을 지방원료원천에 의거하여 발전시키도록 하였으며 그것들이 소비품생산을 증대시키는 한편 중소농기구 및 건재품 등의 생산도 확대하도록 하였다.

대규모공장, 기업소와 중소규모공장, 기업소를 적절히 배합하여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로 된것은 당중앙위원회 1958년 6월전원회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직접적 발기에 의하여 지방적예비와 가능성을 광범히 동원하여 국가의 추가적투자에 크게 의존함이 없이 지방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급속히 장성되는 인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데 대한 방침이 제시되였다.

이 방침에 의하여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국도처에서 지방산업의 대대적인 건설사업이 전개되였다.

6월전원회의이후 1958년말까지의 반년도 채 못되는 기간에 전국각지에 1,00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건설되고 그 대부분이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지방공업기업소수는 비약적으로 증대되였다. 경공업제품생산에서 지방공업이 차지한 비중은 1962년에 51%에

달하였으며 소비품생산에서 지방공업의 지위가 획기적으로 제고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방침에 의하여 경공업부문에서 대규모중앙공업과 중소규모지방공업의 합리적인 병진이 이루어지고 짧은 기간내에 인민소비품생산이 급격히 증대되였으며 대규모경공업공장들과 광범히 분포된 지방산업기지로 구성된 자립적경공업기지가 튼튼히 꾸려졌다.

경공업부문에서의 대규모공장과 중소규모공장의 적절한 배합의 실현, 지방적예비와 잠재력에 기초한 인민소비품 생산의 대대적인 증대는 더욱 많은 국가자금을 중공업건설에 돌릴수 있게 하였으며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크게 촉진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중소규모지방공업이 전국각지에서 광범히 건설됨으로써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를 더욱 밀접히 발전시킬수 있게 되고 지방의 경제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으며 나라의 생산력배치의 균형을 현저히 개선할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의 경험은 경공업부문에서는 그 경제기술적특성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대규모공장과 중소규모의 공장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것이 합리적이며 특히 기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규모가 작은 지방공장들을 광범히 건설하는것은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소비품생산의 장성과 전반적인 공업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방공업의 건설은 또한 나라의 모든 지방을 고르게 발전시키며 특히 공업을 농업에 접근시키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42페지).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에 의하여 중소규모공장, 기업소들은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여왔다. 지방공업의 생산액은 1961～1965년간에 약 2.1배로 장성하였으며 지방의 공고한 소비품생산기지가 꾸려졌다. 경공업부문에서뿐만아니라 중공업부문에서도 대규모공장과 중소규모공장의 발전을 배합할데 대한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전원회의이후 채취공업, 기계제작공업, 전력공업, 림업 등 중공업부문들에서 중소규모공장, 기업소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였다. 이리하여 1961～1965년간에 중공업 및 경공업부문에서 새로 더 건설된 중소규모공장들과 직장 및 분공장들만 하여도 2,300여개에 달한다.

대규모기업소와 중소규모기업소의 배합발전은 전후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며 빠른 기간내에 자립적민족경제의 기초를 축성하는데서 실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중소규모공장, 기업소들을 더욱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관리운영수준을 높임으로써 그것들의 본래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것은 이 부문앞에 제기되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　　*

대규모공장, 기업소들과 중소규모공장, 기업소들을 배합하여 발전시키는것은 현정세하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을 실현하는 방도의 하나이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전략적방침을 관철시키는데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

였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 이것이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이며 바로 여기에 생산의 장성과 인민생활향상의 거대한 예비가 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급속히 촉진시키는 과정에 우리 경제에는 방대한 새로운 생산능력과 함께 거대한 생산잠재력이 조성되였다. 이 생산잠재력과 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는것은 오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우리 나라 경제는 과거 사회로부터 식민지적락후성과 편파성을 물려받은데다가 지난 전쟁의 혹심한 피해를 입은 조건에서 전후의 짧은 기간에 급속히 꾸며진 관계로 전반적경제부문들에서 골간은 형성되였으나 아직 살이 충분히 붙지 못하였으며 기본적인것은 해결되였으나 부차적인것은 아직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의 경제토대는 자기위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있다.

공업의 부문구조상 이러한 부족점들을 극복하고 생산잠재력을 다 리용하여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자면 공업의 생산구조를 더욱 개선하여 우리의 공업을 부문간, 부문내부간, 공정간 조화가 더 잘 잡힌 공업으로 꾸리며 이미 건설하여놓은 공장들에 살을 붙여 모든 공장들을 갖출것을 다 갖춘 온전한 공장으로, 자기능력을 다 발휘할수 있는 완비된 공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긴절한 대규모공장들의 건설을 진행하는것과 함께 여러 공업부문들에서 중소규모공장, 기업소들을 더욱 많이 건설하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소규모공장들은 소요량이 비교적 적은 여러가지 제품들을 효과적으로 생산할수 있다. 이것은 국가자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짧은 기간에 공업에 살을 붙여 그 부족점을 보충하고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킬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 중공업부문들이 소요량은 비교적 적으면서도 공정상 없어서는 안될 수많은 제품들의 생산을 원만히 진행하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중소규모생산의 이러한 유리한 특성을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소규모생산의 경제기술적특성을 옳게 타산하여 해당한 품종의 생산을 조직하는 방향에서 중소규모생산을 대규모생산과 잘 배합한다면 그것이 곧 현존경제토대에 살을 붙이고 기본적인 부문에 부차적인 부문을 맞물리게 하는 것으로 되여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하게 된다.

대규모기업소와 중소규모기업소의 발전을 배합하는것은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우리 인민경제의 다면적이며 종합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각종 공업제품에 대한 자급률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다. 생산부문들과 기업소들을 보강하고 완비하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개선하며 대규모기업소들과 중소규모기업소들을 계속 병행하여 발전시키며 나라의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특히 지방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중소규모공장들의 발전은 그것들 호상간에서와 대규모기업소들과의 배합작전으로 사회적생산을 더욱 합리적으로 조직할수 있게 한다. 한두가지의 부속품이나 부분품, 소요량이 그리 많지

않은 여러가지 제품들을 생산하는 전문화된 중소규모공장들은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적지 않은 역할을 놀수 있다.

중소규모공장, 기업소들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전시조건하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소규모공장, 기업소들은 평시에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피해를 적게 입고 전선과 후방에서 소요되는 제품들을 중단함이 없이 생산공급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중소규모생산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전시에 매개 지방들이 자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조직하는데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공장, 기업소들과 중소규모공장, 기업소들의 발전을 적절히 배합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현시기 우리 나라 인민경제앞에 제기된 절실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며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에게는 경공업부문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공업부문들 특히 화학공업, 기계공업, 채취공업, 동력공업 등 부문들에서 대규모공장, 기업소들과 중소규모공장, 기업소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발전시키는것이 필요하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최근년간에 광범히 설치된 중소화학공장들을 잘 꾸려 경공업과 인민경제 각 부문에 필요한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을 더많이 생산하도록 하며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부속품, 부분품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규모기계공장들을 더많이 창설하여 대규모기계공장들과 잘 배합시키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이미 개발된 중소탄광, 광산들을 더잘 꾸리고 기술장비를 개선하며 새로운 중소탄광, 광산들을 적극 개발하여 석탄, 광석에 대한 수요를 보충적으로 충족시키며 지방적수요를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또한 나라의 동력기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대규모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들의 건설에 힘을 집중하면서 각지에 중소규모발전소들을 계속 건설하는것이 필요하다. 산간지대, 내륙지대에 중소수력발전소들을 건설하며 수력자원이 적은데서는 중소규모화력발전소, 디젤기관발전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다른 공업부문에서도 그 부문의 특성에 맞게 중소규모공장들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킬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경제적리익과 국방상 리익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며 나라의 모든 지방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원칙에서 대규모공장, 기업소들과 중소규모공장, 기업소들의 발전을 배합하며 생산력의 지리적배치를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깊이 연구하고 참작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중소규모지방산업공장들을 잘 꾸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현시기 대규모공장, 기업소와 중소규모공장, 기업소의 발전을 적절히 배합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중공업의 골간이 꾸려지고 중소규모공장의 급속한 발전에 더욱 강력한 물질기술적지원을 줄수 있게 된 조건에서 실시되고있으며 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는데서 중소규모공장, 기업소가 가지고있는 유리한 특성을 더잘 리용하기 위한것이다.

대규모기업소들은 자체의 정비보강사업과 함께 중소규모기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데 적극 방조하며 특히는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공정을 완성하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각종 기계, 설비들을 더많이 생산공급해주는것이 필요하다.

지방들에서 중소규모공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자체의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방의 중소산업이 가지는 중요한 우점의 하나는 그것이 지방의 원료에 의거할수 있다는데 있다. 더우기 전시조건하에서는 지방의 중소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을 중단없이 진행할수 있게 하는 지방적원료원천을 백방으로 확대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중소공업의 발전에서는 원거리에서 수송하여야 할 원자재들 특히 수입 원자재들에 의존하지 않고 원료문제를 해결하는 과업을 심중히 타산하여야 할것이다.

중소규모공업의 성과적인 발전을 위하여서는 새로운 중소규모공장들을 적극 건설하는 동시에 이 공장들의 생산을 시급히 정상화하며 특히 제품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강구하는것이 중요하다.

매개 중소규모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전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자기들의 모든 지혜와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그들에 대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군중적운동으로 기술혁신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며 선진기술공정과 선진작업방법을 적극 도입하며 일군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백방으로 제고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리하여 중소공장들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제품의 질을 높일데 대한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을 실현하는데 응당한 기여를 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중소규모기업소들의 관리운영수준제고를 위한 조직적인 지도대책이 요구된다. 중소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고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의 정상화를 위한 치밀한 조직적대책을 강구하는것이 필요하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력사적과업들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대규모기업소와 중소규모기업소의 발전을 적절히 배합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관철시키는것은 커다란 정치경제적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대규모기업소와 중소규모기업소의 발전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매개 부문, 지역, 공장, 기업소의 특성에 맞게 정확히 관철함으로써 대표자회에서 제시된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전략적방침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학사상가들의 애국자주사상

김 창 원

우리 인민은 외래침략을 물리치고 민족적자주권을 고수하며 나라의 경제와 과학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선조들의 줄기찬 투쟁과정에서 이루어진 애국자주사상의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있다. 그중에서 우리 나라의 사상문화발전에 빛나는 업적을 남긴 실학사상가들의 애국자주사상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실학사상가들의 애국자주사상은 17~19세기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절박한 요구의 반영이였으며 그들의 민족적자각의 발현이였다.

실학사상이 발생발전한 당시 리조봉건국가의 사회적모순은 극도로 첨예화되여있었고 도탄속에 신음하는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며 나라의 부강발전을 도모하는 문제가 아주 절박하게 제기되여있었다. 그러나 부패타락한 리조봉건통치배들은 나라의 운명과 인민생활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권세다툼과 인민수탈에만 몰두하였으며 무너져가는 봉건통치를 부지하기 위하여 외세에 아부굴종하면서 인민들속에 사대주의사상을 주입하기에 광분하였다. 그들은 봉건통치의 《영원성》과 《절대성》을 합리화한 성리학의 교리를 무조건 숭상하였고 실생활과 완전히 유리된 공리공담을 일삼고있었다. 그들은 주자의 교리와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선진적사상을 내놓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문란적》으로 몰아 가혹한 탄압을 가하였다. 17세기의 극악한 사대주의자인 송시렬은 큰 나라의 능력을 절대화하면서 그에 복종하는것이 마치 천리에 부합되는것처럼 선교하였으며 지어 주자의 교리에는 한 글자의 오유도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그를 변호하는 글을 썼다.

이리하여 리조봉건통치배들의 부패타락을 반영하여 성리학은 더욱 반동화되고 사대주의, 독경주의, 모방주의의 폐풍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그것이 국가생활에 주는 해독은 실로 극심하였다.

당시 제기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며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사대주의와 성리학의 반동사상을 비판극복하고 우리 나라 현실에 립각한 자주적이며 실천적인 학문을 수립하는것이 필요하였다.

다른 한편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임진조국전쟁과 여러 차례의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 투쟁과정에서 인민들의 민족적각성과 애국자주의식이 더욱 높아졌으며, 17~18세기에 린접국가들의 경제, 과학, 문화, 서구라파의 자연과학기술과의 빈번한 접촉은 선진적학자들로 하여금 시야를 더욱 넓히고 자기를 깨닫게 하는데 유리한 계기로 되였다.

이리하여 17~18세기에 첨예화된 사회계급적모순과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하여 그리고 우리 인민의 선진사상의 전통과 과학문화의 새로운 성과들에 토대하여 선진적실학사상이 형성발전되였다.

실학사상가들은 자연과 사회의 구체적인 사물현상에서 진리를 탐구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백성들의 생활안정에 실지 도움을 주는 쓸모있는 학문을 창시하려 하였다. 실학사상가들은 실천과 유리된 성리학의 반동적학풍, 사대주의, 독경주의, 모방주의를 반대하고 《실사구시》, 《리용후생》의 구호하에 학문의

중심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 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연구에로 집중시켰다. 즉 나라의 부강발전에 필요한 자연과학, 기술, 우리 나라의 력사, 지리, 풍속,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제문제에 대한 연구에 힘썼으며, 당시 첨예화된 사회적모순을 폭로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선진적개혁사상을 전개하였다. 실학의 방법으로서의 실사구시는 우리 나라의 사회적실천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연구에 기초한 진리탐구를 의미하였으며, 나라와 인민생활의 절실한 문제들이 실학의 내용을 이루고있었다.

이와 같이 자주적인 학문, 실천적이며 창조적인 학문을 주장한데 실학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었다. 그리하여 실학사상가들에게 있어서 민족적자주의식과 애국애민의 사상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실학사상은 17세기에 리수광, 류형원 등에 의해 그 기초가 닦아졌으며 18세기에 리익,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에 의해 심화발전되고 19세기초 정약용에 의해 더욱 완성되였으며 그후 리규경, 최한기 등에 의해서도 전개되였다. 실학사상가들의 견해에는 사회력사적조건의 변화발전에 따르는 일정한 차이와 더불어 공통되는 특징들이 있었으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의 하나가 애국자주적립장이였다.

* *

실학사상가들의 애국자주사상은 우선 대국주의,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성을 적극 주장한데서 표현되였다.

당시 사대주의에 물젖은 봉건통치배들은 큰 나라가 중심이 되여 모든 민족을 통치하며 기타 민족은 그 나라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춘추의리설》을 포함하는 주자의 교리를 절대적인것으로 신봉하였으며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복종하는것은 천명에 부합되는 의로운 행동으로서 나라의 태평을 보존하는 방도로 되는듯이 설교하였다.

실학사상가들은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엄중히 저해하고있던 이러한 《춘추의리설》, 대국주의, 사대주의를 반대하는데 큰 힘을 기울였다.

그들은 인류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 나라들간의 구별이 생기게 되였고 그것들은 다 평등하며 자주적이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졌다. 그들은 광대한 세계령토는 어느 한 나라가 독차지하고 지배할수 없는것이며, 평등한 대소 국가들이 함께 령유하고 통치하여야 마땅하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실학사상가들은 대국주의자들, 사대주의자들이 어떤 큰 나라를 절대시하면서 그가 마치 세계의 중심으로 되여 작은 나라를 지배하는 특권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듯이 생각하는것을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모두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보고 자기 나라의 자주성을 지키는 립장에 서는것이 응당한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홍대용은 《지구상에서 삶을 향유하는 모든 인류는 다 같은 사람이며…하늘의 립장에서 보면 어찌 내지와 외지의 구분이 있으랴…각각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풍속을 편리하게 생각하는것은 본토나 외방이나 다 마찬가지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대국주의자들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해하는것을 응당한것으로 보는 견해를 반대하면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해하는것이나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침해하는것이나 다 같은 침략행위로 된다는것을 밝혔다.

실학사상가들의 자주사상은 세계에 대한 넓은 지식, 특히는 당시 자연과학의 성과들에 기초하고있었다.

홍대용은 지구와 천체에 대한 관측방법을 분석하면서 개별적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지구의 정면으로 보고 다른 나라를 지구의 측면으로 생각하나 《기실은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 이상 어느 지역이나 다 그러하여 어떠한 측면이란 존재하지 않고 어디나 다 지구의 정면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정약용은 큰 나라를 무근거하게 세계의 중심으로 정해놓고 그를 표준삼아 동이요, 서요 하는것을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매개 나라는 응당 자기 나라를 중심에 놓고 사물을 고찰하여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나라가 평등하여야 한다는 정당한 견해로부터 출발하여 실학사상가들은 대국주의자들, 사대주의자들을 반대하고 학문연구와 실천사업의 목적이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데 돌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학사상가들의 애국자주사상은 또한 모방주의와 독경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는데서 표현되였다.

당시 제정신이 없는 사대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의 현실과 력사, 문화전통을 연구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의 것을 허무주의적으로 대하고 남의것만 덮어놓고 숭상하고있었다.

실학사상가들은 이러한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적 태도를 신랄히 비판하고 학문연구와 실천사업에서 자기 나라와 인민을 위하는 애국애민의 립장, 자주적립장에 설것을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당시 류행하고있은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적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수십년내로 일종의 괴이한 리론이 류행하고있는데 그것은 우리 나라 문학을 덮어놓고 배척하는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선배학자들의 문집은 보려고도 하지 않으니 이것이 큰 병통이다. 선비의 자세로서 우리 나라의 고사를 알지 못하고 선배들의 리론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의 학문이 비록 고금을 꿰뚫고있다 하더라도 이는 한갖 고루하고 무식함을 면하지 못할것이다》.

실학사상가들은 사대주의와 모방주의에 떨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나라와 인민을 위하는 립장에 서지 못하고 학문연구와 실천사업의 목적을 옳게 세우지 않은데 있음을 분석하고 학문연구와 실천사업에서 우선 나라와 인민을 위하는 옳은 목표를 세우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실학의 선구자인 리수광은 성리학자들의 사대주의, 모방주의, 독경주의를 비판하면서 학습에서 옳은 지향과 목표를 세우는것이 선차적의의를 가진다는것을 강조하였으며 그것을 활쏘기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배우는것은 활을 쏘는것과 같다. 활을 쏘는자는 그 지향을 과녁에 두는것이다. 지향을 과녁에 둔다면 명중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목표와 멀지 않을것이다. 그러므로 배우려면 지향을 세우는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엄정한 목표를 가지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학사상가들은 학문연구와 실천사업의 지향과 목표를 나라의 부강발전과 백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두었기때문에 나라와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학문은 가치가 없는것으로 락인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과학, 문화, 군사의 제문제들, 우리 나라의 력사, 풍속, 언어 등을 깊이 연구하는데 힘썼다. 정약용은 《진정한 학문은 본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인민을 편안하게 하며 외적을 물리치고 재정을 넉넉하게 하며 문무에 능통하여 무엇이든지 담당할수 있도록 하자는것이며》《서술과 연구는 마땅히 자기 나라의것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실학사상가들은 또한 사대주의와 독경주의, 모방주의에 떨어지는 원인이 매개 나라가 고유한 력사와 문화, 풍속, 습관 등 자기 특성을 가지고있으며 또 모든 문화가 일정한 시기성을 가지고있음을 모르는데 있다고 정당하게 지적하였다.

사대주의자들, 모방주의자들은 시대적조건과 나라의 제도, 풍속이 다르다는것을 무시하고 우리 나라 실정에 부합되지도 않는 공자의 교리, 주나라의 례, 주자의 교리를 만세불변의 법칙처럼 받들고 그것을 덮어놓고 흉내내려고 하였다.

실학사상가들은 흉내내고 모방만 하면서 부끄러운줄 모르는 사대주의자들을 조소하여 《아무데나 머리를 숙이는 용드레》, 《앵무새》라고 락인찍었다. 박지원은 《수박을 겉만 핥고 후추를 통으로 삼키는자와는 맛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없고 친구의 털옷이 부러워서 한여름에 빌려입고 나서는자와는 계절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없는것》처럼 모방만 일삼는 얼빠진자들과는 참다운 문학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이와 같이 사대주의와 독경주의, 모방주의를 반대하면서 실학사상가들은 제

정신을 가지고 살며 자기 나라와 인민의 풍속과 생활감정에 어울리는 문화와 문학을 창조하며 선행한 고전작품들, 특히 민족적정서가 짙게 풍기는 민요와 속담 등 구전문학을 연구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홍대용은, 한시를 모방하고 숭상하면서 민요를 깔보고 수집조차 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통탄하면서 우리 나라 민요 천여편을 수집하여 《대동풍요》라는 시가집 2책을 만들었다. 박지원은 구전설화를 많이 연구하고 그것에 기초한 우수한 소설작품을 수많이 창작하였으며 정약용은 속담을 수집정리하여 《이담속찬》을 썼다.

실학사상가들의 애국자주사상은 쇄국적인 배타주의와는 인연이 없었다. 그것은 선진과학기술을 섭취하여 자기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자주적인 진취성을 내포하고있었다. 실학사상가들은 선진과학기술을 배우지 않는것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백성들의 생활안정에 손실을 끼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협애한 울타리안에 머물러있지 말고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허심하게 받아들일것을 강조하였다. 박지원은 《천하를 위한다는 사람은 적어도 그것이 인민에게 리롭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것이라면…마땅히 그것을 리용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열가지를 배울 때에 이넉은 백가지를 배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나라 인민들에게 리익을 주어야 할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나라의것을 배울때 아무것이나 다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인정하였다. 우선 그것이 우리 나라에 리익으로 되는가 안되는가를 가려서 유리한것은 섭취하며 불리한것, 이를테면 우리의 례절과 전통에 어긋나며 인심을 혼란시키는 좋지 못한 풍속같은것은 섭취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시 새로 들어오고있던 서구라파의 자연과학기술을 섭취하는데서는 누구보다도 선도적위치에 서있었으나 그와 함께 들어오고있던 천주교의 교리에 대해서는 그의 허망성을 제때에 간파하고 그를 배격하는 정당한 립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나라와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을 섭취함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에서 그것이 창조된 바탕이 우리 나라의 조건과 다른것을 고려하여 우리의 바탕에 비추어 우리의 형편에 맞게 섭취할것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섭취하자면 우리 나라의 과학문화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의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정약용은 절도사 리민수가 륜선을 만드는데서 우리 나라 조선술의 전통을 살리면서 다른 나라의 기술을 참작하여 만든것이 아주 큰 공로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실학사상가들의 애국애민의 립장과 자주적태도는 또한 부국안민의 리상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자생자결의 사상에서 표현되였다.

실학사상가들은 자기 힘의 가치와 의의를 깊이 자각하고 조선사람으로서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었으며 백성들의 힘과 나라의 자원을 최대 동원한다면 우리 나라가 급속히 부강한 나라로 전변될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있었다.

실학사상가들은 개인사업에서나 국가사업에서 자기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해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라의 재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힘든 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것이며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힘도 백성들에게 있다는것을 정당하게 인식하고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자면 그 근본인 백성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고 그들의 힘과 지혜가 최대 발휘되게 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실학사상가들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부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기때문에 근로하는 사람들을 중대시키고 무위도식하는자들을 없애며 만백성이 누구나 다 알맞는 자리에서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할 방도를 탐색하였다. 그들은 신분과 문벌에 의해 관리

를 추천하는 제도를 반대하고 신분에 구애됨이 없이 학식과 재능에 의하여 인재를 등용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인정하기를 만일 신분적악습을 없애고 재능에·의해서 인재를 등용하여 알맞는 자리에 배치한다면 세상에 버릴 인재가 하나도 없을것이며 백성의 재능은 더욱 꽃피여 모두가 다 나라에 리로운 일을 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실학사상가들은 나라의 힘을 키우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당시의 기본생산수단이였던 토지를 옳게 리용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토지가 얼마 안되는 지주들에게 독점되고 농민들은 송곳 꽂을만한 땅도 가지지 못하고있는것이 나라와 백성이 빈궁하게 된 근본원인이라고 보았으며 전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는것이 부국안민의 기본고리로 된다고 인정하였다.

실학사상가들은 그 밖에도 백성들을 장려하여 토지를 더 많이 개간하며 관개수리, 치산치수사업을 개선할것을 제기하는 동시에 산림과 지하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도를 제기하였다. 박지원은 우리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하여 산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지하자원을 개발할것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 나라에는 백리되는 고을이 360이고 그중 고산준령이 10분의 7, 8을 차지하고있다. 말은 백리라고 하지만 실상 평야는 30리에 불과하다…저 우뚝 높이 솟은 산을 사방으로 따지여보면 평지보다 몇배의 면적을 얻을수 있다. 그리고 금, 은, 동, 철이 군데군데서 나오므로 만일 채광하는 방법과 금속제련기술을 익힌다면 천하의 어느 나라보다도 부유하게 살수 있을것이다》.

정약용은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 풍토가 불리하여 차를 쓸수 없고 양과 말을 기를수 없다고 한탄만 하는자들에 대해 예리한 비판을 가하였으며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한다면 10년이내에 우리 나라의 목축업과 과수, 원예를 발전시켜 나라를 부유하게 할수 있을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생각컨대 식수 및 원예에 대한 정책은 국가의 재정을 유족하게 하며 백성의 살림을 도와주는것이다. 봉산 황주의 배, 가평 양주의 밤, 청산 보은의 대추, 풍기 순창의 감, 강진 장흥의 귤, 유자, 치자 등은 다 대책을 강구하여 그 재배를 장려하여야 할것이다. 그중 광활한 면적에다가 능히 천주, 만주나 되는 원림을 조성한자가 있으면 이를 사포서에 보고하게 하는 한편 그 허실을 확인하고 그 경영자를 서반말직에 추천임명하고 조정에서 불러 시험하여 보아 과연 농사를 잘 리해하며 토질을 잘 가리여 농업, 원예에 대한 지식을 가진자라면 사포서의 관직으로 승급시킬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10년이 넘지 않아서 국내의 진귀한 과실이 이웃나라에까지 수출되여 재정을 풍족하게 할수 있으리라고 본다》.

실학사상가들의 애국자주사상에서 국방에 대한 견해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시 부패타락한 봉건통치배들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여러 차례의 투쟁경험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에 태평세상을 노래하면서 국방강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있었다. 그 결과 군사제도가 문란해지고 방어시설과 무기, 군량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있었다. 백년묵은 낡은 칼은 자루만 남아있고·좋은 녹쓸어 불을 대여도 소리가 안날 지경이였으며 선비들은 말타고 총다루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활쏘는 절차와 방법조차 모르고있는 형편이였다.

실학사상가들은 국방에 무관심한 봉건통치배들을 폭로비판하고 당시 조성된 정세와 력사적인 투쟁경험들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기하였다.

그들의 국방사상에서 중요한것은 나라를 보위하는데서 결정적인 요인은 인민들의 힘이라는것을 정당하게 본것이다.

임진조국전쟁에 참가하여 인민의 힘의 위대성을 직접 체험한 리수광은 전쟁승리의 요인을 분석하는데서 나타난 사대주의적관점을 반대하면서 왜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하게 한 결정적힘은 의병들의 투쟁과 백성들의 애국심에

있었다는것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임진왜란 때에 왕이 서쪽으로 피난하게 되자 국내가 텅 비고 적병이 사방에 충만하여 국가의 명령이 시행되지 못하매 거의 단포동안 무정부상태에 놓여있었다. 그런 때에 령남에서는 곽재우, 김면, 호남에서는 김천일, 고경명, 호서에서는 조헌 등의 발기에 의지여 의병을 모집하고 사방에 격문을 돌리였다. 그제야 인민들의 애국심이 앙양되고 지방 각 주, 군들에서도 선비들이 도처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의병장으로 칭하는자가 무려 백명은 되였다. 그리하여 왜적을 섬멸하고 국가를 회복하게 된것은 곧 의병의 힘이였다》.

인민의 힘에 대한 이러한 정당한 견해로부터 출발하여 실학사상가들은 병농일치의 원칙에서 군사제도를 개혁하여 모든 백성이 국가보위사업에 참가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내놓았다.

실학사상가들은 문관을 높이 추켜세우고 무관을 천시하는 그릇된 관점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동시에 백성들속에 국방을 중요시하는 관념을 배양하기 위하여 리순신, 을지문덕, 강감찬 장군들의 빛나는 애국적업적을 널리 알려줄것을 제기하였다. 또한 학문을 기르치는데서 문과와 무과를 완전히 분리시키는것을 반대하고 이를 결합함으로써 누구나 다 문무에 능통하여 유사시에 국방에 참가할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학사상가들의 국방사상에서 특히 가치있는것은 향토를 주민자신의 힘으로 지키게 하는 《향토자위》의 견해이다. 정약용은 병농일치의 원칙에서 매개 부락을 단위로 자위적군사조직을 만들고 방어시설물들을 구축하여 유사시에 그에 의거하여 투쟁하게 한다면 모든 부락민이 방위사업에 동원되여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들은 또한 평상시에 경각성을 높여 국방준비를 튼튼히 할것을 강조하면서 평상시기의 사업을 국방준비와 결부시켜 진행할데 대한 구상을 하였다. 례컨대 리규경은 농기구를 개조하여 평상시에는 그것을 농기구로 쓰고 전시에는 무기로 사용하게 할 방도를 연구하였으며 성곽도 전시에는 성곽으로 쓰고 평시에는 주택으로 사용할수 있게 구축함으로써 농사를 지으면서 성곽수비를 원만히 보장하게 할것을 구상하였다.

실학사상가들은 이와 같이 국방을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킬것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 상비군의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군사훈련을 실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무기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시대적추세에 맞게 무장을 개선강화하며 그에 상응하여 새로운 군사기술을 연구하고 군사규률과 군사훈련을 강화할것을 제기하였다.

정약용은 《군대가 비록 천, 만명이 있다 하더라도 빈손이라면 그 군대가 없는것과 마찬가지며 낡고 파손된 무기만 가지고있다면 또한 그 군대가 없는것과 같은것이다》라고 하면서 무기를 개선강화할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군대는 일상적으로 군사규률과 군사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비록 지금은 우리 나라 남북에 위급한 소식이 없고 국경에 큰 근심이 없으나 군대는 제도를 세워야 하며 훈련이 없이 방임해서는 안된다. 만약 군대가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무기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실학사상가들의 이러한 국방사상은 자력으로 나라의 부강을 이룩하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보위하려는 애국자주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였다.

⁂ ⁂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실학사상가들은 대국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성을 주장하였으며 사대주의, 독경주의, 모방주의를 반대하고 자기 나라현실에 철저히 의거한 학문과 사회개혁사상을 제기하였으며 자기 인민의 힘을 발동하여 강력한 국방과 발전된 경제와 문화를 가진 나라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주장한 당시의 가장 선진적인 학자들이였다.

그들의 애국자주사상은 당시의 조건하에서 시대적 및 계급적 제한성과 관련

되는 일련의 제한성을 면할수는 없었다. 그들은 사회력사적현상을 현실적립장에서 고찰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관념론적인 사회력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봉건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사회제도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애국자주의 립장에서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개혁안들을 제기하였지만 그를 실현하기 위한 정확한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즉 자기들의 애국자주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봉건통치를 청산하여야 한다는것을 리해하지 못하고 봉건통치자들에게 방안을 제기하는데 머물렀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리학의 반동적학풍을 실천적립장에서 비판하면서도 유학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데로부터 때로는 옛날 정치에서 리상사회의 모형을 찾으려고 하였으며 실천적으로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에 합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었으나 실학사상가들은 빛나는 애국자주사상을 제기하고 그것을 실천에 구현하기 위해 자기들의 애국적열정을 기울인 실천가들이였다.

기성의 권위, 사대주의와 독경주의, 모방주의의 낡은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자주적인 사상을 내놓은 실학사상가들에게는 불피코 박해가 따랐으니 때로는 류형을 당했으며 때로는 궁벽한 농촌에 피신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실학사상가들은 역경에서도 락망하지 않고 자기들의 포부와 리상을 실현하기에 힘썼다.

박지원은 연암협에 내려가서 7~8리를 나가야 닭소리를 들을수 있는 궁벽한 곳에서 살았지만 자기의 포부를 굽히지 않고 돌밭 수경을 부치면서 선진적영농방법을 연구하였으며 실농군들의 경험과 농서들을 널리 연구하여 《과농소초》라는 훌륭한 농서를 마련하였다.

정약용은 18년간이라는 오랜 류배기간을 실학의 완성을 위한 고귀한 사업에 효과적으로 리용하였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는 농촌의 참상과 봉건통치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종 개혁안을 작성하는 동시에 방대한 유교경전들을 자주적립장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자기의 새로운 해석을 가하였다.

류형원은 서울에서 떨어져 궁벽한 농촌에서 생활하면서도 나라의 국방을 걱정하여 큰 배 수척을 건조하고 좋은 말을 길렀으며 좋은 활과 조총 수십자루를 구득하여 부락민들에게 사격방법을 가르쳐주고 군사훈련을 실시하기까지 하였다.

이렇듯 실학사상가들은 나라와 인민을 위한 사업에 자기들의 생애를 바친 사회의 선각자들로서 그들의 애국자주사상은 우리 선조들의 애국자주사상의 전통을 풍부히 하고 우리 나라 사상, 문화 발전의 력사를 빛내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실학사상가들의 애국자주사상은 개화파의 선진사상가들과 신채호를 비롯한 계몽사상가들에 의해 계승되여 한층 빛나는 발전을 보았다. 실학사상가들의 애국자주사상은 우리 인민들속에서 민족적자부심과 애국자주사상을 교양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밑천의 하나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의 문화어의 발달

한 영 순

조선어는 조선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표식의 하나로서 우리 인민의 사회문화적발전과 통일단결의 강화에 복무하는 수단이며 투쟁무기이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조선어를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상응하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주체를 확립하고 우리 말의 문화성을 제고시킬데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옳은 지도를 주어왔다. 이리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우리의 민족어는 력사상 류례없는 개화발달을 이룩하였으며 현대조선어의 전형으로, 문화어로 가꾸어졌다.

조선어발달에서 주체를 확립한다는것은 조선사람은 조선말과 글을 가지고 조선혁명을 한다는 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어를 우리 나라 혁명수행에 가장 잘 이바지하도록 더욱 아름답고 풍부하고 세련된 언어로 발달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민족어의 세련된 형태인 문화어를 발달시키는데 있어서 김일성동지의 1964년 1월 3일 교시와 1966년 5월 14일 교시는 강령적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는 이 교시들에서 우리 인민이 언어문화건설에서 쌓은 경험을 일반화하고 사회주의하에서 민족어발달의 원칙적문제들을 천명하면서 조선어발달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에서 문화성을 일층 제고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강령적인 교시를 관철하며 우리 민족어를 가일층 발달시키는것은 바단 전문일군들의 과업일뿐만아니라 전체 근로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조선어발달에서 주체를 확립하며 그 문화성을 제고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은 조선어발달의 력사적조건을 심중히 타산한데로부터 출발한것이며 민족어를 고수하고 그것을 민족의 자랑으로 가꾸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여온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을 반영하고있다.

력사적으로 언어에 대한 문제는 조선인민에게 매우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여왔다. 여러세기에 걸친 봉건통치배들의 사대주의와 일제의 식민지정책은 조선어의 자유로운 발달을 크게 저애하였으며 그 사회적기능을 무디게 하였다.

원래 조선말은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 발달해왔으며 많은 우수한 특성들을 가지고있다. 우리 민족어는 그 말소리가 조화롭고 아름다우며 말마디가 풍부하고 문법구조가 치밀할뿐아니라 문체도 다채로운 훌륭한 언어이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고유한 말과 글을 가지고 우수한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슬기로운 전통과 아름다운 풍습을 보존, 발전시켰다.

그러나 고려말기부터 사대주의에 물젖은 봉건량반들은 아름다운 우리 말을 멸시하고 한문만을 숭상하였으며 언어생활에 한자어를 마구 끌어들였다. 봉건량반들이 한자어를 함부로 쓰고 또 한자식말마디를 마구 만들어낸 결과

그것들은 점차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게 되였으며 이러한 이질적요소는 우리 말의 고유한 어근에 기초한 단어조성체계를 침식하게까지 되였다.

36년간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어의 존재자체를 말살해 보려고 흉악한 책동들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모국어에 의한 교육을 금지하고 출판물에서뿐만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인민들이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강요하였다. 조선말과 글을 말살하려는 그들의 흉책은 끝내 실현될수 없었으나 우리 말은 커다란 시련을 겪지 않을수 없었으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한 일본식한자어들과 외래어들의 악영향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게 어지럽혀졌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조선어말살정책을 반대하고 조선어를 고수하며 그 자주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싸웠다. 특히 1930년대 김일성동지를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피로써 모국어를 사수하였다.

우리 말에 끼쳐진 외부로부터의 부정적영향들을 가시며 우리 말의 우점들을 계승발달시키고 조선어를 우리 혁명과 건설의 도구로 더욱 버리는것은 해방된 우리 인민에게 절실한 과업으로 나섰다.

해방후 우리 당의 자주적로선과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조선어는 순조로운 발달의 길에 들어섰다. 당은 해방후 곧 조선어를 유일한 국가공용어로 되게 하였으며 모국어에 의한 교육을 발전시키고 우리 말을 민주화하면서 그것을 광범한 대중의 소유물로 되게 하였다. 우리 당은 모든 출판물에서 한자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과거사회가 우리 말속에 남겨놓은 부정적요소들을 가시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면서 당은 조선어의 규범화를 촉진시키고 우리 인민의 참된 문화어를 형성발달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였다.

해방후 짧은 기간내에 우리 말은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새로운 사회제도의 우월성에 의거하면서 급속히 발달하였으며 민족어의 가장 세련된 형태인 문화어가 확고히 형성되게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이 급속히 추진되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이 전면적으로 심화되고있는 오늘 우리 말 발달에서 주체를 더욱 확고히 세우며 그 문화성을 일층 제고하는것은 우리 인민앞에 나선 긴절한 과업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며 그들의 기술문화수준을 급속히 제고시키는 과업은 언어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없다. 이것은 조선어의 인민성과 문화성을 더욱 높이어 우리 문화어를 더 훌륭히 가꿀것을 요구한다.

문화어의 발달은 근로자들을 민족적자부심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교양하는데서도 의의가 크다.

조선어는 조선인민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그 유구한 력사와 더불어 형성되고 발달하여왔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문화와 슬기로운 전통, 아름다운 풍습의 형성에 이바지하였다.

우리 인민의 자랑이며 힘인 조선어를 사랑하고 그것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잘 다듬으며 그것으로 자기의 사상을 더욱 원만하게 표현할수 있도록 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애국심과 민족적자부심을 발양시키는데 기여하며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한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문화어의 훌륭한 발달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과업인 조국통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

날부터 미국식영어를 세계어로 만들려는 환상으로부터 그것을 남조선에도 대대적으로 퍼뜨리는 한편 력사적조건으로 말미암아 조선어가 가졌던 부정적요소들을 더욱 조장시켰다.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까다로운 한자결합체들이 마구 씌는 동시에 각종 외래어에 의하여 더욱 더럽혀짐으로써 조선어가 그 고유한 특성을 일층더 손상당하게 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언어정책은 남조선인민의 민족적자부심을 헐어버리며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그것은 우리 민족어를 분렬시킴으로써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조국의 자주통일을 가로막으려는것이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조선어의 주체성있는 개화발달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자주의식을 배양하고 그들을 반미구국투쟁에 힘차게 나서도록 고무하며 조국이 통일된후 조선인민이 다같이 쓸수 있는 세련된 문화어를 가꾸어나갈수 있게 한다.

* *

우리 당은 조선어발달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말의 순결성을 보장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우리 말의 순결성을 보장한다는것은 꼭 필요한것이 못되는 일체의 외래적요소들을 깨끗이 가시고 우리 말속에 있는 온갖 좋은 요소들을 전면적으로 찾아내여 리용하고 발달시키는것을 말한다. 그것은 력사적특성으로 하여 한자어와 외래어의 부정적영향을 적지 않게 받은 조선어발달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가장 긴절한 문제로 되지 않을수 없다.

우리 당은 해방후 과거 오랜 기간 써오던 한자를 일시에 모든 출판물에서 페지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우리 말 특히 글말속에 있는 한자어체계의 기초를 뒤흔들어 놓았고 그것을 점차 극복해나가기 위한 조건을 지어놓았다.

당은 우리 말의 기본핵심으로서 발달되여온 고유어의 체계에 튼튼히 의거하여 있는것은 찾아쓰고 없는것은 만들어내여 쓰는 원칙에서 조선어의 순결성을 보장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이 결과 일본어를 비롯한 외래어의 이질적요소들이 급속히 사라져갔으며 우리 말속에 들어와있던 한자어도 점차 우리 말로 바뀌게 되였다.

우리 당은 조선말을 급속히 민주화하고 광범한 인민적토대우에서 그 문화성제고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가도록 하였다.

민족어의 민주화는 언어발달에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발성을 동원할수 있게 하며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고 참된 문화어의 형성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확고한 조건을 조성한다.

낡은 사회는 공화국북반부에만 하여도 230만명이 넘는 문맹자를 남겼으며 우리의 말과 글은 인민의 참다운 소유로 되지 못함으로써 인민의 교제수단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었다. 조선어의 민주화는 인민이 주인으로 된 새로운 사회가 제기하는 절박한 요구였으며 조선어의 급속하고 전면적인 개화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였다.

우리 당은 각급 학교들에서 모국어에 의한 교육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한편 문맹퇴치사업을 강하게 추진시켜 해방후 2~3년이란 짧은 기간에 우리 글을 전체 인민의 소유로 되게 만들었다. 이와 동시에 출판물들에서 한자를 페지하고 누구나 우리 출판물을 쉽게 읽을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말과 글을 진정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의 소유물로 되게 하였다.

우리 당은 조선말을 민주화하고 그 인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의 말과 글을 인민이 요구하는, 듣기 쉽고 쓰기 좋은 방향으로 다듬어나가게 하였다. 이것은 언어문화분야에서 우리 당 군중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 문제였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일군들이 《대중을 찾아가 그들속에 들어가서 대중이 알아들을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며 대중이 원하는 글을 써야》(김일성선집 제1권, 97～98페지)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였다.

말을 쉽게 하여 인민적인것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글말과 입말을 접근시키는 문제를 풀어야 하였다. 봉건시기에는 한문이 국가공용어로 쓰이는 조건하에서 입말과 글말이 완전히 유리되고 있었다. 당시 우리 글은 인민들속에서만 사용되는데 지나지 않았다. 민족어형성이후시기에 와서도 글말과 입말을 접근시킬데 대한 인민들의 념원은 이룩되지 못하였다.

당은 모든 출판물에서 언어를 인민들의 일상용어에 접근시키도록 강한 투쟁을 전개하게 하는 한편 전체 인민이 입말을 세련시킴으로써 점차 입말과 글말의 접근을 보장하게 하였다.

우리 당은 조선어의 순결성을 위하여 투쟁하며 말과 글의 민주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우리 말의 문화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우리 말의 문화성을 제고하며 세련된 문화어를 가꾸는데 있어서 우리 말과 글의 표현성을 더욱 풍부히 하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말을 새사회와 그 주인으로 된 인민들의 생활, 감정에 맞게 폭이 넓고 표현성이 풍부한 언어로 발달시키는것은 경제문화건설이 급속히 추진되고 인민대중의 생활의 폭이 비할바 없이 넓어진 우리의 벅찬 현실이 제기하는 절박한 요구이며 조선어가 주체적인 발달의 길을 확고하게 걷기 위하여 나서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당은 발전하는 현실과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정밀하고도 풍부한 표현수단들을 전면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 우리 말의 표현성은 현저히 제고되였다.

언어의 문화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문제의 하나는 언어의 과학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언어의 과학성을 보장한다는것은 생각과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수 있도록 말을 다듬고 전민족이 하나의 규범화된 교제수단에 의거할수 있게 함으로써 언어의 사회적기능과 역할을 완전하게 하는것을 말한다. 그것은 우리 말의 우수성을 가일층 발양시키며 기술, 문화 혁명의 성과적추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절실하게 제기되는 요구이다.

우리 당은 문화어를 광범한 인민적토대우에서 발달시키는 원칙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여러 지방의 인민대중이 쓰는 말의 우수한 요소들을 살리면서 민족적문화어를 형성발달시켜나갔으며 우리 말을 과학적기초우에서 규범화하기 위한 시책들을 적극 강구하였다.

당은 가로쓰기를 실시하여 독서능률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발음법을 비롯한 제반 규범들을 과학적인것으로 만드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시켰다.

과거에 우리 나라 민족어의 규범화를 위한 노력은 일제의 폭압과 정치사상적 및 과학리론적 제약성으로 말미암아 응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당은 발음법의 규범을 새로 작성하는 동시에 철자법과 문법의 규범들을 과학적토대우에서 완성하도록 하였으며 수립된 규범을 널리 보급시켜

그것이 인민의 언어문화생활속에 확고히 자리잡게 하였다.

우리 당의 령도하에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참으로 민주적이며 인민적인 문화어가 확고히 형성되고 더욱 발전되여가고 있다. 과거사회가 조선어에 남겨놓은 부정적요소들은 급속히 가셔져가고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을 두고 써오던, 민족적정서가 깃든 고유조선말어휘들이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서 널리 쓰이게 되였다. 글말이 입말에 확고히 기초하여 발달하게 되였으며 우리 말은 선진적인 말로, 민주어의 전형인 문화어로 가꾸어졌다.

조선말의 찬란한 개화발달은 인민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공화국북반부에서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실현될수 있었다.

조선혁명의 기지인 공화국북반부는 우리 민족의 문화어발달의 기지이기도 하다.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모든 귀중하고 아름다운것들이 짓밟히고 모독당하고있는 남반부와는 달리 인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하며 우리 민족의 고귀한 유산들이 옳게 계승발전되고있는 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어가 개화발달하고있는것은 사회와 언어발달의 객관적합법칙성이다. 선진적사회제도, 경제문화건설의 성과적추진, 인민생활의 급속한 향상과 그 내용의 풍부화—이러한것들이 공화국북반부에서의 문화어발달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보장하는것이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조선어발달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에서 문화성을 제고시킴에 대한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가꾸어진 문화어를 일층더 완성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것은 혁명발전의 현정세가 언어문화분야에 제기하는 절실한 요구이다.

이 과업을 성과있게 완수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민족어를 가꾸는 사업을 계속 진국가적, 전인민적사업으로 추진시키며 광범한 인민대중이 여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이다.

우리 말에는 아직도 필요없는 한자어가 적지 않게 남아있다. 일부사람들은 낡은 관습에 사로잡혀 어렵고 까다로운 한자어를 계속 쓰고있다. 이런 사람들은 《열살, 스무살》이란 우리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세, 이십세》하고 한자어를 쓰는것을 유식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있다. 또 일부사람들은 알아듣기만 하면 된다고 그릇되게 생각하면서 언어규범을 잘 지키지 않고있으며 모국어학습을 게을리하고있다.

우리는 이 모든 낡은 사상잔재와 언어관습을 반대하고 고유어를 쓰고 누구나 다 알아들을수 있게 말을 하는것이 더 유식하고 고상하다는 사상으로 인민들과 후대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체를 확립하는 사업을 언어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계속 관철하여야 하며 이 사업을 언어구조의 모든 측면에서 일층 심화시켜야 한다.

언어문화생활에서 출판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는데 비추어 글말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는것이 특히 긴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는 출판물의 말을 잘 정리하여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문화성을 높이는데 각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민족고전번역에서도 인민들이 리해할수 없는 한자어나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잘 알수 있는 우리

시대의 문화어를 씀으로써 귀중한 민족 고전들을 인민의 참다운 소유물로 되게 하고 그것들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더 잘 기여할수 있게 하여야 할것이다.

글말과 함께 인민들의 입말에서 문화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쓰는 말의 문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배우며 의식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어의 가일층의 발달에서 어휘정리사업은 가장 기본적인 고리의 하나로 된다. 그것은 낡은 사회에서 입은 상처가 이 분야에 가장 많기때문이다.

어휘정리에서는 우리 말의 문화성제고에 지장을 주는 한자어가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된다. 한자어처럼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말의 자주성을 손상하고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는 외래어들도 정리되여야 한다.

한자어들은 그것이 우리 말에 침투한 정도와 기능에 따라 각이하게 처리되여야 한다. 한자어라 하여 《방》, 《책》 등과 같이 우리 말속에 완전히 녹아들어 우리 말과 다름없이 쓰이고있는 것은 그대로 둘수 있다. 그러나 낡은 언어습관에 매달려 응당 살려쓸수 있는 고유어가 있거나 우리 말로 능히 다듬어 쓸수 있는 경우에도 의미의 《정확성》이니, 《문체론적색채》니 하면서 한자어를 그냥 쓰려고 하는 편향은 극복되여야 한다.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고있는 오늘 학술용어를 다듬는 문제는 어휘정리사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는 지금 학술용어를 한쪽으로 다듬고 한쪽으로 검토하면서 그 초안을 출판물 및 기타를 통하여 대중적토의에 붙이고 그들의 창조적지혜가 충분하게 반영되도록 계획적으로 자연스럽게 다듬어나가고있다.

철학, 정치경제학 등 사회과학부문 용어는 높은 추상성을 가지고있으며 알맞는 고유어를 찾아내기 어려운 조건에서 다른 학술용어보다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지명에서도 우리는 조상 때부터 쓰던 향토적정서가 풍기는 고유어를 도로 살려쓰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말을 다듬는 사업은 언어와 그 발달법칙에 맞게 점차적으로 진행되여야 한다.

언어는 낡은 질의 요소를 점차로 없애고 새로운 질의 요소를 하나하나 축적하면서 점차적으로 발달한다. 이 법칙은 언어의 가장 가변적인 부분인 어휘구성을 정리하는 사업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여야 한다. 온갖 보수성과 동시에 조급성을 경계하고 누에가 뽕을 먹듯이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사업을 진행해나감으로써만 우리 말의 사회적기능을 부단히 보장하면서 주체확립을 완성하는 사업을 성과있게 추진시킬수 있다.

조선어발달에서 우리가 이룩한 모든 성과는 우리 당 언어정책과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군중적언어문화운동의 빛나는 결실로 된다.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가진 아름답고 훌륭한 우리 말을 더욱 문화적으로 가꾸며 찬란히 개화발달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당의 옳바른 언어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서반구의 사회주의기수—꾸바

최 상 순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꾸바는 오늘 서반구에서 처음으로 인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의 등대로, 그 훌륭한 모범으로 되였다. 《사탕과 노예의 섬》으로, 미제의 《보호받는 독립국》으로 불리던 날은 영원한 과거로 되였다.

1959년 1월 1일 미제와 그 주구 바티스타독재정권을 전복하고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쟁취한 꾸바인민은 내외의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끊임없는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였으며 오늘 꾸바공산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더욱 찬란한 앞날을 향하여 확신성있게 나아가고있다.

꾸바혁명의 승리적전진과 꾸바인민이 달성한 훌륭한 성과들은 사회주의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있으며 특히 독립과 진보를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에 거대한 혁명적영향을 주고있다.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보고에서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미국의 코앞에서 일어난 사회주의혁명의 첫승리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위대한 10월혁명의 계속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진영을 서반구에까지 확대하고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운동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 사변이다**》.

* *

꾸바혁명이 승리하기전까지 사회주의혁명은 오래동안 구라파 또는 아세아적인 현상으로 남아있을것이며 서반구 특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10월혁명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적변혁은 성공할수 없으리라는 《리론》이 류포되여있었다. 미국지배층을 비롯한 서반구의 반동지배층과 그 대변자들이 이러한 《명제》를 백방으로 선전하였으며 서반구의 일부 《혁명리론가》들까지 그러한 견해에 사로잡혀있었다. 그들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공산주의운동이 장성하고 혁명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먼앞날의 일일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라틴아메리카발전의 특수성》, 《지리적숙명론》과 같은 허황한 《리론》을 산산이 부셔버렸다.

피델 카스트로동지와 그 전우들은 1953년 7월 26일에 대담하게 몬까다병영을 습격하여 혁명투쟁의 기치를 추켜들었으며 《그란마》호원정을 거쳐 더욱 더 광범한 인민들을 무장대오에 집결시켜 마침내 바티스타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인민혁명의 승리를 달성하였다.

꾸바혁명가들이 처음으로 씨에라 마에스트라산에 올랐을 때 단지 12명의 인원과 일곱자루의 총밖에 가지지 못하였으나 그들의 견결한 혁명적의지는 끝끝내 압박받고 착취받는 인민대중을 해방투쟁에 끌어들이면서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게 하였다.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의 억압과 착취가 있는곳, 인민들이 빈궁과 무권리에 신음하는곳에서는 반드시 민족의 영예와 인민해방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혁

명가들이 나타나며 그들이 근로대중과의 혈연적련계밑에 모든 반동세력을 때려눕히고 혁명을 성취하게 되는것은 력사발전의 필연성이다.

꾸바에서 미제와 그 괴뢰들의 반인민적폭압과 략탈정책, 낡고 부패한 반동적사회제도에 의하여 배태된 혁명은 피델 카스트로동지와 그 전우들과 같은 진정한 혁명가들의 견결하고 능숙한 투쟁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승리에 이른것이다. 이러한 혁명의 앞길을 그 어떠한 제국주의반동세력도 결코 가로막을수는 없다.

피델 카스트로동지는 꾸바혁명은 《양키제국주의의 가장 공개적인 적대행위앞에서 어떻게 혁명을 할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라고 말하였다.

꾸바인민은 철저한 반제투쟁의 기치를 견지하며 현실적조건을 정확히 타산하면서 혁명을 반독재민주주의과업을 수행하는데로부터 사회주의적과업을 수행하는데로 계속 전진시킴으로써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과거에는 서반구에서의 해방운동이 제국주의 특히 미제의 침략과 경제적착취를 철저히 반대하는데로 나가지 못하였으며 제한된 《민주주의운동》의 테두리에 머무르고 사회주의운동과 밀접히 련결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운동은 개량주의적소극성을 벗어날수 없었으며 사회주의적변혁에 대하여서는 말할것도 없고 민족적자주권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는 과업도 실현할수 없었다.

꾸바혁명은 바로 이러한 불철저성, 개량주의적소극성을 극복하고 철저한 반제, 반미투쟁의 길로 나아가며 민족적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키는것이 라틴미주해방운동을 승리에로 이끄는 정확한 길이라는것을 확증하였다.

꾸바의 혁명가들은 제국주의를 철저히 반대하며 나라를 사회주의에로 이끌기 위한 투쟁에서 꾸바의 현실적조건에 부합되게 혁명단계, 주요타격방향, 운동형태들을 정확히 규정함으로써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촉진하였다. 그들은 꾸바혁명앞에 나서고있었던 민주주의적과업과 민족해방의 과업,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사회주의혁명의 제과업을 호상련관시키면서 나라가 처한 환경에 부합되게 그 수행의 선후차를 정확히 규정하였으며 인민들의 투쟁을 능숙하게 영도하였다.

피델 카스트로동지를 비롯한 꾸바혁명가들은 혁명의 첫시기에 반독재민주주의혁명과업들을 전면에 제기하고 모든 력량을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다. 꾸바혁명가들은 이 시기에 《자유냐! 죽음이냐!》라는 반독재구호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국내의 일체 반독재세력, 밖으로는 미주대륙의 전체 진보적계층의 지지를 획득할수 있게 하였다.

꾸바혁명가들은 섹트주의적편향을 경계하면서 로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도시소부르죠아지, 민족부르죠아지 그리고 반독재정당지도자들, 반독재군부세력 등 가능한 모든 정치세력과의 통일전선을 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치세력중에는 동요하고 불철저한 층도 있었지만 독재정치를 반대하는데서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었다. 꾸바혁명가들은 그러한 일체 반독재 세력을 민주주의적기초우에 결속시킴으로써 바티스타도당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미제의 코앞에서 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꾸바혁명가들은 독재를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각이한 형태들을 결합시킴으로써 광범한 반독재정치세력을 집결시킬수 있었다. 꾸바

혁명가들은 무장투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로동자들의 대중적파업투쟁, 청년학생들과 기타 계층들의 대중적진출을 적극 조장함으로써 반독재혁명력량을 급속히 강화할수 있었다.

꾸바혁명은 그 첫시기에 반독재정치세력의 광범한 결속으로 하여 급속히 전진할수 있었으며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민주주의적변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꾸바혁명은 민주주의적전취물들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더욱 반제적인것으로 발전하였으며 더욱 높은 과업들을 제기하는데로 심화되여갔다.

혁명의 민주주의적과업들이 수행되고 사회주의혁명의 과업들이 전면에 제기되였을 때 꾸바혁명가들은 꾸준한 해설과 투쟁을 통해 대중의 반제, 반미, 사회주의적의식을 더욱 제고하면서 혁명적군중을 새로운 투쟁임무의 수행에로 준비시켰다.

꾸바혁명이 더욱 심화되고 사회주의적과업들이 실현되여가는데 따라 제국주의 특히 미제와의 대립이 가장 날카로운 형태를 띠게 되였다.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혁명을 전진시키는 과업은 제국주의간섭을 철저히 물리치고 조국을 수호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게 되였다. 이러한 시기에 꾸바혁명가들은 《조국이냐 죽음이냐! 우리는 승리할것이다!》라는 구호를 들고 미제와 직접 대결하는데로 나아갔으며 이제와서 조국을 수호하는것이 혁명을 수호하는것이며 사회주의를 수호하는것임을 인민대중에게 똑똑히 밝혀주었다.

혁명발전의 매시기에서의 투쟁과업의 정확한 규정과 능숙한 령도는 꾸바에서 민족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에로 나아가는 하나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의 급속한 전진을 보장하였다.

꾸바혁명승리후의 8년동안은 실로 위대한 변혁과 창조의 시기였다.

꾸바혁명정부는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청산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었으며 국영농장들과 협동농장들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다. 꾸바에서는 농업과 목축업발전을 위한 확고한 토대가 축성되였으며 농업생산의 커다란 장성이 이룩되였다. 1965년에 600만톤의 사탕이 생산되였으며 1970년에 가서 사탕생산은 1천만톤에 달하게 될것이다.

꾸바혁명정부는 미국독점체들과 그 주구들의 공장, 기업소들을 몰수하여 국가와 인민의 소유로 만들었으며 그것들을 복구건설하고 더욱 확장해나감으로써 국가와 인민적소유의 비중은 전체 꾸바공업의 95%이상에 달하게 되였고 꾸바공업은 급속히 공고발전되고 있다. 공업부문에서 예속성과 기형성을 극복하면서 민족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훌륭한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 세멘트, 화학, 전력, 광업 등 기간공업부문들이 급속히 자라나고있다. 미제는 저들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꾸바가 《자체로 공장을 6개월도 움직일수 없을것이다》라고 떠벌였는데 이 《예언》은 현실에 의하여 산산이 짓부셔졌다.

교육, 보건, 주택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되여나아가고있다.

오늘 꾸바인민들은 나라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꾸바혁명은 서반구에서 처음으로 민족적압박과 인종적불평등을 청산하였으며 자체의 실천으로써 《한민족내에서의 계급들의 적대가 없어짐과 아울러 민족들호상간의 적대적관계도 없어질것》이라는 맑스의 명제를 확증하였다.

꾸바인민은 라틴아메리카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제국주의적지배를 청산하고 완

진한 자주권을 쟁취하였으며 착취와 억압, 민족적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첫 로동자, 농민의 국가—사회주의나라를 건설하였다.

꾸바인민은 자주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책동으로 인한 거듭되는 난관을 영웅적으로 뚫고 나갔으며 민족적존엄을 영예롭게 고수하고있다.

1961년 4월 플라야 히론에 대한 미제고용군의 침공을 꾸바인민은 단 72시간에 격파하였으며 1962년 10월의 《카리브해위기》시기에도 꾸바인민은 굳게 단결하여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섬으로써 미제의 무력침범과 전쟁도발책동을 파탄시켰다. 꾸바인민은 오늘 제국주의의 그 어떤 침범도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차게 추진시킬데 대한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꾸바혁명승리와 그 성과적전진은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을 크게 고무하고있으며 사회주의꾸바는 이 지역인민들의 해방투쟁의 기수로 되고있다.

꾸바의 오늘은 라틴아메리카의 미래를 체현하고있다. 미주대륙인민들이 수세기에 걸치는 투쟁에서 간직하여온 숙원이 오늘 꾸바에서 현실로 되고있다. 꾸바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의 향도성으로 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것인가? 그 발전과 투쟁의 내용이 어떤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은 오늘의 꾸바가 주고있다.

꾸바는 라틴아메리카가 꾸바의 길로 나아가며 꾸바와 같이 되는 때에야 이 지역인민들의 해방위업이 성취될수 있다는것을 현실로 보여주고있다. 오늘 라틴아메리카의 더욱더 많은 인민들과 진보적력량들이 꾸바가 걸은 그 길만이 미주해방의 진정한 길이라는것을 더욱 똑똑히 깨닫고있다.

한때 서반구에서의 진보적운동은 메히꼬《혁명》을 그 한계로 보았다. 메히꼬는 1910년이후 수십년간에 걸쳐 얼마간의 불철저한 사회개혁들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메히꼬의 이 불철저한 개혁조차도 지주층의 반항과 특히 커다란 특권과 리권을 장악하고있었던 미국자본의 반대와 미국의 파렴치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드디여 좌절되고 《잃어버린 혁명》으로 되고 말았다.

메히꼬혁명은 서반구사회가 그 해결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일련의 진보적지향을 자체에 내포하고있었던것으로 하여 이 나라는 한때 서반구혁명의 《조국》으로 불리여왔다. 그러나 이 《혁명》은 서반구에서 미국이 《용인》할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이 한계내에서의 《최대》의 변혁이였다.

꾸바혁명은 미주혁명에서 메히꼬가 대표하고있던 낡은 《한계》를 짓부시고 서반구의 진보적정치세력들에게 한날 미래의 꿈으로만 되여있던 근본적 사회변혁들을 실현하였으며 미주가 완전한 사회적해방을 달성할수 있는 길을 밝혔다. 그 길은 력사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맑스—레닌주의의 길이다. 꾸바혁명은 자체의 승리적전진으로써 서반구에서의 과학적공산주의의 견인력을 비상히 강화시켰다.

혁명적꾸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일체 반동적파두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력량의 선두에서있다.

미주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에 의해 창건된 강력한 혁명적무력이 꾸바를 믿음직하게 보위하고있으며 꾸바인민이

사회주의경제, 문화 건설에서 이룩하고 있는 훌륭한 성과들은 미주대륙의 해방투쟁에 커다란 혁명적영향력을 주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수천수만의 혁명가들이 꾸바혁명에서 배우고있으며 거기서 힘을 얻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 혁명가들과 모든 진보적세력은 꾸바를 수호하는것을 자기들의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있다. 그들은 《꾸바를 수호하는것은 라틴아메리카의 개별적나라의 인민들과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인민들을 동시에 수호한다는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있다.

꾸바혁명은 서반구에서의 미제의 지배체계에 커다란 돌파구를 뚫어놓았으며 이제와서는 미제가 서반구에서까지도 혁명의 승리를 막아낼수 없게 되였다는 것을 실증하였고 이 지역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승리의 대로를 명시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라틴아메리카의 반동적지배층들은 꾸바혁명이 불러일으킨 혁명의 불길이 미주대륙 전체를 휩쓸게 될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있다. 미제는 《제2의 꾸바》가 조만간 출현할수 있다고 하는 우려로 하여 발광상태에 빠지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과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반동세력이 꾸바혁명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를 교살하며 그 영향력을 말살하기 위해 발광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라틴아메리카혁명에 대하여 공포에 떨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꾸바혁명이 승리한 첫날부터 악랄한 방법으로 그를 말살해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정치외교적압력, 경제적봉쇄, 군사적침공 등 미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그러나 꾸바는 살아있고 싸우고있으며 그 영향력은 날을 따라 더 커지고있다. 미제의 반꾸바책동이 강화되면 될수록 꾸바인민은 공산당과 혁명정부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혁명과 건설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더 힘차게 싸우고있다.

미제는 꾸바혁명을 파괴하기 위하여 발악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혁명적해방운동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해보려고 각종 악랄한 수단들을 다 동원하고있다.

이리하여 미제가 고안해낸것의 하나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진보를 위한 동맹》의 조작이다. 미제는 이것으로써 군사적압력, 무력간섭과 배합하여 인민들의 해방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회유정책을 써보려는것이다.

미제는 또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자기의 앞잡이들을 내세워 기만적인 《사회개혁》을 수행케 함으로써 《제2의 꾸바》의 출현을 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는 베네수엘라에서 베땅꾸르독재를 반대하는 대중투쟁이 베네수엘라를 《제2의 꾸바》로 만들수 있다고 보아 베땅꾸르대신에 레오니를 등장시켜 이른바 《사회개량》에로 나아갈것이라고 선전하게 하였다. 그들은 《카스트로식 폭력혁명》이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서도 《사회적정의》에 가닿을수 있다고 고아대고있다.

그러나 미제의 《민주주의》와 《사회적진보》놀음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하는 것은 오늘 너무나 명백한것이다. 한편 미제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일부 부르죠아계층들에 의한 극히 제한된 민주주의적요구도 적대시하면서 브라질, 아르헨띠나 등에서와 같이 반동적군벌들을 조정하여 군사정변을 조작하고있으며 파쑈적폭압체제를 세우는데 광분하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파괴책동과 도미니카에서 볼수 있은것과 같은 공공연한 무력간섭은 그들의 침략적본성을

인민들에게 명백히 보여주었다.

미제의 《원조》하에 사회경제적《진보》를 이룩하며 《평화적혁명》을 실현할수 있다는 미제의 기만책동은 그 본질이 인민들앞에 여지없이 폭로되고있다.

미제의《원조》는 예속화와 략탈의 강화를 위한 도구로 되고있을뿐이다.《진보를 위한 동맹》을 통하여 일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차례지는 자금이란 이 나라들로부터 미제가 긁어가는 막대한 재부에 비할 때 전혀 보잘것없는것이다. 그것은 예속적인 부대조건들로 하여 이 나라들의 자주성을 더욱 침해하는데 리용될뿐만아니라 미국독점체들과 매판자본가들의 배를 불리고 인민들의 빈궁을 강화하는 길밖에 가져온것이 없다.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오늘 《진보를 위한 동맹》을 《퇴보를 위한 동맹》, 《빈궁을 위한 동맹》, 《예속을 위한 동맹》으로 부르고있으며 그것을 더우더 멸시하며 배격하고있다.

꾸바혁명의 영향밑에 오늘 라틴아메리카에서 혁명운동은 더욱 앙양되고있다. 꼴롬비아, 베네수엘라, 과떼말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와 인민들속에서 유격투쟁이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유격투쟁은 광범한 인민들의 지지하에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며 그를 지지하고있는 외국독점체세력들을 구축하며 근본적 사회경제적변혁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용하게 전개되고있다. 날을 따라 유격대오는 확대되어가고 그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있다. 지어 미국의 반동적출판물들까지도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이 《웰남과 같은 사태》에 떨어질수 있다는것을 인정하고있다.

유격투쟁과 함께 광범한 계층의 대중투쟁이 강화되고있다. 로동자들의 대중적파업투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데 그 규모와 전투성에 있어서 종전의 운동들을 훨씬 릉가하고있다. 특히 농민들속에서 토지점거를 위한 폭동적진출이 강화되고있다. 또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광범한 청년학생계층의 진보적운동이 확대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 현시기 해방투쟁에서는 광범한 애국적민주주의계층, 반제세력이 반미 반독재투쟁에 더욱 결속되고있으며 이들의 운동이 더욱 외국독점체세력을 반대하는데로 나아가고있는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미제가 아무리 발악하여도 꾸바혁명이 그 모범을 보여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인민들의 해방투쟁은 더욱 광범히 그리고 더욱 깊게 발전해나갈것이며 끝끝내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고야 말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 *

꾸바인민이 걸어온 길은 국내외계급적원쑤들의 온갖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자유와 독립을 달성한 간고한 투쟁의 길이였으며 민족적존엄과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수호하며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한 영광스러운 로정이였다. 혁명승리후 꾸바인민은 공산당과 혁명정부의 정확한 령도밑에 서반구에서 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반제투쟁의 선두대렬에서 확고하게 전진하고있다.

꾸바인민은 꾸바혁명을 말살해보려고 미쳐날뛰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파괴압해책동을 용감하게 물리치면서 혁명의 전취물을 견결히 수호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꾸바는 다른 사회주의나라들과 멀리 떨어져있으며 불과 90마일 사이를 두고 미제와 직접 맞서고있는 환경에서 혁명을 전진시키고있다.

미제의 침략과 끊임없는 파괴책동이

감행되는 어려운 조건에서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꾸바인민을 적극 지원하며 꾸바혁명을 보위하는것은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이다. 꾸바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며 꾸바혁명을 보위하는것은 서반구에서 사회주의초소를 수호하며 라틴아메리카와 세계혁명의 리익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은 형제적꾸바인민의 혁명위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꾸바혁명을 보위하며 꾸바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것이다. 혁명의 리익을 최고의 법칙으로 여기는 공산주의자들은 꾸바에 대하여 결코 달리는 행동할수 없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꾸바를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꾸바인민의 영웅적투쟁을 견결히 지지하고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진영의 동방초소를 지키고있는것처럼 꾸바공산당과 꾸바인민은 사회주의진영의 서반구초소에 확고히 서있다. 우리는 다같이 공동의 원쑤 미제와 맞서 싸우는 전우들이다.

매개 나라의 혁명은 그 나라 인민자신에 의하여 수행되며 그 나라의 맑스—레닌주의당에 의하여 령도된다. 꾸바혁명의 주인은 꾸바인민이며 꾸바당이다. 꾸바문제는 누구보다도 꾸바공산당이 더 잘 알고있으며 꾸바공산당만이 꾸바의 현실적조건과 꾸바혁명의 요구에 적응한 정확한 정책을 수립할수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으며 자기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정확히 령도하고있으며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꾸바공산당의 정당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형제적꾸바인민과의 친선단결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꾸바공산당 및 인민과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언제나 꾸바인민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것이다.

혁명승리후 8년간에 꾸바인민이 달성한 성과는 실로 위대하다. 영웅적꾸바인민은 꾸바공산당의 정확한 령도하에 원쑤들의 온갖 흉책을 파탄시키고 혁명과 건설에서 계속 더욱 큰 승리들을 쟁취할것이다.

꾸바인민은 견결한 반제투쟁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대한 충실성으로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두터운 신뢰와 존경을 받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지지를 받는 영웅적꾸바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꾸바혁명은 계속 승리의 길을 따라 나아갈것이며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이 종국적승리를 달성하고 사회주의의 붉은 기발이 전체 미주에 휘날리는 그날은 오고야 말것이다.

미제의 남조선침략에 복무하는 부르죠아사조

류 근 대

사상—문화침략은 제국주의자들의 대외침략정책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이다. 특히 신식민주의자들은 구식민주의자들과는 달리 예속국가들에 형식상 정치적독립을 허용하고있는 조건하에서 경제적침략과 함께 사상—문화침략에 극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미제는 부르죠아사조의 침투를 통하여 인민들속에 《반공》, 《숭미》 사상과 미국식생활양식을 부식하며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킴으로써 식민지예속화정책의 실시를 용이하게 하려'하고있다.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치, 경제적침략과 함께 사상—문화적침략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왔으며 이를 자기들의 식민지통치의 가장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리용하고있다.

1

미제는 남조선에 부르죠아사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직접 이 사업을 틀어쥐고 거대한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거액의 자금을 투하하고있다.

지난 9년간(1956～1964)에 미제가 《예이.아이.디 원조》(《국제개발처 자금원조》)와 《아이.엠.지 자금》(《정보매개물 교환협정자금》)을 가지고 끌어들인 부르죠아사조에 관한 서적만 하더라도 317만 3,000여권에 달한다. 이외에 미제는 해마다 괴뢰정권이 보유하고있는 외화와 미국의 사설재단(《아세아재단》, 《한미재단》, 《포드재단》, 《하바드 엔칭 학사》)들과 국제기구의 《기증금》형태를 리용하여 많은 량의 원서를 들여왔다. 1964년에만 하여도 괴뢰정부의 외화로 57만 8,000여권(그중 이데올로기와 관계되는 서적은 34만 6,000여권), 《유네스코 기금》(《국제련합교육과학문화 기구기금》)을 가지고 20만딸라분의 미, 영, 독의 원서를 끌어들였다.

미제는 부르죠아사조에 관한 원서들을 대량 수입하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반동서적들의 출판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사관내에 《출판과》를 두고 자금과 용지를 우선적으로 배당하고있다.

미제가 반동이데올로기서적출판에 얼마나 광분하고있는가 하는것은 다음의 실례에서도 명백해진다. 남조선에서 지난 17년간(1948～1964)의 출판정형을 보면 각종 교과서까지 포함한 공업관계 단행본은 542종(년평균 31종)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철학, 종교, 경제에 관한 부르죠아이데올로기 서적 발행은 8.6배나 많은 4,664종(년평균 280종)에 달한다. 그중 사르트르와 까뮤의 실존주의철학에 관한 서적은 1964년 한해동안만 하여도 무려 18종이나 나왔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에는 형형색색의 부르죠아리론들이 범람하고있다.

멀리는 구라파에서 부르죠아지가 반동적계급으로 전환된후에 곧 나타난 이미 낡고 파산되여 인민들로부터 버림받은 반동사조들이 《고전》이라는 미명하

에 대대적으로 소개되는가 하면 가까이는 미국과 기타 제국주의나라들의 《신진》조류, 《초현대》리론들이 널리 보급되고있다.

철학에서는 관념론철학의 이러저러한 낡은 조류들과 함께 몽매주의와 무저항주의를 설교하는 신토마스주의, 허무와 색정 특히 죽음을 설교하는 실존주의, 실리적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실용주의철학 등이 《고전》 또는 《새로운 리론》이라는 미명하에 소개되고 있다.

경제리론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낡아빠진 속류경제학조류들과 함께 케인즈주의, 《경제성장론》, 《후진국개발론》, 《근대화론》 등이 각종 너울을 쓰고 리론의 《최신성》을 자랑하면서 활보하고있다.

사회학에서는 《신맡사스주의》, 《도의재건론》, 《민주주의론》 등 저속한 사회리론들이 광범히 류포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남조선에서 부르죠아사조들의 침투를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교활한 수단과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다.

그들은 반동사조서적들의 수입과 번역출판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그것들을 《한국화》하고있다. 이것은 낡아빠진 부르죠아사조에 《민족적외피》를 씌워 남조선인민들에게 쉽게 주입시키려는 간계이다.

남조선에서 부르죠아사조의 《한국화》는 식민지통치에서 《민족주의》를 악랄하게 리용한 케네디집권시기부터 더욱 본격화되였다.

미제는 저들에게 복무하는 부르죠아사조를 원서 그대로 소개하는것이 아니라 남조선의 실례를 인용한 어용학자의 개별적《저작》의 형식을 취해서 발표하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직수입되던 부르죠아이데올로기는 이러저러한 형태로 《한국화》의 분식공정을 거친후에 남조선인민들에게 제공되게 되였다.

《한국경제강좌》나 《한국경제의 순환과 구조론》 등이 그의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이 《저작》들은 《한국적실례》를 들기는 하였으나 실은 마이야와 녁시의 《후진국개발론》의 완전한 재판에 불과하다. 이러한 형의 《한국화》의 비중은 오늘 남조선에서 출판되는 리론서적의 근 40%를 차지한다.

미제와 괴뢰도당들은 남조선에서 부르죠아사조들을 《한국화》하여 보급시키고 있을뿐만아니라 외국의 반동적학자들의 《한국에 관한 저작》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방법을 쓰고있다.

이 밖에 그들은 반동적인 구미부르죠아사조들의 바탕에 기초하여 조선의 고전들과 동양사조들을 《현대화》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현대부르죠아사조를 《한국화》하여 인민들에게 주입하려 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에서 미제의 이러한 《한국화》정책은 더 말할나위없이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라는 미명하에 민족유산과 전통을 말살하고 구미부르죠아사조의 침습을 강화하려는것이다.

이것은 괴뢰도당들이 저들의 《민족문화계승정책》은 《외국문화를 수입할수 있는 바탕인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를 기본으로 한다고 떠벌리고있는데서도 똑똑히 드러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반동사조들을 류포시키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거치장스러운 《과학적》문장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 하는 동시에 다른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알기 쉬운 형상적방법들을 광범히 리용하고있다.

그들은 어용학자들을 동원하여 허황한 《법칙》들, 외곡된 통계들에 의거하면서 반동사조들의 《론거》를 조작해내는데 골몰하고있다. 어용학자들은 《객관적립장》, 《제3자적립장》 등을 표방하면서 사실상 현실을 외곡하며 사리를 전도하는 협잡행위를 제멋대로 감행하고있다.

문학, 연극, 영화 등과 같은 형상적수법은 부르죠아사조들을 인민대중들속에 침투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남조선에서 실존주의를 비롯한

현대부르죠아철학리론의 선진은 문학적 방법에 많이 의거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실존주의를 설교하고있는 작품의 비중은 1964년에만 하여도 발표된 전체 소설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반동사조들을 되도록 넓은 층의 인민들속에 퍼뜨리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쓰고있다. 그들은 학자들과 지식인계층의 범위내에서뿐만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광범한 대중속에서 부르죠아사조들을 보급시키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있다.

많은 부르죠아사조들에 관한 서적들이 《마을문고》에 포함되여 남조선농촌의 구석구석에까지 침투되고있으며 괴뢰도당의 사회교육망인 《4에취구락부》, 《재건부녀회》, 《가족회구락부》 등에서도 《인구론》을 비롯한 일련의 부르죠아사조출판물들이 《계몽교재》로 지정되고 있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라지오, 신문, 잡지와 같은 대중선전수단을 통한 부르죠아사조선전도 더욱 강화하고있다. 남조선괴뢰정부가 집계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지난 5년간에 서울문화방송과 일간신문들을 통한 부르죠아사조의 소개선전은 각각 3.8배 및 4.2배로 증대되였다(방송의 경우에는 시간, 신문의 경우에는 발표건수).

이상의 제반사실은 미제와 괴뢰도당이 남조선인민들에게 부르죠아사조를 침투시키기 위하여 더욱더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더욱더 높아가는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파쑈적인 폭력적 방법이나 단순한 허위선전만으로는 도저히 억누를수 없기때문이다.

온갖 부르죠아사조들을 《대중화》하기 위하여 미제와 괴뢰도당이 더욱 미쳐날뛰는것은 남조선에서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의 가일층 첨예화의 반영이다.

2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잡다한 부르죠아사조들은 그 형식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지향하는 정치적목적과 사상—리론적기초에 있어서는 하나의 공통성을 이루고있다.

각양각색의 부르죠아사조들은 례외없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강점을 합리화하며 인민들의 계급적 및 민족적 각성을 마비시키며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헐뜯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는데 복무하고있다. 그것은 미제와 괴뢰도당의 《반공》선전을 위한것이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영향을 막아보려는데 주되는 목적을 두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숭미공미사상을 류포시키는데 특별한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은 미국을 《영원히 번영하는 리상국》으로 극구찬양하고있으며 미국의 《강대성》과 《무궁무진한 잠재력》에 대하여 떠벌리고있다.

여기에서 《아메리카케인즈학파》의 리론을 비롯한 각종 현대수정자본주의론이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로스토우를 비롯한 미국의 어용학자들은 자본주의제도의 본질적인 모순을 은폐하면서 옳은 《시책》만 강구한다면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제도를 변경시킴이 없이도 가장 높은 사회발전단계인 《고도의 대중적소비단계》를 조성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미국을 발전된 《대중적소비단계》에 처해있는 《리상적인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로 허위선전하는데 골몰하고있다. 그들은 가소롭게도 《국가의 경제적기능에서의 혁명》, 《주식소유의 민주화》, 《소득의 평등화》, 《신흥중산계급의 대두》 등의 허위적론거를 들어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변모》하고 《인민적자본주의》로 변한것처럼 떠벌리고있다.

각양한 미국제 부르죠아리론들이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부패성을 은폐하는데 리용되고있으며 지어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아메리카정신》을 찬미하는데 복무하고있다.

미제의 어용학자들은 양키조상들이 아메리카 토착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고 린접국가들 마구 침략한 력사적죄악에서 발휘된 침략성과 잔인성을 《불굴의 개척자적정신》으로 미화하면서 그것으로 오늘의 미제국주의침략성을 《정당화》해보려 하고있다.

양키《정신》의 철학적리론인 실용주의는 남조선철학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것은 《인식이란 권력의 도구이며》, 《리익은 진리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면서 힘과 억지행위, 약육강식의 야수성, 리윤을 위하여 체면을 가리지 않는 양키즘이야말로 《시대의 법칙적요구》이며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 강도적인 론리에 의하여 실용주의철학은 허위적인 《아메리카정신》을 《정당화》하고있을뿐만아니라 추악한 침략행동을 리론적으로 《합리화》하고있는 것이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저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며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동시에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비롯한 진보적사상들에 대하여 비방중상하고 사회주의제도에 관한 허황한 거짓선전을 끈덕지게 진행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에게 《반공》사상을 주입시키며고 발광하고있다.

현재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부르죠아 정치사회학리론의 기본조류를 이루고있는것은 《미국민주주의론》이다. 그것은 가소롭게도 미제를 《자유의 수호자》로, 《세계 민주주의적질서를 위한 책임자》로 묘사하며 과학적사회주의리론 특히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백방으로 외곡중상하는데 예봉을 돌리고있다. 미제의 어용학자들은 각종 괴변으로 공산주의를 리론적으로 《극복》한다고 떠들며 사회주의나라들 특히는 공화국북반부현실에 대한 가장 파렴치한 거짓말을 류포시키고있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부르죠아사조들을 퍼뜨리면서 저들의 신식민주의통치와 매판자본가, 지주, 반동관료들의 매국배족행위를 사상―리론적으로 정당화해보려 하고있다.

여기서 각종 부르죠아 사이비경제리론과 사회학리론이 각별히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를 들수 있는것이 바로 남조선에 광범히 소개되고있는 각종 《후진국개발론》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세계에 류포되고있는 700여개의 《후진국개발론》중에서 약 300여개의 학설이 이러저러하게 선전되고있다. 이 리론들은 그 역할로 보아서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하나는 이른바 《후진국》 즉 식민지경제의 파탄과 인민들의 빈곤을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에서 찾는것이 아니라 인구과잉, 원료와 자원의 부족, 《민도의 락후성》, 《빈곤의 악순환》 등과 같은데서 찾는것이다. 이러한 리론들은 오늘 남조선경제파탄의 근원인 미제의 식민지수탈을 은폐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놀고있다. 다른 하나는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 특히는 《원조》정책을 합리화하는 《자본형성》에 관한 리론이다. 이 리론은 미제의 략탈정책을 보다 직접적으로 변호하고있는바 《빈곤의 근원인 경제의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자도입》 즉 미국의 《원조》가 필요하다고 력설하고있다.

이와 더불어 미제는 말사스의 인구론을 비롯한 각종 사회학리론에 의해서 남조선에서의 모든 사회적불행과 빈곤의 근원이 미제의 식민지착취제도에 있다는것을 감추고 그것이 마치 《기하급수적인 인구증식》에 의한 《과잉인구폭발》에 있는듯이 떠벌리고있다. 남조선에 널리 알려져있는 사회심리학자 가당스, 우오드 등도 사회발전의 동력을 사람들의 감각, 사유, 능력 및 념원에서 찾을것을 설교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빈궁의 근원을 《고루한 민족성》에 귀착시키고있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해방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투쟁을 거세하기 위하여 각종 부르죠아사조로써 과학적진리 특히 과학적공산주의리론에 대한 불신과 생활에서의 부패타락, 절망, 체념의 기분을 조장하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부르죠아사조들은 례외없이 과학과 인연이 없으며 가장 부패하고 저속한 리론으로 특징지어지고있다. 그것들은 현실의 합리적인 인식을 반대하고있으며 리성에 대하여 본능, 직관 등 이른바 비리성적의지를 대치시키고있다.

오늘 남조선에 광범히 류포되고있는 실존주의철학을 비롯한 수많은 부르죠아사조들은 온갖 수단을 다하여 합리적사유의 무력과 무용성을 증명하려고 시도하고있으며 인간의 행위를 다만 하나의 생물학적인 충동과 본능적체험에만 귀착시키려 하고있다. 그리하여 미제는 남조선인민들이 사람들의 자각된 지식, 힘, 투쟁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비합리적이며 비론리적인 태도로써 사회문제를 취급하는 이들은 계급투쟁과 같은 주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은폐하며 오직 부차적이며 비본질적인 문제들에만 주의를 돌리도록 만들려 하고있다. 이들은 사회문제를 관념적인 《민족성》, 인간의 심리, 감정들과 결부시켜보아야 한다고 집요하게 선전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이 사회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는것을 방해하려 하고있는것이다.

미제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우울과 절망, 공포와 죽음, 무저항과 체념의 기분을 조장하기 위하여 철학분야에서 《세계의 멸망》, 《인간에 대한 세계의 적대》 등을 설교하고있는 《비관의 철학》, 실존주의를 실용주의 다음가는 기본조류로 내세우고있다. 미제는 이 리론을 대중화하기 위하여 특히 철학과 문학의 결합을 참망하여 나선 프랑스의 실존주의철학자인 사르트르와 까뮤의 문학서적을 광범히 보급시키고있으며 남조선에서 문학예술의 중심적인 주제를 비관과 죽음에서 찾도록 조장하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는 부르죠아사조들의 사상—리론적부패성과 기만성은 중세기적인 몽매주의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그것들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종교만이 세계를 인식할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여준다》고 주장하고있다.

신토마스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과학은 물질세계의 경험적사실들과만 관계를 가지는바 물질적세계자체는 현실의 진정한 정신적기초를 은폐하고있는 《썩은 외피》일 따름이라는것이다. 그들은 오직 종교만이 과학의 성과에 의미와 의의를 부여할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 《리론》은 사람들을 종교적몽매주의와 신비주의수준에로 타락시키려 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부르죠아사조들은 결국 남조선사회의 파탄과 인민들의 불행의 해결책을 신앙에서 찾을것을 설교하고있으며 거기에서는 이미 아무런 과학적흔적도 찾아볼수 없다.

* *

미제가 제아무리 남조선인민들에게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조들을 전파시키려고 발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파산을 면할수 없다. 왜냐하면 미제에 의하여 강요되는 부르죠아사조들은 과학리론적 허위성을 제쳐놓고서라도 조선인민의 민족적리해관계와 직접 모순되며 특히 남조선인민들의 계급적리해관계와 배치되기때문이다.

철두철미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복무하는 부르죠아사조들은 사실상 남조선인민들과는 하등의 인연이 없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이 처한 긴박한

계급적 및 민족적 처지로 하여 날이 갈수록 부르죠아사조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있으며 부르죠아사조들에 대한 비판의 안목이 더 높아가고있다.

적지 않은 남조선출판물에서 《아메리카정신》의 허위성이 론의되고있으며 민족주체의식을 강조할데 대한 론조가 높아가고있다.

따라서 남조선에서 각종 부르죠아사조들은 그 형식상 《다양성》과 수법의 《교활성》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부르죠아사조들의 파산은 특히 맑스―레닌주의리론의 보급에 의하여 더욱 급속히 촉진되고있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비약적인 발전과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동경을 더욱더 두텁게 하고 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우러러보게 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남조선에서는 혁명력량이 날로 장성하고있으며 인민들속에서 맑스―레닌주의리론에 대한 동경과 학습열의가 더욱 높아지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맑스―레닌주의리론학습의 자유를 억압하고있는 미제와 괴뢰도당의 처사를 반대규탄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제아무리 교활한 방법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사상을 부르죠아사조에 얽매여두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수 없다.

남조선에서 부르죠아사조들은 결국 파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낡은 반동적인 사조가 진보적인 새로운 혁명적 사조앞에서 파산몰락되고 매장되는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하나의 합법칙성이다.

남조선에서 부르죠아사조들을 류포시키기 위한 미제의 발광적인 책동은 도처에서 대중적배격과 규탄을 받고있으며 증오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해방후 20여년간의 자신들의 체험을 통하여 부르죠아사조의 반동적본질을 더욱 똑똑히 인식하게 되였으며 자기들의 진로는 오직 과학적인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따르는데 있다는것을 더욱더 깨달아가고 있다.

근로자 제 1 호(루계 299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7년 1월 10일 발행 • 1967년 1월 14일

7―737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 호

평 양 근로자사 1967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2 호 (300)

차　　례

당정책관철과 혁명적기풍

김 동 규

혁명적기풍은 공산주의자들에게 고유한 사업기풍이며 그들의 첫째가는 사상—도덕적품성이다.

혁명적기풍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진정한 혁명투사로 될수 없다.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투사들은 부과된 임무를 끝까지 관철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고상한 신조로 삼는다.

일찌기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불요불굴의 완강성과 견결한 혁명적투지를 가져야 한다는것을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만일 그 어느곳에, 곤난이 없이 사회주의제도로 이행할것을 기대하는 혁명가가 있다면, 그러한 혁명가, 그러한 사회주의자는 서푼의 가치도 없다고 우리는 말할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지극히 어려운 투쟁이라는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몇천의 곤난에 견디여내며 몇천의 시도들을 해볼 용의가 있으며, 우리는 천번의 시도를 한 뒤에는 천한번째의 시도에 착수할것이다》(레닌전집 제27권, 554페지).

오늘 우리 혁명이 처하고있는 국제국내적환경과 특성,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어렵고도 방대한 혁명과업은 모든 일군들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혁명적기풍을 더욱 발양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 대표자회에서 김일성동지는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우리 나라 혁명과 전반적세계혁명운동발전을 추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과 그 수행방도를 천명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였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전통적인 통일단결을 회복하며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일층 강화하여 다가오는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사상정치적 및 물실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할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무겁고 방대한 혁명과업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모든 간부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혁명적기풍을 발휘할 때만이 원만하게 실현될수 있다.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방향과 과업 및 그 수행방도들은 이미 명확히 제시되여있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오직 우리 일군들이 높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에서 혁명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는데 달려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은 현시기 우리 일군들속에서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한 요구를 그처럼 중요하게 제기하고있는것이다.

당정책관철에서 혁명적기풍을 확립하는것—이것은 현시기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며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실천활동에서의 철저한 당적사상체계의 구현으로 된다.

* *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발휘되는 혁명적기풍이란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자기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으로 삼으며 그것을 무조건 옹호하고 관철하기 위하여 어떤 애로와 난관에도 굴함없이 완강하게 투쟁하는 혁명가다운 품성을 말한다.

원래 혁명가는 온갖 낡은것을 극복하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우는 의식적이며 자각적인 투사이다. 그러므로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혁명적기풍은 혁명적실천투쟁에서 제일 생명으로 된다.

우리 일군들의 당에 대한 충실성, 혁명적기풍은 말로써가 아니라 자기의 구체적인 혁명적실천활동, 즉 당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이 바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하여 실현되기때문이며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만이 우리 일군들, 혁명가들의 유일한 행동의 지침으로 되기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당에 대한 충실성, 혁명적기풍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로 된다.

김일성동지는 혁명적기풍을 특징지으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곧 혁명투쟁이다. 그러므로 혁명가는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야 하며 자기의 모든 힘을 다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이것이 혁명가적기풍의 첫째가는 특징이다》.

당정책관철에서의 일군들의 혁명적기풍은 무엇보다도 먼저 당정책의 본질과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으로써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우리 인민의 절실한 리익과 우리 혁명 발전의 합법칙적요구가 정확히 반영되여있으며 우리 혁명의 맑스—레닌주의적전략전술방침이 과학적으로 천명되여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이 구현되여있다.

우리는 자신을 당의 사상과 의지로 철저히 무장할 때 비로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며 혁명과 건설을 적극 추진시킬수 있는 강유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이 혁명의 무기를 자기 수중에 튼튼히 틀어쥠으로써만 어떠한 역경에서도 동요함이 없이 당적주견과 신념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으며 의식적이며 능동적인 혁명투쟁을 전개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일군들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혁명가적품성을 배양하는데서 기본출발점으로 된다.

우리가 당정책을 심오하게 연구하고 그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은 결국 그것을 관철하여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더 빨리, 더잘 추진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본질과 그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끝까지, 철저하게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야 한다.

오늘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기풍을 확립하는 문제는 일군들이 혁명적전개력을 발휘하는것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난관극복의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일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장을 내고야마는 혁명적전개력을 발휘하는것은 당정책관철에서 모든 일군들이 반드시 소유하여야 할 혁명적기풍의 하나이다.

혁명적전개력은 혁명적사업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본질적요구이며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기풍이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그야말로 태산같이 많으며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이 련이어 제기된다. 그런데 당의 정책과 방침들은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것이란 없다.

그러므로 당은 항상 모든 일군들이 혁명적전개력을 가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더욱 실속있게 관철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정책이 아무런 난관과 장애도 없이 순풍에 돛단 배처럼 그저 무난하게만 관철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당정책은 일군들이 어떤 난관앞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지고 불요불굴의 투쟁을 전개할 때 비로소 훌륭히 관철될수 있다.

어떤 일이든지 오늘 못하면 래일 하는 식으로 질질 끌며 사소한 곤난앞에서 주저앉거나 동요하며 약간의 성과에 자만도취하여 허풍을 치는것과 같은 현상들은 혁명적기풍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지도일군들은 사업에서 항상 난관이 제기될수 있다는것을 예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투쟁할 사상적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하며 어떠한 난관에 부닥치더라도 그것을 용감하게 뚫고나갈줄 알아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더 용기를 내고 충천하는 기세로 대중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당정책을 어떻게 하면 더잘 관철하겠는가를 항상 생각하며 아득바득 애를 쓰고 달라붙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어떤 문제든지 능히 해결할수 있다는 자신심이 생기게 되고 수행방도도 찾아낼수 있게 되며 실지로 그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은 항상 전진도상에서 난관에 부닥칠수 있다는것을 예견하며 그것을 뚫고나감으로써 제기된 임무를 끝까지 관철할 사상적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한다. 또한 난관에 부닥치면 당황하거나 주저앉을것이 아니라 더욱 용기를 내여 모든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달라붙어야 한다.

이와 같이 모든 일군들이 혁명적전개력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기만 한다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들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능히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것이다.

당정책관철을 위한 혁명적기풍은 일군들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집행하는 강한 혁명적규률을 확립할것을 요구한다.

혁명적규률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생명이며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전투적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은 그 자체가 강철같은 혁명적규률과 조직성의 체현이다.

혁명적규률은 당건설에서뿐아니라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도 제일생명으로 된다. 당정책관철에서의 강철같은 규률을 떠나서 혁명적기풍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전당에 당적사상체계를 확립하며 강한 혁명적규률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전개함으로써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하게 관철할수 있게 하였으며 전체 인민을 조

적동원하여 우리 혁명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갔다.

오늘 조성된 정세와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은 혁명적규률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일군들은 당정책과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어김없이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혁명적규률성은 당정책관철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기풍이 확립되였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규정하는 기본척도도 바로 당정책집행에 대한 태도에, 구체적으로는 당정책집행을 위한 규률에 두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당정책과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강한 혁명적규률을 지키는것은 혁명앞에서 지닌 응당한 의무이며 본분이다.

만약 우리 일군들에게 당정책관철을 위한 혁명적규률의 정신이 희박하고 당정책에 결서대하는 자유주의적경향이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당정책이 정확히 관철될수 없을뿐아니라 우리의 혁명위업과 전진도상에 커다란 지장을 줄수 있다.

당정책집행에서 자유주의적경향, 무규률적태도는 혁명을 하는 사람들의 립장, 공산주의자들의 태도와는 인연이 없다. 우리에게는 오직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가 있을뿐이다. 이것은 모든 당원들이 누구나 다 준수하여야 할 당규약상 요구이기도 하다.

우리 당의 혁명적규률은 매개 일군들의 높은 자각성과 의식성에 기초하고있다. 자각적이며 의식적인 규률만이 참으로 강철같은 혁명적인 규률로 될수 있는것이다.

혁명가는 본래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나 혹은 남에게 갈 보이기 위하여 혁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혁명가는 오직 자기 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혁명투쟁에 나선 사람들이다.

지난날 항일투사들은 일편단심 조국의 광복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헤아릴수 없는 곤난과 애로를 박차며 15여성상을 하루같이 싸우고 또 싸워이겼다.

만일 그때 혁명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확신과 사령부의 명령지시들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 강한 혁명적기풍, 높은 자각성과 의식성에 기초한 엄격한 규률이 없었더라면 투쟁의 길을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였을것이다.

우리 일군들은 항일투사들처럼 당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기어코 관철하고야마는 혁명적규률을 지킴으로써 실천활동에서 혁명적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당정책관철에서 혁명적기풍을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는것이 또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일반적으로 대중지도에서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문제는 일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옳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가져야만 혁명과 건설에서 정확한 지도를 보장할수 있다. 당정책이 어떻게 관철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어떠한가에 크게 달려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당은 항상 일군들속에서 형식주의, 관료주의, 주관주의 등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없애고 맑스—레닌주의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할것을 계속 강조하였으며 또 하고있다.

오늘 모든 부문에 걸쳐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히 제시되여있고 그 수행방도도 명백하며 그를 집행하려는 대중의

열성도 대단히 높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어떤 일솜씨와 방법으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있다. 일군들의 혁명적사업방법과 작풍을 떠나서는 혁명적기풍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우선 요구되는것은 모든 사업을 실속있게 하는것이다. 모든 사업을 실속있게 하는것은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성, 당성의 표현으로서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유한 일본새의 하나이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할 때에 반드시 먼저 실태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세밀하게 료해연구하며 정확한 인식을 가진 다음에 사업을 치밀하게 조직하고 책임성있게 집행하며 제때에 검열하고 총화하도록 하는것이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지 않고 조잡하게 처리하거나 내용이 없이 겉치레만 하는 형식주의는 혁명적기풍과 배치되며 혁명적사업방법과 아무런 인연이 없다.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당정책을 실속있게 관철하기 위하여 일군들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것은 전반을 틀어쥐고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키면서 하나씩하나씩 먹어들어가는 《섬멸전》을 전개하는것이다.

전반을 장악하면서 사업의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고리를 찾아내며 이에 력량을 집중하여 하나씩 먹어들어가는 《섬멸전》의 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의 하나이다.

사업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쥐지 못하고 이것저것 벌려놓기만 한다면 본질적이며 중심적인 문제들을 놓치고 지엽적이며 부차적인 문제, 혹은 눈앞의 일에만 매달리게 되며 결국은 어느 한문제도 모가 나게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 일군들은 전반을 장악하면서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거기에 모든 인적, 물적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당정책을 실속있게 관철하는 사업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정세가 긴장되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수많이 제기되면 될수록 이러한 사업기풍을 세우는것은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모든 일을 실속있게 처리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이것은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거쳐서야만 확립될수 있다.

원래 형식주의는 일을 되는대로 쉽게 하려는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이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일군들의 단순한 실무수준, 능력,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상문제이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겠는가 하는 일군들의 혁명적관점, 혁명적립장과 태도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형식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처방》은 그 어떤 행정실무적조치가 아니라 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뽑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부단한 사상투쟁과 사상수양을 강화하는것이다.

혁명적기풍을 확립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것은 형식주의와 함께 주관주의, 관료주의적 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태도를 소유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그 자체가 혁명적이고 과학적인것이기때문에 그것을 관철하는 일군들의 사업태도도 반드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것으로 될것을 요구한다.

주관주의적사고방식에 기초한 비과학적인 낡은 사업방법으로는 고도로 째인 사회주의사회를 정확히 운영해나갈수

없으며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의 정책적요구도 원만히 실현할수 없다.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문제해결은 오직 혁명적인 군중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실현된다. 군중이야말로 우리의 선생이며 거울이다. 군중에 의거하지 않으며 자기의 《소총명》을 내세우면서 군중에게 명령지시만 하는 관료주의적사업방법과 작풍은 당의 대중지도에서와 군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함에 있어서 가장 유해로운것이다.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힘과 지혜를 믿고 그들에 의거하며 그들을 발동하여 일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것이 곧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며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군중속에 들어가며 현실에 침투하는것은 우리의 모든 사업에서 철칙으로 되여야 한다. 이것은 혁명적방법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풍의 하나이다》 (김일성).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항상 군중과 더불어 정확한 문제해결방도를 찾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을 자각적으로 동원케 함으로써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당정책관철에서 혁명적기풍을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본위주의적경향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본위주의는 개인리기주의에 바탕을 둔 일종의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으로서 당정책집행에서 적지 않은 장애로 된다. 일군들이 본위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당적, 국가적 견지에서 문제를 전반적으로 보고 처리하는것이 아니라 자기 부문, 자기 지방, 자기 기관 본위적견지에서 협소하게 보고 처리하게 된다. 이것은 당적, 국가적 리익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가 확립되지 않은데서 생기는것이다. 본위주의는 혁명적품성과는 하등의 공통성도 없으며 따라서 당적, 국가적 립장에 배치되는것이다.

본위주의가 허용되는 곳에서는 당정책을 호상련관과 통일적인 련쇄속에서, 그리고 전면적으로 관철할수 없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형식주의, 주관주의, 관료주의, 본위주의 등의 사소한 표현도 허용하지 않도록 사상투쟁을 견결히 진행하며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사업방법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의 로선, 정책관철에서 보다 높은 혁명적기풍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발휘되는 높은 혁명적기풍은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확신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려는 혁명적열정과 각오의 표현이다.

당정책관철에서의 혁명적기풍의 발양은 실천활동을 통하여 당적사상체계를 확립하는 기본방도의 하나이며 당에 대한 충실성의 집중적표현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자신의 혁명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당정책관철에서 혁명적기풍을 유감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일군들이 더높은 혁명적기풍을 발휘하는것은 올해 우리 앞에 제기된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근로자들의 앞장에 선 간부들과 당원들이 조성된 혁명정세와 당의 요구에 비추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양함으로써 도처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며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현시기 경제발전의 기본방향과 기술혁명

김 종 옥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는 현국제국내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다가오는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면서 7개년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이미 창설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며 모든 분야에서 생산품과 건설물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현시기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 이것이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이며 바로 여기에 생산의 장성과 인민생활향상의 거대한 예비가 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이 기본방향은 인민경제에 내재하고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생산을 장성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원칙적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동시에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실현하며 현정세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면서 7개년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방침이다.

1

현존경제토대의 효과적리용은 기술혁명을 더욱 촉진시키는 기초우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기술혁명은 현존경제토대의 효과적리용을 위하여 제기되는 제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속도를 계속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지난 6년간에 우리는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 기간에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로골화된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건설에 더욱 큰 힘을 돌리면서도 수많은 대중소규모공장들과 직장 및 분공장들을 신설개건확장함으로써 우리의 자립적공업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닦아놓았다. 우리가 쌓아올린 경제토대는 방대하며 우리의 공업과 농촌경리는 거대한 생산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우리가 이 잠재력을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현정세하에서 기본투자를 절약하면서도 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할수 있으며 국방력도 강화할수 있다.

생산이 높은 기술적토대우에 올라선 지금에 와서 우리의 공업과 농촌경리는 기술혁명을 촉진하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생산의 기술수준을 더욱 높이지 않고서는 앞으로 더 발전할수 없다.

오늘 채취공업과 동력공업은 가공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고있으며 날로 증대되는 원료, 연료, 전력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있다. 채취공업과 동력공업을 선행

시키는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서 선차적이고도 필수적인 요구이다.

채취공업을 추켜세우기 위해서는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과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자연지리적영향을 많이 받는 채취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촉진시키지 않고서는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과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할수 없다.

현시기 농촌경리부문앞에 제기되는 중심과업은 이미 마련된 농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농업생산을 증대하는것이다.

농업생산은 공업생산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복잡한 기술공정이다. 지금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뜨락또르를 비롯한 각종련결농기계와 동력이 생산에 광범히 리용되고있으며 발전된 관개체계가 수립되고 화학비료의 시비량이 증가됨에 따라 집약화수준이 높아졌다.

농촌기술혁명을 비롯한 농촌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강령적과업들이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우리 농업이 처한 이러한 현실정과 그 장래발전에 대한 요구는 농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할것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모든 곳에서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농사를 지어 안전한 소출을 내여야 하며 그에 상응한 기술공정의 요구들을 충족시켜 알곡을 비롯한 남새, 공예유지작물 재배와 축산, 과수, 잠업 등 모든 부문에서 일대 앙양을 가져와야 한다.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에서 기본은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이다.

기술적지도가 없이 종래의 행정적지도나 경험적방법에 매달린다면 우리 농업의 현도달점에서 일보도 전진할수 없다.

오직 농촌경리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하고 기술혁명을 촉진함으로써만 조성된 현정세와 인민들의 생활향상, 인구증가에 의한 농작물에 대한 증대되는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

기술혁명은 생산과 건설의 질을 높이는데서도 결정적역할을 수행한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과 같으며 사회적로동을 절약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가 생산품종을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높인다면 현재의 생산량을 가지고도 인민경제와 주민들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우리 당은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면서 동시에 제품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일데 대한 혁명과업을 제기하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고 선진기술공정을 도입하는 등 기술혁명을 촉진시킴으로써만 이 과업을 실현할수 있다.

기술혁명은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로력문제를 원만히 풀며 1인당생산액을 높이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생산을 장성시키는것은 경제발전의 확고한 원칙이다.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생산규모의 확대, 새로운 공업의 창설은 더 많은 로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를 보충할 로력원천은 제한되여있다.

특히 조국해방전쟁기간 인구의 자연증가률이 저하된 사정이 오늘 새로운 로력원천에 영향을 미치고있다. 전후에 출생한 어린이들이 생산로동에 참가하

자면 아직도 3~4년 더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7개년인민경제계획의 하반기과업수행에서 로력사정을 긴장시키고있다.

이것은 우리 앞에 기술혁명을 더욱 촉진시켜 있는 로력, 있는 설비로써 더 많이 생산할것을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기술혁명은 민족경제의 자립적로대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현단계의 요구를 관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술혁명을 촉진시켜 자립적경제로대를 강화함으로써만 나라의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혁명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한 자체의 물질적준비를 원만히할수 있다.

우리는 기술혁명을 촉진시키고 우리의 과학과 기술수준을 높임으로써만 주체를 더욱 튼튼히 확립할수 있으며 이 분야에서 사대주의를 뿌리뽑을수 있다.

또한 우리의 경제력을 강화하여야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지원할수 있으며 나라가 통일된후 남조선경제를 급속히 복구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물질적로대를 마련할수 있다.

기술혁명은 현정세의 요구로부터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세에서 인민경제의 발전속도를 조절하면서까지도 국방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있다.

현대전은 고도로 발전된 투쟁수단이 적용되는 립체전이다. 우리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것은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더욱 발전시킬것을 절실하게 요구한다.

기술혁명과업은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선 숭고한 혁명과업이다.

김일성동지가 지적한바와 같이 《**기술혁명—이것은 착취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여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게 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다**》(《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매개 사회경제제도는 그의 발전수준에 상응한 기술적로대를 가진다.

사회주의는 인류사회발전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회경제제도인것만큼 선행한 어느 사회제도보다도 가장 높은 기술적로대를 요구하며 이것은 현대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기술혁명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착취와 억압의 근원이 영원히 청산된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을 고된 로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수 있으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간의 본질적차이를 청산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해나갈수 있다.

2

7개년계획은 기술혁명의 계획으로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경제의 전면적인 기술개건을 요구한다.

7개년계획에는 공업부문에서 생산공정을 기계화하고 점차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시하며 농촌경리에서는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촉진시킬것이 예견되여있다.

우리는 지난기간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기술수준은 사회주의건

설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다.

우리 앞에는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철저히 립각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면서 7개년계획을 수행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부문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 기술과 새로운 기술공정을 광범히 도입하며 우리의 전반적기술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한다.

현시기 기술혁명의 기본방향은 현존생산토대를 정비보강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기술문제를 해결하며 우리가 이미 이루어놓은 과학, 기술 성과들을 완성하여 생산에 광범히 도입하도록 하는데 주되는 관심을 돌리면서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새 공장들을 건설하며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창안제작하기 위한 과학기술적연구사업을 계속 추진시키는것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우리가 능히 할수 있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하도록 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과학, 기술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데 있다.

이것은 현시기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확고히 립각하여 인민경제의 현실적수요, 기술발전의 성숙정도를 옳게 분석한 기초우에서 당면한 요구와 장래의 요구를 밀접히 결합시키는 원칙을 견지한 정당한 방침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7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의 가장 큰 생산적예비이며 잠재력인 현존경제토대를 완전히 리용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절실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술혁명의 주되는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공장들을 보강하고 완비하며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걸리고있는 기술문제, 설비리용률을 높이며 원단위를 낮추기 위한 기술적대책,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기술문제 등 오늘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서 절실한 기술문제들의 해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현존경제토대를 완전히 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수준을 한계단 높이며 모든 부문에서 기술지표를 제고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기술지표의 제고—이것은 설비를 잘 정비하고 기술공정을 부단히 개선하여 그의 능력을 높이며 원단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고 생산물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설비들을 개조하고 완성하며 선진기술공정을 널리 도입하여 현존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이는것은 기술혁명에서 중심과업의 하나이다. 생산능력의 최대한의 리용은 곧 설비의 정상적가동과 설비리용률의 제고에서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모든 부문에서 현존생산설비를 잘 정비하고 약한 부문에 살을 붙이며 기계설비들의 기술상태를 개선하는 등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주되는 력량을 돌려야 한다.

기술지표를 높이자면 원료관리, 공정관리, 설비관리, 제품관리 등 기술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준비를 선행하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고 철저히 준수하며 생산공정에 새 기술을 부단히 도입하고 근로자들의 기술기

능수준을 높여야 한다.

우리 앞에는 지금 해결을 요하는 많은 기술적문제들이 제기되고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콕스의 원단위를 저하하고 인민경제에 소요되는 강재를 규격별, 재질별로 생산보장하며 광석의 예비처리능력과 소결로의 능력을 제고하며 립철제강에서 열분리행정을 완성하며 내화벽돌의 수명을 연장하는것 등이 그러한 문제들이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자연을 작업대상으로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계화와 자동화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우선 지질탐사사업에서 물리탐사를 비롯한 최신과학과 기술을 도입하여 탐사속도와 그 효률을 높이며 우리 나라에서 아직 개발하지 못한 광종들의 탐사와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탄광, 광산들에서는 채굴방법을 개선하여 채굴속도와 채취률을 높이며, 품위낮은 광석을 경제적으로 처리하고 유가금속을 완전히 회수리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오늘 과학기술분야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는 문제는 기술공학, 그중에서도 기계공학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이다.

우리 당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핵심인 기계제작공업을 창설하고 그의 발전에 심중한 관심을 돌려왔으며 이 분야에서 이미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나라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술혁명이 보다 심화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기계공학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기계공학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인민경제발전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할수 없으며 기술혁명을 추진시킬수 없다…결국 모든것이 기계에 걸려있다》(《기술혁명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무》).

인민경제의 화학화는 현대과학과 기술발전의 중요한 추세이다.

우리는 자체의 섬유원료에 의하여 새로운 합성섬유와 합성수지를 생산하며 각종유기합성원료생산을 공업화하여야 한다.

경지면적이 제한된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주되는 투쟁방향도 농촌경리의 화학화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효능이 높은 화학비료와 농약, 살초제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는것이다.

우리는 현존 질소비료생산능력을 높이면서 린비료, 카리비료, 미량비료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암모니아, 가성소다, 카바이드 생산에서 전력의 원단위를 저하하며 화학제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기술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이 모든 기술적문제들은 우리가 달라붙기만 하면 능히 해결할수 있는것들이다.

이러한 사업과 함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유사시 인민경제를 전시체제로 개편할수 있는 기술적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면서 군수공업발전에 필요한 합금강, 경금속, 순금속, 화학제품 등을 원만히 생산보장함으로써 당의 군사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농작물과 가축의 우량품종의 육성, 각 지방의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과학적영농체계의 확립 등을 위한 과학연구사업

과 화학비료시비의 효과성제고, 사료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농업과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생물학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나라의 동식물자원을 잘 보호육성하는 사업에 심중한 관심을 돌리면서 다배체, 잡종강세의 리용 및 방사선돌연변이 등을 비롯한 유전학적성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육종방법을 적극 발전시키고 미생물에 의한 조사료의 제조, 항생사료와 효모사료의 생산 및 리용방도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추진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의 지리적조건에서 산과 바다에 있는 풍부한 자원을 조사하고 그것을 적극 개발리용하는것은 인민경제의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림산과학분야에서는 경제림조성, 우량한 수종의 육성방법, 채벌방법, 병충해구제대책 등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집중하면서 림산화학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바다를 정복하려면 해양과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선 전면적인 해류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연안수역의 해양학적동태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간석지와 조수력자원을 개발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그리고 어획고를 높일수 있는 탐색방법의 개선, 중층과 심해에서의 어로방법과 어구의 완성, 천해양식, 담수양어, 수산물가공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기술발전의 부단한 높은 속도를 보장하려면 기술발전의 당면한 요구와 함께 전망적요구를 합리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장래발전을 위하여 석유화학을 비롯한 원자력, 반도체, 무선공학, 전자공학 등 새 과학분야들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새 과학분야를 개척하자면 물리, 수학, 화학 등 기초과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기초과학은 자연계의 비밀을 탐구하는 기술과학의 기초적인 학문이다. 모든 과학의 토대로 되는 리론적기초과학을 발전시키는것은 전면적기술혁명시기에 들어선 오늘 우리 앞에 제기된 중심적인 과업의 하나이다. 기초과학지식을 소유하여야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옳게 습득할수 있으며 창조적인 발기도 할수 있다.

기술혁명수행에서는 인민경제의 현실적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가나게 해결해나가는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을 구현하여야 한다.

기술혁명은 오랜 시일을 요하는 혁명과업이다. 우리는 단번에 모든 부문과 공정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는 없다.

작은것과 큰것, 현대적기술의 도입과 낡은 기술의 리용도 다 배합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이미 기술혁명수행에서 수공업적기술을 기계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우고 점차 종합적기계화에로 이행하며 반자동화로부터 자동화에로 이행하는 동시에 전기화를 강력히 추진시키고 화학화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농촌경리의 기계화에서는 개별적생산공정의 기계화를 완성하면서 발갈이로부터 추수와 탈곡 등 전반적농업생산공정을 종합적으로 기계

화하는데로 이행할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비의 개조에 있어서도 단번에 현대적인것으로 만들려고 할것이 아니라 공장, 기업소들의 힘에 맞게 낡은 설비들을 한걸음한걸음 개조하고 완성시켜 나아가도록 하고있다. 과학연구사업에서도 역시 이미 달성한 과학기술적성과를 공고히하며 이미 시작하였거나 불충분하게 해결된 기술문제들을 끝까지 완성한 다음에 새로운 문제의 연구에 달라붙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하고있다.

우리 당의 이러한 방침들은 모두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며 제기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섬멸해나가는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을 기술혁명수행에 옳게 구현한것이다.

기술혁명의 기본방향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히 반영하고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주체확립—이것은 자기 나라 현실이 제기하는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면서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과학과 기술의 역할을 높이는 필수적조건이다.

우리 당은 기술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력갱생의 원칙에 튼튼히 의거하여 우리 나라 공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자립적공업체계를 확립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이 방침에 기초하여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특히 국내의 자원에 기초하여 흑색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흑색금속공업에서 천콕스의 도입, 화학공업에서 갈을 원료로 하는 인조섬유와 석회석과 무연탄을 원료로 하는 비날론생산의 공업화,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생산공정의 확립 등 이 모든 성과들은 우리 당 주체사상의 위대한 열매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국내의 자원에 기초하여 자립적공업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나라의 원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흑색금속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합성고무생산의 공업화를 위한 연구사업을 계속 추진시켜야 한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주체사상은 우리가 능히 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과학기술성과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할것을 예견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창조적정신으로서 빨리 전진할것을 목적하는 사상이며 자주자립의 정신으로서 선진적인것을 따라잡고 앞서 나갈것을 지향하는 사상이며 락후한것, 보수적인것을 반대하고 가장 선진적인것, 가장 발전된것을 요구하는 사상이다.

전면적기술혁명단계에 들어선 오늘 우리 앞에 제기된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자면 우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과학기술성과를 우리 인민경제에 적합하게 섭취하여 나라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앞선 나라들 따라잡고 자체의 과학기술을 가장 선진적인 수준에서 적극 발전시킬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술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인테리들을 혁명화하는 것이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에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국

가를 관리운영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자체의 인테리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하며 그들을 부단히 혁명화하여야 한다.

인테리들을 혁명화하는 문제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전략적과업의 하나이며 현시기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부터 오랜 인테리들을 믿고 포섭하여 교양개조하였으며 새로운 민족기술간부의 양성사업을 예견성있게 진행함으로써 자체의 과학기술간부대렬을 꾸려놓았다. 지금 우리 나라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일하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수는 36만 7,000여명에 달하며 이것은 위력한 과학기술력량이다.

오늘 우리 당은 인테리들을 혁명화하고 그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물질기술적요새와 함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사상적요새의 점령은 물질기술적요새의 점령보다 더 어려운 사업이다.

인테리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기술혁명에서 그들의 적극성을 더욱 제고시킬수 없다.

인테리들을 혁명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속에 남아있는 개인리기주의, 소소유자적심리, 공명주의, 《소총명》 등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가 지적한바와 같이 《**인테리들을 혁명화하며 로동계급화한다는것은 인테리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완전히 없애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으로,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진정한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육성한다는것을 의미한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인테리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맑스—레닌주의교양을 강화하고 교조주의, 사대주의, 수정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잔재의 침습을 방지하여야 하며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당성을 단련하고 혁명성과 계급성을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테리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그들의 자질을 급속히 제고시켜야 한다.

인테리들은 주로 기술과 지식으로써 사회에 복무한다. 그러므로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배려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학습하며 자체의 과학기술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자기의 전공분야에 정통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대중의 자각성과 높은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의식적이며 계획적으로 건설된다.

혁명을 위하여 쉬임없이 투쟁하며 끊임없이 배우는것—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의무이며 고유한 품성이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학습에 대한 자각적인 태도와 완강한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투쟁하여야 한다.

전면적기술혁명, 이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낡은 기술을 새 기술로 바꾸는 방대한 사업이며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전문적인 과학자, 기술자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수행할수 없으며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적극성을 동원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우리는 그 생활력이 확증된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모든 부문에서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단계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속도를 계속 확고히 견지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을 더욱 잘 살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모든 부문에서 집단적기술혁신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근로대중속에 깊이 해설침투시킴으로써 로동자, 농민, 기술자, 과학자 등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집단적힘을 제기된 기술적문제의 해결에 성과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의 발전은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은 로동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적은 로력으로 생산을 더 하게 함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수 있게 한다.

로동자들을 일정한 직종에 고착시키고 그들속에서 기술기능학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기술기능학습은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야 하며 특히 자기가 담당한 기계기술에 정통하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고 이에 선진작업방법과 선진기술학습을 배합하여야 한다. 동시에 고급기능공들의 대렬을 확대하여 그들이 생산에서 핵심적역할을 놀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사업을 현실과 련결시키며 그들과 생산자들간의 창조적협조를 더욱 강화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을 생산 및 현실생활에 긴밀히 련결시키는것은 그들의 연구성과를 보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으로 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달성한 연구성과를 생산에 도입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실험을 거쳐야 한다.

과학연구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한 과학연구기관들에 필요한 실험공장을 설치하여주며 실험설비와 실험기구, 서적들을 더 많이 공급해주는 등 과학연구기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장, 기업소들과 국영 및 협동농장들에 배치된 기술자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기술자들은 로동자, 농민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며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창발적제기들을 생산에 도입하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기술지도의 직접적담당자들인 기술자들은 기술관리의 초소에 서서 모든 일군들로 하여금 기계설비들과 공정들의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에 엄격히 립각하여 움직이게 함으로써 설비리용률을 높이고 제품의 질을 엄격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혁명을 촉진시키는 결정적고리의 하나는 기술지도를 개선하는것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전망적인 기술개건계획과 현행기술발전계획을 정확히 작성하고 그것을 무조건 수행하는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기술발전계획의 수행은 생산의 정상화와 계획수행의 담보로 되며 생산의 계통적장성을 위한 밑천을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우리는 기술발전계획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화하여야 하며 그 수행에 필요한 보장조건을 잘 맞물려주고 일체 기자재들을 공급하는데서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의하여 성, 국으로부터 매개 기업소, 직장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기술지도체계가 확립되여있다. 이 체계에 확고히 립

각하여 모든 부문에서 기술지도를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지금 공장, 기업소들에는 기술지도의 거점으로서의 시험소와 실험실들이 조직되여있다. 시험소들과 실험실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 기술지표를 개선하고 원단위를 저하하며 제품의 질을 높이는 등 당면하게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

생산의 진행정은 설비와 기술수단들을 다루는 행정이며 기술적지도란 바로 그 생산기술공정을 지도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기술지도—이것은 곧 생산지도이다.

농촌경리에 대한 기술적지도는 실태에 대한 세밀한 조사연구와 기초자료의 수집, 그에 기초한 종합적분석과 정확한 과학기술적견론, 그의 집행대책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요하는 복잡한 사업이다.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인 토지와 논벼생산을 위주로 하는 우리 농업에서 관개용수를 놓고보더라도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실태를 알고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정확한 과학기술적분석과 구체적대책이 있어야 한다.

기술지도에서는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도일군들은 제기된 기술문제의 처리에서 주관과 독단을 결정적으로 배격하여야 하며 집체적협의와 토론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전면적기술혁명수행에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선행하고 그들이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도록 하며 광범한 근로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더욱 높이고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 *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과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것은 오늘 우리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다.

이 과업은 방대하며 어려운 과업이다. 그러나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제기한 방침에 따라 기술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긴장하게 싸워나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수행할수 있다.

지금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시대의 중고한 혁명임무인 기술혁명과업수행에로 더욱 힘차게 부르고있다.

우리는 기술혁명을 더욱 촉진시키고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모두다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1957년, 1958년 때의 그러한 혁명적기세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시기의 그러한 충천한 기세로 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자.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여 기계공업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리 근 모

지금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당대표자회결정을 받들고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상한 혁명적열정과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고있으며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고조를 이끌어나가며 기세충천한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일층 높임에 있어서 공업의 심장이며 기술발전의 기초인 기계공업에서 혁신을 일으키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계공업이 다른 모든 부문의 선두에 서서 힘차게 나아가야만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더한층 개선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이룩할수 있다.

오늘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추진을 위하여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모든 문제를 풀수 있게 하는 기본고리의 하나이다.

우리는 전국기계공업부문일군회의에서 김일성동지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 또다시 이 부문사업을 혁신함으로써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추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고조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할것이다.

* *

력사적인 우리 당대표자회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면서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서 제기된 방대한 7개년계획을 완수하며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급속히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미 꾸려진 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는 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인민경제를 더 새로운 기술로 장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는 기계공업에 대한 요구가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중공업, 경공업, 농촌경리, 운수, 체신 등 인민경제 각 부문들은 기계제작공업에 거대한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은 질좋고 다양한 기계설비들과 부속품들을 다량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인민경제 각 부문의 기술발전을 촉진하여야 할것이다》.

현시기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더 굳건히 다지고 정세의 요구에 맞게 국방건설을 강화하며 우리 당의 자주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중요담보이다.

우리는 기계공업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우선 공업부문의 주요과업—전력공업과 채취공업을 선행시키고 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며 모든 부문에서 설비

리용률을 높일데 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지금 채취공업과 전력공업부문앞에는 공업의 원료기지와 연료동력기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전력공업에서 대중소발전소건설을 계속 진행하며, 채취부문에서는 지질탐사와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기술혁명을 적극 추진시키며, 림업부문에서는 순환식채벌을 도입하고 재재실수률을 높여야 한다. 그러자면 기계공업에서 성능이 좋은 전기기계설비들과 우리 나라 지질조건에 맞는 각종 탄광, 광산기계설비들, 현대적림업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해주어야 하며 그 수리기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물질기술적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오늘 운수부문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와 관련하여 급속히 증대되고있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있다.

이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리기지를 더 강화하고 철도전기화를 계속 추진시키며 화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철도의 수송능력과 통과능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 그러자면 역시 기계공업에서 전기기관차와 대형화차를 비롯한 현대적운수기계설비들과 부속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해주어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앞에는 농업기술혁명을 계속 추진시킴으로써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증가시켜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하천정리사업을 해야 되고 집약화농법을 광범히 도입해야 되며 토지를 늘이기 위한 간석지개간사업도 해야 된다.

그러자면 수로굴착기, 준첩선, 불도젤, 뜨락또르, 양수기 등 많은 농기계와 건설기계들이 요구된다.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에 살을 붙이고 농업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도 기계공업은 많은 일을 해야 하며 큰 기여를 해야 한다.

또한 기계공업은 경공업부문에서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늘일수 있도록 현대적기계설비들과 정밀기계들을 만들어주어야 하며 경공업공장들이 자기의 생산능력을 완전히 발휘할수 있도록 그것을 보충완비해주어야 한다.

수산업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기계공업에서 더 큰 배를 더 많이 만들어주고 그 수리능력을 일층 높여주어야만 수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다.

아금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다른 인민경제부문들에서도 기계공업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높아지고있다.

기계공업에 대한 요구는 이미 꾸려진 경제토대에 살을 붙이는 사업에서뿐아니라 확대재생산을 위한 새로운 기본건설에서도 크게 제기되고있다.

7개년계획에는 확대재생산을 위한 새로운 방대한 기본건설이 예견되고있다. 우리는 이 기간에 대규모의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며 새로운 탄광과 광산을 개발하고 기존 탄광광산을 개건확장하며 화학공장을 건설하고 금속공장들을 개건확장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7개년계획기간에 우리는 도처에서 농촌주택건설과 도시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며 9년제기술의무교육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문화건설을 광범히 추진시켜야 한다. 이 역시 기계공업에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기계공업은 새로운 공장들을 건설하고 개건확장하는데 필요한 현대적기계설비들을 일식으로 생산공급해주어야 하며 또 문화보건의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계설비들과 각종 가정용기계를

을 많이 만들어주어야 한다.

채취공업의 발전, 수출사업의 보장, 농촌경리의 발전, 경공업발전의 촉진, 도시경영 및 문화건설 등 이 모든것이 기계공업에 달려있다.

기계공업을 더 발전시켜야만 이미 꾸려진 골간에 살을 붙여 경제구조를 개선할수 있고 생산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또한 기계공업을 발전시켜 인민경제를 더 새로운 기술로 장비하여야만 종업원1인당생산액을 급속히 높일데 대한 과업을 해결할수 있고 모든 부문에서 물자소비기준을 저하시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릴수 있다.

기계공업의 발전은 모든 생산품과 건설물의 질을 높이는데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논다.

우리가 기계공업을 발전시켜 성능이 좋은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대주어야만 다른 부문들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늘일수 있으며 생산장성과 기술적진보를 이룩할수 있다.

이렇게 우리 기계공업을 더한층 발전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급속히 추진하여야만 우리 인민경제를 더 공고하고 생활력이 강한 자립경제로 만들수 있으며 인민생활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다.

현시기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원쑤들의 있을수 있는 침략에 대처하여 국방건설을 더욱 촉진하여야 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자면 또한 우리는 기계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이 요구된다. 기계공업을 발전시켜 각종 군사기술기재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인민군대의 기술장비를 더한층 현대화할수 있고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과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또한 기계공업을 발전시켜야만 군수공업의 생산토대를 더욱 강화할수 있다.

이렇게 기계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여야만이 인류의 흉악한 원쑤인 미제의 전쟁책동을 물리칠수 있으며 적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안전을 확고히 보위할수 있다.

현시기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자주로선을 관철하는데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계공업을 발전시켜 자체의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가지고 경제건설을 추진시켜야만 나라의 정치경제적자주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를 더 잘 보위할수 있다.

현대적기술발전의 기초로 되는 기계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경제, 문화, 국방 및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때 우리 인민들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은 더욱 확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이와 같이 기계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그것을 우리 인민경제발전의 튼튼한 기초로 되게 하는것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 경제에서의 자립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의 자주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할것이다.

기계공업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나라의 자연조건에 비추어보더라도 절실한 요구로 된다.

우리 나라는 금속공업을 발전시켜 자체의 발전된 기계공업을 창설할수 있는 커다란 전망을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

에는 수십억톤에 달하는 철광석이 매장되여있으며 유색금속과 같은 유용광물이 있다. 이 풍부한 자연부원을 개발하여 자체의 야금공업을 발전시키고 그에 의거하여 기계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킨다면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더욱 높은 기술로 장비할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기계설비들을 외국에 다량 수출할수 있다.

우리가 자체의 기계공업을 발전시켜 풍부한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해나간다면 전체 조선인민에게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생활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데 대한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투쟁목적을 실현할수 있다.

이와 같이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정치적으로나, 자연경제적으로 또는 국방상에서 실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나라 사회경제 발전의 가장 절박한 요구의 하나이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오늘 기계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커다란 힘을 경주하고 있는것이다.

우리 당이 금번 전국기계공업부문일군회의를 열고 우리 나라에서 기계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필요성과 그 의의를 이 부문일군들에게 명확히 인식시켜준 리유가 여기에 있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진행된 금번 회의는 우리 나라 기계공업발전에서 일대혁신의 계기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고조를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될것이다.

김일성동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 나라 기계공업의 현실태를 다시금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기계공업이 나아갈 길을 또한번 명백히 제시해주었다.

그것은 모든 기계공장에서 기술관리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이미 마련된 기계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며 대규모기계공장을 계속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중소규모기계공장을 대대적으로 꾸림으로써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를 더욱 발전시키며 생산사업에서 기술자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는것이다.

이 방침은 우리 나라 기계공업의 현실적조건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며 기계공업의 장래발전을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이 방침이 관철되면 우리 기계공업의 기술장비는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기계공업의 생산잠재력은 최대로 발휘될것이며 그 생산성은 더한층 높아질것이다. 이 방침이 철저히 관철되면 우리 기계공업은 생산량을 장성시킬뿐만아니라 제품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늘일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와 관련하여 급속히 증대되고있는 기계공업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될것이다. 이 방침은 현시기 우리 나라 기계공업발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는 당이 제시한 방침을 관철하고 기계공업에서 일대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기계공업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와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시종일관 자체의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필요한 당적 및 국가적대책들을 취하여왔다.

우리 당과 정부의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장성발전하여온 우리 기계공업은 오늘 기술혁명수행에서 요구되는 기계설비들을 기본적으로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대중소기계공장이 수백개나 있으며 이 기계공장들에

설치된 공작기계대수는 수만대에 달한다. 또한 기술자대렬이 비상히 확대되였고 생산자들의 기술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졌으며 경제건설의 실천과정을 통하여 경험이 축적되였다. 자체의 야금공업과 화학공업의 발전은 기계공업의 후방을 공고히 하고있다.

기계공업부문과 기업소의 지도일군들이 기계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현시기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사상적으로 동원되며 이미 마련되여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에 의거하여 세밀한 조직사업을 진행하며 경제관리운영에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한다면 당의 방침은 성과적으로 관철될수 있다.

❊ ❊

현시기 당이 기계공업부문앞에 제시한 과업을 관철함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기술관리사업을 더한층 개선함으로써 기계공장들의 현존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것이다.

기술관리사업을 개선해나가는것은 현대적생산의 기본요구이며 생산을 기술공학적요구에 맞게 진행하게 하는 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 기계공업의 규모가 비상히 확대되였을뿐만아니라 기계공업이 더욱더 최신의 현대적기술로 장비되여가고있는 조건에서 기술관리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요구는 일층 높아졌다.

모든 기계공장들에서는 기술관리사업을 개선하는데 더 큰 주의를 돌릴것이며 그 해결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기술관리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기술준비를 앞세우고 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기술준비를 선행시키는것은, 김일성동지가 지적한바와 같이 생산의 기본법칙이다. 생산에서 기술준비를 선행시키지 않고서는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제품을 만들어낼수 없고 또 로동생산성도 높일수 없다.

기계공장들에서는 반드시 생산에 앞서 제품설계와 기술공정도를 비롯한 기술문헌을 준비하고 구비된 기술문헌에 립각하여 공구, 지구 등 기술장비를 갖추도록 하며 그 기초우에서만 생산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계공장의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규률을 세우며 생산공정을 기술공학적요구에 맞게 관리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선 소재보장부문에서 원자재와 보조자재들을 재질, 규격별로 잘 보관관리하며 주물, 단조, 열처리부문들에서 조작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것을 규정대로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공, 조립, 완성, 검사, 출하에 이르는 전생산과정에서 조작공정과 기술규정을 정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기계부속품의 질을 높이고 그 생산을 앞세우며 기계설비의 예방보수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것은 현존기계설비를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이다.

우리 당의 정확한 조치에 의하여 부속품의 생산기지가 꾸려졌으며 그것은 더욱더 공고히 되고있다.

만일 우리가 부속품의 질을 높이고 그것을 효과있게 리용한다면 현존생산기지를 가지고서도 예비부속품을 3개월분이상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할수 있으며 계획적예방보수사업을 정상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오늘 급격히 증대되고있는 부속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부속품의

질을 높이는것과 함께 선진기술을 도입하며 낡은 부속품을 적극 재생리용하는것이 필요하다.

지금 일부 기계공장들에서는 내마모용착법을 도입하여 축, 치차, 모타를 비롯한 많은 부속품을 재생하고 그것을 효과있게 리용하고있다.

모든 기계공장에서는 선진기술과 선진경험을 광범히 도입하여 낡은 부속품들을 최대한으로 재생리용함으로써 급격히 증대되고있는 부속품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설비를 애호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것은 설비관리사업개선에서 선결조건이다.

생산자들이 기계설비를 자기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고 그것을 능숙하게 다룰줄 알아야만 설비능력을 최대로 발휘시킬수 있으며 설비의 정밀도를 보장하고 그 수명도 연장시킬수 있다.

우리는 모든 기계운전공들이 자기의 기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도록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이 기계의 소리만 듣고도 그 상태를 판단할수 있도록 기술수준을 높여주어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계공업자체의 기술장비를 강화하며 이미 꾸려진 생산토대에 살을 붙이는 사업을 계속 추진시켜야 한다.

지난년간 기계공업과 기업소들을 보충완비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여기에서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그것은 아직도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있다. 우리는 계속 기계공장들을 보충완비하여 그것이 갖출것을 다 갖춘 온전한 공장으로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수 있는 완비된 공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기계공업에 살을 붙이는 사업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기종간 균형을 보장하는것이다.

기종간의 균형을 맞추는것은 기계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는 중요조건이다.

지난시기의 경험을 살려 도처에서 전군중적으로 단능기계새끼치기운동을 전개하여 질좋은 전문기계설비들을 많이 만드는 동시에 최신의 정밀기계와 실험기재생산을 새로 조직함으로써 기계공업의 생산구조를 더욱 완성하며 기종간균형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기계공장의 생산능력을 더한층 높이고 모든 기계설비들을 만가동시킨다면 기계공업의 거대한 생산잠재력을 동원할수 있다.

기계공업과 기업소들을 보충완비하여 그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소재부문을 계속 강화하고 그것을 가공부문에 따라세워야 한다. 소재부문과 가공부문간의 균형을 보장하는것은 기계공업의 현존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장성시키며 제품의 질을 높이게 하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

소재부문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단조프레스를 비롯한 압착가공방법을 더욱 광범히 도입하여야 한다. 소재생산에서 압착가공방법을 널리 적용하는것은 현대기계공업발전의 추세이다.

기계공업부문과 기업소들에서는 단조프레스화를 광범히 실시하여 소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공장들에서 자체의 압연, 연신기지를 꾸리는것은 소재생산을 강화하는 방도이다.

현대적기계공장에서 압연, 연신은 기계생산의 소재준비를 위한 금속가공공정으로서 응당 갖추어야 할 중요공정의

하나로 되다. 더우기 기계제품의 품종이 확대되고 정밀한 기계설비를 생산하게 된 오늘에 와서는 이것이 인츰 절실한 문제로 되였다.

모든 기계공장들에서는 소형 압연기와 연신설비들을 많이 만들어 자체의 소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림으로써 규격강재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며 생산에서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소재생산을 강화하는데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주물생산을 더욱 개선하는것이다. 주물생산을 개선하여 그것을 가공에 선행시키지 않고서는 기계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으며 생산능력을 완전히 발휘시킬수 없다.

기계공장들에서는 우선 금형주조, 정밀주조, 압력주조, 원심주조 등 각종 선진주조법들을 광범히 도입하여 주물생산에서 생산성을 급속히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규모가 작은 주물직장들을 통합하고 개별제품에 대한 주물생산을 점차 전문화해나가야 한다.

현시기 대규모기계공장을 계속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중소규모기계공장을 광범히 조직하는것은 기계공업의 내부구조를 완비하고 생산의 전문화를 심화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위력한 방도로 된다.

중소규모기계공장을 조직하고 발전시키는것은 국가자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짧은 기간에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며 기계제품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늘일수 있게 한다. 중소규모기계공장의 발전은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나 국방상견지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현생산제품중에서 떼내올수 있는 모든것을 떼내여 도처에서 중소규모기계공장을 광범히 조직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모체공장에서 중소규모기계공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것이다. 모체공장에서는 중소규모기계공장이 자체로 걸어나갈수 있을때까지 기술장비, 원료자재보장, 설비보수 및 기술지도에 이르는 기업관리의 모든 측면에 걸쳐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이렇게 중소규모기계공장을 꾸림으로써 전문화, 협동화체계를 더욱 완성하고 기계설비생산에서 대규모기계공장과의 배합작전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기계공업의 생산구조는 더욱 개선될것이며 생산능력은 최대한으로 발휘될것이다.

기술자, 기능공과의 사업을 잘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기계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조건이다.

당의 정확한 방침에 의하여 기계공업부문에는 기술자대렬이 꾸려져있으며 그것은 더욱더 늘어가고있다.

기계공업부문의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기술자들의 힘과 지혜를 믿고 그들을 옳게 조직동원한다면 오늘 기계공업앞에 나서고있는 많은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을것이다.

기술자들의 역할을 더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사업분야를 명확히 가르고 분공을 똑똑히 주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계공장들에서는 기술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사람과, 기술을 연구하는 성원으로 기술자집단을 나누며 기술관리를 하는 사람은 기술공정을 짜고 그것을 잘 지키도록 관리하며 생산현장을 지도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은 기술문헌들—설계와 기술공정도를 검토하며 최신기계설비의 생산과 제반 기술혁신 등을 연구하고 그것을

생산에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자들이 자기의 시야를 넓히며 과학기술에 정통할수 있도록 사업조건과 학습조건을 잘 지어주어야 한다.

기계공업성과 기업소들에서는 생산실습과 기술강습, 경험교환회 등을 수시로 조직할뿐만아니라 과학기술성과를 소개하는 통보사업을 강화하며 기술자들에게 더 많은 과학기술도서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또한 기능공과의 사업을 개선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데도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로동년한이 오래고 기술기능수준이 높은 로동자들을 장악하고 그들의 생활과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이 전문부문에 고착되여 자기의 능력과 열성을 다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능공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는 체계를 세우는데도 큰 관심을 돌리며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문화수준을 계속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의 모든 기술자들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기술자들은 자체의 과학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하며 기계공업발전의 추세와 기술공학적인 제문제를 잘 알아야 한다.

기술자들은 기계공업발전을 위하여 절실한 기술문제에 대답을 주고 그것을 풀게 함으로써 이 부문에서의 기술혁명을 급속히 추진시켜야 할것이다.

기계공업앞에 나선 이 모든 과업들을 성과있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생산지도에서 과학성을 높여야 한다.

기계공업부문과 기업소들에서는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군중을 발동하고 군중의 창조력을 동원하는 동시에 객관적인 경제법칙들에 립각하여 생산에 대한 계획적지도를 강화하고 설비, 자재, 로력을 가장 효과있게 리용함으로써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되여야 할 문제는 계획화사업을 더욱 개선하는것이다.

계획화사업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을 옳게 결합시키는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일군들이 기계공업의 장래전망을 내다보면서 당면계획을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면밀히 조사되고 충분히 확인된 과학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며 그것을 수행하는데서 엄격한 규률을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로동행정사업을 틀어쥐고 그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지도일군들의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지도일군들은 로력배치와 로력조직, 로동보호사업 등 로동행정사업전반을 장악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기업소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이 자기의 초소를 굳건히 지키도록 하며 특히 지배인과 기사장을 비롯한 관리간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것이다.

현시기 기계공업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부문 당조직들은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적령도를 강화하고 자기의 전투력을 더욱 제고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철저히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위원

회가 커집이역할을 잘하는것이다.

당위원회들은 경제사업의 중요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그 수행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분공을 조직하여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행정관리일군들은 행정사업을 하며 기술일군들은 기술사업을 하고 당일군들은 당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당위원회는 지배인을 비롯한 관리간부들이 자기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더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 당일군들이 경제기술일군들을 제쳐놓고 모든 사업을 도맡아하거나 또는 당위원회가 경제지도사업과 당조직정치사업의 어느 한측면에만 치우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고 제기된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기관본위주의와 기업소본위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으며 경제과업수행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미풍을 발양하게 할것이다.

이와 같이 당조직들은 생산에 대한 당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당사업의 기본인 정치사업을 더 강화하여 모든 일군들을 우리 당의 혁명정신으로, 자력갱생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제기된 혁명과업을 철저히 자체의 힘으로 실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결하여 모든 일군들을 당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더욱 높은 창조적열의를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생활을 보살펴주는것은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의 중요한 한부분이다.

기업소들에서는 공장자체의 후방기지를 튼튼히 꾸려 로동자들에 대한 부식물공급사업을 더한층 개선하며 로동자들의 문화휴식조건과 생활조건을 더 잘 지어주어야 한다.

기계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민경제의 련관된 부문에서 기계공업을 적극 도와주는것이 요구된다. 금속, 화학,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는 강재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들을 제때에 규격별로 공급해주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처해있는 정세와 기계공업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은 우리들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된 투쟁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안일과 해이를 배격하고 동원된 태세에서 생활하며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더욱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과 전체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대표자회가 기계공업앞에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프로레타리아독재 정권의 수립과 그 강화발전

김 재 영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바와 같이 정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의 기본문제이며 혁명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문제이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손에 정권을 틀어쥐여야만 계급적해방을 실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을 령도하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주권문제의 옳은 해결에 심중한 주목을 돌려왔다.

해방후 우리 당은 주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인민정부로선과 그 실천적경험에 의거하였다.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김일성동지는 당시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인민이 쟁취하여야 할 주권은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로농동맹에 기초한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이 참가하는 인민정부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천명하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인민정부로선은 우리 나라의 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얻은 실천적경험을 총화한데 기초하여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로선이였다. 김일성동지가 천명한 인민정부로선은 철두철미 낡은 통치기구를 분쇄한데 대한 혁명적원칙과 주권문제의 해결은 오직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자주적립장, 그리고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결합시키며, 계급적해방의 과업과 민족적해방의 과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원칙에 기초하였다.

해방직후 우리 당은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가 제시한 인민정부로선과 그 실천적경험을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주객관적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정권문제해결을 위한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수립하였다.

김일성동지는 해방전 우리 사회의 식민지반봉건적성격과 우리 혁명의 반제반봉건적성격으로부터 출발하여 새로 수립될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각계각층인민들의 통일전선에 립각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정권으로 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인민정권수립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처음부터 좌우경적편향을 반대하는 날카로운 투쟁을 동반하였다.

해방직후 어떤자들은 우리 나라에 부르죠아공화국을 수립할것을 주장하는 우경투항주의적행동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근본적리익을 무시하고 극소수의 지주, 자본가들의 리익을 옹호하려 하였다. 또 어떤자들은 해방직후부터 당장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수립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와 사회발전의 객관적법칙을 무시하고 민주혁명단계를 뛰여넘으려 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정권전취를 위한 투쟁에서 떼내려고 하였다.

우리 당은 이러한 좌우경적편향을 폭로분쇄하면서 인민정권수립을 위한 투쟁에서의 로동계급의 령도, 당의 령도

를 확고히 보장하는 동시에 광범한 대중적지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1946년 2월 8일에 세워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국내의 광범한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력량을 망라하고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립각한 인민정권으로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김일성선집 제4권, 446페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짧은 기간내에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우리 당은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혁명이 수행된후 계속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원칙에서 사회주의혁명단계에로 전진한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사회주의혁명에로의 이행은 북반부의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인 동시에 전국적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로 되였다. 이에 따라 혁명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여 그것을 사회주의혁명의 수행에 적응한 정권형태로 발전시키는것이 심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당은 1947년 2월 첫 민주선거를 통하여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수립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우리 나라에 탄생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북반부에서 실시된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히하면서 점차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계승발전시킨 정권이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와 같이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정권이였으며 전국적으로는 계속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정권이였다. 그러므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로부터 북조선인민위원회에로의 이행은 주권문제해결에서 그 어떤 장벽을 넘는 행정이 아니였다. 이것은 우리 혁명과 정권자체발전에서의 특성이였으며 특히 해방후 정권문제해결에서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그것을 독창적으로 해결한 우리 당 령도의 현명성의 결과였다.

해방후 우리 당은 일제식민지통치기구를 폭력적방법으로 철저히 파괴하는 기초우에서 인민정권을 세웠다.

조선에서의 일제식민지통치기구는 조선인민에 대한 가혹한 착취도구였으며 방대한 무장력을 가진 파쑈적폭압기구였다.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폭력적수단에 의한 방도만이 우리의 주권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였다. 그러므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강도일제와 싸웠으며 해방후에는 곧 일제통치기구를 철저히 파괴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이 력사적과업은 우리 당의 령도하에 인민정권을 창신하는 행정에서 성과적으로 실현되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일제의 낡은 통치기구를 청산한 토대우에서 수립된 혁명정권으로서 인민대중의 리익과 의사를 대표하였다. 그러므로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의 수립은 기존정권을 공고발전시키는 방도로써 해결될수 있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기존정권을 공고발전시키는 방도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수립할수 있은것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시기 벌써 로동계급의 령도,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였고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적민주혁명이 철저히 수행됨으로써 계급력량관계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여 있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

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인민정권의 창설과 그 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혁명력량이 급속히 강화되였으며 당의 령도가 확고히 실현되였다. 반면에 지주, 예속자본가 등 반동세력들은 전복되여 맥을 추지 못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당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사회주의혁명과업의 수행에 적응한 북조선인민위원회로,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직접 계승발전시킬수 있었다.

그러나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 대한 이러한 계승적성격은 결코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이 계급투쟁이 없이 진행되였다거나 이량자간에 차이가 전혀 없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그 임무와 성격에 있어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와는 구별되는 정권이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시기에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때에 비하여 로동계급의 령도적지위가 더욱 강화되여 인민정권이 이미 사회주의적성격을 가지게 되였다. 로농동맹의 내용에 있어서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로동자와 농민이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단합된데 기초하였다면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로동계급이 농민들을 점차 사회주의에로 인입하기 위한 투쟁에서 단합된데 기초하였다. 그리고 북조선인민위원회의 통일전선적기초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시기에 비하여 현저히 변화되여 사회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상응한것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그 기능의 실현에서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이였다면 북조선인민위원회는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인 북조선인민위원회는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서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과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김일성선집 제4권, 447페지).

북조선인민위원회의 혁명적기능과 활동에 의하여 북반부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들이 달성되였으며, 전국적인 혁명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게 되였다.

우리 혁명이 점차 심화되고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이 더욱 로골화되는 조건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새로운 혁명임무에 적응하게 계속 강화발전시킬 요구가 제기되였다. 즉 북반부에서 사회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국통일의 위업을 촉진시킬수 있도록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남북조선전역에 걸친 력사적인 총선거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191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은 일층 공고발전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되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정권은 전국적인 합법적정권으로 되였으며, 오래동안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은 당당한 독립국가로서 국제무대에 진출하게 되였다.

공화국인민정권은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부단히 발전하면서 당이 내세운 모든 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공화국정권은 당의 령도밑에 전복된 착취계급의 반항을 진압하는 한편 경제분야에서 자본주의적발전을 제한하면서 국영부문의 지배적지위를 보장하고 민족경제를 부흥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와 사회주의건설을 한걸음한걸음 준비하여왔다.

그러나 공화국정권의 이러한 준비사업은 미제와 그 괴뢰도당의 강도적무력침공으로 말미암아 일시 중단되였다.

인민정권은 일체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로 모든것을 조직동원하였다.

전시조건에서는 정권기관사업이 더욱더 중앙집권적원칙에서 통일적으로 기동성있게 진행되는것이 요구되였다. 우리 당에 의한 군사위원회의 조직은 이러한 요구의 구현이였다. 군사위원회는 전시비상최고권력기관으로서 모든 인적물적 역량을 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하도록 통일적으로 지도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전행정에서 군사위원회와 정권기관들은 비상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쟁은 미제무력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이였던만큼 이 시기에 인민정권은 독재의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였다. 인민정권은 전시조건에서 보위의 기능과 진압의 기능을 밀접히 결합시키면서 모든것을 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하였다.

인민정권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전시생산과 전선공급을 보장하면서 후방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켰다.

전후 인민정권앞에는 정전의 조건하에서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동시에 파괴된 인민경제를 급속히 복구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며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되였다.

전후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는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였다. 인민정권은 당이 제시한 협동화의 방침에 따라 국가적지도와 방조를 강력히 실현함으로써 이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짧은 기간내에 성과있게 수행할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완성은 인민정권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계기로 되였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착취계급과 온갖 착취제도가 청산됨으로써 공동한 목적과 리해관계를 가진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의 통일과 단결, 친선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게 되였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에도 인민정권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은 약화되는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외의 계급적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에도 계급투쟁은 계속된다. 그것은 내외의 계급적원수들의 파괴활동과 침략책동을 반대하며 온갖 부르조아적 및 봉건적 반동사상과 그 잔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표현된다.

우리 당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계속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임으로써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반항과 외부로부터 기여드는 간첩파괴암해분자들의 반혁명음모책동을 분쇄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며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국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는것은 언제나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의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그들의 침략적본성은 변할수 없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없으며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특히 조국이 남북으로 분렬되고 미제와 직접 맞서고있는 우리의 조건에서는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할뿐아니라 남반부를 해방하고 전국적범위에서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는것이 최대의 민족적과업으로 된다. 이를 위

하여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강화하며 특히 국방건설을 강화하는것은 사활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로 된다. 인민정권은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고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시켜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로농적위대를 강화하였으며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혁명기지를 불패의것으로 되게 하였다.

우리 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과 우리 나라가 처한 사회력사적조건의 특수성,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의 복잡성을 옳게 타산하면서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적아를 명확히 구분하고 극소수의 반혁명분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우리 편에 끌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묶어세우는 방침을 견지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시켰다.

인민정권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은 사회의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계속 강화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데 있을뿐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을 개조하여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 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사회주의하에서도 계급적차이는 남아있으며 근로자들의 의식속에는 낡은 사상잔재가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이것을 극복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적차이를 무시하거나 낡은 사상잔재의 위험성을 보지 않으면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계급적원칙을 약화하게 되면 당과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마비시킬수 있으며 사회생활에 부르죠아적영향을 퍼뜨릴수 있고 따라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존립자체에 커다란 위험을 조성할수 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정권활동에서 사회에 대한 로동계급의 국가적지도를 부단히 강화함으로써만 낡은 사상잔재를 성과적으로 뿌리뽑을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적차이를 과장하고 계급투쟁과 낡은 사상잔재의 위험성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면서 인민대중의 정치도덕적통일을 무시하게 되면 적아를 가리지 못하고 애매한 사람들을 적대분자와 같이 취급할수 있으며 당과 대중과의 리탈을 가져오고 사회에 불안을 조성할수 있다.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와의 투쟁은 공통한 목적과 리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내부문제로서 어디까지나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진행되여야 하며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에도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극복하며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혁명을 계속 강력히 추진시켜왔다.

인민정권은 당의 방침에 따라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국가적지도와 방조를 강화하고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경제, 문화, 사상,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계급화과정을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고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은 투쟁과 단결의 무기로 될뿐아니라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된다.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은 경제문화건설을 촉진함으로써만 인민생활도 향상시킬수 있고 국방력도 강화할수 있으며 사회의 계급적차이와 낡은 사상잔재도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적개조의 완성에 의하여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서 인민정권의 경제조직자적 및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높이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리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전면적으로 수립된 새로운 환경에서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는 문제는 가장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종래의 개인경리를 지도하던 때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으로써는 사회주의경리를 운영할수 없었다.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주의적소유로 되고 인민경제가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에 의하여 운영되는 조건에서 나라의 살림살이와 인민생활에 대하여 인민정권기관들이 책임적으로 돌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인민정권기관들이 경제문화생활의 모든 령역에 걸쳐 완전히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특히 지방정권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호주로서 지방경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공급사업을 개선하여 인민들이 먹고 입고 사는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책임적으로 돌보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정치적주권기관으로서의 인민정권기관들의 주권행사의 기능을 높이면서 전문적인 경제관리기관들을 조직하여 경제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국가경제관리기관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방법에 기초하면서 계획작성으로부터 생산조직, 기술발전, 로동행정, 재정관리 등 기업관리의 모든 측면들을 직접 틀어쥐고 구체적으로 조직지도할수 있게 되였으며 이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감독통제적기능이 강화되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은 사회주의전취물의 믿음직한 보위자로서,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서 당이 내세운 모든 혁명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또 하고있다.

* *

우리 당은 지난 20년동안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창설하고 그것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행정에서 귀중한 경험들을 쌓았다.

우리 나라에서의 인민정권의 력사적 경험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정권에 대한 당의 령도를 부단히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지도적 및 향도적력량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유지공고화하며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필수적요구로 된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바와 같이 정권형태는 하나의 정치적형식에 불과하며 문제는 그것을 누가 령도하는가에 따라서 실지 그 정권의 정책적내용이 규정된다.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는 인민정권이 나아갈 정책적방향을 제시해준다. 인민정권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당의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인민정권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당이 자체의 사명과 강령을 원만히 수행하는 길이다.

인민정권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거나 약화시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독재자체를 거부하는것이며 당을 무장해제시키는것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편향을 경계하고 인민정권에 대한 령도적역할을 확고히 구현함으로써 정권의 기능을 부단히 높일수 있었으며 당이 제기한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었다.

인민정권에 대한 당의 령도의 강화는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담보로 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성과적실현을 위한 당활동의 필수적요구로 된다.

인민정권의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경험은 또한 맑스—레닌주의적국

가전설원칙인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견지하며 그것을 부단히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준다.

정권기관의 모든 조직과 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하에서의 정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기본담보로 된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강화해야만 정권기관들의 활동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에 옳게 복종시킬수 있고 수백만 근로대중의 무궁무진한 창발성을 발양시켜 그들을 국가관리에 광범히 참가시킬수 있다.

원래 사회주의사회는 근로자들의 의식적인 창조물이며,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인만큼 대중의 민주주의가 높이 발양되고 그것이 조직화되여 하나의 의지로 통일될것을 요구한다. 특히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면서 인민경제의 규모와 범위가 더 커지고 그 부문간 및 지역간의 련계가 복잡해지는 조건에서, 또한 나라의 주인으로 된 대중의 창조적열의가 부단히 높아가는 조건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강화하는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된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계속 강화함으로써만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을 끝까지 수행할수 있다.

인민정권의 활동에서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를 서로 대립시키는것은 사회주의하에서의 국가건설의 맑스—레닌주의적원칙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중앙집권제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통일적지도를 보장할수 없고 사회생활에서 무질서와 무정부성을 초래하게 되며 따라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마비시키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대중의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중앙집권제만 일면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주관주의적, 관료주의적 오유를 범하게 되고 인민대중의 창발성과 하급기관의 적극성을 억제하게 되며 결국 당정책을 원만히 집행할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이러한 편향을 경계하면서 인민정권의 조직과 활동에서의 기본원칙으로 되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부단히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인민정권강화에서의 우리의 중요한 경험의 하나는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는 문제이다.

인민정권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계급적기치를 계속 견지함으로써만 이미 달성한 혁명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하면서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이후에도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은 혁명의 전취물을 파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며 부르죠아반동사상을 침습시킴으로써 인민정권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적아간의 적대적관계를 보지 않고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와 아무런 인연도 없다. 우리 당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나고 착취계급이 청산된 이후에도 인민정권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의 전취물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튼튼히 수호할수 있었다.

인민정권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계급적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군중로선의 원칙을 여기에 밀접히 결합시켜야만 당과 로동계급의 주위에 광범한 근로대중을 굳게 묶어세우면서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성과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로동계급은 자체의 해방을 위해서는 전체 피착취근로대중을 해방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력사적 사명은 그들이 전체 근로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이끌어주어야 한 군중로선의 원칙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에도 계급투쟁이 남아있고 계급적차이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와 군중로선의 결합을 홀시하여서는 안된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계급의 령도를 옳게 보장하면서 공동의 목적과 리해관계로 단합되고있는 전체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며 혁명과 건설에 옳게 인입하는 문제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극소수의 적대분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같이 교양개조하여 당과 정권의 주위에 묶어세워 공산주의에로 이끌고 가자는 립장에 확고히 서있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발전의 특성으로 하여 군중속에 복잡한 계층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도 인간개조사업을 대담하게, 전면적으로 추진시키고있으며 여기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이것은 대중의 혁명성을 철저히 믿고 그들을 개조할수 있다는 우리 당의 인민대중에 대한 철저한 맑스—레닌주의적관점의 승리로 된다.

우리 당의 경험은 인민정권기관들을 강화하며 그 활동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정확히 관철하는 문제가 일군들의 사업방법, 사업작풍을 개선하는 문제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제도는 인민정권기관일군들에게 낡은 사회의 유물인 관료주의, 형식주의, 행정식사업방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제도는 인민정권기관의 성격과 사명에 부합되는 사업방법과 작풍을 요구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옳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대중의 열의가 비상히 높은 조건에서는 일군들이 옳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소유하는 문제가 인민정권기관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함에 있어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명령과 호령을 일삼는 관료가 아니다. 그들은 대중속에서 당의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활동가이며 성심성의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다. 우리 당은 인민정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정확한 사업방향과 방도를 명시해주었을뿐아니라 정권기관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체득하고 구현하도록 부단히 교양하여왔다.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전면적으로 수립된 이후 당은 조성된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게 사업방법과 작풍을 고치는 문제에 심중한 주목을 돌리였다. 정권기관 일군들이 청산리방법을 체득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온 과정은 정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임에 있어서 획기적의의를 가지였다. 청산리방법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인민정권기관의 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로 된다.

* *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조성된 정세와 투쟁임무의 요구에 상응하게 인민정권을 부단히 강화발전시켜왔으며 이 행정에서 빛나는 업적과 귀중한 경험들을 축적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국가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데서 이루어진 열매이다.

우리 당이 축적한 국가건설경험, 인민정권운영의 경험들은 금후 인민정권의 가일층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인민정권은 앞으로도 당의 령도하에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계속 견지하고 더욱 높임으로써 당대표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할것이다.

조선인민군은 혁명의 믿음직한 보위자

정 병 갑

혁명적무장력을 창설하고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맑스—레닌주의당에 있어서 사활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우리 당은 그 창건 첫날부터 혁명무력건설에 심중한 주목을 돌려왔다. 혁명무력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조선인민군을 오늘과 같은 불패의 무장력으로 되게 하였다.

우리 당은 금번 진행된 당대표자회에서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우리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제고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당의 군사로선을 재천명하였다.

당의 군사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는것은 조선인민군 전체 장병들 앞에 나선 전투적임무이다.

1

조선인민군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고 교양육성되였으며 우리 당의 령도를 받는 영광스러운 로동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인민군대는 맑스—레닌주의와 당의 로선, 정책을 자기의 지도사상으로 하며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보위한다. 인민군대는 당적사상체계로 무장하고 당이 제시한 혁명로선을 무력으로 옹호하며 관철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한다.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 계승자이다.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직되였다. 항일유격대의 고귀한 투쟁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정신은 인민군대의 튼튼한 뿌리를 이루고있다.

우리 인민군대는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로 조직되였다. 조선인민군은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총을 쥔 사람들이다.

조선인민군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 당의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한다.

우리 인민군은 우리 나라에서와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인민군대는 우리의 혁명선렬들과 인민들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무력으로 수호한다. 남반부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동포들을 해방하며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숭고한 투쟁과업이다.

인민군대의 이러한 사명과 그 바탕에 놓여있는 인민군대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은 그들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조건짓는다.

우리의 인민군장병들은 혁명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자기들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사명에 대한 자

각으로 하여 당과 조국을 위해서라면, 혁명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강의한 혁명적 의지를 가진다.

인민군대는 강철같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군대이다. 인민군대는 명령과 지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무조건 집행한다.

인민군대는 같은 사상, 같은 목적, 같은 처지로 하여 상하가 일치되여있다.

그들은 모두가 혁명의 전우로서 서로 믿고 도우며 이끄는 붉은 집단을 이루고있다.

군민일치는 혁명적무장력의 고유한 특성의 하나이며 조선인민군의 전통적인 미풍이다. 인민군대는 인민들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여있으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목숨으로 지킨다. 인민들은 인민군대를 자기의 친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적극 지지하며 성심성의로 원호한다. 군인들과 인민들은 일단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한덩어리가 되여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싸워야 할 혁명전우이다.

당과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령도, 당과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 인민군대의 혁명적성격과 숭고한 사명—여기에 그들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김일성동지는 혁명군대의 특성과 우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숭고한 사명과 혁명정신, 장병들간의 동지적 우애와 자각적인 군사규률, 인민들과의 밀접한 련계 등은 어떠한 제국주의침략군대도 가질수 없는 맑스—레닌주의적혁명군대의 특성이며 우월성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혁명군으로서의 우리 인민군대는 바로 자기의 이와 같은 정치사상적우월성으로 하여 어떠한 침략군대도 능히 때려눕힐수 있는 백전백승의 무력으로 된다.

제국주의군대와 모든 반혁명군대들은 결코 인민군대와 같은 정치사상적우월성을 가질수 없다.

제국주의군대는 근로대중을 압박하고 자본의 정권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된다. 레닌은 자본주의국가군대를 낡은 제도와 규률, 자본통치의 유지, 노예적 순종의 보존과 교양, 자본에의 근로자들의 예속 등등에 리용되는 도구라고 지적하였다.

제국주의국가군대들은 돈으로 매수되였거나 반동적인 회유와 기만, 강제에 의하여 끌려온 고용병들이다.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때문에 싸워야 하는지를 모른다. 상전들에게는 군인들의 각성이 무엇보다도 무서운 위협으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고용병들속에서 저들의 반동적의도를 극력 가리며 그들을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침략에로 내몬다. 미국군대나 남조선괴뢰《국군》들속에서 맹목적인 인간증오사상, 전쟁광신증과 공포증, 염세주의, 퇴폐주의 등이 뒤엉켜 판을 치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미국군대가 걸어온 행정은 자국인민들에 대한 야수적탄압과 타국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수치스러운 력사로 엮어져있다. 미제침략군은 오늘 국제헌병으로서 국제무대에서 그가 노는 반동적역할로 하여 세상사람들의 극도의 저주와 증오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혁명군으로서의 조선인민군은 전투에서의 대중적영웅주의와 자기 희생성, 생활에서의 강철같은 규률성과 고상한 도덕적기풍으로 하여 제국주의군대, 반동군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은 그들을 제국주의군대, 반혁명군대와는 비할바 없는 강유력한 무장력으로 되게 한다.

우리 당대표자회는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여기에서 인민군대의 정치

사상적우월성이 더욱 높이 발양될수 있도록 준비시키는것은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우리 인민군대의 성격과 사명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높이 발양하도록 교양하는것이다.

인민군장병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원쑤에 대한 적개심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속에서 원쑤들의 침략책동과 있을수 있는 전쟁도발에 대처하여 언제나 경각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영웅적인민군장병들은 항상 당과 인민의 두터운 믿음과 기대를 명심하고 자기에게 부여된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야 한다.

2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동시에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시켜 인민군대를 간부화하고 현대화하여야 하며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의 간부화와 현대화는 우리 당 군사로선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우리의 혁명무력을 불패의것으로 되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군대의 간부화와 현대화는 무장력의 기본을 이루는 군인들과 무기를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준비시킴으로써 혁명무력을 질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한다.

인민군대를 간부화하는 우리 당의 방침은 모든 군인들속에서 군사정치적자질과 령도예술, 지휘능력을 백방으로 높이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기들의 직책상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게 할뿐아니라 한등급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도록 준비시키는것이다.

당의 간부군대화방침은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일수 있게 한다.

군대의 전투력은 지휘성원들의 정신상태, 그들의 령군술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김일성동지는 «지휘관의 질적가치는 전체 군대의 질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김일성선집 제4권, 1954년판, 363페지). 모든 군인들이 사상적으로 준비되고 한등급 더 높은 직책상의 령군술과 군사기술로 무장될 때 군대의 전투력은 비상한것으로 된다. 우리 당 간부군대화방침의 관철은 모든 군인들이 상급의 명령과 지시를 능숙하고도 원만하게 집행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복잡한 전투정황하에서도 적정을 신속정확히 판단하고 명확한 전술적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준비시킬수 있게 한다. 또한 전쟁의 이러저러한 환경에서 필요할 때에는 누구나 더 높은 직무를 훌륭히 감당할수 있게 함으로써 항상 지휘체계를 확고히 보존하면서 전투승리를 보장할수 있게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우리 당의 간부군대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자신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며 부대의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간부군대화방침은 또한 수많은 군사간부들을 길러내게 함으로써 일단 유사시에 우리의 무력을 급속히 확대할수 있게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현대전은 방대한 인적 및 물적 력량과 예비를 요구한다. 특히 군대지휘간부의 예비를 충분히 가질 때에만 적을 부단히 타격하면서 달성된 전투성과를 확대공고화할수 있으며 또한 전투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아군의 승리를 성과있게 보장할수 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는 즉시로 대대적인 무력증강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이때 우리

에게 훌륭한 군사지휘관들이 마련되여 있지 못하다면 무력의 량적증가는 응당한 생활력을 나타낼수 없다. 훌륭한 군사간부들이 수많이 준비되여있어야만 질적으로 재인 우수한 전투대오를 급속히, 대량적으로 편성할수 있고 또 능숙한 지휘체계하에서 즉시에 성과적인 전투서렬을 보장하고 전투에 진입할수 있다. 우리 당의 간부군대화방침은 바로 이러한 요구를 가장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방도로 된다.

군대의 간부화와 함께 현대화는 인민군대를 무적의 혁명군대로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능숙한 지휘능력과 현대적군사기술을 소유한 전투대오는 불패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발톱까지 무장한 원쑤들의 침략에 대비하여 우리 인민군대를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겠다. 모든 수단을 다하여 무기들을 현대화하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더욱 위력한것으로 만들어야 한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오늘 세계에서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으며, 현대전에는 최신무기와 최신군사기재들이 대량적으로, 련속적으로 동원되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멸망의 운명에서 빗어나기 위한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면서 과학기술의 최신성과들을 군사적목적에 대대적으로 도입하고있으며 저들의 군대를 부단히 현대적무기로 장비시키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당은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각종 신형무기로 무장한 원쑤들의 침략에 대처하여 인민군대를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로 튼튼히 무장시키고있다. 당은 군인들속에서 전투훈련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여 그들이 모두가 최신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현대적군사과학기술을 충분히 소유하도록 지도하고있다.

인민군대를 현대화하며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우리 당은 언제나 산이 많고 해안선이 긴 우리 나라의 실정, 우리 군대의 육체적특성을 옳게 고려할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다. 군사행동은 일정한 공간속에서 진행되느니만큼 지형조건은 전투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람들의 체질이 무기를 다루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게 되는것만큼 여기에도 응당한 주의를 돌리는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지형조건과 군인들의 체질에 맞게 무장을 갖추며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고 도입하는것은 현대화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어떠한 전쟁도 그 어떤 개별적인 신형무기나 병종만으로 종국적승리를 달성할수 없다. 특히 현대전은 일반병종과 더불어 각종 특수병종들에 의한 유기적인 배합전으로서 현대적무기와 재래식무기의 옳은 결합과 모든 군종과 병종들간의 긴밀한 협동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현대전의 특성과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을 타산하면서 산이 많고 해안선이 긴 우리 나라의 조건에 적응하게 이러한 과업을 정확히 해결하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대전의 조건에서 군사행동지대를 강화하는것, 특히 진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이 적의 타격으로부터 유생력량과 전투기재를 잘 보호하고 적은 력량으로써 우세한 적을 소멸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모든 구분대들에서 진지를 튼튼히 구축하고 진지에 의탁하는 전투조법과 전투기능, 지휘능력을 높이는것이 큰 의의를 가진다.

군인들의 높은 정치사상적각오와 간부화, 현대화는 하나로 통일되여 인민군대의 질적우월성을 담보한다. 간

부화와 현대화는 군인들로 하여금 맑스—레닌주의적혁명군술과 최신군사과학기술을 가지게 함으로써 현대전의 조건에서 자기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발휘시킬수 있게 하며 불패의 군대로 되게 한다.

김일성동지는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이 현대적군사기술과 결합될 때에는 참말로 위대한 힘을 발휘할수 있는것》(우와 같은 문헌)이라고 지적하셨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온 나라를 반석같은 방위시설로 뒤덮게 할것을 요구한다. 나라의 도처를 급속히 전투마당으로 만들수 있는 현대전의 조건에서 무장할 사람이 따로 있고 요새화할 지역이 따로 있을수 없다. 정규군인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온 나라를 요새화할 때만이 사회주의조국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다.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는 적들의 어떠한 침공도 막아낼수 있는 군사전략상 가장 위력한 방위체계이다》(우와 같은 문헌).

원래 모든 혁명은 무장한 반혁명과의 폭력투쟁을 중요한 투쟁형태로 하고있다. 사회주의혁명은 인민자신이 자체의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인것만큼 그것이 무장한 인민자신에 의하여 수호되는것은 응당한것이다. 그 어떠한 침략자도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손에 총을 잡고 일떠선 인민을 결코 타승할수 없다.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방침은 이러한 혁명적립장에서 출발하고있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의 관철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준비된 혁명무력을 가질수 있게 하며 언제나 불패의 전투대오를 가지고 내외의 원쑤들을 격멸할수 있게 한다.

군대의 간부화, 현대화와 전민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 군사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3

우리 당 군사로선의 생활력은 그 정당성에 기초하고있다.

우리 당 군사로선의 정당성은 우선 주체사상을 국방분야에 구현한 자위의 혁명적원칙에서 출발하였다는데 있다.

모든 나라 혁명은 그 나라 인민자신의 일이다. 따라서 혁명의 열매를 지키고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사업도 매개 나라 당과 인민자신의 임무로 된다. 우리 당은 이러한 혁명적원칙으로부터 국방에서도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각국 로동계급의 국제주의적지지성원에 의거할수 있고 또 의거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 특히 주권을 쥔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나라 인민들의 혁명과 건설에 대한 지지성원을 결코 부담으로 간주할수 없다. 사회주의진영나라들은 국제주의정신에 기초하여 서로의 혁명사업을 적극 도와야 하며 어느 한 사회주의나라가 제국주의자들의 침공을 받게 되는 경우 무력적지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형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 나라 인민의 혁명투쟁과 방위력을 대신할수 없으며, 침략자들을 종국적으로 타승하는 힘으로 될수 없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우선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와 같이 국토가 량단되고 나라의 절반땅에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이 둥지를 틀고있는 조건에서는 더욱더 자위적조치가 절실한 문제로 된다.

개개 나라에서의 자위적원칙에 의한 국방력강화는 그 나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는 기본담보로 될뿐아니라 전체 사회주의진영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진영전체를 제국주의와 모든 반혁명의 침공으로부터 보위하는 위력한 방위체계로 된다. 모든 나라가 다같이 강력한 군사적보루로 되면 될수록 그 어떤 반혁명세력도, 제국주의침략자들도 사회주의진영나라들을 전체로는 물론 개별적으로도 정복할수 없다.

특히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주로 웰남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며 조선, 꾸바, 동부독일 등 분렬되여있는 나라들과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는식으로 사회주의진영을 파괴하려 하고있는 조건하에서 반제공동투쟁을 철저히 전개하는 동시에 자체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위의 원칙에서 우리의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며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실현하는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철저히 혁명적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며 우리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의 정당성은 또한 그것이 현대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였다는데 있다.

현대전은 다종다양하고도 위력있는 타격수단들과 전투기술기재들이 동원될뿐아니라 모든 군종, 병종들의 유기적인 협동하에 넓은 전선과 깊은 종심에서, 하늘과 땅, 바다에서 전투행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립체전쟁이다. 현대전은 한두차례의 작전이나 전투로 끝날수 없다. 이것은 적들에 대한 련속적이며 결정적인 타격을 요구한다.

적들은 대량살륙무기를 포함한 최신무기의 사용과 함께 불의성에 기대를 걸면서 전격전으로 침략적목적을 달성하려고 획책할수 있다. 오늘 부르죠아 전략가들은 전쟁시초에 불의성으로서 주도권을 쥐는것을 전쟁승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놈들의 어떠한 형태의 책동도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있게 우리 군대와 인민을 효과적으로 준비시킨다. 평시부터 언제나 꾸준히 인민군대와 인민들에게 각종 정황하에서의 전투조법과 현대적군사과학을 소유케 하는 당의 방침은 우리를 불의성이나 전격전에도, 장기전에도 원만히 대응할수 있게 하여준다. 우리는 전쟁시초부터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줄것이며 적의 대량살륙무기와 불의적인 타격으로부터 력량과 기재, 전투물자 및 후방대상물들을 칠저히 보위할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강한 적을 약자로 만들수 있는 담보를 주며 임의의 시각에 달려드는 어떠한 적들이라도 능히 물리치며 전선에서는 물론 해안선과 깊은 종심 등 각이한 전장에서 전투성과를 확대하면서 결정적승리를 쟁취할수 있게 한다.

우리 당 군사로선의 위력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기초하고있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착취와 압박이 이미 청산되고 새로운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됨으로써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도덕적통일이 확고해졌다. 우리의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은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 리해관계와 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정치, 경제, 군사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동지적으로 결합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다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당을 따르고있고 당과 운명을 같이 할것을 마음다지고있으며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지켜낼 각오로 충만되여있다. 이러한 정치사상적통일에 기초함으로써만 인민군대를 간부화, 현대화하며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는 방침

을 실현할수 있는것이다.

사회가 적대적계급으로 분렬되여있고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얽혀있는 착취계급사회에서는 군대의 전반적간부화란 문제로도 될수 없다. 또한 지배계급은 자기들을 겨눌수 있는 혁명적인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결코 무장시킬수 없다. 착취자들은 인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인민을 탄압하기 위해서만 무장을 필요로 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우리 사회의 정치도덕적통일에 기초하고있는 동시에 그 통일을 과시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된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또한 그것이 나라의 사회주의적자립경제에 기초하고 있음으로 하여 위력하다.

전쟁의 승패는 군대와 인민의 정치도덕적요인에 의존하는 동시에 경제적 요인 즉 나라의 경제제도와 경제력에 크게 의존한다. 전쟁에서는 물적자원을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승리의 근본조건의 하나로 된다. 근로자들의 수중에 생산수단이 장악되여있고 자립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있을 때에만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하에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경제제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현하였고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닦아놓았다. 이것은 국방공업에 필요한 력량을 돌릴수 있게 하며, 그리하여 인민군대를 현대적무기로 장비시키고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전국을 요새화하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또 자체로 실현할수 있게 해주고있다.

우선 우리의 경제는 사회주의경제인것으로 하여 국방상의 수요를 계획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충족시킬수 있으며 특히 전시에 있어서는 군수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반적경제를 즉시에 전시체제로 개편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있을수 없으며 사회주의하에서만 가능한 커다란 우월성으로 된다.

또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힘에 기초하고있는 우리의 국방공업은 현대전이 요구하는 각종 군수기재들을 생산공급하고있으며 장기전의 조건에서도 능히 지탱해낼수 있고 어떠한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담보를 준다.

우리에게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튼튼한 경제토대가 있기때문에 군대의 간부화와 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의 요새화와 같은 군사로선이 가능한것이며 강력한 방위체계를 실현할수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러한 방위체계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나라의 튼튼한 경제토대에 기초해서만 수립할수 있다》(우와 같은 문헌).

이와 같이 인민군대의 간부화와 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는 우리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는 가장 정당하고 생활력있는 군사로선이다.

* *

오늘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원쑤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살피면서 당과 수령의 명령만 있으면 언제든지 미제침략자들을 격파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설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당과 수령의 부름에 무한히 충실한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위업에 대한 숭고한 사명과 자각으로 하여 사회주의 조국을 더욱 굳건히 보위하며 조국을 통일하려는 비상한 결심과 기백으로 들끓고있다.

혁명적정열로 불타는 우리의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는 이 땅에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혁명적위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것이다.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혁명적인민의 승리, 침략자들에 대한 혁명적무장력의 승리는 필연적이다.

군중로선구현에서의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

리 농 훈

1

력사적인 우리 당대표자회는 당과 인민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급속히 추진하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짐으로써 조국의 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하며 혁명기지를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모든 분야에 걸쳐 당적령도를 강화하며 당의 군중로선을 더 잘 관철하여 전체 인민을 당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우며 혁명과업수행에 그들을 옳게 조직동원하는것이다.

당의 군중로선을 구현함에 있어서 전체 인민을 교양개조하여 그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높이는 사업과 더불어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완성하는 문제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군중로선을 구현하려면 한편으로는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하며 다른편으로는 군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25～26페지).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대중의 열성이 앙양되여있는 조건에서 사업의 성과여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기 위한 당사업체계를 확립하고 일군들에게 옳은 사업방법을 체득시키느냐 못시키느냐 하는 문제와 전적으로 관련된다.

당의 로선, 정책집행을 위한 대중지도사업은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통하여 실현된다. 정연한 사업체계와 능숙한 사업방법만이 대중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하고 당과 대중의 힘을 하나로 합쳐 당의 로선, 정책관철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옳은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비상히 높이며 그들의 창조적열의와 적극성을 고도로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기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에 부합되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모든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의 열성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군중로선을 관철할것을 요구한다. 원래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은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조직동원할수 있는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확립됨이 없이는 사회주의혁명

과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방대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없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김일성동지의 정확한 령도밑에 전당에 유일한 당적사상체계를 수립하는 기초우에서 군중로선의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근로대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더욱 개선하고 완성하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왔다.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당의 계급적 본질을 표현하며 동시에 혁명의 구체적 임무 그리고 대중의 의식정도에 기초하는 당과 대중과의 련계의 형식으로 된다.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결코 고정불변한수 없다.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조성된 정세와 제기된 혁명과업의 요구에 따라 그리고 당과 대중의 준비정도에 따라 부단히 발전한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정치사상의식이 높아가고 현실이 변화되고 발전함에 따라 그리고 혁명의 매시기마다 당앞에 제기되는 혁명임무에 따라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힘써왔다.

우리 당은 또한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의 발전을 깊이 연구하고 그에 맞게 당사업방법과 형식을 가일층 완성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어떤 《추상화된 공리》가 아니라 구체적인민생활에 토대할 때만이 대중을 깊이 감동시킬수 있으며 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뿐만아니라 도덕의리적으로도 굳건히 결속시킬수 있기때문이다.

우리당은 우리 인민의 새것에 대한 높은 지향과 공경에 대한 사랑, 높은 도덕감정을 옳게 포착하고 당사업에서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형식과 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조건에서 구체화시키고 더욱 발전시켰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그처럼 커다란 힘을 나타내게 할 수 있은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당사업분야에서 구현할수 있게 하였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전후에 사회주의경리형태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였으며 생산력이 급속히 발전되고 생산의 규모가 확대되였으며 대중의 정치적열성이 더욱 높아진 새로운 조건하에서 그에 상응하게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다. 당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깊이 살피고 그에 맞게 당사업체계와 방법을 완성하였으며 온갖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대중동원의 구체적형식과 방도를 규정하였다.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조건에 맞게 가일층 개선완성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전환점으로 된것은 김일성동지의 청산리지도였다. 청산리방법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으며 당의 본신사업을 훌륭히 구현할수 있는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의 본보기를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통일적으로 제시한데 있다.

우리 당은 청산리방법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의 전통적인 본연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복귀시키고 사회주의사회의 변화된 조건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완성함으로써 그것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뿐아니라 인간의 사상의식까지도 교양개조하는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였다.

청산리방법은 과거 사회의 유물인 행정식, 명령식,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등 낡은 사업방법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다. 우리 당은 해방후 창건된 첫

날부터 행정식관료주의적사업방법을 경계하여 그와의 투쟁을 꾸준히 전개하여왔다. 해방후 우리의 적지 않은 일군들이 혁명투쟁과 군중공작의 경험이 짧고 낡은 사상의식의 잔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조건에서 낡은 《틀》을 마스기 위한 투쟁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청산리방법은 과거사회의 유물인 행정식, 명령식, 관료주의의 낡은 《틀》을 부정하고 나온 새로운 공산주의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의 전형으로 되였다.

공산주의적이며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의 본보기인 청산리방법은 결코 빈터우에서 하루아침에 마련된것은 아니였다. 이 방법은 깊은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다.

김일성동지를 선두로 하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1930년대에 벌써 우리나라 혁명투쟁의 구체적조건에 맞는 공산주의적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의 전통을 이룩하여놓았다. 그리하여 항일무장투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중을 령도하여 광범한 혁명군중을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으며 방대한 군사정치적임무를 능숙하게 해결해나갔다.

청산리방법은 바로 이러한 전통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오늘의 구체적조건, 사회주의건설의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가일층 발전시킨것이다.

청산리방법을 전당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일군들속에서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등 낡은 사업 태도와 습성의 잔재를 극복하고 혁명적군중관점을 확립하는 문제였다.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당의 대중지도와 관련된 일정한 질서, 제도, 절차와 그 형식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단순한 행정실무적인것일수 없다.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당의 성격과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에 기초하고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의 사상관점, 혁명적군중관점을 바로세우지 않고서는 그들이 이러한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의 진수를 체득할수 없으며 그것을 실천활동에 구현할수 없다.

우리 당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3차, 10차, 12차, 13차 전원회의들을 통하여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고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등 낡은 사상의식의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전개하여왔다.

이것은 당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훌륭히 구현할수 있게 하는 사상적바탕으로 되였다. 당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혁명적군중관점은 청산리방법에 의하여 구현된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의 고유한 우월성과 그 생활력을 유감없이 발휘시키는 담보로 된다.

2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항상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료해하고 문제해결의 정확한 방도를 강구하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선행시키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의 수행을 보장하는데 있다》(김일성,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26페지).

청산리방법에 구현된 우리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군중로선을 훌륭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일련의 본질적특성을 가지고있다.

우리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무엇보다도 먼저 군중로선을 구현함에 있어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며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공정》에 놓는다.

혁명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은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자기의 본신임무로 간주한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

을 떠나서는 당사업에 대하여 론할수 없으며 군중로선을 관철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람과의 사업은 당사업의 기본이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하지 않고는 군중을 동원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없다》.

당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령도적역할을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수행한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시키며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는 모든 사업은 결국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조직들의 일상적사업인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군중을 당주위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이 모든 일은 결국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면 될수록 사람과의 사업의 의의는 더욱더 증대된다. 사회주의하에서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인간의 지배는 날로 더 커지며 사회주의건설은 사람들의 의식성과 능동성에 더욱더 의존된다. 따라서 사회주의하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출발점》으로 하는것은 이 사회제도의 합법칙적요구이기도 하다.

사람과의 사업은 곧 정치사업으로 된다. 사람과의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들의 의식을 계발하고 그들을 혁명임무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하게 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사업은 정치사업을 통하여 사람들을 설복하고 교양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수 없는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대중지도, 사회주의하에서의 대중동원은 결코 자본주의사회에서와 같이 강제와 회유, 기만, 매수 등의 착취자적수법에 의존할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사람과의 사업이란 곧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사람들을 설복하고 교양하며 그들의 의식을 깨우쳐주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청산리방법에 구현된 우리 당의 사업체계, 사업방법은 당사업을 철두철미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 방법은 당기관들로 하여금 《키잡이》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케 함으로써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령도를 보장하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전적으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진행할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행정식, 명령식 방법, 행정대행의 방법과는 인연이 없다. 행정식, 명령식 방법, 행정대행의 방법은 당의 사명과 당활동의 규범에 어긋난다. 그것은 결국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군중로선을 구현할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당사업에서 본신임무인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려면 행정식명령과 행정대행의 그릇된 사업방법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으로 된다는것은 그것이 대중의 혁명투쟁과 실천활동이 벌어지는 생산현장, 생활단위에 접근되며 침투되는것을 전제로 한다. 사람과의 사업, 생산자대중과의 사업은 그들의 사업과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점에서, 당정책이 관철되는 매개의 초소에서 진행됨으로써만 실속있게 될수 있다. 실천활동, 실생활과 유리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이란 한갖 공허한 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과의 사업이 생동한 현실속에서, 분꽃뀌는 근로자들의 생산단위에서 진행될 때 이 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즉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고 실천활동에서 걸린 문제를 풀어주며 대중을 계발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에 조직동원할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그것을 제일차적인 사업으로 간주하는 원칙은 비단 당사업에서

뿐만아니라 이여의 모든 부문에서도 반드시 견지하고 관철하여야 할 근본문제로 되고있다. 이 원칙은 사회주의제도의 합법칙적요구인것만큼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도 구현되여야 하는것은 응당한 리치이다.

오늘 당 및 국가경제기관의 모든 단위에서 당일군은 물론 행정경제일군, 기술일군들도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일차적으로 진행하며 《하나가 열을, 열이 백을 움직이는 원칙》에서 이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나가고있다. 경험은 모든 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는것이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지혜를 혁명과 건설에 남김없이 조직동원하는 결정적조건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의 본질적특성의 하나는 또한 지도에서의 중앙집권제와 대중의 민주주의를 밀접히 결합시키고 통일시킨데 있다. 이것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근본문제이며 군중로선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한 고리이다.

당의 활동, 당의 대중지도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의 관철은 당이 대중속에 확고히 뿌리박고 대중이 당에 철저히 의거하며 당과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결합되게 한다. 동시에 이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강철같은 혁명적규률과 대중의 자각성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그들의 적극성, 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중앙집권제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당의 군중로선구현에서 지도와 대중의 결합, 상하의 합심으로 이루어진다.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받는 사람,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호상관계를 공산주의적관계, 동지적관계로 맺는가 못맺는가 하는것은 중앙집권적지도와 민주주의의 참된 결합여부를 보여준다.

우리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의 거대한 우월성은 지도와 대중, 상하의 관계를 혁명적이며 동지적인 관계로서 굳고히 결합시킨데 있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의 본질적요구의 하나는 웃사람이 일상적으로 아래에 내려가서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배워주고 도와줌으로써 제기된 혁명과업을 아래단위의 일군들과 생산자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하게 하는데 있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상급기관들의 지도적사명을 충분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동시에 생산자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유감없이 발양시킨다. 뿐만아니라 당 및 국가 상급기관의 결정, 지시를 아래단위에서 무조건접수하고 그의 관철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할수 있게 한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대중의 민주주의와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킨다. 모든 사업에서 대중의 민주주의가 적극 발양되여야만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객관적현실에 부합되는 정확한 결론을 찾아낼수 있다. 또한 대중속에서의 민주주의의 발양은 자기 맡은 사업에 대한 주인다운 책임성과 당정책집행에서의 창발성을 대담하게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로부터의 지도와 통제가 없는 무규률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상 아래단위와 생산자대중속에서의 민주주의와 창의창발성은 당의 령도, 우로부터의 정확한 지도와 통제가 있음으로써만 옳게 발현될수 있다. 우의 지도와 통제에서 벗어난 《민주주의》와 《창발성》은 자유주의와 본위주의를 낳게 하며 그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과 배치된다. 그러므로 군중로선구현에

서 자유주의, 본위주의는 허용될수 없다. 중앙집권제하에서 발양되는 대중의 민주주의와 대중의 민주주의적의사에 기초한 중앙집권적지도만이 혁명적군중로선의 위력을 발양시킨다.

우리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지도와 대중, 상하간의 관계를 이러한 공산주의적원칙에서 설정함으로써 그들을 당정책집행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진정한 혁명동지로 서로 결합시키며 힘을 합치게 한다.

우리 당은 또한 모든 단위에서 집체적협의제를 강화하게 함으로써 중앙집권적지도와 민주주의의 결합을 훌륭히 구현시킨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 이것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당적지도분야에 구현한것이다. 따라서 당조직들이 지도에서 집체적협의제를 강화하는것은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에서 상급의 지도에 대중의 의사와 창발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나갈수 있게 하며 당정책의 정확한 관철을 보장한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철저한 혁명성과 과학성의 통일에 기초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당의 모든 활동은 언제나 혁명적이며 과학적이여야 한다. 우리 당이 청산리방법을 구현함으로써 철두철미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한것은 맑스－레닌주의당으로서의 자기의 본성과 임무에 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 일관된 혁명성과 과학성은 우선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근로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에 의거하며 그들을 옳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끝까지 해결해나가는데서 표현된다.

군중에 의거하고 군중을 발동시키는 것—이것은 당활동의 혁명성과 과학성을 통일속에서 구현케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대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은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40페지).

우리 당은 모든 사업에서 항상 나라의 주인이며 혁명의 주체적력량인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그들을 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실현해나가고있다.

당은 난관과 시련에 부닥쳤을 때에도 언제나 자기 인민을 굳게 믿고 대중과 협의하며 대중의 내적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그것을 혁명적으로 극복해나갔으며 방대하고 어려운 수많은 사업들을 대중적인 운동으로 전개하여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도, 지방산업공장들의 건설도, 수리화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도,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웅대한 대규모공장의 건설도 모두다 군중적운동으로 전당적, 전인민적운동으로 해결해나갔다.

대중의 힘을 믿지 않으며 혁명적인 군중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낡고 진부한것, 보수와 소극, 답보와 동요밖에 있을수 없다.

청산리방법에 구현된 우리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당의 장구한 혁명적실천활동의 경험을 일반화한것으로서 온갖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불사르고 당활동이 철저하게 대중에게 의거하여 대중을 발동시키는 혁명적원칙에서 진행되도록 하고있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의 이러한 혁명성은 과학성이 안받침됨으로써만 고유한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

당사업에서 과학성의 요구는 우선 객관적현실에 대한 료해와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선행시키는데서 나타난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료해는 당사업에서 과학성을 보장하는 선결조건이다.

당사업에서 정확한 《처방》과 실속있는 조직정치사업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다.

객관적현실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대중의 실태, 그들의 념원과 희망을 정확히 반영한 결정과 조치들만이 과학성을 보장할수 있다. 객관적현실에 대한 조사료해를 선행시키지 않고서는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관주의적오유를 면할수 없으며 문제해결의 정확한 방도를 찾아낼수 없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서 과학성의 요구는 또한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옳게 결합시키며 중심고리를 포착하고 그에 력량을 집중하는 원칙이 관철됨으로써 구현된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옳게 조직동원하려면 당정책을 해설침투시키고 그의 집행대책을 세우며 력량을 포치하는 등 일반적지도와 함께 매개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적응하게 짜고드는 개별적지도가 이에 배합되여야 한다.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의 결합은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함으로써 선진적이며 긍정적인 모범에 의하여 락후성과 부정적현상을 극복할수 있게 하며 전사회적규모에서 대중의 전진운동을 촉진시킬수 있게 한다. 이 방법은 또한 혁명발전의 매시기에 제기되는 주되는것과 차요적인것, 선차적인것과 후차적인것을 옳게 가려내며 중심고리를 포착하고 그에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걸린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이러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위력한 방법을 자기의 수중에 틀어쥐고 그것을 구사함으로써 일군들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시키고 사업방법과 작풍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며 그들의 사업수준을 현저히 제고할수 있었다.

* *

군중로선을 구현한 우리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당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상하가 합심하여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군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는 청산리방법의 요구가 관철됨으로써 당의 령도적역할은 높아지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류례없이 강화되였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이 우리 당 주위에 칠석같이 통일단결되였으며 혁명대오는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려지고있다. 또한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들의 정치실무수준은 훨씬 제고되였다.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우리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군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키며 천리마운동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고히 체득하며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앞에 제기된 혁명과 건설의 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사대주의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다

리 지 린

사대주의는 약육강식의 승냥이법칙이 지배하는 낡은 세계, 낡은 사회의 사상잔재이다. 그것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착취하고 나라와 나라간에, 민족과 민족간에 침략과 예속이 지배하던 세계의 력사적산물이다.

이런 세계에서는 착취계급이 혹은 대국주의에, 혹은 사대주의에 따질수 있는 사회적조건이 있다.

착취자사회에서 통치계급은 자기 인민을 억압착취할뿐아니라 다른 인민, 다른 민족을 예속시키고 그들의 고혈을 짜내려는 팽창야욕에 지배된다. 그리하여 나라들간에 평등과 호혜적관계가 이루어질수 없으며 배타주의와 침략과 예속이 그들간의 호상관계에서 특징으로 된다. 여기에서 강국은 지배자로 되며 약소국가는 예속적처지에 놓이게 된다.

약육강식의 낡은 세계에서 강국의 착취계급은 대국주의적행세를 하게 되며 약소국가의 통치계급은 흔히 대국의 지배적지위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사대함으로써 자기들의 통치적지위를 유지하려 한다.

이런 관계는 봉건제도하에서 뚜렷이 제도화되였다. 봉건사회에서는 그 계급들간에, 혹은 계급내부에 위계제도가 수립되여있는것처럼 린접국가들간에도 흔히 지배와 예속의 관계가 형성되였다.

봉건국가들 사이에서 강자는 약자를 《보호》하는 처지를 획득하며 약자는 강자에게 섬기는 처지에 빠져들어갔다.

사대주의와 대국주의는 약육강식의 법칙과 뗄수 없으며 그 하나의 표현형태로 된다.

자본주의—제국주의하에서 이러한 사태는 더욱 보편적성격을 띠게 되였다. 대국주의와 사대주의의 사회계급적바탕은 이 사회제도하에서 오히려 더 강화된다. 더많은 리윤을 얻으려는 자본가들의 강렬한 욕망은 강국에 의한 침략과 략탈행위를 몇배나 더 강화하였다.

다른편으로 예속된 나라의 착취계급들은 흔히 침략자들 앞에서 민족적자주성과 독자성을 고수하는것보다 저들의 반인민적리익을 추구하는데 더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면서 침략자들과 결탁하고 그들의 《보호》를 받으려는 배족적인 행동을 감행한다. 이것은 그들속에서 민족적자존심의 사소한 흔적마저 지워버리며 비렬한 사대주의를 산생시킨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대국주의와 약소국가 착취계급의 사대주의를 응당한것으로 인정하며 그것을 적극 배양한다. 제국주의자들은 약소국가와 식민지 및 반식민지 인민들의 극심한 무권리와 불평등을 조성하고 약소민족을 야수적으로 억압착취하며 멸시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약소민족의 독자적발전의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거부하여나서며 그들의 민족문화와 민족적생활양식을 천시하고 각종 인종론을 조작하여 저들의 지배적특권을 합리화한다. 제국주의렬강의 이러한 대국주의적책동에 상응하여 정복당한 나라의 매판지배층속에서 사대주의가 적극적으로 조장된다.

사대주의는 착취계급들의 리기주의적이며 매국배족적인 본성을 반영한 사상이다.

그것은 약소국가의 지배계급이 큰 나라를 섬기면서 자기의 통치를 보존하려는 목적과 밀접히 결부된다. 착취계급들의 이러한 사대주의는 국내에서 계급적모순이 격화되고 지배계급이 저들의 처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특히 우심한것으로 된다.

일정한 나라가 큰 나라와 관계를 맺고있다 하여 모든 경우에 사대주의가 산생되였던것은 아니다. 나라의 생산력과 문화가 발전해나가고 지배계급이 자기 나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는 때에는 대국주의를 물리칠수 있었으며 사대주의는 발생될수 없었다. 력사는 이러한 사실을 허다히 보여준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조선으로부터 고려중엽에 이르기까지의 천수백년간 사대주의가 문제로 되지 않았다. 당시의 우리 나라 국력은 강대하였고 특히 고구려는 아세아동북의 강국의 하나로서 자기의 위력을 전동방에 시위하였다.

후세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는 삼국시기의 문화유물들에서 우리는 당시 인민들의 높은 자주의식과 슬기로운 기질을 력력히 찾아볼수 있다.

삼국시기에 발현되였던 우리 인민의 자주정신은 고려인민들속에서 계승발전되였다. 고려의 애국적인민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강대한 외래침략세력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였으며 굳건한 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이루어놓았다.

당시 일부통치배들이 부단히 침습해온 외세앞에서 동요성을 나타낸 일이 없지 않았으나 인민들의 애국심과 자주의식이 앙양된 조건에서 그들의 사대주의는 허용되지 않았다. 통치계급들은 인민들의 애국투쟁에 의하여 저들의 권력을 유지하였고 나라의 자주를 고수할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의 발생은 통치계급이 저들의 안락한 생활만을 생각하면서 국력을 약화시키고 국방을 소홀히하여 외세의 침습을 막을수 없게 된것과 관련되였다.

고려말엽 특히 리조시기에 봉건통치계급이 사대주의에 빠진것은 이에 대한 례로 된다.

고려통치를 전복하고 권력을 쥔 리조초기 집권자들은 고려의 친원파세력을 제어하고 저들의 통치를 유지하는 방도로서 다른 봉건대국의 세력에 의존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고려집권계층의 정치, 사상적 지반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던 불교사원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사상적수단으로서 성리학의 교리를 끌어들였으며 그것을 저들의 사대주의를 합리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다. 성리학은 작은것이 큰것을 섬기는것은 천명에 부합되는것이며 오직 그것을 아는 자만이 능히 그 나라를 보존할수 있다고 하면서 사대주의와 대국주의를 적극 합리화하였다.

이러한 교리가 교조주의적으로 도입되고 그것이 더욱 부연됨으로써 사대주의는 하나의 사상체계로 공고화되기 시작하였다.

리조봉건통치배들은 성리학의 교리를 절대시하고 그것과 배치되는 일체 사상조류들을 무조건 탄압하였다. 그리하여 사대주의는 차츰 봉건통치배들과 지배계급내부의 유학자, 선비들의 세계관의 구성부분으로 되여갔고 큰 나라에 대한 사대행위는 그들에 의하여 하나의 도덕륜리적인 관계로까지 간주되게 되였다.

사대주의는 봉건통치계급의 가혹한 착취로 말미암아 국력이 쇠퇴한 리조말

열에 이르러 더욱 우심해졌다. 당시 우리 나라에는 18세기 이래 발생발전하고 있던 자본주의적요소를 가꾸어 자주적 근대국가에로 향하는것이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여있었다. 그러나 온갖 가렴주구로 인민들을 피폐케 하고 국력을 쇠퇴케 한 고루한 봉건통치배들은 물밀듯 밀려든 외래침략자들을 막을만한 아무런 실제적인 대책도 세울수 없었다. 이러한 조건을 리용하여 자본주의렬강은 침략의 마수를 더욱 깊이 뻗쳤고 그들은 저들의 목적을 위하여 사대주의자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이때까지 봉건주권에 복무하던 사대주의자들은 봉건제도의 위기가 격화되는데 따라 이미 그 권위와 영향력이 약화된 성리학사상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제각기 외래세력을 등에 업은 친일파, 친청파, 친로파, 친미파 등 여러갈래의 사대주의적당파를 형성하였다.

사대주의는 착취계급의 매국배족적성격을 반영하는 사상으로서 원래 근로인민과는 직접적인 인연이 없다. 봉건량반계급이나 매판자본가들은 저들의 리기적목적을 위하여 외세에 아부하며 나라와 민족을 해치는 일을 서슴없이 감행할수 있으나 근로인민은 자기의 힘, 자기의 로동으로 살아가는만큼 사대주의를 할 까닭이 없다. 그들은 남을 억압착취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지 않을뿐아니라 외래침략자들이 자기 나라를 침략하며 억압하는것을 허용할수도 없다. 우리 나라 력사에는 근로인민들과 애국인사들이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싸워이겼으며 통치계급의 매국배족적행위를 견결히 배격한 자랑찬 사적들이 수다하다.

나라의 자주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각 방면에 걸치는 개혁을 위하여 투쟁한 실학사상가들, 리조말엽의 개혁파들, 반일의병장들에 의하여 전개된 애국투쟁, 부패무능한 사대주의통치배들과 외세를 반대한 농민들의 폭동 등은 그 실례로 된다.

근로인민은 원래 자기들의 생활처지로 하여 사대주의와 인연이 없으나 통치계급의 사대주의는 인민들속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다.

지배계급의 사상은 매개 사회의 지배적사상으로서 그것은 언제나 지배계급에 의하여 적극 조장되고 전사회에 류포된다. 사대주의에 빠져들어간 지배계급들은 저들의 립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대중속에 큰 나라에 대한 숭배사상을 적극 류포시킨다. 그리하여 국가정치와 교육체계, 선전수단을 통한 사대주의의 전파는 대중들속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다. 결국 약소민족의 통치계급이 외세에 의존하고 사대주의에 빠지면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라나게 되는것이다.

특히 국력이 약하고 과학문화의 발전에서 남만 못할 때 사대주의는 더 쉽게 전파될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락후성의 진정한 원인과 그 극복방도를 잘 인식하지 못할 때 자기보다 강한자를 맹목적으로 숭상하게 되기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람들이 한번 사대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러한 사상감정은 나라의 과학, 문화의 락후성과 결부되여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는것이다.

사대주의—이것은 맑스—레닌주의세계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사상이다.

맑스—레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근로인민의 사회적해방과 함께 민족적해방과 민족들간의 평등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반대하면서 그것과 결부된 민족들, 인민들간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맑스주의는 착취를 근절하는 투쟁이 인민들간의 억압을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있다는것을 가르친다. 다른 나라 인민을 억압하는 민족은 자기자체도 자유로울수 없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착취를 근절한 인민은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해서 오직 평등적인 관계만을 가질수 있다.

특히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 이후 이 나라들간에는 맑스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관계가 형성되였다. 남을 침략착취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는 계급이 청산된 사회주의나라들간에는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한 친선과 협조의 관계만이 존재한수 있다. 이들간에는 사대주의나 대국주의가 결코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다같이 사회주의 진영의 동등한 성원들이다. 이 나라들가운데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으며 발전된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소의 차이, 발전수준의 차이는 이 나라들간의 호상관계를 규정하는 그 어떤 기준으로 될수 없다. 여기에는 상하관계, 종속관계란 결코 있을수 없다. 완전한 평등, 자주성, 호상존중, 내정불간섭 및 호상협조, 이것이 사회주의나라들간에 맺어지는 국제관계의 기본으로 된다. 오직 이러한 원칙에 기초할 때만이 이 나라들간의 국제적친선과 단결을 공고히한수 있다.

사대주의—이것은 큰 나라의 지배와 명령에 순종하고 남에게 붙어서 살려는 노예근성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인 주체사상, 자력갱생의 정신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주체사상,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고귀한 특징이며 본성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디까지나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하며 자기 나라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워야 하며 자기 인민의 창조적힘에 의거하여 자기 문제를 끝까지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립장에 서야만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는만큼 공산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사대주의사상도 허용할수 없다.

* *

력사는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사대주의가 미치는 악독한 해독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력사는 사대주의에 물젖은 사람들이 민족적자존심도 나라의 존엄도 다 저버리고 큰 나라에 아부하면서 대국주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장시킨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대주의와 대국주의는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있다. 대국주의자들은 사대주의자들을 리용하여 다른 나라 내부에 분열을 조성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자신의 리기적목적을 실현하려 한다. 사대주의자들은 대국주의를 안내하면서 그 야망을 실현하는 주구로 된다. 그리하여 사대주의와 대국주의는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대국주의는 사대주의가 없이는 잘 통할수 없다.

사대주의는 온갖 창조적지혜를 말살하는 가장 유해로운 사상적독소의 하나이다.

사대주의에 빠진자들은 자기의 자주적사고체계에 기초하여 자기가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주체적힘에 의거하여 그 현실을 개혁하려 하는것이 아니라 남의 사상을 교조주의적으로 받아들이며 외세에 매여달린다.

사대주의가 지배하면 국력은 쇠퇴해저

고 과학, 문화의 발전이 저애되며 결국에 가서는 망국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것이 력사의 교훈이다.

과거 성리학사상에 사로잡힌 봉건사대부들은 큰 나라의 권세에 아부하고 무엇이든지 큰 나라가 하는 일은 다 좋고 그들만이 지혜로운 일을 할수 있는듯이 주장하였다. 지어 그들은 풍속도 큰 나라의것만 좋다 하고 종교나 학문도 남의것을 숭상하였다. 이러한 사대주의적폐풍은 그들을 극도로 비굴하게 만들었고 온갖 자주활동의 능력을 상실한 모방주의, 민족허무주의의 포로로 되게 하였다. 그들은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켜 나라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대신에 무엇이든지 큰 나라의것을 모방하고 갖은 수단을 다하여 그들을 섬기기에 열중하였다.

리조봉건통치계급의 사대행동은 국력의 장성을 저애하였고 나라의 과학, 문화 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16세기 리황이후 사대주의자들은 실학사상가들에 의하여 제창된 선진사상과 애국자주적견해를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성리학의 공리공담과 당파싸움에만 세월을 보냈다. 그들은 인민들에 대한 탄압과 가렴주구를 더욱 격화시켰으며 국력의 강화를 소홀히하고 나라를 외세에 더욱 의존시키게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요소가 자라나기 시작한 시기에 사대주의자들은 저들의 무너져가는 봉건통치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래침략세력을 끌어들임으로써 나라의 근대적이며 자주적인 발전의 길을 가로막았다. 민비일파는 1882년 일본침략자들과 부패한 봉건통치집단을 반대하여 궐기한 군인들의 폭동, 1884년의 갑신정변 등을 외래침략군을 끌어들여 진압하는 매국배족적죄행을 저질렀다. 봉건사회말기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근대화를 지향한 조선인민의 애국자주사상의 발현이였던 갑오농민전쟁 역시 외세와 결탁한 사대주의통치배들에 의하여 가혹하게 진압되였다.

그후 외래침략세력들의 책동이 더욱 강화되고 나라의 독립이 위태롭게 된 때에 사대주의자들은 매국배족적죄행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때 친로파 사대주의자였던 리완용은 로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자 상전을 바꾸어 친일주구로 전락되고 일제의 지시에 따라 《한일합병》을 제창해나섰고 리용구, 송병준 등 《일진회》두목들은 《을사조약》을 강요한 일제에게 굽신거리고 일본에 예속될것을 요망하여나서면서 망국을 촉진하였다. 사대주의자들은 이러러운 행위로써 실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용납될 곳이 없는 역적의 무리로 전락되였다.

오늘 남조선 사대주의자들은 과거 리완용이나 《일진회》두목들이 외세를 끌어들여 결국 나라를 팔아먹고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그 심각한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미제침략자들과 되살아난 일제에게 아부굴종하고있다. 그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예속화정책의 실현을 돕고있으며 미제나 일제가 파산몰락된 남조선경제를 구원해주기나 하는듯이 인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미 백년전부터 우리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제멋대로 주인행세를 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을 그들은 《해방자》로, 《원조자》로 떠받들며 우리의 고귀한 재부를 송두리째 훔쳐가는 미제침략자들을 《은인》으로 부르고있다.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가장 철저한 사대주의자들인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 나라 남반부를 미제의 식민지, 침략적 군사기지로, 야수적인 략탈의 대상으로

전략시켰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는 정치적자주권에 대하여서는 말할것도 없고 민족경제가 혹심히 파괴되고 광범한 인민들의 생활이 도탄에 빠져있다.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은 파괴 류실되고있으며 조상전래의 미풍량속은 여지없이 유린되고있다.

광범한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는 여지없이 짓밟히고 제나라, 제땅우에서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야 하며 혹심한 민생고에 허덕이는것이 오늘의 남조선현실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와 괴뢰도당에 의하여 적극 조장되고있는 사대주의는 인민들속에까지 악독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주자립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그들의 투쟁에 헤아릴수 없는 해독을 끼치고있다.

사대주의는 실로 오늘 남조선에서 외래침략세력이 발을 붙이고있는 중요한 사상적지반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현실은 사대주의가 결국 매국배족과 망국에로 이끈다는 력사적진리를 다시한번 확증해주었으며 그것을 극복함이 없이는 민족의 자주적발전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사회적 및 민족적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사대주의를 극복함이 없이는 결코 승리를 달성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주체를 잃고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면 독자적인 사고력이 마비되여 창발성을 발휘할수 없는것은 물론, 나중에는 옳고 그른것도 가리지 못하고 남이 하는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되며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모든것을 남에게만 의존하려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종파주의 등 좌우경기회주의를 다 범하게 될것이며 혁명과 건설사업을 크게 망쳐버릴수 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79페지).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확고한 주견이 없이 행동하며 외세에 의존하여 해방을 이룩할것을 몽상하지만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지 않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는 결코 없는것이다.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력사에서의 사대주의자들의 운명이 이것을 말해주고있다.

일제시기에 우리 나라 부르죠아민족운동지도자들의 적지 않은 부분이 사대주의에 물젖어 외세에 의존하여 독립을 얻어보려 하였으나 그것은 아무러한 결과도 가져올수 없었다.

20년대 우리 나라 로동운동대열내에 끼여들었던 사대주의자들 역시 그들의 그릇된 립장으로 하여 혁명운동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왔다. 사대주의자들은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꾸리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한 대신에 남의 힘을 더 믿고 남의 신임을 지상의것으로 여기면서 로동운동내에서 종파주의를 조장시켰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인민의 전통과 민족적자부심을 내세우는것을 반대하면서 제각기 자기들의 《배경》을 믿고 자기 파의 세력을 확장하는데만 몰두하였으며 혁명은 하지 않고 로동운동대렬을 분렬약화시키는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오랜 력사적근원을 가졌고 민족해방운동과 로동운동에 커다란 해독을 끼친 사대주의는 1930년대 항일빨찌산들의 투쟁에서 비로소 철저히 극복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동지를 선두로 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원칙에 확고히 립각하여 우리 나라 혁명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해결하는 빛나는 전통을 확립하였다. 항일빨찌산들의 전투생과 생활은 철저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일관되였고 그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회주의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진정한 결합이 이루어졌다.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발현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강대한 일제와 싸워 승리할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으로 되였으며 해방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는 우리 당의 활동에서 확고한 주체적립장을 견지할수 있은 원천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이 혁명전통을 이어받음으로써 해방직후부터 사대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전개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자기 활동의 첫시기부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였다.

해방후 첫시기 우리 당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 인민의 힘을 최대한 동원하면서 새 사회건설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혁명과업들을 대담하게 제기하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능숙하게 해결하였다.

전쟁시기와 특히는 전후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과업이 전면적으로 제기되면서 주체를 확립하는 문제는 더욱 날카롭게 제기되였으며 그것을 위한 투쟁은 본격적으로 전개되였다.

전후시기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협동화정책을 제기하여 짧은 기간내에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실현을 보장하였으며 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훌륭히 축성하였다. 당은 사상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전당에 당적사상체계를 확고히 수립하였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전진도상에서 부닥친 난관을 돌파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이룩하게 하였다.

또한 주체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당은 민족문화유산의 옳바른 계승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주의적민족문화와 예술을 찬란히 개화발전시킬수 있었다.

우리 당은 주체적립장에서 계속 혁명을 추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수다한 어려운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우리 혁명과 건설의 급속한 추진을 보장하여왔다.

* *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오늘에 있어서도 의연히 우리 인민앞에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사대주의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은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류포시킴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저애하고 그들의 혁명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부단히 책동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이 백방으로 조장하고있는 사대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외래침략세력을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할수 없으며 민족적해방과 나라의 통일독립을 이룩할수 없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사상을 반대하고 민족주체의식을 높이며 외세의존사상을 반대하고 자주자립의 사상을 선전하며 민족허무주의사상을 반대하고 조선인민의 애국적민족전통을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들속에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애국애족의 사상을 고취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더욱 용감하게 투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04페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급속히 추진시키며 우리 혁명의 기지 공화국

북반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일층 공고화하기 위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투쟁에서도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주체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사상이 나올수 있는 사회계급적조건은 청산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지난 시기 사람들속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사대주의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계속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대주의사상잔재를 완전히 극복하여야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더욱 제고시킬수 있으며 자력갱생의 정신을 일층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는 사대주의의 온갖 표현을 반대하고 그것을 완전히 뿌리뽑아야 하며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발양하여야 한다》**(《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79페지).

사대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맑스—레닌주의의 과학적세계관을 더욱 튼튼히 확립하여야 하며 우리 당의 사상,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원리를 깊이 체득하고 과학적인 세계관을 확립할 때 각양각색의 반동적인 사상조류들을 반대하여 효과적으로 투쟁할수 있으며 낡은 세계, 낡은 사회의 사상잔재인 사대주의도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다.

사대주의와의 사상투쟁에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구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체득하며 우리 당의 확고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당적사상체계를 확립할 때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확고한 주견을 가지고 일편단심 당이 가리키는 길로 나아갈수 있다.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곧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인민을 사랑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정신을 배양하는 투쟁이다. 자기 인민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없이는, 또 자기 나라 혁명, 자기의 당, 자기의 계급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정신이 없이는 주체사상, 자주의식이 생겨날수 없다.

그러므로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착취없고 압박없는 우리 제도, 우리 사회의 본질적우월성을 똑똑히 파악하여야 하며 계급의식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주의감정은 자기 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투쟁업적과 유산을 잘 알고 거기에서 민족적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될 때 더욱더 높이 발양된다. 우리는 우리 나라 력사와 지리, 문화를 학습하고 우리의 자연과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모든 귀중한것들을 더 잘 알며 그것을 옳게 계승하여 오늘의 현실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사대주의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사상교양과 함께 사회주의건설을 잘해야 한다. 조금도 남부럽지 않은 자체의 경제적밑천과 발전된 과학기술이 있을 때 사대주의가 잔존할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청산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체사상을 확립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가일층 강화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미제의 남조선예속화를 합리화하는 《후진국개발론》

손 준 식

《후진국개발론》은 현대제국주의를 미화분식하며 대외침략과 략탈, 예속을 합리화하는 신식민주의리론이다.

이 리론은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전면적인 붕괴과정을 사회경제적배경으로 하고있으며 미제국주의에 의하여 배양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은 국제정세발전에서 커다란 력사적전변을 가져왔다. 사회주의진영이 형성되였으며 그 위력이 장성강화되였다. 제국주의내부모순은 더욱 첨예화되였으며 식민지인민들의 정치적각성이 비상히 높아지고 민족해방운동이 급속히 강화되였다. 이러한 정세발전은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붕괴를 촉진시켰으며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세찬 불길속에서 제국주의식민지체계는 그 근저로부터 무너져가고있으며 세계도처에서 많은 신생독립국가들이 탄생하였다.

이것은 식민지에 기생하여 비대해진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으로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식민지를 잃는다는것은 사활적인 문제인만큼 그들은 무너져가는 식민지체계를 재편성하고 위기에서 헤여나며 식민지에 대한 착취와 예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반제민족해방투쟁이 치렬하게 전개되고 식민지나라인민들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에로의 지향이 높아가고있는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종전과 같은 공공연한 지배와 략탈을 보존할수 없게 되였으며 무력과 공갈에만 의거할수 없게 되였다. 그들은 식민지지배에서 은폐되고 교활한 방법—회유와 기만에 기초한 방법을 더 많이 적용하는 신식민주의에 매달리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신식민주의는 형식상 정치적독립을 허여하면서 경제적침략과 예속을 통하여 실현하는 보다 음흉하고 교활한 지배와 착취방법이다. 신식민주의자들은 경제적《원조》라는 미명하에 식민지나라들에서 침략과 략탈정책을 계속 실현하며 종전의 지배적지위와 리권을 보존하고 정치경제군사적예속화의 새로운 올가미를 씌우려 하고있다.

《후진국개발론》은 신식민주의가 추구하는 이러한 침략정책의 본질을 가리며 합리화하기 위하여 꾸며진 제국주의의 리론적도구다.

《후진국개발론》의 제창자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을 숨기기 위하여 제국주의를 갓해방되였거나 의연히 예속하에 있는 나라 인민들의 《벗》으로 분장시키면서 그들간의 《협조관계》에 대하여 떠들고있다. 그들은 《제국소멸》, 《식민지소멸》에 대하여 떠벌리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지간의 관계를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묘사하고있다. 그러면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심각한 적대적모순을 숨기고 량자간에는 다만 자본이나 국민소득의 크기, 농업과 공업의 비중과 같은 경제발전면에서의 차이가 있는것이라고 말하고있다.

《후진국》은 제국주의침략과 략탈로 생겨났으며 지금도 외래침략자들의 식민지적착취와 억압을 당하고있다. 《후진국》이 그 처지에서 벗어나자면 제국주의침략과 예속을 물리치고 식민지사회경제제도를 쓸어버려야 한다. 그러나 《후진국개발론》은 《후진국》이 원래 못살았기때문에 가난한것이며 경제만 《개발》하면 반제투쟁을 하지 않아도 《선진국》으로 될수 있고 잘 살수 있다고 주장하는것이다.

미국 《후진국개발론》의 대표자 넉시는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후진국》은 《빈곤하기때문에 빈곤하다》는 《명제》를 내놓고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후진국》에서는 원래 실질소득수준이 낮기때문에 구매력이 낮고 구매력이 낮으니 투자와 생산이 적고 생산이 적으니 실질소득이 적다는 것이다.

《후진국개발론》자들은 《후진국》들이 《선진국》으로 되자면 경제를 개발해야 하며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자본형성》과 《개발방도》문제가 이 나라들 앞에 중요하게 나선다고 설교하고있다. 그들은 《자본형성》을 급선무라고 내세우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수탈의 강화를 《자본형성》을 위한 《내자동원》이라는 명목하에 합리화하며 《외자조달》이라는 구실하에 제국주의자들의 대외침략과 략탈의 기본공간인 《원조》 및 외래독점자본의 침투를 《정당화》하고있는것이다. 《개발방도》에서는 중공업건설 특히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반대하면서 농업과 농산물가공을 위한 경공업을 위주로 하는 《방도》를 권고하며 예속적이며 략탈적인 자본주의국제분업을 극구 찬미하고있다. 이러한 주장은 전적으로 제국주의와 식민지간의 적대적모순을 가리며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와 략탈정책을 《정당화》하고 식민지적경제구조의 보존을 합리화하자는것이다.

제국주의반동정책을 변호한것으로 하여 《후진국개발론》은 현대부르죠아반동리론의 중요조류의 하나로,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널리 류포되고있다.

《후진국개발론》은 각이한 측면에서 신식민주의를 미화하고있으며 극히 다양한 변종들로 이루어져있다. 700여의 변종이 있는 《후진국개발론》은 주로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정책을 변호하면서 다른 제국주의나라들의 리해관계도 반영하고있다. 그것들은 주로 취급하는 측면들과 제국주의나라들의 특수한 리해관계로 하여 그 내용에서 일정한 차이들을 가지고있다.

넉시, 로스토우, 스테일리 등을 위시한 미국의 반동적인 부르죠아경제학자들은 《원조》를 《후진국개발》의 기본수단으로 보면서 이를 전면적으로 합리화하는데 주력하고있다. 그것은 제2차대전후 미제가 영국, 프랑스 및 기타 제국주의나라들의 예속하에 있던 나라들에 침투해들어가며 그 나라들을 사회주의진영을 반대하는 군사기지로 꾸리려고 시도하면서 그를 위한 도구로서 《원조》공간을 많이 리용하게 되였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한편 일련의 영국부르죠아경제학자들은 《후진국개발》과정을 서서히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사회경제적 제관계의 재편성과정으로 묘사하고있으며 《비교생산비설》에 기초하여 현존하는 자본주의적국제분업을 적극 합리화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부차적인 《양보》로써 《영련방》의 혁명적청산을 《방지》하며 종전 식민지에 대한 자기의 경제적지배기구를 보존하려는 영국식민주의자들의 정책을 반영하고있다.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 서부독일의 팽창주의자들이 선전하고있는 리론들에서는 《공동개발》이니, 《경제기술협조》니, 《지역경제통합》이니 하는 론의들이 많이 전개되고있다. 이것 역시 패전후 뒤늦게 대외략탈의 길에 들어선 이 나라 식민주의자들의 수법을 《정당화》하려는것이다.

최근에 와서 집단적식민주의를 합리화하는 리론들과 《근대화론》이 펴지고있는바 《후진국개발론》은 그것들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루고있다.

《후진국개발론》은 제국주의자들과 그 어용학자들에 의하여 각이한 형태로 제창되고있으나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대립되거나 구별되는 조류와 변종으로 나누이는것은 아니다. 호상 련결되고 서로 보충하면서 모두가 동일한 목적—제국주의미화, 신식민주의합리화에 복무하고있는것이다.

《후진국개발론》의 조작자들은 그것을 퍼뜨리면서 마치도 어떤 《새로운》 경제리론인것처럼 선전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방법론에 있어서나 리론적내용에 있어서 이미 파산된지 오랜 낡은 부르죠아리론들의 재판에 불과하다. 그것은 낡은 부르죠아경제학의 비과학적방법론에 기초하고있으며 리론적내용에 있어서도 철두철미 반동적인 말사스주의, 케인즈주의, 속류력사학파의 리론, 미국반동경제학의 리론들에 기초하고있다.

《후진국개발론》은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남조선에도 광범히 류포되고있으며 미제의 식민지지배와 략탈을 합리화하는데 리용되고있다. 벌써 1955년에 녁시의 기본저서 《후진제국에 있어서의 자본형성문제》가 번역출판되였으며 그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선전놀음이 벌어졌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타난 로스토우의 《도약설》도 짧은 시일내에 남조선에 전파되였다. 그외에도 《후진국개발》에 대한 잡다한 리론들이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퍼지고있으며 그것들은 모두다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합리화하는 리론적도구로 복무하고있다.

* *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도당은 남조선사회의 《근대화》를 이룩한다는 미명하에 《경제개발》과 《경제의 근대화》에 대하여 최근 요란하게 선전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사회의 심각한 사회경제적관계의 반영으로서 미제식민지통치위기의 산물이다.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은 남조선에 수습할수 없는 사회적불안을 조성하였다. 경제는 파탄되고 인민생활은 도탄에 빠졌으며 남조선은 인간생지옥으로 화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체험을 통하여 미제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을 더욱더 깨닫게 되였다. 그들속에서는 외세를 배척하고 자주자립을 지향하는 투쟁이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반미투쟁의 기세가 점차 높아가고있다. 특히 공화국북반부의 경제발전성과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고있으며 경제발전문제에 관한 커다란 사회적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미제는 《경제개발》, 《경제의 근대화》 구호를 들고나오지 않을수 없었으며 자기들이 강요하고있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남조선인민들도 《복지사회》에서 살수 있게 될것처럼 자본주의발전의 전망에 대한 환상으로써 인민들을 기만하려 하고있는것이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경제개발》과 《근대화》를 표방하는것은 전쟁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책동의 하나로 된다. 미제는 지금 저들의 전쟁정책수행에서 남조선에 커다란 힘을 기울이고있다. 남조선은 미제에게 있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며 아세아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교두보로, 전략적요충지대로 되고있다. 이것은 미제로 하여금 남조선에서 군사기지화와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적극 추진시키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모면하며 략탈과 예속을 강화하

고 남조선을 군사기지화하며 전쟁정책수행에 필요한 방대한 군사비를 현지조달하기 위하여 《경제개발》이니,《경제의 근대화》니 하는 미봉책을 들고나왔다.
그들은 《경제성장》,《경제자립》,《경제발전》 등의 각종 기만적구호를 내걸고 남조선사회가 겪고있는 불행의 근원이 군사기지화와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있는것이 아니라 《경제적후진성》에 있으며 《경제개발》을 통하여 남조선사회의 《근대화》를 이룩할수 있는것처럼 선전하고 있는것이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경제적후진성》을 극복한다는 구실하에 제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같은 반동적정책을 조작하였다. 그들은 《경제개발계획》과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선결조건으로 《자본형성》이 필요하다고 선전하면서 《자본형성》방도로 《내자조달》과 《외자도입》을 들고있다.

그들이 말하는 《자본형성》을 위한 《내자조달》이란 인민수탈을 말하며 《외자도입》이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략에 대한 조장을 의미한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내자조달》이라는 미명하에 《초긴축정책》이라는것을 꾸며내여 인민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들씌우며, 공채발행, 인플레, 로임동결, 《내핍생활》 등을 강요하고있다. 그리고 《외자도입》의 간판밑에 예속과 략탈의 도구로 되고있는 미제의 《원조》를 극구찬양하는 한편 서독, 프랑스, 영국 등의 외국자본을 구걸하고있으며 특히 일제와 정치군사적흥정을 벌리고 일본독점자본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떠드는 《초긴축정책》과 《외자도입》이 경제의 대외예속과 인민수탈을 강화하고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도 저들의 반동적정책이 《경제개발》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것인듯이 선전하고있으며 그것을 《후진국개발론》으로 《정당화》하려고 애쓰고있다.

《후진국개발론》자들은 《자본형성》이 《경제적후진국가의 개발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후진국개발》의 기본조건이 국민소득의 10%를 《자본형성》에 돌릴수 있게 하는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 《자본형성》은 내적원천과 외적원천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있다.

《후진국개발론》이 내세운 내적원천에 의한 《자본형성》이란 《후진국》농민에 대한 가혹한 수탈, 인민에 대한 《소비억제》의 강요이며 이것은 바로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남조선에서 현실적으로 실시하고있는 《시책》들이다.

《후진국개발론》은 《후진국》농촌에 존재하는 방대한 《잠복적과잉인구》가 《자본형성》의 내적원천이라고 하면서 그 일부를 그들이 소비하던 식량과 함께 떼내여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으로 삼을것을 설교하고있다. 《농촌과잉인구》를 떼낸다하더라도 농업생산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들이 소비하던 식량이 《잉여곡》으로 남는다는것이 그들의 견해다. 그들은 농촌의 숨은 로동력과 《잉여곡》을 공짜로 얻어내여 《자본형성》에 동원하면 경제가 《개발》되고 빈곤과 실업도 해결된다고 한다.

이것은 식민지략탈로 공업이 발전못하고 경제가 전면적으로 파탄되여 농촌이 주요수탈대상으로 되여있는 《후진국》의 농촌, 농민을 가일층 략탈하려는 책동이다. 《잉여곡》이란 도대체 식민지나라들에 존재하지 않는다. 제국주의략탈의 결과 《후진국》농민들에게는 《잉여곡》은 고사하고 생활에 필요한 식량도 모자란다. 미제의 식민지예속하에 있는 남조선농촌의 형편이 이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잉여곡》의 동원이란 농민들에 대한 가장 가혹한 략탈밖에 의미하지 않는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러나 《후진국개발론》자들은 농민이 식량을 자발적으로 내놓지 않을 때에는 《강제징발》이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하고있다. 그들은 《잉여곡》을 그대로 두면 《자본형성》에 리용되지 못하고 랑비되고 말기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으로 《과세에 의한 징수》를 단행해야 한다는것이다.

《후진국개발론》은 또한 인민들의 《소비억제》를 설교하고있다. 즉 《후진국》에서는 자본이 없기때문에 소비를 절약하여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해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인민들의 최저생계비마저 긁어내려는 책동이다. 《소비절약》의 명목밑에 그들은 인민들에게 《내핍생활》을 강요하고 세금부담을 가중시킬것을 주장하고있다.

《후진국》인민들에게 있어서 《소비절약》이란 잠꼬대같은 소리다. 만성적인 실업과 기아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절약이고 뭐고 할 여지가 있는가.

《소비절약》의 또 한 방도로 《후진국개발론》자들은 《인구증식》을 막을것을 들고있다. 《후진국》은 자본보다 《인구과다》한 곳이며 따라서 잘 살자면 《인구증식》을 막아야 하며 《후진국》에서는 산아제한과 인명을 대량적으로 빼앗아가는 전병까지도 요구된다는것이 이들의 리론이다. 그들은 또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인력수출—해외이민을 적극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조선에서 실천에 옮겨지고있는 《후진국개발론》의 이러한 반동적주장들은 모두가 미제와 그 괴뢰도당의 침략과 략탈정책을 합리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것이다.

《후진국개발론》이 주장하는 《자본형성》의 내적원천동원이란 결국 농민수탈을 강화하며 《후진국》인민에 대한 야만적인 파쑈폭압을 합리화하려는 강도적 리론이다.

농민을 희생으로 하여 자본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자본주의 첫 시기에 볼수 있었던 야수적인 자본의 시초축적과 상통한다. 《후진국개발론》은 자본주의발전에서의 이 피비린내나는 죄악을 오늘의 조건에서 그것도 더욱 반인민적인 목적을 위하여 실현할것을 제창하고있는것이다. 자본가들은 농민수탈을 통하여 자본주의제도확립에 요구된 자본축적을 이룩하고 그것을 자본주의경제발전에 리용하였다. 《후진국개발론》의 경우에는 농민수탈을 통한 《자본형성》이 제국주의 특히 미제의 전쟁정책수행과 최대한의 리윤추구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리용되고있는것이다.

《후진국개발론》은 《후진국》에서의 내부수탈을 《정당화》하는 한편 《외자조달》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침략과 략탈의 수단으로 되고있는 제국주의적《원조》와 자본침투를 미화하여나서고있다.

그들은 《후진국》이란 자본이 부족한 나라이기때문에 아무리 애써 《내자동원》을 해도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다 마련할수 없으므로 결정적으로 외자에 의거해야 하며 외자는 이 나라들을 위한 《자본형성》의 기본요소라고 설교하고있다.

제국주의가 자본수출을 통하여 식민지예속과 착취를 감행하여왔으며 그것으로 식민지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여 살쪘다는것은 력사적사실이다. 자본수출은 대부자본의 형태로, 혹은 생산자본의 형태로 진행되여왔으며 제2차대전후에는 제국주의적《원조》라는 미명으로 진행되여왔다. 그러나 그 형태여하를 막론하고 또 어떤 너울을 쓰고 나타나든지간에 그것은 식민지초과리윤을 짜내기 위한것이며 《후진국》을 더욱더 예속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력사는 외국자본에 의하여 잘 살게 된 나라를 알지 못하며 더우기 그것으로

민족경제를 건설한 때는 없다. 결국 《외자도입》은 《후진국》경제를 더욱 예속화하고 그 나라들을 잉여상품시장화하며 민족산업을 파괴시킴으로써 자체의 《자본형성》까지도 저해하는 결과만을 가져온다. 이것은 《외자도입》을 백방으로 장려했고 미제의 《원조》를 20년이나 받아온 남조선의 현실에 의하여서도 여실히 증명되고있다. 미제는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경제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틀어쥐였으며 미제의 침략정책으로 하여 남조선경제는 군사화되고 식민지편파성은 더욱 심화되였다.

이와 같이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형성》의 내적원천이요, 외적원천이요 하고 설교하는 《후진국개발론》의 주장은 인민들의 이목을 식민지해방을 위한 사회경제적변혁으로부터 《자본형성》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순수 기술적문제에로 돌리려 하며 제국주의예속화와 략탈을 합리화하기 위한것이다.

《후진국개발론》은 《경제개발》을 위한 《방도》문제를 가지고도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합리화하여나서고있다.

《후진국개발론》자들의 《개발방도》란 무엇보다도 농업위주의 경제건설이다. 그들은 《경제개발》의 구체적방도를 《농업근대화》, 《지역사회개발》, 《촌락개발》 계획 등에서 찾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괴뢰들을 내세워 1958년부터 《지역사회개발운동》이라는 것을 벌려놓았으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한부분으로서 군사시설확장을 노린《국토개발단사업》을 진행케 하였다. 그리고 《모범촌락》건설이니,《농업근대화》계획이니 하는것을 꾸며내였다. 오늘에 와서는 《무역확대에 의한 국제분업에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하면서 《수출진흥정책》을 지상과제로 내걸고있으며 일련의 《수출산업》부문들을 육성장려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후진국개발론》은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이와 같은 《경제개발방도》를 합리화하는 수다한 리론을 제공하고있다. 그것에 의하면 자본이 부족한 남조선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공업건설은 경제적으로 불리하며 《자본절약적》인 농업과 농산물가공을 위주로 하는 중소공업발전을 중요시해야 한다는것이다. 《후진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업보다 농업이, 중공업보다 경공업이 로동생산능률을 훨씬 빨리 장성시킬수 있기때문에 《농업 및 경공업 개발》을 위주로 해야 한다는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실이 잘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농업생산이 령세성을 띠고 농업기술이 매우 락후한 처지에 놓여있는 《후진국》의 경우에 있어서 공업발전에 기초하지 않는 농업생산력의 발전, 기간산업의 발전에 기초하지 않는 수출생산육성이란 하나의 공담에 불과하다.

《자본절약》과 《고용문제해결》은 《후진국개발론》이 농업과 중소공업을 위주로 하는 《경제개발방도》를 합리화하는 중요한 론거로 되고있다.

《후진국개발론》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중공업은 《자본집약적》이고 《로동절약적》이므로 로동력이 과잉되고 자본이 부족되는《후진국》에 합당치 않지만 《지방과잉로동을 리용하기 위하여…특별히 계획된 촌락개발계획》은 매우 좋다는것이다. 이러한 견해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후진국》에서 현대적인 기계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원시적인 작업도구와 손로동에 기초한 각종 작업들, 례컨대 《머리광주리로 흙을 이여나르는 남녀인부에 의하여 만들어진 언제…》와 삽과 괭이로 건설된 도로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고있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후진국개발론》은 《후진국》의 경제적자립과 발전문제를 《고용》문제로 슬쩍 바꾸어놓으

려 하고있다. 물론 오늘 자본주의나라들 특히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고용》문제해결이 첨예하게 나서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적착취제도와 경제적예속에 근원을 가지고있다. 자본주의적착취의 근절과 민족경제의 확고한 토대구축, 그에 따르는 사회생산력의 장성 및 로동력에 대한 수요의 증대없이 실업문제 특히 《농촌과잉인구》문제의 해결은 있을수 없다. 남조선현실은 식민지예속경제의 조건하에서 농업과 중소공업이 부단히 쇠퇴와 몰락의 길을 밟지 않을수 없으며 그것이 실업문제 특히 《과잉인구》문제를 더욱 날카롭게 만든다는것을 실증하고있다.

《후진국개발론》이 실업문제를 운운하게 된 진의도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인민들의 육체적로동을 마음대로 혹사하며 식민지고용군대에로 강제징집하는것을 합리화하려는데 있다.

이것은 남조선의 재반 실례에서 명백히 나타나고있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벌려놓은 《지역사회개발운동》이나 《국토개발단사업》이 실업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책》으로 되는것처럼 선전하여왔다. 그러나 그것이 남조선청장년들을 군용도로를 비롯한 가종 군사시설건설과 교회당건설 등에 내몰며 괴뢰군에로의 강제징집을 가리기 위한것에 불과하였다는것은 오늘에 와서 누구에게도 비밀이 아니다.

《후진국개발론》은 《경제개발방도》의 중요내용의 하나로서 《외부경제》건설(혹은 《사회적간접자본》형성)을 내세우고있다. 미국 《후진국개발론》자 히쉬맨은 《외부경제》건설을 《1차, 2차, 3차 산업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기본용역을 제공하는 자본》으로 보고있는바 넓은 뜻에서 볼 때 거기에는 교육, 공공위생, 운수, 통신, 동력, 상하수도시설 등이 포함되게 되며 특히 운수와 동력은 그 《핵심》을 이룬다고 규정하고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외부경제》건설이야말로 《후진국경제개발》을 위한 선행공정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외래독점자본의 침투 및 그의 식민지략탈의 보장, 《후진국》을 제국주의군사부속물로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수행에 대한 합리화이다. 운수시설(항만, 철도, 도로 등)건설은 《후진국》에서 략탈한 재부를 실어가기 위하여 그리고 군수물자의 수송을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된다. 통신수단설치 역시 본국과의 경제적련계와 군사적수요를 위하여 필요하다. 상하수도의 건설, 위생시설설치 등 공공시설건설도 외래자본가들의 정상적인 활동조건을 위하여 필요하다. 《외부경제》가 군사적성격을 띠고있다는 점에 대하여 제국주의자들은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남조선의 경우만하더라도 《외부경제》건설이란 다름아닌 군사시설건설을 의미하고있다.

《후진국개발론》은 이러한 《외부경제》건설을 위한 부담을 《후진국》인민들에게 들씌울것을 주장하고있으며 더우기 《외부경제》건설이 《후진국》인민들의 육체로동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교하고있다. 《후진국개발론》의 반동성과 악랄성은 여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도당이 벌려놓고있는 《경제개발시책》들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반대하고 현존하는 식민지적경제구조의 보존을 합리화하며 남조선을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전변시키며 인민들에게 막대한 군사비부담을 강요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대외침략정책에 복무하고있다. 《후진국개발론》의 《개

발방도》는 그것을 합리화하는 리론적도구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 ⁂

《후진국개발론》은 그것이 추구하는 반동적목적과 허위성으로 하여 발생 첫날부터 파산의 운명을 지니고있다. 그것은 《경제개발》을 운운하고있으나 결코 《후진국》의 경제를 《개발》하기 위한것이 아니며 식민지경제의 유지와 략탈을 합리화하고있을뿐이다.

《후진국개발론》의 반동성과 기만성은 날이 갈수록 현실에 의하여 더욱 명백히 폭로되고있다.

남조선에서도 《후진국개발론》은 버림받고있다. 남조선에서는 《후진국개발론》을 가리켜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가 내놓은것이며 《한국에는 적용되기 곤난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미제는 뒤흔들리고있는 식민지통치체계의 위기를 극복해보려고 《후진국개발론》을 포함한 각종 제국주의변호론을 광범히 퍼뜨리고있으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기만선전에 더는 속지 않을것이다. 같은 날 같은 시에 일제의 기반에서 해방된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남반부와는 달리 자립경제를 건설하여 훌륭한 지상락원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남반부인민들에게 나아가야 할 진정한 길을 가리키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고있다. 동시에 그것은 《후진국개발론》에 결정적인 타격으로 된다. 미제는 그 어떤 궤변으로도 저들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을 가릴수 없으며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막을수 없다.

《후진국개발론》은 더욱더 많은 세계인민들로부터 반대규탄을 받고있다. 제국주의식민지정책의 파탄과 제국주의의 멸망은 필연적이며 그것을 막아보려는 《후진국개발론》의 파산도 불가피하다.

근로자 제2호 (루계 300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7년 2월 20일 발 행 • 1967년 2월 25일
ㄱ-7358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3 호

평양 근로자사 1967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3 호 (301)

차 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와 천리마작업반운동

김 왈 룡

오늘 전국은 당대표자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새로운 고조가 일어나고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공화국내각의 공동축하문에 고무된 영웅적로동계급이 지펴올린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은 인민경제의 각 부문에 퍼지고있다.

투쟁의 앞장에는 우리 로동계급의 핵심력량인 제철제강부문의 강철전사들이 서있다. 채광채탄부문, 방직식료부문, 건설운수부문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강철전사들의 모범을 따라 혁신들이 일어나고있다.

이것은 당의 부름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숭고한 혁명적자각의 산표현으로 된다.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상응하게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대 앙양을 이룩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1

모든 사람들이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고조를 이룩하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이것은 당의 령도하에 천리마운동으로 구현되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천리마운동이 심화발전되는 행정에서 그것의 조직화된 형태로, 사회주의제도에 상응하게 살며 일하려는 근로자들 자신에 의하여 창조된 사회주의경쟁의 가장 높은 형태로 출현하였다.

1959년초에 발단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급속히 전국적운동으로 확대되면서 사람들의 생활과 로동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위대한 전진운동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부단한 확대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도하여왔다.

1960년 8월에 있은 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이 운동의 발전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졌다.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에서 김일성동지는 이 운동의 특징을 천명하고 천리마기수들이 인간개조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었다. 천리마기수들은 청산리방법에 기초하여 사람들과의 사업을 첫공정에 놓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세움으로써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생산에서 커다란 혁신을 일으킬수 있었다. 천리마기수들은 또한 경제관리분야에서 청산리방법의 구현으로 되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통하여 경제관리에 보다 주인답게 참가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의 열의와 창발성은 높이 발양되였고 생산행정에서 동지적협조와 집단주의적원칙이 더욱 구현되게 되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로 된것은 또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6차전원회의와 10차전원회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6차 및 제10차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에 대한 지도가 더한층 개선되였다. 7개년계획의 성과적실현을 위하여 달리는 천리마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할데 대한 당의 요구가 힘있게 실현되였으며 남녘형제들을 하루속히 구원하기 위한 대중적애국운동이 전개되였다. 남녘형제들의 해방을 앞당기려는 애국운동은 전국의 천리마기수들속에서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을 촉진시켰으며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우리 근로자들의 이 애국운동은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데 대한 당대표자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더욱 고조되고있으며 이것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발전을 새롭게 추동하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그 발전의 전 행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그 생활력을 확증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천리마작업반운동발전의 첫시기에 벌써 이 운동이 가지는 커다란 혁명적의의를 천명하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거대한 의의는 그것이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이며 자각된 근로자들의 대중적경제운영의 훌륭한 방법일뿐만아니라 사람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 훌륭한 대중적교양의 방법으로 된다는데 있다**》(《천리마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발전의 전 행적은 김일성동지의 이 평가의 정당성을 뚜렷이 실증하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우선 그것이 사회주의건설을 급속히 추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임을 잘 보여주었다.

사회주의하에서 인민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것은 합법칙적인 현상이다. 새로운 생산관계하에서 생산력발전의 광활한 길이 열린다.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는 보람과 기쁨으로 하여 로동에서 고도의 자각성, 헌신성, 창발성을 발휘하게 된다. 사회주의건설의 속도는 결국 력사의 창조자인 근로대중의 이러한 자각성과 열의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발양시키며 생산과 건설에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대중자신이 창조하였고 그들 자신의 심정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천리마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확고히 틀어쥠으로써 생산에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킬수 있는 방도를 찾았다.

천리마작업반운동행정에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생산과 건설을 저애하는 온갖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하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하였다. 생산자들속에서 파거의 낡은 공칭능력을 깨뜨리고 새로운 지표들을 달성하는 혁신들이 일어났으며 생산과 건설을 위한 막대한 예비들을 찾아내는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당은 천리마작업반운동에 대한 지도에서 그 참가자들이 과학과 기술을 적극 습득하며 기술혁신을 위한 투쟁에서 로동자들이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부단히 강화하도록 하였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근로대중의 소유물로 되게 되

였으며 이것은 그들의 지혜와 재능, 창조력이 더욱 훌륭한 열매를 가져오게 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집단적 기술혁신이 광범히 일어나게 되였으며 자동차, 뜨락또르, 전기기관차와 같은 현대적기계와 기술설비들이 우리 근로자들자신의 힘으로 생산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공업생산장성에서 계속 높은 속도를 달성하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또한 대중적경제관리운영의 훌륭한 방법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사회주의하에서 생산자대중은 생산의 주인, 관리의 주인으로 된다.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생산자대중이 경제관리에 광범히 참가하여 생산을 적극 발전시켜야 하는것은 필연적인 요구이다. 당에 의하여 교양되고 자신들의 실천적 경험에 의하여 각성된 우리 근로자들은 이 요구를 파악하였으며 천리마작업반운동과정에서 그것을 구체적형태로 실현하였다. 천리마기수들이 발기한 직일작업반장제, 기대만가동을 위한 투쟁, 자검자수제도 등은 모든 근로자들이 계획작성으로부터 기술준비, 자재보장, 로동행정, 계산통계에 이르는 기업관리의 전반적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가하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관리의 참된 주인으로 자라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사회주의의 본성에 가장 부합되는 대안의 기업관리체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으며 또 대안사업체계하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대중적경제관리운영방법으로서의 기능을 더잘 놀수 있게 되였다.

대중적경제운영의 훌륭한 방법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오늘날 점차 심화되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게 경제관리의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 대중적교양의 방법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전 사회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제기되는 중심적인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이 과업은 그 어떤 선발된 일군들이나 교육교양기관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다. 사회주의하에서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며 전 사회를 혁명화하는 사업은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될 때 더욱 성과적으로 해결되여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이러한 합법칙적요구를 훌륭히 해결하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행정에서 천리마기수들은 혁명과 건설의 실천에 직접 결부시켜 인간개조사업을 대중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 남반부해방을 위한 민주적, 계급적 임무를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되였다. 또한 그들은 집단적 혁신을 위한 투쟁과 호상방조를 통하여 동지애와 집단주의정신을 더잘 발휘하게 되였다.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는 심각한 변화들이 일어났으며 공산주의적미거들이 수많이 나타났다.

천리마기수들은 청산리방법을 학습하고 그것을 실천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모범으로 사람들을 감화교양하는 인간개조의 훌륭한 모범들을 창조하였다. 항일빨찌산들의 혁명전통과 천리마기수들의 실천적모범을 통한 감화교양은 대중의 심장을 틀어쥐였으며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대중속에서 자신들의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항일빨찌산들처럼, 천리마기수들처럼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살려는 혁명적기풍이 지배하게 되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오늘 우리 사회를 붉은 일색으로 꾸리며 전체 인민을 당의 주위에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통일단결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인간개조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은 황금보다도 더 귀중한것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것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 대중적경제운영의 훌륭한 방법으로 되는것도 그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인간개조의 위대한 성과에 의하여 안받침되고있는데 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발전행정은 근로자들의 사상개조,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일차적주목을 돌리는것이 이 운동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고리라는것을 보여준다.

2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이룩하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우리의 경제발전자체가 바야흐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 우리 사회의 천리마진군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것을 요구하며 또 그렇게 할수 있는 밑천이 이미 마련되였다.

최근년간에 우리 나라 경제는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계속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인민경제 부문구조가 더욱 째여졌으며 부문간의 련계가 보다 밀접해지고 기업소들 사이에 협동생산을 일층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다. 일군들의 경제관리수준과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현저히 높아졌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의 경제는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보여주고있으며 또 그것을 필연적요구로 제기하고있다. 이미 마련된 경제적토대는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할것을 요구한다.

당대표자회는 미제의 로골화되는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확고히 견지하면서 7개년계획의 총적과업과 부문별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해야 할 전투적임무를 제시하였다. 우리는 금년도에 경제건설에서 획기적성과들을 이룩하고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만 7개년계획의 전반적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에게는 사소한 침체도 소극성도 허용될수 없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기술혁신을 더욱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더많이 생산하며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된다.

우리 혁명이 처한 내외의 정세는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에서 발악적으로 전쟁을 계속 확대하고있으며 조선에서도 전쟁책동을 강화하고 군사도발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있으며 박정희도당은 인민들로부터 더욱더 배척을 당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 목소리들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우리는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꾸리고 남녘형제들의 반미구국투쟁에 더 큰 고무를 줄수 있으며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길수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의 복잡한 정세를 리용하면서 침략책동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에 대한 비방중상에 혈안이 되고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의 보다 빛나는 실천적성과들로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여야 하며 그것으로써 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사회주의건설의 보다 높은 성과들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것으로써 사회주의에 대한 적들의 중상비방을 물리치고 우리 당의 솜씨, 우리 인민의 본때를 다시한번 보여주어야 한다.

모든 정세와 환경은 우리의 달리는 천리마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이룩할것을 절실한 과제로 내세우고있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였던 1957년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당의 주위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에서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더욱 급속히 추진시킬수 있게 하였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이 오늘 긴장된 정세하에서 또다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위하여 당의 호소를 받들고 일떠섰다.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의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력사적인 승리를 쟁취한 영웅적인민이며 전후 복구건설의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도 훌륭히 해낸 인민이다.

우리 인민에게는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세련된 자기의 당이 있으며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이 확증된 당의 맑스—레닌주의적로선과 정책이 있다. 우리 인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통같이 통일단결되여있으며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위력하게 꾸려진 자립경제의 토대가 있고 수십만의 기술인재와 훌륭한 민족간부의 대부대가 있으며 지난시기 혁명과 건설에서 쌓아올린 풍부한 경험이 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인민이 또다시 새로운 더욱 큰 승리를 향하여 전진할수 있는 확고한 전제로 되며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3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이며 조선의 로동계급은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하는 행정에서 계속 그것을 견지하고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계속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이것을 줄기차게 끌고나가는것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 인간개조사업이 홀시되고 당면한 기술경제문제의 해결에 치중한다면 이 운동을 옳게 발전시킬수 없을뿐아니라 기술경제적성과자체도 원만히 보장할수 없게 된다. 모든 사업에 앞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사상,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고수하고 다른 모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낼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에서는 무엇보다도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계속 줄기차게 끌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근로자들이 확고한 계급의식과 혁명가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생산과 건설에 자기의 온갖 재능과 지혜를 다 발양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담보로 된다.

사상교양이 당정책교양, 맑스—레닌주의원리교양과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될 때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은 확고한 세계관적기초우에 서게 되며 그들을 우리 당의 사상체계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게 한다.

천리마작업반참가자들의 인간개조사업에서 이룩된 귀중한 경험과 동지적단결의 미풍을 계속 실생활에 구현하며 그것을 더욱 확대심화시키는것이 중요하다. 한사람이 열사람을, 열사람이 백사람을 교양하는 방법으로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확고한 기초우에서 계속 발전시키는 길이며 결의조항들을 부단히 보충 갱신하면서 그것들을 끝끝내 해내고야말게 하는 길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킴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의 혁명화와 생산에서의 혁신운동을 밀접히 결부시키는것이다.

천리마기수들의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은 그들의 실천활동에서 즉 생산과 기술을 발전시키며 나라와 인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꾸리기 위한 투쟁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현시기 천리마작업반운동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기술혁명을 촉진시키는것이다. 여기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높이며 기술관리를 개선하는데로 그들을 적극 추동하는것이다.

천리마기수들속에서 현대적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투쟁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한다. 인민경제가 고도로 째이고 기술적장비가 일층 강화되면 될수록 과학기술은 우리의 생산적앙양을 위하여 더욱 절박한 요구로 제기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중요한 투쟁목표의 하나는 기술학습을 강화하고 모두가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에 정통한뿐아니라 현대적인 과학기술과 선진작업방법을 꾸준히 배우며 체득하는것이다.

기술관리사업을 부단히 개선하고 생산을 기술공학적요구에 맞게 진행하는것은 현대적생산의 기본요구이다. 모든 천리마기수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면서 이에 기초하여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어김없이 지키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예비부속품을 확보하고 그 생산을 앞세우며 계획적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등 설비관리사업을 개선하고 기술혁신을 강력히 추진시켜 기업소들의 기계화, 자동화 수준을 계속 높여야 한다.

천리마기수들속에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꾸려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키며 생산품과 건설물의 질을 한층 높이고 절약투쟁을 강화할것을 경제건설분야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천리마기수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적극 발양하여 있는 설비와 자재,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면서 모든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이며 도처에서 절약의 예비를 찾아내여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욱 실속있게 꾸려나가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킴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것은 이 운동을 대중적애국운동과 결합하여 진행하는것이다.

7개년계획을 완수하고 남녘형제들을 해방하기 위한 애국운동과 밀접히 결합함으로써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물질적 및 사상적 준비를 더잘 갖출수 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이미 칭호를 수여받은 천리마작업반들을 공고히하면서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것이다. 이것은 천리마작업반과 천리마기수들의 대렬이 계속 늘어가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된다.

1967년 2월말 현재 공업부문에서만도 천리마작업반은 1만 5,331개, 그 성원들은 37만 7,000여명에 달하고있다. 이들 모두가 인민경제 각 분야에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대중의 선두에서 모범적역할을 옳게 놀도록 하는것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부단한 확대발전과 전 사회의 혁명적고조에 실로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천리마기수의 칭호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의 중요한 표시로 되며 그것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인 평가로 된다. 직업동맹조직들은 천리마기수들이 이 영예로운 칭호에 상응하게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계속 적극적인 지도를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천리마작업반운동대렬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기간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천리마기수들의 대렬을 확대하는데 부단한 관심을 돌리는것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천리마작업반의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면서 천리마작업반들은 2중천리마작업반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에 기초하면서 천리마직장운동, 천리마공장운동을 확대하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에 대한 직맹단체들의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경험은 직맹단체들이 당조직에 튼튼히 의거하여 실제적인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포치한 곳에서는 모든 일이 잘 되여나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직맹단체들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지난기간 이 운동 지도에서 쌓은 경험을 종합일반화하면서 여기에 기초하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실속있는 지도를 주어야 한다. 동시에 한단위에 전형적인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전반적단위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현실발전의 객관적요구에 상응하게 계속 심화발전시킴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대표자회의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군중 전취 사업

최 원 근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를 선두로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군중전취를 중요한 전략적과업으로 제기하고 광범한 군중을 반일투쟁에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였다. 장구하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었던 힘의 원천의 하나는 광범한 군중을 전취하고 그에 튼튼히 의거한것이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군중정치사업에서 이룩한 고귀한 경험은 오늘 우리 당이 계승한 빛나는 혁명전통의 중요한 한부분을 이룬다.

* *

군중을 전취하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혁명과 건설의 전로정에서 군중을 전취하고 그에 의거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법칙으로 삼는다.

김일성동지는 군중전취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혁명은 우리 당이 혼자서 할수는 없다. 혁명은 대중을 위한 사업이요, 인민을 위한 사업이기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고서는 성공할수 없다>(김일성선집 제6권, 276페지).

원래 혁명은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군중이 하는 것이다.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워야 혁명운동을 발전시킬수 있다.

여기로부터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에 맞는 군중전취사업의 방침을 정확히 세우고 그의 실현을 위한 정치조직사업을 진행해야 할 과업이 제기된다.

김일성동지는 바로 이러한 맑스—레닌주의적요구를 1930년대의 우리 나라 혁명정세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군중전취사업의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혁명투쟁의 실천에 구현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일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독립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혁명의 편에 묶어세워야 한다고 가르쳤다. 김일성동지는 조선혁명의 승리는 소수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수 없으며 로동자, 농민을 위시한 각계각층인민의 혁명력량을 모두 혁명조직에 묶어세워 일본군국주의를 타도하는 투쟁에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제1권, 7~8페지 참조).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부터 확고하게 견지된 방침으로서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사회경제형편과 계급들의 호상관계, 항일무장투쟁의 간고성 등 당시의 구체적실정에 기초한것이였다. 따라서 이 방침은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 반면에 일제와 그 주구들을 고립, 약화시킴으로써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 튼튼한 담보로 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조선인민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는 각종 파쑈적악법을 조작해내고 폭력기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또한 일제는 침략전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민들을 더욱 가혹하게 착취하고 수탈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은 일제의 군대, 헌병, 경찰 등으로 뒤덮인 하나의 감옥으로 전변되였으며 조선인민은 아무런 정치적권리도 가지지 못하고 기아와 빈궁속에서 신음하게 되였다. 중소자산계급들은 일제의 독점자본가들과 예속자본가들에게 억눌려 날로 몰락되여갔다. 극소수의 친일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들만이 일제의 비호하에 인민을 계속 억압, 착취하였다. 그 결과 민족적 및 계급적모순은 극도에 달하였다.

조성된 사회경제형편과 계급관계는 혁명의 대상인 일제와 그 주구들을 고립시키고 모든 반일군중을 혁명의 기치하에 단결시킬 과업을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제기하였다. 이것은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장기간의 간고한 무장투쟁을 진행해야 하였던 당시의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항일유격대원들은 그 수에 있어서나 무장장비에 있어서 몇갑절 더 강대한 일제와 싸워야 하였으며 무기와 탄약, 의복과 식량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혁명투쟁의 승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군중전취사업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군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함으로써만 달성될수 있었다.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특성에 맞게 군중전취사업을 심화시키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이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예비군을 정확히 편성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는 군중전취사업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였으며 그것을 계층별 대상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고 심화시켰다.

김일성동지는 로동자, 농민들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그 주위에 각계각층군중을 결속시켜 반일투쟁에 조직동원한것을 강조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우선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주위에 기본군중을 묶어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혁명대오를 묶어세우며 군중을 전취하는 사업에서 선결조건으로 된다. 핵심들이 목적의식적으로,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만 군중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울수 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일제의 삼엄한 경계망을 피하면서 희생을 무릅쓰고 군중속에 들어가 선진적로동자, 농민들을 핵심으로 하는 비밀혁명조직을 형성하였다.

1930년대 초부터 장백지방과 국내의 가라지봉밀영과 쑥새골밀영, 그리고 경원읍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이 해당 지방에 깊이 뿌리 박고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들로서 비밀조직을 내오고 그들을 혁명가로 육성한것은 그 하나의 실례로 된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또한 각 지방에 이미 조직되여있던 반일조직들을 혁명화하며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조선공산

주의자들을 조직에 견수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자체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일제를 증오할뿐만아니라 그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려는 열의가 높으며 어떠한 시련과 역경에서도 혁명적지조를 지킬수 있는 견실한 동무들로서 핵심대렬을 꾸리고 그 주위에 기본군중을 묶어세웠다.

핵심대렬을 꾸리고 그 주위에 기본군중을 묶어세우기 위한 활동은 항일무장투쟁이 직접 전개된 지방들에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적들자신이 1934년 2월에 《…근래에 반일회의 세력이 몹시 증가하여 그의 수는 전 간도에 있어서 약 일천수백명을 넘는 것으로 상상된다…》고 비명을 울린데서도 알수 있다.

1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기본군중을 전취하기 위한 사업은 일제의 파쑈적폭압이 더욱 강화된 조건에서 진행되였다. 수많은 로동자, 농민들을 조국광복회, 반일회, 반일청년회, 반일부녀회, 생산유격대 기타 각종 혁명조직에 묶어세우는 사업은 공산주의자들 앞에 더욱 들끓는 정열과 불굴의 투지를 요구하였다. 장백지방에서와 함경도 북부국경일대에서는 수많은 군중을 혁명조직에 인입하거나 그 영향하에 묶어세웠다. 또한 전국 각지의 중요 도시와 농촌들에서 역시 많은 로동자, 농민들을 혁명의 편에 인입하여 혁명의 주력군을 준비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기본군중뿐만아니라 사회정치생활이 각이한 각계각층군중을 대담하게 포섭하고 적극적으로 교양개조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에 인입하였다.

각계각층군중을 전취하는 사업은 주력군의 주위에 예비군을 결속시키는 문제로서 혁명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워야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에 대한 혁명력량의 우세를 보장할수 있다.

각계각층군중을 혁명의 편에 확고히 전취하는 사업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및 계급적 처지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매우 신중성을 요한다.

김일성동지는 당시 우리 나라의 로동자, 농민들은 물론 극소수의 친일주구를 제외한 지식인이나 민족자본가들까지도 다 일제를 미워하고있는 조건에서 반일사상을 가진 모든 계층들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지식인들의 민족적량심과 혁명적각오를 귀중히 여기고 조국광복을 위한 혁명투쟁에 나서도록 그들을 이끌어주었다. 민족주의자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상층부와 하층군중을 구분하는 립장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갈수 있는 사람들과는 의식적으로 가까이 접촉하면서 인내성있게 해설, 설복하여 혁명의 길에 나서게 하였다. 종교인들과의 사업에서는 일반신자들의 애국애족사상을 존중하고 민족적자부심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반일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였다. 또한 지주들도 결코 일률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들중에서도 민족적량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민족적각성을 제고시켜 반일투쟁에 나서도록 도와주었다.

이에 있어서 조국광복회창립선언에 지적된 다음과 같은 구호는 큰 의의를 가지였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전 민족이 총동원하여 반일광복

전선에 참가하자!>.

이것은 각계각층군중에게 혁명투쟁의 구체적방도를 가르쳐주었다. 각계각층군중은 이 구호에 따라 반일투쟁의 길에 나섰다. 애국적량심을 가진 지식인들이 훌륭한 혁명가로 육성되였으며 민족주의자들도 혁명투쟁의 길에 들어섰다. 완고한 민족주의자이며 독립군지도자의 한사람이던 양세봉이 교양개조되고 그 부대가 조선인민혁명군에 편입된 사실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종교인들도 반일투쟁에 나섰으며 북부국경일대의 천도교도정(道正)이였던 박인진과 그 산하의 교인전원이 반일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와 같은 구체적실례들은 각계각층군중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인입하기 위한 군중전취사업방침의 정당성을 실증하여준다.

김일성동지를 비롯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반일부대와의 사업에서도 정확한 립장을 취하였다.

당시 반일부대와의 사업은 혁명력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반일부대들은 항일구국의 기치를 들기는 하였으나 그 구성상 제약성으로 하여 투쟁에서 불철저하였으며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자 투항, 변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로동자, 농민출신들인 하층병사들은 지주, 토호출신들인 상층부의 계급적멸시에 불평을 가지고있었으며 그의 동요성을 증오하였다.

반일부대내의 상하간의 계급적모순을 옳게 리용하여 하층병사들을 각성시킨다면 적지 않은 무장력을 혁명의 편에 돌려세울수 있었다.

반일부대와의 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들을 전취하여야 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반일부대들과의 련합작전을 실현하여 반일공동전선을 결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 일제의 리간책동에 기만된 반일부대들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한데로부터 매우 험악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김일성동지는 조성된 긴장상태를 풀고 그들과 반일공동전선을 결성하기 위하여 1933년 가을에 몸소 위험을 무릅쓰고 대담하게 리삼협, 오의성, 사려장, 채자령 등 반일부대의 두령들과 담판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담판석상에서 항일무장투쟁의 목적과 반일공동전선형성의 군사, 정치적 의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설하였다.

반일부대의 두령들은 처음에 머리를 기웃거리기도 하였으나 나중에는 김일성동지의 제안의 정당성을 납득하고 그이의 능숙한 정치적수완과 높은 덕성에 감화되여 동녕현성공격을 위한 련합작전에 동의하였다.

이리하여 이해 9월 김일성동지의 총지휘하에 동녕현성전투가 진행되였으며 여기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은 항일유격대와 반일부대와의 련합작전의 시초였으며 반일부대들과의 반일공동전선결성에서의 전환점으로 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또한 반일부대내부에 침투하여 하층병사들을 깨우쳐주고 전취하였으며 상층부에는 행동상모범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점차 반일투쟁에서의 동요성과 불철저성을 극복하고 반일공동전선에 결속되도록 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적군와해사업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렸다. 적과 그들의

영향하에서 동요하는 사람들의 내부적 갈등과 충돌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것은 군중전취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시 위만군이나 위만경찰들은 그 내부에서의 상하간의 계급적대립이 심하였으며 일본지도관과의 민족적모순은 더욱 첨예하였다. 이것을 옳게 리용하여 하층병사들을 혁명의 편에 서게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중립적립장에서도록 할수 있었다.

혁명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대담하고 능숙한 군중사업방법으로써 위만군의 하층병사들이 일본지도관의 전투명령을 거부하거나 항일유격대에 의거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이에 대하여 적들도 1935년 8월에 다음과 같이 비명을 올린 사실이 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정치공작으로 위만군병사들은 물론 일부 장교들까지도 항일유격대와 합류할 징조가 농후하다… 화전현 제5국군병사 350명이 반변하여 도주하였다…》.

적군와해사업은 전투시에 화력과 함화를 배합하는 방법으로도 광범히 진행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적극적이고도 능숙한 적군와해사업은 위만군이나 위만경찰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들은 항일유격대가 어떠한 군대인가를 점차 인식하면서부터 유격대에 정보를 제공하고 전투를 기피하였으며 불가피하게 대전하는 경우에도 헛총질을 하는수가 많았다. 이들속에서는 항일유격대에 의거하거나 반변하여 도주하는 현상들이 날로 늘어났다. 지어 어떤 부대는 항일유격대의 무기와 탄약의 수송대와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군중을 전취함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방침을 견지한 결과였다.

* *

군중전취사업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인민대중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능숙하게 조직진행하는것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김일성동지는 군중전취를 위한 정치사상사업의 내용과 방법을 정확히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던것은 로동자, 농민들의 계급의식을 높이며 그들을 반일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였다.

혁명은 군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 일부터 시작된다. 군중을 각성시키지 않고서는 그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울수도 없고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할수도 없다. 군중이 혁명은 자신을 위한 사업이며 또 자신이 해야 할 사업이라는것을 깨닫고 혁명투쟁에 나설 때 어떤 강한 적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

군중을 정치, 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 사업은 당시 일제의 반동적사상공세가 심하였던 조건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였다.

일제는 혹독한 식민지파쑈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갖은 기만책동을 다하였다. 특히 《반공》선전은 저들의 침략과 수탈, 범죄행동을 정당화하는 만병통치의 《약》으로 리용되였다.

일제의 이와같은 반동공세하에서도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군중은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부터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일제를 증오하고 조국의 독

렵을 갈망하면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지 못한데로부터 공포증에 사로잡혀 반일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였다. 지어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타락, 변절하여 매국배족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갔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군중의 계급의식을 높이며 반일혁명사상을 고취하는 문제는 매우 절박하게 제기되였다.

로동자, 농민들의 계급의식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것은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적본성과 악랄성,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반동성, 침략성을 인식시키는것이였다. 이를 위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지주, 자본가들은 로동자, 농민을 어떻게 착취하는가?》, 《지주, 자본가들의 계급적본성은 무엇인가?》 등의 내용을 군중이 체험한 생동한 자료와 결부시켜 해설하였다. 또한 지주, 자본가들은 일제와 어떻게 결탁하고있는가에 대하여 해설하면서 친일지주, 예속자본가들의 매국배족행위를 규탄하였다. 다른편으로는 일제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질과 야수적만행을 력사적자료와 군중이 체험한 생동한 실제적자료를 배합하여 해설함으로써 조선인민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근원은 바로 일제와 그 주구들에게 있다는것을 명확히 인식시켰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제도의 멸망은 사회발전의 법칙이며 일제도 불가피하게 멸망하고야 만다는것을 구체적인 사실과 결부시켜 설득력있게 해설하였다.

이러한 교양은 혁명군중으로 하여금 민족적 및 계급적원쑤를 극도로 증오하게 하였으며 단결하여 싸우면 반드시 일제를 물리칠수 있다는 혁명에 대한 신심을 간직하게 하였다. 동시에 일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항일유격대를 존경하고 신뢰하며 그들의 전투행동을 백방으로 보장하는것을 가장 영예로운 일로 간주하게 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혁명군중을 맑스—레닌주의원리로 무장시키는데 큰 주의를 돌렸다.

원리교양은 《계급이란 무엇이며 계급투쟁은 왜 일어나는가?》, 《혁명이란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조선혁명의 실천적문제와 밀접히 결합시켜 알기 쉽게 이야기하여주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또한 주위에서 발생되는 사건들을 맑스—레닌주의적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혁명군중의 정치적안목을 넓혀주었다.

군중교양사업에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이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조국과 인민을 기어이 해방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며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애국적인 문화전통을 정확히 인식하고 조선인민으로서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도록 하는데로 지향되였다. 이와 함께 그것은 조국의 독립을 찾은후에 풍부한 자원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심장으로 파악하게 하는데 크게 치중하였다. 이러한 교양은 군중을 애국심과 혁명사상으로 불타게 하였으며 조국을 해방하고 새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반일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교양과도 밀접히 결합되였다.

정력적이고도 목적지향성 있게 진행된 군중교양사업은 군중을 일제의 반동사상의 영향하에서 떼여냈을뿐만아니라

그들을 조직에 결속시키고 혁명력량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였다.

군중교양사업은 당시의 환경과 군중의 준비정도에 맞는 각이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였으며 그 행정에서 고귀한 경험이 축적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군중과 접근하면 반드시 그들을 해설, 설복하여 한사람이 열사람, 열사람이 백사람을 교양하는 방법으로 사업하였다.

김일성동지는 항상 유격대원들에게 한사람을 교양하여 열사람을 바로잡아주고 또 백사람, 천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우리편에 서게 하는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사업방법이며 혁명가의 태도라고 가르쳤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적과 싸우는 전투원이였을뿐만아니라 군중을 조직하고 교양개조하는 훌륭한 정치활동가들이였다. 그들은 헤아릴수 없는 간난신고를 겪으면서도 주민부락에서 숙영할 때에는 물론 전투가 끝난후에라도 군중을 만나기만 하면 진지하게 설복하고 교양하여 항일투쟁에로 힘차게 이끌어나아갔다.

지방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은 군중과 생활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항상 설복하였다. 꾸준하고 적극적인 해설과 설복으로 혁명군중을 전취하고 그를 무한히 귀중히 여기면서 투쟁을 통하여 혁명가로 단련시켰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가정을 혁명화하고 친척과 친우들을 교양개조하여 보다 많은 군중이 자기의 힘과 지혜를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바치도록 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이 핵심을 육성하고 핵심들이 군중을 전취하는 이러한 군중사업방법은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대오의 순결성을 보장하며 혁명력량을 부단히 확대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군중교양사업에서 집체적방법과 개별적방법을 옳게 결합시켰으며 특히 개별교양에 힘을 기울였다.

개별교양은 대상의 성격, 취미, 사상동향, 준비정도, 생활형편, 지향 등 그들의 구체적인 특성에 맞는 군중교양의 방법이다. 특히 일제군경들의 감시와 통제가 심하고 밀정들이 욱실거리여 집체적교양의 가능성이 극히 제한되였던 당시의 환경에서 이것은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흔히 비밀조직들에서 혁명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분공을 주고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총화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혁명가로 교양육성하였다.

개별적교양의 방법은 적군와해사업에서도 널리 적용되였다. 개별적인 적병사들에게 소책자, 선전문, 격문, 편지들을 보내주며, 적병사들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이 반변하거나 유격대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포로병들도 개별적으로 교양하여 돌려보냄으로써 량심적인 적병사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게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개별교양의 방법과 함께 가능한 조건에서는 강연, 집체선동, 연예공연, 군민련환대회, 오락회 등 집체적인 형식과 방법들도 군중교양을 위하여 다양하게 리용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보다 광범한 군중을 전취하기 위하여 합법적조직과 반동단체 및 괴뢰기관들도 능숙하게 리용하였다.

합법적조직을 리용하는것은 비합법적투쟁을 가리는 동시에 적들로부터 군중을 떼여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되였다. 이것은 일제의 파쑈적폭압이 극심하였던 당시의 조건에서 더욱 절실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적들이 공인하는 합법적조직과 반동단체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리용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야학, 운동회, 친목회, 학교후원회, 종교단체, 농촌진흥회 등은 물론 적들이 만들어놓은 반동단체들까지도 적극 리용하여야 하며 그런 단체내의 하층군중속에 들어가 인내성있는 해설, 설복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민족적처지를 깨닫고 계급적각성을 높이도록 점차 영향을 주어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망라시켜야 한다고 가르쳤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국내외의 각종 합법적조직을 통하여 군중을 각성시켰으며 혁명가들의 호상련계를 능숙하게 보장하였다. 또한 반동단체와 괴뢰기관내에도 침투하였다. 여기에서는 반동단체를 와해시키는 방법과 괴뢰기관내에서 일정한 합법적지위를 차지하고 그것을 리용하는 방법이 배합되였다.

함경남북도의 북부국경일대와 장백지방들에서는 일부 《자위단》을 리용하여 표면상으로는 일제의 《자위》임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실제상으로는 혁명가들의 비밀활동을 보장하게 하였다. 또한 《촌장》, 《구장》, 《면장》 등의 합법적지위를 차지하고 그것을 리용하기도 하였다. 《촌장》, 《구장》, 《면장》의 자리에서 사업한 혁명가들은 적들이 발행하는 《거주민증》과 《도강증》을 얻어내여 정치공작원들의 활동을 보장하였으며 유격대에 대한 원호사업을 조직하고 군수용농작물재배를 거부하는 투쟁을 진행하는 등 혁명활동을 하였다. 장백지방에서는 《촌장》, 《면장》들이 짜고들어 경찰서장이나 지주들로 하여금 《3.7제》의 실시와 강제로력동원의 면제를 《선포》하게까지 하면서 군중을 전취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사람을 우선 믿으면서 투쟁을 통하여 검열하는 원칙을 항상 견지하였다.

이 원칙은 지방군중과의 사업에서는 물론 유격대에 개별적으로 찾아온 사람들과의 사업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혁명동지 한명을 얻는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업이였다. 유격대원들은 혁명동지를 얻기 위하여 매우 어려운 고비를 겪었으며 지어 생명을 바치는 경우도 있었다.

헤아릴수 없이 간고한 투쟁속에서 혁명동지 한명을 얻으면 그를 무한히 아끼고 귀중히 여겼으며 교양하고 또 교양하여 훌륭한 혁명가로 키웠다.

항일무장투쟁이 확대되고 그 영향이 광활한 지역에 미치게 됨에 따라 개별적으로 유격대에 찾아와 입대를 탄원하는 애국청년들의 수가 날로 늘어났다.

주민지대에서의 전투가 있은후에는 매번 많은 애국청년들이 입대를 탄원하였으며 특히 1937년 보천보전투이후에는 매일같이 더많은 애국청년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항일유격대에 찾아왔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리용하여 적들은 밀정을 애국청년으로 가장시켜 유격대에 잠입시키기도 하였다. 당시 일제는 유격대에 밀정을 잠입시켜 비밀을 탐지하고 유격대원들을 모해하며, 살사

그 흉계가 탄로된다 하더라도 유격대에 의하여 처단되게 함으로써 동족간에 호상살륙케 하려고 책동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유격대에 개별적으로 찾아온 사람들과의 사업은 매우 신중성을 요하였다. 사실상 대오로부터 5리만 떨어져도 적진인 조건에서 혁명적경각성이 무디면 무장대오의 순결성을 보장할수 없었으며 그렇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배척한다면 적들의 간계에 빠져 유격대오의 확대와 군중전취사업에 부정적영향을 미칠수 있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우선 믿고 생활과 전투를 통하여 검열하는 원칙을 견지한것은 전적으로 정당한 방침이였다.

유격대원들은 생활과 전투를 통하여 밀정들을 어김없이 적발하여 엄격히 처단하였으며 애국청년들을 훌륭한 혁명가로 교양육성하였다. 기본계급출신으로서 적들에게 강요당하여 유격대에 잠입하였으나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고백하고 혁명의 길에 나설것을 진정으로 원하는자는 잘 교양하여 돌려보냈다.

개별적으로 유격대에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처리는 무장대오의 순결성을 보장하면서도 그를 부단히 확대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적을 더욱 고립시킴으로써 군중전취사업을 일층 힘있게 밀고나아갈수 있게 하였다.

정력적이고 목적지향성있는 군중전취사업으로 하여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계속 항일유격대에 자원입대하였다.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군중은 힘과 지혜를 다하여 항일유격대를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였다.

이것은 항일유격대원들이 간고하고 장구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고 조국해방의 위업을 실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 *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군중전취사업에서 축적한 귀중한 경험은 해방후 우리 당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였다.

우리 당은 이 귀중한 경험에 의거하면서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그들의 혁명적 열성과 자각성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함으로써 해방후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 단계마다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다.

오늘 전체 인민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하나의 의지로 철석같이 단결되였다.

당대표자회결정을 받들고 도래한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요구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무장투쟁시기 군중전취를 위한 사업에서 축적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귀중한 경험으로 자신을 무장하는것은 모든 군중을 당주위에 더욱 철저히 단결시키며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과학기술발전에서의 주체

김 국 훈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방침이다.

과학기술발전에서의 주체는 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가는 우리 당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과학기술분야에 구현된것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정신을 체득하는것이 특히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 없는것을 찾아내며 국내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데는 무엇보다도 과학의 힘이 요구된다. 우리의 학자들과 기술인테리들은 자립경제를 건설하는 도상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문제들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해결하는데 모든 재능과 열정을 다 바쳐야 할것이다》(《모든 힘을 여섯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80페지).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우선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과학기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자연과학, 기술과학은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되는 원리와 수법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매개 나라들은 사회정치적조건에서는 물론 자연경제적조건에서도 특수성을 가지고있다. 자연부원의 분포, 구성상태 및 그 리용의 수준과 력사가 다르며 문화와 생활풍습 등에서도 일정한 특성이 있다. 과학기술을 이러한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는것이 곧 주체를 세우는것이다.

과학기술이 이러한 방향에서 발전해야 우리에게 많은 부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없는 자원들을 찾아내고 부족한것은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공업을 국내의 원료원천에 확고히 기초하여 발전시킬수 있으며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생산기술공정을 도입완성해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선박, 어구들을 만들어내며 수산물을 양식, 보호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도를 찾아내는 문제도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세울 때야만 정확히 해결될수 있다. 주체가 서야 건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 풍습, 기호 그리고 우리 나라의 기후조건 등에 맞게 해결할수 있다.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또한 자립경제를 건설하는 도상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을 의미한다.

자립경제를 건설하는 도상에서는 긴절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과학기술문제들이 수다히 제기된다. 중공업, 경공업을 자기 나라의 원료원천에 기초하여 급속히 발전시키며 농업을 과학적방법으로 짓는데서 긴절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제때에 정확히 풀어주어야만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빨리 구축할수 있으며 그것을 계속 공고발전시킬수 있다.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또한 우리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매개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다. 매개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도 주인은 그 나라 과학자, 기술자들이며 그 나라 근로대중이다. 자기의 과학기술력량에 튼튼히 의거할 때야만 그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을 발전시킬수 있다. 지난기간 우리 당이 자기의 과학기술간부들을 양성하는데 그렇게도 심혈을 기울인 리유가 여기에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끝으로 다른 나라들의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섭취하며 도입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의 모든 새로운 원리들을 혼자서 다 발전할수는 없으며 또 그럴재할 필요도 없다. 다른 나라들에서 달성한 과학기술적성과들을 옳게 받아들인다면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촉진할수 있다.

문제는 남의것을 덮어놓고 받아들일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형편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비판적으로 대하면서 그것들을 섭취, 도입하는데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우리 나라는 산업혁명을 거치지 않은채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게 되였으며 남들이 수백년을 거쳐서야 할수 있었던 일을 우리는 극히 짧은 기간에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지 않는다면 자체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없고 다른 나라들의 과학기술적성과들에 교조주의적으로 대하는 페단이 생길수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온갖 사대주의, 교조주의적 편향을 반대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그것을 시종일관 관철하여왔다.

과학기술발전에서의 우리 당의 주체로선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서 거대한 생활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는 짧은 기간내에 일제로부터 물려받았던 과학기술의 락후성과 인민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을 퇴치하고 자립적인 공업—농업국가로 발전하였다. 우리가 짧은 기간내에 국내의 원료, 연료에 의거한 강력한 중공업, 경공업 기지를 창설하고 인민경제의 모든 공장, 기업소 및 사회주의적대규모농촌경리를 자신의 기술력량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된것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우리 당의 주체로선이 관철된 결과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당의 정확한 정책으로 하여 36만 7,000여명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주체를 확립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해결한 적지않은 문제들은 궁지를 가지고 자랑할만한것들이다.

과학기술발전에서의 우리 당의 주체로선과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된 성과들은 우리 일군들을 당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서도 큰 의의를 가졌다.

우리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미 달성된 성과로 하여 자만할수는 전코 없다. 급속히 변화발전하는 현실은 이 분야에서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과학기술을 보다 급속히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 *

오늘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것은 우리 나라 혁명과 경제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당대표자회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

킬데 대한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앞에 제시된 경제건설과업들은 과학기술발전에서 무엇보다도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주체가 서고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해야만 우리의 공장들을 보강하고 완비하며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제기되는 기술문제, 설비리용률을 높이며 원자재와 로력을 절약하기 위한 기술적대책 등 오늘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서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정확히 해결할수 있으며 현존경제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이 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우리 나라 인민경제가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오늘 우리 나라는 전면적기술혁명의 단계에 있다.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기술개건을 요구한다.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해야 공업부문에서 생산공정을 기계화하고 점차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시하며 지방공업의 기술개건을 실현하며 농촌경리에서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추진시키며 선진영농방법을 널리 도입하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특히 우리는 지금 많은 면에서 남들이 해보지 못하였고 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독창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지않게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일부 부족하거나 없는 공업원료들을 만들어내며 우리에게 많은 부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은 독창적으로 해결하여야만 하는것이다. 채취공업에서 우리의 조건에 맞는 탐사, 채굴, 운반기계설비 및 선광설비들을 생산하며 농업에서 모내기기계와 같은 독특한 농기계들을 만들어내며 뜨락또르를 우리 나라 농사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며 우리 인민들의 식성에 맞는 부식물들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는 등에서 제기되는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은 독창적으로 그리고 시급히 해결되여야 한다.

과학기술에서 주체가 뚜렷히 서고 그것이 급속히 발전될 때 모든 제품의 질을 높이며 품종을 늘이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국방력을 강화하며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이 보여준바와 같이 군사분야에서 교조주의를 극복하는것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현대화하며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 나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군사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도입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후 10여년동안에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상당한 밑천을 쌓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놓은 과학기술적성과들중에는 기본적인것은 해결하였으나 아직 완성하지는 못한것들이 많으며 또 그것이 일단 완성된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지않은 경우에 생산에 충분히 도입되지 못하고있다. 우리가 이미 달성한 과학기술적성과들을 완성하여 생산에 도입한다면 우리는 기술혁명수행에서 새로운 거대한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

당대표자회는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실천적요구와 우리가 쌓아올린 과학기술적성과들에 기초하여 금후 과학기술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현존경제토대를 정비보강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기술문제들을 해결하며 우리가 이루어놓은 기술성과들을 완성하여 생산에 광범히 도입하는데

주되는 관심을 돌리며 둘째로,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새공장들을 건설하며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창안제작하기 위한 과학기술적연구사업을 계속 추진시키며 셋째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우리가 능히 해결할수 있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하도록 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과학기술성과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것이다.

현시기 과학기술발전의 이러한 기본방향에는 우리 당의 주체적립장이 관통되여있으며 과학기술이 바로 이러한 방향에서 발전할 때 그것은 우리 나라 혁명과 경제건설을 촉진하는 강력한 무기로 될수 있다.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연구대상의 중요성에 따라 선후차를 정확히 가리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기술공학 특히 기계공학의 발전에 힘을 넣는것이다. 기계공학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현대적인 공장들의 기계설비들을 생산할수 없을뿐만아니라 기존공장들도 원만히 리용할수 없다. 지금 일부 공장들과 기계설비들이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며 이미 달성한 과학연구성과들이 빨리 생산에 도입되지 못하고있는것도 기계공학적부족점들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아직도 기계설비들의 설계가 정밀하지 못하고 력학계산, 열계산 등이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현상이 일부 남아있다.

우리는 이 부문의 연구사업을 시급히 추켜세움으로써 공장을 건설하는데서나 기계설비를 제작하는데서 설계를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하며 국내외의 과학기술적성과들을 인민경제에 도입하는데서 제기되는 기계공학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장래발전을 위하여 기계공학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무선공학과 전자공학을 비롯한 최신과학기술의 발전에 계속 큰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전자공학, 무선공학, 핵공학, 자동공학 등 최신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민경제 각 부문의 기술공정을 갱신하며 국방수단들을 현대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술공학은 기초과학과 밀접히 결부되여있다. 기초과학은 모든 과학기술의 기본적이며 보편적원리를 밝혀준다. 최신과학기술의 발전은 기초과학의 높은 발전수준을 요구한다. 기술공학은 기초과학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만 성과적으로 발전할수 있다.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은 수학, 력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의 가일층의 발전에 의거함으로써만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기초과학의 발전은 우리가 가지고있는 기술과 이미 달성한 과학기술적연구성과들을 빨리 완성하여 생산에 도입할수 있게 하는데서뿐만아니라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고 다른 나라들의 과학기술적성과들을 우리 나라의 조건에 맞게 섭취, 도입하는데서도 절실한 의의를 가진다.

주체를 튼튼히 세우면서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자연부원이 풍부한것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적지않은 지하자원은 그 매장량에 있어서나 생산량에 있어서나 세계적으로 손꼽힌다. 륙지의 70%를 차지하는 산과 3면의 바다에는 무진장한 부원이 있다. 그렇기때문에 당은 산이 많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고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할데 대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하였던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 풍부한 자원들을 정확히 조사장악하는데 있다. 그래야 일부 없는것도 찾아내고 있는것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있는것으로 없는것을 대용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도를

찾아낼수 있다. 이렇게 되여야 우리 나라 과학기술발전에서는 주체가 더욱 똑똑히 설수 있으며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부원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분포, 매장되여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더잘 개발하겠는가를 더욱 구체적으로 조사장악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매개 부문의 과학기술발전은 기초적문제들을 정확히 해명하는 토대우에서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야금공업에서는 광석과 연료의 야금학적특성들이 더욱 세밀히 연구된 기초우에서 생산방법과 기술공정의 개선대책이 세워져야 하며 탄광, 광산들에서 작업을 기계화하는데서도 지질, 지압 등 지질학적조건들이 구체적으로 해명된 기초우에서 이에 적응한 기계설비들이 제작되여야 하며 채굴방법이 연구되여야 한다. 또한 기계제작공업에서는 제품생산에 참가하는 제 요소들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들이 연구된 기초우에서 설계가 작성되고 생산방법과 기술공정이 선택되여야 한다. 인민경제 기타 부문에서도 반드시 기초적문제들이 세밀히 해명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 금속, 기계, 전기, 화학 등 공업부문들에서는 자체의 원료, 연료에 의거하는 생산체계가 수립되고 그것이 더욱 정비보강되고있으나 그것을 안받침해주는 기초적인 문제들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리론체계의 수립에서 부족점이 적지않다. 이로 인하여 지금 우리 나라 과학기술이 도달된 수준에서 생산을 더 발전시킬수 있는것도 다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게 있으며 과학기술의 전반적인 급속한 발전에도 지장이 있다.

매개 부문의 기초적인 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해야만 생산에서 제기되는 긴급한 문제들을 신속히 풀어나가면서 우리 나라 자체의 독창적인 과학기술리론체계를 더 확고히 세울수 있다.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이 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을 생산과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원래 과학기술은 사회적생산의 실제적요구로부터 발생하였으며 자연을 개조하는 실천과정에서 발전하여왔다. 과학기술이 생산과 밀접히 결합되여야만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그 해결에 전력을 집중할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될 때라야 과학기술도 빨리 발전할수 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과학자들이 연구사업을 생산 및 현실생활에 긴밀히 련결시킨다는것은 그들의 성과를 보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으로 되는것이다»

(김일성선집 제4권, 567페지).

그렇기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연구과제의 설정과 분공 및 력량배치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실천적요구에 근거하여 진행되여야 하며 가장 절실한 문제들의 해결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자꾸 벌려놓을것이 아니라 달성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미 시작하였거나 불충분하게 해결된 기술문제들을 끝까지 완성한 다음에 새로운 문제의 연구에 달라붙는 섬멸전의 원칙이 서야 한다.

과학기술을 생산과 밀접히 결합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과학기술연구사업을 생산자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밑에서 진행하며 특히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간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힘만으로는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없으며 더우기 개별적사람들의 지식만으로는 생산과정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수 없다.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적극성을 광범히 동원하고 그들의 실천적경험을

에 의거함으로써만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빨리 해결할수 있으며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다.

생산과 직접 관련된 현실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공장, 기업소들에 있는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지금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에는 수많은 기사, 기수들이 있다. 기술관리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로동자들에게 기술지식을 배워주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연구해결하는데서 이들의 역할을 일층 제고시킨다면 생산은 급속히 장성될것이며 과학기술도 더 빨리 발전될수 있을것이다.

선조들이 남긴 과학문화유산을 옳게 섭취하고 발전시키는것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주체를 세우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나라의 자연부원을 리용하여 생산을 발전시키면서 고귀한 과학문화유산을 남겨놓았다. 기원전 5세기경에 우리의 선조들은 벌써 상당히 높은 야금술과 금속가공술을 발전시켰다. 금속활자, 장갑선, 비차를 세상에서 제일먼저 만들어낸것도 우리의 선조들이다.

선조들의 과학문화유산은 우리 나라의 자연부원을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리용할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많은 교훈을 준다. 선조들의 과학문화유산은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독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밑천으로 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자기의 고귀한 과학, 문화의 유산을 옳게 섭취하며 그를 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만이 타국의 선진과학, 문화들을 급히 또는 옳게 섭취할수 있다는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다》(김일성선집 제4권, 1954년판, 332페지).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이 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학기술리론수준과 실천적자질을 높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학기술리론수준과 실천적자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문제들을 제때에 정확히 해결할수 없으며 우리 나라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빨리 끌어올릴수 없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기의 과학기술수준과 실천적자질을 높이는것이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애국적인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꾸준히 학습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자기의 전공분야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정통하며 자기 부문의 세계적발전추세를 신속히 파악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은 해당 실험기구들과 설비들을 능숙히 다룰줄 알아야 하며 전공부문의 생산설비들과 기대들에 정통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연구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과학일군대렬을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과학기술연구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험공장, 실험설비, 실험기구, 내외의 과학기술도서들을 충분히 갖추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양성사업을 개선하는데 많은 힘을 돌릴것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선차적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연구부문(례하면 기계공학연구부문)의 과학기술일군대렬을 급속히 확대강화하고 필요한 물질기술적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장, 기업소들에 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 및 실험 사업에 필요한 조건들을 지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해당 공장, 기업소의 생산발전에서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전망기술계획과 현행기술계획의 수행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사상관점, 립장을 옳게 가지도록 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온갖 표현을 철저히 극복하고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립하는 사상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이 확립되고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 모든 힘을 다하여 복무하는 립장에 튼튼히 설 때야만 과학자, 기술자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옳게 해결할수 있으며 우리의 과학기술을 더욱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과학기술일군들이 맑스—레닌주의 특히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더욱 심오히 연구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조건에서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것으로서 해당시기에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기 위한 중심적인 목표와 정확한 투쟁방도를 명시하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 맑스—레닌주의를 깊이 연구하고 그 진수를 체득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당과 인민이 아파하는 문제들을 끝까지 해결하고야마는 혁명적의지를 가져야 한다.

과학연구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과학에는 탄탄한 대로란 없다. 과학연구사업은 낡은것에 타격을 주고 새것을 창조하는 어려운 투쟁이다. 그러므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어떠한 곤난과 애로가 있더라도 끝까지 이악하게 관철해나가는 불요불굴의 혁명정신, 혁명적의지를 가져야 하는것이다. 이렇게 될 때야만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어떠한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자기의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다. 그리고 대담한 전개력과 창발성을 발휘할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개인리기주의, 공명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철저히 진행하는것이 필요하다. 개인리기주의와 공명주의에 사로잡히면 연구사업에 노력은 적게 들이면서도 조급하게 성과만을 기다리며 이것저것 《유리》한 과제나 찾아다니면서 몇해가 지나도 어느 문제 하나 똑똑히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개인리기주의, 공명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며 그들을 부단히 혁명화하는것이다.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높은 긍지와 책임성을 간직할 때 그리고 로동계급의 혁명적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과학자, 기술자들은 혁명과 건설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될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연구에서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움으로써 우리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하며 당의 깊은 배려와 높은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송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

리 원 혁

지난해에 있은 력사적인 우리 당대표자회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면서 7개년계획을 계속 관철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과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수송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는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교통운수는 인민경제 각 부문들과 모든 지역들을 유기적으로 련결하는 고리로서 경제건설을 추진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운수는 인민경제의 동맥이라고 할수 있는 중요한 부문이다. 생산한것을 소비할곳에 제대로 옮겨놓아야만 확대재생산도 원만히 할수 있고 인민들의 복리도 향상시킬수 있다》(《모든 힘을 여섯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며 그 전진속도를 부단히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교통운수의 발전을 다른 모든 부문에 선행시켜야 하며 인민경제 전반의 발전에 확고히 발맞추어야 한다.

교통운수를 발전시켜 재생산에서의 그의 역할을 높여야만 인민경제 각 부문과 기업소들간 및 전국의 모든 지역들간의 련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획적원칙에서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다.

현시기 우리 나라에 조성된 국내외의 정세하에서 교통운수를 발전시키며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규모는 비상히 커졌으며 그 생산적련계와 부문구조는 일층 다면적인것으로 되였다. 우리의 공업은 전쟁전 1949년의 년간생산량을 단 한달이면 생산할수 있게 되였으며 생산되는 제품의 품종과 규격도 훨씬 증대되였다.

이 모든것은 생산물의 이동 특히 생산수단들이 다른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범위를 더욱 확대시키고 복잡하게 하고있으며 교통운수부문이 담당하여야 할 물동량을 전례없이 증대시키고있다.

철도운수의 화물수송량은 전에 비할바 없이 크게 장성하였으며 1946년 1년간의 화물수송량을 지금은 단 25일동안에 해내고있다. 자동차운수의 화물수송량은 1965년에 벌써 1946년에 비하여 수백배로 장성하였으며 수상운수의 화물수송량도 급속히 늘어났다.

앞으로 우리는 7개년계획에 예견된 방대한 수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철도운수를 비롯한 자동차운수, 수상운수에서 화물수송량을 매년 급속히 장성시켜야 한다. 금년에만하더라도 철도운수부문앞에는 1966년에 비하여 훨씬 더많은 화물을 수송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와 같이 급속히 장성하는 물동량을 원만히 수송할 때만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방침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진전속도를 더욱 높일수 있다.

철도운수를 비롯한 각종 운수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인민경제 각 부문들과 기업소들간의 생산적련계를 원만히 보장하여야만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킬수 있다. 또한 수송사업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증대되는 수송수요를 충분히 보장하여야만 바야흐로 고조되고있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정을 물질적으로 튼튼히 안받침해줄수 있으며 대중적증산투쟁에서 빛나는 결실을 맺게 할수 있다.

교통운수사업을 개선하여 그 능력을 더욱 높이는것은 원쑤들의 격화되는 전쟁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일층 강화하는 대책으로 된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이 실증한 바와 같이 수송의 공고성여부는 전쟁승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우리는 일단 유사시에 필요한 군사기술기자재들을 원만히 수송하는 동시에 중공업제품, 소비품, 농산물들을 중단함이 없이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교통운수사업을 개선하며 그 능력을 높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최근에 운수부문의 발전을 다른 모든 부문에 앞세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철도운수사업을 더한층 추켜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명확히 제시하여주었다.

그것은 중요하게는 철도전기화를 실현하고 기관차와 객화차의 수리 및 생산을 강화하며 상하차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여 륜전기재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제고하도록 하는것이다.

당이 제시한 이 방침은 현시기 철도운수의 긴장성을 푸는데 있어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이 방향에 따라 교통운수를 발전시켜야 하며 그 실현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철도운수에서만 아니라 교통운수전반에서 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방침을 관철하고 교통운수를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들이 있다.

당과 국가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 속에서 우리의 교통운수는 급속히 발전하여왔다. 특히 최근년간 당의 철도전기화방침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구배가 심하고 통과량이 많은 구간들의 전기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되였으며 철도의 영업거리에 비한 전기화비중은 세계적수준에 도달하였다. 자동차운수도 급속히 발전하였다. 화물자동차대수는 1956년에 비하여 벌써 지난해에 수배로 장성하였으며 수많은 도로와 교량들이 신설확장되여 산간오지대에까지 수송로가 확대되였다. 동서해안의 무역항들이 현대적인 설비로 꾸려지고 중요항구들과 포구들이 신설되였다.

당의 운수정책관철에서 가장 커다란 성과의 하나로 되는것은 자체의 믿음직한 운수기계제작공업기지가 꾸려진것이다. 지금 우리는 자기의 설비, 자기의 원료, 자기의 기술로 전기기관차를 비롯한 각종 객화차들과 자동차, 선박들을 만들어 쓰고있다.

또한 당과 정부에서는 금년을 철도의 긴장성을 푸는 해로 규정하고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있으며 필요한 물질기술적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만일 교통운수부문의 일군들이 이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에 의거하여 지도를 개선하고 사업을 짜고든다면 당이 제시한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으며 급속히 증대되고있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우리는 교통운수부문에 준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지침으로 하여 금년을 운수부문사업에서 다시한번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되게 함으로써 지금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고있는 새로운 혁명적고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 ❀

교통운수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모든 운수부문과 단위들에서 기술적개건을 강력히 추진시켜 수송능력과 통과능력을 일층 제고하는것이다.

철도운수에서의 기술개건은 수송능력과 통과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현시기 철도운수를 기술적으로 개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의 철도전기화방침을 계속 관철하는것이다.

철도의 전기화는 수송원가를 낮추고 운수의 문화성을 보장하며 철도운영의 자동화를 위한 조건을 지어준다. 철도를 전기화하는것만으로도 통과능력을 거의 배로 높일수 있다.

우리는 대상의 선후차를 잘 가리고 설계를 비롯한 기술준비를 철저히 선행시키며 새로운 기술성과에 기초하여 건설의 질적수준을 높임으로써 당의 철도전기화방침을 계속 성과적으로 추진시켜야 한다. 우선 금년에 고원—홍원구간의 전기화를 실현하고 전국 기본간선의 전기화를 가까운 장래에 완성하여야 한다.

철도의 전기화와 함께 철도운영과정의 자동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철도운영과정의 자동화는 렬차운전의 안전성을 보장할뿐아니라 영업속도를 높이고 통과능력을 더욱 제고할수 있게 한다. 철도운수에서 조차장과 폐색장치들의 자동화와 반자동화를 광범히 추진시키며 선로 건널길에 자동경보장치를 전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철도운수의 통과능력을 높이려면 또한 현존선로의 강도를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간선의 레루를 중량레루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급히 완성하며 경제적효과성이 높은 예비응력철근콩크리트침목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를 기술개건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전기기관차와 대형화차를 더많이 생산리용하는것이다. 특히 대형화차를 생산리용하는것은 렬차의 편성길이를 짧게 하고도 보다 많은 짐을 나를수 있게 하며 구내선확장공사를 그만큼 하지 않고서도 수송능력을 높일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방도이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차량의 생산및 수리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전기기관차와 대형화차를 더많이 생산보장함으로써 수송능력을 더한층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수송능력과 통과능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자동차운수와 수상운수부문에서도 기술개건을 전면적으로 추진시켜야 한다.

자동차운수부문에서는 자동차생산을 계속 추진시키며 수리공장을 더욱 강화하여 그 능력을 높이고 부속품생산과 재생대책을 적극 강구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요간선도로의 포장사업을 추진시키며 산간지대의 도로들을 확장하고 잘 정비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동차의 기계장치들과 부분품들의 수명을

연장하고 휘발유를 절약할뿐아니라 운영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수상운수부문에서도 무역항을 비롯한 중요항구들과 부두시설들을 정비보강하여 그것을 더욱 현대화하며 상하선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형선박을 비롯한 각종 선박의 건조를 추진시키며 중요하천들의 수로개척사업을 강화하여 수상운수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륜전기재를 비롯한 현존운수수단의 리용률을 높이는것은 적은 차량, 적은 선박을 가지고 더많은 물동을 보다 빨리 수송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고리로서 철도운수를 비롯한 자동차 및 수상운수의 증대되는 수송수요를 풀게 하는 중요한 예비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지금 급속히 높아지고있는 수송수요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도로서 현존 륜전기재의 리용률을 높일것을 강조하고있다.

철도운수에서 화차를 비롯한 륜전기재의 리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을 기계화하여 화차가 한곳에 필요이상 멎어있는 시간을 극력 단축하여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철도운수 총화물작업량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공장, 기업소 전용선들에서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을 기계화하며 운수조직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역사업을 강화하여 화차의 중계시간을 줄이며 기관구와 검차구들에서 차량수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기관차와 화차의 수리기일을 단축하고 그 수리를 질적으로 보장하여 륜전기재들의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자동차운수와 수상운수에서도 자동차와 선박들의 리용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기술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수리기지를 강화하며 부속품을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을 적극 기계화함으로써 선박들의 비경제적인 체선시간을 단축하며 자동차들의 실동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화물의 적재방법을 개선하는것은 현존수송수단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경공업제품과 화학공업제품을 비롯한 인민소비품의 생산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경량품에 대한 수송수요가 급속히 증대되고있는 사정은 적재방법을 더욱 개선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경량품의 종류에 따라 압착하여 싣거나 경량품과 중량품을 혼적하여 싣는 등 여러가지 합리적인 적재방법을 도입하는데 큰 주의를 돌려야 한다.

화물수송량이 비상히 증대되였을뿐만아니라 그 류동이 매우 복잡하여진 조건에서 긴절하게 제기되는것은 수송조직을 더욱더 개선하는것이다. 수송조직을 개선하여야만 수많은 운수수단들과 시설들을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고조에 따라 급속히 증대되고있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수송조직을 개선함에 있어서 선결조건으로 되는것은 계획화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성, 국을 비롯한 운수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는 반드시 화물의 류동상태, 수송능력 및 출하원천 등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기초우에서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며 그것을 집행하는데서 엄격한 규률을 확립하여야 한다.

수송조직을 개선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수송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것이다.

철도운수에서 사령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사령지휘를 과학기술적궤도우에 올

떠세워야만 렬차의 정시운전과 철도국들간, 기술역들간의 운영차의 조절 및 공차의 합리적리용을 보장할수 있으며 사령지휘도 신속정확히 진행할수 있다.

자동차와 수상운수부문에서도 역시 화물류동, 수송규모, 품종, 로선, 상차준비 등을 사전에 충분히 료해장악하여 배차, 배선 조직을 정확히 함으로써 빈차와 빈배의 운행을 극력 없애야 한다. 특히 자동차운수에서는 전문수송, 집중수송을 광범히 조직하는것이 중요하다. 전문수송, 집중수송은 운수수단들을 집중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수송의 기동성과 시기성을 보장하며 화물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고 작업을 계획적으로 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

이와 함께 자동차운수의 유일적인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하는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운수기재들을 종합적으로 리용케 하고 기술관리와 로력관리를 합리화하여 자동차의 리용률을 높이게 함으로써 더많은 화물을 수송할수 있게 한다.

수송조직을 개선함으로써 또한 역수송, 반복수송 등 불합리한 수송을 근절하여야 한다.

운수부문에서 불합리한 수송을 없애는것은 그만큼 수송능력의 예비를 찾아내는것으로 되며 추가적투자없이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더 효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담보로 된다.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통일적인 물자수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전국적으로 창고망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생산지와 소비지간의 련계상 균형을 바로잡음으로써 수송조직에서의 불합리성을 없애야 한다.

철도와 자동차 및 수상 운수의 능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련대수송을 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수송조직을 개선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련대수송—이것은 철도, 자동차 및 수상 운수를 합리적으로 배합리용하는 수송조직으로서 철도의 긴장성을 풀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수송방법이다.

철도운수가 긴장되고있는 현조건하에서 모든 수송사업을 여기에만 의존할수 없다.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급속히 증대되고있는 수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철도운수의 역할을 일층 높이면서 이에 자동차운수와 수상운수를 잘 배합리용하는것이 요구된다.

사실 우리 나라에는 수상운수를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다. 삼면이 바다이고 국내에 강하천들이 발달되여있다. 또한 수상운수는 통과능력이 매우 높으며 다른 수송형태에 비하여 훨씬 경제적이다. 자동차운수도 짧은 구간에서 화물수송의 기동성을 보장할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교통운수부문에서 각종 운수형태들을 잘 배합하여 련대수송을 조직하는것이 철도운수의 긴장성을 푸는데 있어서나 화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리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각종 운수형태들간의 련대수송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련대수송체계를 확립하며 기관본위주의를 없애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련대수송은 자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운수부문들간의 협조정신이 높이 발양될 때 성과를 달성할수 있다. 우선 우리는 지금 자동차와 수상운수로 수송하여야 할 화물들이 철도로 수송되고있는 대상들을 정확히 장악하고 그것을 가까운 년간에 모두 자동차와 수상운수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철도운수의 긴장성을 풀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급속

히 증대되고있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확립하는것은 현시기 운수부문앞에 제기되고있는 방대한 수송과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수송사업은 빠른 속도와 시간 그리고 안정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이것은 엄격한 규률과 질서의 확립을 요구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철도는 조직화되고 기계화된 한개의 체계를 이루고있다. 그러므로 철도에서는 마치 시계의 치차가 서로 맞물고 돌아가는것과 같이 엄격한 규률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

교통운수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당의 정책과 나라의 모든 법령 및 질서들, 상부의 명령, 지시들을 무조건적으로 집행하며 각종 규정과 규범들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이 부문에서의 법으로 되는 렬차운행표를 잘 지켜야 한다. 렬차운행표에 모든 사업을 복종시킴으로써만 전반적인 단위와 고리들에서 사업상 보조를 맞출수 있으며 수송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고 사건사고도 미연에 방지할수 있다. 수상운수부문에서는 해상지휘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이 부문일군들이 부두 및 항해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며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운수부문에서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일군들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를 높이는 동시에 일군들이 규률과 질서의 모든 요구들에 정통하고 거기에 철저히 의거하여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운수부문에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수송능력을 높이며 교통운수를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교통운수부문의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수송능력과 통과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고있는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며 이미 달성된 과학기술적성과들을 더욱 공고히하면서 선진적인 방법과 경험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특히 기관차와 화차를 비롯한 각종 륜전기재들의 리용률을 높이고 운행중에 발생할수 있는 사건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이미 전기화가 실현된 구간들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계통적으로 연구할것이며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서 철도운영의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와 전기기관차와 객화차를 비롯한 질좋은 륜전기재들을 만들기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연구하여야 한다.

수상운수부문에서는 현존선박들의 기술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기술적대책을 연구해내야 하며 자동차운수에서는 휘발유를 절약하기 위한 기술적개조를 완성하여야 한다.

교통운수를 능숙하게 관리운영하며 그것을 새로운 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기술인재의 양성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우선 간부학교와 직장장학교, 기술원양성소들의 사업을 실속있게 운영하며 신입일군들을 위한 기술기능학습망운영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상설교육기관을 통한 이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현시기 조성된 정세는 인민경제의 장성하는 수송수요를 제때에 원만히 충족시키는 동시에 원쑤들의 있을수 있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수송사업을 중단

함이 없이 보장할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특히 우리는 교통운수부문의 대오를 튼튼히 꾸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일군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어떤 정황하에서도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목숨바쳐 싸울수 있도록 그들의 혁명적각오를 튼튼히 하여야 한다.

지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의 수많은 기관사들과 운전수를 비롯한 붉은 수송전사들은 포연탄우를 뚫고 전시수송을 보장하는데서 불멸의 위훈을 세웠으며 귀중한 경험들을 축적하였다. 우리는 지난시기 수송전사들이 발휘한 이러한 생동한 모범과 투쟁경험으로 수송부문의 모든 일군들을 무장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을 간부화한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여 모든 일군들이 유사시에 한등급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도록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현시기 교통운수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에 대한 전인민적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요구된다.

교통운수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조국의 번영과 우리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복무하고있다.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운수수단들과 시설들을 항상 아끼고 사랑하며 이 부문 사업을 적극 도와주는것은 우리 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전체 인민들은 운수수단들과 각종 구조물들을 아끼고 귀중히 다루며 그것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에서는 수송사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자재, 원료 및 연료 등을 우선적으로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

교통운수에 대한 전인민적지원을 강화함에 있어서 지방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의 지도를 개선하는것이 특히 중요하다. 지방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은 대중속에 교통운수의 중요성을 철저히 해설침투시킴으로써 운수부문을 돕는 일에 그들 자신이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자기 관할지역내 운수부문의 사업을 잘 지도하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교통운수부문앞에 제기된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이 부문의 당조직들이 일군들속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데 있다.

교통운수부문의 당조직들은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와 사업작풍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일층 높여 제기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일상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또한 교통운수부문에서 전개되고있는 《리만성운동》, 《김득찬운동》을 천리마작업반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더욱 높이며 나마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수송행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일을 벌려만 놓을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섬멸전》의 방법으로 모가 나게 해결하여 나가며 관리운영수준을 부단히 높이도록 옳은 정치적지도를 하여야 한다.

교통운수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다시 한번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력사적인 우리 당대표자회가 수송부문앞에 제시한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하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앞당기는데 보다 큰 기여를 하여야 할것이다.

전쟁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자들의 태도

김 근 삼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간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략탈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현시기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있다. 그들은 웰남에서 전쟁을 《계단식》으로 더욱 확대하고있으며 우리 나라 남반부를 강점하고 전쟁준비에 광분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시켜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리용하려 하고있다.

17년전에 우리 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한 침략전쟁과 마찬가지로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은 사회주의진영에 대한 도전이며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야수적인 무장간섭이며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조성된 사태는 모든 맑스—레닌주의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에 대한 원칙적립장과 태도를 견지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에 대처한것을 요구한다.

우리 당은 다른 모든 문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쟁문제에 있어서도 시종일관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적립장을 견지하고있다.

우리 당대표자회에서 다시한번 명확히 천명된 반제반미투쟁로선, 싸우는 웰남인민들에 대한 확고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립장,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 등은 혁명과 전쟁에 대한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립장과 태도의 구현이다.

1

전쟁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자들의 태도를 규정함에 있어서 출발점으로, 기본문제로 되는것은 전쟁의 사회계급적 성격이다.

전쟁은 일정한 계급의 정책의 계속이다.

전쟁은 인류사회발전의 일정한 단계 즉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생기고 계급과 국가가 생김으로써 발생하였다. 계급사회가 존재하는 지난 수천년간 인류력사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진행되였으며 또 지금도 진행되고있다. 이 무수한 전쟁들은 다 이러저러한 계급과 민족들, 국가들의 폭력적수단에 의한 정책의 계속이였다.

정책이 제국주의적인것일 때에는 그 연장으로 되는 전쟁은 제국주의적침략전쟁이다.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예속시키기 위하여 경제적인 매수와 예속, 외교적인 회유와 기만, 내정간섭과 정치적음모 등 여러가지의 방법들을 다 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써 자기의 정치적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폭력적방법을 적용하게 되는바, 이것이 곧 제국주의적침략전쟁이다.

미제가 우리 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한

전쟁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의 폭력수단에 의한 계속이였다. 오늘 미제가 윁남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전쟁은 윁남에 대한 미제의 제국주의적침략정책, 그리고 사회주의진영과 날로 장성강화되는 아세아의 반제혁명력량을 반대하는 정책의 폭력수단에 의한 계속이다.

정책이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위한 것이라면 그 연장으로 되는 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며 혁명전쟁이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한 조선인민의 전쟁은 미제의 침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진영을 보위하고 극동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혁명적이며 국제주의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정책의 계속이였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의 침략적, 략탈적 정책과 식민지 및 예속국가 인민들의 민족해방을 위한 정책,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국제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정책, 사회적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피압박계급의 정책 등이 날카롭게 대립되여있다. 이리하여 세계에서는 이러저러한 대립되는 정책들의 연장으로서 이러저러한 전쟁들이 일어나고있으며 또한 새로운 여러가지 전쟁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쟁의 본질이 폭력적수단에 의한 정책의 계속인것만큼 전쟁에 대하여 옳은 평가를 내리며 원칙적인 태도를 취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전쟁을 조직하는 계급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력사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레닌이 말한바와 같이 정책은 경제의 집중적표현으로서 일정한 계급의 리익을 반영한다. 지배계급의 대외정책은 대내정책의 계속이며 그것은 사회경제적, 계급적 관계에 뿌리박고있다. 전쟁은 우연히 그리고 하루이틀사이에 준비되여 일어나는것이 아니라 계속 수행되여온 정책의 력사적총화이며 긴 세월을 두고 비밀리에 또한 공공연하게 준비된다.

전쟁의 성격은 그 전쟁의 사회정치적, 계급적 내용에 의하여 규정된다. 맑스—레닌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이 어떻게 어데서 시작되고 진행되는가 하는것보다 전쟁의 사회계급적성격이 기본문제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전쟁의 침략적, 반동적 목적을 은폐하며 혁명전쟁의 정당한 정치적목적을 외곡하기 위하여 전쟁을 다만 《공격전쟁》과 《방위전쟁》으로 구분하며 자기들의 침략전쟁을 그 어떤 《방위전쟁》으로 묘사하며 한다. 이것은 전쟁을 정치와 분리시킴으로써 전쟁의 계급적성격을 은폐하며 인민들로 하여금 전쟁의 본질을 파악할수 없게 하려는것이다.

조선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은 리승만도당을 사촉하여 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무력침공을 감행케 하고서는 자기들의 《방위전쟁》을 요란스럽게 떠벌리였다. 미제는 오늘도 윁남에서의 침략전쟁을 그 어떤 《방위전쟁》으로 묘사하고있다. 미제는 이러한 선전으로써 결코 침략전쟁의 본성을 가릴수 없다.

제국주의자들, 그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는 전쟁은 철두철미 독점자본가들과 군국주의자들의 리해관계를 표현하며 그들의 침략적야욕을 반영한다. 무제한한 탐욕과 략탈, 돈벌이에 대한 열망은 언제나 그들을 침략전쟁에로 내몬다. 이리하여 제국주의정책, 미제의 대내외정책은 곧 전쟁정책인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자기 나라와 수천마일 떨어진 다른 나라의 령토를 강점하고 침략하며 조선전쟁에서, 그리고 오

높은 웰남전쟁에서와 같이 잔인하고 야수적인 전쟁방법을 꺼림없이 적용하는것은 반동적, 반인민적 리익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정책의 산물이다.

제국주의가 제국주의로서 존재하는 한 그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변한수 없으며 그가 감행하는 전쟁의 반동적인 계급적성격도 변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 반동적착취계급을 반대하여 로동계급과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이 수행하는 전쟁은 그들의 사회적, 민족적 해방을 위한것이며 광범한 피착취근로대중과 피압박민족들의 리익을 위한것이다. 그것은 로동계급과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의 혁명적이며 진보적인 정책의 연장이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전쟁과 정치를 분리시키는 온갖 반맑스주의적견해를 철저히 배격하고 전쟁에 대한 태도를 규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의 사회계급적성격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2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전쟁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대한수 없다. 왜냐 하면 매개 전쟁의 사회계급적성격이 다르며 전쟁들의 정치적목적이 각이하기때문이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계급투쟁과 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쟁을 그 사회계급적성격에 따라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 침략전쟁과 해방전쟁으로 구분하고 정의의 해방전쟁을 지지하며 부정의의 침략전쟁을 반대한다.

로동계급은 부정의의 전쟁, 침략전쟁을 단호히 반대하지만 그러나 부르죠아평화주의와는 달리 자기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민족해방전쟁과 자기 계급을 해방하기 위한 혁명전쟁은 전적으로 지지한다.

현대사회에서 정의의 전쟁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반동통치계급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국내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다.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에서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민족해방전쟁도 역시 정의의 전쟁이다.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사회주의조국방위전쟁도 정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피로써 전취한 혁명의 열매를 수호하며 국제혁명의 기지를 보위하기 위한 전쟁이다.

정의의 전쟁은 모두다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그것은 피압박인민들을 자본주의적노예제도로부터 해방하며 식민지인민들을 제국주의억압으로부터 해방하고 인민들의 자립적인 국가적, 민족적 발전을 위한 조건들을 조성하는데 복무하기때문이다.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간고한 조건하에서 장기간의 피어린 무장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조국의 광복과 우리 인민의 사회적해방을 실현하는데서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정의의 전쟁의 한 전형이였다. 이 전쟁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속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인민이 주체적력량에 토대하여 해방후 5년간 피땀으로써 마련한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였으며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전쟁이였으며 사회주의진영과 세계의 평화,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였다. 우리 인민들은 전쟁의 이러한 정의적성격을 깊이 인식하였기때문에 당의 령도하에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한사람같이 일떠섰으며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주의적위훈을 발휘하였으며 원쑤를 타승하였다.

오늘 미제는 여전히 남조선을 강점하고 새 전쟁을 발광적으로 준비하면서 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고 전조선을 식민지로, 사회주의진영을 반대하는 군사기지로 전변시키려는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앞에는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할 혁명임무가 의연히 남아있다. 원쑤들에게 유린당하고있는 조국의 절반땅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숭고한 민족적, 계급적 의무이며 합법적권리이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측에서는 부정의의 침략전쟁이며 우리 인민의 측에서는 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고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달성하며 국제혁명에 기여하는 정의의 전쟁으로 된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원쑤들이 언제 어떻게 침공하여와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용감하게 맞받아나아가 싸워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한 혁명적각오로 충만되여있으며 전쟁에 대처할 정신적 및 물질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고있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지원하는것을 자신의 숭고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임무로 간주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웰남침략과 그것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투쟁은 현시기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사이의 투쟁에서 초점으로 되고있다. 웰남문제에 대한 태도는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정의의 전쟁을 적극 지지하는 맑스—레닌주의적, 국제주의적 립장과 이와 배치되는 기회주의적, 민족리기주의적 립장을 갈라놓는 시금석으로 된다. 모든 나라 공산주의자들, 특히 사회주의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은 웰남인민의 정의의 전쟁을 지지하는데서 단호하고 적극적인 립장을 취해야 한다.

우리 당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여 집단적반격을 가하기 위한 반제공동투쟁을 전개할것을 주장하였으며 싸우는 형제적웰남인민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지원조하고있다.

우리 당대표자회는 미제의 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반대하여 웰남인민의 정의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의 형성을 달성하며 미제의 《계단식전쟁확대》에 대처하여 웰남인민에 대한 국제적지원도 계단식으로 확대하며 사회주의국가들이 국제적인 지원부대를 파견하는 조치를 취할것을 제기하였다.

정의의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부정의의 전쟁에 대한 단호한 반대는 분리할수 없다.

현대사회에서 부정의의 전쟁에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계급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반대하는 자본가계급의 반혁명전쟁, 식민지 및 예속국가 인민들의 민족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주의전쟁, 사회주의진영, 개별적사회주의국가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 시장과 세력권의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국가 호상간의 전쟁 등이 포괄될수 있다. 부정의의 전쟁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든지간에 썩어져가며 죽어가는 제국주의와 반동적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함으로써 력사발전을 저해한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부정의의 전쟁을 적극 반대하며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제국주의반동세력에 타격을 가하고 그들의 멸망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일찌기 레닌은 제국주의자들간의 전쟁에 대해서는 《두 도적놈이 싸워 둘이 다 망하게 하라》는 립장에 서며 전쟁으로 조성된 위기를 자본을 전복하는데 리용하면서 이것을 사회주의혁명을 준비하는데로 적극 이끌것이라고 하였다. 로씨야의 10월혁명은 이러한 혁명적원칙과 전술의 빛나는 승리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을 확대하고있으며 특히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있다.

현시기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분쇄하기 위하여 모든 반제력량을 결속시키고 단합된 힘으로 타격을 가하는것이 필요하다.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미제에게 타격을 주어 그들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시키며 미제가 발붙이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이 함부로 날뛸수 없게 손발을 얽어매놓아야 한다.

사회주의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에 대처하여 최대의 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하며 놈들이 침략을 감행하는 경우에는 단호한 반격을 가할수 있도록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견결히 수호하고 형제적월남인민들의 정의의 전쟁과 세계피압박인민들의 반제투쟁에 대하여 온갖 형태의 지지와 원조를 주어야 한다.

력사적경험은 부정의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으로 극복해야만이 혁명의 승리를 달성할수 있으며 평화를 유지공고화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을 확대하고있으며 이에 대항하여 세계의 광범한 혁명군중과 형제적월남인민들이 간고한 무장투쟁을 진행하고있는 이때에 맑스—레닌주의자들은 피흘리면서 싸우고있는 계급적형제들과 인민들에 대한 국제주의적지원과 공동투쟁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단호한 집단적반격을 가하며 형제적월남인민의 정의의 전쟁에 대한 지원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함에 있어서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고수하며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을 실현하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가장 날카롭게 제기되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오늘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과 반제공동행동을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으로써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며 형제적월남인민들의 정의의 전쟁을 진실로 지지원조하는것은 전쟁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자들의 원칙적태도를 증시하는것으로 된다.

3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을 반대하며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 어떠한 전쟁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쟁을 두려워하는것은 부르죠아평화주의의 표현이며 수정주의적사상조류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적독소가 우리 내부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외부로부터도 침습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경계하여야 한다. 어떠한 불의의 시각에 원쑤들이 침공하여와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용감하게 맞받아나아가 싸울수 있도록 전

제 군대와 인민을 준비시켜야 한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계급투쟁과 사회혁명에 의하여 낡은 사회가 멸망하고 보다 선진적인 새로운 사회가 발생발전하는것은 력사발전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현시대는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시대이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침략과 전쟁정책은 죽어가는자의 발악에 불과하다.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가는 자기들의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언제나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모험들은 그들자신의 멸망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군 하였다. 력사가 보여준바와 같이 제1차세계대전의 결과에 세계의 6분의 1의 지역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였고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에 사회주의는 한나라의 범위를 벗어나서 세계적체계로 전환되였다.

오늘 제국주의세력은 사회주의를 비롯한 세계혁명력량의 장성과 식민지체계의 붕괴로 인하여 심히 약화되였다. 제국주의의 내부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있으며 제국주의렬강간의 갈등이 격화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강력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있다.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는 이미 조선전쟁에서 우리 인민에게 호되게 얻어맞아 내리막길에 들어섰으며 오늘 웰남침략전쟁에서 계속 녹아나고있다. 현실은 제국주의의 종국적멸망이 날로 다가오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김일성동지는 제국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국주의는 강한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사상루각과 같은것이며 그 멸망은 불가피하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오늘 미제는 허장성세하여 침략과 전쟁정책에 더욱 매달림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고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분별없이 계속 전쟁정책에 매달려 전쟁을 확대한다면 그것은 제국주의의 멸망을 촉진할뿐이다. 사실에 있어서 전쟁을 두려워할자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 전쟁방화자들자신인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계속 확대하는 경우에 맑스—레닌주의자들과 세계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일으킨 전쟁의 불길속에서 타죽게 할것이다.

물론 전쟁은 커다란 파괴를 동반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일시 중단시킬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의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설사 전쟁이 일어나 혹심한 파괴를 당한다고하더라도 당이 있고 정권이 있고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는 이상은 또다시 새 생활을 건설할수 있는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만일 전쟁을 두려워하고 부르죠아평화주의에 빠지며 염전사상을 허용한다면 인민들의 혁명적사상의식과 투지를 마비시키며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오만무례하게 행동케 하며 평화위업을 위태롭게 할수 있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전쟁을 두려워할것이 아니라 단호한 반제투쟁으로써 적들로 하여금 혁명적인민들의 위력앞에서 떨게 해야 한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항상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전쟁위험에 대처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물론 오늘 강력한 사회주의혁명력량이 있는 조건하에서 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면 전쟁을 방지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데까지나 가능성이며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결코 평화의 절대적담보

만 있을수 없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것이다. 전쟁방지의 가능성과 전쟁의 가능성에서 어느 하나를 절대화하여서는 안된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전쟁방지의 가능성과 함께 전쟁의 가능성도 인정하고 이에 대처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전쟁은 교전쌍방간의 적대적모순의 극도의 첨예화이다. 더우기 제국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전쟁은 첨예한 계급투쟁의 표현으로서 가장 무자비하며 가렬하다. 전쟁은 나라의 사회제도와 모든 물질적, 정신적 력량에 대한 준엄한 검열로 된다. 때문에 사회주의나라의 맑스—레닌주의자들은 현대전쟁과 혁명전쟁의 법칙에 대한 과학적인식에 기초하여 전쟁의 승리를 규정하는 제 요인들을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은 전쟁수행의 필수적요소들이다. 이것들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조국방위전쟁에 있어서도 그 운명을 좌우하는 요소들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전쟁의 객관적법칙에 대한 과학적인식에 기초한 세련된 정치군사적령도와 인민대중의 높은 사상의식과 조직성, 자각적동원이 요구된다. 때문에 당의 령도하에 전체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그들을 당주위에 단결시켜 나라의 정치적힘을 튼튼히 준비하는것이 중요하다.

전쟁은 폭력수단에 의한 정책의 계속인것만큼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옳게 배합하면서 군사력을 튼튼히 다지는것이 중요하다.

상비적인 정규군은 나라의 혁명적무장력에서 핵심을 이룬다. 우리 인민군대는 나라의 보위에서 주동적역할을 담당하는 당의 믿음직한 무장력이다. 그러므로 군사력강화에서 우선 중요한것은 상비적인 정규군을 질적으로 강화하는것이다. 무장력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사람, 즉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유사시에는 모두다 간부적기능을 수행할수 있게 하는 동시에 현대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그 무장장비를 부단히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군대의 간부화와 현대화는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며 유사시 군대의 급속한 확대와 전민무장화의 실현을 담보하는 우리 당의 현명한 방침이다.

현대전쟁은 강력한 군대와 함께 광범한 인민대중의 자각적동원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제도와 전쟁의 정의적성격은 전체 인민들을 무장하며 그들을 전쟁에 자각적으로 동원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오직 사회주의제도와 정의의 혁명전쟁에만 고유한 특성이며 우월성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본성과 전쟁의 략탈적성격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침략전쟁에서 인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따라서 인민들을 무장시킬수도 없으며 또한 전쟁에 자각적으로 동원시킬수도 없다.

인민의 무장은 나라의 요새화와 결합되였을 때 더욱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튼튼한 경제적토대에 기초하여 적들의 어떠한 무력침공도 격파하고 당의 자위의 원칙을 관철할수 있게 하는 정확한 방침이다.

현대전쟁은 공고한 후방을 요구한다. 나라의 공고한 경제력은 강력한 정치력, 군사력의 튼튼한 물질적기초로 된다. 그러므로 나라의 경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그것을 전쟁에 동원할수 있게 사전에 준비하는것은 극히 중요하다.

우리는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군사로선을 철저히 실현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관철함으로써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하며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완벽한 태세를 갖출것이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계급적성격

리 상 태

계급성은 문학예술의 사상적본질과 관련되는 원칙적문제이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자기의 계급성을 철저히 정확하게 구현함으로써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계급성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순결성과 전투적기치를 고수하는 기본조건이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계급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것을 정확히 구현함으로써 그 사회적기능을 부단히 높일수 있으며 가일층의 개화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의 문학예술창작에서 계급성의 원칙을 철저히 정확하게 구현하는것은 조성된 정세에 비추어 매우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계급성의 원칙으로 일관된 훌륭한 문예작품들을 더많이 창작하여 근로자들속에서의 계급교양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1

문학예술이 계급적성격을 띠게 되는것은 그것이 사회적의식의 다른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계급의 리해관계를 표현하며 그에 복무하기때문이다.

문학예술의 계급성은 소여사회의 계급관계, 계급투쟁의 반영이다.

적대적계급으로 분렬된 계급사회에서는 그의 계급적내용에 따라 서로 대립되는 문학예술이 존재하게 된다. 하나는 극소수착취계급의 사상과 리익을 대변하는 반동적인 문학예술이며 다른 하나는 절대다수 피착취대중의 사상과 리익을 대변하는진보적인 문학예술이다. 작가, 예술인들 자신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간에 그들의 작품은 이러저러한 계급의 리상과 희망을 표현하며 그것으로써 사회의 계급투쟁에 참가하는것이다.

맑스—레닌주의는 문학예술의 계급적성격을 부인하거나 은폐하는 《초계급성》, 《순수예술》의 부르죠아적구호를 단호히 배격한다.

부르죠아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들이 창조한 문학예술의 계급성을 감히 공개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의 문학예술이 착취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반인민적성격을 띠고있기때문이다. 그들은 《초계급성》과 《순수예술》의 구호로 자기들의 문학예술이 범인류적인것인듯이 가장해나선다. 이 기만적인 구호는 사실상 근로대중의 계급의식과 투쟁정신을 마비시키고 거세함으로써 그들을 착취계급에게 영원히 얽매놓으려는 의도를 가리는 병풍에 지나지 않는다. 《초

계급성》과 《순수예술》의 구호는 부르죠아적계급성의 위선적이며 엄폐된 표현에 불과하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실현하는데 자각적이며 목적의식적으로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과업으로 하고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리상과 리해관계에 대한 충실성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모든 창조활동에서 근본출발점으로 된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자기의 계급성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철저히 구현하는것으로 하여 과거의 다른 문학예술과 엄격히 구별된다.

로동계급의 사상인 공산주의사상은 온갖 사회적불평등의 청산과 인류의 광명하고 행복한 미래를 밝혀주는 가장 선진적인 사상이다.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은 자신의 해방과 행복을 위한 투쟁인 동시에 전체 인류를 온갖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하고 그들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로동계급의 리상을 표현하고 그 리해관계를 대변하는것으로 하여 인류의 가장 높은 리상을 표현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해관계를 대변하게 된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그의 철저한 계급성으로 하여 진정한 인민성을 획득한다.

력사적으로 선진적인 계급과 진보적인 사상을 대변한 작가, 예술인들은 언제나 이러저러하게 인민대중의 사상과 감정을 반영하였다. 그들의 립장이 보다 선진적일수록 그들이 창조한 문학예술의 인민성은 그만큼 확대되였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세계관에 확고히 기초하지 못했던 이전의 모든 진보적문학예술은 인민대중의 근본적인 리해관계를 옳게 표현하지 못하였으며 또 표현할수 없었다. 과거의 그 어떤 선진적인 계급, 진보적인 사상도 력사적인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높이에까지 도달할수 없었던것이다. 오직 사회주의적문학예술만이 로동계급의 사상과 립장에서 생활을 정당하게 반영함으로써 광범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성의 요구를 가장 충실히 구현할수 있다.

공산주의위업의 실현은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하는 로동계급의 선봉대이며 전위대인 당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당은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며 혁명승리에로 인민들을 줄기차게 인도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계급성, 로동계급에 대한 헌신적이며 자각적인 복무는 맑스—레닌주의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하고 무조건 관철하는데서 가장 뚜렷이 표현되며 또 표현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계급성이 그의 최고표현으로서의 당성의 발현을 통해서만 철저히 구현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철저히 계급적이며 무조건적으로 당적이여야 한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강력한 무기로 될수 있다》(김일성, 《우리 혁명에서의 문학예술의 임무》, 26페지).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민감하게 정확히 반영할 때에만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시대가 제기하는 가장 절실한 사회정치적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줄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혁명투쟁에로 가장 효과있게 동원할수 있다.

적대계급이 청산되고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루어진 사회주의사회에서 문학예술은 맑스—레닌주의당의 향도아래 그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가장 원만히 발현할수 있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계급성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실현에 충실히 복무하며 사회주의사회발전의 기본동력을 이루는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에 가장 잘 이바지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의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이며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가일층 공고화될수 있다. 진정으로 계급적이며 당적인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는데 기여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더욱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근로자들을 고무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계급성을 강화할데 대한 요구는 사회주의하에서도 계급투쟁의 과업을 옳게 해결하여야 하는 사정과 관련하여서도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착취계급과 착취제도가 청산된 사회주의하에서도 전복된 계급들이 옛처지를 회복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발악하며 외부의 적들이 침략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동한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계급적원쑤들의 착취자적본성을 예리하게 폭로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확증함으로써 근로자들 특히 새 세대를 계급적원쑤들을 증오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원흉인 미제와 맞서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조건은 우리 문학예술이 계급성을 더욱 철저히 구현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계급성은 부르죠아반동문예사조의 침습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문학예술창작에서 나타나는 온갖 부르죠아사상의 잔재를 철저히 극복하는것을 통하여 더욱 강화된다. 이것은 사회발전과 문학예술자체발전의 필연적요구이며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자기의 사회적사명을 다할수 있는 담보로 된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우리 당의 정확한 문예정책을 받들고 부르죠아적경향의 사소한 발현도 제때에 철저히 극복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혁명투쟁의 준엄한 길에서 인민대중을 승리에로 고무하는 사상적무기로 될수 있었다.

오늘 우리 문학예술은 계급성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고 그 사회적기능을 일층 높임으로써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나가는 우리 인민의 힘찬 투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2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창작실천에서 계급성을 옳게 구현하여야만 자기의 사명을 바로 실현할수 있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그 승리의 력사적필연성을 예술적으로 밝힘으로써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개조하며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계급성은 그 작품들이 근로자들의 공산주의적세계관형성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혁명투쟁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훌륭한 교과서로 되는데서 발현되여야 한다.

문학예술창작에서 계급성을 옳게 구현하기 위하여 우선 중요한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생활을 로동계급의 립장에서 정당하게 반영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적행정과 일치하는 리상을 향하여 그 합법칙성에 튼튼히 발붙이고 투쟁하기때문에 언제나 생활의 진실을 밝히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은 로동계급의 립장에 확고히 설때에만 진실성의 요구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문학예술창작에서 로동계급의 립장에 선다는것은 모든 사회현상과 인간생활속에서 소여사회의 계급관계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명확하게 묘사하는것을 의미한다.

계급투쟁속에서 모든 계급과 계층들은 자기의 사회경제적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에 대하여 각이한 립장을 취한다. 착취계급은 혁명을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혁명의 집요한 원쑤로 등장한다. 중산계급은 소소유자이면서 근로자인 2중적처지로 하여 동요하며 그만큼 그들이 혁명에로 이르는 길은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기본군중은 과거사회에서 가장 착취받고 압박받던 자기들의 계급적처지로 하여 혁명을 열렬히 지지하며 투쟁에 발벗고나선다. 이러한 관계는 사회적합법칙성이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혁명발전의 매단계에서 각이하게 표현되는 각 계급들의 립장과 태도, 그들의 사회정치적면모를 뚜렷이 그려내야 하며 혁명에서 적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은 문학예술이 생활의 진실한 묘사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계급적자각을 높이는 길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어느 계급과 계층이 혁명적으로 싸울수 있으며, 어느 계급과 계층이 어떤 리유로 우리와 같이 손잡고나갈수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은 혁명의 기본동력에 대한 문제를 옳게 파악할수 있게 하며 로동계급이 혁명발전의 매시기에 자기의 동맹자들을 전취할 과업과 방법을 리해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어떤 계급들이 인민을 어떻게 억압착취하며 그들이

어떤 리유로 조국과 인민을 반대하며 어떻게 교활하게 로동자, 농민을 기만하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은 문학예술이 대중에게 적대계급의 반동적본질을 명확히 인식시키며 원쑤들을 반대하여 철저히 투쟁할줄 알게 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한다.

문학예술창작에서 로동계급의 립장에 선다는것은 혁명발전의 리익의 견지에서, 우리 당의 계급로선과 계급정책의 견지에서 생활을 정확히 반영하는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바로 우리 사회의 계급과 계층들의 관계를 밝혀야 하며 그것을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리익의 견지에서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는 오랜 기간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 있었고 해방후에 나라의 절반땅이 미제에게 강점당하였으며 전쟁시기에 일시적후퇴의 시련을 겪게 된 사정 등으로 하여 계급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되여있다. 력사적으로 형성된 계급관계의 복잡성은 우리 문학예술앞에 더욱 어려운 임무를 제기하고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키고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가는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에 튼튼히 립각하여 생활의 구체적인 과정에 깊이 침투함으로써 사회적관계의 복잡하고 다양한 얽힘을 헤치고 각이한 계급과 계층이 혁명에서 노는 역할과 의의를 뚜렷이 밝혀낼수 있으며 당의 정책이 구현되는 과정을 정확히 묘사할수 있다.

생활을 사회계급적관점에서 정확히 분석하고 그 본질을 밝히는것은 전형적환경에서의 전형적성격의 창조에 관한 예술적전형화의 과업을 옳게 실현하는 기본조건이다. 인간관계의 계급적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리하게 부각하는것을 떠나서는 전형적인 인간성격을 창조할수 없다.

사회생활에서는 인간들의 복잡한 호상관계가 언제나 눈에 띄게 선명하게 나타나는것이 아니며 그 사회계급적본질이 직선적으로만 표현되는것도 아니다.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의 호상관계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있다. 혁명에 대한 이러저러한 계급들의 태도는 또한 혁명발전의 단계에 따라 각이하게 표현된다. 그러나 이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생활속에서도 사회계급관계의 합법칙성이 관철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창작한 문학예술작품만이 혁명발전의 단계들에서 각 계급의 처지와 정신상태를 시대적조명속에서 명확히 보여주면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의 사회계급적합법칙성을 밝혀낼수 있다.

예술적전형화를 일반화와 개성화의 통일로서 리해하지 않으며 특히 개성화에 대한 요구를 《특이한 성격》의 창조로 대치한다면 그러한 성격은 진실할수 없으며 교양적의의를 상실하게 될것이다.

물론 복잡한 계급투쟁속에서는 자기의 계급적처지에서 떠난 생활경로를 밟게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그러나 전형화에서는 계급적처지와 결부된 생활경로가 주되는 대상으로 된다. 만일 해방후에 땅을 분여받은 빈농민을 협동화운동에서의 반대자로 등장시킨다면 설사 성격이 아무리 《개성화》되였다고하더라도 그것은 계급성의 원칙을 떠난것으로 하여 생활의 진실성을 바로 구현하지 못한것으로 된다. 전형적인 성격은 어디까지나 그 개성적인 독성속에서 자기가 속

한 계급과 제도의 본질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계급성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공산주의사상을 체현한 긍정적주인공의 형상을 옳게 창조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언제나 창작의 중심문제로 된다.

공산주의사상을 체현한 긍정적주인공이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목적의식적으로 투쟁하는 자각된 투사들이다. 그들의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불굴의 투쟁정신은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관에 기초한것이며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체득된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작품은 그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길을 밟아 자기의 계급적처지를 자각하고 혁명사업에 몸바쳐나서게 되였으며 간고한 투쟁과 시련속에서 어떻게 불굴의 투사로 자라나게 되였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즉 혁명적세계관의 형성과정을 성격발전의 력사적 행정을 통하여 진실하게 묘사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계급적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사상을 체득하고 혁명투사로 자라나는 과정은 결코 동일할수 없다. 공산주의투사의 성격발전을 그의 계급적처지로부터 추구하며 혁명적장성의 각이한 경로를 정당한 생활론리를 가지고 보여주는것이 필요하다.

공산주의사상을 체현한 긍정적주인공으로는 무엇보다는 혁명의 기본동력인 로동자, 농민들을 그려야 한다. 그들은 압박받고 착취받던 자신의 계급적처지로 인하여 누구보다도 혁명성이 강하여 공산주의리상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자기의 응당한 계급적의무로 간주하고 용감하게 헌신적으로 투쟁한다.

공산주의사상을 체현한 주인공의 성격창조를 통하여 작가, 예술인들은 반드시 로동계급의 사회적본질을 뚜렷이 밝혀야 한다. 로동계급에게 고유한 사회적본질은 맑스—레닌주의세계관에 기초한 철저한 혁명성과 자기희생적인 투쟁정신이 고도의 조직성, 단결력과 결합되여있는데 있다. 공산주의투사의 강의한 혁명정신은 결코 로동계급의 힘의 원천인 조직성, 단결력을 떠나서 발현될수 없다.

공산주의사상을 체현한 긍정적인물로는 인테리를 비롯한 중산계급출신의 인물도 묘사할수 있으며 때로는 그들을 주인공으로 묘사할수도 있다. 물론 중산계급은 그 사회계급적제약성으로 하여 혁명에로 이르는 과정이 보다더 간고한 우여곡절의 로정일수 있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적극적인 영향, 공산주의사상의 위대한 견인력은 그들로 하여금 시련을 겪으면서 마침내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데로 이를수 있게 한다. 바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것이 당의 군중쟁취를 위한 투쟁에서 하나의 중요한 과업인것이다.

중요한것은 어느 계급의 인물과 생활을 우선적으로 묘사할것인가 하는것과 함께 어느 계급의 립장에서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는데 있다. 우리 문학예술은 모든 군중을 혁명의 편에 인입하는 로동계급의 정치적과업에 립각하여 예술적형상화에 있어서 그들의 혁

명적장성의 길을 진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기본계급출신의 주인공들을 전면적으로 형상화하면서 기타 계층의 인물들의 형상을 옳게 배합하여 묘사할 때 문학예술은 생활을 보다 폭넓고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다.

부정인물들의 사회계급적본질을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은 적아의 계선을 명백히 하며 계급적원쑤와 착취자적사회제도에 대한 증오심을 배양하는데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계급적원쑤의 형상을 창조하는데 있어서도 그들의 인간적추악성과 정신적저렬성을 보여주면서 주되게는 그것이 착취자들의 계급적본성의 발현이며 착취제도의 산물이라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원쑤들을 증오와 멸시의 대상으로 묘사해야 하며 또 그들이 비록 외형상으로는 강해보인다고 하더라도 력사적으로 이미 낡은 계급이며 따라서 그들의 멸망은 불가피하다는것을 예술적으로 천명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의 계급성을 철저히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는것은 전적으로 작가, 예술인들이 확고한 계급적립장에 서며 자신의 정치사상적 및 미학적 준비정도를 일층 높이는데 달려있다.

우선 중요한것은 작가, 예술인들 자신이 공산주의자로 되는것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맑스—레닌주의세계관을 확립하며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선차적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리하여 자기의 정치적식견을 부단히 높이고 로동계급의 립장에서 생활을 정당하게 파악할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또한 창작실천과 생활에서 발로되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사상수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허심히 배우는것이 필요하다. 현실침투의 의의는 창작을 위한 소재의 탐구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사상을 단련하는데 있다.

작가, 예술인들의 계급성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창작실천을 통하여 발현되여야 한다. 예술적수준의 제고, 예술적기교의 련마는 문학예술의 계급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로동계급의 사상적무기로서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힘은 시대의 정신을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밝혀주는데 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창작에서 계급성의 원칙을 철저히 정확하게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혁명적기치를 확고히 수호한것이며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자신의 고상한 당적의무를 다할것이다.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의 장기집권책동

김 경 현

남조선에서는 5월과 6월사이에 괴뢰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놀음이 벌어지게 되여있다.

인민의 준엄한 처단을 받아야 할 박정희와 같은 매국배족의 무리들이 《선거》놀음을 통하여 또다시 괴뢰정권에 눌러앉아 남조선에서 《정사》를 좌지우지하려고 발광하고있다.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은 재집권을 위한 《선거》차비에 본격적으로 달라붙고있다.

파쑈적폭압속에서 사기와 협잡의 방법으로 추진되고있는 금번 《선거》는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군사파쑈도당의 장기집권을 합법화하기 위한 하나의 기만극에 불과하다.

영국잡지 《동방세계》까지도 《한국정부를 만들고 안만들고 하는것이 결코 국민의 표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사실《한국정부라는 공허한 외형에다 합법성의 겉치장을 부여》하는 모든 일은 워싱톤의 구상에 의하여 진행되는것이다.

1

군사파쑈도당의 장기집권책동은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부추김속에서 벌어지고있다.

《선거》를 앞두고 워싱톤의 상전은 서울의 주구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있다.

미제는 저들의 침략정책수행에 충신한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을 《미국을 돕는 모범》으로 내세우면서 추어주고있다.

지난해 미제의 여러 괴뢰들이 남조선에 모여들어 번번한 회의놀음을 벌린것도, 박정희의 동남아세아행각을 조작한것도, 죤슨의 남조선방문과 최근 서독복수주의두목 류브케의 서울방문을 마련한것도 박정희도당에게 정치적지지를 주기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책동의 일환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지난시기 남부윁남에 남조선괴뢰군을 파병시킬 때에도 이러한 식의 《지지》, 《찬사》를 던져 박정희도당을 추어올렸다는것은 이미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미제가 괴뢰도당에 대한 《찬양》놀음에 이번과 같이 요란하게 동원되였던 일은 없었다. 여기에는 박정희의 몸값을 더욱 올려주어야 할 필요를 느낀 미제의 음흉한 안속이 있는것이다.

이번 괴뢰대통령선거에서 워싱톤이 고른 《신랑감》은 박정희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정계를 아무리 훑어봐도 박정희와 같이 충신한 졸개는 없다고 보고있다.

박정희로 말하면 일찌기 일본황군의 중대장으로서 일본천황에게 충성할것을 맹세하고 동족을 살륙하며 대륙을 침략하는 앞장에서 날뛴자이다. 8.15후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특무로 변신하여 수많은 애국자들을 학살한 민족반역자이며 친미주구이다. 그는 미중앙정보국이 일으킨 5.16군사정변으로 군사파쑈정권에 들어앉자마자 백악관에 달려가 《미국이 남조선을 령도하고있는데 대하여 신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아양을 떤 세상에 보기드문 미제국주의의 졸개이다. 박정희도당은 상전이 쥐여준 총칼을 휘두르면서 인민탄압에 날뛰고있는 파쑈악당이며 나라와 인민의 리익, 지어 동족의 생명까지 팔아가면서 미제의 침략정책에 충신히 복무하는 매국역적이다.

그러므로 미제국주의자들은 박정희를

저들에 대한 충실성에 있어서나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과 퇴유기만을 배합하는 교활성에 있어서나 괴뢰로서 쓸모있는자라고 보고있다.

특히 남조선의 긴박한 정세가 미제로 하여금 박정희도당의 재집권을 적극 두둔해나서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자라나고있는 혁명력량을 탄압함에 있어서 박정희도당을 으뜸가는 하수인으로 보고있다.

또한 그들은 친미친일주구인 박정희《정권》을 교체한다면 웰남파병의 계속중대,《한일》간의 결탁,침략과 전쟁정책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것이라고 타산하고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인민들로부터 고립배격당하고있는 박정희에게 다시 《대통령》감투를 씌우려고 그처럼 서두르고있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도 박정희를 재집권시키기 위하여 애쓰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재침함에 있어서 박정희를 가장 비위에 맞는 길잡이로 보고있다.

박정희가 일본천황의 《적자》로서 일본군국주의자와 《형제지간》이라고 부르짖은데 대하여서는 길게 론할 필요조차 없다. 다만 그가 집권기간 저지른 죄행만 보더라도 친일주구라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 그는 력대괴뢰들이 감히 실현하지 못한 《한일협정》을 체결하여 《한일국교정상화》를 실현함으로써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시작하였다. 박정희도당의 매국죄행으로 하여 남조선에는 《미쯔이》, 《미쯔비시》, 《스미도모》 등 100여개의 일본독점체들과 지어 창가학회, 천리교 등 일본군국주의종교단체까지 침투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남조선에 뿌리박은 일본의 리권을 보호하며 남조선에 대한 재침략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박정희의 재집권이 필요한것이다.

그리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박정희도당에게 비밀리에 정치자금을 대여주면서 그를 지원하고있다. 이미 폭로된 《사카린밀수사건》, 《데르론밀수사건》 등은 그 실례로 된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박정희도당에 대한 부추김은 그들로 하여금 장기집권책동에 더욱 미쳐날뛰게 하고있다.

2

상전의 부추김에 신바람이 난 군사파쑈도당은 장기집권야욕에 눈이 뒤집혀 《선거》지지표를 얻기 위한 흉계를 꾸미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군사파쑈도당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최소한 총투표수의 과반수이상의 지지표를 획득하며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의석수(175석)중 현재 차지하고있는 의석수(111석)를 계속 유지할데 대한 《선거전략》목표를 내세우고있다. 이것은 지난 《선거》에서 저들의 추락된 위신을 회복하며 《국회내 안정세력》을 보장하려는 박정희도당의 심산을 보여주고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박정희도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거》준비에 혈안이 되고있다.

우선 박정희도당은 《민주공화당》과 괴뢰행정조직체계를 정비강화하고 그 력량을 확대하여 《선거》지반을 꾸리는데 주력하였다.

그들은 이미 《선거관리내각》을 조직하고 괴뢰행정말단기구의 우두머리까지 《민주공화당원》으로 갈아채웠을뿐아니라 《민주공화당》기구를 《선거체제》로 개편하고 지역《선거구》단위로 131개의 《지구당》을 정비보강하였다. 현행괴뢰정당법에 의하면 《지구당》이하에 당 말단조

직을 묻을수 없게 되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도당은 면, 리, 동, 통, 반에 이르기까지 《관리장》, 《련락장》, 《활동장》 등의 이름으로 《선거》관리자를 선정배치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당 말단조직을 꾸며놓았다. 이 조직을 통하여 매호당 1명이상의 당원을 두는 목표를 내세워 이미 150여만명의 당원을 긁어모았다. 그리고 그중 30여만명의 심복에게 비밀정치훈련을 주어 7,600개에 달하는 투표장마다에 배치하였다.

정치적지반을 꾸리는 한편 군사파쑈도당은 《선거》에서 다수표를 획득하기 위해 교활한 방법으로 집권기간의 《업적》 선전과 허황한 약속놀음을 벌리고있다.

그들은 《한일조약》의 체결, 남부웰남에로의 《국군》파병 등 매국배족행위와 경제적파국, 민생고, 부정부패의 격화 등만을 가져온 저들의 시책들을 무슨 《업적》이나 되는것처럼 선전하고있다. 그리고 《민주공화당》과 괴뢰정부의 우두머리들로 《유세반》을 편성하고 남조선각지를 순회하면서 뻔뻔스러운 12개의 《선거강령》과 100가지 《선거공약》의 선전에 피대를 돋우고있다.

박정희도당은 또한 인민들로부터 빼앗아낸 막대한 《선거》자금을 물쓰듯하면서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선심》공세를 취하고있다.

남조선출판물에 나타난 일부 자료에만 의하더라도 박정희도당은 작년 6월부터 지방의 괴뢰군수, 경찰서장, 면장, 경찰지서장들에게 매달 봉급외에 거액의 특별수당금을 주어 그들을 유권자매수에 동원시키고있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수건, 보자기, 달력을 《선물》하는 등 별별 추태를 다 부리고있다.

박정희도당은 금번 《선거》에서 정치적적수로 되고있는 야당세력에 대하여 폭압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야당 《지지표》를 분산시키기 위한 책동을 진행하고있다.

그들은 경찰과 검찰기관에 《선거담당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남조선전역을 더욱 조밀한 정보망으로 뒤덮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재편성하였으며 그것을 통하여 야당들의 《선거》활동을 방해하는 모략책동을 벌리고있다.

박정희도당의 야당에 대한 《선거전략》에서 주요한 측면의 하나는 주되는 경쟁대상자인 《신민당 대통령후보》 윤보선의 지지표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군소보수정당들을 매수리용하려는 책동이다. 군사파쑈도당은 《신민당》에 있던자들을 탈당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군소보수정당들의 《대통령후보》로 출마케 하려고 획책하고있다.

그뿐아니라 박정희도당은 야당지도자들에게 여러가지 《죄명》을 씌워 검거투옥하는 등으로 탄압을 하고있다.

어느한 야당지도자가 《유세연설》에서 남부웰남에로의 《국군증파》를 《청부전쟁》이라고 비난하였다 하여 그를 《반공법》에 걸었으며 공화국북반부와의 부분적교류문제를 론의하였다는 리유로 한 야당정객을 역시 《반공법》으로 구속하였다.

야당세력과 정치적적수를 억누르기 위한 군사파쑈도당의 책동은 과거 리승만집권시기의 살인선거를 방불케 한다. 5.10단선으로부터 3.15부정선거에 이르기까지의 수차에 걸친 《선거》에서 리승만도당은 정치적《적수》들에게 온갖 탄압을 가했고 지어 《대통령》후보로 출마한 신익희, 조봉암, 조병옥 등을 살해까지 하였던것이다.

군사파쑈도당이 재집권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그처럼 폭압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한때 워싱톤의 손때묻은 오랜주구였던 리승만은 《선거》놀음을 연출로 하

여 남조선인민들로부터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말았다. 박정희자신도 1963년 괴뢰대통령선거에서 36%의 득표로 간신히 《당선》된 전례를 기억하고있다.

지난시기의 전례로보나 저들이 저지른 죄과와 인민들의 반항으로보나 《선거》를 앞두고 박정희도당은 몹시 초조해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사실상 워싱톤의 지배층도 《박정희가 대통령에 재선되여도 소수의 차이로 재선될것이다. 의외의 실패도 있을수 있다》(《뉴욕타임스》 1967년 2월 14일)고하면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박정희도당은 《대통령》감투를 빼앗기지 않고 눌러쓰기 위하여 더욱 날뛰지 않을수 없다.

박정희도당이 재집권하려는 보다 큰 야망은 군사파쑈통치를 무한정 연장하고 매국배족행위를 계속 감행하면서 추악한 자리사욕을 채우려는것이다. 박정희의 손발역을 노는 김종필이 《한국의 정치적안정과 경제부흥을 이룩하려면 어느 당이건간에 장기집권을 해야 한다》고 말한것은 그들의 검은 배속을 드러내놓은 한 실례이다.

남조선의 현행괴뢰헌법에는 한사람이 두번이상 《대통령》으로 당선될수 없게 되여있다. 그러므로 박정희로서는 금번이 마지막 《출마》이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고 《민주공화당》패거리들이 《국회내 안정세력》으로 되여야만 괴뢰헌법을 뜯어고치고 리승만처럼 《종신대통령》이 되는 길을 마련할수 있다.

그들은 《종신대통령》감투를 써야만 지금까지 저지른 죄행에 대한 인민들의 심판을 피할수 있으며 매국배족행위를 계속하면서 더욱 치부할수 있다.

더많은 축재를 하기 위해서도 군사파쑈도당은 이번 《선거》에서 발악적으로 《선거전략》을 추진시키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남조선에서의 권력은 치부의 중요한 수단이다. 누구나 집권하기만 하면 외국독점체 및 매판자본가와 결탁하고 관권에 의한 전횡, 략탈, 횡령, 사기, 협잡을 통하여 벼락부자가 될수 있다.

이것은 칼부림밖에 모르던 군사파쑈도당이 집권후에 얼마나 치부하였는가를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영국잡지 《동방세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박정희는 집권후 21개월이 되는 사이에 적어도 500만딸라나 긁어모았다고 한다.

요컨대 박정희는 추악한 집권욕과 치부를 위하여 장기집권을 책동하고있는 것이다.

3

군사파쑈도당의 장기집권책동은 남조선사회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그것은 《민주공화당》내부에서와 여당과 야당사이, 지배층과 인민들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나고있다.

《민주공화당》내부에서는 《국회의원후보》로 내세울 《공천자심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자 저마다 《국회의원》자리를 노리고 경쟁자를 헐뜯는 등 추악하기 그지없는 아귀다툼이 벌어지고있다.

《민주공화당》 중앙청사에서는 소위 공천에서 떨어진자들이 떼를 지어 앉아 버티기를 하고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집단적인 탈당소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지난 2월 27일, 《민주공화당》전라북도 제2지구당에서는 《관리장》의 자리를 탐내여 서로 다투다가 근 300명이 무리로 탈당하고 말았다.

저들 내부의 혼란상태에 당황한 박정희도당은 그것을 수습하려 하고있으나

집권욕에 눈이 어두운자들의 추악한 싸움을 막아내지는 못하고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사이의 대립도 심화되고있다.

보수야당으로서 지금까지 제가끔 《선거전략》목표를 내세우고 《선거》운동을 해오던 《민중당》과 《신한당》은 지난 2월 7일 합당하여 《신민당》으로 발족하면서 《대통령후보》에는 윤보선을 내세웠다.

통합된 야당은 박정희도당의 파쑈폭압통치, 대일굴욕정책, 월남파병, 부정부패 등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기세에 편승하여 《선거》선전공세를 취하고 있다.

지배층과 인민들사이의 심각한 대립은 군사파쑈도당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박정희도당의 《선거공약》에 대하여 조소를 퍼붓고있다.

그들은 매국배족을 일삼는 박정희도당이 1963년 《선거》 때에도 《기아와 절망에 허덕이는 민생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생활은 더욱 악화되였을따름이라는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다. 박정희도당이 오늘 또다시 달콤한 《선거공약》을 되풀이하지만 인민들은 속지 않을것이다.

군사파쑈도당이 감행하여온 군사경제의 예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대화》정책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극도에 달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지난 5년간에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약 반감하였고 농민들의 궁핍화는 형언키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요란한 건설구호의 밑바닥에는 생활고의 신음소리가 명속같이 스며들고있다》고 쓰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인민들을 무마하기 위하여 박정희도당은 《선건설 후분배》라는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이 구호는 70년대에 가서야 《분배》를 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풍요사회》가 온다는것이다. 그러나 군사파쑈도당이 아무리 허황한 선전을 늘어놓아도 남조선의 경제와 인민생활의 앞길은 더욱 암담하다. 군사파쑈도당이 《경제개발》이요, 《기간산업건설》이요 하면서 끌어들이고 있는 미, 일, 서독을 비롯한 외국의 자본은 무려 13억 4백만딸라에 달하고있다. 이 빚을 갚자면 1970년이후에 가서 매년 약 1억딸라에 달하는 리자와 본전을 물어야 할 형편에 있다. 이 증하가 근로자들의 어깨우에 들씌워지리라는것은 명백하다. 이것은 의심할바없이 남조선경제의 대외예속과 민생고를 더욱 심화시킨것이다.

박정희도당의 매국배족행위와 인민수탈정책, 파쑈독재의 강화는 인민들속에서 반《정부》, 반독재감정을 더욱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박정권이 저지른 일은 너무나도 심각》하기때문에 《시간은 미구에 그를 심판한것이며》 그들은 《정권》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견결히 주장해나서고있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군사파쑈도당이 얼마나 고립되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날 남조선에서 진행된 모든 《선거》가 그러하듯이 금번의 《선거》도 다만 미제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반동세력의 일방적인 《선거》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침략군대가 강점하고있고 파쑈적폭압속에서 진행되는 금번의 괴뢰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야말로 철두철미 반인민적인 선거로서 악랄한 미제의 신식민주의통치를 가리는 위장물이며 군사파쑈도당의 장기집권을 합법화하기 위한 책동이다.

남조선인민들은 군사파쑈도당의 장기집권책동을 반대하며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의 충실한 주구이며 매국배족의 무리인 박정희도당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을 일층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남조선에서의 미제식민지교육 정책의 반동성

김 택 원

후대교육은 나라의 만년대계와 민족의 장래번영을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우리 당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으로 누구나 다 마음껏 배울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려져있다. 북반부의 청소년학생들은 조국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지, 덕, 체를 겸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행복하게 자라나고있다.

그러나 남반부의 사정은 이와는 판이하다.

남반부에서는 민족적 및 민주주의적 교육발전의 길이 가로막혀있다. 남반부 청소년학생들에게는 식민지노예교육이 강요되고있으며 과학연구와 진리탐구의 자유가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식민지 예속화와 전쟁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교육을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리용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의 교육을 식민지지배에 편리하게끔 재편성하였으며 그것을 통하여 남조선청소년학생들을 저들에게 충실히 복무한 노복으로, 값싼 대포밥으로 만들려 하고있다.

미제는 우리 인민의 조상전래의 미풍량속을 말살하며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거세하기 위하여 8. 15후 20여년동안 남반부청소년학생들에게 《반공》교육을 강요하여왔으며 미국식생활양식을 주입시켜왔다.

이것은 남조선의 혁명발전과 조선인민의 장래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된다.

1

남조선교육은 완전히 미제에게 예속되여있으며 그 지배하에 있다.

미제는 저들이 조작해낸 괴뢰교육행정기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막뒤에서 그것을 조종하고있다.

미제는 자기들의 지배기구들을 마치 남조선교육에 대한 《원조》기구인듯이, 괴뢰도당의 관리체계를 마치 독립국가의 《문교행정》체계인듯이 가장함으로써 남조선교육의 식민지적예속성과 저들의 침략적본성을 숨겨보려 하고있다.

이것은 미제의 신식민주의적통치수법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 그러나 미제는 그 어떤 연막으로도 남조선교육의 식민지적예속성을 가릴수 없다.

남조선교육의 실제적지배자는 《주한미대사관》이다.

미제는 《주한미대사관》과 《원조》기관형식으로 남조선에 기여든 각종 기구들을 통하여 남조선교육의 지배를 실현하고있다. 즉 미국정부기구인 《주한미국

체개발처》의 《교육국》과 《기술원조국》을 비롯하여 국제기구의 지부, 《교육사절단》, 《교육위원단》, 《교육협회》, 민간단체들인 각종 《재단》 등은 미제의 남조선교육에 대한 통치기구들이다.

미제의 이 모든 교육통치기구들은 례외없이 남조선에서 《총독》노릇을 하고있는 《주한미대사관》의 통제하에 《문교정책》작성을 《협력》하며 학교에 《원조》를 제공한다는 구실하에 직접 괴뢰문교행정기구들과 각급 학교들에 검은 마수를 뻗치고있다. 따라서 괴뢰정부의 문교행정기구들과 각급 학교들은 미제의 교육통치기구들에 의하여 조종되며 사소한 문제의 처리도 자유로 할수 없게 되여있다.

미제는 이렇게 남조선의 괴뢰교육행정기구와 학교들을 틀어쥔 기초우에서 예속적이며 반민족적인 식민지노예교육정책을 자행하고있다.

미제가 남조선학교들에 강요하는 식민지노예교육의 주되는것은 《반공》교육, 《도의》교육, 《평화》교육 등이다. 이 모든것은 미제와 괴뢰도당의 침략적이며 매국배족적인 책동을 은폐하고 합리화하며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노예적굴종과 《반공》숭미사상을 부식시키며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남조선교육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것은 《반공》교육이다. 《반공》교육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외곡,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비방중상 및 학원의 군사화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남조선의 각급 학교들에서 맑스—레닌주의와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악랄한 비방중상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현재 국민학교의 《바른 생활》, 중고등학교의 《민주통일의 길, 자유수호의 길》, 대학에서 강의되고있는 《사회학, 정치학, 철학, 경제학》 등의 매개 교재내용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악랄하게 외곡, 비방중상하는것으로 일관되여있다.

공산주의는 전세계 인류의 최고리상이며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다. 공산주의사상, 맑스—레닌주의는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는 강력한 사상적무기이다. 특히 날로 륭성발전하고있는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는 남조선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반공》교육으로써 날로 높아가고있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맑스—레닌주의와 북반부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동경을 막아보려 하고있으며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려고 부질없이 날뛰고있다.

《공산주의침략》이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강점과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기도를 숨기며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조작해낸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원쑤들은 《북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터무니없는 기만적인 구호밑에 학원을 군사화하고있으며 청년학생들의 군사훈련과 징집을 강행하고있다.

그들은 《반공》의 구호하에 청년학생들속에서 《학도호국단》을 꾸며내고 《반공》사상과 군사지식을 주입시키고 있다. 이러한 학원의 군사화와 학생들에 대한 군사교육은 남조선에 대한 미

제의 군사기지화정책의 일환이며 그 구성부분이다.

청소년학생들에 대한 《반공》교육은 미제의 전쟁정책의 강화와 함께 날로 더욱 심화되고있다. 남조선교육에서는 본래 《반공》교육과 《도의》교육의 비률이 4대 6으로 되여있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여 최근에 와서는 7대 3으로 《반공》교육의 비률이 더욱 높아졌다. 이것은 멸망의 운명에서 헤여나려는 미제와 괴뢰도당의 발악적책동의 표현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괴뢰도당이 떠들고있는 《도의》교육도 식민지노예교육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도의》교육은 남조선청소년학생들에게 노예적굴종사상과 《숭미》사대주의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하여 온갖 낡은 도덕과 풍습, 반동적인 리론을 내려먹이는 노예적인 사상도덕교육이다.

미제는 남조선인민들이 오랜기간에 걸쳐 봉건도덕의 영향을 받아온 사정을 악용하여 《도의》라는 간판밑에 저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인하여 조성된 온갖 사회적모순과 부패의 원인을 가리워보려 하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의 모든 파멸적인 현상들이 마치 조선사람들의 《도의의 타락》, 《민족성의 결함》에 있는듯이 말한다.

이것은 민족적멸등감과 허무주의를 주입시키기 위한 허위날조이며 조선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조선인민은 불굴의 투지로써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 빛나는 애국전통을 계승한 인민이며 떳떳이 자랑할만한 미풍량속을 가진 인민이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절대적인 굴종을 강요하는 봉건적도덕까지 청소년학생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그들을 온순한 식민지노예로 만들려 하고있는것이다.

그들은 《임금에게 충실할것》을 설교하면 봉건도덕을 《영원불변하는 민족정신의 발현》이라고 찬양하면서 《도의》교육의 《진수》로 삼고있다. 이것은 과거 봉건사회에서 《임금》을 무조건 숭상하도록 지배계급이 인민들에게 강요한것처럼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맹목적으로 무조건 굴종케 하려는 술책에서 나온것이다.

그뿐아니라 그들은 미국식《민주주의》와 종교생활까지도 《도의》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려고 발광적으로 책동하고있다.

특히 미제와 그 주구들은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계급협조사상을 로골적으로 주입시키고있다. 그들은 도덕교육을 통하여 《단결화합의 민족애》니, 《민족적협동정신의 발양》이니 하면서 로동자와 자본가사이, 농민과 지주사이에 벌어지는 계급투쟁이 사회적불화를 조성하는듯이 설교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제와 그 주구들은 계급투쟁을 일으키는 사회경제적조건을 은폐하며 계급투쟁이 계급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 과학적리해를 방해하려 하고있다.

이와 같이 《도의》교육은 남조선의 청소년학생들에게 《미국식생활양식》과 《숭미》사대주의사상을 고취하며 그들을 사상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 예속시키려는것이다.

최근에 미제가 새삼스럽게 떠드는 《평화》교육도 저들의 침략정책을 가리는 병

풍으로서 남조선청소년학생들에게 민족허무주의사상을 고취하기 위한것이다.

미제는 《평화》교육을 통하여 저들의 세계침략정책을 《평화》정책으로, 침략정책의 노복을 《평화인》으로 묘사한다.

그들은 마치도 전쟁의 근원이 자본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에 있는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우월성》만 내세우고 《타민족을 멸시하는》《매개인의 심정》에 있는듯이 날조한다. 이로부터 《매개인의 심정》을 개변하여 모든 민족이 민족성을 버리고 미제가 지배하는 《세계통일정부》의 노예로, 《세계시민》으로 되어야 전쟁의 근원이 없어진다는것이 《평화》교육의 골자이다.

이것은 전쟁의 근원으로 되여있는 미제의 대외침략정책을 가리며 남조선학생들의 민족적각성을 무마하고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려는 책동의 하나이다.

《평화》교육의 뿌리는 기독교와 《세계주의》에 있다. 《평화》교육은 본질에 있어서 《반공》교육의 한구성부분을 이룬다.

미제는 남조선청년학생들속에서 높아가고있는 민족적각성과 투쟁의식을 거세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문화전통을 말살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양키문화를 《선진》문화라고 찬양하면서 남조선교육이 미국문화를 수입하는 바탕으로 되여야 한다고 설교하고있다. 그들은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훌륭한 민족문화를 《슬픔과 비애로 가득찬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극단적인 민족허무주의사상을 고취하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청소년학생들에게 강요되는 교육은 결국 남조선을 미제에게 예속시키며 인민들을 미제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것으로서 우리 인민, 우리 민족의 리해관계와는 전적으로 배치된다.

2

남조선교육은 철저한 반인민적성격을 띠고있다.

참된 교육은 응당 나라의 모든 인민이 아무런 차별없이 희망과 소질에 따라 공부하며 그들의 재능을 키울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는 배움의 권리와 진학의 자유가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있다.

일반적으로 계급사회에서의 교육은 착취계급의 피착취계급에 대한 지배의 도구로서 그것은 철두철미 차별적이다.

레닌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적으로 계급적정신에 물젖어있던 낡은 학교가 부르죠아지의 자녀들에게만 지식을 제공한것은 당연한 일이다…그 학교에서는 로동자와 농민의 젊은 세대는 이를 교육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바로 그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위하여 훈련하였던것이다. 로동자와 농민의 젊은 세대는, 부르죠아지에게 리윤을 제공할수 있으며 동시에 그들의 평온과 안일을 방해하지 않는 유용한 종복이 되도록 교육되였다》(레닌전집 제31권, 340~341페지).

계급사회에서의 교육은 항상 지배계급의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복무하여왔다.

남조선교육도 바로 이러한 계급적본질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가 식민지략탈과 군사기지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정도의 지식을 가진 각종 노

복이 요구된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은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재산의 유무, 부모의 사회적지위, 성별, 신앙, 거주지역 등 여러가지면에 따르는 차별적인 반인민적 교육을 실시하고있다.

그것은 우선 남조선교육체계의 2중성에서 찾아볼수 있다.

남조선에는 지배계급출신의 자녀들이 초등교육을 마친후 6년간의 중등교육(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을 받고 대학에로 올라가는 체계와 근로대중의 자녀들이 초등교육을 겨우 마치거나 혹 진학한다 해도 초보적인 실업교육을 받는 체계가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이러한 체계를 통하여 국민학교로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학교들에서 남조선의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세분된 실업교육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남조선 근로대중의 자녀들을 기형화하며 저들에게 잘 복무할수 있는 온순한 노예로 만들려는 책동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이 요란하게 떠드는 《민주주의교육》, 《교육의 기회균등》, 《의무교육》 등은 저들이 실시하는 교육의 반인민적본질을 가리기 위한 기만적인 구호이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실시하고있는 반인민적교육은 학원의 모리화에서도 나타나고있다.

계급사회에서 근로대중의 자녀에 대한 교육은 지배계급이 인민들을 수탈하기 위한 장래 준비로서뿐만아니라 저들의 당면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리용된다.

특히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과 같이 경제석파탄과 사회적부패가 극심한 사회의 조건하에서는 학원이 곧 인민수탈을 위한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오늘 남조선에서 사립학교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개인 또는 사적인 집단의 수중에 넘기고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괴뢰정부의 극히 적은 교육비를 더욱 줄이며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인민들에게 부담시키고있으며 학원을 모리화하고 있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공납금》 《입학금》 등 교육부담금이 굉장히 올랐는데 그중 《공납금》만 해도 이미 20~30%나 올라간후 또다시 40~61%를 끌어올렸다.

금년도 한해동안 남조선의 한 학생이 학교에 바쳐야 할 《입학금》과 《수업료》만도 대학에서는 3만 7,000원, 고등학교에서는 9,700여원, 중학교에서는 7,300여원에 달한다.

남조선신문들이 학교를 가리켜 《교육기관이 아니라 모리기관으로 수탈의 장소로》, 《학문을 배우는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지식을 사는 백화점으로 되고말았다》고 쓰고있는 사실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에서 괴뢰도당이 떠들어대면 《초등의무교육제》는 이미 파탄된지 오래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도 명색뿐이다. 남조선교육은 시설면에서나 관리운영면에서 볼 때 실로 한심한 형편에 있으며 그것조차 기업화된 모리장으로, 군사변병장으로 되고 말았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근로자들

이 혹심한 생활난과 과중한 학비부담때문에 자녀들을 국민학교에조차 보내지 못하고있으며 해마다 15만~17만명의 어린이들이 국민학교를 중도에 퇴학하고있다.

남조선에는 200여만에 달하는 학령아동이 학교에 가지 못하며 백만에 달하는 어린이들과 고아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

설사 학교를 다닌다 하여도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동적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체계적인 과학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고있으며 기형적인 인간으로 되고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은 식민지노예교육정책의 후과로 말미암아 부패타락된 《미국식생활양식》에 물젖어가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은 학원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교육에 대한 파쑈적폭압의 강화로 말미암아 교원들의 교수활동 및 학생들의 학문선택의 자유가 란폭하게 유린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은 학원의 《민주주의》, 《자유》, 《교육의 정치와 분리》등 온갖 기만적구호밑에 교원, 학생들을 지배통제하며 각종 악법을 조작해놓고 그에 순종하지 않는 교원, 학생들을 회유, 기만하는 책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닥치는대로 체포, 투옥하여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그놈들은 특무들과 경찰을 통하여 또는 교원, 학생들자체의 호상감시를 강화하여 교원, 학생들의 진리탐구와 활동의 자유를 억제하고있다.

그놈은 지어 남조선괴뢰정부의 《중앙정보부》에서 직접 조작한 《청년사상연구회》(와이. 티. 피)를 통하여 애국적인 교원,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폭력행위까지 감행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이러한 학원에 대한 파쑈적탄압이 류례없이 강화됨으로써 남조선의 적지 않은 학교들이 페쇄되고 수많은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교원, 학생들이 검거투옥당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이 실시하고있는 교육의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성격을 뚜렷이 보여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동교육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동적교육정책, 학원의 모리화와 파쑈화를 반대하며 교육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고있다.

남조선에서 청소년들과 근로대중에게 반동적교육을 강요하고있는 장본인은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남조선인민들과 청소년들은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며 공화국북반부와 같은 진정한 인민적인 민주주의교육제도를 수립하는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미일반동들을 반대하는 일본인민의 투쟁

김 성 제

일본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완전한 독립, 민주주의와 평화를 쟁취하며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일본인민의 당면한 투쟁은 두개의 적 즉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을 반대하는 민주주의적성격을 띠고있다. 일본혁명의 반제, 반독점민주주의적성격은 일본이 처한 사회경제적형편에 의하여 규정되고있다.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은 일본인민의 주되는 투쟁대상이며 이 량자를 반대하고 배제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 평화, 생활향상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수호할수 없다.

지금 일본을 지배하고있는것은 미제와 그와 종속관계를 맺고있는 일본독점자본이다.

미제는 일본을 아세아침략의 거점으로 리용하면서 일본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일본반동정부와 독점자본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적극 가담하고있으며 국내에서 전면적인 군국주의부활을 급속히 추진시키고있다.

일본반동세력과 일본독점자본은 미제의 일본지배의 사회적지주이며 계급적 기초로 되고있다.

일본은 발전된 자본주의국가이면서 미제에 예속된 상태에 있다. 현재 일본사회의 발전을 저애하고있는것은 미제국주의이며 그와 결탁하고있는 일본독점자본이다.

일본은 쌘프랜씨스코조약과 일미《안전보장조약》에 의하여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과 종속적동맹관계하에 있다.

군사적면에서 미제는 일본을 아세아침략을 위한 작전기지, 보급기지로 전변시키고있는데 현재 일본에는 200여개의 미해공군기지들이 설치되여있다. 미제는 일본을 윁남침략전쟁을 위한 기지로 리용하고있으며 핵전략기지로 전변시키고있다. 특히 오끼나와와 오가사와라는 미국의 군사적강점하에 있으며 미국동 최대의 핵미싸일기지로, 윁남침략전쟁의 중요기지로 되고있다.

미제는 일본독점자본과 군국주의세력을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아세아침략의 손아래동맹자로 리용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침략정책에 편승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미일반동의 이러한 침략적결탁의 근저에는 일본인민을 예속착취하며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제국주의적리해관계의 공통성이 놓여있다.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의 종속적동맹관계는 미제의 침략정책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침략적야망이 로골화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다.

미제가 일본을 예속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공간으로 되는것은 일미《안전보장조약》이다. 이 조약에 의하여 일본은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당하고있으며 미제의 모험적인 침략전쟁에 끌려들어갈 의무를 지니고있다. 일미《안전보장조약》은 일본인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는 화근의 하나이다.

일본지배층은 군국주의부활을 강화하

며 침략정책을 더욱 로골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1970년에 만료되는 이른바 《안전보장조약》을 또다시 개정하여 연장할것을 공공연히 선포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독점자본은 일본인민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윁남침략전쟁에 공공연히 가담함으로써 군국주의의 부활을 급속히 추진시키며 대외팽창의 야욕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그들은 《세개화살작전》, 《날아가는 룡작전》, 《달리는 황소작전》 계획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제와의 《공동작전》하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준비를 추진시키고있으며 극동에서의 반공군사동맹의 핵심으로서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안받침해주는 중요한 전쟁세력으로 되고있다.

일본지배층은 미제의 사촉하에 남조선 박정희도당과 《한일조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팽창의 한계를 넘어 군사침략의 길을 개척하고있으며 미제의 《동북아세아군사동맹》조작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있다. 그들은 일본의 자주권과 인민의 근본적리익과는 배치되게 모험적인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적극적으로 추종하면서 아세아에서 위기에 허덕이는 미제를 협조하여 나서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독점자본의 이러한 대미추종정책과 침략정책은 국내에서의 파쑈화와 인민수탈정책을 더욱 격화시켰다.

미제의 《원조》와 인민수탈에 의하여 급속히 팽창된 일본독점자본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오늘 일본에서는 약 800개의 대기업체들이 전체 회사 총자본의 70~80%를 장악하고 일본경제를 지배하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국내독점자본의 급속한 팽창을 목적으로 《고도경제장성》, 《합리화》, 《농업근대화》, 《농업구조개선》 등의 간판밑에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경리와 생활을 파괴하고있다.

또한 일본반동지배층의 세금인상과 물가인상정책은 근로인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있다. 오늘 일본에는 월수입이 최저생활비의 절반도 안되는 극빈층이 1천 400만명이나 있다. 중소기업가들 역시 반동지배층의 《중소기업기본법》, 《근대화촉진법》 등에 의하여 파산의 길을 걷고있다. 1966년에만도 중소기업의 파산은 전후 최고수준인 무려 6,000여건에 달한다.

이와 같이 일본경제는 날이 갈수록 극소수독점자본의 수중에 집중되고있으며 그들의 대외팽창과 세력권확보를 위한 야욕은 더욱더 증대되고있다.

현재 일본독점자본은 그들이 직면하고있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국내 로동계급에 대한 착취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시장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고있다.

《한일조약》체결을 계기로 일본독점자본가들이 남조선에 홍수처럼 밀려들며 동남아세아에 대한 일본독점자본의 침투가 급속히 강화되고있는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여준다.

다른한편 일본반동지배층은 《자위대》의 증강과 핵무장화, 소선거구제와 현행헌법의 개악 등으로 전면적인 군국주의체제와 파쑈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고있다.

미일반동들이 조작하려고 날뛰는 소선거구제는 전면적인 군국주의체제의 확립과 파쑈화를 강화하기 위한 책동의 중요한 일환이다. 그들은 소선거구제를 실시함으로써 일본의 친미반동정당인 자유민주당의 지배를 《영구화》

하며 나아가서 현행헌법을 개악하여 징병제를 실시하고 해외파병을 합법화하며 일미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길을 터놓으려 하고있는것이다.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일본군국주의부활이 촉진됨에 따라 일본공산당과 민주력량에 대한 탄압과 박해가 날로 우심해지고있다.

미일반동은 일본공산당에 대한 공공연한 테로와 파괴책동을 빈번히 감행하여왔으며 작년 10월에는 일본공산당 10차대회를 파괴할 목적으로 회의장에 비밀리에 록음기까지 설치하는 비렬한 간첩활동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각종 암해책동을 감행함으로써 민주력량을 분렬파괴하려 하고있다.

또한 일본반동지배층들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적권리를 유린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반동적공세를 강화하고있으며 조선학생들에 대한 테로와 습격을 감행하며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짓밟으려고 책동하고있다.

이것은 오늘 일본반동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파쑈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악랄하게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준다.

모든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오늘 일본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일본인민에 대한 탄압과 지배를 강화하고있는것은 미제와 그와 결탁한 일본독점자본이다. 미일반동의 일본인민에 대한 탄압과 착취의 강화는 일본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심화시키고있다. 미제와 그의 일본지배를 반대하는 일본인민간의 민족적모순은 날을 따라 심화되고있는 동시에 미제에 추종하는 일본독점자본과 그들 반대하는 일본인민과의 모순도 더욱더 커지고있다.

이러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의 증대로 하여 일본에서는 민주와 반동간의 대립과 투쟁이 첨예화되고있다.

* *

현시기 미제의 대일지배와 그와 결탁한 일본독점자본을 반대하는 일본인민의 투쟁은 독립, 민주주의, 평화, 중립, 생활처지개선의 기치밑에 진행되고있다.

미제의 일본지배를 청산하고 나라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인민은 미군사기지를 철폐하며 미제의 월남침략전쟁을 반대하며 일본군국주의의 부활과 파쑈화, 미일독점자본의 착취와 수탈 등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을 당면한 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이러한 투쟁구호와 당면한 투쟁과업은 일본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절박한 리해관계와 요구를 반영하고있으며 일본인민들의 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확한 길로 된다.

전후 미일반동들을 반대하는 일본인민의 진출은 특히 일미《안보조약》반대투쟁을 계기로 대중적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여왔다. 1958년 가을부터 1960년 여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된 《안보조약》반대투쟁은 미일반동들의 조약개악책동을 저지시키며 나아가서 조약자체를 폐기케 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독립과 민주주의, 평화, 중립, 생활향상 등 일본인민의 사활적리익과 관련되는 투쟁이였다. 미제는 《안보조약》을 통하여 일본의 예속적지위를 규정하고 일본에 대한 저들의 군사기지화 및 일본군국주의부활정책, 일본반동과의 침략적결탁을 합법화함으로써 일본인민의 근본적리익을 엄중히 침해하고있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일본로동계급을 선두로 한 광범한 인민대중은 《안보조약》반대투쟁에 견결히 나서고있으며 모든 투쟁을 《안보조약》반대투쟁과 결합

시키고있다.

《안보조약》을 반대하여 23차에 걸쳐 진행된 대중적투쟁에는 무려 1억이상의 인민들이 참가하였으며 모든 민주주의적정당과 단체들, 로동자, 농민, 근로시민, 지식인, 녀성, 청년학생 등 광범한 계층이 망라되였다. 이 투쟁에는 일부 진보적인 민족자본가들과 종교인들까지 참가하였다.

이 투쟁에서 특히 일본 취업인구의 53%를 차지하며 미일반동을 반대하는데서 주류를 이루는 로동계급은 자기의 조직된 력량을 발휘하였다. 일본로동계급은 1960년 6월 한달동안에만도 《안보조약반대, 기시내각타도》의 정치적구호를 들고 3차에 걸치는 전국적파업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미제와 일본독점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일본로동계급은 그 계급적각성이 제고되였으며 반제반독점투쟁의 선두에 선 전투적대오로 나아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일본인민은 이 대중적인 투쟁을 통하여 자기들의 단결된 투지와 위력을 시위하였으며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의 지배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이 투쟁에 의하여 반동적인 기시내각이 붕괴되였다.

《안보조약》개정반대투쟁에서 일본공산당과 사회당 및 로동조합 총평의회 등을 비롯한 각 계층의 조직들과 단체들의 전국적 및 지방적 공동투쟁조직들이 광범히 발전하였다. 이러한 공동투쟁조직들은 점차로 발전하여 1960년 여름에 이르러 2,000여개로 확대되였으며 전국의 중요한 지역들을 거의 포괄하였다.

《안보조약》반대투쟁에 뒤이어 1961～1962년에는 《정치적폭력행위방지법안》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이 전개되였다. 일본인민은 이 투쟁을 통하여 일본국내 정치생활을 더욱 파쑈화하려는 미일반동들의 흉계를 파탄시켰으며 《안보조약》반대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더욱 공고화하였다.

이러한 투쟁에 뒤이어 일본인민의 투쟁은 《한일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한일회담》반대투쟁은 조선인민에 대한 일본반동지배층의 적대정책을 반대하는 동시에 일본의 독립, 민주주의, 평화, 중립 및 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으로 되며 《안보조약》반대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였다.

이 투쟁은 《안보조약》반대투쟁이후 최대의 투쟁이였다. 일본로동계급과 광범한 인민대중은 줄기찬 투쟁을 통하여 미일반동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자기의 조직된 힘을 다시한번 과시하였다. 반동들의 온갖 파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이미 《안보조약》반대투쟁에서 형성된 중앙과 각 지방의 공동투쟁조직들이 《한일회담》을 분쇄하는 투쟁에 발동되였다. 또한 1961년 1월 13일에 《한일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독자적인 공동투쟁 조직으로서 일한회담 대책련락회의가 결성되였으며 여기에는 공산당과 사회당, 로조총평의회, 일조협회, 일본평화위원회 등 42개의 정당과 로조조직, 국제친선 및 평화단체들이 망라되였다. 련락회의의 통일적지도하에 1961년 3～6월기간에 《한일회담》의 즉시 중지를 요구하는 3차의 큰 군중집회가 진행되였으며 투쟁은 점차 전국적범위로 확대되여갔다.

1962년에 들어와서 미일반동계층이 《한일회담》을 결속하려는 책동이 로골화됨에 따라 그를 반대하는 더욱 광범한 투쟁이 전개되였다. 1962년 3월 30일에는 《한일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제1차전국통일행동이, 5월 19일에는 제2차통일행동이 전개되였으며 이러한 전국적통일행동은 계속 줄기차게 전개되였다.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투쟁은 《한일조약》의 국회비준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기로 더욱 고조되였다.

일본인민은 《한일조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사또정부의 책동을 반대하여 5차에 걸치는 전국적인 공동행동을 전개하였다. 일본로동계급은 1965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일조약》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공동투쟁을 3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여기에는 수백만명이 참가하였다. 중의원본회의에서 《한일조약》을 강다짐으로 통과시킨 1965년 11월 12일밤부터 13일까지 전국각지에서 300만의 로동자들이 《일한조약분쇄, 사또내각타도, 국회해산》을 요구하여 통일적인 파업을 단행하였다.

《한일조약》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과 그에 대한 일본지배층의 협력책동이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됨에 따라 미군사기지를 반대하며,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작년 10월 21일에 547만명의 로동자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추종하는 사또정부를 타도하며 자기들의 생활향상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로동자들의 투쟁에 호응하여 광범한 인민들이 전국각지에서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항의규탄하는 통일행동을 전개하였다.

미제의 웰남침략전쟁과 그리고 일본을 침략기지로 완전히 내맡기려는 일본반동들의 대미추종정책을 반대하는 일본인민의 투쟁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수행에 큰 타격을 주고있다.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일본인민의 투쟁은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것은 일본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화를 쟁취하며 일본인민의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고수하고 민주주의적권리를 수호하는 투쟁과 뗄수 없다.

일본인민은 자기 나라에 있는 외국군사기지철폐, 군국주의부활과 나라의 파쑈화, 독점자본의 수탈을 반대하고 생활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여왔다.

최근년간 《소선거구제》의 실시와 헌법개악을 저지시키며,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 전국적규모에서 점차 확대되고있다. 이 투쟁행정에서 현행헌법의 개정과 《소선거구제》를 반대하는 헌법옹호, 소선거구제분쇄련락회의가 결성되였으며 국회내에서는 공산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공동투쟁이 강화되고있다.

이와 함께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의 착취와 수탈을 반대하고 생활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줄기차게 전개되고있다. 《합리화》와 해고를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투쟁, 《구조개선》과 토지수탈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 물가등귀와 과중한 세금부담을 반대하는 근로인민들의 투쟁, 중소기업을 독점체에 병합시키려는 《중소기업근대화정책》을 반대하는 중소기업가들의 투쟁 등 각계층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고있다.

이러한 투쟁은 사또정부의 타도를 요구하는 정치투쟁과 결합되여 진행되고있다. 매해 전통적으로 진행되는 춘기 및 추기 투쟁에서는 임금인상, 해고반대 투쟁과 함께 자유민주당의 반동정책을 반대하는 광범한 진출이 전개되였다.

오늘 일본인민들속에서는 대미추종과 매국,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사또정부를 끝장내며 민주주의적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다. 이것은 미일반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생활처지의 개선을 위한 대중적경제투쟁과 정치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밀접히 결합되여가고있음을 말해준다.

전후 일본인민이 미일반동의 공세에 맞서 그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수 있었던것은 일본의 광범한 계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제정당과 단체들이 공동투쟁을 전개하였기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인민은 반동을 고립시키고 투쟁에서 성과를 달성할수 있었다.

최근년간 반동의 탄압과 분렬책동이 강화되고 민주운동내부에서의 분렬주의자들의 파괴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의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각계층 인민들속에서는 공동투쟁을 실현하려는 지향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공산당을 비롯한 민주력량의 인내성있는 투쟁으로 말미암아 당면한 요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행동조직들 즉 일미안보조약폐기 중앙집행위원회, 일한조약반대 전국집행위원회, 미원자잠수함기항반대 전국집행위원회 등이 성립되고 그의 발기밑에 각계층의 공동행동이 점차 실현되고있다.

전후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을 반대하는 일본인민의 투쟁을 개괄해볼 때 1960년에는 《안보조약》반대투쟁, 1961년에는 《정치적폭력행위방지법》반대투쟁, 1962년부터 1964년에는 《한일회담》반대투쟁, 1965년에는 《한일조약》의 국회비준을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이 중심으로 되였고 1966년에는 미제의 윁남침략전쟁과 미제의 군사기지화정책, 《소선거구제》를 반대하는 투쟁이 전면에 나섰다.

* *

미일반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일본로동계급의 전위대인 일본공산당은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일본공산당은 내외반동의 탄압파괴책동이 날로 로골화되는 어려운 조건에서 일본로동계급과 인민의 근본적리익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일본인민의 투쟁은 비상히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진행되고있다. 미제와 일본지배층들의 침략적전략이 새로운 국면에 이름에 따라 로동운동과 민주정당, 사회단체들에 대한 탄압과 파괴책동이 날로 강화되고 군사파쑈체제를 수립하려는 지배층들의 책동이 더욱더 로골화되고있다.

인민대중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투쟁대렬을 분렬시키기 위한 일본독점자본의 《반공》을 비롯한 각종 반동적사상공세가 강화되고 교활한 회유술책이 더욱 악랄하게 적용되고있다.

독점자본에 고용된 반동적어용단체들과 로동귀족, 외부세력에 추종하는 분렬주의자들의 파괴행동은 일본인민의 투쟁을 복잡하게 만들고있다.

일본공산당은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정확한 투쟁방침과 구호를 제기하면서 인민대중을 미일반동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오늘 일본공산당은 당의 총로선을 적식화한 혁명의 세폭의 기치—《반제, 반독점민주주의혁명의 기치》, 《민주주의통일전선의 기치》, 《강대한 일본공산당건설의 기치》, 《미국을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과 평화의 국제적통일전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면투쟁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일본공산당은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의 침략과 민족적억압, 군국주의부활, 착취와 수탈을 반대하는 투쟁의 매단계에 적응한 투쟁 방도들을 제시함으로써 인민대중의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의 투쟁을 계속 발전시키고있다.

공산당은 항상 미일반동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의 선두에 서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반동정책의 본질과 책동을 예리하게 폭로함으로써 반동들의 정

제를 철저히 발가놓으며 이것을 통하여 대중들의 각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일본공산당은 각계층을 망라한 대중적인 집회와 시위를 조직함으로써 반동들에게 계속 타격을 주고있다.

미일반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본공산당이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방침의 하나는 행동통일과 통일전선이다. 공산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각계층의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공동행동을 계통적으로 발전시켜왔으며 민족민주주의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있다. 《안보조약》반대투쟁을 비롯한 일련의 투쟁에서 일본공산당은 이러한 방침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공산당은 통일전선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의 중심력량인 로동자, 농민을 조직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광범한 민주력량을 결속하는데 주력하고있다. 당은 통일전선운동에서 당의 조직사상적독자성을 견지하며 하층통일을 기본으로 하면서 상층통일을 옳게 결합하고있다. 이러한 방침은 계급관계가 복잡하고 군중이 여러 정당들의 영향하에 있는 일본의 형편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정확히 추진시킬수 있게 하는 길로 된다.

일본공산당은 대중투쟁의 발전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한편 무엇보다도 당을 일본로동계급의 대중적인 전위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력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투쟁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과 대미종속하에서의 제국주의부활을 반대하며 반동들의 파괴책동을 분쇄하는 복잡한 환경속에서 전개되고있다.

공산당은 당을 대중적인 전위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당의 사상정치적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며 공장과 농촌을 중심으로 당조직들을 강화하고 그 대렬을 확대하는 투쟁을 정력히 전개하고있으며 각급 당조직들이 당중앙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대중투쟁을 지도할수 있는 력량을 축적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이고있다.

오늘 일본공산당은 근 30만의 당원과 백수십만의 《아까하다》지 독자를 가진 유력한 당으로 발전하였다.

일본공산당은 대렬의 조직사상적 통일을 강화하고있으며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자들의 분렬파괴책동을 물리치고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립각한 자주독립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일본공산당이 견지하고있는 자주적립장은 일본혁명을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높은 자각과 책임성에 기초하고있다. 동시에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강화발전에 가장 잘 이바지할수 있는 원칙적립장으로 된다.

일본공산당은 미일반동들의 공세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압력과 파괴활동이 로골화되고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주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현국제공산주의운동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며 그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칙적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철저한 반제, 반미 투쟁의 립장을 견지하고있는 일본공산당은 미제가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면서 웰남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여나가고있는 환경에서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싸우는 웰남인민을 지원하며 미제의 침략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한 반제통일전선과 공동행동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일본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충실성, 일본인민의 혁명위업과 국제로동계급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쌓아

울린 렬적으로 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위력한 전투부대의 한성원으로 되고있으며 일본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속에서 두터운 신임과 높은 권위를 쟁취하고있다.

* *

미일반동을 반대하는 일본인민의 투쟁은 미제의 일본지배와 아세아침략책동 및 그에 협조하는 일본반동세력에 큰 타격을 주고있다.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의 침략적 결탁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은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된다. 그러므로 일본인민이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는 제국주의, 특히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와 세계인민들의 투쟁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세계사회주의나라들과 모든 진보적력량은 미일반동을 반대하는 일본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일본인민의 투쟁의 선두에 서있는 일본공산당의 자주적립장을 무조건 지지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여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는 일본공산당과 일본인민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고있다.

일본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굳은 련대성에 대하여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조선인민은 일본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일본공산당을 선두로 하는 일본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에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시한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인민과 일본인민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반대하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투쟁에서 호상 지지하고있다.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일본인민은 두개의 적—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을 반대하며 나라의 독립과 민주주의 및 사회적 진보를 위한 정의의 투쟁에서 내외의 원쑤들의 모든 파괴책동을 분쇄하고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달성하고야 말것이다.

근 로 자 제 3 호 (루계 301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7년 3월 25일 발 행 • 1967년 3월 31일

ㄱ—7395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4 호

평양 근로자사 1967

근로자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4 호 (302)

차 례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더욱 빛내이자

우리 나라 력사에 불멸의 업적과 위훈을 남긴 항일유격대가 창건된지 35년이 된다.

항일유격대는 1932년 4월 25일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든 항일유격대는 일제를 반대하는 15성상의 장구한 무장투쟁을 통하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었다.

우리 인민은 항일유격대창건 35주년을 맞이하여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로정과 불멸의 업적을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보면서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한 항일투사들처럼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실하며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항일무장투쟁이 조직전개됨으로써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이것은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이며 조선혁명의 뿌리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이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와 빛나는 성과를 달성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달성한 모든 성과의 기저에는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놓여있다.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의 담보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혁명적의무이다.

* *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15성상에 걸치는 항일무장투쟁행정은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부터 계속 진행되였다. 1920년대에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이 광범히

전개되였다. 특히 1920년대말～1930년대초에 이르러 일제의 폭압은 전례없이 심하여졌으며 로동자, 농민대중은 그에 항거하여 폭력투쟁에 일떠섰다. 그러나 이 모든 투쟁은 혁명의 령도자와 옳은 전략전술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유일한 사상으로 단합된 력량을 이룩하지 못하였기때문에 많은 피를 흘리고 희생을 냈으나 승리할수 없었다.

이 준엄한 시기에 조선인민은 민족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하고 민족해방투쟁을 확신성있게 승리에로 인도할 영명한 령도자를 목마르게 기다렸다. 바로 이러한 때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두어깨에 걸머지고 혁명의 선두에 서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었다.

김일성동지는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지난시기의 모든 혁명운동을 총화하고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을 명시하였다. 뿐만아니라 몸소 어려운 고비를 타개하면서 혁명을 위기에서 구출하였으며 승리에로의 진로를 개척하였다.

이리하여 조선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은 옳바른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확고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확신성있게 전개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손에 총을 잡고 치렬한 무장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일제에게 련속 심대한 정치, 군사적 타격을 주었으며 민족적억압과 착취에 신음하는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었다.

《항일유격투쟁은 반혁명적무력에 혁명적무력으로 대항하는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다른 모든 형태의 대중투쟁을 힘차게 고무추동하였다. 유격투쟁의 혁명적영향은 각계각층 인민들 속에 광범히 파급되였으며 이것은 우리 인민의 전반적반일해방투쟁을 더욱 강화발전시켰다》(김일성《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6～7페지).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중심을 이룬 항일무장투쟁은 류례없이 간고한 투쟁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국가적후방, 외부의 무장적지원도 없이 장구한 기간 《정예》를 자랑하던 일제의 침략군과 괴뢰군경을 상대로 하여 싸웠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빼앗긴 조국을 찾고 민족을 해방하고야 말겠다는 높은 혁명적각오와 애국적열의를 가지고 오직 혁명적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맨주먹으로 투쟁을 시작하였으며 무기와 탄약, 피복과 식량 등 필요한 모든것을 원쑤와 싸워 자체로 해결하면서 끝까지 투쟁하였다. 그들은 적들의 사면포위속에서 항상 수십배에 달하는 적들과 싸워야 하였으며 하루에도 수십차례의 전투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이 모든 난관과 시련은 투쟁의 선두에 서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극복타개되였으며 조선혁명은 위대한 승리적진군을 계속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전사된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언제 어떤 정황하에서나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였으며 온갖 난관을 박

차고 그이의 명령, 지시를 견결히 옹호하고 관철하였다.

그들은 그 어떤 악조건과 역경에서도 불사조와 같이 싸웠으며 항상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들을 족쳤으며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김일성동지는 항일유격투쟁을 령도하면서 광범한 각계각층군중을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함으로써 전반적반일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추진시켰으며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을 새로운 고조에로 이끌었다.

항일무장투쟁은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로동계급의 령도권을 확립하고 로농동맹에 기초한 광범한 대중의 집결을 실현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혁명력량은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되였으며 전국적범위에서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은 일대 앙양을 이룩하였다.

조선인민이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은것은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과 정확한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였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는 항일무장투쟁을 령도하면서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기초하여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혁명의 구체적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조선혁명을 조선인민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고 철저히 관철시켰다.

이리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비로소 맑스—레닌주의가 우리 나라 현실과 결합되고 공산주의운동이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과 결합되였다.

김일성동지는 맑스—레닌주의원칙과 혁명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성격, 혁명의 대상과 동력, 투쟁의 기본과업과 그 실현을 위한 정확한 방도를 규정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당면한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혁명의 주되는 적인 일제를 타도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보장하고 로농동맹을 공고히 한 기초우에서 모든 반일세력을 혁명의 편에 인입할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였다.

또한 일제를 반대하는 주되는 투쟁형태를 무장투쟁으로 규정하고 그에 다양한 투쟁방법을 배합할것을 제시하였으며 혁명승리후 수립할 정권형태를 인민정부로 규정하고 그가 수행하여야 할 혁명과업을 정확히 명시하였다.

실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은 당시 혁명정세하에서 가장 정확한 방침이였으며 진정한 해방의 길을 찾고있던 우리 인민에게 명확한 투쟁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었다. 바로 이러한 정확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모든 우여곡절이 극복될수 있었으며 반일민족해방운동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은 처음으로 옳은 길을 따라 힘있게 추진될

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가 작성하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실행하는 행정에서 위대한 혁명적업적이 이룩되였으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형성되였다.

일제를 반대하는 간고하고도 장기간의 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 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가 마련되고 통일전선운동, 정권문제, 혁명적무장력건설 등 광범한 분야에서 거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이 축적되였다.

김일성동지는 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운동의 골간부대를 튼튼히 꾸리며 당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이것은 선행시기 조선공산주의운동의 교훈과 당시의 혁명정세에 비추어 가장 정확한 방침이였다. 당시의 조건에서는 몇몇 공산주의자들이 모여서 성급히 당 창건을 선포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항일무장투쟁과 반일민족통일전선형성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골간부대를 튼튼히 꾸리고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며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실현하는것이 중요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지도하에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자라났으며 그들이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됨으로써 당 창건을 위한 조직적골간이 형성되였다. 무장투쟁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비롯한 각종 투쟁과정에서 광범한 인민들의 의식성과 조직성이 제고되였다. 이리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미 우리 당 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가 튼튼히 이룩되였다.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통일전선은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비로소 그 실현을 보게 되였다.

김일성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켰으며 기본군중에 의거하면서 각계각층 인민들을 적극 포섭하고 단결과 투쟁을 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그리고 각계각층인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준비정도에 맞게 낮은 형태로부터 높은 형태로, 부분적인 통일로부터 전면적인 통일에로 통일전선을 확대발전시키는 방침을 취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조선인민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가 결성되였다. 조국광복회는 공산주의자들의 령도적역할을 확고히 보장하면서 반일세력을 최대한으로 망라할수 있는 조직형식과 활동방법을 가진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였다.

동시에 공산주의자들은 유격근거지들을 창설하고 나년간 고수하였으며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고 제반 혁명적시책을 실시함으로써 인민정권의 수립과 운영에서 귀중한 업적과 경험을 쌓았다.

항일무장투쟁에서는 인민무력건설의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이 이루어졌다. 상비군을 조직하고 그것을 군사정치적으로 튼튼히 꾸린 경험이 창조되였으며 독창적인 유격전술의 제 원칙들이 수립되였다. 또한 항일유격대와 반군사조직들을 배합하여 광범한 혁명군중을 무장투쟁에 인입하는 경험이 이루어졌다.

장기간에 걸친 간고하고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의 지휘부

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과 불요불굴의 혁명정신,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명령과 지시를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규률, 죽음앞에서도 공산주의자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혁명적지조,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등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의 산 모범이 이룩되였다.

항일투사들은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결합된 열렬한 공산주의자들이였으며 가렬한 투쟁과 시련속에서 혁명과 수령에 무한히 충실한 확고부동한 혁명적사상체계가 이루어졌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가 령도한 우리 혁명의 지휘부를 목숨바쳐 보위하며 그이가 제시한 로선과 방침을 확고히 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하였으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그를 받들고 견결히 싸워나갔다. 항일투사들의 혁명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은 간고하고 복잡한 장기간의 투쟁행정에서 끝끝내 혁명임무를 완수하고 승리를 달성할수 있게 한 기본요인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또한 조선혁명을 조선인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주체사상,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철저히 구현되였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을 작성함에 있어서나, 당창건을 준비하며 혁명력량을 꾸림에 있어서나, 매시기의 무장투쟁의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일관하게 우리 혁명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힘에 튼튼히 의거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철저한 주체적립장은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조선혁명의 실천과 정확히 결합시켜 모든 분야에서 가장 정확한 방침들을 제시할수 있게 하였으며 광범한 혁명군중을 조직동원하여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추진시킬수 있게 하였다.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의 자주의식과 애국심이 제고되고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련대성이 강화되였으며 종파주의, 사대주의가 성과적으로 극복되였다.

또한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는 각종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혁명적립장이 확립되였으며 견지되였다.

항일투사들은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을 소유함으로써 혁명활동에서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영웅주의를 발휘하였으며 그 어떤 역경에서도 일편단심 혁명적절개를 지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웠다. 항일투사들의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은 수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기초한것이였다.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는 또한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훌륭한 모범이 창조되였다.

항일유격대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과 같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을 믿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거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항일유격대가 언제나 어렵고 힘든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바로 그들이 혁명적군중로선을 견지하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여 싸워나간데 있다.

항일유격대원들 속에서 발현된 고상한 혁명적동지애는 항일유격대를 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공고히 결합시켜 강철의 혁명대오로 되게 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동지애는 혁명위업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상하간, 동지호상간에 맺어진 참으로 공산주의적이며 혁명적인 동지애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고상한 동지우애심과 혁명적의리로 하여 더욱 굳게 단합된 힘으로 력사에서 류례없이 간고한 혁명로정을 뚫고 나갈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인민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공산주의적도덕적품보는 김일성동지의 일상적지도, 실천적모범과 높은 덕성에 의하여 그와 같이 확고하고 고상한것으로 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는 항상 맑스—레닌주의와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정신으로 유격대원들을 교양하였으며 몸소 인민적사업방법과 작풍의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었다. 김일성동지가 혁명실천에서 보여준 고매한 혁명정신과 높은 덕성은 유격대원들을 무한히 감동시켰으며 그들의 귀감으로 되였다. 모든 사람들이 그이의 지도를 심장으로 받들었으며 그이를 조선인민의 수령으로 모시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실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그 어느것이나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이고도 과학적인 령도와 혁명활동에서의 실천적모범에 의하여서만 그리고 전체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이 그이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그이에게 무한히 충실함으로써만 그처럼 폭넓고 풍부한 내용을 가진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루어질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루어진 이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더없는 자랑이며 우리 혁명승리의 가장 고귀한 밑천이다. 이 빛나는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해방후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　　*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였으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모든 승리의 기초에 놓여있다. 당의 령도밑에 해방후 우리 인민이 달성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바로 항일무장투쟁시기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맑스—레닌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직접 무장으로 일제와 싸운 김일성동지

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피어린 투쟁과 잇닿아있으며 그 뿌리에서 자라난 위대한 열매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오늘 우리가 수행하고있는 조선혁명은 수입해온것이 아니다…과거부터 공산주의운동이 있었기때문에 오늘의 조선혁명이 있다.

항일투쟁에서 단련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없었더라면 해방후에 우리 당을 창건할수도 없었을것이고 민주주의적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지도 못하였을것이다》(김일성선집 제5권, 507페지).

해방후 조선인민앞에 가로놓인 중첩된 난관들을 뚫고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나아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절실한 요구로 나선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고 공고화하는것이였다. 이 력사적과업은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훌륭히 실현되였다. 우리 당의 창건은 김일성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장기간의 투쟁과 노력의 고귀한 결실이였으며 전반적조선혁명의 발전에서 력사적인 전환이였다.

우리 당은 해방후 복잡한 환경속에서 조선혁명의 앞길을 명확히 밝히고 전체 인민을 굳게 결속하여 혁명을 승리적으로 추진시켜나갔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짧은 기간에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할수 있었으며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할수 있었다.

또한 간고한 투쟁속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정세하에서 종파주의와 각종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달성할수 있었다. 우리 당내에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같이 숨쉬고 같이 행동하는 당적사상체계가 튼튼히 세워졌으며 우리 당은 강철의 대오로,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되였다. 우리 당이 종파분자들과 온갖 기회주의분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오늘과 같이 위대한 맑스―레닌주의당으로 된것은 장기간의 항일무장투쟁에서와 해방후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항상 조선인민을 승리에로 령도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속에서 절대적존경을 받는 김일성동지가 우리 당의 선두에 서있었기때문이다.

해방후 우리 인민이 달성한 모든 승리들은 김일성동지의 지도하에 우리 당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주체사상, 자주자립의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로선과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그 관철에로 전체 인민을 능숙하게 령도한 결과에 이룩되였다.

우리 당은 전통적인 주체사상, 계급로선과 군중로선 그리고 계속혁명의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함으로써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을 실현하고 부단한 혁명적앙양을 이룩할수 있었다.

혁명적민주기지창설로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의 방침,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건설로선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로선, 사회주의의 경제관리의 새로운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방도를 명시한 테제, 사회주의하에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과 계급투쟁을 결합하는 방침, 전체 인민을 혁명화하고 전 사회를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 등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취한 정책들은 맑스—레닌주의에 확고히 기초한 우리 당의 주체적립장을 구현한것이다.

우리 당은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인민무력건설의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항일투사들을 골간으로 조선인민군을 창건하고 그를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항일유격대의 전통을 계승한 인민군대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지키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이다.

인민군대의 간부화, 현대화와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에 대한 우리 당의 정확한 군사로선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되고 현대적 군사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장성강화되였다. 동시에 전체 인민이 무장되고 온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으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한 전 인민적방위체계가 수립됨으로써 우리는 원쑤들의 어떠한 침공도 단숨에 처물리칠수 있는 위력한 국방력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이어받아 항상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그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켰다. 우리 당은 정세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상론하고 그들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나갔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내려오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이다.

청산리방법이 관철되는 행정에서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전 당에 확립되게 되였으며 근로대중의 창조력이 최대한으로 발양되게 되고 당과 인민의 깊은 련계가 더욱 강화되였다.

당과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단결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이것은 지난기간 우리가 달성한 모든 승리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였으며 앞으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이다.

해방후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선인민이 걸어온 혁명투쟁의 력사는 항일투사들이 이룩한 빛나는 혁명전통이 고수되고 그 귀중한 업적과 경험, 고상한 혁명정신의 생활력이 전면적으로 발휘되여온 로정인 동시에 우리 혁명의 대오가 부단히 확대되여온 과정

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위업을 이어받고 우리 당과 인민이 해방후 20년간 특히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 세련된 토혁명간부들과 함께 수백만의 새 혁명가들이 자라났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는 비상히 확대강화되였다.

우리 당은 일관하게 오랜 혁명투쟁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당원들을 혁명가로 육성하며 당원들을 핵심오로 하여 전체인민을 확고한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킬데 대한 방침을 견지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체득하고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있으며 항일유격대의 혁명위업을 이어받은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간직하고 당이 제시하는 과업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다.

장기간의 혁명투쟁에서 세련된 토혁명간부들과 함께 해방후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선렬들의 위업을 이어나가는 혁명가의 대부대가 꾸려진것은 우리 당이 이룩해놓은 가장 귀중한 밑천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함으로써 해방후 나라의 면모를 일신하는 위대한 혁명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이룩하여 놓았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령도되는 불패의 당, 당주위에 굳게 결속된 강철의 혁명대오,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 혁명의 전취물을 그 어떠한 원쑤들의 침해로부터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인민무력, 이 위대한 힘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위력한 담보이다.

* *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동지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였다.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당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킴으로써만 지난날에 그러하였던바와 같이 앞으로도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사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유일적인 당적사상체계를 확고히 수립하고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보위하며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실하며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시켜야 한다.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우리는 당과 김일성동지가 맑스—레닌주의에 근거하여 창조적으로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우리 혁명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주위에 튼튼히 단결하며 어떠한 사나운 바람이 불어와도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지키며 그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유일적인 당적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여야 한다.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수호하는것은 당원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당대렬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좌우경기회주의요소들의 침습을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하며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시키는데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당결정과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자로 삼아서 일하고 생활하는 습성을 붙여야 한다. 이리하여 당정책을 실속있게 끝까지 관철하여야 하며 당정책에 어긋나는 그 어떤 현상과도 날카롭게 투쟁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전 당에 유일적인 당적사상체계를 확고히 수립하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 있어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항일투사들처럼 어떤 어려운 조건과 환경하에서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튼튼히 보위하며 당의 의지대로 행동하고 사고하며 당과 수령의 가르침이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끝까지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투사로 키우는 가장 훌륭한 길이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만 사회주의건설의 심화발전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높은 봉우리까지 이끌고 나아갈수 있다.

우리는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는 투쟁을 통하여서만 혁명의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어떠한 난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의한 혁명투사로 부단히 교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그들을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혁명전통교양을 튼튼히 틀어쥐고 결정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그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더많이 전개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는 혁명선렬들의 영웅적투쟁을 본받아야 하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항일빨찌산들이 백두밀림에서 싸우던 그런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싸우도록 하여야 하겠다》.

간부들과 당원들, 전체 근로자들이 혁명전통을 더욱 깊이있게 학습함으로써

항일혁명투사들의 위대한 사상과 정신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이를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혁명선렬들의 위대한 혁명정신, 고귀한 투쟁경험을 생활의 귀감으로, 실천활동의 지침으로 삼아야만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로서 어떠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모든 문제를 계급적관점에서 정확히 분석판단할수 있으며 어떠한 난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혁명적지조를 지켜낼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고귀한 투쟁경험으로 그들을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다.

우리는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함으로써 천리마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 대고조를 더욱 높여야 하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다. 혁명선렬들의 위대한 뜻을 이 땅우에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리는 우리 세대에 반드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쓸어버리고 남조선을 해방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반드시 통일되고 륭성발전하는 조국을 넘겨주어야 한다.

지난날 항일투사들은 민족적비운이 서린 암담한 일제통치시기에 그처럼 간고한 투쟁속에서도 조국광복의 홰불을 높이 추켜들고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불굴의 신념과 혁명사상으로 원쑤와 싸웠으며 백전백승하였다.

오늘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불패의 맑스—레닌주의당을 가지고있으며 강력한 혁명기지를 축성하고 당과 수령의 주위에 길롯같이 단결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그 어떤 점령못할 요새도 있을수 없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사들의 위업을 계승한 영예와 긍지를 간직하고 당과 수령의 신임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항상 높은 혁명성과 책임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는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을 받들고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정치사상적, 물질적준비를 더욱 다그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하에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확고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아가는 조선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 인민무력건설의 전통

전 형 축

지금으로부터 35년전 1932년 4월 25일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하에 항일유격대가 창건되였다.

항일유격대는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려는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조직된 진정한 혁명적무장력이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우리 나라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선진적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써 우리 나라의 혁명적인민무력의 첫 대오인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였다**》(김일성선집 제5권, 309페지).

조선인민은 이때로부터 맑스-레닌주의리론과 전략전술을 지침으로 하는 자기의 혁명적인민무력-항일유격대를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혁명운동의 력사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으며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항일유격대원들은 세계력사상 류례없이 간고한 15성상의 무장투쟁과정에서 혁명적인민무력건설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였다.

⁂ ⁂

혁명적인민무력건설의 빛나는 전통은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무력건설의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직접적으로 령도함으로써 이룩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혁명적인민무력건설의 기본방침은 상비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조직하고 그를 정치적혁명군대로 꾸리는 동시에 반(半)군사조직을 통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무장시키는 것이였다.

이 방침은 항일무장투쟁이 유격전쟁의 형태를 취해야 하였으며 유격대를 상비무력으로 건설해야 하였던 당시의 실정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이였다.

일반적으로 외래침략자들에게 강점된 식민지나라들에서 진행되는 로동계급의 혁명은 오직 폭력으로써만 최종적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폭력은 소여시기의 구체적인 력사적조건, 적아간의 계급적력량관계, 특히 반혁명의 반항정도에 따라 전인민적인 무장폭동, 정규군에 의하여 진행되는 혁명전쟁, 혹은 유격전쟁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독립을 쟁취하려는 인민은 평범한 작전방법에만 국한되여서는 안될것이다. 대중의 폭동, 혁명전쟁, 도처에서의 빨찌산부대의 조직-이것이야말로 약소민족이 강대한 민족을 타승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보다 약한 군대로 하여금 보다 강대하고 더 잘 조직된 군대에**

대항할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맑스 엥겔스전집, 제6권, 459페지).

항일무장투쟁은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간고한 조건하에서 조직전개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무장투쟁을 전인민적폭동이나 정규군에 의하여 진행할수 없었다. 유격전쟁은 당시 우리 나라 조건에서 자체의 혁명력량을 보존하면서 일제의 정규무력을 능히 피동에 빠뜨리고 성과적으로 처부실수 있는 무장투쟁의 유일하게 정당한 형식이였다.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대오를 상비무력으로 건설해야 하였던것은 장기성과 간고성을 예견하는 항일무장투쟁의 구체적실정과도 관련되여있었다. 그것은 외래침략자들에게 일시적으로 강점된 나라에서 조직전개되는 유격전쟁과는 달리 한두번의 결전으로나 한두달의 전투로 끝날것이 아니였다. 투쟁에서 종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항일유격대를 반드시 상비무력으로 건설해야 하였다. 항일유격대를 강력한 상비무력으로 조직함으로써만 강적, 일제를 타승할수 있었다.

반(半)군사조직을 형성하여 광범한 혁명군중을 무장시키는것은 그것을 상비무력과 배합하여 유격투쟁을 대중적규모에서 조직전개할데 대한 맑스—레닌주의적무력건설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한것이였다.

유격전쟁을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필수적조건인 군사행동지대를 옳게 선정해야 하며 유리한 근거지를 가지는 동시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무장시켜야 한다.

유격전쟁은 적합한 군사행동지대를 선정함으로써 적에 비한 무장기술적수단의 제약성을 극복하며 유리한 지형적 및 자연적 제 조건을 최대한도로 리용하여 전투에서 항상 주도권을 잡을것을 요구한다. 또한 일정한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무장대오를 보충정비하며 훈련과 휴식을 보장할수 있는 군사전략적 기지로서의 근거지를 가져야 투쟁을 계속할수 있고 승리할수 있다.

이와 함께 인민대중을 무장시켜야만 상비무력의 후비력량을 마련하며 그의 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정황에 따라서는 배합작전을 실현하여 적에게 보다 큰 군사정치적타격을 줄수 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군사행동지대를 선정하고 근거지를 꾸리며 그에 의거하여 광범한 대중을 무장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였다.

유격근거지와 혁명조직의 영향하에 있은 군중이 항일무장투쟁을 적극 지지해나선것은 대중을 무장화함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으로 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허다한 난관들도 있었다. 일제의 탄압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졌으며 주구들의 매국배족행위가 또한 우심하였다. 특히 일제의 사상적반동공세로 인하여 아직 무장투쟁의 필연성을 절실하게 인식하지 못한 군중들도 있었다.

김일성동지는 이와 같이 간고한 조건을 극복하면서 광범한 군중을 무장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는 맑스—레닌주의적군중관점의 집중적표현이다. 이 방침은 조선인민에게 해방과 독립을 위한 참된 길을 가르쳐주었으며 그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었다. 이 방침은 또한 항일무장투쟁을 군중적

기초우에서 조직전개하게 함으로써 일제를 철저히 소멸하고 혁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끄는 결정적담보로 되였다.

혁명적인민무력건설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빛나게 실현되였다.

김일성동지는 우선 상비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친히 창건하고 그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다.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강화는 혁명무력건설의 기본을 이룬다.

이것은 항일유격대의 사명과 특성으로부터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되였다.

항일유격대는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는 로동자, 농민의 혁명군대, 맑스—레닌주의 군대였다. 유격대원들은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지침으로 하여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의 독립을 찾는 동시에 해방된 조국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또한 항일유격대는 조선혁명의 주도적역량으로서 인민들이 조직전개하는 다양한 형태의 반일민족해방운동에 결정적영향을 주었다. 특히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갖추며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조직하여 반일통일전선에 인입하는 등 조선혁명의 전반에 걸친 정치적임무를 수행하는 혁명군대였다.

항일유격대가 이러한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자체를 정치적으로 준비된 혁명군대로 꾸리는것이 선결문제로 제기되였다.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유격대를 확고한 계급적군대로 꾸려야만 하였다.

군대는 이러저러한 계급들이 자기의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장한 사람들의 특수한 조직체이다. 따라서 모든 군대는 계급적성격을 띠게 된다. 혁명군대가 자체의 력사적사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체의 계급적지반을 확고히 꾸며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부터 각지의 공장들과 농촌들, 그리고 특히 유격근거지들에서 혁명적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을 유격대에 받아들임으로써 유격대를 조선로동계급의 계급적군대로 꾸릴데 대하여 가르쳤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은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일제의 탄압이 극심한 환경에서 희생을 무릅쓰고 각지의 공장과 농촌들에 공산주의조직과 혁명적군중조직을 형성하였으며 그 조직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단련되고 검열된 혁명적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을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유격대오를 보충하였다.

항일유격대는 각지의 혁명조직들을 통한 대렬보충체계에 의거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개별적으로 찾아와 입대를 탄원하는 동무들도 부단히 받아들이였다. 유격대의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은 혁명조직을 통하여 입대한 동무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입대한 로동자, 농민들과 기타 애국청년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또 교양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써 유격대의 조직구성에서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항일유격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림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것은 대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부단히 높이는것이였다.

전투원들의 정치사상의식은 전투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결정적조건으로 된

다. 혁명군대는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과 당면한 투쟁목적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어떤 강적도 능히 타승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를 가지게 된다.

항일유격대는 그 사명과 특성 그리고 무장투쟁의 간고성 등으로 하여 대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높이는 문제를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였다.

김일성동지는 항상 지휘원들과 정치일군들에게 대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킴이 없이는 장기적이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고 가르쳤다.

유격대내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은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받들고 매일같이 진행되는 가렬한 전투환경속에서도 대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력히 조직진행하였다. 사상교양사업의 중점은 조선혁명의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게 무한히 충직하며 그이의 명령이라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유일적인 사상체계를 세우는데 있었다.

또한 대원들의 계급의식과 반일혁명사상을 높이여 그들을 맑스—레닌주의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어떤 역경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고수하며 난관 앞에서 굴할줄 모르는 열렬한 혁명가로, 불굴의 투사로 육성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대원들이 조국과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며 반만년의 력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에 대한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전복하고 조국의 독립을 기어이 찾으며 해방된 조국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전망과 신심으로 대원들을 교양하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교양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였다.

유격대에서의 사상교양사업은 정치교양망과 각종 출판선전 및 구두선동, 혁명적문학예술활동, 개별담화 기타 여러가지의 수단과 방법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였다.

대원들에게 인민적사업작풍과 혁명적사업방법을 체득시키는것은 유격대를 정치적으로 튼튼히 꾸리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의 하나였다.

인민적사업작풍과 혁명적사업방법은 무장대오의 통일단결과 유격대와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유격대내에서는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계급적처지와 투쟁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완전한 상하일치가 이루어지고있었다. 지휘관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보여준 실천적모범으로써 대원들을 유능한 정치활동가로 키웠으며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육친적으로 배려하였다. 대원들은 지휘관을 존경하고 신뢰하였으며 그의 명령을 무조건 실행하였다. 전투에서는 대원들이 목숨으로 지휘관을 보위하였다. 대원들은 원칙적단결과 혁명적동지애로 굳게 단결되였다.

대원들은 또한 군민일치의 미풍을 발양하였다. 이들은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였다. 또한 인민의 생명재산을 무한히 아끼였으며 인민을 존경하고 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것을 해결해주었다. 이와 같이 모든 대원들이 군중규률조례에 엄격히 의거하여 행동함으로써 인민의 리익에 사소한 손실도 주지 않았다.

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는

항일유격대원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였으며 그에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다. 인민들은 유격대를 강화하고 그 전투행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심량면의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유격대를 정치적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여 대원들을 유일적사상체계로 무장한 혁명투사로, 맑스—레닌주의세계관을 소유한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군중을 전취하여 혁명투쟁에 인입할줄 아는 능숙한 정치활동가로 자라나게 하였다.

혁명군대는 군사지식과 군사기술을 소유하여야 적은 력량으로 적의 대부대를 피동에 빠뜨리고 전투에서 결정적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김일성동지는 항일유격대를 정치적으로 꾸리는것과 함께 군사적으로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고 그를 위한 실지사업을 친히 지도하였다.

항일유격대를 군사적으로 강화함에 있어서 무장장비를 갖추는것은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였다.

사람과 무장은 무장력의 2대요소를 이룬다. 아무리 정치사상의식이 높은 사람도 무장하지 않고서는 결국 무장한 적을 성과적으로 타승할수 없다.

당시 무장을 위한 투쟁은 참으로 어려운 시련으로 가득차 있었다. 무기를 제작할 현대적공장이 없었던것은 물론 무기를 살만한 밑천도 없었다. 일제의 극심한 탄압속에서 무기를 외부로부터 구입하는것도 불가능하였다. 또한 민족군대마저 해산되였던 환경에서 보총 한자루 넘겨받을수조차 없었다.

김일성동지는 무장투쟁의 초기에 벌써 이와 같은 정세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였다:

…무기는 어디서 구하는가? 돈이 있으면 살수도 있고 만들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길은 적의 무기를 빼앗는것이다. 지혜를 짜내고 장소를 택하여 목숨을 두려워 안하고 나서면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가 잡을 무기는 해결할수 있다…

이러한 강의한 혁명적립장은 항일유격대원들이 가장 빠른 시일내에 자체를 훌륭히 무장할수 있게 하였다.

유격대원들은 혁명조직을 통하여 인민대중속에 무장투쟁로선을 광범히 침투시키면서 무장을 갖추기 위한 투쟁을 전 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하였다. 혁명군중은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단결하라! 준비하라! 무장로선에 총 동원하라!》는 유격대원들의 호소를 받들고 무장을 얻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여기에는 유격대원들과 함께 공청원, 적위대원, 소년선봉대원, 부녀회원들과 지어 로인들과 어린이들까지 광범히 참가하였다. 무기획득을 위하여 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은 온갖 창발성과 지혜 그리고 자기 희생성을 발휘하였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적수공권으로 무장한 적을 제끼고 무기를 빼앗았으며 쇠붙이를 녹여 칼과 창을 벼리고 소리폭탄, 고추폭탄과 위력있는 연길폭탄을 만들어냈다. 실로 수많은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생명과 혁명군중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한자루한자루의 무장을 얻었다.

유격대원들은 짧은 시일내에 필요한 무장을 갖춤으로써 부대편성과 군사예술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유격대원들은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점차 적의 대부대를 섬멸하고 수많은 무기를 로획함으로써 1930년대후반기에는 무장장비에서 일정한 예비까지 조성할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어떤 적도 능히 물리치는 강력한 무장을 가지게 되였다.

항일유격대를 군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대원들과 지휘관들의 군사적자질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대원들과 지휘관들에게 변천되는 매시기의 전략전술적임무, 무장장비, 지형조건, 유격전의 제 특성에 적응한 군사지식과 군사기술을 배울데 대하여 항상 강조하였다. 특히 매개 대원들과 지휘관들은 반일유격전쟁의 전략전술과 전투경험을 깊이 연구하고 유격전쟁의 지휘능력을 제고하며 자기 무기에 정통하고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되게 함으로써 적의 유생력량과 전투기재를 대량소멸하며 원쑤들에게 조그마한 안정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은 유격대에서의 군사교육과 군사훈련의 확고한 원칙으로, 그의 구체적방도로 되였다.

유격대의 지휘관들은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에 따라 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원들의 군사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노력하였다.

항일유격대에서는 거듭되는 가렬한 실전 그자체가 곧 군사교육과 군사훈련이였다. 대원들은 원쑤를 쓸어눕히는 치렬한 전투마당에서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자라났으며 전장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능숙하게 집중, 분산, 이동하며, 적극적인 공격을 위주로 하여 원쑤를 타격소멸하며, 속전속결로 적들에게 미처 손쓸사이를 주지 않는 령활한 유격전술을 습득하였다.

항일유격대에서는 전투여가에 군사교육과 군사훈련을 계획적으로, 정력적으로 조직진행하였다. 무장투쟁의 초시기 유격근거지들에서는 군정훈련소가 설치되고 운영되였으며 1930년대후반기에는 동강, 마당거우, 백석탄 밀영들에서와 같이 동기군정훈련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였다. 이러한 경우에도 군사훈련교범과 함께 조성된 정황에 따라 각이한 투쟁형식을 적용한 유격대의 실전경험을 가르치는데 주력하였다. 이리하여 유격대는 수백 수천차례의 전투마다에서 항상 적을 격멸소탕하였으며 원쑤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유격대에서의 군사교육과 군사훈련은 1940년이후시기부터 다가올 민족해방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는데로 지향되였다. 모든 대원들은 정규군의 군사교범을 통하여 현대적군사지식과 지휘능력을 습득하는데 힘을 넣었다.

항일유격대에서는 실전을 통하여 자각적혁명규률과 혁명적부대관리원칙을 확립하였다.

혁명군대에서 규률은 생명이며 전투력제고의 기본조건이다. 혁명규률은 대원들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단결시키며 원쑤와의 결사전에서 한사람같이 행동할수 있게 한다.

항일유격대에서는 자각적인 혁명규률을 확립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복무조례를 제정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복무조례에는 전투 및 행군, 숙영시에 대원들이 지켜야 할 일체 행동규범과 부대지휘 및 명령에 절대복종할데 대한 원칙적요구가 반영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조대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상관의 명령을 조국과 인민의 요구로, 움직일수 없는 엄정한 법으로 여기고 그것을 어떤 역경에서도 기어이 관철하였다.

부대관리에서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개인책임제가 실시되였다. 이것은 무장조직으로서의 군대의 특성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전체 병사들이 일치한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전투에서 승리할수 없다. 더우기 항일유격대는 그가 수행하는 임무에 비추어 부대지휘에서의 신속성과 결단성, 완강성과 책임성, 림기응변한 기동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지휘관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대원들의 집체적지혜와 창발성, 자각성을 일층 제고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상비무력으로서의 항일유격대를 군사정치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투쟁은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였다. 대원들은 혁명과 수령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투사로, 맑스—레닌주의세계관으로 확고히 무장한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어떤 적과의 싸움에서도 백전백승하는 무적의 혁명군대로 자라났다.

김일성동지는 항일유격대를 정치군사적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동시에 반(半)군사조직을 통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무장시키는 사업도 친히 지도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유격근거지들에서 반일자위대, 소년선봉대들을 조직하였다.

반일자위대(전신은 적위대), 소년선봉대들은 농사를 짓는 한편 경계, 련락, 적정정찰, 무기로획, 주구청산 등으로 유격대의 전투활동을 보장하며 근거지를 방위하는 반(半)군사적인 혁명조직이였다. 이것은 또한 유격대의 믿음직한 예비력량이였다.

반(半)군사조직의 성원들은 유격대원들의 지도하에 군정훈련을 진행하였으며 근거지를 보위하는 전투시에는 유격대원들을 도와 용감히 싸웠다.

근거지의 전체 군중은 무기사용법과 유격전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이리하여 유격근거지는 전체 군중이 무장되고 정연한 방위체계에 의하여 보위되는 요새로 되였다.

광범한 군중을 무장화하는 투쟁은 정세와 전투형태의 변화에 상응하게 발전하였다. 1930년대후반기부터는 비합법적조직인 생산유격대가 형성되였다.

생산유격대는 생산활동에서 리탈하지 않으면서 유격대에서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의 지도하에 군정훈련을 진행하였으며 항일유격대의 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였다.

생산유격대원들과 더불어 조국광복회원, 반일소년대원, 반일부녀회원들도 능히 유격전쟁을 진행할수 있는 초보적인 군사지식과 무기사용법을 습득하였다.

이리하여 상비무력을 조직하고 반군사조직을 통하여 대중을 무장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인민무력건설의 방침은 빛나게 실현되였다. 무적의 정치적혁명군대로 강화발전된 항일유격대는 대중적지반에 확고히 의거하여 군사정치활동을 보다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으며 인민대중은 혁명정세에 대처하여 언제든지 유격대와 련합하여 일제에게 타격을 가할수 있게 충분히 준비되여있었다.

김일성동지는 혁명적인민무력건설에서 항상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이 유격대원들속에서의 정치조직사업을 통하여 항일유격대의 모든 활동에 대한 당적지도를 보장하도록 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항일유격대내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임무수행을 당적으로 보장하며 당원들과 대원들을 항상 수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으로 일관된 확고한 혁명적사상체계로 무장시킴으로써 김일성동지가 계신 사령부—조선혁명의 참모부를 목숨으로 보위하도록 교양하였다. 특히 유격대내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며 모든 대원들이 당원들의 모범을 따라 오직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싸우는 혁명투사로 육성되게 하는데 힘을 경주하였다.

당적지도는 항일유격대원들로 하여금 대중을 조직하고 교양하는 정치활동가로, 유능한 군사활동가로, 백전불굴의 혁명투사로 육성될수 있게 하였다.

지방의 공산주의조직과 혁명적군중조직에 대한 당적지도는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파견한 정치공작원들에 의하여 실현되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조선인민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혁명적인민무력을 건설하고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 ⁂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인민무력건설의 빛나는 전통은 해방후 조선인민군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였다.

우리 당의 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은 항일유격대를 직접 창건하고 조직지도하신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1948년 2월에 창건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인민무력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원칙과 항일무장투쟁의 행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에 기초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혁명적군사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고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있으며 미제와 괴뢰도당의 식민지적반동통치하에서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강유력한 혁명군대로 강화발전되였다.

김일성동지는 력사적인 당 대표자회에서 혁명적인민무력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군대의 간부화, 현대화와 전체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기본으로 하는 당의 군사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체 조선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의 주위에 굳게 결속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인민무력건설의 빛나는 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당이 제시한 군사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기본건설에서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리 민 수

당대표자회는 투자의 효과성제고를 현시기 기본건설부문의 중심과업으로 제시하였다.

나라의 경제적토대를 공고히 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복리를 향상시키는데서 기본건설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본건설에서 투자의 효과성을 높인다는것은 이 부문에 들이는 자금이 인민경제앞에 제기되는 정치경제적과업을 잘 실행하며 생산의 장성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적복리를 향상시키는데서 더 큰 보람을 나타내도록 한다는것을 말한다. 기본건설에서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 과정에서 기본건설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하여 일관하게 신중한 주의를 돌려왔다. 당은 매시기 인민경제앞에 제기되는 정치경제적과업과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상응하게 투자의 효과성제고를 위한 정확한 방도를 제시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왔다.

전후 인민경제복구건설에서 당은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축성하는데 첫째가는 주의를 돌리면서 건설의 방향과 선후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중심고리를 옳게 포착하여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사회주의하에서 투자의 효과성은 자본주의하에서와는 달리 고립적 또는 단기적고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본투자대상이 전반적인민경제와 혁명발전에서 노는 역할, 현재뿐아니라 장래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노는 역할에 의하여 규정된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급속히 구축하는것은 나라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다면적발전을 실현하게 하는 동시에 기본건설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데서도 선결조건이다.

우리 당은 전후 시기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짧은 기간내에 구축하는 동시에 전쟁으로 령락된 인민생활을 급속히 안정향상시키는 과업을 실현하여야만 하였다. 이로부터 당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였다.

당은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확고히 보장하면서도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촌경리의 발전, 인민생활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는 중공업을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건설투자의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수 있게 하였다.

기본건설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 당의 방침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것은 공업 특히 중공업의 복구와 개건 및 신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는것이였다. 《이 방침은 첫째로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강력한 중공업을 건설할수 있게 함으로써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으며 둘째로 생산의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하면서 공업의 기술적개건을 강력히 추진시킬수 있게 하였다》(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22페지).

대규모의 중앙경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 당의 방침은 기본건설에서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방산업공장을 매개 시, 군에 한개 이상씩 건설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한 당 중앙위원회 1958년 6월전원회의가 있은 후 불과 수개월간에 전국 각지에서 국가자금을 별로 들이지 않고 1,00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건설되였으며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약 배로 늘어났다. 지방공업은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있으며 그 기술적토대가 현저히 강화되였다. 지방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국가자금을 인민경제발전에서 보다 긴절하게 요구되는 부문들에 돌릴수 있게 하였으며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당은 기본투자의 방향을 옳게 규정하며 긴요한 대상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기본건설을 전 인민적운동으로 진행하는 한편 건설의 공업화를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케 하였다.

기본건설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으로 하여 경제건설은 비상히 촉진되였다.

우리 나라에는 강력한 중공업, 경공업기지와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대규모사회주의농촌경리가 꾸려졌다. 우리는 짧은 기간내에 중공업, 경공업 제품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국내수요를 기본적으로 국내생산으로써 충족시킬수 있는 강력한 경제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시기 기본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기 위한 가장 절실한 요구로 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이다. 이것은 정세의 변화와 관련하여 벌써 몇해전부터 집행하여온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전략적방침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당대표자회는 국방건설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는 동시에 경제건설을 계속 강력히 추진시켜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데 대한 제4차당대회의 과업을 반드시 실현할것을 강조하였다.

당은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키고 남새, 고기, 기름, 닭알 등을 더많이 생산공급하며 입는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는 동시에 주택조건을 더욱 개선할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다. 당은 또한 교육, 문화, 과학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 과업을 제기하고있으며 이미 금년 4월 1일부터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국방건설을 강화하면서 경제건설을 적극 추진시키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켜야 할 현조건에서 기본건설에 돌려지는 자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절실한 문제로 되지 않을수 없다.

오늘 기본건설부문앞에 제기되고있는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 *

기본건설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데서

제거되는 근본문제는 매시기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에서 기본건설을 진행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는 현시기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 이것이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이며 바로 여기에 생산의 장성과 인민생활향상의 거대한 예비가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인민경제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는데 주되는 힘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경제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건설을 계속 진행하여야 할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기본건설이 당이 제시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충실히 복무하는가 하는 바로 여기에 오늘 투자의 효과성을 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당의 방침에 따라 생산을 정상화하며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기 위한 건설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새 건설을 옳게 배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현존생산시설들을 보강완비하기 위한 건설을 위주로 진행하는것은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소여시기에 주어진 생산시설들을 부단히 갱신완성하여나가는 것은 기술발전의 보편적과정이며 생산장성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그것은 새건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써 단시일내에 보다 큰 경제적효과를 내게 하며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케 함으로써 막대한 자금, 자재,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의 급속한 장성, 품종, 규격의 확대 및 제품의 질제고를 보장할수 있게 한다.

인민경제의 기본골간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그 규모가 방대하며 부문간, 부문내부간의 련계가 더욱 밀접해진 우리 나라의 현조건에서 현존생산시설들을 보강완비하기 위한 건설을 위주로 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미 꾸려진 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여 그것이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수 있게 한다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은 더욱 촉진될것이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현존생산능력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데 기초하여 부문간, 부문내부간, 공정간 및 기종간의 균형이 조화롭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개건, 확장 또는 붙여짓는 공사에 주되는 힘을 돌리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특히 준비공정, 부산물 및 폐설물을 회수리용하는 부대공정들을 완비하는 건설대상들에 력량을 집중하는것이 필요하다. 금속공업에서는 광석사별장, 소결직장, 구단광직장 등 철광석예비처리능력과 파철처리능력을 확대하여 현존제선로와 제강로들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케 하며 제철, 제강 능력에 맞게 압연능력과 2차가공능력을 따라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주물, 단조 등 소재생산능력을 보강하여 그것을 가공능력에 따라세우며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보충하여 기종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필요한 기본건설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비료공장들과 화학섬유공장들을 비롯한 화학공장들을 보강하며 특히 세멘트공장들에 분쇄능력을 강화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는 경우에 될수록 기존공장을 확장하거나 거기에 새 직장들을 붙여짓는 방향에서 기본건설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미 있는 각종 기술시설들과 부대시설들 및 문화,

보건 시설들의 공동리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생산능력을 새로 조성하는것보다 기본투자를 훨씬 절약할수 있게 한다.

당대표자회는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는데 철저히 복무하는 방향에서 기본건설을 진행하는 동시에 7개년인민경제발전계획의 주요고지들의 점령에 필요한 생산적건설대상들에 계속 힘을 넣을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7개년인민경제발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확대재생산을 보장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생산적건설을 계속 강력히 진행하여야 한다. 발전소의 건설, 새로운 탄광과 광산의 개발 및 기존 탄광과 광산의 개건확장, 화학공장의 건설, 금속공장의 개건확장 등은 앞으로 생산을 확대하는데서 결정적고리로 되며 7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절실하게 필요되는 생산적건설대상들이다. 그것은 동시에 현존경제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당면한 생산장성을 보장하는데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당이 제시한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공업부문에서 제기되는 중심과업은 생산을 정상화하며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것이다. 생산을 정상화하며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채취공업과 동력공업을 선행시켜 시초원료와 연료동력의 생산을 증대시키며 가공원료의 생산을 앞세우는것이다.

그러므로 기본투자와 건설력량을 전력, 채취, 화학, 금속 공업부문들의 주요대상들에 집중하는것은 앞으로의 생산확대와 인민경제발전의 현단계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

당대표자회는 전력, 채취, 금속, 화학, 건재, 철도 등 공업의 중요한 부문들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건설대상들과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건설력량을 집중할것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이 부문들의 건설대상들을 당이 재시한 기한내에 정확히 완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건설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기본건설의 방향을 정확히 세우는 동시에 건설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기본건설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기본건설부문에서 력량을 분산시키지 않고 이미 진행중에 있는 건설공사와 주요 새 건설대상들에 집중하는것은 미완성투자액을 축감시키고 건설대상의 조업을 촉진하며 투자의 상환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본건설은 방대한 자금이 들고 그 상환기간이 길며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진행된다. 그렇기때문에 여러 대상들에 력량을 분산시킨다면 막대한 투자가 시공과정에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따라서 자금의 활용을 심히 억제하게 된다. 투자가 신속히 상환됨이 없이는 투자의 보람이 클수 없다. 혁명과 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하여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건설대상에 력량을 집중하여 조업을 앞당기는 방법은 기본건설투자의 상환기간을 단축시키며 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방도로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건설력량을 널어놓지 말고 국가가 지정한 주요건설대상들에 집중하여 조업을 최대한 촉진하도록 하며 한 대상

을 완공한 다음에 인차 다음 대상에 화력을 집중하여 한 대상씩 모가 나게 완성해나가는 섬멸전을 전개하여야 한다.

현존생산면적의 합리적리용은 기본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기본투자의 구성에서 건물건설비를 절약하고 설비비의 비중을 높이게 하며 단위생산액당 투자액 또는 생산능력당 투자액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오늘 우리나라 공장, 기업소들에는 생산면적의 예비가 적지않게 있다. 이것을 동원한다면 새로운 건설을 하지 않고도 생산능력을 현저히 높일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현존생산시설들과 설비들의 배치상태를 전면적으로 검토한데 기초하여 여유면적을 찾아내고 더많은 생산설비들을 설치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을 예견하거나 설계함에 있어서도 기술경제적타산을 면밀히 진행하여 모든 건물들의 능력규모를 과학적으로 규정하며 가능한한 확장 또는 부설을 위주로 함으로써 건설비를 극력 절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에서 국방상 요구와 경제발전의 요구를 다같이 고려하는 것은 투자의 효과성을 높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군사전략상 중요한 지대를 잘 꾸리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는데 기본건설의 력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국방건설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국방과 경제건설에 량용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제건설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경제적리익과 함께 반드시 군사상 요구를 정확히 타산하여야 한다.

대규모공장과 중소규모공장을 적절히 배합하는것은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고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데서나 전시생산을 중단없이 보장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원료, 로력 원천지와 소비지에 접근하여 전국 각지에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적은 자금으로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킬수 있게 하며 전시에도 적들의 피해로부터 쉽게 그것을 보호하면서 생산을 계속 진행할수 있게 하는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이미 이 부문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에 의거하여 앞으로도 계속 대규모공장건설에 배합하여 중소규모발전소, 중소규모탄광과 광산, 중소규모화학공장, 중소규모기계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며 지방산업공장들을 기술적으로 개건하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리는것이 필요하다.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되는것은 기본건설의 계획화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고 건설을 정상화하며 건설의 질을 높이는것이다.

계획화사업의 개선과 건설의 정상화 및 건설물의 질제고는 호상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있다. 건설의 정상화는 건설의 질을 보장하고 랑비를 제거하며 건설기일을 단축하여 조업을 촉진함으로써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하며 계획화사업의 개선강화는 건설정상화의 선결조건으로 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건설을 정상화하여야 질이 보장되고 랑비도 근절될수 있으며 건설을 제 기일내에 보장하고 생산조직을 빨리 해서 국가에 많은 리익을 줄수 있다…건설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계획화를 잘하고 자재와 설계를 선행하고 기술준비를 잘해야 한다》(1964년 1월 7일 건설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하신 말씀).

기본건설의 계획화사업을 개선강화하고 건설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설계

를 계획작성에 선행하며 건설자재설비물을 시공에 선행하여 보장하며 시공준비를 철저히 진행하는 등 기본건설에서 법칙적으로 제기되는 제 문제들을 해결할것이 요구된다. 기본건설부문의 과업이 방대하고 특히 이제까지 해보지 못하던 건설대상들이 수다하게 제기되는 현조건에서 설계, 보장 및 시공준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타산이 없이는 옳은 계획을 세울수 없으며 또 그것을 제대로 집행할수도 없다. 그것은 현시기 기본건설계획화에서 법칙적요구로 된다.

기본건설부문에서 이러한 요구에 부합되게 계획화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2개년련속계획화체계를 확립하는것이 필요하다.

기본건설2개년련속계획은 각각 1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과 예비계획으로 구성된다. 예비계획은 다음해의 계획을 작성할 때 래후년의 예비계획지표를 기술과제가 검토된 주요대상은 대상별로, 기타는 지역별로 당의 건설정책과 인민경제발전의 전망계획에 립각하여 규정하여주는 현행계획이다.

기본건설부문에서 예비계획의 작성은 설계위탁주문을 기본건설위탁주문보다 1년이상 선행시킬수 있도록 건설대상을 미리 규정함으로써 설계가 없는 대상을 계획에 예견하는 폐단을 극복할수 있게 하며 기본건설위탁주문계약을 기술적근거밑에 진행할수 있게 하며 기본건설의 세부계획화의 요구를 정확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다른 인민경제부문들의 계획화체계에 영향을 줌이 없이 예비계획년도의 건설조립작업에 건설자재를, 설비조립작업에 대상설비를 선행하여 보장할수 있게 함으로써 시공기관과 보장기관과의 련계를 정확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기본건설예비계획은 또한 건설주와 시공주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기때문에 그들의 책임성을 높이는데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건설주로 하여금 건설대상선정에서 신중성을 기하게 하며 기본건설위탁주문의 접수와 대상별 조업개시기일의 규정에서 시공주의 관심을 높이게 한다.

이와 같이 2개년련속계획은 예비계획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건설주, 시공주, 설계기관, 대상설비 또는 건설자재생산기관들로 하여금 자기가 할 일을 미리 예견하고 창발적으로 사업을 조직할수 있게 하며 기본건설계획수행의 확고성을 보장하고 건설을 정상화할수 있게 한다.

설계를 선행하는것은 기본건설의 계획과사업을 개선하며 특히 건설물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정확한 설계가 없이는 건설의 계획화도, 정상화도 그리고 질도 보장할수 없으며 따라서 기본투자의 높은 효과성을 기대할수 없다.

설계를 선행하며 그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설계과제를 1~2년, 대상에 따라서는 그보다 먼저 설계작성기관에 제시하는것이 필요하다. 설계과제를 미리 제시하여야만 기술과제 및 그와 관련된 일체 기술문헌들에 대한 연구와 충분한 예비조사에 기초한 질적인 설계가 제때에 나올수 있다.

설계력량이 제한되여있는 현조건에서 설계에 대한 증대되는 량적 및 질적 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설계의 표준화를 적극 실시하고 설계에서 조판식, 부호식설계방법 등 새롭고 능률적인 설계방법들을 대담하게 도입하는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본건설에 대한 설계는 전문설계기관에서만 작성하게 하며 작성된 모든 설계들은 설계심사기관을 반드시 거치게 하는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심

사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을 높일것이 요구된다.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시공에 철저히 선행하는것은 현시기 기본건설을 정상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고도의 정밀도를 요할뿐아니라 규모와 종류에서 다종다양한 수천수만종의 건설자재와 기계부속품들을 필요로 하는 오늘날의 기본건설과정은 필연적으로 기업소, 기관들간의 련계를 복잡하게 만들며 주문계약과 납입제도에 의거한 정확한 물질기술적보장을 요구한다. 대상설비와 건설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함이 없이는 수립된 계획이 실현될수 없으며 건설이 정상화될수도 없다.

기본건설에 소요되는 대상설비를 원만히 공급하자면 일식납입제도를 세우고 그것을 발전심화시켜 점차 공장종합납입체제로 넘어가는것이 필요하다. 자재상사들은 주요대상에 자재 및 대상설비들을 집중적으로, 종합적으로 날라다 주어야 한다.

공장설비들을 수입하는 경우에 준비, 완성 및 시험공정들을 무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돌릴것이 요구된다. 동시에 납입된 대상설비를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관관리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값눅고 질좋은 건설자재들을 많이 생산공급하는것은 기본건설에 대한 보장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건설에 소요되는 강재, 세멘트, 전선, 관류, 발브 등 각종 건설자재들을 규격별, 재질별로 제때에 생산보장하며 특히 목섬유판을 비롯한 실내 마감재료와 화학건재, 방수재료, 보온재료, 쇠창문, 전기 및 조명기구 등의 건재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현존건재공장들을 빨리 정비하는 동시에 새로운 건재생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이와 함께 물동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건설기관들이 가지고있는 수송기재들에 대한 기술관리와 예방보수체계를 강화하여 그 리용률을 높이며 필요한 수송기재들을 보충함으로써 건설자재들의 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문화수준을 높이는것은 건설의 정상화와 건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건설기업소들에서는 기술학습과 기술전습 및 경험교환회 등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오랜 로동년한과 높은 기술기능을 가진 로동자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그들의 생활과 생산활동에 특별히 관심하고 배려하면서 고급기능공대렬을 확대하여야 한다. 동시에 그들을 개별적전문시공부문에 고착시켜 그 부문에서 건설의 질을 높이며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지도일군들은 자신이 설계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로동자들에게 대주면서 시공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잘 지키도록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건설과학연구사업에서는 부재의 대형화, 경량화, 방수제, 온돌문제 등 현실적으로 긴급히 해결을 요하는 대상들에 모를 박고 한가지씩 풀어나가도록 하며 건재와 건설의 질을 과학적으로 판정할수 있는 시험측정기구와 계기들의 생산에 중요한 관심을 돌리는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또한 기본건설의 공업화를 촉진하며 특히 시공, 그 중에서도 품이 많이 들고 힘든 토공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는데 계속 중요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엑스까와또르, 불도젤 등 중기계들의

작업계획을 면밀히 짜고 그 리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소형굴착기, 소형불도젤을 비롯한 중소기계들을 합리적으로 배합리용하여야 한다.

갱도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 관심을 돌리며 주입식콩크리트시공방법을 널리 일반화하는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건설에서 조립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 ⁂

정치사업을 선행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고도로 발양시킴이 없이는 기본건설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기본건설의 계획화사업을 개선하며 건설을 정상화하고 질을 높이는 등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당정책에 대한 충실성, 혁명적열의와 적극성에 달려있다.

기본건설부문앞에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건설부문일군들은 자신을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 당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키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기본건설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는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것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가지는 정치경제적의의를 모든 건설자들에게 철저히 침투시키고 당이 제시한 제 과업들을 집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도를 대중적으로 찾아낼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사, 분석 및 타산 자료들을 가지고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기본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에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일부 일군들 속에서 아직도 발로되고있는 낡은 사상잔재들, 특히 기관본위주의와 개인리기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력히 진행하는것이다.

일부 일군들 속에서는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에 대하여서는 적게 관심하면서 자기 부문, 기관, 기업소의 일단 쉽게 해나가려 하며 기본건설계획수행에 대한 높은 책임성이 없이 《날림식》, 《청부업식》으로 일하는 옳지 못한 현상이 남아있다.

모든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서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하며 나라와 인민의 리익을 무조건 고수하는 원칙적립장에 튼튼히 서야 한다.

건설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나라의 백년대계와 관련되고있음을 똑똑히 인식하고 집 한채, 공장 하나를 지어도 정성들여 알뜰히 짓도록 하며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하게 해나가야 한다.

건설자들은 당이 제시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기본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우리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하여야 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것은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

조 명 일

1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고립시키며 혁명력량을 장성시키는데 있어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것이다.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몰아내고 그의 식민지통치를 분쇄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고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달성해야 할 임무를 지니고있다.

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반혁명의 정치사상적영향으로부터 떼내여 혁명의 편에 묶어세워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남조선에서 대중을 각성시키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혁명은 대중을 각성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인민대중을 의식화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울수도 없으며 대중운동을 발전시킬수도 없다. 오늘 남조선에서 원쑤들의 반동적사상공세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앞세워야 할 필요성은 더욱더 증대되고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03페지).

혁명은 인민대중이 각성되여 자기의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위한 의식적인 투쟁을 전개할 때만이 승리할수 있다.

혁명수행에서 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활동의 법칙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혁명운동을 령도함에 있어서 항상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켜 광범한 군중이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적극성을 가지고 동원되게 함으로써 그 승리를 보장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현실적생활체험, 남조선인민운동의 력사적경험, 북반부의 혁명적영향력을 통하여 정치적자각이 제고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인민대중의 빈궁과 무권리는 극도에 달하고있다. 인민들은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폭압속에서 극심한 생활난을 겪고있으며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마저 유린당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 속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정책에 대한 불평불만과 남조선사회제도에 대한 반항심이 자라나고있다. 그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가혹한 착취와 야수적폭압을 더는 참을수 없어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요구하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부단히 투쟁에 일떠서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 투쟁과정을 통하여 점차 각성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각성은 아직 낮은 수준에 있다.

혁명운동은 의식적인 대중의 활동이며 혁명의 승리는 대중이 자기의 민

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선진적사상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투쟁에 적극 나설 때만이 가능하다.

혁명을 위한 가장 선진적인 사상은 과학적사회주의의식이다. 그런데 자본주의하에서 로동계급은 과학적사회주의의식을 저절로 체득하지 못한다.

과학적사회주의의식은 혁명가들의 꾸준한 선전교양사업을 통하여 로동자들 속에 주입되지 않으면 안된다.

레닌은 로씨야에서의 맑스주의보급을 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로동자들에게 사회민주주의적의식이 **있을수도 없었다**…이 사회민주주의적의식은 오로지 외부로부터만 도입될수 있었다》(레닌전집 제5권 2분책, 123페지).

맑스—레닌주의당은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대중의 혁명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상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현시기 남조선에서 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특히 적들의 반동적사상공세가 날로 강화되고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히 제기된다.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윁남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충실한 주구 박정희도당은 저들의 전쟁정책과 파쑈화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인민대중에 대한 반동적사상공세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다.

그들의 반동적사상공세의 기본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반공》숭미사상을 주입하며 인민대중의 혁명성과 계급적 및 민족적 각성을 마비시키려는데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각종 수단과 악랄한 방법을 다 쓰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반공》을 소위 《국가정책》의 기초로 삼고 출판, 보도, 과학, 교육문화 기관들을 비롯한 모든 기구와 수단들을 총동원하고있다.

남조선의 각급 학교들에서는 《반공》교육의 비률이 더욱 높아지고있으며 영화관과 극장, 출판물, 방송들에서는 《반공》선전을 의무적인것으로 강요당하고 있다.

또한 각종 《반공》단체들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열살이상의 어린아이들로부터 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넣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숭미사상선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 문화, 예술 등 모든것을 총동원하고있다. 그들은 해적의 후예들인 미제국주의자들을 《고등한 인종》으로 찬양하고 미제침략전쟁의 력사를 《해방》의 력사로 묘사하는 한편 유구한 문화와 애국전통으로 빛나는 우리 민족의 력사를 백방으로 외곡하고있다.

원쑤들은 숭미사상을 고취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종교를 리용하고있다.

최근 남조선에는 일본국수주의사상을 부식하기 위한 《창가학회》, 《천리교》가 쓸어들고있다.

적들은 최근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대렬내에서의 좌우경기회주의의 대두와 관련하여 더욱 악랄하게 반동적인 사상선전을 감행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악랄한 반동사상선전과 좌우경기회주의의 해독적영향은 남조선혁명발전에 적지않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그것은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공산주의의 영향력과 전인력을 높이고 혁명투쟁에 대한 신심과 그들의 민족적, 계급적 각성을 제고하는데 큰 방해로 되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남조선에서 적들의 반동사상공세를 분쇄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계급의식과 민족적

각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한다.

혁명의 승패는 결국 누가 대중을 더 많이 쟁취하는가에 달려있으며 이것은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어떻게 제고시키는가 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남조선에서 인민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을 추진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의 정력적인 정치사상사업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이 높아지고 광범한 대중이 혁명적열의와 용감성을 가지고 투쟁에 떨쳐나선다면 남조선혁명운동은 빠른 속도로 발전할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04~105페지).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더욱 제고시키는것은 남조선에서 대중투쟁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조건으로 된다.

정치사업의 선행은 대중투쟁에 의식성을 부여하며 그 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무기로 된다.

대중이 정치적으로 각성되면 그것은 필연코 각종 형태의 대중투쟁을 발전시키게 될것이며 자연발생적인 투쟁은 점차 목적의식적인 투쟁으로 빈진하게 될것이다.

대중은 투쟁의 시련속에서 더욱더 새롭게 각성되며 그들의 각성정도는 또한 투쟁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처럼 대중의 정치적각성은 대중투쟁의 발전과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인민대중이 정치적으로 각성되면 될수록 그만큼 혁명운동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남조선에서 인민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의 강화는 군중의 조직화를 더욱 추진하게 한다.

혁명에서 군중이 충분히 조직화되지 않고서는 폭압수단을 가지고있는 반혁명세력을 결정적으로 타승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철저한 혁명성은 고도의 조직성, 단결력과 결합될 때 무비의 힘을 낳는다.

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것은 그들의 조직화의 기초이며 전제로 된다. 혁명력량의 조직화는 혁명에 참가하는 군중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에 기초하여야 하며 이것은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전제로 한다.

대중을 각성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의 선행은 남조선에서 당면한 투쟁의 발전을 추동하면서 혁명의 장래발전을 위하여 귀중한 씨앗을 뿌리는것으로 된다. 이것은 아직 조직화되지 않은 군중들을 앞으로 있을 혁명의 판가리 싸움에 준비시키며 인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비록 당장 조직에 망라되지 않은 사람들이라하더라도 광범한 군중속에서 정치사업을 부단히 전개할 때 혁명의 앙양기에 이들은 급속히 각성되여 혁명조직을 따라 투쟁에 떨쳐나설수 있다.

레닌은 로씨야혁명의 경험을 총화하면서 혁명의 앙양기에는 예견하지 못하였던 많은 선진적소조들과 진보적세력들이 지하에서 우후죽순처럼 솟아나오므로 당은 자기 대열을 꾸리는데 력량을 집중할뿐아니라 이러한 잠재적혁명세력의 형성을 위해서 혁명적앙양이 없는 시기에도 정치선전사업을 강화한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형성을 추진하게 될것이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자산계급과 민족부르죠아지 등 각계각층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다같이 고통을 겪고있으며 그들은 리해관계에서 일련의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각성되면 될수록 이러한 공통성을 더 잘

깨닫게 될것이며 통일전선에 더 광범히 망라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각성을 높이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하고있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는 각계각층인민들의 반미구국통일전선형성을 위하여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상과 같이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은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부단히 축적장성시키며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실현하는 중요 담보로 된다.

2

우리 당은 나라에 조성된 주객관적정세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분석하고 남조선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확히 규정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을 각성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대중속에서 미국에 대한 환상과 사대주의사상을 극복하며 〈반공〉사상을 뿌리뽑는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103페지).

남조선에서 숭미사대주의사상과 《반공》사상은 오랜 력사적근원을 가지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19세기 60년대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할 목적밑에 한편으로는 무력을 동원하고 다른편으로는 《친선》과 《통상》의 감언리설로써 회유기만하는 교활한 량면술책을 써왔다. 그들은 처음부터 일제의 조선침략의 공모자로 되였으나 겉으로는 마치 침략을 당하는 조선을 동정하는것처럼 가장하면서 조선인민들속에 숭미사상을 불어넣으려 하였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이후에도 미제국주의자들은 사상적침략을 위하여 계속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길잡이로 조선에 파견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선》의 구호하에 숭미《반공》사상을 집요하게 류포시켰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을 숭미사대주의에 물젖게 하였고 이러한자들은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고 미국을 환상적으로 대하였으며 지어 리승만과 같은 매국역적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위임통치》를 애걸하여 나서기까지 하였던것이다.

남조선에서 숭미사대주의사상과 《반공》사상은 일제의 패망후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 등 친미반동세력에 의하여 더욱 깊이 부식되였다.

그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을 《자유의 수호자》, 《평화의 사도》로 묘사하면서 미국과의 《친선》과 《반공》에 대하여 온갖 수단을 다해 떠들고있다. 그들은 마치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남조선인민들이 살아가는것처럼 기만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이 부식하고있는 숭미사대주의사상과 《반공》사상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에 적지않은 장애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통치수법과 숭미《반공》선전의 악영향으로 인하여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은 미제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있으며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살아나갈수 없을것같이 생각하고 있다.

교활한 미제는 남조선에서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그것을 정치군사적지배의 도구로 리용하고있으며 《원조》를 미끼로 남조선의 모든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인민들을 수탈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은 《독립》의 허울좋은 간판으로 가려지고있으며 착취와 략탈은 《원조》의 미명하에 은폐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을 반동사상의 영향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을 철저히 폭로하여야 한다.

이것은 인민들의 반미의식제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된다. 왜냐하면 신식민주의정책이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통치와 지배의 가장 교활한 수법으로서 이들의 정체를 가리우고있기때문이다.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의 본질을 밝히면서 그들의 지배하에 있는 남조선사회의 식민지적성격과 사회계급적관계를 밝혀놓는것이 필요하다.

일제대신에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식민지통치의 도구인 괴뢰정권을 조작하는 한편 그의 계급적지반을 이루는 지주, 예속자본가들을 백방으로 비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왔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의 비호하에 지주, 예속자본가들의 소득은 증대된 반면에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악화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이러한 현상의 본질을 충분히 깨닫게 하려면 그들에게 남조선사회의 식민지적성격과 남조선사회제도의 모순을 인식시켜야 한다.

인민들이 남조선 사회제도의 반동적본질을 잘 파악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빈궁과 무권리와 진정한 원인을 알게 되며 민족적, 계급적 각성이 높아지게 된다.

다음으로 남조선인민들을 반동적사상의 영향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사대주의사상, 외세의존사상을 반대하고 민족주체의식을 높이며 자주자립의 사상을 주입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조선에서 사대주의는 외래침략세력이 발을 붙이고있는 사상적지반으로 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숭미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류포시킴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혁명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책동하고있다.

사대주의사상을 반대하고 민족주체의식을 높이지 않고서는 민족적해방과 나라의 통일독립을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사대주의사상과 외세의존사상을 반대하고 자주자립사상과 민족주체의식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인민들 속에서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발양시키고 애국애족의 사상을 고취하는것이다.

조선인민은 옛날부터 외래침략세력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운 슬기로운 력사를 가지고있다.

무엇보다도 김일성동지의 지도하에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력사는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랑이며 긍지이다.

외세를 물리치기 위하여 영용하게 싸운 우리 민족의 투쟁, 특히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적극적으로 광범히 선전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애국애족의 사상을 높이는것은 그들에게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할 결의와 신심을 북돋아주며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성스러운 구국항쟁에 떨쳐나서게 한다.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각성시키기 위한 이러한 모든 선전은 맑스—레닌주의사상선전과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는 자연과 사회의 발전법칙을 밝혀주며 피압박피착취대중에게 진정한 해방의 길을 가리켜주며 압박과

착취가 없는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방도를 제시하여 준다.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선전은 남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나라와 자신의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며 그러한 리념에 기초한 사회제도의 수립을 지향하게 할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제국주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에 관한 확고부동한 진리를 깨닫게 할것이다.

맑스—레닌주의원리선전은 반드시 남조선혁명을 위한 우리 당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해설선전하는것과 결합되여야 한다.

남조선혁명을 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나라의 주객관적정세를 정확히 타산한 기초우에서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원리를 남조선의 구체적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한것이다. 따라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남조선혁명을 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깊이 침투될 때 그들은 민주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의 강력한 사상적무기를 가지게 될것이다.

맑스—레닌주의원리선전이 남조선인민들의 피와 살로 되게 하자면 그들에게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그 우월성을 정확히 알려주는것이 필요하다.

우리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들은 맑스—레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할 때 민족적번영과 나라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준다.

남조선인민들에게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알려주는것은 그들을 교양하는 가장 힘있는 수단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원리적인 설명과 함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륭성발전하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선전은 남조선의 근로대중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맑스—레닌주의원리를 더 잘 리해하게 할것이며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할것이다.

혁명은 낡은 반동통치하에서 사는 인민들이 혁명을 하자고 결심하고 그 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에 떨쳐일어설 때 반드시 승리하는것이다.

남조선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의 줄기찬 정치사상사업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대중의 민주적 및 계급적 각성이 높아지고 광범한 대중이 혁명적열의와 용감성을 가지고 투쟁에 궐기한다면 남조선혁명운동은 빠른 속도로 발전할것이며 조국통일의 대사변은 더욱 가까와질것이다.

남조선혁명과 학생운동

김 하 경

1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남조선혁명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은 학원투쟁의 범위를 벗어나 점차 대중적성격을 띤 정치투쟁으로 발전하여왔다.

혁명에서 각 계급, 계층의 지위에 관한 문제는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력량편성과 관련되는 전략계획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룬다.

혁명에서 각 계급, 계층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들이 노는 역할은 주로 해당혁명에 대한 각 계급, 계층의 리해관계에 의존된다.

남조선에서 로동자, 농민은 반제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며 이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 주력부대이며 기본동력이다. 로동계급은 이 혁명의 령도계급이며 농민은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이다.

청년학생들은 로동자, 농민들을 계몽각성시키며 남조선혁명에서 교량자적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력량이다.

김일성동지는 남조선혁명에서의 청년학생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식민지나라들에서 청년학생들과 인테리들은 민족적압박과 멸시를 당하고있기때문에 대부분 혁명성을 가지고있다. 그들은 시대의 추세에 민감하고 민족적각성이 빠르며 따라서 로동자, 농민들과 혁명운동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조선의 청년학생, 인테리들은 이러한 모든 특성을 가지고있으며 현실적으로 미제침략세력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력량으로 되고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01페지).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반제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다.

8.15후 남조선경제의 파산, 인민생활의 몰락과 계급분화를 반영하여 남조선학생들의 출신성분구성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소자산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다. 그중 적지않은 학생들은 자기의 로동력을 파는 고학생들이다. 특권층의 자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미제의 식민지적략탈과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교육정책으로 인하여 진학의 길이 막혀있다. 간신히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일자리가 차례지지 않아 그의 절대다수가 실업자로 전락되거나 괴뢰군에 강제징집되여 미제의 값싼 대포밥이 되지 않으면 안될 암담한 처지에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20여만의 인테리들이 실업당하고 있으며 그 수가 날로 늘어가고있다.

특히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미제의 식민지파쑈테로통치하에서 혹심한 민족적압박과 멸시를 당하고있으며 사회정치생활의 자유는 고사하고 선진과학탐구의 가능성마저 박탈당하고있다.

이러한 사회계급적처지는 남조선청년학생들로 하여금 반제반파쑈민주화를 위한 혁명투쟁에로 나가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우리 나라 청년학생들은 일찍부터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섰으며 그 행정에서 장성발전하였다.

특히 1930년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조선청년학생들에게 거대한 혁명적영향을 주었다. 항일무장투쟁에 고무된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은 일제의 파쑈적

폭압밑에서도 민족적량심과 절개를 지켰다. 그들은 로동자, 농민들 속에 맑스—레닌주의를 보급시키며 그들을 계몽각성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오늘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반미구국투쟁에서 자기들의 혁명성을 발휘하고있다.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싸우는 남조선학생들에게 있어서 거대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 무한히 고무된 남조선 청년학생들은 적들의 악랄한 《반공》선전과 갖은 모략책동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다.

오늘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사회계급적처지와 자체의 혁명성으로 하여 반제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 교량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남조선로동계급의 구성에서 근대적 산업로동자들의 비중이 낮고 녀성 및 소년 로동자들이 적지않은데다가 절대다수의 로동자들이 아직 비조직상태에 있는 현조건에서 청년학생들은 로동자, 농민들과 혁명운동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더 잘 하여야 할것이다.

2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과 남조선의 전반적혁명정세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8.15후 남조선청년학생들은 《국대안》반대투쟁, 4월인민봉기, 3.24 6.3봉기, 8월투쟁 등을 통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계급적 및 민족적 각성과 그들의 혁명적진출을 촉진시켰다.

남조선혁명에서 청년학생들의 교량자적역할은 특히 4월인민봉기와 6.3봉기에서 뚜렷이 발휘되였다. 이 시기는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의 일대 앙양기로서 일련의 새로운 발전추세를 보여주었다.

이 시기에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은 반제적성격을 점차 뚜렷이 나타내였다.

4월인민봉기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조선대중운동의 발전에서 새로운 계기로 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4월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였다. 항쟁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각성은 비상히 제고되였으며 항쟁을 계기로 투쟁의 예봉은 점차 미제국주의에 돌려지기 시작하였다》(《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01페지).

남조선학생운동의 반미적성격은 3.24 6.3봉기, 8월투쟁에서 더욱 강화되였다.

이 봉기들은 미제의 조종하에 감행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략책동과 관련하여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이였다.

6.3봉기후 남조선청년학생들은 투쟁의 예봉을 일제의 재침을 반대하는데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한일협정》의 막후조종자인 미제를 반대하는데로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의 투쟁구호에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구호는 혁명투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된다.

1965년 여름, 《한일협정》폐기를 위한 투쟁이 고조에 이르렀을 때 남조선청년학생들은 《한일협정체결의 주범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약소국을 정치적수단으로 리용말라!》, 《우리는 웰남사태에 양키의 총알받이가 될수 없다》 등 반미구호를 제기하면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학생운동에서 반미적성격이 점차 강화된것은 사태발전의 응당한 귀결이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체험을 통하여 미제침략군을 그대로 두고는 일

본군국주의의 재침략도 물리칠수 없고 웰남파병도 막아낼수 없고 조국의 자주적통일도 달성할수 없다는것을 더욱 깨닫게 되였다. 그들은 적들의 야수적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반미구호를 웨치며 용감하게 투쟁하였던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이 투쟁의 예봉을 미제에게 돌리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식민지통치에 타격을 가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청년학생들의 투쟁에서는 반《정부》적 성격도 두드러지게 표현되였다.

반독재의 구호하에 남조선청년학생들은 4월인민봉기에서 미제의 오랜 주구인 리승만괴뢰정권을 전복하였고 6.3봉기에서는 또다시 반파쑈의 구호하에 박정희군사파쑈정권을 타도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청년학생들은 《나라팔고 족배드는 매국정권 물러가라》, 《박정희독재뿌리뽑자》, 《박정권타도에로 총 궐기하라》 등 구호들을 들고 투쟁하였다.

박정희도당은 괴뢰정권에 들어앉은 이후 지난 6년간에 남조선을 더욱 암흑천지로 전변시켰다. 놈들은 일제의 남조선재침을 허용하고있으며 남조선의 청장년들을 미제의 웰남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고있다.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재난을 들씌우고있는 민족반역자들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 남조선청년학생들이 떨쳐나선것은 응당한 일이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투쟁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친미, 친일매판세력과 보수세력도 반대하면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나섰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이미 《4.19 제2선언문》에서 《지금 이 땅의 력사적사실을 전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하여서는 반봉건, 반외압세력, 반매판세력의 우에 세워지는 민족혁명을 이룩하는 길뿐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투쟁이 외세와 결탁한 봉건세력과 매판세력을 반대하는데 돌려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후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청년학생들은 《친진보, 반보수》의 구호와 함께 《민생고해결은 매판자본의 몰수로부터》, 《국민은 우리 대렬에 함께 나서라》 등의 구호를 들고나왔다. 그리하여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은 점차 로동자, 농민 운동과 결합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4월인민봉기후 청년학생들의 영웅적진출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표면화시켰다.

매국역적 리승만독재시기에 조국통일론의는 《국시위반》으로 엄금되였었다. 그러나 4월인민봉기후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남북학생회담, 남북교류 등을 공공연히 주장하여나섰다. 이 시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은 점차 조직적인 투쟁으로, 구체적인 실천방도를 제기하는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학생들의 지향은 6.3봉기와 8월투쟁에서도 명백히 표현되였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민족분렬을 일삼는 독재정권 물러가라》, 《민족경제를 이룩하자면 오직 외세의존의 환상을 청산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할 길밖에 없다》는 요구를 제기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어떠한 군사파쑈적폭압으로써도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지향을 꺾을수는 없었다.

4월봉기후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은 그 대중성과 완강성, 조직성이 더욱 강화되였다.

청년학생운동의 대중성과 완강성은 투쟁규모가 크고 투쟁기간이 길며, 투쟁형태가 격렬한데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4월인민봉기시에는 130여만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이 참가하여 70여일간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다. 3.24 6.3봉기, 8월투쟁시기에도 65개의 대학과 204개의 중고등학교 학생 약 70만명, 시민 125만명 등 도합 근 200만명의 군

중이 2년가까이 완강하게 투쟁을 계속하였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은 흔히 적극적인 폭력적형태로 전개되였다.

4월인민봉기시에 청년학생들은 《기관포를 빼앗아라》, 《우리도 총으로 살인경찰 없애자》고 웨치면서 괴뢰경찰기관을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였으며 괴뢰경찰 및 군대와의 류혈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한일협정》반대투쟁시기에도 있었다. 괴뢰군과 괴뢰경찰들의 학원침입에 항거하여 청년학생들은 《폭력에는 폭력으로》라는 구호하에 《학원방위총본부》를 결성하고 각 대학마다에 《학원방위단》을 조직하였다.

투쟁에서 표현된 이러한 완강성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의 견결한 투쟁정신에 기초하고있다.

파쑈적폭압이 심한 조건하에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은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고려하여 진공과 방어를 적절히 배합하면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능숙하게 전개되였다.

청년학생들은 투쟁의 준비시기 또는 앙양시기, 반동의 공세와 관련한 일시적 침체시기에 상응하게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잘 배합하여 중단없이 진행하였다.

최근년간에 반제, 반파쑈 민주주의의 기치를 들고 세차게 전개된 청년학생투쟁은 남조선혁명정세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청년학생투쟁은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크게 뒤흔들어놓았다.

4월봉기후 미제와 남조선반동세력들의 식민지통치는 동요와 무질서가 지배하는 일대 《혼란기》에 빠져 들어갔다. 남조선에서 빈번한 괴뢰정권교체는 그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4월인민봉기후 남조선에서는 여러차례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특히 군사파쑈독재정권의 수립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총검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자기들의 지배를 유지할수 없게 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위기에 직면한자들의 발악에 불과하다.

3.24 6.3봉기는 《한일회담》의 최종결속을 지연시켰다. 이 투쟁들은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과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결성하고 극동에서의 침략체계를 강화하려던 미제의 흉계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한일협정》반대투쟁에 부딪친 군사파쑈도당은 남조선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되였다. 특히 괴뢰지배층내부에서 빈번히 일어난 반박정희쿠데타음모사건들은 괴뢰통치집단내부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더욱 첨예화시켰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이 남조선인민운동발전에 미친 영향은 크다.

청년학생투쟁을 통하여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정체와 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는 전면적으로 폭로되였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더욱 촉진시켰다.

투쟁행정에서 점차 각성되기 시작한 남조선인민들은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자립을 주장하여나섰으며 《한일협정》을 폐기하며 남부월남파병을 반대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최근년간 세차게 전개된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은 금후 남조선에서의 혁명운동을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험과 교훈을 남겨놓았다.

우선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의 경험은 그것이 혁명적당의 령도하에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과 결합되지 않고서는 결정적승리를 쟁취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혁명적 당이 없었고 명확한 투쟁강령이 없었으며 따라서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이 항쟁에 광범히 참가하지 못하였기때문에 4월봉기는 철저히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미제의 다른 주구들의 손에 빼앗기지 않을수 없었다》(《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07페지).

3.24 6.3봉기, 8월투쟁도 혁명적 당의 통일적인 령도밑에 로동자, 농민의 투

쟁과 결합되지 못하였기때문에 보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의 경험은 또한 투쟁력량의 통일성과 조직성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4월인민봉기를 계기로 대중적으로 진출한 남조선의 청년학생운동은 아직도 유일적이며 통일적인 조직에 망라되지 못하고 있다. 분산성과 분렬상태를 극복하지못한 남조선의 청년학생운동은 적들에 의하여 각개격파당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수 없었다.

오늘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은 자체의 력량미숙으로 일시 침체상태에 있으나 미제와 군사파쑈도당의 야수적인 탄압속에서도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의 잠재적력량은 부단히 장성하고있다.

3

오늘 남조선청년학생운동앞에는 학원에 대한 원쑤들의 파쑈적폭압을 분쇄하고 학생운동을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에 급속히 따라 세워야 할 긴절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남조선에서 청년학생들은 반제반《정부》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학생청년들의 민주주의적자치활동의 자유를 위한 초보적인 학원투쟁마저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남조선의 현실은 청년학생들에게 일제의 재침략책동, 웰남파병, 반인민적선거 등을 반대하는 온갖 투쟁의 계기를 리용하여 반제반《정부》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오늘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은 그들의 처지와 지난날의 투쟁경험으로 하여 능히 이 요구를 관철시킬수 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이 반제반《정부》투쟁을 성과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동자, 농민들과 단결하여 함께 싸우는것이 필요하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이 로동자, 농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반제반《정부》투쟁을 그들과 함께 전개하는것은 남조선혁명발전의 긴절한 요구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인테리들은 적들의 어떠한 탄압과 박해에도 굴하지 말고 투쟁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로동자, 농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자기의 운명을 그들과 련결시키면서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할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01페지).

남조선에서 혁명적당의 령도하에 이루어지는 청년학생운동과 로동운동, 농민운동과의 결합은 거대한 혁명적력량으로 되며 남조선혁명을 더욱 힘있게 추동할것이다. 이 결합은 당면한 반제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데서뿐아니라 앞으로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서도 확고하게 견지하여야할 원칙이다.

남조선에 조성된 현정세는 청년학생들이 반제반《정부》투쟁을 잘하기 위하여 당면하게 학원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학생운동은 학원투쟁에 기초함으로써만 전반적으로 강화발전할수 있다.

학원투쟁과 학원범위를 벗어난 사회정치투쟁은 반드시 옳게 배합되여야 한다.

학생들은 학원을 중심으로 조직된 사회적집단을 이루고있다. 학원투쟁은 학생들의 독자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학생운동의 중요한 분야를 이룬다. 오늘 남조선의 학원이 파쑈화, 군사화되고있는 조건에서 학원의 민주화를 쟁취함으로써만 파쑈적인 관권통제로부터의 학원의 자치, 선진사상과 선진과학의 자유로운 탐구, 민주주의적학생단체의 조직과 그 활동의 자유 등을 보장할데 대한 당면한 민주주의적요구를 실현할수 있다.

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것은 광범한 학생들과 사회계에 영향을 주며 학생운동발전의 보다 유리한 객관적조

전을 조성케 한다.

레닌은 일찌기 학원투쟁이 《처음으로 정치적충돌을 체험하게 되는 보다 광범한 층에 사상적 및 조직적 영향을 주》며 《싸우는 사람들이 이것을 의식하든 안하든간에 정치적충돌의 단서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레닌은 《우리들의 파업은 〈학원〉의 항의자대중들에게 이 충돌의 객관적의의를 설명해주며, 그 충돌을 의식적인 정치적충돌로 만들도록 노력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레닌전집 제15권, 249페지).

학원투쟁은 주로 학생들의 학원자치와 관련한 민주주의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광범한 학생, 교원, 학부형들과 사회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수 있다.

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남조선에서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다. 청년학생들은 학원에서의 선진사상과 과학탐구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동시에 대중속에서의 진보적출판물의 보급과 그 연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청년학생들은 학원에서의 민주주의적학생단체의 조직과 그 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사회정치생활에서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자유를 위한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도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학생들이 학원투쟁과 학원범위를 벗어난 사회정치투쟁을 잘 배합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체의 조직에 튼튼히 결속되는것이 급선무로 제기된다. 남조선에서 청년학생들은 하나의 큰 사회적력량을 이루고있다. 남조선에는 중고등 및 대학생의 수만하여도 무려 120여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사회적세력이 조직된 부대로 튼튼히 결속될때 그것은 매우 큰 힘을 발휘하게 될것이다.

미제와 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유일적인 학생조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남조선의 진보적인 학생들은 이미 합법적인 활동이 보장되여있는 각급 학교의 《학생회》를 련합하는 방법으로 1963년 12월에 《한국학생총련합회》를 결성하였다. 이에는 남조선의 대부분의 대학과 일부 고등학교까지 망라되여있다. 이 학생단체는 3.24 6.3봉기시에 학생투쟁의 통일성을 보장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최근 선진적학생들은 학교별, 지역별 조직의 확대강화에 힘을 기울이고있다. 얼마전에 일부 지방에서 학생회장단은 자체의 조직체를 결성하고 《5.16이후 판에 의하여 억압되여온 학원의 자치를 2.28과 4.19정신으로 계승 되찾기》 위한 투쟁강령을 제시하였다. 남조선의 지방학생조직들을 더욱 확대하여 통일적인 학생조직에로 결속시키는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오늘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미제와 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을 짓부시고 새로운 투쟁에로 나가기 위하여 자체 조직의 결속, 투쟁전술의 세련, 대중투쟁과의 결합 등 제반 준비사업을 추진시키고있다.

외세를 배격하고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구호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 구호가 실현되지 않는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은 그것의 해결을 위하여 계속 줄기찬 투쟁을 전개할것이다.

오늘 남조선사회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더욱 심각화되고있다. 미제의 식민지적 지배와 전쟁정책은 날로 우심해지고있으며 박정희도당의 매국배족행위는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적들의 발악이 심하면 심할수록 남조선에서의 청년학생운동은 이미 체득한 경험교훈을 살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들과의 밀접한 련계밑에 보다며 대중적이며 정치성이 높은 운동으로 확대발전될것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과 문학예술

김 하 명

오늘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을 한 사람같이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혁명가, 애국자로 교양하는 것은 우리 문학예술의 영예로운 임무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추동력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발휘하고있는 영웅적위훈들은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기초하고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으로 되고 공고한 도덕적품성으로 되였을 때에 사람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무릅쓰고 제국주의와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아무리 어려운 조건도 능히 극복하고 끝까지 자기 혁명임무를 수행하고야 마는것이다.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사물현상과 문제들을 조국과 인민의 립장에서 주견있게 대하며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게 함으로써 주체자립의 강력한 힘으로 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잘하는것은 그만큼 인민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게 하며 로동과 생활에서 나라의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시킨다.

이처럼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인민들로 하여금 자각적으로,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혁명위업에 헌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강력한 정치사상적요인으로 된다. 바로 이로부터 우리 당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일관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당사상사업의 일익을 담당하고있는 우리 문학예술의 중요 임무로 되는것이다.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생활과 정신세계를 형상적형식으로 재현하는만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발현되는 그대로, 생동한 구체성을 가지고 보여줄수 있다. 이로 하여 문학예술은 긍정적모범으로 사람들을 감화교양할수 있으며, 사상적으로뿐만아니라 정서적으로 작용하는데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큰 보람을 볼수 있는것이다.

1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내용과 과업은 그것을 반영하는 우리 문학예술의 주제범위와 형상창조의 특성을 규정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민족적긍지와 자주정신을 높임으로써 나라의 주인다운 태도와 의식을 배양하며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혁신적으로 투쟁하는 정신을 강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자각적태도이며 열렬한 사랑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킨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억압, 예속과 몰락의 길이며 오직 사회주의만이 계급적착취와 함께 민족적억압을 근절하고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번영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착취제도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고 그것을 고수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철저한 애국자로 되는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자들만이 참다운 애국적감정을 가질수 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착취와 억압이 없고 근로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하고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주의제도와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에서 표현되여야 한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확고한 계급의식과 혁명사상을 전제로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는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자들과 적대계급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제도와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에서 표현되는 동시에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에서 표현된다.

조선민족과 조선의 삼천리강산을 떠나서 조선혁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열정을 가질수 없으며 그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없다.

우리는 자기 나라의 혁명, 자기 민족의 해방위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도 충실할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사회주의진영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운동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온갖 계급적억압, 착취를 반대하는 동시에 모든 민족적예속과 수탈을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 자기의 해방을 이룩할수 있다.

오늘도 우리 조국 남반부는 미제에 의하여 강점되여있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전체 조선인민의 숭고한 의무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민족적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민족문화와 민족의 모든 훌륭한 유산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오늘 우리 인민은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가장 정확하게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양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어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도 허용하지 않고 견결히 싸울수 있게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있어야 하며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민족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할수 있도록 혁명

가, 애국자로 교양되여야 한다.

문학예술의 과업은 이러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형상적형식으로 실현하는데 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 작가,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서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보여주어야 하겠다…애국심은 인간의 감정에서 구체적으로 살고있으며 구체적으로 그 표현을 보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작가,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 추상적이며 무미건조한 구호를 라렬할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산사람들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구체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화하여야 한다》(《우리 혁명에서의 문학예술의 임무》, 2폐지).

우리 문학예술이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민의 혁명력사와 생활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높이 발양되고 사람들에게 긍정적모범으로 될수 있는 주제를 옳게 선택하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조직되고 령도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를 선두로 한 항일투사들은 조국을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하고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불타는 념원으로 15개성상 온갖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피어린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항일투사들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한 열렬한 혁명가였으며 진정한 애국자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애국심은 공산주의리상을 실현하려는 혁명적열정과 하나로 결합되여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조선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제시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은 우리 혁명승리의 길을 명확히 밝혀주었고 항일투사들은 물론 전체 조선인민에게 승리의 확신을 안겨주었으며 오늘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새생활로 실현되였다.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높이 발양되고 그 우월성이 뚜렷이 과시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위한 우리 문학예술의 중요한 주제이다.

우리 인민은 항일투사들의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8.15해방후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생활을 통하여 새 사회제도의 우월성을 직접 체험하였기때문에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곧 혁명적전취물과 자기의 행복한 생활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임을 자각하고 그처럼 위대한 애국적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조선인민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쳐부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오만한 미제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안겨줌으로써 국제혁명운동발전에 크게 기여한 힘의 원천은 여기에 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단결된 조선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전후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기적을 낳게 하였으며 계속혁신, 계속 전진의 천리마진군을 추동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기의 생산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로동이 사회주의조국의 번영과 잇닿아있다는것을 알고있으며 그 자각에 기초한 혁명적열정으로 하여 언제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기여할 우리 문학예술은 우리 인민들의 현실생활에 체현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폭넓게 그려야 한다.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일하면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살아나가며 오늘의 생활에 구현된 사회주의제도의 위대한 우월성의 체험과 더욱 찬란한 앞날에 대한 포부와 확신에 고무되여 천리마의 기세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있다. 우리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우리 제도가 어떻게 수립되였으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우리 앞날이 얼마나 휘황찬란한것인가를 옳게 보여주며 혁명과 건설의 전진을 위한 우리 인민의 보람차고 장엄한 투쟁, 우리 시대의 영웅들이며 진정한 애국자들인 천리마기수들의 생활과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보여주는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 혁명과업의 견지에서 볼때에 남반부인민들과 혁명가들의 투쟁은 우리 문학예술의 적극적인 주제분야의 하나이다. 미제강점하의 남반부인민들과 혁명가들은 군사파쑈독재의 어려운 조건에서 공화국북반부의 현실에서 온 민족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래일을 보면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 주제의 창작은 남반부인민들을 더욱 견결한 투쟁에로 고무하여줄뿐아니라 북반부인민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각오를 더 높이게 하는것이다.

이밖에 력사적주제의 작품들을 창작하는것도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민족유산가운데서 락후하고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모든것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하며 근로자들이 현재와 함께 과거를 잘 알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사랑하게 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은 우리 시대 인민들을 교양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소재를 고르고 계급성과 력사주의원칙에 맞게 형상화하여야 한다.

생활은 다양하며 애국심은 언제나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되는것만큼 창작실천에서는 작품들마다 구체적인 주제가 탐구되여야 하며 독창적인 구성조직으로써 사상주제적과업을 밝혀내야 한다.

2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과업에 맞게 주제를 옳게 설정한후에 그 문학예술작품의 교양적의의는 전형화의 수준에 의존된다.

우리 문학예술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귀감으로 되는 혁명가, 애국자들의 전형을 옳게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중심 주인공들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고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모범으로 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일투사들의 공산주의자로서의 고상한 풍모를 옳게 형상화해야 한다. 항일투사들의 혁명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높은 사상적각오, 꺾일지언정 절코 굽히지 않는 혁명적지조, 고결한 도덕적 품성이 생동하게 그려져야 하는것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기여할 우리 문학예술은 또한 어떻게 우리 인민군대가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

15개추종국가의 침략군대를 쳐물리칠수 있었는가, 평양속도, 비날론속도의 기적을 창조한 천리마기수들의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미제의 총검밑에서 간고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남반부혁명가들의 정신적바탕과 성격적특성은 어떤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답을 줄수 있는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인간성격은 일정한 시대의 사회적환경, 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이것은 형상창조에서 인간의 성격적특성이 발현될수 있는 정황을 옳게 제시해야 하며 전형적성격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반드시 전형적환경에서 그려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환경은 성격의 질과 특성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며 일정한 력사적시기의 사회경제적조건과 계급관계, 정치투쟁의 제 조류가 그 기초로 된다.

작가가 자기의 주인공을 어떠한 사건, 어떤 계급의 대표자들과 관계시키며 어떠한 정황에서 그려야 하겠는가는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업에 따라 처리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그 인물들의 호상관계가 항상 그 력사적시기의 계급관계를 옳게 밝혀주며 그들의 사회계급적본성과 사회적역할을 재명할수 있게 배치되여야 하는것이다. 이것은 오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문학예술작품의 전형화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선 주인공들을 해당한 력사적시기에 있어서 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관련된 사건들과 사회정치적문제와 관계시키며 이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도록 구성조직을 짜야 한다. 단순한 애정륜리적, 가정세태적환경에서는 그 인물의 사회정치적면모가 드러나지 않으며 따라서 애국자로서의 주도적성격을 밝힐수 없을뿐아니라 그러한것을 가지고는 오늘의 우리 인민들을 혁명가, 애국자로 교양할수 없다.

혁명가, 애국자의 성격을 진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작품의 기본갈등을 옳게 설정하고 갈등대상인 계급적원쑤들과의 격렬한 투쟁의 한복판에서 그리는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부정인물의 형상을 옳게 창조하는데도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계급적원쑤들의 사회계급적본성, 그들이 대표하는 사회제도의 본질을 뚜렷이 인식할수 있도록 사실주의적으로 옳게 형상화할 때 혁명가, 애국자의 성격적특성도 더욱 명백히 밝혀낼수 있다. 혁명가, 애국자의 생활과 활동이 다면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조적인것만큼, 그 정신세계가 높고 인간적감정이 풍부한만큼 그들의 전형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활측면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성격을 다면적으로 그리되 어떤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혁명위업에 온갖 힘과 재능을 다 바쳐 싸우는 주도적성격을 뚜렷이 보여주는데 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기여할 우리 문학예술의 전형화에서 제기되는 다른하나의 문제는 그 성격과 환경을 그리면서 우리 인민이 조국을 수호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온갖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고 승리하여온 준엄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로정과 고상한 정치사상적풍모를 보여주어야 하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적자부심과 민족적긍지를 더욱 높이도록 하는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우리 인

민이 계승한 빛나는 혁명전통과 우리 나라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표현하는것이다. 우리 문학예술은 우리의 찬란한 현실, 우리의 특성을 옳게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혁명투쟁의 빛나는 력사와 전통을 가진 인민이며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하에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킨, 사회주의조국을 가지고있는 인민이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부단한 전진과 혁신으로 표현되는 높은 혁명적의지와 열정,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제국주의 및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 혁명위업에 대한 자부심과 혁명적락관주의 등은 확고한 정치사상적풍모로 되여있다.

우리 문학예술은 조선의 아름다운 자연, 자랑스러운 력사와 문화를 잘 반영하며 더욱 번영하고 더욱 아름다와질 조국의 미래에 대한 혁명적랑만 등을 진실하게 그려내야 한다.

이렇게 될 때야만 작품을 읽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잘 알게 될것이며 조국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높은 자부심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혁명위업에 더 충실히 복무하게 될것이다.

문학예술작품에서는 민족적형식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조선 인민이 오랜 력사적기간에 창조발전시켜왔고 즐겨하는 민족적형식에 담아야 인민들이 더 잘 리해하고 접수할뿐아니라 민족적자부심도 가지게 된다. 문학, 음악, 미술, 무용 그밖의 모든 예술형태들의 창작에서 반드시 민족적향기와 정서가 그윽한 민족적형식의 모든 긍정적인 알맹이를 계승하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조선말을 바르고 아름답게 쓰며 우수하고 풍부한 우리 말의 표현력을 충분히 살려서 모든 형상을 생동하게 그려내며 누구나 다 듣기 좋고 알기 쉽게 다듬어 쓰는것은 작가, 예술가들의 선차적인 의무이다.

형상의 진실성은 단순히 있는 사실의 기계적인 복사나 기록으로써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 소재들은 작가의 창조적 허구에 의하여 예술적으로 재창조된다.

이로 하여 창작에서 작가의 사회미학적리상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인물형상들의 행동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교양될뿐아니라 전편에 울리는 작가—애국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열렬한 기백과 지향에 의하여 교양되여야 한다.

이것은 작가자신이 공산주의자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공산주의자로 되여야만 열렬한 혁명가, 애국자의 정신세계의 높이에 올라설수 있으며 인민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교양할수 있는 예술적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공산주의자가 아니고서는 노동계급의 혁명투사들을 바로 그릴수 없으며 독자들을 혁명위업을 위한 헌신적투쟁에로 고무할수 없다. 열렬한 혁명가, 애국자가 아닌 작가는 애국주의적인 작품을 창작할수 없으며 인민을 위한

예술을 창작할수 없다. 한떨기 꽃도 조국의것이기에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줄지어 지나가는 어린 학생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볼 때나 한채의 주택과 공장이 일떠서는것을 보고도 기쁨으로 가슴 부풀어오르며 남반부동포들에 대한 미제야수들의 만행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에 심장이 찢어지는듯한 아픔을 느끼고 불타는 증오로 하여 붓끝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는 작가, 예술인의 한자한자의 글, 모든 작품들에는 혁명정신이 높뛰고 뜨거운 애국의 혈조가 흐르게 된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전통을 꾸준히 학습하여 뼈와 살이 되게 하며 우리 당 정책과 맑스—레닌주의원리를 더욱 깊이 연구하고 조국의 력사와 현실을 더 잘 알기 위하여 배우고 또 배우며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　　　*

지금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부름을 따라 당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날에 날마다 새로운 혁신과 위대한 창조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우리 문학, 예술의 사상예술성이 높을수록, 혁명정신과 애국적기백이 더욱 뜨겁게 용솟음칠수록 근로자들의 창조적열성을 더 힘있게 고무하며 고상한 도덕적품성의 형성에 보다 큰 기여를 할것이다.

문학예술은 사회발전법칙, 우리 혁명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감정에 힘있게 작용함으로써 인민들을 교양하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놀수 있다.

당의 영예로운 문예전사인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남반부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며 조선인민이 모두다 경애하는 수령을 모시고 부강한 사회주의조국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더 잘 이바지할수 있는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에 관한 레닌의 리론의 력사적의의

문 정 덕

지금으로부터 50년전 1917년 4월에 레닌의 천재적로작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제국주의론》)가 처음으로 출판되였다. 이 로작의 출판을 전후하여 또한 제국주의에 관한 레닌의 일련의 론문들이 세상에 나왔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나온 때로부터 반세기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이 로작에서 레닌이 전개한 과학적명제들과 혁명적리론들은 오늘도 의연히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에 관한 리론의 완성은 맑스주의를 풍부화시키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레닌이 기여한 위대한 공적의 하나이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레닌의 공적 즉 이 경우 레닌이 내놓은 새로운 점은 그가 〈자본론〉의 기본명제들에 의거하여 자본주의의 최후단계인 제국주의에 대하여 정확한 맑스주의적분석을 가하였으며 제국주의의 고질과 그의 피치못할 멸망의 조건들을 폭로한데 있다》(쓰딸린선집 제2권, 363페지).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맑스의 《자본론》의 직접적계승이며 그의 발전이다. 맑스가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의 발생, 발전 및 멸망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면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자본주의발전의 마지막 단계인 제국주의의 본질과 그 력사적지위를 밝혔다. 제국주의에 관한 리론의 완성은 맑스주의를 새로운 발전단계에 이르게 하고 그것을 맑스―레닌주의로 되게 한 중요한 계기의 하나이다.

*　　　　*

레닌이 제국주의에 관한 전면적이며 포괄적인 연구를 시작한 직접적동기로 된것은 제국주의렬강간에 벌어진 략탈적인 전쟁 및 이와 관련하여 일어난 제2국제당 기회주의자들의 프로레타리아혁명위업에 대한 배반행위였다.

제1차세계대전은 제국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였다.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게 된 금융자본은 상품판매시장과 원료원천지, 자본투하처를 위하여 세력범위를 확대하면서 독점적고률리윤을 보장해주는 식민지를 더욱 확장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미 세계의 령토적분할은 끝났으며 《주인》없는 땅이란 찾아볼수 없었다.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전쟁이외에 그것을 실현하는 다른 길은 없었다.

제국주의강도들간에 략탈적인 전쟁이 일어나자 기회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버리고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수행을 돕는 길에 들어섰다. 그들의 일부는 부르죠아내각에까지 참가하였으며 《조국옹호》에 대하여 떠들면서 제국주의전쟁을 지지하도록 로동자들에게 설교하였다. 그들은 각종 반맑스주의《리론》으로써 제국주의를 미화분식하고 국제로동계급과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은 레닌으로 하여금 제국주의의 사회경제적본질을 철저히 폭로하기 위한 투쟁에 달라붙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을 당시 그가 망명하고있었던 스위스의 쮸리히에서 집필하였다. 그는 제국주의에 관한 자료들을 철저히 연구하였다. 자기 로작을 준비하고 집필하는 기간에 레닌은 제국주의와 관련한 148권의 서적들과 232편의 론설을 읽었으며 연구결과들을 20권에 달하는 노트에 정리하였다. 이것은 후에 《제국주의노트》의 이름으로 발간되였다.

제국주의에 관한 레닌의 리론은 《제

국주의론》이외에 《제2인터나쇼날의 파산》, 《사회주의와 전쟁》, 《구라파합중국의 구호에 대하여》, 《맑스주의의 만화와 〈제국주의적경제주의〉에 관하여》,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분렬》, 《전쟁과 혁명》 등의 많은 론설, 로작들에서 전개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론》과 기타 로작들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맑스주의적분석을 가하여 제국주의전쟁의 근원과 성격을 밝혔을뿐만아니라 제국주의전쟁이 자본주의의 제 모순을 일층 첨예화시키며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조건을 더욱 성숙시킨다는것을 해명하였다. 그는 제국주의에 대하여 혁명적립장에서 명확한 분석을 가함으로써 국제로동운동내의 온갖 기회주의조류를 분쇄하였으며 맑스주의당의 전략전술을 새로운 조건에서 더욱 발전시켰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제국주의의 경제적본질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명을 주었다. 《제국주의론》의 서문에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나의 이 소책자가, 현대전쟁과 현대정치를 평가하자면 반드시 연구해야 할 그러한 경제적기본문제 즉 제국주의의 경제적본질에 관한 문제를 해명하는데 도움이 될것을 기대하는바이다》(레닌전집 제22권, 241페지). 계속하여 그는 기회주의의 **《경제적근거를 파악함이 없이는, 그것의 정치적 및 사회적 의의를 평가함이 없이는 공산주의운동과 닥쳐올 사회혁명의 실천적 제 임무를 해결하는 령역에 있어서 일보도 전진할수가 없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249페지)라고 썼다.

맑스가 《자본론》에서 전면적으로 분석한 독점전자본주의는 그 발전의 합법칙성으로 말미암아 19세기말 20세기초에 이르러 독점자본주의로 넘어갔다.

경쟁은 소생산자들과 중소자본가들을 령락시키면서 생산의 집적과 집중을 가져왔으며 대자본가들은 독점체를 형성하고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를 지배하게 되였다. 자유경쟁은 그 반대물인 독점으로 바뀌여지고 자유경쟁이 지배하던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와 교체되게 되였다.

레닌은 **《독점에 의한 자유경쟁의 교체가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경제적특징이며 그 본질이다》**(레닌전집 제23권, 134페지)라고 말하였다.

레닌은 독점의 형성과 지배가 《자본주의발전의 최신단계의 결론》이며 이에 기초하여서만 제국주의사회의 사회계급관계와 정치사상전선에서의 투쟁 등을 정확히 밝힐수 있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레닌은 독점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주고 그와 관련되여있는 제국주의의 다른 특징들을 밝혔다.

제국주의시기에 공업분야와 은행업분야에서 독점들은 밀접히 유착되여 금융자본을 형성하게 된다. 레닌은 **《은행과 산업과의 결합 혹은 유착—이것이 바로 금융자본의 발생의 력사이며 또한 금융자본의 개념의 내용이다》**(레닌전집 제22권, 292페지)라고 말하였다.

제국주의시기에 이르러 상품수출대신에 자본수출이 전형적인것으로 되였다. 자본수출은 금융자본이 예속과 련계의 국제적그물을 펼쳐놓는데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으며 제국주의 침략정책의 중요한 경제적조건의 하나로 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분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독점적자본주의하에서의 상품수출과는 다른, 특히 특징적인 현상으로서의 자본수출은 세계의 경제적 및 정치적—령토적분할과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있다》**(레닌전집 제23권, 135페지).

자본수출의 확대, 해외시장과 원료원천지에 대한 독점자본들의 지향은 세계의 경제적분할을 초래했고 세계의 령토가 제국주의자들간에 다 분할된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간의 모순을 첨예화시켰으며 제국주의렬강간의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전쟁을 일으키게 하였다. **《금융자본은 식민정책의 수많은 <종래의> 동기에다가 원료원천, 자본수출, <세력권> 즉 유리한 거래, 리권, 독점리윤 등을 얻을수 있는 지역을 위한 투쟁, 끝으로는 경제적령토일반을 위한 투쟁을 첨가하여놓았다》**(레닌전집 제22권, 391

폐지).

레닌은 제국주의의 경제적특징을 (1)경제생활에서 결정적역할을 노는 독점체의 형성 (2)금융자본과 이에 기초한 금융과두정치의 지배 (3)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 자본수출 (4)국제독점의 형성과 그들간의 세계의 경제적분할 (5)자본주의최대렬강간의 지구상 령토분할의 완료의 5개로 요약 정식화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에 관한 로작들에서 제국주의의 경제적본질과 함께 그에 기초한 제국주의의 사회정치적성격을 밝혔다.

레닌은 《제국주의노트》에서 제국주의의 경제적정의와 밀접히 결부시켜 그 정치적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하면서 《반동, 민족적억압, 합병》—이것이 그 정치적내용이라고 썼다. **《제국주의의 정치적 특징은 전 전선에 걸친 반동이며 금융과두정치의 압박과 자유경쟁의 제거와 관련된 민족적압박의 강화》**(우와 같은 책, 374페지)이다.

제국주의의 주요한 정치적특성인 전면적반동은 독점의 지배의 필연적산물이다.

독점들은 로동계급을 가혹하게 착취할뿐만아니라 근로농민들과 도시소자산계급을 대량적으로 수탈하며 중소자본가들을 몰락시킨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 계급적 제 관계는 첨예한 모순을 띠게 된다. 제국주의독점들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반독점투쟁을 억압하기 위하여 부르죠아민주주의의 마지막 흔적까지 말살해버린다.

제국주의독점들은 식민지초과리윤을 얻으며 식민지인민들에게 노예로동을 강요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 도덕 등 모든 분야에서 민족억압정책을 실시하며 식민지인민들에게 정치적무권리와 경제적궁핍, 민족문화의 말살 등을 가져다준다.

제국주의자들은 반동적이며 침략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면서 군국주의를 비상히 강화한다.

제국주의는 이와 같이 대내정책에서나 대외정책에서나 민주주의와 사회적 진보, 민주적자유를 반대하는 가장 반동적인 길로 나간다.

그리하여 레닌은 제국주의의 특징이 정치적반동과 민족적억압, 령토병합, 군국주의 등에서 표현된다고 지적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의 본질과 제 특징을 전면적으로 규정한 기초우에서 제국주의가 바로 전쟁의 근원이란것과 제국주의전쟁은 략탈적침략적성격을 띤다는것을 밝혔다.

레닌은 제국주의전쟁의 목적이 바로 **《노예제의 유지강화를 위한, 즉 식민지의 재분할을 위한, 타민족을 억압할 〈권리〉를 위한, 대렬강의 자본의 특권과 독점을 위한, 여러나라들의 로동자들을 분렬시켜 그들을 반동적으로 탄압하는 방법으로 임금노예제를 영구화하기 위한》**(레닌전집 제21권, 413페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전쟁의 략탈적성격을 밝히면서 프로레타리아트는 부정의의 제국주의전쟁을 적극 반대하며 그것을 계급적해방을 위한 국내전쟁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정의의 해방전쟁에 대하여서는 온갖 형태로 지지성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시기에 로동운동내에서 발생하는 기회주의조류의 사회경제적기초를 리론적으로 해명하였다.

제국주의시기에 로동운동내에서 기회주의 특히 우경기회주의가 나타나는 경제적기초는 제국주의독점들이 세계인민들을 수탈하여 거대한 재부를 걷어쥐고 그 일부로써 로동자들의 일부 상층을 매수하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매수된 로동계급의 극히 적은 부분 즉 로동귀족들은 제국주의에 복무하면서 로동계급의 근본적리익을 팔아먹는다. 이들의 반역적행동은 로동운동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데서 가장 커다란 장애의 하나로 된다.

레닌은 로동계급과 그 전위대는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킬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지 않은 반제국주의투쟁이란 무내용한 공담이거나 기만이다》**(레닌전집 제23권, 103페지).

레닌은 제국주의의 제 특징을 전면적으로 연구한데 기초하여 제국주의의 력사적지위를 밝혔고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론증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특수한 력사적단계이다. 이 특수성은 세가지가 있다. 즉 제국주의는 1) 독점자본주의이며, 2) 기생적 또는 부패하여가는 자본주의이며, 3) 사멸하여가는 자본주의이다》**(우와 같은 책, 134폐지).

자본주의의 독점단계인 제국주의는 자본주의발전의 최고단계이며 자본주의가 부패하고 반동화되여 그 모순들이 극도로 첨예화된 단계이며 자본주의가 보다 높은 사회경제체제에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계이다. 레닌은 제국주의를 《사회주의혁명의 전야》라고 규정하였다.

제국주의는 로자간, 제국주의렬강간, 식민지 및 예속국가들의 피압박인민과 그들을 착취하는 제국주의국가간의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된 결과 필연적으로 멸망의 길에 들어선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자신의 멸망을 감수하려 하지 않으며 력사무대에서 순순히 물러서려 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은 국제로동계급의 투쟁을 탄압하고 식민지 및 예속국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발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는 그자체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약화되지 않을수 없으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멸망하지 않을수 없다.

레닌은 제국주의에 관한 로작들에서 제국주의의 사회경제적본질과 정치적특성을 밝힌데 기초하여 제국주의단계에 있어서의 1국사회주의혁명승리의 가능성을 론증하였다.

자본주의하에서는 개별적경제부문들 또는 개별적나라들의 경제발전이 균등하게 진행될수 없다. 자본주의하에서 불가피한 경제발전의 불균등성과 이에 기초하여 일어나는 정치적발전의 불균등성은 독점자본주의시기에 이르러 새로운 특징을 가지게 된다. 그 불균등성은 비약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파국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제국주의나라들의 경제적 및 정치적발전의 불균등성은 그들간의 첨예한 충돌을 초래하며 이것은 제국주의의 약화를 가져온다. 또한 제국주의나라들에서 혁명의 주객관적조건이 각이하게 조성된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전선의 련쇄중 약한 고리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위한 유리한 주객관적전제가 먼저 조성된다. 여기로부터 출발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었다: **《사회주의의 승리는 처음에는 소수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혹은 심지어 개별적인 한 자본주의나라에서도 가능하다》**(레닌전집 제21권, 409폐지).

이것은 레닌에 의하여 창시된 새로운 혁명적리론이였다. 이 리론은 개별적나라들의 로동계급에게 제국주의시기에서의 혁명의 전망을 명확히 밝혀주었으며 사회주의혁명승리에 대한 그들의 신심을 굳게 해주었다.

레닌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투쟁과 식민지민족해방혁명과의 밀접한 관계를 해명한것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제국주의시기에 식민지인민들에 대한 독점자본의 정치적억압과 군사적폭압, 경제적수탈 등은 미증유의 규모에 달한다.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식민지인민들은 공동의 원쑤를 가지게 되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혁명의 일환으로 된다. 이로부터 레닌은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식민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련결시키며 그들간의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회주의혁명은 단지 매개 국가에 있어서의 자국 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혁명적프로레타리아의 투쟁으로만 될수는 없으며 또 주로 그렇게 될수도 없다. 그렇다. 사회주의혁명은 제국주의의 압박을 받고있는 모든 식민지와 모든 국가의 투쟁으로 될것이며, 국제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예속국가들의 투쟁으로 될것이다》**(레닌전집 제30권, 180폐지).

레닌은 제국주의나라들에서의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련결시킴으로써 제국주의의 멸망을 촉진하는 혁명투쟁의 옳은 길

을 제시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하에서의 정치와 경제에 관한 원칙적문제들을 해명함으로써 이와 같이 혁명적로동계급과 그 전위대에게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작성할수 있는 확고한 리론적기초를 주었다.

《제국주의론》을 비롯한 레닌의 제국주의에 관한 로작들은 그것들이 맑스주의창시자들에게 있어서 항상 그러한바와 같이 철저한 혁명적립장과 엄격한 과학성, 창조성으로써 일관되여있으며 그럼으로 하여 로동계급을 위한 가장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에 관한 리론을 작성함에 있어서 어느때나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전진시키는 실천적과업을 념두에 두었다. 그는 제국주의시기의 새로운 사회경제적조건하에서 어떻게 하면 혁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겠는가 하는데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맑스주의의 혁명적원칙을 저버린 기회주의자들의 그릇된 립장을 철저히 극복하는것을 자기 과업으로 삼았다.

로동운동의 력사는 사회경제적조건들이 변화되며 중요한 사변들이 일어날때 기회주의자들이 그것을 혁명을 지비리고 맑스주의를 수정하는 구실로 삼은것을 보여주었다. 자본주의의 제국주의단계에로의 이행과 제국주의전쟁은 로동운동내부의 불건전한자들의 이러저러한 동요, 반맑스주의적기회주의조류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레닌은 새로운 제국주의의 사회경제적조건들을 혁명의 립장에서, 로동계급의 해방위업을 추진시키는 목적에서 분석함으로써 리론발전에서의 획기적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로동운동의 실천적리익에 력사적인 기여를 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전략전술원칙의 기본을 해명하여 놓았으며 《초제국주의론》, 《순수제국주의론》을 비롯한 수정주의조류들에 결정적타격을 주었다.

레닌의 제국주의리론은 열렬한 혁명성과 엄격한 과학성의 통일을 빛나게 구현하고있으며 맑스주의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력사적인 기여를 하였다.

레닌은 얻을수 있는 모든 현실자료들과 제국주의에 관한 온갖 선행저작들을 체계적으로 엄밀히 연구분석하였으며 방대한 사실들에 대한 지식과 맑스주의적분석에 기초하여 제국주의의 본질과 특성을 낱낱이 밝혀놓았다. 레닌의 제국주의리론은 그 과학적정확성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수중에 위력한 무기를 쥐여줄수 있었다.

레닌은 제국주의에 관한 과학적연구에서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맑스주의를 발전시키는 창조성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맑스가 《자본론》에서 전개한 자본주의에 관한 과학적분석에 엄격히 의거하는 동시에 독점의 지배적역할과 관련하여 발생한 새로운 사회경제적조건에서 《자본론》의 명제들을 발전시키고 보충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제국주의의 새로운 조건하에서의 자본주의발전의 정치적, 경제적 불균등성의 법칙의 작용을 구명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1국사회주의 혁명승리에 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혁명적리론을 내놓을수 있었다.

레닌은 새로운 사회경제적조건에서 맑스주의의 기본원칙들을 고수하면서 그것을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맑스주의를 새롭게 발전시킬수 있었다.

제국주의리론의 작성에 있어서 레닌이 견지한 확고한 혁명적립장, 맑스주의기본원칙에 대한 충실성과 창조적태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한 리론사업의 유일하게 옳은 립장이며 바로 이러한데로부터 출발함으로써 그는 력사에 빛나는 위대한 로작을 창조할수 있었던것이다.

레닌의 제국주의리론의 정당성은 국제로동계급과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의 혁명적실천, 력사의 발전에 의하여 증명되였다.

레닌이 가리킨 길을 따라 로동운동은 승리적으로 전진하였으며 특히 로씨야로동계급은 위대한 10월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달성하였고 2차세계대전이후 일련의 나라들이 자본주의세계체계에서

떨어져나와 사회주의적발전의 길로 전진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이 독립을 달성하고 제국주의식민지체계는 그 근저로부터 무너지게 되였다.

레닌의 제국주의에 관한 리론은 오늘도 제국주의의 모순적발전행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국제로동운동, 반제투쟁을 옳은 길로 발전시켜나가는데 있어서 지침으로 되고있다.

⁂ ⁂

오늘 제국주의는 그 발전의 내적 및 외적 조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일련의 특성을 가지게 되였으며 현대제국주의의 정치와 경제는 레닌이 《제국주의론》을 쓰던 당시에 비하여 새로운 현상들을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 레닌이 지적한 국가독점자본주의경향은 훨씬 더 강화되였다. 제국주의국가기구는 정치분야에서 파쑈적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군국주의를 미증유의 정도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경제분야에서 독점들의 리익을 위하여 더욱더 간섭과 《조절》을 자행하고있다.

제국주의는 강대한 사회주의진영이 있고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는 조건에서 과거에 쓰던 직접적인 강점과 로골적인 략탈의 방법에 계속 매여달리는 동시에 더욱더 은페된 교활한 신식민주의적수법을 많이 적용하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국내에서 기술발전의 최신성과들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비상히 강화하는 동시에 방대한 제국주의초과리윤의 일부로써 개별적로동자층을 매수하여 인민대중을 회유기만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광범히 전개하고있다.

대외적으로 침략과 전쟁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그 어느때보다도 요란하게 평화에 대하여 떠벌리고있다.

제국주의발전과 제국주의정책에서의 일련의 변화들은 부르조아어용리론가들에 의하여 자본주의를 미화하고 인민을 기만하는 목적에 리용되고있으며 로동운동내부에 있어서도 이러저러한 기회주의적조류들을 조장시키고 있다.

부르조아리론가들은 마치도 제국주의세계에 그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자본주의가 달라져가고있는듯이 말하고있다. 그들은 국가에 의하여 경제가 《계획적으로 조절되고》있으며 생산수준이 현저히 높아진 현대자본주의는 맑스가 특징지었고 레닌이 연구한 그러한 자본주의가 아니며 《자본가와 프로레타리아가 없는》 《시정된 자본주의》라고 주장하고있다.

로동운동내의 기회주의적조류들도 현대자본주의의 《질적》변화에 대하여 떠들어대며 제국주의본성에서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나 한듯이 말하고있다. 그들은 이러한데로부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에서 떠난 사회적진보와 계급적해방의 《새로운》 방도들이 나타난듯이 떠벌리고있다.

현대자본주의, 제국주의에 대하여 그것이 마치 레닌이 그 본질을 해명한 과거의 제국주의와 질적으로 다른것인듯이 주장하는 견해들은 현실을 란폭하게 외곡하는것이며 개별적인 현상들의 피상적고찰로써 레닌의 과학적인 제국주의리론을 대체해보려는 부질없는 책동이다.

레닌의 제국주의에 관한 불후의 로작들에서 전개된 맑스주의적리론들은 오늘의 제국주의를 정확히 분석하여 로동운동의 옳은 길을 찾는데 있어서 의연히 확고한 기초, 지침으로 된다.

현대자본주의발전에서의 이러저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토대는 의연히 생산수단에 대한 사자본주의적소유이며 독점의 지배이다.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분석하였던 제국주의의 기본적인 세 특징은 변하지 않았다. 제국주의는 오늘날에도 의연히 레닌이 분석한 그 경제적토대우에 서있다. 주요 제국주의국가들에서의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지배는 자본주의의 경제적기초를 변화시키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자본주의적생산의 사회화를 더욱 촉진함으로써 생산의 사회적성격과 사자본주의적점유형태간의 모순을 더욱 첨예화시켰다.

제국주의독점들이 지배하고있는 현대자본주의국가들의 대내외정책, 그 략탈적,침략적 본성도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횡포하고 파렴치한것으로 되였다. 제국주의는 제국주의로 남아있는한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 대외침략과 략탈의 정책을 버릴수 없다.

제국주의는 최근시기에 이루어진 기술적진보와 로동조직의 《합리화》에 의하여 그리고 계속되는 식민지약소민족들에 대한 략탈에 의하여 더욱 비대해졌으며 부유해졌다. 그러나 맑스가 지적한바와 같이 자본의 가장 중요한 본성은 잉여가치에 대한 무제한한 탐욕에 있으며 제국주의독점들은 끝없는 치부욕을 채우기 위하여, 제국주의하에서도 계속 첨예한 경쟁에서 견디여내기 위하여 저들의 리윤을 증대시키는데 그 어떠한 방법도 서슴없이 적용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은 우리 시대에 더욱 야수적인것으로,가장 횡포한것으로 되였다. 현대제국주의의 대외침략정책에서 시장과 원료를 위한 투쟁이 계속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동시에 사회주의와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군사적정치적목적이 과거보다 더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예속국가들에 대한 략탈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뿐만아니라 사회주의진영과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반혁명적인 목적으로부터 그 어느때보다도 전쟁준비와 침략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비롯한 강대한 혁명력량이 그와 대치하고있는 현시기조건하에서 한편에 있어서는 로골적인 침략과 전쟁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더욱 교활한 기만술책에 매여달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하여 뻔뻔스럽게도 《평화와 협조》를 《제창》하면서 사실상 가장 흉악한 침략과 파괴활동을 진행하고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큰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세를 일시 완화시키면서 분렬되여있거나 작은 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하여서는 로골적이며 직접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는 흉계를 쓰고있다. 오늘 웰남에서의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과 우리 나라에 대한 부단한 전쟁도발책동, 꾸바를 반대하는 흉악한 적대행동 등은 이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의 야수적,침략적 본성은 결코 변할수 없으며 제반 사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것은 오늘 더욱 악질적인것으로 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의 발전행정을 분석하면서 그것에 고유한 모순들이 불가피적으로 더욱 격화된다는 과학적결론을 지었다. 우리는 제국주의발전이 레닌의 말대로 제국주의모순들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오늘에도 또한 그러하다는것을 보게 된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 독점자본과 그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는 근로대중간의 모순은 더욱 첨예한 성격을 띠게 되였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 사회의 한극에는 더욱 거대한 재부가 집중되고 다른 한극에서는 빈궁과 무권리가 더욱 심해졌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은 로동자들을 회유기만하기 위한 각종 교활한 시책들을 광범히 적용하고있다. 그러나 최근시기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로동강도가 비할바 없이 높아졌으며 실업이 증대되고 로동계급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였다.

로동력의 가치와 로임간의 배리는 더욱 커지고있으며 군국주의의 미증유의 강화와 군사비부담의 증대는 근로대중의 빈궁화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오늘 어느 제국주의나라들에서나 로동계급의 압도적부분은 최저생활비에 비하여 엄청나게 적은 로임을 받으면서 부단한 실업의 공포속에 그날그날을 살아가고있다. 특히 미숙련로동자, 녀성 및 소년로동자들, 가내공

업군에 망라되고있는 빈민들, 실업자들과 반실업자들의 처지는 말할수 없는 처참한 형편에 있다.

자본주의제도가 남아있는한, 독점들의 지배가 남아있는한 로동과 자본간, 근로대중과 착취자들간의 모순은 격화되여가지 않을수 없다. 현실은 이것을 실증하고있다.

제국주의와 그 억압략탈의 대상인 식민지예속국가들, 약소국가들간의 모순 역시 더욱 첨예해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예속국가들에 대하여 저들의 괴뢰를 내세우면서 형식적인 독립을 《허여》하며 기만적인 신식민주의정책을 실시하는 방법에 더욱더 매달리고있으나 이것은 제국주의자들과 이 나라 인민들간의 모순을 결코 약화시킬수 없다. 더우기 식민지체계의 붕괴에 겁집한 제국주의자들이 로골적인 무장간섭과 식민주의전쟁을 도처에서 벌려놓고있는 오늘 제국주의와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간의 모순은 가장 첨예한 형태를 띠지 않을수 없다.

레닌이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약소민족들을 예속시키고 가혹하게 략탈하고있는한, 식민주의제도가 엄연히 잔존하고있는한 제국주의와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간의 모순이 격화되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오늘의 현실은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레닌은 제국주의렬강들간의 불가피한 모순의 경제적조건과 제국주의의 발전에 따라 그것이 더욱 격화되는 합법칙성을 해명하였다.

오늘 세계에 있어서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은 과거에 비하여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사회주의진영의 위력이 부단히 강화되고 민족해방운동이 급속히 확대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제국주의나라들은 세계의 혁명력량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호상협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2차대전후 제국주의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립장에 선 미제국주의자들은 제국주의 나라들의 반혁명적 결탁에서 주도자, 조직자로 나섰다. 그러나 제국주의본질과 제국주의 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은 그들간의 모순을 부단히 산생시키고 격화시키지 않을수 없다.

현대자본주의의 조건에 있어서도 레닌이 해명한 제국주의발전의 불균등성법칙은 의연히 객관적법칙으로 남아있으며 그 작용은 제국주의나라들간의 모순을 격화시키고 그것들의 반동적, 반혁명적 야합을 내부로부터 약화시키며 파괴하고있다.

두번에 걸친 세계대전에서 다 패하였던 서부독일이 이미 1950년대말에 자본주의공업생산에서 영국을 밀어제끼고 제2위에 올라섰으며 일본 역시 최근년간에 프랑스와 이딸리아를 물리치고 제4위로 되였다. 오늘 자본주의렬강간에 시장을 위한 투쟁은 더욱 맹렬히 벌어지고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서부독일, 일본 등 렬강간에 상업전쟁, 환자전쟁이 치열히 전개되고있으며 판매시장확보를 위한 집단적관세정책이 실시되고있다.

제국주의렬강의 경제력, 군사력 등의 호상관계에서의 변화는 렬강들간의 경쟁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그들간의 갈등을 격화시키고있다.

오늘 제국주의는 사회주의진영과 날카로운 모순관계에 처하여있다.

사회주의진영은 제국주의침략과 전쟁정책을 제어하는 가장 강력한 력량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식민지 및 예속국가 인민들의 민족해방혁명과 전세계인민들의 반제 반독점투쟁을 무한히 고무하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진영을 저들의 원쑤로 치부하고있으며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에 모든 수단을 다하고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의 본성,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제도의 근본적인 적대관계로 하여 불가피한것이다.

레닌이 《제국주의론》을 창작할 때 세계에는 사회주의진영과 제국주의간의 모순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순의 발생과 발전의 합법칙성 그 첨예한 성격은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의 분석에 의하여 명백히 리해될수 있으며 또 레닌은 이에 대하여 10월혁명후 로작들에서 그 기본적문제들을 밝혀주었다.

제국주의가 직면하고있는 모든 모순들의 격화는 제국주의를 더욱 약화시키고 그 멸망을 추진하고있다. 제국주의는 온갖 발악을 다하며 여러가지 교활한 수법에 매달리고있지만 그 필연적인 멸망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승리하는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사회주의를 비롯한 세계혁명력량의 장성과 식민지체계의 붕괴로 말미암아 제국주의세력은 현저히 약화되였다. 제국주의의 내부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있으며 제국주의렬강간의 갈등이 격화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강력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제국주의멸망은 력사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이다. 그러나 온갖 반동세력이 그러하였던바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도 결코 자진하여 력사무대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은 궁지에서 빠져나갈 출로를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있으며 발광적으로 날뛰고있다.

세계인민들은 힘을 합쳐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력사에 의하여 사형을 선고받은 제국주의를 실지 멸망시킬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인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세계도처에서 제국주의, 특히 그 괴수인 미제를 고립시키고 계속 타격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어 그들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시켜야 하며 미제가 발을 들이고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이 함부로 날뛸수 없게 손발을 얽어매놓아야 한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오늘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굳게 단합함으로써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와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세계인민들의 반제투쟁을 결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은 특히 오늘 미제와의 투쟁에서 초점으로 되고있는 월남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백방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미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단호한 반격을 가하여 그들의 전쟁정책을 결정적으로 파탄시켜야 한다.

세계도처에서 배척당하고 타격받고있으며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의 항거에 부딪쳐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있는 제국주의의 멸망은 불가피하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국주의는 강한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사상루각과 같은것이며 그 멸망은 불가피하다. 히틀러가 그랬고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그러하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면서 허장성세하지만 그들 역시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제국주의에 관한 레닌의 리론은 국제로동계급과 반제투사들에게 쥐여진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레닌의 제국주의리론은 국제로동계급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는데 헤아릴수 없는 기여를 하였다.

레닌의 제국주의리론은 오늘도 그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레닌의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제국주의리론의 기본명제들에 의거하여 정확한 투쟁방침을 규정하며 레닌이 가르친대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혁명적으로 투쟁하는것은 국제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계속 승리적으로 완수해나가는 중요한 담보이다.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결탁

현 명 준

오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를 침략하고 이 지역 인민들을 반대하기 위한 반동적인 결탁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이 손아래 동맹자로 길러온 일본군국주의를 아세아 침략정책의 《돌격대》로 본격적으로 리용하고있다. 한편 일본반동세력은 상전의 침략정책에 편승하여 저들의 옛《신지》를 회복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날로 로골화되는 미일의 이러한 침략적야합은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엄중하게 위협하고있다.

음흉한 결탁의 력사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를 침략하는데서 력사적으로 공모결탁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미일반동들의 결탁은 력사적인 뿌리를 가지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아세아에서 지배권을 수립하기 위한 미일반동들의 침략적결탁은 벌써 지난 세기 60년대부터 시작되였으며 그것이 더욱 로골화된것은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이르러서였다.

미국은 19세기말에 이미 공업생산에서 다른 구라파렬강을 앞섰으며 제국주의적대외침략을 실현할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제국주의단계에로 이행함에 따라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은 더욱 본격화되였다. 1905년에 미국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는 《나는 우리의 장래가…대서양상의 미국의 지위에 의해서가 아니라…태평양상의 지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한다》고 공언하였다.

미제는 이러한 침략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을 거쳐 중국대륙, 특히 만주에 침투하려 하였고 중부태평양을 거쳐 필리핀에 침략의 마수를 뻗쳤다. 미제는 필리핀을 탈취함으로써 아세아에서 저들의 첫 침략적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당시 아세아대륙에서 자기의 경쟁자들을 밀어내고 독점적지배를 수립할수 있을만큼 군사, 경제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여있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 《명치유신》이후 아세아에서 제일 먼저 자본주의길에 들어선 군사—봉건적일본자본주의는 자체의 세력권획득과 령토적략탈을 위하여 이웃나라들에 대한 침략을 갈망하고있었다. 대외침략을 위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야망은 19세기중엽이래 아세아에서 격화된 제국주의적경쟁과 관련하여 더욱 증대되였다. 이 시기 조선, 중국 등 아세아의 광대한 시장을 둘러싼 자본주의렬강간의 암투는 매우 첨예화되였다. 이러한 사태는 일본의 군사—봉건적자본주의로 하여금 대외진출에 대한 초조감을 더욱 느끼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일본자본주의는 그 후진성으로 하여 아직 독자적으로 다른 렬강들과 경쟁할만한 힘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레닌이 지적한바와 같이 《**일본은 동방제국, 아세아제국을 략탈할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러나 다른 나라의 지지없이는 여하한 독자적인 재정적 및 군사적 력량도 가질수 없》**(레닌전집 제31권, 265페지)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일의 공모와 결탁은 그들이 서로 리용하고 서로 보충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다른 식민지렬강을 밀어내고 자기의 세력권을 확립하려는데 있었다.

미제는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야욕을 고무하고 추동하여 조선과 만주에서 짜리로씨야와 만청세력을 구축견제하고 이 지역에 자본을 더욱 침투시킴으로써 아세아에서 침략적지반을 강화하려 하였다.

이 시기 미일간의 침략적결탁은 특히 조선에 대한 그들의 침략책동에서 가장 로골적으로 나타났다.

미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을 강점하도록 공공연히 고무하면서 그들에게 막대한 군사《원조》와 외교적《지원》을 주었다. 미국침략자들은 1876년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정부를 위협하여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추동하였고 1882년에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공모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을 로골적으로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일의 결탁은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시기에 더욱 로골화되였다. 미제는 로일전쟁에서 일본의 편에 서서 그를 원조함으로써 조선과 만주에서 짜리로씨야세력을 구축하고 장차 이 지역에 지배권을 확립할것을 타산하였으며 그를 발판으로 하여 더욱 더 깊이 아세아대륙에 침략의 마수를 뻗칠것을 계획하였다. 당시 미국침략자들이 《일본은 우리가 꾸민 연극을 놀고있다》라고 말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제가 조선과 만주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적극 고무하고 지지한것은 또한 군국주의적일본의 남진정책을 견제하며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하려는 것과도 관련되여있었다.

그것은 1905년 7월에 있은 《타프트—가쯔라비밀협정》에서 미제가 조선에 대한 일제의 강점을 승인하는 대가로 일본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통치권을 존중하며 조선에서의 미국의 경제적리권을 건드리지 않을것을 약정한데서 명백히 드러났다.

이 《비밀협정》은 같은 해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였을뿐아니라 이른바 《통감정치》로써 사실상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든것을 예견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케 하고 그후 1910년에 《합병조약》을 통하여 조선을 완전히 삼켜버리게 하는데서 중요한 추진력으로 되였던것이다.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일제국주의자들의 공모와 결탁은 10월혁명후 주로 쏘련을 반대하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의 민족해방력량을 교살하는데 돌려졌다.

미국은 1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상당한 정도로 자본을 축적한 일본과의 사이에 심각한 모순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대륙침략전쟁과 강점지역에서의 그의 야만적인 통치를 적극 지지하고 고무하였다.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아세아대륙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하는 길에 들어섰던 시기에 당시 미국무장관 스팀손은 이렇게 말하였다. 일본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있다…우리의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이며 원대한가 하는것은 그것이 없이는 일본의 침략은 상상할수 없다는데서 잘 알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제가 일제의 아세아침략의 가장 음흉한 공모자였으며 력사적으로 조선인민과 아세아인민의 원쑤라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본의 리익에 기초하여 형성된 미일간의 결탁은 결코 공고할수 없으며 그들 사이에서 격화되는 모순과 갈등을 배제할수 없었다.

레닌이 지적한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의 경제발전은 《…태평양과 그 연안에 대한 지배를 위한… 결사적인 싸움을 불가피한것으로 만드는 막대한 량의 가연성(可燃

生)재료를 준비하였다》(레닌전집 제27권, 464페지). 한때는 다른 렬강들을 밀어내고 아세아에 대한 침략적야욕을 실현하는데서 야합하였던 두 야수는 자본의 법칙에 따라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에 뛰여들지 않으면 안되였다.

태평양전쟁의 결과 아세아에서 장기간 기승을 부리던 일제는 패망하였고 일본은 미제의 군사적강점하에 놓이게 되였다.

력사의 《반복》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결탁은 제2차대전후 종속적동맹관계하에서 새로운 형태로 다시 나타났다. 새로운 조건하에서 미일결탁의 력사가 또다시 반복되고있다.

《미제와 일제는 서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아침략에 대한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종속적동맹관계에 얽혀있으며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결탁하고있다》(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현시기 더욱더 강화되고있는 미일반동들의 침략적결탁은 2차대전후 세계와 아세아에 조성된 변천된 정세, 일본이 처한 특수한 위치와 관련되여있다.

2차대전후 아세아의 력량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였다. 아세아를 수십수백년간 략탈하던 식민주의세력은 구축당할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 이 지역에서의 사회주의력량의 급속한 장성과 민족해방력량의 강력한 진출에 의하여 제국주의의 지반은 전면적붕괴에 직면하게 되였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미제로 하여금 아세아에서 저들의 위기를 만회하기 위하여 일본군국주의를 본격적으로 부활시키는 길에 들어서게 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일본이 처한 군사전략적위치, 발전한 공업잠재력, 야수적인 침략《경험》 등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면서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저들의 아세아전략수행의 일익으로 육성하였다.

전후 일본에 대한 미제의 이러한 손아래 동맹군육성정책의 기본은 일본을 미군의 작전 및 후방공급 기지로 리용하는 동시에 일본의 재무장화정책을 급속히 추진시킴으로써 일본군국주의를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력량을 반대하는 《돌격대》로 직접 동원하는데 있었다.

한편 패전의 결과 과거 식민지들을 다 잃어버렸을뿐아니라 아세아에서 급속히 장성하는 혁명력량, 특히 일본민주력량의 강력한 진출에 부닥쳐 전전긍긍하지 않을수 없었던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미제의 소매자락에 매달려 《살길》을 찾으려 하였고 상전의 침략정책에서 저들의 리해관계와의 일치점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세력권쟁탈을 위하여 피를 토하며 싸우던 두 야수들이 반동적, 침략적 목적을 위하여 다시 야합하게 되였다.

현시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결탁은 또한 일본이 발전된 자본주의국가이면서도 아직 미국의 반점령상태하에 놓여있으며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과 종속적관계를 유지하고있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미제에 대한 일본의 이러한 종속적관계는 2차대전후 미제의 대일정책의 결과로써 형성되였으며 미일《안전보장조약》에 의하여 합법화되고있다. 미제는 이 《조약》을 통하여 일본에 대한 군사기지화정책과 일본의 군사, 정치적 및 경제적 종속상태를 법적으로 고정시키고있으며 아세아침략전쟁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공동작전》에 참가할 의무를 지우고있다.

현재 일본본토에는 근 200개의 미해공군기지들이 분포되여있고 4만～5만명의 미군이 상시적으로 주둔하고있다. 일본령토의 불가분의 하나인 오끼나와와 오가사하라는 미군의 《영원한》 군사적점령하에서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

해방력량을 반대하는 최대의 미군핵로케트기지로, 작전 및 보급 기지로 되고있다. 이와 함께 일본에 있는 미군사《고문단》은 일본의 륙해공군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군사적측면에서 일본《자위대》는 무력장비, 지휘체계, 편제는 물론 인적구성에서도 강한 대미예속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자위대》기본장비의 많은 부분이 미군에 의하여 제공된것이며 자국내에서 생산한 무기의 대부분도 미국의 설계에 의하여 제작된것이다. 《자위대》는 사실상 미군의 지휘하에 있으며 그 편제도 미군의 편제에 의거하고있다.

《자위대》의 인적구성을 보면 골간의 적지않은 부분이 미국에서 훈련받은자들이거나 재일주둔미군에 의하여 훈련받은 자들이다. 이러한 사정은 일본《자위대》의 강한 대미종속적관계를 말하여준다.

일본은 군사정치적측면에서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있다. 미국독점자본은 각종 《원조》, 자본투하, 《기술제휴》, 《합영기업》 등을 공간으로 일본경제에 깊이 침투하여 중요한 경제명맥에 대한 큰 영향력을 가지고있다.

일본은 자본, 기술, 원료, 시장 분야에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있는데 일례로 일본의 외자도입총액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몫은 현재 90%에 달한다. 대외무역에서 일본은 중요 원료수입을 거의나 미국에 의존하고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의 군국주의의 급속한 부활과 해외팽창에 대한 일본반동세력의 갈망, 심각한 경제적불경기는 오늘 미일결탁을 조건짓는 다른 하나의 요인이다.

미제의 비호하에 되살아나고있는 일본군국주의는 이미 해외팽창을 참망할 정도로 비대해졌고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자라났다. 일본반동지배층들은 해외팽창을 실현할수 있는 경제적 및 군사적 준비가 이미 상당하게 진척된 조건에서 대외침략을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그들은 이러한 기회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력에 상응한 자위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자위대》를 본격적으로 실전화, 핵전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있으며 현행헌법의 개정, 일미《안보조약》의 재연장 등 군국주의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그런데 아세아의 변천된 정세와 관련하여 자기보다 큰 세력을 얻지 않고서는 대외침략의 야욕을 실현하기 곤난하게 된 조건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와 야합하여 그와 침략정책에 편승함으로써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미제의 침략정책을 협조하면서 상전이 틔여준 길을 따라 경제적침투를 강화함으로써 헐값으로 원료를 략탈하고 체화상품을 실현할수 있는 시장을 획득하려 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제2차대전후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원조》에 기초하여 급속히 비대해졌으나 커다란 약점과 모순을 가지고있다. 즉 일본경제는 이미 제국주의적징표들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독점자본에 크게 의존하여있고 국내자원 및 믿음직한 상품판매시장의 결핍과 같은 본질적인 약점을 가지고있다. 거기에다 무역의 《자유화》로 인하여 일본시장에 물밀듯 밀려드는 미국잉여상품은 일본으로 하여금 국내시장에서조차 힘겨운 경쟁에 나서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가들이 오늘 미국상전의 《노력을 대신》하는 중요한 지원력으로서 남조선과 동남아세아에 대대적으로 침투하고있는것은 이와 같이 미제의 일방적인 요구에만 기인하는것이 아니다. 일본독점자본이 과거 저들의 식민지 및 군사적강점하에 있었던 지역에 그처럼 열을 내면서 손을 뻗치는것은 다시 제국주의적팽창의 길을 개척해 보려는것이다.

미지막으로 오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침략적결탁을 강화하고있는것은 아세아에서의 미제의 침략정책의 파산, 그들의 군사정치적위기와 관련되여있다.

미제는 그 어느때보다도 아세아에서 곤경에 빠져 허덕이고있다. 아세아인민들을 반대하는 그들의 침략정책은 련이어 파탄되고있으며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있다.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제침략자들은 웰남침략전쟁에서 또다시 쓰디쓴 패배를 맛보고있다. 오늘 웰남침략전쟁에서 당하고있는 미제의 군사전략적 및 정치적 패배는 아세아에서 위기에 허덕이는 그의 곤경을 보여주는 집중적표현이라고 말할수 있다.

미제는 아세아에서 겪고있는 이러한 위기가 심각화될수록 그를 만회하기 위하여 오래동안 손아래 동맹자로 길러온 일본군국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리용하지 않을수 없으며 그를 통하여 저들의 침략정책을 보강하려 하고있는것이다. 미제는 또한 일본독점자본가들에게 아세아의 친미괴뢰들에 대한 《원조》의 몫을 될수록 많이 분담시킴으로써 끝없는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날로 증대되는 딸라위기를 얼마간이라도 완화하려 하고있다.

결탁의 새로운 단계

현시기 미일결탁은 미제가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집중하면서 당면하여 웰남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남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준비를 강화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아세아에서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결탁은 오늘 이 지역의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력량에 대한 적대정책의 가일층의 강화를 가져오고있다.

군사적측면에서 일본《자위대》는 미제의 아세아전략수행의 일익을 직접 담당하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공동방위》라는 이름밑에 오끼나와는 물론 일본본토를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위한 군사기지로 내맡기고있다. 현재 일본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서 미군의 공격기지, 보급기지, 수리기지로 리용되고있다. 웰남전선에 출동하는 수많은 미군폭격기들과 함대들이 오끼나와와 일본본토에 그 기지들을 두고있으며 많은 미군전투부대들 역시 일본을 거쳐 웰남전쟁에 투입되고있는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웰남침략전쟁에서 진퇴량난의 곤경에 빠져 허덕이는 미제를 돕기 위해 선원, 의료일군, 기술자, 군사교관 등의 이름으로 적지않은 인원들을 파견하고있으며 미군의 주문에 따라 각종 총포와 탄약, 화약을 비롯하여 땅크, 함선, 군용차, 레이다 등 무기류들과 기타 막대한 군수물자를 공급하고있다. 그들은 웰남전쟁에서 얻어맞아 마사진 미제의 비행기, 함선 등의 수리는 물론 심지어 미군 《위안 사업》, 시체처리를 위한 관제작까지 맡아해주고있다.

일본지배층은 또한 미제의 《평화협상》음모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저들의 추종자적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내놓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서 《중립》이 아니며 이 전쟁에 가담하는것은 조약상 《의무》에 의한것이라고 공언하고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그들이 적극적인 공모자로 되고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일반동들의 침략적결탁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며 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준비를 로골화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아세아침략에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남조선괴뢰들을 일본을 비롯한 아세아의 반동들과 군사적으로 결탁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오래동안 끌어오던 <한일회담>이 미제의 조종하에 조급히 결속되였

으며 범죄적인 〈한일협정〉이 조작된것이다. 〈한일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남조선침투는 더욱 적극화되고있으며 〈한일조약〉을 기초로 하여 아세아에서 새로운 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미제의 음모도 더욱 로골화되고있다》(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미일반동들은 《한일조약》을 통하여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력량을 반대하는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사실상 조작하였으며 남조선을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공동식민지로 전락시키고있다. 《한일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사촉하에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및 군사적 침투를 더욱 본격화하고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서로 공모하여 새 전쟁준비에 필요한 현대적장비들과 각종 군사물자들을 대량적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다.

우리 나라를 반대하고 침략하기 위한 미일반동들의 책동은 이미 세상에 널리 폭로된 이른바 《세개화살작전》, 《날아가는 룡작전》, 《달리는 황소작전》계획 등에서 로골적으로 나타났다.

이 침략계획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기 위한 미제의 야랍한 군사전략의 일환으로서 미제가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을 도발하였을 경우에 미일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의 《공동작전》을 예견한것이다. 계획에 의하면 일본 《자위대》는 《안보조약》상 《의무》로 미제가 도발하는 조선전쟁에 미군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직접 출동하여 우리 나라를 공격할것을 예견하고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 침략《계획》들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각종 합동훈련을 빈번히 벌려놓고있다.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일결탁은 일본지배층들이 아세아—태평양지역에서 단일한 반공군사동맹을 형성하려는 미제의 계획을 정치, 경제적으로 적극 안받침해주고있는데서도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미제는 오늘 아세아에서 그들의 군사정치적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보다 포괄적인 단일한 반공군사동맹을 결성할것을 획책하고있다. 즉 그들은 괴뢰들과 추종국가들을 공간으로 하여 사회주의국가 및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전일적인 반공군사동맹체제를 완성함으로써 맥을 추지 못하는 세아토를 보강하는 한편 이 지역에서의 저들의 지배체제를 강화해보려 하고있는것이다.

미국지배층들은 이러한 반공군사동맹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책으로서 이른바 《경제문화》교류, 《개발》, 《지역적경제협력》 등과 같은 기만적간판을 들고 저들의 괴뢰들과 기타 국가들을 유혹하면서 그들을 경제적외피를 씌운 반공기구들에 묶어세우려 하고있는것이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이 동남아세아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침략을 강화할뿐 아니라 그들을 단일한 반공동맹에 완전히 얽어매놓으려는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미제는 재정형편의 악화로 혼자의 힘만으로써는 이 계획을 밀고나가기 곤난한 처지에서 일본의 경제력을 리용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미국무장관 러스크는 《태평양시대에서의 일미의 사명》에 관한 일본외상 미끼와의 담화에서 《우리들간의 동료관계를 아세아지역에서 강화해나가는것이 요망된다. 그러나 미국의 립장에서 보면 일본이 지도성과 이니샤티브를 가지고 아세아지역에 참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즉 미제가 침략적인 단일한 반공군사동맹체제를 완성하자고 하는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주동적인 역할이 요망된다는것이다. 오늘 미국지배층들이 떠드는 이른바 《태평양시대》구상은 사실상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들이 지금 《아세아—태평양권구상》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선전하면서 《원조》, 《공동개발》, 《경제협력》 등 《경제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고있는것은 바로 상전의 그러한 요구를 반영한것이다. 그들은 벌써 《동남아세아경제개발각료회의》, 《동남아세아농업개발회의》, 《아세아 및 태평양지역 각료회의》, 《아세아개발은행》 창립총회 등에서 미제의 손아래 동맹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왔다.

이미 우에서 언급하였지만 현재 일본지배층들이 대미 종속하에서 미제의 침략정책을 적극 협력하여나서고있는것은 자체의 대외팽창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와 야합하고 그의 웰남침략전쟁, 조선에서의 새 전쟁준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국내에서 파쑈체제를 강화하고 해외파병을 실현할 길을 개척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가 아세아침략에 대한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더욱더 침략적인 결탁을 강화하고있으며 그것이 극히 위험한 국면에 이르고있음을 보여준다.

미일결탁의 위험성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

종속적관계하에서의 미일반동들의 침략적결탁, 이것은 오늘 아세아에서 인민들의 민족적독립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은 그의 《돌격대》로 육성된 일본군국주의의 각 방면에 걸친 적극적인 협조에 의하여 보강되고있다. 다른 한편 일본군국주의는 세계반동의 지주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인 미제와 결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큰 위험성을 띠고있다.

오늘 미일반동들의 침략적결탁이 가지는 위험성은 무엇보다도 세계반동의 두목인 미제와 가장 침략적인 군사—봉건적군국주의의 후예들인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침략적야합을 강화함으로써 아세아와 극동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독립과 안전을 위협하고있는데 있다.

미일결탁의 위험성은 또한 일본군국주의의 부활과 파쑈화를 더욱 촉진시키며 그의 침략성을 급속히 증대시키는데 있다.

미일간의 모순을 일면적으로 과대평가하고 그들간의 종속적동맹관계를 간과하며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여서는 안된다.

일본독점자본주의의 경제력이 급속히 증대되고 제국주의진영에서 미제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저하됨에 따라 미일간의 모순이 커질수 있다.

그러나 현시기 미일간의 모순을 과대평가하여서는 안된다. 현단계에서 미일간의 모순이 일정하게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종속적동맹관계를 변경시킬수는 없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자주외교》를 표방한다고 하여 그들이 대미추종정책을 변경한것은 결코 아니다. 일본지배층들이 《자주외교》에 대하여 말하는것은 현일본반동정부의 대미추종정책을 반대하는 일본인민과 세계인민들을 기만하고 무마하기 위한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결탁이 가지는 위험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그것을 철저히 폭로분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중요한 일환이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중요시하여야 하며 일치한 행동으로써 그의 침략적야망을 파탄시켜야 할것이다》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미일반동들의 침략적결탁을 반대하여 투쟁하는데서 그 결탁의 지주로 되며 주도적역할을 하고있는 미제에게 투쟁의 예봉을 돌리는것이 중요하다.

미제는 세계반동의 두목으로서 가장 침략적인 제국주의국가이다. 미제는 우리 인민의 첫째가는 원쑤일뿐아니라 아세아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며 주되는 투쟁대상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사회주의력량과 민족해방력량, 모든 진보적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에서 제일 앞장에 서있으며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평화를 위협하고있다.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실현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미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면서 동시에 그와 결탁하고있는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철저히 투쟁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본과 서부독일은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또다시 새로운 전쟁온상으로 자라나고있다.

일본군국주의는 이미 아세아에서 새 전쟁의 위험한 세력으로 등장하고있다.

만약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그를 반대하여 철저히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제의 침략정책을 더욱 조장하여주며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성을 길러주는것으로 될것이다.

세계의 반제력량은 일본군국주의의 위험한 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가지고 대하여야 한다.

지금 일본지배층들은 저들의 강도적 침략야욕을 가리기 위하여 극히 교활하게 행동하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하고있으며 심지어 반제전선대렬에 기여들려고까지 꾀하고있다.

오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결탁을 폭로하고 그를 분쇄하는것은 아세아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절박한 과업으로 되고있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결탁을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을 반대하여 힘차게 싸우고있는 일본인민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며 그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것이 중요하다. 일본인민의 반미반독점투쟁에 대한 전투적련대성과 미일반동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뗄수 없다.

모든 반제력량은 미일반동을 반대하는 일본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그 투쟁의 선두에 서있는 일본공산당의 정당한 자주적립장을 무조건 지지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으며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싸우고있는 일본공산당과 일본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있다.

아세아에 대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책동은 각성된 일본인민과 전체 아세아인민들, 그리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분쇄되고야 말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돌격대>로 나서는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무모한 행동과 같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그들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뿐이다.

근로자 제4호 (루계 302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로자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illegible]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7년 4월 25일　　발　행 • 1967년 4월 30일

ㄱ—73117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5 호

평양 근로자사 1967

근로자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5 호 (303)

차 례

보천보전투승리 30주년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반일민족해방투쟁에 불멸의 업적과 위훈을 남긴 조선인민혁명군의 보천보전투승리 30주년을 맞이한다.

우리 인민은 공산주의의 붉은 기치, 민족해방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행로를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본다.

1937년 6월 4일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항일유격대는 적들이 《금성철벽》으로 자랑하던 삼엄한 국경경비망을 돌파하고 보천보에 진공하였으며 적들을 일격에 소탕하고 혁명의 홰불을 높이 추켜들었다. 보천보에 타오른 혁명의 불길은 일제침략자들을 공포속에 떨게 만들었으며 일제에 짓밟히여 원한과 고통이 사무쳤던 조국산천에 민족재생의 앞길을 휘황하게 밝혀주었다.

이 혁명의 홰불은 오늘도 항일유격대가 개척한 길을 따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을 힘차게 고무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보천보전투승리 3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 조선인민의 운명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항일무장투쟁을 령도하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함으로써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신 조선인민의 탁월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존경과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혁명투사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일편단심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실할것을 굳게 다짐하고있으며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려는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보천보전투는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15성상의 기나긴 나날을 하루와 같이 싸워 승리한 항일무장투쟁의 전투적로정을 빛나게 장식한 중요한 작전의 하나이다. 그것은 일제식민지통치를 전복하고 빼앗긴 조국을 찾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전투였다.

김일성동지는 녕안현 남호두회의와 무송현 동강회의에서 당시 국내외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혁명투쟁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방침에 따라 반일민족통일전선체로서의 조국광복회가 결성되고 백두산서남부일대에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가 창설되였으며 이를 거점으로 무장투쟁은 더욱 확대발전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급격한 확대발전에 당황망조한 일제는 식민지폭압정책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 조선인민을 가혹하게 탄압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민족적비운에 잠겨 가장 암담한 처지에서 신음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조성된 정세에서 일제의 발악적책동에 결정적타격을 주고 인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해방의 신심을 안겨주기 위하여 일제의 국경연선 군사정치적요충지의 하나인 보천보에 대한 진공작전을 직접 계획하고 조직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지휘밑에 달성된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위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 의의는… 조선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신념을 북돋아주는 혁명의 서광을 비쳐준데 있다. 보천보전투는… 조선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일본놈과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전 세계에 선포하였다. 이것이 보천보전투의 전략적의의이다. 여기에 보천보전투의 력사적의의가 있는것이다》 (김일성선집 제5권, 504～505페지).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일제의 식민지폭압이 최고절정에 달하였던 그 암담한 시기에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실로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일제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주었으며 당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앙양과 그 확대발전을 가져왔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조선인민의 민족적영예를 고수하고 백절불굴의 혁명적기개를 온 세상에 떨친 가장 영광스러운 투쟁이였으며 이 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루어졌다. 항일무장투쟁에서 혁명투사들이 남긴 고매한 혁명정신과 불멸의 혁명업적은 조선인민의 혁명운동력사에서 찬연히 빛나고있다.

* *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혁명적 새 시기를 열어놓았다.

조선인민은 일제의 우리 나라 강점을 전후한 시기부터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하였다. 로동자, 농민들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은 1920년대부터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됨에 따라 더욱 힘차게 전개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정확한 혁명로선에 의한 통일적령도가 없었고 혁명력량이 단합되지 못하였음으로 하여 많은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1920년대말～1930년대초에 이르러 일제의 폭압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합법적활동의 온갖 가능성이 완전히 말살되였다. 실로 이 시기는 조선혁명의 전도가 지극히 암담하고 민족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있던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당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통일된 력량으로 굳게 단합되여 일제를 반대하는 결정적투쟁에 나설것을 열망하였으며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할 탁월한 수령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하게 기다렸다.

조선혁명의 이 절실한 요구는 바로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선두에 확고히 서시여 맑스—레닌주의의 기치하에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함으

토씨 빛나게 실현되였다.

김일성동지는 조성된 혁명정세와 선행시기의 모든 투쟁의 교훈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반혁명무력에 혁명적무력으로 대항하는 무장투쟁을 조선혁명운동의 주되는 투쟁형태로 규정하고 항일유격대를 친히 창건하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한 항일유격대의 창건과 무장투쟁의 개시는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전면적으로 새롭고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한 항일무장투쟁은 가장 결정적인 최고형태의 투쟁으로서 다른 모든 형태의 대중운동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으며 일제강점자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주었다.

김일성동지는 맑스-레닌주의와 조선혁명실천과의 유기적통일을 실현하고 명확한 혁명로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였으며 투쟁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난국들을 타개하면서 항일유격대와 인민대중을 항상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 김일성동지는 동만의 여러 지역에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력량을 축적하는 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다. 유격근거지에서는 혁명정권이 수립되고 제반 민주주의적시책들이 실시되였으며 혁명투쟁은 성과적으로 발전하였다.

적들의 전면적인 봉쇄와 대규모적인 《토벌》공세앞에서도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은 4~5년이란 오랜기간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고 불사조와 같이 싸워 혁명의 근거지를 끝까지 지켜내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1930년대후반기에 보다 광활한 지역에 진출하여 령활한 유격전술로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특히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이 밝혀준 휘황한 길을 따라 각 지방에서 정치, 군사 활동을 일층 강화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간고한 투쟁의 나날 일제의 폭압밑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을 한시도 잊지 않았으며 오직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적들의 첩첩한 포위망을 뚫고 백두의 설령을 피로 물들이면서 영웅적으로 싸웠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항일유격대는 항상 주도권을 틀어쥐고 능숙하게 집중, 분산, 이동하며, 적극적인 공격으로 적을 타격소멸하며, 속전속결로 적들에게 미처 손쓸 틈을 주지 않는 령활한 전술로써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가장 간고한 조건에서 항상 승리를 쟁취하였다.

항일유격대와 정치공작원들의 희생적인 활동에 의하여 무장투쟁과 조국광복회운동은 급속히 확대강화됨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광범한 혁명력량이 유일적인 혁명로선에 기초하여 굳게 결속되여나갔으며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은 일대 앙양을 이룩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1940년대에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보존하면서 소부대로 나뉘여 군사정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김일성동지는 항일무장투쟁을 령도하는 전 행정에서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갖추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전취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을 실현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명성은 항일유격대의 줄기찬 투쟁소식과 함께 전체 인민들속에 힘있게 퍼져갔으며 그들을 더욱 힘차게 반일투쟁에로 고무추동하였다.

조선인민은 일제의 파쑈적폭압이 최고절정에 이른 간고한 시기에도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조선인민의 탁월한 령도자로 우러러보면서 오직 그이에게 자기들의 모든 희망과 기대를 걸고 절대적인 신임과 존경

을 가지고 그이의 전사되기를 진심으로 념원하였으며 그이께서 가리키는 길을 따라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투쟁에 한결같이 일떠섰다.

항일혁명투사들이 15성상의 장구한 기간 혁명군중의 원호외에는 그 어떤 지원도 없는 간고한 조건에서 수천만의 간고한 전투를 거듭하면서 원쑤들과 싸워이길수 있었던것은 그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시종일관 그에 무한히 충실하였기때문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명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나아가는 투쟁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약속되여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이를 모신 사령부를 목숨바쳐 끝까지 보위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이 주신 과업이라면 그것이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라할지라도 무조건 접수하고 끝끝내 관철하고야 말았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수령이 제시한 혁명로선과 제 방침을 철저히 옹호하였으며 그와 배치되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어떤 사소한것이라도 용서없이 제때에 타격을 주었다. 그리하여 혁명대오의 조직사상적통일과 맑스—레닌주의적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였다.

수령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항일혁명투사들은 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한결같이 투쟁하였으며 빛나는 혁명업적을 쌓아올리고 마침내 조국의 해방을 달성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가 마련되고 혁명적무력건설, 인민혁명정권의 수립, 반일민족통일전선의 실현과 같은 풍부하고 고귀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이 이룩되였다.

그리고 혁명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과 불요불굴의 혁명정신,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주체사상,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등 맑스—레닌주의적사상체계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의 전통이 창조되였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이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이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 *

조선인민은 해방후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혁명발전의 매단계, 매시기에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달성할수 있었다. 해방후 우리 인민이 걸어온 지난 20년간은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확고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온 자랑찬 투쟁로정이였으며 항일혁명투사들의 뜻을 이어 우리 혁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혁명적보루를 쌓아올린 승리의 력사적행정이였다.

김일성동지는 조국의 해방과 함께 조선인민앞에 가로놓인 새로운 엄중한 난관을 타개하고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였다. 해방직후 나라의 혁명정세는 어려웠으며 혁명대렬내부의 형편은 매우 복잡하였으나 우리 당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가 있음으로 하여 그 토대우에서 지체없이 창건될수 있었다. 당의 창건은 김일성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장기간에 걸치는 투쟁과 노력의 고귀한 결실이였으며 우리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었다.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튼튼한 뿌리에서 창건된 우리 당은 모든 애로와 시련을 주동적으로 타개하면서 단시일내에 강력한 맑스—레닌주의적인 대중적정당으로 강화발전하였으며 조선인민을 령도하여 혁명을 확고한 승리에로 인도하였다.

조선인민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풍부한 혁명업적과 혁명경험에 의거하여 짧은 기간내에 자기의 인민주권을 창설하고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항일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혁명적무장력—조선인민군을 창건하고 그를 부단히 강화하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직접 창건되고 육성된 우리 인민군대는 항일유격대의 직접적인 계승자로서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진정한 무장력이다.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해방후 공화국북반부를 강력한 혁명적 민주기지로 전변시키고 그것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다짐으로써 미제침략군을 물리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승리를 달성하고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모든 운명을 당과 수령께 의탁하고 원쑤와의 판가리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뭉치여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일떠서 싸우는 조선인민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국주의괴수인 미제침략군을 타승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그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였으며 전쟁을 통하여 더욱 더 단련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우리 인민군대는 전쟁의 불길속에서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끝없이 싸우는 열렬한 혁명투사의 대부대로,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된 로혁명투사들과 함께 새로 자라난 수많은 전투영웅을 가진 강력한 혁명군대로 장성하였다.

전후 조선인민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을 창조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함에 있어서 주체사상과 자주자립의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였으며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서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였다.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이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립장이며 방침이다.

우리 당은 항상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칠저히 확립하며 전진도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하여 해결하였다.

그리하여 국제국내적으로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사소한 편향도 없이 조선혁명을 가장 빠른 길로 정확히 령도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또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였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하였으며 천리마의 진군을 계속하였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에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 주위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창조적로력투쟁에 의하여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 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민족경제의 튼튼한 자립적토대를 가

진 사회주의적공업농업국가로 발전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하에 확고히 축성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우리의 인민경제를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우리 인민의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수 있게 하는 튼튼한 담보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의 항시적인 군사적도발에 대처하여 경제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동시에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돌렸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며 인민군대를 간부화, 현대화하여 인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꾸리며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북반부는 어떤 적의 침입도 막아낼수 있는 철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우리 나라는 당과 수령의 령도하에 혁명과 건설에서 달성한 업적과 모범으로 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 기여한 공적으로 하여 그 위신과 국제적지위가 비상히 제고되었다. 오랜 시기에 걸쳐 세계의 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은 오늘 온 세계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해방후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과정은 동시에 당을 강화하고 그 수위에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워 우리의 혁명대오를 부단히 확대강화하는 행정이기도 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대중을 당주위에 확고히 묶어세우며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당원들을 혁명가로 키우며 당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인민을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는 방침을 관철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실천과 꾸준한 교양을 통하여 핵심대렬을 확대강화하고 전체 당원들의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며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우리 당원들은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시련속에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의 진군속에서 혁명가로 단련되였으며 당과 혁명에 충직한 붉은 전사로 육성되였다.

오늘 전 당에 걸쳐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한마음 한뜻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확립되였으며 우리 당은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된 오랜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우리의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이어나아가는 새로운 혁명가들로 꾸려진 160여만의 대부대로 장성강화되였다.

우리 당 수위에는 전체 인민이 결속되여있으며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였다.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단련된 우리 인민은 자기들의 사활적투쟁경험을 통하여 당과 수령을 무한히 신뢰하고있으며 자기의 모든것을 다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을 따라 나아갈것을 굳게 다짐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제도의 토대우에서 로농동맹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전 사회의 로동계급화, 혁명화과정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공고화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날을 따라 륭성발전하고있으며 우리의 혁명기지는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반석같이 다져졌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령도되는 백전백승의 당, 당과 전체 인민과의 강철같은 통일단결,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 그리고 불패의 혁명무력, 이것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위한 위력한 밑천이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항일혁명투사들의 고귀한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조국광복의 절절한 념원이 실현되여 공화국북반부는 사회주의길을 따라 번영하고있으나 아직 나라의 절반땅은 미제 강점하에서 해방되지 못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은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는데 있다. 이것은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위업을 직접 계승하여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이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일제를 패망시키고 조국의 독립을 찾았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제에게 섬멸적타격을 준것처럼 우리들은 반드시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여야 하며 후대들에게 통일되고 번영하는 조국을 넘겨주어야 한다.

지난날 암담한 일제식민지통치시기 항일혁명투사들은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단독으로 일제와 맞서 싸워야 하였던 간고한 조건하에서도 《억천만번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불굴의 투지로 15성상의 피어린 투쟁에서 조국의 해방을 달성하였다.

오늘 우리에게는 조국통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유리한 조건들이 있다.

지난날 항일유격대가 발휘하였던 견결한 혁명정신으로 무장하고 더욱 완강하게 투쟁한다면 우리 세대에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은 항일혁명투사들이 보천보에 진출하여 민족재생의 불길을 높이 올린 그 정신, 그 기세로 당대표자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줄기차게 견지하며 혁명기지를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여야 한다.

우리의 혁명기지를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전 당과 전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워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상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당과 인민과 인민군대의 혈연적련계를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를 보다 강력한 전투대오로 만드는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혁명투사들의 모범을 본받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전사가 되며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오직 수령과 당을 목숨바쳐 보위하는 견결한 혁명투사로 준비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교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정확히,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 당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며 그를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며 항상 그것을 자로 삼아 살며 일하는 기풍을 튼튼히 확립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심도있게 더 강력히 전면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그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추진하며 그들을 맑스—레닌주의세계관으로 무장한 철저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가장 훌륭한 길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여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인식하고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어떤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일편단심 당과 혁명, 수령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로 준비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혁명적지조, 혁명동지에 대한 우애와 공산주의적의리 등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닌 고상한 혁명정신과 철저한 혁명적기풍을 그대로 본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항일혁명투사들이 이룩한 거대한 혁명업적과 경험, 인민적사업작풍과 혁명적사업방법을 체득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백두밀림에서 싸운 항일투사들처럼 싸우려는 조선인민은 반드시 미제침략자들을 남반부에서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우리 세대에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분별없이 전쟁을 강요한다면 우리 인민은 놈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소탕해버리고 남반부를 해방할것이다.

보천보전투승리 30주년을 맞이하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오직 수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하려는 일념으로 자기의 혁명초소에서 당대표자회결정을 보다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야 한다.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속 강력히 추진시키며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다져야 한다.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장성시키고 혁명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는것은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기본담보이다.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동지가 가르친바와 같이 남조선의 혁명가들은 무엇보다도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고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여 그 주위에 모든 반미애국력량을 묶어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도당을 반대하는 거족적항쟁에 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현시기 국제정세의 발전을 우리 혁명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자주로선을 견지하고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기초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이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반동세력을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 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다.

우리 혁명의 앞길은 간고하고 험난하다. 그러나 우리는 일편단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하며 그이의 교시를 무조건 옹호관철함으로써 모든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달성할것이다.

40여년간 조선인민을 승리에로 령도하여온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있으며 그이의 령도하에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려놓았으며 국제혁명의 광범한 지지를 획득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필승불패이다.

혁명과 수령에 무한히 충직한 항일혁명투사들이 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승리를 달성한것처럼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굳게 뭉치여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혁명투사들의 후대답게 용감히 싸워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을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의 후비로 교양육성하자

홍 순 권

학생청소년교양의 기본방향과 방도를 명시한 1962년 5월 3일 김일성동지의 교시 《청소년교양사업에 대하여》가 있은 때로부터 5년이 된다.

이 교시에서 김일성동지는 학생사업에서 정치사상교양에 일차적관심을 돌리며 학생교양은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그리고 혁명적실천투쟁과 결부하여 진행하며 사로청조직의 두되는 힘을 학생들과의 사업에 돌릴것을 강조하였다.

김일성동지의 5월 3일교시는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후대육성사업에서 이룩한 전통을 오늘의 사회주의건설시기에 맞게 발전시킨것으로서 우리의 학생청소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로 키우는데 있어서 실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우리의 후대들을 학생시절부터 앞날의 견결한 혁명가로,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혁명투사로 키우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의 훌륭한 자질과 재능을 여러모로 발전시켜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는 유능한 일군으로 준비시키는 명확한 길을 가르쳐주고있다.

오늘 우리의 학교는 전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거점의 하나로 되고있다. 력사적인 전반적 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후대들은 만 열여섯살까지 즉 세계관의 기초가 형성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할것없이 학교를 거쳐 사회에 나가게 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학생청소년들을 잘 교양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

김일성동지의 교시 《청소년교양사업에 대하여》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후대교양사업을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5월 3일 교시가 있은후 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였으며 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과 형식들이 옳게 적용되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후대들은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받들고 자신을 더욱더 혁명적으로 단련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보위를 위하여 더욱 훌륭히 준비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5월 3일 교시를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후대교양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는 기본열쇠이다.

* *

김일성동지는 《청소년교양사업에 대하여》에서 《지금 우리 나라에서 경제가 빨리 발전하고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 향상되고있다.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에게 사회를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겠다는 정신을 소유하도록 교양사업을 더 잘해야 한다. 그래야 후에 그들이 모두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잘 복무할수 있다》고 교시하였다.

우리의 후대들에게는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해놓은 빛나는 혁명위업을 이어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지워져있다.

학생청소년들에게 지워진 이러한 임무는 그들이 학교시절부터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하고 혁명을 위해 목숨바쳐 싸울줄 아는 당의 붉은 전사로, 열렬한 애국자로 교양육성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시키고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도록 교양하는것은 그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로 기르는데 있어서 근본문제로 된다.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은 우리 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간고한 시련을 뚫고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반만년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번영을 이룩해놓았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인민의 오늘의 성과도,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도, 조국의 륭성발전도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민은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당과 수령에게 의탁하고있으며 그 주위에 굳게 뭉쳐 그이가 가리키는 혁명의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우리는 후대교양의 전 과정을 통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그이의 크나큰 배려와 은덕에 대하여 깊이 인식시키며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모든 행복의 근원을 똑똑히 알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자라나는 후대들을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김일성동지의 교시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소유하여야만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신심이 생기고 투지와 열정이 나올수 있다.

우리 청년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일상적으로 학습하고 연구하여 당정책의 본질을 파악하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청년들 자신의 사상으로, 그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되며 그들의 모든 활동의 지침으로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조선혁명의 구체적조건에 부합되게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작성된것이다. 우리 당의 확고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야만 당의 정책,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정확히 체득할수 있으며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할수 있다. 주체사상의 배양—이것은 후대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오늘의 행복이 있고 앞으로의 더욱 큰 승리가 이루어질수 있다는것을 인식시키고 당의 로선과 정책, 우리 당의 자주사상을 체득시켜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시킴으로써만 그들을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싸우는 충직한 전사로, 불굴의 투사로 준비시킬수 있다.

후대들을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조선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15성상 간악한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유격투쟁에서 이루어진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조선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과 생활은 우리 인민이 바로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

우리는 후대들을 혁명전통으로 교양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와 김일성동지의 령도에서 이룩된 조선혁명의 주체를 똑똑히 알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이 백두밀림에서 일제와 싸워이기고 오늘의 사회주의조국을 창건한것처럼 우리의 후대들이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사회주의 조국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목숨바쳐 싸우려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학생청소년들이 그 어떤 곤난한 환경속에서도 자기의 혁명임무를 끝까지 관철하는 항일유격대원들의 높은 규률성과 자각성, 고상한 혁명적동지애,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 등 그들의 고매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그대로 실천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교양할 때라야만 우리의 후대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싸울줄 아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로 자라날수 있다.

후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교양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계급적원쑤와 착취제도를 무한히 증오하고 그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우리는 분렬된 조국에서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 그들의 부단한 침략책동을 분쇄하지 않으면 안되는 긴장된 투쟁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다. 우리는 미제를 몰아내고 최대의 민족적과업인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해야 한다.

학생청소년들은 현 세대의 위업을 계승하여나아갈 혁명의 후비로서 우리 나라에서 지주, 자본가 제도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대를 이어 투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사회주의조국의 품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면서 세상에 부럼없이 배우며 자라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였으며 혁명투쟁의 간고한 시련도 겪지 못한 이들, 새 세대들이 학교를 거쳐 점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과 조국보위초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혁명적단련이 부족하고 계급의식이 약한 청년들에게 온갖 부르죠아사상독소를 퍼뜨리며 그들을 사상적으로 타락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제국주의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온갖 봉건적 및 부르죠아 반동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만일 우리가 착취관계가 이미 청산된 새로운 환경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자라나고있는 세대들을 계급의식으로 튼튼

히 무장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계급적 원쑤들을 증오할줄 모르게 되며 원쑤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수도 없게 될것이다.

착취제도가 청산되고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된다고 해서 로동계급의 사상이 저절로 배양되는것은 아니며 오직 부단한 교양사업에 의해서만 사람들은 그것으로 무장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대계급이 이미 청산되였고 생활이 부단히 향상되고있는 우리 제도하에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또한 학생청소년들을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모든 혁명적전취물을 고수하고 그것을 더욱 빛내이기 위해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들이 우리 나라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이 제도가 어떤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졌는가를 똑똑히 알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제도하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같이 일하고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사람은 어디에서나 가장 귀중한 존재로 인정되며 누구나 병이 나면 무상으로 치료받을수 있고 자녀교육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른다. 청소년들은 자기의 지향과 노력에 따라 재능과 소질을 발전시키고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정열을 바칠수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휘황한 래일에 대한 희망과 포부에 가득 차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혁명투사들의 고귀한 피의 대가이며 당과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들의 간고한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 귀중한 혁명의 전취물이다.

이 모든것을 깊이 자각할 때만이 우리의 후대들은 그 어떤 원쑤의 침해로부터도 우리 제도를 고수하여 용감히 싸울수 있으며 언제나 해이되지 않고 혁명적생활기풍을 소유할수 있다. 또한 높은 계급적각성을 가지고 파괴암해분자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살피며 그와 견결히 투쟁할뿐아니라 일단 유사시에는 당과 수령의 부름따라 원쑤격멸에로 한결같이 떨쳐나설수 있다.

학생청소년들을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고 부단히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는 동시에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는 남녘땅형제들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높은 혁명적각오를 가지도록 교양하는것이 중요하다.

학생청소년들을 남반부해방에 대한 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모든 사업과 생활을 항상 조국통일의 위업과 결부시키며 언제나 미제강점하에서 신음하는 남녘땅형제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몫까지 배우고 일하며 혁명적으로 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인식시키며, 조국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성취하여야 하며 또 반드시 성취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를 족치고 남반부를 해방하며 조국을 통일하려는 혁명적열정과 기백,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모든 청소년들의 가슴이 항상 들끓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후방가족원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청소년들을 로동을 사랑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릴줄 아는 일군으로 키우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을 사랑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길러주어야 한다. 모든 후대들이 학교를 거쳐 사회에 나가게 되는만큼 학생시절부터 그런 습관을 배양시키는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후대들이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재부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다루며 《꼬마7개년계획활동》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조국의 미래는 당과 수령의 가르침과 크나큰 배려속에서 혁명의 후비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는 새 세대들에 의하여 더욱 휘황하게 건설될것이다. 우리는 후대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 역군으로 교양육성할데 대한 5월 3일 교시를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 더 잘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김일성동지는 《청소년교양사업에 대하여》에서 학생청소년교양사업을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생동하게 진행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교양사업의 성과는 그 방법과 형식에 크게 의존한다. 정당한 교양목적도 교양대상의 구체적특성에 적응한 방법과 형식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수 없다. 교양은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적극적인 작용을 주어 그들의 심금을 울릴 때에만 커다란 효과를 나타낸다.

학생청소년들의 개성은 각이하며 나이별, 교종별에 따르는 그들의 취미와 소질, 특성도 역시 각이하다.

김일성동지는 청소년교양에서 특히 소년으로부터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학생들을 옳게 교양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이 시기의 학생들의 머리는 사진기와 같이 보고듣는것을 막 받아들이며 심리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체력도 날마다 버쩍버쩍 늘어난다. 이 시절에는 많은것을 빨리 알자고 하고 배우려 하며 영웅심도 생기고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며 어디에 나서고도 싶어한다. 더우기 학생시절에는 새것을 좋아하고 정의감이 강하고 진리를 탐구하려는 욕망도 많다. 특히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혁명성이 있는것을 좋아한다》(《청소년교양사업에 대하여》).

학생청소년들이 가지고있는 이와 같은 훌륭한 자질을 옳게 발전시킴으로써만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게 할수 있다. 우리의 학생청소년교양의 목적은 바로 그들의 이러한 자질을 옳게 조장발전시켜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로 되게 하는데 있다.

우리 청소년학생들의 훌륭한 자질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자면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혁명전적지답사, 항일혁명투사들과의 상봉모임, 웅변대회, 작문짓기대회, 과학토론회, 그림과 조각을 비롯한 미술작품전람회, 창작품발표회, 설계대회, 옛말발표회, 시랑송모임, 음악발표회, 예술경연대회, 영화감상발표회 등은 학생들의 사상과 지식을 더욱 쓸모있고 공고한것으로 만들어주며 그들의 정서를 풍만하게 키워주고 재능을 활짝 꽃피게 하는 훌륭한 수단으로 된다.

또한 각종 체육경기, 군사유희는 학생들을 강의한 의지의 소유자로 되게 하며 그들을 어려서부터 로동과 국방에 믿음직하게 준비시키는 좋은 수단

이다.

김일성동지는 학생청소년들을 유능한 사회주의건설자로 육성하자면 그들을 학생시절부터 혁명실천에 적극 인입하여 현실속에서 산 지식을 배우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가르쳤다. 책에서 배운 지식은 실생활에 적용되고 실생활에서 검열되여야 비로소 산 지식으로 될수 있다. 오직 이렇게 하는 때라야만 참된 지식을 소유하였다고 말할수 있으며 그런 지식의 소유자만이 사회에서 쓸모있는 일군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혁명실천을 통한 교양에서 중요한것은 학생들을 강연선전, 해설담화 등 선전대를 통하여 당정책을 선전하며 과학기술문화를 보급하는 사업에 적극 인입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토끼기르기, 록화근위대, 위생근위대 활동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유익한 각종 실천활동에 그들을 적극 참가시키는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청소년들은 당정책을 더욱 깊이 파악하고 그 관철에로 군중을 조직동원할줄 아는 정치활동가로 자라날수 있다. 또한 그들은 발전하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근로자들과 부단히 접촉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기풍과 그들의 조직성, 규률성을 본받을수 있으며 자신들도 혁명과 건설에 직접 참가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다.

학생들을 대중정치활동에 참가시켜 열렬한 사회정치활동가로 준비시키는 사업은 이미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그 전통이 이룩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의 지도하에 공청원들과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좌담회, 연극, 혁명가요보급, 강연, 문맹퇴치사업, 토론회, 격문에 의한 선동 등 대중정치활동을 광범히 조직진행하였다. 원쑤들의 가혹한 탄압속에서도 광범히 전개된 이러한 대중정치활동은 각계각층 군중을 수령과 혁명조직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그들을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우리의 학생청소년들은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에 따라 이 전통을 계승하고 해방후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혁명과 건설의 매시기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하기 위한 대중정치선전사업에 참가하여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이미 실생활에서 그 정당성이 확증된 대중정치활동을 통한 학생교양사업을 더욱 광범히 진행하며 그 내용과 형식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부단히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학생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긍정적모범을 통하여 감화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공산주의교양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기본방법이다. 청소년들은 순진하고 감수성이 크며 모범을 본받기 좋아한다. 학생청소년들은 훌륭한 모범을 직접 보거나 들을 때 그것을 적극 본받으려 하는 동시에 그것과 대비하여 부정적인것을 깨닫게 되며 그것을 더욱 미워한다.

우리는 긍정적모범에 의한 청소년교양에 있어서도 일찌기 김일성동지께서 공청활동을 조직지도할 때부터 이룩된 고귀한 경험을 깊이 연구하여 자기 사업에 구현하고 그 빛나는 전통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후대들을 혁명의 믿음

직한 계승자로 교양육성하는 사업에서 사로청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교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학생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학교에 망라되여있으며, 그들은 모두다 학교를 거쳐서 사회에 진출한다. 이런 사정을 놓고 볼 때 민청사업에서 절반이상의 힘을 학생사업에 돌려야 하리라고 생각한다>(<청소년교양사업에 대하여>).

후대들을 훌륭히 교양육성하자면 학교, 사회 및 가정교육이 옳게 결합되여야 한다. 학교, 사회, 가정 교양을 결합시킴에 있어서 사로청조직의 임무는 실로 크다.

오늘 교육사업이 높이 발전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사로청조직에 망라된 청년들의 대부분은 학생이다. 또한 사로청조직은 조선소년단에 망라된 160여만의 소년단원들을 교양할 책임을 지니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조직들의 지도하에 학생청소년교양사업에 대한 사로청조직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청소년들과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학생들의 사로청 및 소년단 조직생활을 옳게 지도하는것이다. 사로청 및 소년단 조직생활은 우리 학생청소년들의 수양과 단련을 위한 정치생활무대이다.

이것을 떠나서는 학생청소년들의 학습과 교양이 옳게 이루어질수 없으며 그들을 혁명의 후비로 훌륭히 키워낼수 없다.

오늘 사로청조직들은 당과 수령앞에서 청소년들을 혁명의 후비로 교양할 무거운 책임을 지고있다. 이 영예로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우선 사로청일군들자신이 혁명화하고 자기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사로청일군들은 후대교양사업에서 지닌 무거운 책임과 크나큰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오직 한마음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진정한 혁명가로 되여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지난 5년간 학생청소년교양에서 얻은 경험과 우수한 모범을 일반화하며 모든 단위들에서 5월 3일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후대들을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우리 혁명위업을 두 어깨에 튼튼히 걸머지고나아갈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시키는 이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갈것이다.

남조선혁명과 반미구국통일전선

전 기 홍

1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동지는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할것을 교시하였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투쟁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력량을 조직동원하는것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혁명의 승패는 적아간의 력량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며 결국 인민의 다수를 쟁취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 있다.

력사발전의 결정적힘은 인민대중이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의 힘에 의하여 수행된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쟁취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쟁취하여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워야만 반혁명에 대한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하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혁명력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광범한 혁명력량을 망라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이다.

이것은 오늘 남조선혁명에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오늘 남조선에서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는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단행본, 100페지).

통일전선, 이것은 혁명투쟁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의 전략전술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서 온갖 가능한 모든 력량을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급적력량관계의 편성계획에 관한 문제이다.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남조선혁명의 복잡성, 간고성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남조선혁명은 국제반동의 두목인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하고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대신하여 남조선에서 새로운 식민지통치자로 군림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 군사기지로 만들 목적밑에 가장 포악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여왔다.

이리하여 미제는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고 남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를 자기들의 침략적목적에 철저히 종속

시켜놓았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의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지난시기 리승만괴뢰정권을 거꾸러뜨린 4.19의 열매를 미제국주의의 다른 괴뢰들에게 빼앗긴것이나 3.24 6.3항쟁, 8월투쟁 등에서 피를 흘리고도 결정적승리를 이룩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남조선의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이 굳게 결속되여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지 못한데 있다.

력사적경험은 남조선에서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반미구국투쟁의 기치밑에 굳게 결속시킴으로써만 남조선혁명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포악한 군사파쑈독재와 전쟁정책의 강화로 인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일층 격화되고있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있다.

남조선에서 혁명과 반혁명간의 력량관계는 전반적으로 반혁명에 불리하게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형성은 반혁명에 대한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하며 혁명승리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할수 있는 객관적조건이 조성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자산계급과 민족부르죠아지 등 남조선의 광범한 계층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다같이 고통을 겪고있다. 이것은 미제와 그와 결탁하고있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할수 있는 객관적조건으로 된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단행본, 100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파국에 처한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가장 흉악한 군사파쑈테로통치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총칼로써 인민들에 대한 야수적탄압과 략탈을 강화하고있다.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은 극소수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제외하고는 로동자와 농민뿐만아니라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부르죠아지, 민족자본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급계층들에게 파멸적후과를 미치고있다. 오늘 남조선로동자들은 하루 10~12시간이상의 고역을 강요당하면서도 생계비의 3분의 1도 안되는 기아임금을 받아 겨우 목숨을 이어가고있다. 농민들의 생활 역시 계속 악화되고있다. 지금 남조선 농민들은 호당 평균 수만원의 빚을 걸머지고있으며 100만호를 넘는 령세농민들이 해마다 절량에 허덕이고있다.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은 진리탐구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있으며 심한 생활난에 빠져있다. 도시소부르죠아지와 민족자본가들은 밀려드는 미일독점자본과 매판자본에게 압박당하여 파산몰락의 일로를 걷고있다.

광범한 인민대중의 정치적무권리와 극도에 달한 민생고는 남조선의 정치경제적위기를 전례없이 심각화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참을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 준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에 대한 불만과 증오의 기세가 매우 높다.

남조선인민들의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증오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은 각계각층인민들이 반미, 반《정부》의 구호밑에 반미구국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여온 사실이 잘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남조선의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여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할수 있는 객관적조건이 성숙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통일전선운동에 관한 우리 당의 고귀한 전통과 풍부한 경험은 오늘 남조선에서의 반미구국통일전선형성을 위하여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는 이미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반일민족통일전선의 형성을 위한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투쟁로선을 명시하였으며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일체 반일력량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조직동원할수 있게 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가 창건되였다.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당시 일제와 국내반동세력을 더욱 고립시키고 전국적범위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군중의 강력한 정치적대오를 편성함으로써 국내의 계급적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켰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고귀한 전통은 8.15해방후 우리 당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조성된 객관적정세와 현실적인 계급관계를 정확히 타산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확고히 전취함으로써 항상 반혁명에 비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였으며 제기되는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지난시기 통일전선사업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이러한 전통과 경험은 오늘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형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指침으로 된다.

2

우리 당은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형성을 남조선혁명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고 그를 위한 맑스—레닌주의적전략적방침을 명시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제시된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형성을 위한 기본방침은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을 강화하며 이에 기초하여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결속시키는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의 사회경제형편과 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작성된 가장 정확한 방침이다.

오늘 남조선혁명의 주되는 대상은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장애로 된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몰아내며 그의 식민지통치를 분쇄하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우리 나라의 통일도 이룩할수 없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은 무엇보다도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그의 주구로서, 안내자로서 복무하고있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미제와 결탁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하고있으며 침략자들의 온갖 전횡과 략탈행위를 적극 돕고있으며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희생으로 하여 저들의 권세와 향락을 누리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당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는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반미구국투쟁의 기치밑에 굳게 결속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로동계급과 함께 반미구국투쟁에 나설수 있으며 또 적극 나서야 한다.

남조선에서의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을 강화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동자, 농민의 동맹을 강화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로동자, 농민의 동맹은 통일전선의 정치적 및 사회적 기초로 되여야 할것이다》(《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8페지).

로동계급은 다른 어느 계급보다도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이다. 로동계급은 자신의 계급적해방뿐만아니라 모든 인민들의 민족적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사회혁명의 주력부대로서 모든 피압박인민들의 혁명을 령도해야 할 력사적사명을 지니고있다.

남조선의 로동계급은 반제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어느 계급보다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물론 오늘 남조선의 공업이 혹심하게 파괴되고 대규모적인 기간공업이 거의 없는 조건하에서 로동계급은 수적으로나 구성상으로 보아 아직 미약하며 그의 의식성도 높지 못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사회경제적처지로 하여 누구보다도 혁명성이 강하며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핵심적력량으로 되여야 한다. 오늘 남조선에서 130만명으로 추산되는 로동계급은 실제상 반미, 반《정부》투쟁에서 중요한 력량으로 되고있다.

통일전선운동에서 로농동맹을 부단히 강화하는것은 극히 큰 의의를 가진다.

로농동맹은 통일전선의 기초로서 그 강화는 통일전선운동의 승리를 담보하는 기본문제로 된다.

로농동맹을 강화함으로써만 그에 의거하여 더욱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묶어세울수 있으며 통일전선대오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그것은 또한 통일전선운동에 확고한 목적의식성을 뚜렷이 부여할수 있으며 그리하여 혁명투쟁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끌수 있게 한다.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함에 있어서 로농동맹을 강화하는것은 남조선의 정치, 경제적형편과 주민구성의 특성으로 보아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된다.

오늘 남조선의 주민구성에서 농민은 65%를 차지하고있다.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은 미제의 식민지적지배와 봉건적억압착취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당하고있다. 그들은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그와 동맹함으로써만 토지와 민주주의적권리 및 자유를 쟁취하고 온갖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될수 있다.

남조선농민들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며 로동계급과 사회정치적처지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따라서 로동계급과 농민은 굳게 동맹하여 이 혁명을 담당수행하여야 할 기본동력으로 되며 반미구국통일전선의 기본력량을 이룬다.

우리 당은 남조선에서의 반미구국통일전선형성에서 로농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로동자, 농민과 청년학생, 인테리들의 련합을 실현할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통일전선의 사회정치적기초로 되는 로농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로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 인테리들의 련합을 실현하는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단행본, 101페지).

혁명의 주력부대의 역할과 함께 청년학생, 인테리들의 교량적역할을 높이는것은 남조선에서의 반미구국통일전선형성을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청년학생, 인테리들은 시대의 추세에 민감하며 정의감이 강하다. 특히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의 청년학생, 인테리는 제국주의자들의 민족적압박과 차별대우를 받기때문에 혁명성이 강하며 민족적각성이 높다.

남조선의 청년학생, 인테리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식민지통치로 인하여 민족적압박과 멸시를 받고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남조선에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대부분은 소자산계급출신이며 그중에는 자기의 로동력을 파는 고학생들이 적지않다. 인테리의 대다수가 하급직무에 종사하면서 심한 생활상 고통을 받고있으며 20여만의 인테리들이 실업상태에 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 인테리들은 그들이 처한 사회경제적처지로부터 반미구국투쟁에서 중요한 력량으로 되며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현실적으로 교량적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다. 6.3항쟁과 8월투쟁 등은 그의 실례로 된다.

남조선에서의 반미구국통일전선형성에서 도시소부르죠아지와 민족자본가들을 전취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 남조선에는 소상인, 수공업자 등 100여만의 도시소부르죠아지와 4만 5,000여명의 민족자본가들이 있다. 그들은 미국독점자본과 매판자본의 압박밑에서 부단히 파산몰락되고있다. 남조선의 도시소부르죠아지와 민족자본가들은 자기들이 처한 경제적 및 정치적 처지로 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그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며 반미구국투쟁에 적극 나설수 있는 력량으로 된다.

우리 당에 의하여 제시된 오늘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방침의 기본요구는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을 강화하며 이에 기초하여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반미구국투쟁의 기치밑에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결속시켜 미제침략세력과 그 앞잡이놀인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우리 당의 방침이 정확히 관철될 때 남조선의 혁명력량은 부단히 확대강화될것이며 혁명투쟁은 더욱 촉진될것이다.

3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적요구의 하나는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는 통일전선을 형성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통일전선내에서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통일전선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가 보장됨으로써만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들을 명백히 식별케 하여 인민대중의 투쟁에 목적의식성을 부여하며 그들을 더욱 혁명화하고 조직화할수 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통일전선운동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혁명적당은 통일전선내에서 자기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각계각층인민들과의 단결, 련합을 실현하여야 한다.

하층통일을 기본으로 하면서 상층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통일전선운동에서 제기되는 필수적문제로 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통일전선을 형성강화하는데서는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상층통일전선을 이룩하는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며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을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에로 발전시키며 부분적인 련합을 전면적인 련합에로 발전시켜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단행본, 100페지).

통일전선사업에서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상층통일을 결합하는것은 중요한 원칙적요구의 하나이다. 하층은 어느때나 그 대다수가 남조선사회의 기본군중들이므로 반미구국통일전선의 중요한 력량으로 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계급적처지와 리해관계로부터 상층과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혁명적당이 하층군중에게 그의 계급적처지를 깨우쳐주며 통일전선의 정당성을 인식시킨다면 그들을 상층의 사상적영향으로부터 떼여내여 혁명의 편에 전취할수 있다.

광범한 하층군중을 전취하는것은 상층의 반동적요소를 고립시킬수 있게 하며 반제적요소들을 조장발전시켜 그들을 전취할수 있게 한다.

상층들 중에서 반제적으로 나올수 있는 요소들에 혁명적영향을 주고 그들을 적극 조장시킨다면 통일전선의 범위를 확대해나갈수 있다.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을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에로 발전시키며 부분적인 련합을 전면적인 련합에로 발전시키는것은 통일전선발전의 필수적인 요구의 하나로 제기된다.

애국적민주력량의 공동투쟁을 강화하며 투쟁속에서 그들의 련합을 실현하는것은 남조선에서의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강화함에 있어서 극히 큰 의의를 가진다.

통일전선운동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서로 련합하여 혁명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전한다.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을 련합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통일전선의 조직사상적공고성을 보장하고 시련과 우여곡절을 이겨낼수 있는 힘과 경험을 쌓게 된다.

각계각층군중에게 공동의 관심사로 되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는 당면한 공동투쟁과업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실현에로 그들을 불러일으키는것은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반미구국투쟁의 기치밑에 특히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과 파쑈적탄압을 반대하며 웰남파병과 〈한일조약〉을 반대하는 투쟁의 기치밑에 가장 광범한 계층들을 결속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여야 할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단행본, 100페지).

김일성동지가 제시한 당면한 공동투쟁과업을 틀어쥐고 그것을 실천해나가는것은 현시기 반미구국통일전선운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남조선인민들 앞에 절박하게 제기되고있는 당면과업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과 파쑈적탄압을 반대하며 웰남파병과 《한일조약》을 반대하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과 파쑈적탄압, 웰남파병, 《한일조약》으로 말미암아 더욱 심한 고통과 재난을 겪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 매국배족적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의 하나로 나서고있다.

그러므로 이 투쟁의 기치밑에 남조선의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결속하는것은 반미구국통일전선형성을 더욱 촉진시키며 그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는것으로 될것이다.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통일전선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중요한 원칙적요구의 하나는 단결과 투쟁을 옳게 결합하는것이다. 이것은 통일전선운동발전의 필수적요구로 된다.

통일전선에는 각이한 계급계층이 망라하게 되며 따라서 통일전선내의 사회세력들의 계급적처지는 서로 다르다.

혁명적당은 각이한 사회세력들과 통일전선을 형성하며 그것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긍정적측면을 조장발전시키면서 그와 적극 단결하는 동시에 부정적측면을 극복함으로써 통일전선의 전투력을 높이며 행동통일을 공고히 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단결과 투쟁을 결합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경계하는것이 중요하다.

부정적측면을 반대하여 투쟁한다고 하여 단결을 약화시켜서도 안되며 단결을 강화한다고 하여 부정적측면과의 투쟁을 포기하여서도 안된다. 부정적측면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각계급계층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무기는 설복, 교양, 비판이다.

각이한 사회세력들을 전취하는 사업은 그 어떤 명령, 지시나 강요에 의하

여 이루어질수 없다. 오직 부단히 설복하고 교양함으로써만 그들이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인식하고 하나의 정치적역량으로 결속될수 있게 하며 발로되는 부정적측면을 비판함으로써 통일전선이 목적의식적으로 발전해나갈수 있게 한다.

오늘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우선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과 파쑈화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군사파쑈폭압을 저지시키며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함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게 된다. 남조선인민들은 파쑈적탄압을 분쇄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및 파업의 자유와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무권리와 빈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식민지정책에 복무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여야 하며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수립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강화하는것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반미, 반《정부》기세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

더우기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북반부의 영향력은 비상히 강화되고있다.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 이룩된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건설의 빛나는 성과들은 남조선인민들을 반미구국투쟁에로 부르는 커다란 고무적힘으로 되고있다.

4월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이 그 규모와 형태에서 획기적발전을 가져왔으며 그 조직성과 완강성, 전투성이 비상히 제고되고있는 사실은 그것을 실증하고있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은 굳게 단합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타도하는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결정적인 구국투쟁에 나설 때 남조선혁명은 더우더 촉진될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더 빨리 성취될것이다.

전반장악과 《섬멸전》

로 덕 룡

전반장악과 《섬멸전》, 이것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맑스—레닌주의적 사업방법이며 당정책을 실속있게, 전면적으로 관철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방법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상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사업을 전면적으로 대담하게 포치하고 하나씩하나씩 철저히 해결하면서 모든 전선에서 계속 혁신의 불길을 일으키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가 일어나고 계속 발전한 그 근저에는 바로 모든 전선에 걸쳐 대담하게 사업을 포치하고 《섬멸전》을 전개하여 하나씩 철저히 해결해나가는 우리 당의 고유한 방법이 놓여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추진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여야 할 혁명임무가 제기되여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반장악과 《섬멸전》의 본질을 정확히 리해하며 실천활동에서 그것을 능숙하게 적용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반장악과 《섬멸전》은 우리 당의 고유한 사업방법

김일성동지는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하는 방법은 사업을 전반적으로 틀어쥐는 동시에 하나씩하나씩 철저히 해결하면서 한 고지를 점령하고 다음 고지를 점령하며 하나의 승리를 쟁취하고 다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라고 가르쳤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활동은 사회와 자연을 변혁하며 인간을 개조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포괄한다.

정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은 이러한 모든 과업들을 전반적으로 틀어쥐고 혁명발전의 매단계에서 구체적인 과업과 해결방도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한다.

혁명과 건설이 진척될수록 제기되는 과업은 더 많아지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더욱 복잡하여진다.

제기되는 모든 과업들에는 선후차가 있고 경중이 있으나 이 과업들은 서로 련결되여있는 혁명사업의 한 부분들이며 혁명과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 어느 한 과업도 놓치지 않고 실속있게 해결하는것이 요구된다.

바로 이러한 사정은 모든 단위에서 사업하는 일군들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틀어쥐고 정상적으로 추진시키면서 한 과업씩 실속있게 해결하는 맑스—레닌주의적사업방법을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할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여야 사업전반에 관심한다고 하면서 어느 한 문제도 실속있게 해결하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과업을 같이 있게 해결한다고 하면서 전반은 놓

처비리는것과 같은 일이 없이 항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으며 자기 임무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전반장악과 《섭멸전》은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당은 해방후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 행정에서 이 사업방법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전반장악과 《섭멸전》은 특히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청산리방법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발전되였다.

청산리방법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해당단위의 모든 사업을 전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중심적인 과업을 해결하는데 력량을 집중하여 하나씩 해결해나감으로써 사업전반의 성과를 보장하는데 있다.

청산리방법은 또한 개별적인 대상에 지도를 심화시키며 한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하여 전반사업을 추켜세움으로써 모든 단위에서 당정책을 실속있게 관철하게 한다.

전반장악과 《섭멸전》은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방법이다.

사업을 전반에 걸쳐 포치하고 정상적으로 전개하면서 절박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에 필요한 력량을 집중적으로 동원하는것은 모든 단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고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사업하게 하며 시작한 일을 끝까지 관철하고 모든 부문의 사업을 골고루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당 정책을 가장 훌륭하고 정확하게 관철할수 있게 한다.

혁명과 건설의 실천은 우리 당이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전반장악과 《섭멸전》의 위력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전반장악과 《섭멸전》은 서로 밀접하게 련관되여있다.

《섭멸전》은 전반장악을 전제로 하며 전반장악의 실제적성과는 《섭멸전》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전반을 튼튼히 장악하여야만 매개 혁명과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판명할수 있으며 사업전반의 견지에서 《섭멸전》의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할수 있다. 또한 《섭멸전》을 전개하여 하나씩 실속있게 끝까지 해결하여야만 그것과 련관되여있는 기타의 과업들의 해결을 촉진하고 사업전반의 성과를 확대할수 있으며 모든 사업을 균형적으로 해결하여나갈수 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은 류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으며 우리 당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과업들을 부단히 제기하고있다. 이리하여 우리의 모든 단위들, 당, 국가기관, 경제, 문화기관, 사회단체들 앞에는 긴절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수많은 과업들이 나서고있으며 한 과업의 해결에 뒤이어 다른 새로운 과업들이 부단히 제기되고있다.

우리는 전반장악과 《섭멸전》을 보다 능숙하게 전개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견지하고 계속 발전시킬수 있으며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과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실천할수 있다.

전반장악은 당정책의 전면적관철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

전반장악은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혁명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살피며 정상적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사업

방법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모든 사업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좋은 지휘관이 되려면 자그마한 모퉁이까지 다 살필줄 알아야 하며 그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된다》.

전반장악은 당정책집행을 위한 혁명실천의 모든 단위와 고리들에서 지도일군들이 자기 사업을 당의 의도대로 정확히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사업방법이다.

우리 당 정책은 우리 나라 현실에 구현된 맑스—레닌주의로서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곧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이며 나침판이다. 사업에서 전반을 장악하는것은 당정책을 모든 분야에서 어김없이 집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전반장악은 당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이다. 전반을 장악하여야 당정책집행을 위한 투쟁에서 모든 단위와 고리들의 사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당면문제와 전망문제, 부분적인 문제와 전반적인 문제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제기되는 모든 사업을 전면에 걸쳐 정상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또한 전반을 장악하여야 모든 부문의 사업을 살피면서 그것을 주동적이며 목적의식적으로 끌고나갈수 있다. 전반을 장악하는 사업방법은 이 일을 강조하면 저 일을 잊고 새 일이 나서면 이미 하던 일을 제버리는 현상이 없게 하며 사업전반을 틀어쥐고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조치해나갈수 있게 한다.

전반장악은 당조직들의 활동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당조직들은 국가 및 경제, 문화기관, 근로단체 등 모든 기관, 단체들의 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하여야 하며 나라살림살이의 주인으로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과 인민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당조직들의 사업은 결코 어느 한 부문에 국한될수 없다. 당조직들의 활동에서 전반을 장악하는 사업방법이 확고히 견지됨으로써만 모든 부문에서 당정책의 정확한 관철을 보장할수 있다.

전반을 장악하는 사업방법의 요구는 우선 모든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는것이다. 즉 해당단위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부문의 사업을 빠짐없이 장악하는것이다.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우리 앞에 제기되는 복잡하고 방대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부문의 과업들은 서로 불가분적으로 련관되여있으며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있다. 어느 한 고리에서의 사업의 성과여부는 곧 다른 고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 모든 부문, 모든 고리의 사업을 다같이 통일적으로 장악함으로써만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전반을 장악하는 사업방법은 또한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위, 모든 고리들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틀어쥐고나갈것을 요구한다.

당정책집행을 위한 투쟁은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지도일군들과 대중이 서로 합심하여나가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그러므로 각급 지도기관의 일군들은 항상 해당단위의 사업을 부문별로 빠짐없이 장악하는 동시에 아래단위, 하급기관들의 사업도 통일적으로 장악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상급기관과 지도일군들자신의 사업부터 바로잡아나아가는것이다. 그래야 하급기관과 아래일군들이 그것을 본받을수 있다.

자기 부문 사업에 대한 이러한 전면적이며 체계적인 장악만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모든 전선에 걸쳐 정상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전반을 장악하는 사업방법은 또한 당면한 문제의 처리와 함께 전망적인 문제의 해결에도 응당한 주의를 돌릴것을 요구한다.

혁명발전의 매시기의 정책을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 당은 항상 현재와 가까운 장래만 보는것이 아니라 나라의 먼 장래의 발전전망까지도 과학적으로 예견한다. 그러므로 당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위해서는 응당 당면한 문제와 함께 장래의 문제, 전망적인 문제의 해결에까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내부에 잠재하고있는 온갖 가능성들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전진도상에서 부딪치는 애로와 난관들을 예견성있게 타개하여나갈수 있다.

전반을 장악한다는것은 결코 모든 일을 일률적으로 어루만지기만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들 앞에 나서는 혁명과업들에는 그의 내용과 해당부문이 처한 사업상 위치에 따라 선후차와 경중이 있는것이다.

전반을 장악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의 정책적요구에 따라 사업의 선후차와 경중을 옳게 가리며 중요한 사업, 중요한 부문에 선차적으로 관심하면서 이여의 사업, 이여의 부문도 빠짐없이 틀어쥐고나가도록 하는것이다.

전반장악은 사업의 부단한 반복과 심화발전의 과정을 동반한다.

우리 당의 모든 정책들은 한두번의 사업포치로써 실현될수는 없다. 우리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일단 사업을 포치한 다음에 그것을 제때에 검열하고 총화하며 다시 사업을 포치하는식으로 부단히 반복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장악함으로써 사업의 심화발전을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사업의 심화발전은 집행에 대한 장악을 통하여 실현된다. 집행에 대한 장악은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밀접히 결합시키며 포치한 사업을 제때에 검열하고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여 일반화하며 다시 새로운 사업을 포치할것을 요구한다.

집행에 대한 장악은 이러한 요구를 구현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점차 심화시키고 확대해나가며 우리의 전진운동을 촉진시킨다.

《섬멸전》은 모든 문제를 실속있게 해결하는 사업방법

우리 당은 《섬멸전》의 방법으로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수많이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씩하나씩 모가 나게 해결해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일을 벌여만놓고 수습할줄 모르는 사람은 유능한 일군이라고 말할수 없다. 원래 혁명하는 사람은 사업에서 이것저것 많이 벌려놓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에 알맞게 일을 조직하고 그것을 한가지라도 완성해나간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씩하나씩 해결해나가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적과 투쟁하는데서나 자연과 투쟁하는데서나 다 이런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섬멸전》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사업방법이다.

당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과업들은 그것을 철저히 해결할 때에만 생활력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할 때에만 다른 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성과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모든 일을 실속있게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섬멸전》의 방법으로 제기된 사업을 하나하나 혁명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섬멸전》은 선후차를 가리고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업에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그것을 실속있게 결정적으로 해결하고 모든 일을 전반적으로 밀고나가는 사업방법이다.

《섬멸전》의 방법은 사업에서 분산성을 퇴치하며 형식주의를 극복할수 있게 한다.

《섬멸전》은 문제를 신중히 분석하지 않고 사업을 치밀하게 조직하지 않으며 깊이 파고들지 않고 겉치레만하는 형식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섬멸전》은 일군들로 하여금 문제를 세밀하게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타산하며 일을 하나하나 치밀하게 조직하고 책임적으로 집행하게 한다.

《섬멸전》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와 모든 일군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사업방법이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부문에서 일하는 일군들이 다 《섬멸전》의 방법으로 자기 맡은 사업을 하나하나 모가 나게 처리해나가야 한다.

당사업에서의 《섬멸전》은 행정경제사업에서처럼 한문제씩 완전히 결속짓지는 못하더라도 자리가 나게 구체적으로 해결할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인것만큼 어느 한문제를 완전히 결속짓고 다음 문제의 해결에로 넘어갈수 없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섬멸전》을 성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을 정확히 설정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이것은 《섬멸전》을 전개하는데서 선결조건이다.

전투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잘 타산하고 공격목표를 정확히 설정하며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다.

김일성동지는 《섬멸전》의 사업방법을 전투에도 비유해 말할수 있다고 하면서 《적을 공격할 때에는 그저 밀고만 나가지 말고 하나씩 포위해서 소멸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섬멸전》의 대상을 설정하는데서는 중심적이며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과업 즉 중심고리에 모를 박아 그것을 선차적으로 해결하는것이 가장 좋다.

중심고리를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다른 모든 문제들이 옳게 풀려나갈수 있다.

그러나 중심고리만이 일률적으로 《섬멸전》의 대상으로 설정될수는 없다. 그것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될수 있다.

당면하게 걸린 문제들가운데서 힘에 알맞는 자그마한 문제를 《섬멸전》의 대상으로 설정할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제기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경험과 력량을 축적하여 그 문제의 해결에 뒤이어 점차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 포관적인 문제의 해결에로 《섬멸전》의

대상을 확대해나갈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이 뒤떨어진 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섬멸전》의 대상으로 설정할수도 있다.

《섬멸전》의 방법으로 어느 한 뒤떨어진 부문의 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는것은 사업전반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해결함으로써 다른 부문의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힘있게 추진될수 있게 한다.

《섬멸전》의 대상이 정확히 설정된 다음에는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결정적인 돌격을 조직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력량에 대한 정확한 타산이 요구된다.

인적, 물적 력량과 필요한 조건 및 지도력량, 특히 사람들의 정치사상적준비상태 등 자체력량에 대한 정확한 타산이 있을 때에만 《섬멸전》에서 완만성과 소극성을 극복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전개할수 있으며 조급성과 모험주의적경향을 극복하고 과학적기초우에서 전투를 조직진행할수 있다.

《섬멸전》을 성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력량을 정확히 타산할뿐아니라 그것을 집중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진행하는것이 요구된다.

《섬멸전》은 본질상 구체적으로 짜고드는 조직사업의 과정이다. 《섬멸전》은 필요한 력량을 해결하여야 할 목표에 집중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면밀한 계획을 요구하며 사업을 세밀하게 짜고들어 포치하며 그 진행정형을 제때에 총화하고 재포치하는 과정을 부단히 반복하고 심화시킬것을 요구한다.

한두차례의 《섬멸전》으로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 해결될수는 없다. 《섬멸전》의 방법은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일군들에게 습성화되여야 하며 제도화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이 계획적으로 사업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특히 《섬멸전》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개별적일군들의 행동계획이 정확히 맞물리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단위의 당조직들과 국가기관, 근로단체조직들이 자기의 사업계획에 따라 예견된 사업을 하나하나 처리해나가며 모든 일군들이 자기에게 분공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계획을 가지고 목적의식적이며 계획적으로 사업하도록 하는것은 《섬멸전》의 성과를 담보한다.

《섬멸전》은 일군들이 높은 혁명적전개력을 발휘할 때 힘있게 추진될수 있다.

《섬멸전》은 일단 시작한 일을 기어코 해내고야마는 굳은 결심과 일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밀고나가며 한문제를 해결하고는 또다시 다음 문제의 해결에로 넘어가는 혁명적전개력이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다.

《섬멸전》을 전개하는 과정에는 예견치 않았던 난관들이 제기될수도 있다. 이러한 난관들은 불요불굴의 완강성과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줄기차게 전개함으로써만 타개될수 있으며 《섬멸전》을 성과적으로 결속지을수 있다.

이러한 기백, 이러한 전개력만이 《섬멸전》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가며 우리의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킬수 있게 한다.

*　　　*

전반장악과 《섬멸전》은 모든 지도일군들이 언제나 틀어쥐고나가야 할 우리 당의 전통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우리는 전반장악과 《섬멸전》의 본질적요구를 옳게 파악하고 이 방법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사업의 전반을 튼튼히 장악하면서 선차적인 문제의 해결에 력량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제기된 일을 실속있게 처리하는것이다.

전반을 장악한다고 하여 일을 널어놓고 이것저것 어루만지기만하여도 안되며 《섬멸전》을 전개한다고 하여 이여의 문제들의 처리를 등한히하여도 안된다.

전반장악과 《섬멸전》을 실천활동에서 능숙하게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일군들이 김일성동지의 교시, 당정책을 심오하게 연구하고 그것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확신을 가지고 사업전반을 장악할수 있으며 당의 요구, 당의 의도에 맞게 《섬멸전》의 방법으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전반장악과 《섬멸전》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전반장악과 《섬멸전》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또한 현실을 깊이 료해하여야 하며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

객관적현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여야 실정을 알고 거기에 맞게 사업전반을 장악할수 있으며 《섬멸전》을 옳게 조직전개할수 있다.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군중이다.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상론하며 그들의 지혜에 의거하여야만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찾아낼수 있다.

군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군중을 동원하고 군중의 힘에 의거할때 전반장악과 《섬멸전》의 위력은 남김없이 발휘될수 있다. 그리하여 모든 단위, 모든 초소들에서 우리 당 정책이 더잘 관철될것이며 사회주의건설은 더욱 촉진될것이다.

전반장악과 《섬멸전》—이것은 모든 혁명초소들에서 부단히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일층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임무와 공산주의도덕

정 진 석

로동계급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도덕적품성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커다란 힘을 기울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는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 썩어빠진 부르죠아적도덕과 생활양식을 단호히 배격하며 개인리기주의, 자유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와 락후한 인습을 반대하고 고상한 공산주의적사상과 도덕의 승리를 위하여,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이 부화와 안일을 반대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며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을 발휘하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근로자들 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와 인습을 청산하고 그들을 공산주의적사상과 도덕으로 무장시키는것은 정치경제적변혁,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과 함께 로동계급앞에 나서는 력사적과업이다.

부르죠아적 및 봉건적 반동사상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사상도덕으로 무장시키는것은 계급투쟁의 한 표현이며 주권을 장악한 로동계급이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여나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오늘 우리가 처하여있는 정세와 우리 인민에게 부과되여있는 혁명과업은 근로자들이 높은 계급적의식을 가지고 적아를 명확히 식별하며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견결히 반대하고 단합된 힘으로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할것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특히 착취와 압박을 당하여보지 못하였으며 간고한 계급투쟁의 시련을 겪지 못한 새 세대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는 조건에서 그들을 확고한 계급의식과 공산주의도덕품성으로 무장시키는데 커다란 주의를 돌려야 한다.

* *

사람들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되기 위해서는 로동계급의 세계관을 소유함과 함께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갖추고 어느때나 로동계급의 립장에서 일하고 생활할수 있게 되여야 한다.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에

있어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로동계급의 세계관을 체득시키는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사물을 계급적립장에서 보고 판단할수 있으며 어떠한 행동이 혁명의 리익에 부합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게 된다. 로동계급의 세계관은 공산주의 도덕의 기초이다. 근로자들의 계급적 의식을 높여야만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배양하는 과업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한편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배양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계급적 립장을 고수하고 혁명의 리익에 부합되는 행동규범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규범에는 도덕과 법이 있다. 도덕이란 량심 및 사회적여론에 의하여 유지되는 사람들의 행동규범의 총체이다. 도덕은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의 옳은 행동을 보장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된다. 도덕은 량심, 도덕적의식에 고유한 선악의 판단, 도덕적감정의 힘으로 하여 사람들의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계급사회에 있어서 도덕은 계급적성격을 띤다. 공산주의도덕은 로동계급의 도덕이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수행에 복무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륜리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리익에 전적으로 종속하는것이라고 말하는바이다. 우리의 륜리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리익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레닌전집 제 31권, 348페지).

공산주의도덕은 로동계급의 혁명임무, 맑스—레닌주의당의 정치적과업실현에 기여한다.

로동계급의 도덕은 적들과의 견결한 투쟁과 혁명력량의 공고한 단결을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로동계급의 계급적원칙에 선 도덕교양은 근로자들을 계급적원쑤들과의 투쟁에서 확고한 혁명적립장을 견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공고화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논다.

로동계급의 도덕을 소유할 때 근로자들 속에서는 원쑤와의 견결한 투쟁과 동지들간의 확고한 단결이 행동의 규범으로, 도덕적확신과 량심의 요구로 되며 일상생활에서 구현하는 습성, 품성으로 되게 된다.

가장 간고한 조건하에서 15성상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싸워이긴 항일혁명투사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싸움터에서 서슴없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 승리의 길을 개척한 인민군용사들이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한 근저에는 혁명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도덕적확신이 놓여있다.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위하여 기본으로 되는것은 근로자들의 계급적, 정치적 립장의 공통성이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계급적의식성을 제고시키는데 선차적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대중을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단결시키는것은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

단결을 더욱 심화시키고 굳건한것으로 되게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특히 공고한것은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단결되여있기때문이다.

근로자들의 도덕의리적결합을 보다 심화시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가일층 공고히하는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도덕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산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공산주의적원칙에 부합되는 행동규범들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한다.

천리마기수들이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며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는데서 달성하고있는 커다란 성과들은 바로 그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를 일상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것과 떼여서 생각할수 없다.

근로자들이 공산주의도덕의 규범들을 체득하고 공산주의적으로 살고 일하며 배우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게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 *

공산주의도덕교양은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적정신을 높이면서 로동에 대한 자각적태도, 국가사회재산에 대한 옳은 태도를 배양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전체 당단체들은 매 당원들로 하여금 로동은 가장 영예로운것이며 인간생활의 필수조건이라는것을 똑똑히 인식하도록 하며 사회적소유를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며 당과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개인의 리익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정신이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15페지).

집단주의는 공산주의도덕의 기본특징이며 맑스—레닌주의자들의 행동원칙이다.

집단주의는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 사회주의제도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온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집단적 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개인의 리익과 집단, 사회의 리익은 통일되여있다. 집단주의정신의 배양은 근로자들을 국가와 사회의 리익에 대한 충실성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킴으로써 혁명임무를 수행하는데 더욱 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나서게 한다.

로동계급의 계급적원칙에 기초한 집단주의를 체득시킴으로써만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국과 인민의 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게 할수 있으며 단합된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추진을 위하여 더욱 자각적으로, 헌신적으로 투쟁하게 할수 있다.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는것은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하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추진시켜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북반부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혁명임무는 근로자들을 집단주의정신으로 확고히 무장시키고 집단과 사회의 리익,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헌신성을 더욱 높이도록 교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더욱 높이며 공산주의도덕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혁명과 건설사업에서 커다란 장애로 되는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는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본질로 보나 우리 앞에 나선 혁명임무로 보나 우리 사회에 더는 있을 자리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집요한 낡은 사상잔재의 하나이며 또한 외부로부터도 계속 침습하고있다. 개인주의와 리기주의의 온갖 표현들을 반대하여 더욱 철저히 투쟁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의 도덕을 확립하는것은 현시기 사상사업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우리는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의 리익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며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공고히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며 집단과 나라살림살이에 대하여 세심히 배려하는 태도를 배양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공산주의적집단주의는 확고한 로동계급의 혁명적원칙에 기초한 집단주의이다. 그러므로 집단주의도덕을 배양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적의식을 높이며 그들을 로동계급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것이 선결조건으로 된다. 이와 함께 집단주의도덕의 규범들을 체득하고 일상생활에서 구현하도록 하는 도덕교양을 옳게 진행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공산주의도덕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근로자들에게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는것이다.

로동에 대한 자각적인 태도를 배양하는데 있어서도 기본으로 되는것은 사회주의하에서의 로동의 새로운 성격, 그것이 가지는 혁명적의의를 명확히 인식시키는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자기자신만을 위하여 일하는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하여,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일하고있다. 모든 사람의 로동은 자신과 사회를 위한것이며 혁명을 위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한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자기 사업이 한갖 직업이 아니라 혁명사업이라는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로동에 대한 자각적태도를 배양하기 위하여 근로자들 속에서 각자의 임무가 우리 당의 혁명임무,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투쟁과업의 한부분이며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는것이 곧 혁명승리에 이바지하는것이라는 자각과 영예감을 간직하도록 교양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로동에 대한 자각적태도를 배양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에서의 로동의 성격과 의의를 명확히 인식시키면서 로동을 사랑하는것이 사람들의 도덕적량심의 요구로 되게 하며 그 어떠한 조건하에서나 성심성의 혁명을 위하여 헌

신적으로 일하는 도덕적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산주의도덕교양의 중요한 임무로 되는것은 또한 국가 및 공동 재산을 애호하는 정신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우리의 국가 및 공동 재산은 우리 인민의 간고한 혁명투쟁을 통하여 얻어진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추진시키기 위한 귀중한 밑천이다.

국가 및 공동 재산을 사랑하며 주인답게 보호관리하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지금 우리는 착취자들을 위하여 일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자신과 자기의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일하고있다. 이런 사회에서 자기의것만 보호하고 국가와 집단의것은 다 파괴되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리기주의사상을 허용할수 없다. 국가의 재산도 결국 우리들자신의것이지 그 어떤 딴 사람의것이 아니다. 국가의 재산, 사회의 재산은 전체 인민의 공동의 재산이기때문에 개인의것보다도 더 귀중하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도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더 존중히 여기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것이다»(«자녀교양에서의 어머니들의 임무»).

우리는 국가공동재산을 자기 개인의 재산보다 더욱 소중히 여기는 정신으로 사람들을 교양하여야 하며 기재설비와 공공시설들을 알뜰히 관리하고 원료와 자재들을 극력 절약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는 도덕적기풍을 확립하는데 부단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과제를 완수 및 초과 완수하며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꾸리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각적으로 노력하는것은 곧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시키며 우리 혁명위업의 완수를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 기여하는 것이다.

공산주의도덕교양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응당한 역할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 ❊

근로자들 속에서 로동계급의 도덕적 품성을 배양하기 위하여서는 매개 사람들의 계급적관점이 심장으로 접수된 내적확신으로 되게 하는 동시에 자기 행동을 로동계급의 리익에 맞게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구체적규범, 규준들을 소유케 하는것이 필요하다.

근로자들에게 계급적, 민족적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이며 비타협적인 태도, 용감성, 자기희생성, 자기의 육체적생명보다 정치적생명을 천백배 더 귀중히 여기는 혁명적지조를 배양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덕교양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적원칙에 기초한 집단주의의 요구들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집단, 계급, 당, 조국의 리익을 무엇보다도 소중히하며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지닌 자기의 의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여야 하며 혁명동지들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태도를 배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사업과 일상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준칙들을 구체적으로 습득시키는것이 요구된다.

로동계급의 도덕적규범들이 실지행동에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급적행동규범들을 알려주는것과 함께 그것을 적극 실천하려는 도덕적감정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은 그것이 도덕적의무감, 량심의 요구로까지 되고 감정석으로까지 파악될 때 실천을 위한 강한 추동력으로 되는것이다.

사람들의 감정은 그들의 리성적판단과 뗄수 없다. 일정한 행동규범의 정당성에 대한 사람들의 리해가 심오하면 심오할수록 그것을 실천하려는 그들의 감정과 확신도 깊어진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도덕적감정을 배양하는데 있어서도 그들의 맑스—레닌주의적세계관을 확립하는것이 선결조건으로 된다. 이와 동시에 사람들의 심리, 정서에 작용하는 다른 모든 요인들도 옳게 리용하는것이 필요하다.

근로자들 속에서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을 배양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항일투사들을 본보기로 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높은 계급의식과 고상한 도덕적풍모를 갖춘 혁명가로 육성할것을 강조하고있다.

혁명전통교양은 공산주의도덕교양의 목적을 가장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생동한 사실, 모범으로써 근로자들에게 강력한 도덕적감화를 주기때문이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온갖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고 강대한 적과 싸워 빛나는 업적을 쌓은 김일성동지를 선두로 한 항일투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고상한 도덕적면모, 그들의 활동과 생활은 우리 인민에게 어떻게 살며 싸우고 일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불멸의 귀감으로 된다. 우리 근로자들은 항일투사들의 혁명적활동과 고상한 도덕적풍모에서 꾸준히 배움으로써 자신을 혁명화하고 공산주의적도덕품성으로 무장하며 혁명선렬들과 같이 로동계급의 위업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혁명투사로 자라날수 있다.

오늘도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생애에 구현된 고매한 혁명정신과 고결한 도덕적풍모는 가장 감동적인 산 사실들로서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을 감화시키고 혁명승리를 위한 헌신적투쟁에로 고무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고상한 동지애와 집단주의, 혁명적의리 등은 우리 나라에서 형성발전되고있는 공산주의적도덕의 력사적뿌리이며 그것으로써 근로대중을 교양하는

것은 그들의 계급적의식을 높이며 공산주의적도덕풍모를 갖추게 하는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의 힘있는 방법으로서 긍정적모범으로 사람들을 감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였다.

혁명선렬들의 고상한 도덕적풍모로 근로자들을 교양하며 우리 사회에서 산생되는 긍정적모범들로 근로자들을 교양하는것은 사업과 생활에서 훌륭한 도덕적행동이 어떠한것인가를 구체적실례로써 보여줄수 있게 한다. 긍정적모범들은 사람들속에 고상한 도덕적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도덕이 중요하게 의거하는 사회적여론의 작용을 강화시킨다.

긍정적모범에 의한 교양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 전통이 이룩되였으며 우리 당이 계승발전시켜온 공산주의교양의 방법이며 도덕교양의 효과적인 방법이다.

모범의 교양적의의는 사회주의사회의 조건에서 각별히 크다.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루어지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긍정적모범들은 사람들에게 빨리 자연스럽게 접수되며 널리 전파된다.

도덕교양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사회에서 부단히 산생되는 긍정적모범들을 찾아내여 적극 보급시키며 우수한 모범들을 창조하여 그것으로써 구체적인 생동한 교양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힘써야 한다.

우리 당은 생산현장을 통한 교양을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의 중요한 방법으로 제기하고있다.

《집단적로동은 인간교양의 가장 훌륭한 학교이며 인간의 의식을 개변하는 사상사업은 바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적투쟁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우리는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공산주의교양을 진행함으로써 인간의 의식을 개변하는 사업과 근로자들의 생산활동을 직접 결합시킬수 있으며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적도덕기풍을 가장 성과적으로 배양할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으며 특히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 그의 빛나는 결실을 보고있다》(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우리 당이 강조하고있는 생산현장에서의 집단적로동을 통한 교양은 도덕교양의 특성과 요구에도 부합되는 훌륭한 교양방법이다.

사람들의 계급적관점과 도덕적품성은 집단적로동행정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된다. 생산현장에서의 교양은 실천적과업의 해결과 결부시키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교양할수 있게 하며 공동로동에 종사하는 집단의 영향력에 의거할수 있게 한다. 생산현장에서의 교양은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을 통하여 교양사업을 진행할수 있는것만큼 도덕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도덕적규범준수의 습성화를 촉진할수 있다. 생산현장에서의 교양은 집단내에서 몸가까이 볼수 있는 긍정적모범들에 의하여 사람들을 잘 감화시킬수 있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 속에서 광범히 전개되고있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람

들을 교양개조하여 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놀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키는 고상한 공산주의적미덕의 많은 실천적모범들이 나타났으며 그것은 우리 나라 근로자들을 긍정적모범으로 감화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천리마기수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발현되고있는 공산주의적도덕풍모는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도덕의 발전을 촉진하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계속 확대 발전시키며 천리마기수들속에서 발현되는 고상한 공산주의적미풍을 일반화하는것은 오늘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를 견지하며 우리 인민의 사상과 도덕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방도로 된다.

근로자들의 고상한 도덕적품성을 배양하며 로동계급의 도덕적규범들을 일상적으로 준수하도록 교양하는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것은 조직생활을 강화하며 규률있고 단결된 집단내에서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는것이다.

우리 당원들의 도덕교양은 무엇보다도 당조직생활에서의 사상교양과 수양을 통하여 이룩된다.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주요한 행동규범인 당규약을 엄격히 준수하는것은 당적의무인 동시에 도덕적의무로 된다. 당원들은 당생활규범들을 정확히 준수함으로써 당적의무를 옳게 수행하면서 자신의 공산주의적도덕풍모를 형성하게 된다.

근로자들의 도덕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중단체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며 젊은 세대들을 공산주의도덕으로 교양하는데 있어서도 어린시절부터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적, 도덕적 면모를 형성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는 당이 가르치는대로 로동계급의 새로운 사상과 도덕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 견결히 진행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력사적과업의 실현을 촉진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더욱 높일것이다.

경제예비동원과 조직사업

김 경 련

당대표자회는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키면서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방향과 방도를 밝히였다.

오늘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상한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일으키고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의 혁명적고조를 계속 견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며 우리 앞에 제시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경제내부예비를 옳게 동원리용하는것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제내부예비—이것은 아직 생산에 리용되지 않고있는 생산잠재력, 리용되지 않고있는 가능성으로서 생산이 진행되는 모든 곳에 언제나 있으며 경제의 발전행정에서 끊임없이 새로 발생되고 증대된다. 이것은 생산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생산의 발전을 위하여 아무리 많은 예비를 동원리용하였다하여도 생산자체가 하나의 발전과정이니만큼 예비는 부단히 새롭게 생겨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가 얻은 중요한 교훈은 우리에게 예비가 얼마든지 있다는것이다. 그러니 동무들은 이미 예비를 다 털어놓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겠다… 동무들이 관리기술수준을 더욱 높이며 계속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한다면 부단히 새로운 예비를 찾아낼수 있다》(김일성선집 제5권, 288페지).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매단계마다 해당시기에 제기되는 정치경제적과업, 경제발전의 수준 및 경제발전법칙의 요구에 상응하게 그리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경제내부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정확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천리마적대고조의 계기를 열어놓은 1956년 12월전원회의를 비롯하여 지방의 광범한 예비를 동원하여 매개 시, 군에 한개이상의 지방산업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한 1958년 6월전원회의,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전 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한 1958년 5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 그리고 그후의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 제11차, 제12차 전원회의 등은 인민경제내부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며 경제발전을 추진시킴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졌다. 인민경제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로력과 자재, 자금을 극력 절약하여 질좋고 값눅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 과정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기본원칙의 하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적경험은 인민경제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온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 우리 당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경제내부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당

의 정확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고조가 일어났으며 경제는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왔다.

당대표자회는 현시기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의 구체적형편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경제건설에서 생산내부예비동원에 주되는 힘을 돌릴것을 강조하였으며 그 정확한 방도를 명시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 이것이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이며 바로 여기에 생산의 장성과 인민생활향상의 거대한 예비가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인민경제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는데 주되는 힘을 돌려야 한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우리 인민은 지난기간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들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꾸려놓았다. 우리가 쌓아올린 이 방대한 경제토대는 거대한 생산적예비를 가지고있다. 우리가 아직 충분히 리용하지 못하고있는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한다면 생산장성을 크게 촉진할수 있다.

이러한데로부터 출발하여 당대표자회는 채취공업과 동력공업을 선행시키고 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며 기술관리를 잘하고 기술혁신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고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것을 공업부문에서의 중심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이 과업은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따라 인민경제내부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는 가장 정확한 방도를 밝히고있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공업부문의 중심과업을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우리 인민경제의 예비들을 전반적으로 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 방향에 따라 인민경제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7개년계획의 남은 과업의 많은 부분을 수행할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현저히 향상시킬수 있다.

경제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는것은 현시기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을 병진시키는 당의 전략적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킬수 있게 하는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책동이 로골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이 국방력강화에 더 많은 인적물적자원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실정에서 내부예비를 동원하는것은 추가적투자없이 생산을 장성시킬수 있게 하므로 그것은 국방건설에 더 큰 힘을 돌리면서 경제건설을 계속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인민경제에 내재하는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하고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며 우리 나라 혁명을 더욱 촉진하는데서 극히 큰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경제의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는데 있어서 인민경제전반에 걸치는 시책들과 함께 매개 부문, 매개 기업소들에서의 내부예비동원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기업소일군들은 생산내부예비들의 동원리용에 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매개 분야, 매개 생산단위들에서 구체적실정에 부합되게 예비들을 적극 찾아내며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생산장성에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옳게 조직하여야 한다.

* *

경제내부예비는 고정불변한 형태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수준, 변화된 환경에 따라 각양하게 존재하며 따라서 그것을 동원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형태도 달라질수 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에게 예비는 무진장하다. 그러나 예비를 찾아내고 동원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형태는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것이다».

생산이 째여지고 비교적 손쉽게 찾아낼수 있는 예비들이 리용되는데 따라 생산내부의 예비를 성과적으로 동원하는데는 더욱더 경제관리운영수준의 제고, 조직사업의 개선이 요구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화의 토대가 축성되고 경제발전이 더욱 높은 단계에로 올라감에 따라 경제내부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며 생산을 발전시키는데서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것은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게 인민경제에 대한 조직과 관리를 잘하며 지도를 일층 개선하는것이였다.

공업과 농업에 대한 관리체계와 기구를 개편한것도 바로 생산지도에 력량을 집중하고 생산을 보장하는 모든 부서들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동원할수 있는 모든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리하여 1961년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전원회의에서는 조직사업, 지도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많은 예비를 찾아낼수 있게 하였다.

생산장성의 가장 큰 예비가 조직사업을 잘하는데 있다는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인민경제가 더욱 발전된 조건하에서 경제내부예비를 계속 옳게 동원리용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생산이 더욱 째여지고 기술장비가 일층 현대화되였으며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훨씬 높아진 오늘에 와서 공장, 기업소들에서 내부예비의 성과적인 동원리용은 관리운영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다.

오늘 우리의 공업은 과거에 비하여 질량적으로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공업내부생산조직과 로동조직이 과학적인 기초우에서 째여졌으며 생산에서의 질서와 제도가 확립되였다. 그뿐만아니라 로동자들은 새로운 기계설비를 능숙하게 다루게 되였다. 또한 지난 시기와 같이 손쉽게 동원할수 있는 예비들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거의 동원리용되였다.

이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새로운 생산적예비를 찾아내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따지고 분석하며 세밀하게 타산하고 과학적으로 조직하는데 있다. 더우기 이것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고 그들이 계속 천리마를 타고나가며는 조건에서 더욱 긴절한 문제로 되였다.

당의 정확한 정책을 받들고 대중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동원되고 있는 조건에서 일군들이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잘한다면 당의 정확한 방침과 대중의 앙양된 열의는 훌륭한 결실을 맺을수 있다. 경제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은 현시기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바로 여기에 생산잠재력과 숨어있는 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며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고조를 계속 견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담보가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고 낡은 기준, 낡은 기록이 부단히 갱신되고있는 변혁의 현시기에 조직사업의 의의는 더욱 증대된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치밀하고 기동적인 조직사업으로 안받침해줌으로써만 새로운 예비를 계속 찾아내고 그것을 옳게 실현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속도를 계속 확고히 보장

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이 머리를 쓰고 사업을 짜고든다면 우리에게는 로력, 자재, 자금을 절약하고 생산을 장성시킬수 있는 예비가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함으로써 경제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

＊ ＊

경제내부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사업에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경제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이다. 오늘 조직사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경제내부예비를 옳게 동원하느냐 못하느냐 하는것이 바로 여기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우선 경제지도일군들이 당의 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철저히 연구하며 사업을 피동적으로가 아니라 주동적으로,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혁명적으로 전개하며 강의한 투지를 가지고 섬멸전의 방법으로 하나씩 실속있게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경제지도일군들이 당정책을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그것을 자기 사업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으며 한두번에 안되면 열번, 백번이라도 해서 당정책을 꼭 관철하며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장을 내고야마는 혁명적기풍을 가질 때야만 당정책집행을 능숙하게 조직할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기술경제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경제지도일군들속에서 자기가 맡은 사업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며 어떤 일이나 신중하게 연구하고 세밀하게 짜고들며 사업을 조직하고는 검열하며 또 조직하고 검열하는 기풍을 세우는것이 필요하다. 일군들이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실속있게 하며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의 온갖 표현을 반대하고 언제나 모든 문제를 나라와 인민의 리익, 혁명의 리익에 비추어보며 어떻게 하면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가지 일이라도 더 잘하겠는가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머리를 쓰고 노력할 때 경제내부예비가 옳게 동원리용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신적성과들이 달성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새로운 예비를 찾아낼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대안체계의 기본요구는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것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이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군중의 힘과 창조적지혜를 발동시킨다면 언제나 문제해결의 고리를 찾아낼수 있으며 경제내부예비와 생산장성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수 있다. 경제내부예비를 직접 찾아내고 리용하는것은 생산자대중이며 따라서 그것을 동원리용하는 방도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있는 사람들도 그들이다. 그러므로 사업에서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은 혁명적인 방법이며 경제내부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현실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실천활동에서 옳게 구현하고있는 곳에서는 내부예비를 찾아내여 생산을 장성시킬데 대한 당의 요구가 성과적으로 실현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모든 일군들은 관료주의, 형식주의등 낡은 사업방법을 철저히 극복하고 대중속에,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당정책의 집행방도와 제기된 문제들을 대중과 함께 토의하고 조직하며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동원할수 있는 모든 예비를 찾아내고 리용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사업에서 전반적면을 다같이 틀어쥐고나가면서도 일을 널어놓을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업의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고리를 포착하여 거기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넘어가며 일반적사업포치를 한 다음에는 한점을 뚫고 모범을 창조하여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방법을 널리 도입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하고 맑스—레닌주의원리와 경제 및 기술 지식을 소유하며 군중로선에 기초한 혁명적사업방법을 체득함으로써 로력과 물자, 자금을 최대한으로 절약하며 있는 로력과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생산할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대중을 내부예비동원에 옳게 조직동원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호소와 사상동원이 중요하며 따라서 응당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사업에 조직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사상적동원이 생산활동에서 더욱 큰 생활력을 나타내게 하여야 한다. 정치사업에 면밀한 조직사업이 안받침될 때 대중의 힘이 물질적열매로 확고히 실현될수 있다.

정치사업과 조직사업의 결합—이것은 모든 사업에서 우리 당이 항상 견지하여온 중요한 원칙이다. 특히 대중들의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 많은 예비들이 발견되고있는 조건에서 산 조직사업을 잘하여야만 그들의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계속 견지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일군들은 생산자대중의 건의들이 실현될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주는 생산조직사업을 잘해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이란 《그것은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는것이오, 기계, 설비들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제때에 보수하는것이요, 필요한 설비와 부속품을 제때에 대주는것 등등을 의미한다》라고 하시였다(김일성선집 제6권, 413~414페지).

생산을 위한 제 조건을 생산에 앞세워 보장하는것—이것은 생산조직사업에서의 하나의 법칙이다. 대중의 앙양된 기세에 보조를 맞추어 물질적조건을 갖추어주는 조직사업을 잘하고 기술적으로 지도하여야만 대중의 기세도 계속 견지할뿐아니라 더욱 앙양시킬수 있고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1인당생산액을 높이는 문제도, 설비리용률을 높이는 문제도, 원가를 낮추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 문제도 추가적투자없이 있는것을 가지고 훌륭히 해결해나갈수 있다.

예비동원을 위한 조직사업에서 로력배치와 로력조직을 잘함으로써 있는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력관리를 개선하고 있는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현시기 로력의 긴장성을 풀며 생산을 장성시키는 방도의 하나로서 지도일군들이 반드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비생산부문의 로력을 줄여 생산부문에 돌리며 보조생산부문의 로력을 줄여 기본생산부문의 로력과 직접공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로력배치를 부단히 개선하는 동시에 청장년로력을 가장 긴요한 부문들에 옳게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 기업소들에서 로동정량사업을 개선하며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온갖 로력랑비를 근절하고 1인당생산액을 훨씬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내부예비동원을 위한 조직사업에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엄격한 절약제도를 확립하며 원료, 자재, 연료, 동력을 아껴쓰기 위

한 투쟁을 강화하도록 하는것이다. 우리에게 물자를 절약할수 있는 예비는 얼마든지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물자소비기준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는 동시에 기술공정을 부단히 개선하고 새 기술과 선진생산방법을 널리 도입하여 원료, 자재의 원단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춘다면 많은 물자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장성시킬수 있다. 또한 물자의 보관관리와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도 적지않은 예비가 있다.

사회주의경제는 객관적경제법칙에 튼튼히 의거하고 그것을 정확히 리용하며 일체 생산과 건설에서 과학기술적, 경제적 타산을 정확히 할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계획화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특히 세부계획화에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경제활동이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맞물리게 하며 생산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이 계획적으로 효과있게 리용되도록 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와 함께 독립채산제와 내부채산제를 강화하고 로력, 물자, 자금의 소비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것을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돌린다면 나라의 살림살이에 큰 보탬을 줄수 있는 예비는 도처에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살림살이의 주인답게 이러한 예비를 찾아내야 하며 국가와 인민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것이라면 크고 작은것을 가리지 말고 한알의 쌀, 한치의 천, 한그람의 쇠, 한개의 벽돌, 한푼의 돈이라도 아껴쓰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내부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에서 중요한 문제는 기술혁명을 추진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 공업, 농업, 운수 등 모든 경제부문들과 기업소들에 잠재해있는 증산과 절약의 거대한 예비는 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기초우에서만 효과적으로 동원리용될수 있다. 오늘 로력을 절약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며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는 등 경제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은 기술문제들의 해결에 크게 의존하고있다.

설비를 개조완성하며 선진기술공정을 널리 도입하여 현존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이는것은 기술혁명에서 중심과업의 하나이며 내부예비동원의 중요한 방도이다. 낡은것을 개량하고 완성하여나간다면 적은 투자로써 생산을 훨씬 장성시킬수 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낡은 기계설비들을 개량하고 완성하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림으로써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강화하며 특히 설비의 점검보수체계를 확립하고 보수주기를 단축하며 보수의 질을 높이는것은 있는 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장성시키는데서 절실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일수 있는것이라면 그 어떤 사소한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대담하게 생산에 도입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달리는 천리마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불러일으켜야 할것이다.

채취공업을 앞세우기 위한 중심문제

손 경 준

당대표자회는 인민경제발전에서 채취공업을 다른 공업부문들에 앞세울것을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공업부문에서의 중심과업은 채취공업과 동력공업을 선행시키고 공업의 틈간에 살을 붙이며 기술관리를 잘하고 기술혁신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고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채취공업을 앞세우는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을 성과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로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의 첫 공정인 채취공업을 앞세워야 한다. 채취공업을 앞세우고 원료, 연료에 대한 장성하는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해야 금속, 화학, 기계 공업을 비롯한 공업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할수 있다.

또한 원료, 연료, 동력이 충분히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채취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경제로대를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된다.

우리는 이미 마련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데 주되는 힘을 돌리는 동시에 확대재생산을 위한 기본건설을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채취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인민경제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동력기지를 확대강화하는 조건에서만 부단한 확대재생산을 위한 조건을 조성할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이와 함께 채취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경제문화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외화원천을 확대하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된다.

채취공업의 발전은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과업들을 옳게 해결하는 필수조건이며 경제건설과 함께 국방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중요조건으로 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채취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그것을 다른 공업부문들에 확고히 앞세워야만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 *

채취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여러 부문에서 당이 제시한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채취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과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당이 제시한 이 방침은 현시기 우리 나라 채취공업발전에서 중심적인 문제

를 명시하고있다. 오직 이 방침이 철저히 관철될 때야만 채취공업을 앞세울데 대한 요구가 실현될수 있다.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는것은 현시기 채취공업발전에서 제기되는 가장 절박한 문제이다. 지질탐사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지하자원의 분포법칙성을 해명하고 매장량을 정확히 알아야 채취공업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생산을 부단히 증대시킬수 있다.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채취공업에 대한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며 석탄, 광석의 원가를 낮추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과학적인 탐사자료에 근거하여 굴진방향을 정확히 잡음으로써만 굴진에서 투기성과 헛굴진을 없애고 굴진메터당 석탄, 광석생산량을 증대시킬수 있으며 갱건설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일수 있다.

지질탐사사업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현행탐사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이미 있는 탄광, 광산들의 확보탄량과 확보광량을 증대시키는것이다. 이렇게 해야 기존 탄광, 광산들에 이미 있는 기계설비를 비롯한 생산적로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적은 투자로써 더 많은 석탄, 광석을 생산할수 있다. 이것은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을 채취공업부문에서 실현하는 실천적방도이며 여기에 석탄, 광석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기존 탄광, 광산들의 심부 및 주변탐사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현행탐사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여기에 전망탐사를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우리의 채취공업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킬수 있도록 많은 개발후보지들을 확보하여놓는것이 중요하다.

확보광량과 확보탄량을 증대시키며 개발후보지들을 더 많이 찾아내자면 탐사의 속도와 효률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탐사단계를 철저히 준수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탐사대상들에 대한 기초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설계를 작성하며 각종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탐사의 속도와 효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탐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기계설비의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기술에 정통한 탐사일군들이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탐사작업에 능숙히 리용할 때야만 우리 나라에 풍부한 지하자원을 더 많이 개발할수 있다. 시추기와 뽐프, 디젤발전기, 물리탐사용기계설비와 측정계기들을 충분히 질적으로 생산보장해주는 동시에 부속품의 생산 및 수리기지를 더욱 강화하고 예방보수체계를 확립하는 등 설비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강화할것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과 지질학적특성에 알맞게 지구물리 및 지구화학탐사를 비롯한 각종 선진탐사방법들을 적절히 적용하는것은 지질탐사사업의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산이 많고 지형, 지질 조건이 매우 복잡한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더욱 그러하다.

탐사일군대렬을 확대강화하고 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지질탐사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하자원을 찾아내는 시추굴진은 그자체에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탄광, 광산들에서 캐낼수 있는 석탄과 광석을 더 많이 잡아내는데 있다. 탐사일군들이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립장, 나라살림살이의 주인된 립장에 확고히 서서 자기 사업을 치밀하게 조직할 때야만 탐사사업은 채취공업의 발전에 효과

적으로 기여할수 있다.

기술혁명을 적극 추진시키는것은 채취공업의 급속한 발전에서 극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채취공업은 어느 부문에서 보다 로동이 고되고 품이 많이 든다. 기본작업은 주로 갱내에서 그것도 복잡한 지질조건에서 진행된다. 그뿐아니라 채굴막장은 광석과 석탄을 캐내면 캐낼수록 더욱 멀어지고 깊어지기 마련이다. 이것은 현대적인 기술수단들과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도입하고 로동생산능률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문제가 채굴공업부문에서는 다른 공업부문에서 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제기된다는것을 말해준다. 기술혁명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생산을 빨리 장성시킬수 있으며 로동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다.

이 부문 기술혁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굴진 및 채굴막장들에서 기술혁신을 강화하는것이다. 먼저 굴진, 채굴막장들에서 기술혁신을 강화하면서 운반계통에서도 기술적진보를 이룩할 때야만 생산이 계통적으로 장성할수 있다.

기술혁신에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 나라 지질조건에 맞는 각종 천공기, 적재기, 채굴설비, 압축기들 그리고 중소탄광, 광산들에 필요한 소형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공급해줌으로써 작업의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특히 로천채굴에 필요한 착정기, 대형굴착기, 불도젤, 대형자동차의 공급을 증대하며 채탄막장들에서 쇠동발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채탄작업의 기계화를 실현할수 있도록 하는것은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는데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굴진과 채굴에서 기술혁신을 강화하는 동시에 운반작업의 기계화, 자동화를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특별히 관심을 돌려야 할것은 중단 및 막장운반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는것이다.

적지않은 탄광, 광산들에서 이 부문의 기계화비중이 높지 못하기때문에 많은 로력을 들이면서도 생산을 응당한 수준에 끌어올리지 못하고있다. 우리는 시급히 이 부문의 기계화를 추진시킬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작업의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탄광, 광산들의 갱도를 지질조건의 특성에 맞게 될수록 규격화하고 영구화하며 운반기계설비들의 품종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이는것이다.

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선진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도입일반화하는것이 필요하다.

매개 탄광, 광산들의 지질조건에 적응하게 련속천공종합발파법, 분리식채굴법, 두꺼운 탄층에서의 대공, 심공천공법 등 선진적인 굴진 채굴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착암기대당 락광량과 채취률을 높여야 한다. 특히 생산의 장성과 원가저하 및 지하자원의 효과적리용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채취률제고에 중요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탐사 및 기타 제 조사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인 굴진 및 갱건설설계를 작성하고 여기에 철저히 근거하여 작업을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설계를 선행하는것은 굴진의 효과성과 채취률을 높이고 빈화률을 낮추며 로동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탄광, 광산들에서는 설계실들과 갱내 지질조사원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탄광협의회와 설계심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기관들은 이에 대한 지도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선탄, 선광부문에서 기술혁신을 강화하고 다계단선광법을 비롯한 선진적인 선광법을 도입함으로써 선광실수물과 정광품위를 높이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많은 자금과 품을 들여 캐낸 석탄과 광석들을 허실함이 없이 인민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적인 선광설비들을 도입하고 화학시약의 품종을 확대하는것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광물은 대체로 다금속광물이다. 이에 적응하게 화학시약의 품종을 늘이고 선광설비들을 보장해주어야만 인민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금속 및 비금속물질들을 모두 회수리용할수 있다.

채취공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채취공업부문 기계생산기지들을 강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광산, 탄광들의 공무동력직장의 역할을 높여 부속품생산을 강화하고 점검보수사업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은 기술혁명수행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탄광, 광산들에서는 기술전습, 기술학습을 강화하며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협조를 강화하고 기능공들의 대렬을 확대하면서 그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데 중요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채취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지하부원을 찾아내고 캐내며 그것들을 인민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사업은 이 부문 과학연구사업의 성과에 크게 의존한다. 최신과학기술의 성과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만 탐사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채취공업에서 기술혁신을 적극 추진시키는 문제도 이 부문 과학연구사업이 강화되고 그 성과들이 생산에 신속히 도입될 때야만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각이한 지질조건에 맞는 다양한 선진기계설비들을 생산공급하며 합리적인 작업방법과 생산공정을 도입하며 채취률, 정광품위를 높이는 등 기술혁신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이 과학연구사업의 성과에 의거할 때 더 잘 해결될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캐낸 모든 지하부원들에서 유가물을 최대한으로 회수리용하는 문제는 최신과학기술에 의거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우리가 채취공업부문 과학연구사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그 성과들을 생산에 신속히 도입한다면 석탄과 광석을 더 많이 캐낼수 있으며 그것을 인민경제의 발전과 국방력강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는것을 현실은 잘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이 부문에서는 지하자원에 대한 조사사업과 그것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 채취공업의 기술장비를 강화하며 채굴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 광석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연구사업 등 각방면에 걸쳐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과학연구사업분야에 제기된 과업을 정확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일군들이 생산현장에 깊이 침투하여야 한다. 지금 생산에서 긴급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적지않은 문제들을 제때에 잘 풀지 못하고있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과학일군들이 생산현장에 침투하지 않는것과 관련되여있다. 현실에 파고들 때야만 생산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여 풀어나갈수 있다.

또한 탄광, 광산탐사대들에서도 자체의 기술연구집단을 옳게 동원하여 걸리고있는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 속에 아직 남아있는 개인리기주의, 공명주의를 극복하고 과학일군들의 대렬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려야 한다.

당조직들은 이 부문 과학연구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하며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로 하여금 당이 제시한 과업들을 어떠한 난관과 애로속에서도 끝까지 수행하고야 마는 철저한 혁명가로, 당에 충직한 전사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연구기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며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채취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문에서는 이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의 양성사업을 개선하는데 큰 관심을 돌려야 한다.

⁂　　　⁂

채취공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로동력에 대한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이 계속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탄광, 광산들에서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여 현존로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하여야만 채취공업부문앞에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우선 비생산부문과 보조부문의 로력을 축감하며 로력배치에서 굴진과 채굴을 5대 5의 비례로, 갱내로력의 비중을 건장한 청장년들로 70%이상 보장할데 대한 당적요구를 반드시 관철하여야 한다. 채취공업부문에서 이와 같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때야만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이 높아질수 있으며 로력의 긴장성도 풀릴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함으로써 로동자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갱내로동안전시설을 철저히 정비하고 군대와 같은 규률을 확립하여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방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채취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채취공업부문에 인민소비품을 더 잘 공급하며 주택, 합숙 조건을 개선하고 모든 편의봉사시설들을 정비보강하는 동시에 매개 탄광, 광산들에서 부업경리를 발전시켜 로동자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케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생산에 전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기 및 동기 대책을 잘 세우는것은 채취공업부문에서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하는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탄광, 광산들에서는 계절적영향으로 생산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계획적으로 예견성있게 강구하여야 한다.

당이 채취공업부문에 제시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의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채취공업일군들은 인민경제의 첫 공정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정책과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모두가 오로지 당이 제시한 과업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대중의 힘과 지혜, 혁명적열의에 의거하면서 경제관리를 더욱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지도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채취공업을 앞세울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민주주의적민족권리의 옹호와 조국통일을 위한 총련의 투쟁

양 원

총련은 창립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주위에 60만 재일동포들을 굳게 결속시키고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있다.

특히 총련은 최근년간에 《한일회담》 결속을 전후하여 일본반동들과 박정희도당의 파괴책동이 더욱 악랄해진 극히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계속 새로운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간고한 시련과 중첩되는 난관을 물리치면서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위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헌신적인 투쟁으로 이룩해놓은 모든 빛나는 성과와 업적들은 무한히 귀중한 것이다.

오늘 총련은 자기의 애국적인 투쟁으로써 대내, 대외적으로 허물수 없는 확고한 권위와 위신을 쟁취하였다.

조국과 수령께 충실한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지난기간에 달성한 모든 성과들은 총련의 강령과 그들이 진행하고있는 투쟁의 정당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 *

지난기간 총련의 애국투쟁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자기 조직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과 동포대중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킨것이다.

총련은 날로 더 악랄해지는 내외반동들의 파괴책동에도 굴함없이 자기 조직을 철통같이 꾸리고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데 심중한 주목을 돌렸다.

총련은 조직을 튼튼히 다지고 모든 일군들을 우리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집단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과 원칙적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또한 총련은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학풍을 수립하고 간부양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총련은 모든 일군들이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청산리방법을 실지사업에 구현함으로써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고 광범한 동포대중들 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그들과의 혈연적인 련계를 보장하고있다.

그리하여 총련은 간고한 투쟁속에서 자기의 각급 조직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일층 공고화하였으며 동포대중의 더욱 더 두터운 신뢰와 지지를 받고있다. 이것은 총련이 동포대중들 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조직전개하여 그들을 우리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더한층 굳게 결속시키는 튼튼한 담보

이다.

총련은 당과 수령의 주위에 동포대중을 굳게 결속시키는것을 자기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들속에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15성상에 걸치는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은 적들의 파괴책동이 우심해가는 이국땅에서 살며 투쟁하는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정신적량식으로 되고있다.

총련은 동포대중에게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광복과 우리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 모든것을 바쳐싸운 항일투사들의 혁명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지조, 고결한 도덕적품성을 따라 배우게 하고있다. 혁명전통교양을 통하여 총련은 동포대중에게 우리 당과 혁명의 뿌리를 알게 하며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오늘의 사회주의조국이 어떻게 풍파 많고 간고한 로정을 거쳐 이루어졌는가를 똑똑히 인식시키고있다.

총련은 또한 재일동포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에게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 인식시키고있다.

우리 인민이 쟁취한 혁명적전취물이며 조선혁명의 강력한 보루인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는 조국인민과 더불어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에게 있어서도 더없이 귀중한것이다.

재일동포들은 지난날 일제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수난의 시기 망국노의 참혹한 처지에서 바로 이러한 사회제도를 갈망했으며 오늘도 이국땅에서 민족적멸시와 온갖 천대를 받는 그들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서 진정한 삶의 길을 찾고있는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총련은 정연하게 꾸려진 대중정치선전체계와 방대한 교양수단을 통하여 이러한 사상교양사업을 동포대중속에서 줄기차게 진행하고있다.

오늘 총련산하에는 조국의 현실을 소개선전하기 위한 수백개의 조국연구실, 수천개의 대중강연구와 게시판이 있으며 1,200을 넘는 성인학교와 청년학교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수천명에 달하는 강사와 직외강사들이 사업하고있으며 1만명을 넘는 선동원들이 활동하고있다. 《조선신보》, 《조선화보》, 《인민조선》 등을 비롯한 수많은 정기간행물들이 발행되고있다.

조선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재일동포들에게 당당한 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영예를 안겨주었을뿐만아니라 육친의 정으로 극진히 보살펴주고있다. 재일동포들은 우리 당과 수령의 자애로운 손길에 의하여 공화국공민된 행복을 간직하고 힘있게 삶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속에서의 사상교양사업을 통하여 그들에 대한 우리 당과 정부의 동포애적시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뜨거운 육친적배려를 가슴깊이 느끼게 하고있다.

혁명전통교양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이 심화됨에 따라 재일동포들의 사상의식에서는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 재일동포들은 사회주의조국을 더

욱 열렬히 사랑하고 옹호하며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충만되여있다. 그들은 공화국공민된 영예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투쟁하고있다.

총련은 앞으로도 전체 재일동포들을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주위에 철석같이 묶어세우며 내외원쑤들의 온갖 탄압과괴책동으로부터 총련조직을 철저히 보위하며 그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는 영예로운 사업에서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할것이다.

* *

총련은 지난기간 일본반동들의 탄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과거에는 해외동포들의 운명은 암담하였다. 학대받고 무권리와 생활고에 신음하여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들의 권리를 마음대로 다칠수는 없다.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공민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수 있다》.

전체 재일동포들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고있는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받들고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왔다.

재일동포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고수하는 문제는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총련은 일본반동들이 재일동포들에게 《한국국적》을 강요하려는 음흉한 책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그들의 공화국공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공화국정부에 대한 적대정책으로부터 출발하여 재일조선공민들의 공화국국적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박정희도당과 결탁하여 《영주권신청》놀음을 벌려놓고 악랄한 방법으로 재일동포들에게 괴뢰《한국국적》을 강요하려 하고있다.

그들은 《생활상 편의를 도모해준다》느니, 《조선국적을 가지고있으면 앞으로 재미없다》느니 하면서 온갖 회유와 위협공갈로 《한국국적》을 강요하기 위하여 광분하고있다.

이것은 60만 재일조선공민들과 그 합법적단체들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용허할수 없는 적대행동이며 국제법과 인간의 기본권리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이다.

총련은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책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현지부단위로 《〈한국국적〉을 조선국적으로 고치는 회》를 조직하고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이미 수많은 동포들이 《한국국적》을 조선국적으로 고치게 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공화국공민권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내외반동들이 재일동포들에게 《한국국적》을 강요함으로써 그들을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리용하려 한 음모적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총련은 동포들의 인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생활권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은 그들의 사활적인 문제이다. 오늘 일본반동지배층들은 경찰과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총련간부

들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감기, 살상, 폭행을 도처에서 감행하고있다. 일본당국은 또한 재일조선공민들의 기업활동을 백방으로 억제하고있다.

그러므로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반동들의 온갖 탄압책동을 반대배격하면서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생활에서 애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여주고있으며 동포들끼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활을 꾸리고 기업을 지켜나가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총련은 재일상공인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영업상 각종 제한조치를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그들을 업종별로 협동조합에 망라시키고 융자, 원료구입, 판로 등을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신용조합사업을 발전시켜 자금문제를 돌봐주었다.

이리하여 최근 3년간에만하더라도 동포신용조합은 22개로부터 28개로, 예금액은 234억 8천만원으로부터 533억 1천만원으로 장성하였다.

인권과 생활권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동포호상간 신임이 두터워지고 민족적 단합이 강화되고있으며 총련의 권위는 비상히 높아졌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조국에로의 귀국의 권리를 수호하며 자유래왕의 실현을 위하여 강력히 투쟁하고있다.

재일동포들의 조국에로의 귀국은 공화국정부의 동포애적시책과 총련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실현되였다. 그리하여 이미 8만 7,000여명의 동포들이 조국의 품에 안겨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이미 귀국한 동포들은 조국의 벅찬 현실속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마음껏 발휘하고있으며 건국적범위에서의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성새인 공화국북반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는데 직접 기여하고있다.

귀국사업을 통하여 재일동포들의 애국적열성은 비상히 높아졌으며 공화국정부의 위신은 일층 제고되였다. 재일동포들의 귀국의 실현은 총련사업과 재일동포들의 생활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왔다. 총련대렬이 더욱 확대되였으며 총련조직에 망라되지 않은 수많은 동포들도 공화국의 공민된 영예를 가지고 총련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되였다. 재일동포들은 귀국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려는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반대하며 조국에로의 전면적인 자유래왕의 실현을 방해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재일동포들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일본당국의 음흉한 책동에 대처하여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견결히 고수하기 위한 총련의 투쟁은 실로 커다란 정치적의의를 가진다.

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실시하는것은 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성스러운 애국투쟁이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한 총련의 투쟁은 독립국가의 해외공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응당한 권리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시종일관 총련의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반일교육》이라느니, 《일본의 리익에 배치된다》느니 하는 부당한 구실로 탄압하고있으며 《동화》교육을 강요하기 위해 《외국인학교제도》창설을 획책하고있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총련의 투쟁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각국의 선량한 인사들로부터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은 일본당국의 온갖 파괴책동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배려와 동포들의 애국투쟁에 의하여 부단히 발전하여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을 돕기위한 동포애적배려로부터 출발하여 최근 10년간에 23회에 걸쳐 56억 2천 78만 5,493원(일본돈으로)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었다.

오늘 총련은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정연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체계를 확립하고 그 산하에 26개의 유치원, 88개의 초급학교, 44개의 중급학교, 9개의 고급학교와 조선대학을 가지고있다. 여기에서는 이미 3만명의 학생들이 귀국하고도 4만여명의 동포자녀들이 공부하고있다.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은 동포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 조국의 력사와 지리, 문화 등을 가르치주며 그들을 조선로동당의 정책과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킴으로써 수령의 충직한 아들딸로 교육교양하고있다. 이리하여 동포자녀들은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옹호하며 그것을 위하여 복무할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나고있다.

그들의 이러한 애국적지향은 총련이 조직한 대집단체조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과 음악무용서사시 《조국의 해빛아래》 등을 통하여 널리 과시되었다.

앞으로도 재일동포들은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당당한 긍지를 지니고 총련의 지도밑에 자기들의 단합된 력량으로 민족적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할것이다.

*　　　*

총련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총련은 재일동포들 속에 우리 당의 자주적조국통일방안의 내용과 그 정당성을 계통적으로 해설침투시켰으며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동포대중을 조직동원하였다.

조국통일은 남북조선인민들뿐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의 절실한 념원이며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수십년동안 설움 많은 이국살이의 쓰라린 체험을 가지고있는 재일동포들은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것을 한결같이 념원하고있다.

총련은 조국의 주권과 령토를 침해하고 그 내정에 간섭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그의 앞잡이 괴뢰도당을 쓸어버리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할것을 자기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규정하고 그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우리 당의 자주적조국통일정책에 근거한 총련의 이러한 투쟁방침은 조국통일을 념원하고있는 60만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애국적지향을 대변하고있음으로 하여 그들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오늘 재일동포들은 총련의 주위에 굳게 결속되여 미일반동들과 박정희도당의 탄압책동을 박차고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정의로운 애국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작년 1년간에만도 조국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가종 집회들에 연 58만 7,000여명의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이러한 투쟁은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을 일삼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도당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는 동시

에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고무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총련은 또한 적들의 민족리간책동을 물리치고 《민단》산하 동포들과의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 사업은 총련의 군중적지반을 강화하고 그의 합법적지위를 공고히 하며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형성을 촉진시키며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정부》투쟁을 고무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진심으로 원하는 모든 조선사람들은 그가…국내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없이 남조선에서 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합류하여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무한히 충실한 총련은 민족적단합을 이룩함에 있어서 조국통일을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단체의 소속과 신앙의 차이, 정견, 재산과 지식의 유무, 과거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동포들과 손잡고 나아갈것을 주장하고있다.

그리하여 총련은 《민단》산하 동포들과의 하층통일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상층통일을 정확히 결합시키는 원칙을 착고히 견지하면서 그들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민족리간책동과 민족차별시책을 반대배격하며 생활상에서 제기되는 절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각종 형태의 공동투쟁을 진행하고있다.

공동행동에 참가한 동포들은 외세의 추종은 망국의 길이며 자주자립의 길만이 갱생의 길이란것을 점차 깨닫고있으며 우리 당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을 지지하고 총련의 제반 애국투쟁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총련은 또한 일본인민들과 세계각국인민들과의 친선적련계를 강화하면서 그들에게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안과 그 정당성을 널리 선전함으로써 그에 대한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당의 권위와 공화국정부의 대외적위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서 총련이 달성한 이 모든 자랑찬 성과와 업적은 60만 재일동포들의 고상한 애국적헌신성과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 얻어진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박정희도당과 결탁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온갖 탄압책동을 물리치고 그처럼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서 총련이 달성한 고귀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그들과 함께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고있다. 전체 조선인민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우리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반미구국의 기치밑에 남북조선에서 전개되고있는 조선인민의 장엄한 투쟁에 의하여, 그리고 해외에 있는 조선공민들의 애국투쟁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통일될 날은 더욱더 다가오고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 *

총련이 달성한 모든 성과들은 오직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써만 가능하였다.

그것은 또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높은 애국적열성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투쟁한 결과이다.

오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내외반동들의 갖은 모략책동에도 굴함없이 공화국공민된 영예와 지조를 지키면서 우리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과업과 총련 제8차전체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힘차게 궐기하고 있다.

일본당국은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 박해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그들의 인권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재일조선공민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법에 의하여 자기의 법적지위를 확고히 보장받는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그들의 권리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당국의 어떠한 탄압과 박해도 민주주의적, 민족적권리와 조국통일을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을 저지시킬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전체 조선인민의 격분을 자아낼뿐이다. 우리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과 박해를 단호히 규탄하며 우리 동포들의 정당한 투쟁을 언제나 지지성원할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재일동포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심장으로 받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고있는 전체 조선인민은 총련사업에 전 당적인 관심을 돌릴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명심하고 앞으로도 계속 재일동포들과 총련의 애국사업을 적극 지지성원하는데 모든 힘을 다할것이다.

자기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재일조선공민들과 총련의 애국사업이 일본인민을 비롯한 전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더 많이 받을것은 의심할바 없다.

미일반동들과 박정희도당의 그 어떤 파괴음모책동도 조국과 수령께 충실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전진을 결코 가로막지는 못한다.

조선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전진하는 60만 재일동포들과 총련의 애국사업은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할것이다.

웰남침략전쟁에서의 미제의 군사정치적위기

고 성 순

웰남인민은 미제의 침략을 분쇄하며 나라의 남부를 해방하고 북부를 수호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고있다.

《남북웰남인민의 영웅적반미구국투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 세계인민들의 모범으로 되고있으며 그들을 무한히 고무하고있다》(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미제침략자들은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온갖 발악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대한 정치군사적패배를 당하고있다.

미제는 《관도전략회의》이후 웰남침략전쟁을 더욱더 엄중한 단계에로 확대하면서 《전면전쟁》의 길에 들어서려 하고있다.

그러나 미제는 그 어떠한 전쟁확대책동으로써도 웰남전쟁에서의 심각한 군사정치적위기로부터 결코 헤여날수 없으며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실현할수 없다.

⁂ ⁂

미제는 웰남침략전쟁에 수많은 미군과 괴뢰군 그리고 막대한 무장장비를 투입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전략적으로 패배를 거듭하여왔다.

미제는 1961년에 남부웰남에서 《특수전쟁》을 개시할 때까지만해도 군사《고문》의 명목밑에 약간의 미군사인원과 괴뢰군을 리용하여 능히 침략목적을 달성할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18개월간에 《속전속결》의 방법으로 남부웰남해방군의 주력을 소멸하고 주요지역을 《평정》할것을 목적으로 하였던 《스테일리—테일러계획》과 《존슨—맥나마라계획》은 아무러한 전략적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파산되였다.

이것은 남부웰남에서 4년여에 걸쳐 진행된 《특수전쟁》전략의 완전한 파산을 의미하는것이였다.

《특수전쟁》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데 있어서 큰 의의를 부여하였던 전략적방침의 하나였다. 남부웰남에서의 《특수전쟁》의 파탄은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전략에 대한 커다란 타격이였다.

미제는 《특수전쟁》이 실패한후 웰남에서의 침략적야망을 기어코 실현하기 위하여 침략전쟁을 계속 확대하여왔다. 그들은 미군병력과 무장장비를 대대적으로 투입하면서 《특수전쟁》을 《국부전쟁》으로 확대하여 《집중공세》를 강화함으로써 이 전쟁을 단시일내에 끝내보려고 타산하였다. 1965년말부터 진행한 두차례의 《건조기공세》가 바로 미제의 이러한 전략적방침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미제는 20만명의 미군과 2,300대의 비행기 및 각종 군사기재를 동원하여 1965~1966년에 《제1차건조기공세》를 감행하였고 그에서 실패한후 그들은 41만명의 미군과 2,000대의 군용차, 4,300대의 비행기 등을 동원하여 1966~

1967년의 《제2차건조기공세》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이러한 전쟁확대책동으로써도 저들의 전략적목적을 달성할수 없었을뿐아니라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있다.

미제가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안출》해낸 전략전술들은 웰남인민의 영웅적인 항쟁과 능숙한 작전에 의하여 련이어 파산되고말았다. 남부웰남에 더 많은 무력을 끌어들여 감행하고있는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파괴하는》 초토화작전, 화학물질에 의한 대량살륙작전도 저들의 처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였으며 거점들을 확보하면서 《먹줄범지기》식으로 침투하는 전술, 지상군의 대량투입에 의한 《수색작전》, 인민들을 회유기만하면서 점령지역의 치안을 《확보》하려는 《평정계획》등 모든것이 여지없이 실패당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부 도시와 해안선을 유지하고있는데 지나지 않으며 그것마저 지탱해내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미제는 사실상 남부웰남에서 분산된 거점들에 볼박혀있으며 심지어 그들의 소굴인 사이공에서까지 빈번한 폭탄세례를 받고있는 형편이다.

《국부전쟁》을 시작한이후 시기에만하여도 웰남에서 미제의 손실은 급격히 증대되었다. 1965년에는 1만 9,200명의 미군을 포함하여 22만 7,500명의 병력을 잃었으며 1966년에는 10만 8,000명의 미군과 1만명에 가까운 추종국가군대를 포함하여 약 37만명의 병력을 잃었다. 1965년에 비하여 1966년에 미군사상자수는 5배, 지상에서 파괴된 미군비행기는 1.5배, 파괴된 미군의 각종 군용차량은 3배로 각각 증가하였다.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과정에서 남부웰남해방군대렬은 날로 확대되고있으며 그들의 무장장비도 개선강화되고있다. 남부웰남해방군은 분패의 대오로 자라났으며 침략자들에게 계속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남에 따라 인민들의 정치적각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해방군과 인민의 련계는 일층 긴밀해지고있다. 전투에서의 주도권은 미제가 아니라 의연히 해방군과 유격대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으며 해방군은 적들을 계속 혼란과 수세에 몰아넣고있다.

민주웰남에 대한 미제의 파괴전쟁도 아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있다. 민주웰남인민의 반격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민주웰남에서 이미 수십억딸라에 해당하는 1,900여대의 비행기와 수많은 비행사들을 상실하였다.

미제의 공중비적들의 야수적폭격은 민주웰남인민의 투지를 조금도 꺾을수 없었으며 웰남인민들과 전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미제를 세계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웰남전쟁에서의 미제의 패배는 필연적인것이다. 웰남전쟁은 미국측으로는 부정의의 침략전쟁이며 웰남인민의 측으로는 침략자를 반대하는 정의의 해방전쟁이다. 전쟁의 이러한 성격으로 하여 미제는 전체 웰남인민의 견결한 항전에 부딪치지 않을수 없으며 전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을 받지 않을수 없다.

미제가 남부웰남에서 본격적으로 《국부전쟁》을 감행하면서부터 웰남전쟁은 《미국의 전쟁》, 미제와 웰남인민간의 전쟁으로 되였다. 이리하여 웰남인민과 미제국주의간에 민족적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였다.

자기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웰남인민은 미제침략자들과는 비할바 없는 정치도덕적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오랜 기간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단련되었으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에게 덴비푸의 참패를 안겨주고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몰아낸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있는 웰남인민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으로 하여 반미구국투쟁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고있다.

정의의 전쟁에 궐기한 웰남인민들은 열렬한 애국주의, 대중적영웅주의, 군대와 인민대중간의 혈연적인 련계로 하여 미제와 괴뢰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모든 난관과 희생을 무릅쓰고 승리를 이룩하고있는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웰남침략전쟁에서 미군과 괴뢰군의 전투사기는 극도로 저락되여있다. 수치스러운 부정의의 침략전쟁에서 개죽음을 당할가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고용군대들에게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쥐여준다고 하여도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무기는 그것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병사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상태와 결합될 때만이 자기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전쟁에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적역할을 하며 기술은 인민이 그를 소유하고 인민이 정의의 투쟁을 진행할 때라야만 강력한것》(김일성선집 제4권, 1954년판, 243페지)이다.

웰남전쟁의 현실은 미제의 《기술적우세》가 정의의 위업에 궐기한 웰남인민들 앞에서 침략자들의 참패를 결코 막아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는 전투손실의 급격한 증대와 전쟁규모의 확대에 따라 더욱 심각화되고있는 병력부족 특히 비행사를 비롯한 기술병종의 부족에 허덕이고있다.

오늘 미국지배층들은 웰남전쟁에서의 병력부족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각종 악법을 조작하여 청장년들을 군대에 그러모으려고 발악하고있으나 웰남의 수림속에서 무더기로 쓰러지는 사상자수를 보충하기조차 바쁜 형편에 있다.

남부웰남괴뢰정권의 불안정성과 괴뢰군의 급속한 와해는 미제의 침략전쟁수행에서 커다란 난관으로 되고있다.

반동적인 예속부르죠아지와 봉건적지주계급을 토대로 하는 남부웰남괴뢰정권은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내부알륵으로 하여 더욱더 약화되고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고있다.

괴뢰군병사들은 극도의 염전사상에 빠져있으며 대량적인 도주로 말미암아 그 대렬은 날이 갈수록 와해되여가고있다. 1966년 한해 동안에만하여도 10만명이상의 남부웰남괴뢰군이 도주하여 인민의 편으로 넘어갔다. 이것은 실로 괴뢰군 5명중 1명이 탈주하였다는것을 말한다.

괴뢰군이 이처럼 무력해짐으로써 미제는 더는 그들에 의거하여 전쟁을 수행해나갈수 없게 되였다. 미국출판물까지도 괴뢰군의 이러한 상태를 론평하면서 《남부웰남군대는 싸우기를 전혀 원치 않으며 탈주병이 어찌나 많은지 우리가 더는 남부웰남군대에 의거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미제와 괴뢰도당의 강제에 의하여 자기 인민을 반대하는 수치스러운 전쟁에 끌려나온 남부웰남괴뢰군의 이러한 붕괴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웰남침략전쟁에서 《국부전쟁》전략이 완전히 파산되고 이 《전략》에 의해서는 더는 전쟁을 계속하기 곤난하게 된 조건에서 미제는 그로부터의 출로를 현재의 《국부전쟁》을 《전면전쟁》에로 확대하는데서 찾으며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웰남전쟁의 가일층의 확대는 미제에게 더욱 엄중한 군사정치적후과를 가져올뿐 결코 그들은 수치스러운 패배에서 구원할수 없다.

전쟁의 운명을 규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항구적요인들은 계속 웰남인민의 편

에 유리하게 작용하고있다. 웰남전쟁에서 미제가 패배하고 웰남인민이 승리하는것은 력사적필연성이다.

*　　　*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침략전쟁에서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다.

웰남침략전쟁에서의 미제의 정치적위기는 그들이 전체 웰남인민의 증오와 항의를 받고있을뿐만아니라 세계인민들로부터 철기히 고립되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미제는 웰남인민에게서뿐만아니라 사회주의나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고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고있으며 싸우는 웰남인민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있다.

이와 함께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시위와 집회, 성명 등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규탄하고있다. 세계의 진보적정부들과 수많은 민주단체들, 각이한 국제기구들도 미제의 야수적인 침략행위를 폭로규탄하면서 싸우는 웰남인민에대한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조선전쟁이후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인민들로부터 이와 같이 강력한 항의에 부딪치 고립된 때는 없다.

웰남침략전쟁에서 미제는 또한《동맹국》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있으며 반대에 부딪치고있다.

미제는 웰남침략전쟁에서 저들의 군사전략상 약점을 보충하기 위하여《동맹국》들의 일정한 지지와 협력을 타산하였으며 그를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하였다. 미제가 웰남침략전쟁에서 련속 패배하고 그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미제의 지위가 약화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내부모순의 격화로 하여 사분오렬의 위기에 처하여있는 서방《동맹》은 그 취약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놓고있다. 미제가 그처럼 믿어오던 《동맹국》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외면하고있으며 일부 나라들은 사실상 그것을 반대해나섬으로써 미제를 배후로부터 타격하고있다.

조선전쟁때까지만하여도 미제는 《동맹국》들을 저들의 침략전쟁에 동원할수 있었으나 오늘 웰남침략전쟁에서는 그들의 지원을 기대할수 없는 형편에 있다. 조선전쟁에서 쓰라린 맛을 본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제가 웰남침략전쟁을 확대하여 《전면전쟁》에로까지 나가는 경우 이 전쟁에 끌려들어가 미제와 함께 멸망의 운명에 처하게 되는것을 원치 않고있다.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은 자국인민들로부터도 더욱 격렬한 항의에 부딪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에서 침략전쟁을 계속 감행하자면 자국인민들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오늘 미국인민들은 존슨정부의 계속되는 침략전쟁으로 하여 자기들에게 들씌워지는 방대한 군사비부담과 전쟁터에서의 값없는 죽음을 감수하려 하지 않으며 더구나 이 전쟁이 기일층 확대되여 무서운 참화를 당하게 되는것을 원하지 않고있다.

웰남침략전쟁으로 인한 방대한 군사비지출과 근로자들에 대한 전쟁부담은 미국에서의 사회적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고있으며 존슨행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증대시키고있다.

전쟁을 치부의 원천으로 삼고있는 미국독점체들은 웰남전쟁을 통하여 거액의 리윤을 획득하고있지만 미국근로대중은 수백만딸라를 전쟁비용으로 략탈당하고있으며 수많의 자기 아들들을 웰

남전쟁마당에서 얻고있다.

이것은 미국인민들의 분노를 격발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존슨정부의 전쟁정책을 반대하여 대중적으로 진출하게 하고있다.

오늘 워싱톤을 비롯하여 미국각지에서는 인민들의 반전, 반정부 시위와 집회가 날로 확대되고있다.

윁남침략전쟁에서의 거듭되는 패배는 미국지배층내부에도 심각한 혼란상태를 조성하고있다. 윁남침략전쟁에서의 위기를 둘러싸고 미국국회는 론쟁과 의견충돌로 하여 심히 소란해지고있다.

윁남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미국인민들의 투쟁과 윁남전쟁의 위기를 둘러싼 지배층내부의 의견충돌은 존슨정부의 정치적지반을 약화시키고있으며 윁남침략전쟁에서의 그들의 위기를 가일층 증대시키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존슨을 두목으로 하는 전쟁광신자들은 자국내에서 윁남침략전쟁을 《지지》해나설것을 호소하면서 반전투쟁에 나서고있는 인민대중과 저들의 《반대파》들에게 각종 압력과 위협을 가하고있다. 미국호전광들의 이러한 위협행동에 대하여 미국출판물까지도 《현정부에 대한 미국인민의 신임이 사라지고있는것을 막기 위해 존슨이 미국내에서 벌려놓은 색다른 또하나의 전투》라고 쓰고있다.

이상의 모든 사실은 미제가 윁남침략전쟁에서 군사적으로뿐만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 ※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윁남전쟁에서 겪고있는 군사정치적위기는 결코 수습될수 없으며 침략책동을 강화하면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깊은 함정에 빠져들어가고있다.

그러나 미제는 허세를 부리면서 결코 윁남에서 스스로 물러나려 하지 않고있다. 그들은 군사정치적위기가 심각하여질수록 집요하게 침략과 전쟁정책에 매달리면서 침략전쟁을 더욱더 위험한 단계에로 끌어가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윁남전쟁에서 당하고있는 군사정치적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최근시기에만도 《괌도전략회의》를 전후하여 각종 《전략회의》를 빈번히 벌려왔으며 윁남에 대한 《전략적방침》에 따라 《국부전쟁》을 《전면전쟁》에까지 확대하려는 모험을 감행하고있다.

얼마전에 워싱톤에 불려갔던 남부윁남주둔 미군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는 《최대한의 군사적압력을 가하는외에 전쟁종식의 방도가 없다》고 떠벌리면서 수십만의 병력을 또다시 요구한것은 미제가 이 지역에서 전쟁을 계속 확대하기 위하여 얼마나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말해준다.

윁남침략전쟁을 새로운 위험한 단계로 급격히 확대하기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남부윁남에서 미군병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으며 윁남비무장지대에 미군과 남부윁남괴뢰군이 대량 침입하여 군사적도발행동을 강화하고있는데서 볼수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방대한 자기 무력과 괴뢰군에 의거하여 남부윁남에서 해방지역에 대한 《소탕작전》을 계속하고있을뿐만아니라 림시군사분계선일대에서 전쟁행위를 미곡하게 감행하고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 미제는 비행기와 포, 함대까지 동원하여 비무장지대에 거듭 폭격과 포격을 감행하고있으며 그곳을 윁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지상공격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발악하고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오늘 남부윁남에서의 지상전쟁을 민주윁남에까지 확대하려고 획책하고있다는것을 말해

준다.

다음으로 윁남침략전쟁을 확대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민주윁남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의 강화에서 표현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윁남에서 벌리고있는 류혈적인 《소탕작전》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민주윁남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한층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오늘 민주윁남의 산업중심지들과 평화적시설들에 대하여 계속 폭격을 감행함으로써 민주윁남에 대한 폭격에서 이른바 《제한된 대상》의 가면마저 완전히 벗어버렸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윁남민주공화국의 수도 하노이와 국제항구도시인 하이퐁항을 비롯하여 일련의 산업중심지들과 주민지역들을 매일과 같이 폭격하고있다.

윁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폭격만행은 윁남인민의 더욱 큰 분노를 일으킴으로써 결국 미제의 패배를 촉진시키고있을뿐이다.

미제는 윁남에서 《전면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에서 또다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소동을 벌려놓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에 각종 신형무기들을 끌어들이는 한편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행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윁남전쟁에서 겪고있는 군사정치적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인도지나반도에서뿐만아니라 아세아의 광대한 지역에까지 침략전쟁을 확대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윁남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기 위한 미제의 무모한 책동은 또한 이 전쟁을 《국제화》하기 위한 소동에서도 볼수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유세계의 수호》라는 이름밑에 윁남전쟁에 더 많은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끌어들임으로써 한편으로는 전쟁의 확대와 결부되여 요구되는 대포밥을 보충하려 하며 다른편으로는 저들의 침략전쟁에 그 어떤 《국제적성격》의 외피를 씌워보려 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제는 윁남에서의 저들의 침략적본질을 다소라도 가리며 자국인민의 반전투쟁과 세계인민들의 반미감정을 무마해보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계속 군사적공세를 강화하면서 다른편으로는 《평화공세》를 벌려놓고있다. 그들은 전쟁마당에서 얻지 못한 《승리》를 회의장에서 얻으려는 속심밑에 이른바 《평화협상》의 기만극을 계속 강화하고있다. 세상사람들이 알고있는바와 같이 미국침략자들이 내놓고있는 《무조건협상》이란 자기의 추악한 침략정체를 가리기 위한 기만술책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평화협상》의 구호를 들고나오는것은 《평화》의 간판밑에 윁남전쟁의 확대를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을 기만하며 윁남에서의 전쟁확대의 구실을 조작하여 자기의 침략정책을 정당화해보려는것이다.

오늘 윁남문제는 세계정치문제의 중심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 대표자회보고에서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윁남침략과 그것을 반대하는 윁남인민의 투쟁은 현시기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사이의 투쟁에서 초점으로 되고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윁남에서의 미제의 침략전쟁은 비단 윁남인민뿐만아니라 사회주의진영과 전체 민족해방력량을 반대하며 세계평화를 유린하기 위한 강도적인 전쟁이다. 따라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윁남인민의 영웅적투쟁은 자기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일뿐아니라 세계사회주의력량과 민족해방력량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며 세계평화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다.

웰남에 조성된 정세는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미제국주의자들의 모험적인 침략책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며 싸우는 웰남인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반제력량은 미제와 날카롭게 맞서서 투쟁하여야 하며 웰남인민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고 그들의 반미구국항전을 백방으로 지원하여 웰남에서 미제침략자들의 피묻은 마수를 꺾어버려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에서의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는 조건에서 미제를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도 응당 계단식으로 확대하여야 할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반제력량이 싸우는 웰남인민에게 강력한 물심량면의 지원을 보내며 미제침략자들에게 더욱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다면 웰남에서의 미제국주의자들의 종국적인 패배는 더욱 촉진될것이다.

조선인민은 웰남인민의 반미투쟁을 자기의 투쟁으로, 웰남인민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있으며 싸우는 웰남인민을 지원하는 것을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공동의 원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성스러운 반미구국항전의 종국적인 승리를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5월 25일부의 자기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은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전면전쟁〉의 길에 들어선다면 그에 상응한 지원형태를 취할것이며 그들의 침략의 마수를 꺾어버리기 위하여 더욱 단호히 투쟁할것이다》.

이것은 웰남에서의 미제의 새로운 전쟁확대정책에 비추어 웰남인민을 더욱 강력히 지원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확고한 결의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미제는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하며 자기의 모든 전쟁수단을 걷어가지고 웰남에서 물러가야 한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에서 전쟁의 불길을 계속 확대한다면 더욱 큰 참패를 당할것이다.

오늘 미제는 그 어떤 책동으로써도 력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릴수 없으며 종국적인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

조선인민을 비롯한 전 세계인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정의의 항전에 일떠선 웰남인민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부정의의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전세계인민들의 증오와 규탄을 받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반드시 패배할것이며 서산락일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근 로 자 제 5 호 (루계 303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7년 6월 15일　　발행 • 1967년 6월 20일

ㄱ—63169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6 호

평양 근로자사 1967

근로자

천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6 호 (304)

차 례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력히 진행하자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혁명전통교양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그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수 있게 한다. 또한 항일빨찌산들의 고매한 혁명사상과 혁명정신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을 온갖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고 혁명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 싸우는 혁명가로 되게 한다. 혁명전통교양은 항일빨찌산들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풍부한 투쟁경험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킴으로써 어떤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혁명전통교양은 전당과 전체 인민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철석같이 단결시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저히 관철하며 조국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교양을 당정책교양과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사업의 기본으로 하고 그것을 강력히 추진시켰다.

당은 혁명전통교양을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 전체 인민을 당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오늘 조성된 정세와 우리앞에 제기된 방대한 혁명과업은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력히 진행할것을 요구한다.

* *

오늘 우리앞에는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관철하며 전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과업들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결속되여 높은 혁명적열의를 발양함으로써 일대 혁명적앙양을 이룩하여야 하며 우리의 전진운동을 방해하는 일체 낡은 사상요소들, 보수주의와 소극성, 침체를 반대하는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당정책교양과 함께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혁명전통교양을 심도있게 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한다. 우리가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결국 혁명을 잘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며 공산주의를 건설하려고 한다. 그러

자면 혁명전통교양을 더 심도있게 하여 사람들을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조선혁명이 승리할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들고 싸워나갈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인식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고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게 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바로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이룩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김일성동지는 처음으로 조선혁명의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혁명을 계속 승리의 길로 이끌었다. 혁명의 앞길에 난국이 조성되였을 때마다 김일성동지는 이를 뚫고 혁명을 계속 전진시킬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혔으며 몸소 난국을 타개하는 투쟁의 선두에 서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고매한 혁명정신, 높은 덕성은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그이의 주위에 한사람같이 결속시켰으며 혁명의 승리를 위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싸울수 있게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혁명의 선두에 확고히 서계시는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로 하여 우리 인민은 조국의 광복을 이룩할수 있었고 우리 당이 창건되고 불패의 력량으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융성발전하는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할수 있었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과 그이의 령도밑에서 발전하여온 우리 혁명의 로정을 똑똑히 알고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뿌리를 명확히 인식하게 될 때 그이의 영명한 령도만이 우리 혁명을 승리의 길로 인도한다는것을 심장으로 파악하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은 자각성과 혁명적열의를 발휘할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의 뿌리를 철저히 인식시킬 때 그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더욱 깊이 체득할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실천과 결합시킨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달성하고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할데 대한 사상이며 주체적립장에서 혁명을 끝까지 완수할데 대한 사상이다. 조선혁명에서 달성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실현함으로써 이루어진것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계승한 혁명전통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구현하여 이룩된것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그이가 제시하는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만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우리들은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이룩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있게 학습할 때 그이의 혁명사상과 혁명정신, 그이가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되게 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하여 혁명전통교양이 가지는 의의는 또한 항일유격대원들이 혁명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였던 그 모범을 따라 배울수 있게 하는데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고매한 혁명정신으로 무장하고 높은 덕성으로 교양됨으로써 혁명과 수령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 싸우는 혁명투사로 육성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그이가 제시하는 로선과 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며 혁명의 지휘부를 보위하는것을 자기들의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김일성동지의 명령과 지시라면 어떤 일을 막론하고 무조건 집행하며 목숨을 걸고 완수해내는 혁명적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방침을 종파주의와 온갖 기회주의로부터 철저히 옹호하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유일사상체계로 무장된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과 수령에 대한 비할바 없는 충실성의 모범을 따라 배움으로써 그들처럼 혁명과 수령에 무한히 충실할수 있다.

이와 같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력히 진행할 때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의 주위에 하나의 의지로 뭉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도록 할수 있으며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편향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가도록 할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혁명전통교양은 직접 혁명투쟁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여 혁명투쟁한 사람들과 같은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의 하나이다》.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 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는 가장 훌륭한 길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할 때 개인주의, 리기주의 등 낡은 사상요소를 극복하고 혁명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 싸우며 어떠한 난관앞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강의한 혁명가의 품성, 혁명적기개를 단련할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이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화의 생동한 모범을 보여주는데 있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대부분 지난날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하였으며 새세대들은 자본가, 지주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본 일이 없다. 이런 조건에서 사람들에게 단순히 공산주의원리를 가르쳐주는것으로써는 그들을 혁명사상과 혁명적기풍으로 무장시킬수 없다. 오직 온갖 혁명의 풍파와 간고한 시련을 이겨낸 항일빨찌산의 투쟁에서 그 고매한 사상과 정신을 배움으로써만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을 가장 훌륭히 혁명화할수 있다.

김일성동지는 해방후 20년동안 고이 자란 우리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더욱 단련하여 그들이 혁명가적기풍을 소유하게 하자면 지난날 혁명가들이 어떻게 파란곡절을 겪고 어떻게 혁명활동을 하였는가 하는것을 가르쳐주는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교시하였다.

항일빨찌산들이 혁명활동에서 보여준 고매한 사상과 정신의 모범은 류례없이 간고한 투쟁환경에서 이룩된것이다. 이 모범으로 교양하는것은 간고한 투쟁에서 단련되지 못한 사람들을 혁명화함에 있어서 특별히 큰 감화력을 가진다.

15성상에 걸친 항일무장투쟁은 그 첫 순간부터 형언할수 없이 간고한 투쟁이였으며 가장 준엄한 시련의 련속이였다. 항일빨찌산들은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자기 개인의 모든것을 희생하였으며 오직 강의한 혁명정신의 힘으로 그 모든 곤난과 시련을 이겨냈다. 그들은 실로 혁명사상과 정신,

혁명가의 기개와 강의성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공산주의자, 혁명가의 전형이였다.

그러므로 혁명전통교양은 항일빨찌산들의 숭고한 혁명사상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고매한 자기 희생성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의 혁명화를 촉진할수 있게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빨찌산들의 혁명사상과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그들은 조국을 통일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온갖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고 혁명이 종국적으로 승리하는 날까지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에 담긴 풍부한 투쟁경험과 혁명적사업방법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우리는 혁명전통에서 항일유격대의 조직과 활동, 그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얻은 경험, 유격근거지에서 장기간 적들과 대치하여 투쟁한 경험,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정치사업경험, 군중공작, 적군와해공작, 반간첩투쟁의 경험을 비롯한 풍부한 경험들과 다양하고 명활한 유격전술들을 배워야 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빨찌산들의 숭고한 혁명사상,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함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풍부한 투쟁경험들을 배워 그것으로 튼튼히 무장한다면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능숙하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일단 유사시에 어떤 난관에 부닥친다할지라도 주동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투쟁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다.

이와 같이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며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추동하는 강력한 힘을 마련한다.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모든 방침들, 특히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야 한다. 우리앞에 제기되고 있는 이 중대한 과업은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적각오와 혁명적열의를 높이고 그들이 자기의 혁명초소들에서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여야만 그들이 김일성동지가 제시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어떠한 난관과 애로도 용감하게 극복하면서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도록 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항일빨찌산의 혁명사상과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때 그들 속에서는 보수와 침체를 반대하는 투쟁이 더욱 강화될것이며 우리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는 반드시 일대 앙양이 일어날것이다.

1956~1957년 국제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조건에서도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을 일으킬수 있었다. 천리마운동의 발생발전의 전 행정에서는 항상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이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항일유격대의 사상과 정신을 귀감으로 삼으면서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신

비주의 등을 산산이 불사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는 물질기술적조건에 있어서나 대중의 사상의식수준에 있어서 그때와는 비할바 없이 좋은 형편에 있다.

오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유격대의 혁명정신과 기백으로 살고 일한다면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고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여 도처에서 새로운 더 높은 기준을 창조할수 있으며 2배, 3배의 로력성과를 달성할수 있다. 이리하여 모든 부문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더 빨리 추진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전통교양은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이룩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로 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력히 진행함으로써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그들의 혁명화를 촉진할수 있으며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위대한 앙양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 *

우리는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전통교양을 강력히 진행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을 전면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혁명전통에서 배우고 혁명적수양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모두다 백두밀림에서 싸우던 항일빨찌산의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우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심오히 연구하고 그 속에 담긴 혁명정신을 체득하게 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소설보듯이 흥미거리로 읽을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있는 혁명정신을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리기주의가 없어지고 혁명사상이 배양될수 있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이 쓴 회상기들은 비록 짧은 글이지만 여기에는 비상히 심오한 사상과 정신이 깃들어있다. 회상기들에는 오직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운 항일빨찌산들의 고매한 사상과 정신이 담겨져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결코 간단한 단편적인 사실의 기록으로 볼수 없다. 항일빨찌산들이 겪은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의 행군을 직접 겪어보지 못하였고 한홉의 미시가루를 나누어 먹어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회상기들은 자신의 혁명화를 위한 더없이 귀중한 교과서이다.

우리는 회상기들의 하나하나의 이야기와 구절들에 담긴 사상과 정신이 완전히 자기의것으로 되도록 그것을 부단히 반복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항일빨찌산의 혁명사상과 정신이 매개 사람들의 뼈가 되고 살이 되여 사업과 생활에서 훌륭히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항일빨찌산의 혁명사상과 정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고귀한 투쟁경험과 업적들을 전면적으로, 적극적으로 학습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피흘려 싸운 경험, 전후사회주의건설의 난관들을 극복한 경험을 옳게 섭취하여야 한다.

미제침략자들을 쓸어눕힌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대와 인민들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것이며 전후복구건설시기의 시련들을 이겨낸 모범들도 항일빨찌산의 혁명사상과 정신을 귀감으로 하여 이룩한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서》를 비롯한 해방후의 투쟁경험을 수록한 자료들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혁명전통교양자료의 출판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미 출판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더 많이 찍어내보냄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누구나가 일상적으로 그것을 학습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고귀한 투쟁업적과 경험들을 깊이있게 쓴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많이 출판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함에 있어서 혁명소설과 예술작품들이 커다란 역할을 논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고 남조선혁명을 완수하려면 북반부인민들이나 남조선청년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혁명적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혁명소설이 있어야 남조선청년들을 더 잘 교양할수 있고 우리 사람들을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혁명소설을 쓰는것은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과업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오직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공산주의자, 혁명가의 전형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형상화한다면 훌륭한 혁명적작품들이 될수 있다.

대중의 혁명전통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우수한 혁명소설과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작가들과 문학예술일군들이 혁명전통에서 꾸준히 배워야 하며 혁명화되여야 한다. 작가들은 자신이 공산주의자로 될 때에만 공산주의자, 혁명가를 옳게 형상화할수 있다. 우리의 작가예술인들은 항일유격대의 사상과 정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하며 항일빨찌산들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영웅적투쟁을 형상화한 소설을 비롯한 혁명적문예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은 당정책교양과 함께 당조직들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력히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전통을 꾸준히 학습하도록 하며 항일빨찌산들의 고매한 혁명사상을 거울로 삼아 자기의 사상을 단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우선 간부들, 지도일군들이 솔선수범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 간부들은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당조직들은 혁명전통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회상기》학습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심화

시켜야 하며 항일빨찌산참가자들과의 상봉모임, 전적지답사 등을 체계적으로 실속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당력사연구실을 잘 정비하여 그것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교양의 장소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력사연구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을 개변시키며 혁명정신을 배양하기 위한것이다. 따라서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은 반드시 당정책관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시키는 실제적힘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당조직들은 혁명전통교양을 강력히 진행함으로써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이리하여 도처에서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이 생활에서 훌륭히 구현되도록 하여야 하며 보수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불사르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 *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것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것이다.

우리는 혁명전통교양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과 혁명의 깊은 뿌리,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어떠한 침해로부터도 확고히 고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항일유격대의 위업을 계승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독립과 조선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계승자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을 간직하고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근로자들 속에서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

민　　훈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이 땅우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힘과 지혜를 바쳐 싸우는 열렬한 혁명가—애국자로 교양육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현시키기 위한 문제와 직접 관련된다.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국가사회재산을 애호절약하며 로동에서 높은 자각성을 발휘하게 될 때에만 사회주의제도는 모든 면에서 그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될수 있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시종일관 근로자들의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는 오늘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고있는 긴장된 환경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대표자회의 전략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7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겨야 한다.

우리 앞에 나선 보람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더욱 심도있게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　　*

력사적인 우리 당 대표자회보고에서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킨다》**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애국주의로서 철저한 계급적내용을 가진다. 그것은 로동계급이 낡은 착취제도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게 된 때에 로동계급의 계급의식, 맑스—레닌주의혁명사상이 그들의 애국적감정과 결합됨으로써 새롭게 형성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진행된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서 전적으로 맑스—레닌주의사상에 의하여 지도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확고한 지향에 기초하여 진행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일제침략자들을 타

도하고 우리 나라에 온갖 계급적억압과 착취가 없는 사회주의조국을 창건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빛나는 전통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해방후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발전되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의 가장 혁명적계급인 로동계급의 혁명적지향을 반영함으로써 과거의 모든 애국주의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가장 높은 형태의 애국주의이다.

로동계급은 우리 나라에서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고 그것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로동계급은 계급적억압과 착취뿐만아니라 온갖 형태의 민족적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조국을 창건함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전례없는 륭성발전을 이룩한다. 이것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기타 근로자들만이 참다운 애국적감정을 가질수 있으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만이 가장 광범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반영하는 애국주의라는것을 말해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은 민족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며 근로인민의 리익을 떠나서는 민족의 리익을 생각할수 없다.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억압, 예속과 몰락의 길이며 사회주의만이 계급적착취와 함께 민족적억압을 근절하고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번영을 보장한다. 그렇기때문에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철저한 애국자로 되는것이며 자기의 계급적해방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기타 근로자들만이 참다운 애국적감정을 가질수 있는것이다》**(《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인 항일유격대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확고한 지향에 기초하여 15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에서 오직 조국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근로인민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끝까지 혁명의 지조를 지켜싸웠다.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진행된 항일무장투쟁에 의하여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되였으며 반제반봉건민주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정확한 령도밑에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공화국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였으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축성하였다. 이리하여 로동당시대는 조국과 민족의 번영의 시대로 되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에 확고히 기초하고있다. 계급의식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서 기본을 이룬다.

계급의식은 공산주의자들의 사상과 활동의 근저에 놓여있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의 기초로 된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에 확고히 기초할 때만이 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될수 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서 계급의식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모든 활동에서 언제나 로동계급의 립장에 옳바르게 서도록 하며 착취제도의 전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혁명투쟁이 곧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적인 투쟁의 길로 된다는 명확한 인식을 준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 혁명성과 목적의식성을 부여하며 철저한 반제사상,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에 대한 증오와 비타협적투쟁정신, 자기 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사상을 가지게 한다. 계급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애국적사상감정은 보다 철저하고 혁명적이며 진정한것으로 된다. 이것은 계급의식을 부단히 높이는데 기초해서

만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

민족적자주의식은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민족적 및 국가적 독립과 존엄을 고수하려는 사상이며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의 문제는 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립장을 반영한다. 이러한 립장은 모든 근로자들이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립장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서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이 결합되는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적해방이 민족의 자주독립을 전제로 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로동계급이 계급적예속을 없애는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민족적예속과 불평등을 철저히 청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로부터 로동계급은 모든 민족이 자기 문제를 자기 자체로 해결하는 민족적자주사상을 확고히 견지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서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이 결합되는것은 또한 로동계급이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지닌 민족적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자면 확고한 자주정신에 기초하여 자기 민족내부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혁명과 건설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계급의식과 더불어 민족적자주의식을 높이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근로자들이 민족적자주의식을 가져야만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기 위해서 애국적열성을 발휘할수 있다. 민족적자주의식이 높지 못하고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나라의 혁명에 대하여 열정을 가질수 없으며 그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민족적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로동계급의 민족적자주의식은 맑스―레닌주의에 확고히 기초하는것으로서 부르죠아민족주의, 민족배타주의와는 인연이 없다. 그것은 민족허무주의와 민족배타주의, 세계주의 등을 철저히 배격함으로써만 고수될수 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밀접히 결부되여있다. 모든 나라의 로동계급은 그 사회계급적처지가 공통하며 공동의 적인 제국주의를 다같이 반대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목적으로 투쟁한다.

자기 나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고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인민은 동시에 국제로동계급과 전 세계진보적인 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데도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 그에 대한 충실성은 언제나 다른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결합되여있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에 확고히 기초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무엇보다도 자기 계급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그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서 표현된다.

자기 계급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이러한 충실성은 사회주의조국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융합된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조국에 대한 애국적감정은 전면적으로 개화된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기전에 있어서는 그들의 애국적감정이 착취제도로 말미암아 원만히 발휘될수 없었다. 낡은 사회에서는 조국의 모든 재부가 착취자들의 독점물로 되여있었고 따라서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일상적인 로동에서

의 열의는 오히려 그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뿐이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착취제도에 대한 증오, 그것을 전복하기 위한 투쟁으로 표현되였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후 그들의 애국적감정은 전혀 새로운 내용을 가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나라의 모든것은 근로대중의 귀중한 재부로 되며 그들의 애국적감정을 낳게 하는 대상으로 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애국적감정은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과 결합되며 그것은 우리 인민의 일상사업과 생활에서 전면적으로 발현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사람들의 의식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높은 의식성과 자각성을 동반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사회주의제도가 계급적착취와 함께 민족적억압을 근절하고 나라의 번영을 보장하며 모든 근로자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참다운 제도라는것을 깨닫게 된다.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이러한 의식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하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이 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싸우게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기적인 락후성에서 벗어났고 자랑스러운 오늘의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였다. 당과 수령의 옳은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모든 간고한 투쟁과 시련을 이겨냈고 세계인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빛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조국의 오늘을 생각할 때 언제나 우리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생각하며 오늘의 보람찬 투쟁을 통해서 조국의 미래를 긍지높이 내다보게 된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당과 수령께 의탁하고 그이의 명령과 지시라면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로 충만되여있다.

실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현명한 수령을 모시고있다는것보다 더 큰 자랑은 없으며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 수령의 높은 덕성에서 배우려는 열망과 그이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품성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의 표현으로 되고 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일상적인 행동을 고무추동하는 강력한 사상적요인의 하나로 된다. 그렇기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철저히 교양하는것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절실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 *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 교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우리 나라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철저히 인식시키는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제도를 무한히 사랑하고 목숨으로 지키며 그것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착취와 억압이 없고 근로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하고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주의제도와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우리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우리 나라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철**

저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 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것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여야 하겠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우리는 특히 근로자들에게 우리 나라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가 어떻게 풍파 많은 로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으며 얼마나 간고한 투쟁의 대가로 얻어진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인가를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행복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15성상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목숨바쳐싸운 항일투사들의 빛나는 투쟁,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조선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 그것이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에 기여한 측면을 명확히 인식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근로자들은 우리 나라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귀중함을 더욱 심각히 인식할수 있으며 높은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이 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더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우리는 또한 근로자들에게 우리 제도하에서 그들이 직접 체험하고있는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똑바로 인식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주고있다. 이 제도하에서 근로자들은 생활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며 사람마다 마음껏 일하고 배울수 있다. 누구나 병나면 무상으로 치료받을수 있으며 수도로부터 산간벽지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디같이 문화생활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것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마련되고 근로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존대를 받으며 사람들은 래일에 대한 희망과 포부로 가득차있다.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있는 이 생활은 무권리속에서 신음하는 자본주의하의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리상으로 남아있다. 그들은 이러한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금도 많은 피를 흘려 싸우고있다.

근로자들에게 우리 제도하의 생활을 자본주의사회의 근로자들의 생활과 옳게 대비해보임으로써 그들이 우리 제도가 베풀어주는 혜택을 더 깊이 깨닫고 이 고마운 제도를 보다 빛내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제도가 자본주의제도보다 비할바 없이 우월할뿐만아니라 그것이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를 타승하고 반드시 종국적인 승리를 달성하게 된다는것을 옳게 인식시키며 이 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그들이 수행하는 혁명사업의 정당성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그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 속에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배양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 애쓰도록 교양하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일상생활에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자체가 광범한 근로대중의 자각적로동에 의해서만 건설되는 사회이다. 사람들의 개인적리익과 사회적리익이 통일되여있는 우리 제도하에서 로동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사회주의하에서 사람들은 이미 개인의 탐욕이나 치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하여, 근로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 많이, 더

잘 일하려는 자각적열성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하여 애국주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산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된다.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 교양을 심도있게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일상적인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것이 곧 자기자신을 위한 일로 되는 동시에 우리 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한 일로 된다는것을 옳게 인식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어느때나 나라와 인민을 위한 립장에 확고히 서서 자기가 맡은 초소를 성실히 지키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생산을 부단히 증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로동의 열매를 잘 관리하고 절약할 줄 알며 거리와 마을, 직장을 깨끗이 꾸리고 자기의 기대를 사랑하며 나라의 모든 부원을 보호하고 그것을 부단히 증대시키려는 열의를 가지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결코 조국에 대한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실천활동에서 발휘되며 자기가 맡은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일상적으로 알뜰히 꾸릴 줄 아는데서 나타난다.

우리 제도하에서 로동은 대중적영웅주의를 낳을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된다.

전후 폐허우에서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축성하고 일찌기 볼수 없었던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달성한 것은 우리 인민의 대중적영웅주의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강선의 분괴압연공들이 낡은 공칭능력을 대담하게 깨뜨리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첫봉화를 추켜든이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줄기차게 일어난 집단적혁신운동의 성과들, 인간을 교양개조하는데서 이룩한 훌륭한 업적들은 모두 우리 당의 령도밑에 조국땅우에 인민의 행복한 락원을 며 빨리 건설하려는 우리 근로자들의 열화같은 애국적지향과 대중적영웅주의의 구체적표현이였다.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사랑하고 이 제도의 기초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적소유를 적극 고수하며 모든 지혜와 열성을 발휘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부단히 높이는데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 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과거 착취사회에서 그들이 겪은 고통과 비참한 처지를 잊지 않도록 하며 계급적원쑤들과 지주자본가제도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비타협적투쟁정신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나라의 주인이 되여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가 만약 과거를 잊는다면 생활에서 해이해질수 있고 계급적원쑤들의 악랄한 책동을 보지 못할수 있다. 우리는 과거에 주권을 빼앗기고 조국을 잃었던 탓으로 해서 갖은 억압과 천대속에서 살아온 처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도 우리 조국땅 남반부에 계급적원쑤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나라의 절반땅이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강점당하고있다. 철천지원쑤 일제가 또다시 남조선에 기여들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과거를 잊지 말고 더욱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살게 하며 미제와 일제를 비롯한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를 가지고 그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게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과거를 잊지 않는 동시에 또한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에 있는 남조선을 잊지 않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 모든 건설은 남조선해방과 직접 련결되여있다.

우리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건설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테로통치하에 있는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여야 하며 그들도 반드시 우리와 같은 제도하에서 살게 하여야 한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세대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며 이 과업의 실천을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구현으로 된다.

근로자들을 남조선해방의 사상으로 부단히 교양함으로써 그들이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는 남조선형제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며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장래번영을 위하여 더욱 높은 애국적열의를 가지고 긴장된 전투적분위기속에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는 근로자들 속에서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더욱 높이며 그들로 하여금 조국의 완전한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장래 번영을 위하여 더욱 완강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우리 인민은 지금 미제와 그 주구들을 격멸하고 조국통일을 달성하며 전국적범위에서 혁명을 완수해야 할 력사적과업을 수행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민주해방의 위업을 실현하며 온갖 착취제도를 없애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이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자본주의, 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철저히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이 혁명적락관주의로 확고히 무장하고 어떠한 난관과 곤난앞에서도 동요함이 없이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결코 오늘의 성과에 자만해도 안되며 간고한 시련앞에서 주저앉아도 안된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우리 세대의 인민들뿐만아니라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우리는 이미 해놓은것을 토대로 하여 더 큰것을 건설하고 더 높은 단계에 올라서야 한다.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 인민의 영원한 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혁명의 시대에 살고있다. 우리는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겨야 할 중대한 임무를 지니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확고한 계급의식과 드높은 애국적열정으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적극 투쟁할 때 이 영예로운 임무는 빛나게 수행될것이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우리 당의 위력한 사업방법

김 남 숙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당과 수령의 주위에 대중을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게 한다. 그것은 대중을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당정책의 관철에 자각적으로 동원케 하며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일층 높이게 함으로써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을 설복하고 쟁취하며 군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는것이 정치이며 바로 이것을 잘하여야만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정치사업은 곧 사람과의 사업이다. 이것은 해설과 설복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그들을 혁명투쟁의 실천에 의식적으로 동원케 하는 사상사업이며 조직사업이다. 즉 대중속에 당정책을 해설침투하고 구체적인 료해에 기초하여 대중과 더불어 그의 실행방도를 토론하며 면밀한 분공을 조직하고 그의 집행을 꾸준히 지도방조함으로써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는것이다.

대중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동원하는 정치사업의 근저에는 바로 대중의 지혜와 힘을 믿으며 그들에게 튼튼히 의거하며 대중에 복무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관점, 군중로선이 놓여있다.

군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며 철두철미 군중에게 복무하는 혁명적관점이 없이 대중에게 당정책을 해설침투시킬수 없으며 그들의 자각성을 불러일으킬수 없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 기간에 걸쳐 항상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였으며 이것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켜 대중의 정치적각성과 의식수준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이에 기초하여 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에로 군중을 조직동원하는것은 우리 당의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적과 싸우는것이나, 사회를 변혁하는것이나, 자연을 개조하는것이나 다 대중이 발동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 결국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대중이 어떻게 동원되는가에 달려있다. 어떤 혁명과업을 수행하든지 그 사업의 목적과 의의, 그의 수행방도와 전망에 대하여 대중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며 그들을 제기된 과업실행에 자각적으로 동원시키는 정치사업을 잘하지 않고서는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당이 대중을 동원하는 가장 위력한 방법은 정치사업이며 그 이외의 어떤 다른 방법도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하에서 정치사업은 사회주의제도자체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절

현적요구이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의 하나는 이 제도하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일한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선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사람들의 의식적활동이 노는 역할은 날을 따라 증대되며,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의 의의는 더욱더 제고된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시키며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한마음 한뜻으로 사고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가장 위력한 방법으로 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사람들에게 꾸준히 진리를 깨우쳐주고 우리가 건설하고있는 새 사회의 본질과 전망을 대주어 각자가 자기의 임무를 똑똑히 자각하게 한다면 누구나 할것없이 선진분자, 적극분자로 될것이며 모두 혁명을 지지하고 우리를 따라오게 될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들의 계급적, 정치적 각성이 제고되면 될수록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의 혁명대오는 더욱 튼튼히 꾸려지게 된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주위에 굳게 결속시키며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위력한 수단이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고 전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도 정치사업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 자각적으로 동원시키는 위력한 방도로 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정치를 선행시킨다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군중에게 당정책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방도를 대중적으로 토론하며 높은 정치적각성을 가지고 혁명과업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이다》.

당정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자각성과 창발성에 기초할 때 철저하게 관철될수 있다. 대중이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자각적으로 동원되면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다 풀어나갈수 있으며 해결하지 못할 일이란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의 의도와 정책을 해설침투시키며 제기된 혁명과업의 내용과 의의를 알려줌으로써만 그들자신이 그것을 자기의것으로 접수하고 그 관철에 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동원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정책을 침투시키는것은 그들에게 나아갈 방향과 투쟁목표를 가르쳐주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명확한 방도를 제시하여주는 것으로 된다. 당이 제시한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다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대중의 절실한 념원을 반영한것으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철저히 파악되면 그것은 곧 대중의 높은 정치적열성과 무궁무진한 창발성을 불러일으키며 위대한 물질적력량으로 전변된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지도일군

들이 대중을 가르칠뿐아니라 대중으로부터 배움으로써 그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지도수준을 높이는 위력한 사업방법으로 된다.

지도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정책을 가르쳐주고 실지 사업을 통하여 아래일군들을 배워주는 과정은 동시에 그들자신이 대중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으로 된다.

지도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진행해야 군중의 목소리도 들을수 있고 현실에 기초한 실천적대책도 세울수 있으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실천활동과정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성, 조직성과 규률성을 배울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당성단련과 혁명화를 촉진할수 있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의 하나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미 김일성동지는 정치사업을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사업방법으로 제기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있어서 정치사업은 김일성동지가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키며 대오의 의식적단결을 강화하고 전투력을 제고하며 군중을 전취하여 그들의 혁명적자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기본수단으로 되였다.

항일유격대내에서 지휘관들은 휴식할 때나 전투할 때나 행군할 때 항상 투쟁의 목적과 의의, 그의 수행방도를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유격대원들의 자각성을 적극 발양시켰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인민대중속에서 항상 정치사업을 선행하였다. 그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원수와 싸우는 혁명전사였을뿐아니라 대중을 교양하고 전취하는 능숙한 정치활동가이기도 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항일유격대는 언제나 인민대중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이러한 위력한 사업방법의 고귀한 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 사업에서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였다.

당은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먼저 그에 대한 당의 의도를 당원들과 군중에게 충분히 납득시키고 당정책의 집행방도를 대중적으로 토의함으로써 그들이 항상 높은 정치적각성과 열성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였다.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복잡한 과업이 제기될 때일수록 당은 군중속에 들어가 당의 의도를 알려주고 그들과 함께 해결방도를 찾았으며 군중의 창발성을 발동함으로써 중첩되는 난관을 뚫고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대고조를 이룩한 그 근저에는 바로 대중의 자각성을 동원하며 그에 튼튼히 의거하여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당의 전통적사업방법이 놓여있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청산리방법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되였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요구의 하나는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현실속에 들어가 실정을 료해하고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그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는것이다.

청산리방법은 목전의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심도있게 수행할수 있는 위력한 방법일뿐아니라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며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위력한 교양방법이기도 하다.

청산리방법이 관철되고 정치사업이 강화됨으로써 당 및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에서 전변이 일어났으며 일군들의 지도수준이 더욱 제고되고 대중을 교양하는 사업이 그들자신의 일로 되였다.

이리하여 청산리방법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고조를 힘차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였다.

오늘 우리 앞에는 방대하고 복잡한 과업들이 련이어 새롭게 제기되고있으며 우리의 투쟁은 더욱 긴장하다. 이러한 조건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과 창조적열성을 일층 높이 발양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이것은 대중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적극 발휘시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 *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이 충분한 위력을 발휘하고 응당한 성과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당의 원칙적요구가 정확히 관철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화하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되도록 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전체 당원들이 당 중앙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당정책을 진심으로 받들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당사업이며 정치사업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직한 전사로 교양육성하며 당정책관철에서 높은 혁명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는것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의 기본내용을 이루며 이 사업에서 시종일관 견지하여야 할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어떤 단위에서 어떤 문제들로 정치사업을 진행하든지간에 그것은 반드시 이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이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는데 귀착되여야 한다.

정치사업에서 이러한 원칙적요구가 확고히 견지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써만 당은 공고화되고 그의 령도력은 제고되며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시키고 혁명화하자면 그들을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여있다. 거기에는 우리 나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길이 명시되여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남조선혁명과 대외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 모든 부문의 방향과 방도들이 다 포괄되여있다.

우리 당 정책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명시한 강력한 사상, 리론, 실천적무기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수양을 위한 량식으로 된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당정책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뼈와 살로 되게 하는것은 전당에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한마음 한뜻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기본

방도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는것은 또한 사회와 자연을 변혁하는 투쟁방도를 정확히 알게 함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거기에 제시된 투쟁과업, 투쟁방도를 정확히 앎으로써만 실천활동에서 편향을 범하지 않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곧은 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것은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시키며 혁명화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로 된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이며 조선혁명의 뿌리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의 고매한 혁명사상, 불굴의 혁명정신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귀감이며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는 힘의 원천이다. 따라서 정치사업은 항상 당의 정책과 함께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것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킴으로써만 그들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의 정책을 깊이 파악할수 있으며 또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이악하게 끝까지 관철할수 있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며 전사회를 혁명화하는것은 진지하게, 인내성있게 진행해야 할 사업이다.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동원하는 사업도 역시 실속있고 적극적인 정치사업을 필요로 한다.

여기로부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고 인내성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진행하는것이 요구된다.

정치사업에서 형식주의, 관료주의, 주관주의는 혁명과 건설에서 매우 큰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정치사업이 림기응변식으로 진행되여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수 없다. 정치사업은 항상 해결하려는 목적에 따라 중점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여야 하며 제기된 과업이 관철될 때까지 부단히 진지하게 정력적으로 진행되여야 한다.

정치사업은 또한 대중의 심금을 울려야 하며 그들의 실정에 맞게 진행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성실성과 진지성이 요구된다. 정치사업이 진실한 내용으로 성실하고 진지하게 진행될 때 대중은 거기에 감화되여 공감을 일으키며 혁명성과 자각성을 발휘하게 된다.

정치사업에서 이러한 공산주의적혁명적태도가 발현되자면 정치사업을 진행하는 일군들자신이 혁명화되여야 하며 공산주의적풍모를 갖추어야 한다. 정치사업의 성과여부는 결국 정치사업을 진행하는 일군들자신의 수양정도와 정치사상적준비정도에 달려있다.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자신이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지 않고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대중속에 진지하고 정확하게 해설선전할수 없다. 당의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 결의에 충만된 열렬한 혁명전사들만이 당정책을 선전하여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그 실행에 대중을 실속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당원들과 지도일군들의 말과 행동을 대중들은 주시하며 그 결과를 타산하고 평가한다. 따라서 정치사업에서 그들의

성실성, 진실성 그리고 실천적모범은 대중을 격동시키고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이처럼 정치사업은 성실성, 진지성이 보장되여야 그 내용이 대중에게 접수되며 그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되고 실천활동에서 구현된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이 효과있게 진행되자면 이 사업의 내용을 옳게 규정하며 일군들이 사업태도를 정확히 가지는 동시에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대상에 맞게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사상적내용을 담은 정치사업도 그것을 구현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능동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응당한 실효를 거둘수 없다.

김일성동지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에서 하나가 열을 움직이고 열이 백을 움직이는 원칙을 구현할데 대하여 가르쳤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한다는것은 한사람이 열사람을 움직이고 열사람이 백사람을 움직이고 백사람이 천사람을 움직이며 이렇게 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혁명과업의 수행에 동원한다는것을 말한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에서 이 원칙의 구현은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고 간부들이 당원들을 교양하며 전당이 발동되여 모든 군중을 교양개조할수 있게 한다. 따라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고 상하가 합심하여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인간개조사업을 대중자신의 일로 되게 한다.

요컨대 이 원칙의 구현은 모든 사람들을 례외없이 대상하며 전당이 달라붙어 적극적으로 정치사업을 할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각급 당조직들은 례외없이 사람과의 사업의 대상을 가지며 모든 일군들은 자기가 담당한 대상자들과의 정상적인 련계를 가지고 치밀하게 짜고들어 정치사업을 할수 있게 된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의 선행은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합될것을 요구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은 우리의 혁명사업에서 두개의 측면인 동시에 분리할수 없는 통일체이며 그 긴밀한 결합은 우리 당 령도방법의 중요한 특성이며 기본사업방법이다》** (김일성선집 제4권, 545~546페지).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은 서로 밀접한 통일을 이루고있다. 우리가 정치사업을 통하여 대중의 의식을 계발하는것은 그들의 창조적열성을 조직동원하여 당앞에 제기된 혁명과업을 풀자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정치사업은 어디까지나 혁명과업실천을 안받침해주어야 하며 혁명과업은 정치사업에 의하여 그 집행이 보장되여야 한다. 혁명과업수행을 보장하지 않는 정치사업은 무의미하며 정치사업에 의하여 안받침되지 않은 경제사업의 성과는 일시적인것이며 공고한것으로 될수 없다.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로 삼아 매개 부문들에서 해야 할 사업의 방향과 투쟁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대중속에 정확히 침투시키며 그의 집행에 대중을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매개 부문의 사업과 제기된 혁명과업이 혁명과 건설의

전반에서 노는 역할과 의의를 정확히 알도록 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황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1211고지이다》, 《비료는 쌀이며 쌀은 곧 사회주의이다》라는 전투적구호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당해제철소의 위치와 역할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었으며 비료생산의 의의를 로동계급의 심장속에 깊이 아로새겨주었다. 이 구호들은 그곳 근로자들에게 무한한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안겨주었으며 당과 수령과 혁명앞에서 지닌 무거운 책임을 기어이 완수하려는 높은 혁명적열정을 북돋아주었다.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결합시키는데 있어서는 혁명실천에서 제기된 선결문제, 걸린 문제를 푸는데 정치사업을 집중시키는것이 효과적이다. 이것은 정치사업에 《섬멸전》의 방법을 적용한것으로서 우수한 선진력량과 모든 선전수단들을 집중적으로 동원할것을 요구한다. 당일군은 당사업을 하면서, 행정일군은 행정경제관리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기술일군은 기술관리를 하면서 다 같이 정치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정치사업이 실효성을 나타내며 경제사업을 옳게 추진시키는데 이바지하려면 그것이 대중들의 생산활동이 진행되는 생산현장에서 부단히 반복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 생산자대중과의 정치사업은 그들의 사업과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점에서, 당정책이 관철되는 매개 초소에서 진행됨으로써만 실속있게 된다.

이렇게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이 생동한 현실, 근로자들의 생산단위에서 부단히 반복하여 진행될 때 이 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에서 견지되여야 할 이상과 같은 원칙적요구들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이 모든 요구들을 통일적으로 옳게 구현함으로써만 그것은 자기의 생활력을 발휘하게 된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우리 당의 수중에 튼튼히 장악된 위력한 사업방법이며 모든 사업의 성과적해결을 보장하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당원들과 지도일군들은 이 훌륭한 사업방법을 보다 확고히 체득하고 계속 견지함으로써 전당과 전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대고조를 부단히 확대발전시켜나아갈것이다.

당원의 선봉적역할

강 복 만

1

당원의 선봉적역할—이것은 당의 사명, 당원의 임무로부터 제기되는 근본적인 요구이다.

우리 당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고 이땅우에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부대이다.

혁명적당이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해나가자면 전체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선두에 서서 그들을 령도하며 이끌고나아가는 선봉적인 부대로 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로동계급은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에서 이 투쟁의 선두에 서서 전체 로동계급을 령도하며 이끌고나아가는 선봉적인 부대를 절실히 요구하게 된다》.

오직 로동계급은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삼아 혁명을 령도하며 대중을 이끌고나아가는 자기의 선봉적부대가 있음으로써만 그 주위에 광범한 대중을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에서 최후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로동계급과 근로농민, 근로인테리들 가운데서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는 선진투사들로 조직되였다.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부대로서의 당은 그 당을 구성하고있는 매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에 의하여 자기의 사명을 다하게 된다.

즉 혁명수행의 가이한 초소에 서있는 모든 당원들이 당의 충직한 전사로서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보위하고 군중을 쟁취하여 당주위에 집결시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데서 기수가 됨으로써 당의 선봉적역할은 실천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당원들은 모든 실천활동에서 군중의 선봉에 서는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삼아야 한다. 당원은 응당 정치투쟁, 계급투쟁 그리고 생산활동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대중의 선두에 서야 한다.

매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이 옳게 보장되지 않고서는 당이 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는것이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이 보장되여있는 조건하에서 당조직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은 매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에 크게 의존된다.

당원의 선봉적역할은 당규약상 요구로부터 흘러나오는 당생활규범의 하나이다.

당원들의 일체활동과 생활의 기본표준이며 기초인 우리 당 규약에는 혁명사

업을 위하여 항상 사고하고 움직이며 모든 사업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는것이 당원의 의무로 규정되여있다.

김일성동지는 항상 우리 당원들에게 혁명과 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다할것을 가르치고있다.

<당원은 혁명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이다. 우리 당원들은 조국의 번영과 근로대중의 행복을 위하여 전체 군중을 이끌고 조선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할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43페지).

당원의 선봉적역할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규약상 요구는 매개 당원이 언제 어데서나 명심하고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며 행동의 지침이다.

당원은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울것을 결의하고 당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당원은 당과 인민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혁명투사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군중의 선두에 서서 군중을 이끌고나가는 선진투사들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당원의 칭호는 고귀하고 영예로운것이다.

우리 당은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에 의해서만 혁명의 간고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나갈수 있으며 군중을 혁명의 편에 인입하고 투쟁에로 조직동원할수 있다.

우리 당이 지난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달성한 빛나는 승리는 바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 조직들과 당원들이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것이다.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원들은 항상 당과 수령의 부름따라 군중의 선봉에 서서 엄혹한 시련과 난관들을 뚫고나갔으며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일찌기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로동당원들이 전선과 후방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선두에 서서 용감하게 싸운 그 선봉적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만일 우리 로동당원들이 없었더라면 전선과 후방에서 누가 이러한 영웅적투쟁을 조직할수 있었겠는가! 만일 로동당원들이 전체 인민대중을 이끌어 영용하게 싸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였을것이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을것은 의심할바 없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95페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그이의 충직한 혁명전사들인 우리 로동당원들이 혁명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다함으로써 우리 당은 불패의 당으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으로 확대발전되였으며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항상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당은 전체 인민들 속에서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고있다. 군중은 우리 당과 수령에게 모든것을 의탁하고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고 관철해나가고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그이의 령도를 받들고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데 있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동지가 제시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따라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건설을 촉진하며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비상

한 혁명적열의를 발휘하고있다.

우리는 당대표자회결정을 계속 성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더욱 긴장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천리마의 진군을 다그치며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계속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이 중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려야 하며 실천활동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오르는것은 간고한 투쟁을 요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될수록 더욱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이 제기된다. 또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소멸하기 위한 일대 결전을 각오해야 한다.

우리앞에 제기된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은 모든 당원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대중을 이끌고 적극 투쟁해나감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 혁명투쟁과 경제건설, 국방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더 잘 수행하여야 한다.

2

김일성동지는 당원의 선봉적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원들은―항상 로동자, 농민, 사무원 등 광범한 비당원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을 교양하고 군중생활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모든 일에서 군중의 선봉에 서고 군중이 곤난해하는 일에는 먼저 뛰여들어가 실천하며 일에서나, 학습에서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군중속에서 혁명투쟁의 기수가 되여 군중을 교양하고 이끌어가야 한다》(김일성선집 제6권, 340～34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원의 선봉적역할은 그가 혁명투쟁의 기수로 되며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여 군중을 가르쳐주며 이끌어나가는것이다.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전위분자이며 선진분자인 당원들이 자기의 혁명초소마다에서 정치활동가로서, 대중의 교양자로서, 경제건설의 선구자로서 활동하는것은 그의 본분으로 된다.

모든 혁명초소에 서있는 당원들이 군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교양개조하며 실천투쟁에서의 모범적역할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나갈 때만이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강화되고 당의 령도력은 제고되며 혁명과 건설은 성과적으로 진척될수 있다.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은 우선 그가 항상 높은 정치적각성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정치활동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이것은 당원들의 혁명활동에서 초석으로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원은 언제든지 정치적각성이 높아야 하고 어떤 문제에 부딪치더라도 반드시 높은 정치적식견으로 분석할줄 알아야 한다》(김일성선집 제6권, 434페지).

당원은 혁명가이며 정치활동가이다. 당원의 모든 활동은 혁명활동이며 정치활동이다.

혁명활동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상정치적령역에서의 투쟁과 활동에서 표현된다. 사회를 변혁하며 인간을 개조하는 투쟁은 사상정치적투쟁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며 자연을 개조하고 경제문화를 건설하는 투쟁도 역시 높은 정치

직각성과 계급적안목을 요구한다.

당원은 항상 모든 사회정치생활에서 높은 정치적각성과 확고한 계급적립장을 견지함으로써 사상정치투쟁의 앞장에 서서 군중을 이끌고나가야 한다.

정치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사람은 당과 혁명에 대하여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질수 없으며 정치투쟁, 계급투쟁에 무관심한 사람은 혁명투사로 될수 없고 투쟁의 선두에 설수 없다.

당원에게 있어서 높은 정치적각성과 확고한 계급적립장은 정치활동, 혁명활동에서 기본생명으로 된다. 당원과 비당원과의 차이는 우선 그의 높은 정치적각성에 있으며, 그가 정치투쟁, 계급투쟁의 선두에 서서 나가는데 있다.

정치투쟁, 계급투쟁은 사상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있다. 혁명투쟁은 그것이 곧 반동적인것, 낡고 보수적인것을 짓부시는 투쟁인만큼 필연적으로 사상투쟁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당원은 응당 계급투쟁, 사상투쟁의 선두에 서야하며 사상정치적예리성과 높은 계급적안목을 가지고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혁명의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온갖 낡고 불건실한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하여야 한다.

당원들이 정치사상적각성을 높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놀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보위하며 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는것이다.

이것은 모든 당조직들과 전체 당원들의 신성한 임무이다. 모든 당원들은 항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어긋나는 사소한 경향과도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당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심오히 연구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실천활동의 지침으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 정책은 김일성동지께서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것이며 우리 혁명의 지침이다. 거기에는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방향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우리 당의 정책,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이며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이다.

당원들은 당정책에 정통하고 그것을 《자》로 삼아 이 기본선에서 어긋나는 부정적현상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줄 알아야 한다.

당원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하기 위해서는 또한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고 그것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항일무장투쟁의 장구하고 간고한 투쟁속에서 이룩된 혁명전통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우리 당의 뿌리, 조선혁명의 뿌리를 정확히 앎으로써만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자신을 무장할수 있으며 그것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적극 투쟁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원들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연구를 비롯한 혁명전통학습을 더욱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진행해나가야 한다.

당원들의 정치투쟁, 정치활동은 군중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그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그러므로 당원의 선봉적역할은 또한 그가 군중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부단히 전개하고 군중을 교양개조하는 공산주의교양자로

서의 역할을 다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전체 당원들은 맑스―레닌주의와 당정책으로 자체를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며 당정책을 옹호하며 끝까지 관철시킬뿐만아니라 대중속에서 당정책을 해설선전하며 그들을 당의 사상으로 교양개조하여 이끌고나가는 능숙한 정치활동가로 되여야 하겠다》(《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43~144페지).

당은 정치적지도자인 동시에 군중의 교양자이다. 군중에 대한 교양자로서의 당의 활동은 당원들의 선전교양자적역할에 의하여 실현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은 당원의 힘만으로는 실현될수 없다. 그것은 오직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조직동원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당원은 자기자신이 당과 수령에 충실하며 혁명과업에 성실하는것만으로써는 부족하다. 당원은 자신이 혁명실천에서 모범이 될뿐만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군중을 다 당과 수령에 충실한 전사로 교양하며 혁명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것을 중요한 혁명임무로 삼아야 한다.

당정책의 선전교양자로서 당원들이 노는 역할은 실로 크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당원들의 선전교양자적역할에 의하여 군중속에 침투된다. 그러므로 당원은 군중속에서 당정책을 일상적으로 해석선전하는것을 중요한 당적의무로 간주하여야 한다.

군중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도 역시 당원들이 솔선 이 투쟁의 선두에 나설뿐아니라 모든 군중을 이 투쟁에 옳게 발동시킴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당원은 비당원에 비해 혁명사상과 계급의식이 높다. 당원은 일상적으로 군중과 생활을 같이 하고있으며 군중의 사상의식수준과 심리적특성에 맞게 그들을 교양할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많이 가지고있다. 따라서 당원은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여야 하며 군중의 혁명화를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한다.

군중을 옳게 교양개조해나가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선전교양자로서 그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적극 진행하는 동시에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에서 그들에게 실천적모범을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군중의 혁명화를 위하여 커다란 교양적의의를 가진다.

당원들은 사회정치생활에서뿐만아니라 학습과 생활기풍에서도 대중의 본보기로 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군중은 당원들을 본받아 그들처럼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고 자기 맡은 혁명임무에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참된 혁명전사로 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된다.

군중사업에서 당원들의 정치사상수준과 더불어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당원들의 작풍과 방법은 군중을 당주위에 묶어세우는데 크게 작용한다. 당원들이 인민적인 작풍과 혁명적사업방법을 소유하고 사업과 생활에서 겸손하고 검박하며 일상적으로 군중들 속에 들어가 군중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만 군중으로부터 응당한 신임과 존경을 받게 되며 그들을 훌륭히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다.

당원의 선봉적역할은 또한 모든 실천활동에서 군중의 선두에 서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

였다:

《당원들은 구호나 웨치고 말로만 조국을 건설하자고 부르짖을것이 아니라 실지 사업에서, 경제건설에서 모범이 되고 선구자로 되여야 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70페지).

말보다 실천을 더 귀중히 여기는것은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품성이다. 당원들이 혁명실천의 선두에 서는것은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직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실제적표시로 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직성, 혁명위업과 자기 인민에 대한 헌신성은 실천활동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당원의 혁명활동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군중속에 해설선전하고 군중을 혁명과업수행에 동원하기 위한 호소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당원은 자신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실천투쟁의 앞장에 서서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들 앞에는 우리 혁명승리를 위하여 김일성동지가 제시하였으며 당대표자회가 결정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당의 로선을 받들고 이 중대한 혁명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원들은 응당 군중의 선봉에 서서 높은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하며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는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한다.

실천활동에서의 당원의 선봉적역할은 우선 그가 일상적인 생산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로동은 사회의 물질문화적부를 창조하며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밑천을 마련하는 원천이다.

당원은 우리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이 성스러운 로동에서 대중에게 공산주의적태도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전체 근로자들이 로동에 성실히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적극 추동하여야 한다.

당원은 항상 모든 초소에서 480분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키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여 자기 맡은 일을 배이상 해제끼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당원들이 로동에서 이러한 모범을 보여줌으로써만 모든 생산자대중속에서 로동에 대한 옳은 태도를 배양할수 있으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적극 동원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재부의 주인이며 생산의 직접적인 담당자이다. 당원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솔선 참가하며 이 사업에 광범한 대중을 적극 인입하여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사회주의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할수 없다.

당원은 기대를 잘 다루고 일터를 알뜰히 꾸리며 국가사회재산을 애호절약하고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동시에 모든 생산자들이 집단의 살림살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이끌어나가는것을 자기의 당적임무로 간주하여야 한다.

당원은 항상 새것을 지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한자리에 머물러있거나 늦장을 부리는것을 반대하고 빠른 속도로 부단히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것은 혁명가들의 고유한 기풍이다. 당원은 항상 생산활동의 매개 초소마다에서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부단히 새로운 기준량을 창조하기 위하여 머리를 써야 한다.

당원은 언제나 일을 찾아하며 없는것은 새로 만들어내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걸린 고리를 풀어나가야 하며 천리마의 기세로 계속 앞으로 내달려야 한다.

우리 당원들이 대중의 선두에 서서 투쟁하며 대중을 이끌고 나갈 때 극복못할 난관은 없으며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혁명과 건설에서 당원들이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원에게 있어서 당생활은 정치적생명이다. 당원은 당생활을 통하여 당적훈련과 교양을 받음으로써 당성을 단련하고 혁명적수양을 높이며 선봉투사로서의 자질을 소유하게 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는 오직 당생활에서만 항상 회의하고 서로 검토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교양하면서 옳지 못한것은 씻어버리고 옳은것은 자꾸 배양장성시키면서 계속 발전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당성단련, 당성제고도 오직 당생활에서만 가능하며 당생활을 잘하는데서만 될수 있다》.

당원들은 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당내민주주의를 높이 발양하고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함으로써 자기의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고 혁명적수양을 높이며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고 모든 면에서 비당원의 모범이 되도록 선진적혁명투사로서의 품성과 능력을 적극 배양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당조직들의 사업에 적지않게 의존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여 그 어느곳이나 거기에 우리당 조직이 있고 로동당원이 있는한 반드시 당정책이 관철되고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당적분공은 당원들을 혁명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입하여 그들을 일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며 당원들의 온갖 지혜와 창발성을 높이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옳은 당적분공은 모든 당원들을 당정책의 선전자로 되게 하며 뒤떨어진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대중의 교양자로 되게 할뿐아니라 당정책관철을 위한 어렵고 중요한 부문을 책임지고 앞장에 서서 대중을 이끌고나가는 선구자로 되게 한다.

당원의 선봉적역할은 지도일군들과 핵심당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선행시킴으로써 더 잘 수행된다. 모든 당원들이 례외없이 군중속에서 선봉적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지도일군들과 핵심당원들이 모든 당원들, 특히는 수준이 낮은 당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사람이 열사람을, 열사람이 백사람을》 배워주고 가르치주는 원칙에서 모든 당조직들이 당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이 당원들과의 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시켜나갈수록 당원들이 군중들과의 사업에서 선봉적역할을 더잘 수행하게 될것이다.

모든 당원들이 혁명투쟁의 기수로서 군중의 선두에서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때 당의 로선과 정책은 더잘 관철될것이며 우리의 혁명위업은 빛나게 수행될것이다.

대안체계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경제관리체계

신 재 호

우리 당 대표자회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면서 7개년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할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확립된 대안체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가장 훌륭한 형태이며 그 우월성은 생활에 의하여 확증되였다.

경험은 어느 부문에서나 대안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그 요구대로 사업한다면 사회주의경제지도의 모든 문제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계속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고있는 오늘 대안체계의 요구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일군들 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1

대안체계의 기본요구는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이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의 지도관리에서 군중로선의 관철과 과학성의 보장은 밀접히 결합되여있으며 통일되여있다. 과학성의 보장은 오직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키는 기초우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의 관철은 생산자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발적지혜를 동원할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정확히 인식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의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사회에서의 경제운영방법의 기본은 모든 사람들의 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그들이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는 것》이라고 교시하였다.

우리 당은 대안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군중로선의 관철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관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였으며 그리하여 사회주의경제의 지도관리문제를 참말로 사람과의 산 창조적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의 관철에 기본을 두고 그것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켜야 한다는 이 새로운 사상은 대안체계의 기본정신을 이루며 여기에 바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체계로서의 대안체계의 창조적성격이 있는것이다.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의 관철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본질적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사회주의적생산은 대규모적이와 발전된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하고있다. 사회주의적생산의 이러한 특징은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문제를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당의 정책과 객관적경제법

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문제는 오직 생산자대중의 자각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발양시키고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야만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근로자들을 생산의 담당자일뿐아니라 력사상 처음으로 관리의 주인으로 되게 하였다. 대중의 적극성과 창조적지혜에 의거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옳게 발양시키며 경제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에 맞게 관리운영하는것으로 된다.

나라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은 사회의 생산력발전에 직접적인 리해관계를 가지며 국가와 사회와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투쟁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의 하나는 이 제도하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일한다는데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사회적생산발전에서 사람들이 노는 능동적역할은 사회주의하에서 비로소 전면적으로 발현되게 되며 그들의 사상의식은 생산력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일성동지는 일정한 기술숙련과 사상의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생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논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아무리 훌륭한 기계설비가 있어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능력과 열성이 높지 못하다면 생산이 발전할수 없다고 교시하였다. 우리 사회에서의 로동수단의 효과적인 리용, 로동대상의 합리적인 가공, 총체적으로 생산계획의 수행정도 등은 무엇보다도 생산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

군중로선의 관철에 기본을 두고 사회주의경제의 지도관리를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키는것은 그것을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에 맞게 해결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대안체계의 확립, 이것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루어진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의 전통, 우리 당의 철저한 군중로선,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직접 뿌리박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루어진 혁명적인 군중적사업방법의 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였다. 우리 당은 북반부에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새로운 조건에 상응하게 이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지도하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방법으로서의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였으며 그것을 인민경제의 지도관리에 구현하여 대안체계와 같은 위력한 사업체계를 확립하였다.

대안체계는 또한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함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일반적원리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모든 문제를 혁명의 주인답게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이 있음으로 하여 창조될수 있은것이다.

대안체계는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령도되는 우리 당의 확고한 혁명적립장과 주체사상,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고 능숙하게 해결해나가는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령도예술의 직접적산물이다.

2

대안체계는 경제관리분야에서 군중로

선관철을 위한 기본원칙들을 하나의 정연한 체계로 완성시켰다.

대안체계하에서 확립된 경제관리에서의 군중로선관철을 위한 새로운 원칙은 첫째로, 경제관리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며 둘째로, 모든 경제기술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셋째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는것이다. 이 원칙들의 관철은 경제관리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시켜 기업관리에 대중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당은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관철을 위한 원칙들을 밝히는 동시에 그것을 실제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방법적문제들도 명확히 제시하였다.

모든 경제기관들과 기업소들에서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에 의하여 실현하는것은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그것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키는 선결조건으로 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확립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우선 공장관리운영에서의 집체성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강화하고 대중의 집체적지혜를 동원하여 당정책을 가장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하에서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 정치적지도와 경제적지도의 통일을 보장할데 대한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심화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안체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결정에 의해 경제관리를 통일적으로 실현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이다. 대안체계하에서 확립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경제관리에서 집체성과 의지의 통일성보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옳게 해결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가 가지는 우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당위원회가 집체적령도를 잘 보장하면 전체 당원들을 발동시킬수 있으며 전체 당원들이 발동되면 전체 근로대중을 움직일수 있게 된다. 당위원회의 령도밑에 전체 당원들과 전체 근로대중이 다 생산을 잘하기 위하여, 공장을 더욱 잘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이상 더 철저한 집체적령도는 없으며 이 이상 더 공장의 집체적력량을 발휘하게 하는 길은 없다. 이렇게만 되면 모든 문제를 다 옳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생산에서 거대한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경제사업을 지도하는데서 당위원회들은 무엇보다 먼저 키잡이의 역할을 잘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매개 단위의 당위원회들로 하여금 경제사업의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그 수행방향과 방도를 옳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당위원회들에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된 방향과 분공에 따라 행정관리일군, 기술일군, 당일군들이 자기 사업을 책임적으로 집행하며 그들간의 배합작전을 잘함으로써 제기된 모든 과업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김일성동지는 당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정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어떤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며 어떤 방법으로 사업하여야 하는가를 과학적으로 천명하였으며 대안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그것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였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이에 경제기술사업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군중을 동원하기 위한 우리 당의 기본방법이며 그것은 경제관

리에서 군중로선의 관철과 과학성의 보장을 통일적으로 해결하는 기본방도로 된다.

정치사업을 선행시켜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들은 적은 로력으로 더 많은 기계를 돌리고 같은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도 더 좋은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다. 정치사업을 앞세우지 않고 경제기술적인 실무에만 매달려가지고는 인민경제의 지도관리를 잘할수 없다.

정치사업은 곧 사람과의 사업이며 이것은 당사업의 기본이다. 우리 당은 대안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인민경제의 지도관리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당사업을 부단히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키는 원칙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였다.

《…정치를 선행시킨다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군중에게 당정책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방도를 대중적으로 토론하며 높은 정치적각성을 가지고 혁명과업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이다》(김일성, 《새 환경에 적응하게 군당단체의 사업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

우리 당은 대안체계하에서 당일군들은 물론 모든 일군들이 정치사업을 하며 정치사업이 경제과업의 수행과 밀접히 결부되게 함으로써 생산자들이 언제나 자기앞에 부과된 혁명과업의 의의를 깊이 명심하고 그 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고있다.

우리 당은 대안체계를 통하여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는 사업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경제지도에서 중앙집권적지도와 대중의 민주주의,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호상관계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결하였다.

대안체계에서 확립된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원칙은 군중들 속에 들어가서 당정책의 집행을 조직하고 도와주며 문제를 발견하고 군중의 의견을 들으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분석한후에 당의 새로운 방침과 새로운 대책을 가지고 다시 군중속에 들어가는 우리 당의 전통적사업방법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전반적으로 급속히 제고시키고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가장 훌륭하게 보장하며 경제관리에서 과학성과 현실성을 더욱 높이고 경제관리를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은 중앙의 통일적지도와 함께 매개 경제단위들의 창발성을 정확히 결합시킬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상급기관과 웃사람이 아래단위에 내려가서 당의 정책을 똑똑히 알려주고 그 관철에 필요한 조건들을 적극 보장해줄 때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계는 또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배워주는 방법으로 아래일군들에게 당의 정책을 더욱 깊이 침투시키며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짧은 기간내에 그들의 관리수준을 높일수 있게 한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은 모든 부문과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당 및 국가 기관들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며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일군들의 지도수준과 대중의 적극성을 다같이 높일수 있게 하여준다.

인민경제의 지도관리에서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의 실정을 일반성과 구체성의 통일속에서 종합적으로 인식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물자, 로력, 자금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며 절약적으로 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웃사람과 아래사람들은

그들이 사업하고있는 위치나 기능상 특성으로 하여 생산과정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우월성과 제약성을 다같이 가질수있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계는 생산과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며 인민경제의 모든 면, 모든 련관 및 매개 고리들을 전면적으로 파악할수 있게 한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관리원칙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체계를 그에 상응하게 개편하는 동시에 그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방도들을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해당단위의 당위원회가 지도사업에서 주인으로 되게 하는 문제, 하부지도에서 상하가 합심하는 문제,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구체적으로 지도방조하는 문제, 지도를 종합적으로 하고 걸린 문제를 우가 책임지고 끝까지 해결하여줄데 대한 문제 등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원칙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였다.

우리 당은 경제관리를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혁명적인 사상에 기초하여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관철을 위한 체계와 방법, 그것들의 실현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규명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제시된 이러한 원칙들과 실천적방도들은 경제관리에서 당의 정치적령도를 강화하고 군중로선을 관철시키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부단히 높이면서 그것에 의거할데 대한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적요구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심화발전시킨것이다. 그것은 생산과 관리에서 지도와 대중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생산자대중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3

인민경제의 지도관리에서 정치사업선행을 통하여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은 경리운영의 과학성, 합리성 보장으로 안받침될 때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

경제의 관리운영에서 과학성의 보장은 현실적조건을 정확히 타산하고 현대적생산의 객관적요구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하며 대중의 로력적열성과 창발성이 가장 큰 결실을 가져올수 있게 한다. 그것은 현대적생산이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군중을 조직동원하고 최신과학기술이 달성한 새로운 성과와 엄밀한 경제기술적타산에 기초하여 생산조건들을 보장함으로써 앙양된 근로자들의 정치적열의를 위력한 물질적힘으로 전환시킨다.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에 맞게 과학적관리형태와 관리방법을 수립하는것은 경제관리문제해결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의 관철을 기본으로 하며 경제관리를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사상을 경제기술사업의 모든 측면에 확고히 관철함으로써 과학적인 관리형태와 방법을 완성할데 대한 문제를 리론실천적으로 해결하였다.

대안체계는 첫째로, 경제에 대한 계획적지도를 강화하며 둘째로, 사회적생산의 합리적인 조직에 기초하여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셋째로, 경제적공간들을 정확히 리용함으로써 절약제도를 강화하는 원칙을 구현하고있다.

인민경제에 대한 계획적지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며 정확한 계획작성은 경제발전의 첫째조건으로 된다. 경제관리운영의 성과여부는 계획이 어떻게 작성되고 그 수행이 어떻게 조직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인민경제의 계획화에서 항상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계획을 주객관적조건에 맞게 정확히 세우는 동시에 인민경제전반과 부문의 범위에서는 물론 사회적생산의 기초적단위인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며 계획의 작성과 집행에서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것이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의 종합적균형을 보장하면서 계획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세워 정확히 맞물리며, 경제발전의 량적지표와 함께 질적지표의 계획화를 개선하며, 계획화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고 일원화계획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계획적지도를 더욱 개선강화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김일성동지는 해방직후에 벌써 《각 공장, 기업소별로 되는, 또한 전 국가적으로 되는 세밀한 계획이 없이는 전체인민의 소유로 된 우리의 산업을 복구발전시킬수 없다》(김일성선집 제1권, 226페지)라고 교시하였으며 사회주의경제의 계획화는 당의 정책과 객관적현실에 맞게 인민경제의 전반적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는 동시에 구체적이고 세밀하여야 하며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다 맞물리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였다.

세부계획화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사회주의경제의 계획화사업발전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의 규모가 커지며 생산기술적련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문제가 더욱 절실해지는 동시에 일층 힘들게 되며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이 경제발전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기때문이다.

군중로선의 관철에 기초한 세부계획화는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며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과 객관적요구를 실현하는 유일하게 옳은 길이며 방법이다.

계획을 세부지표에 이르기까지 맞물리며 계획화사업의 과학성을 보장함에 있어서 기본은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 계획화사업에서 생산자대중에 의거하고 그들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것은 계획의 과학성과 동원성을 보장하며 그 실행대책을 정확히 강구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생산자대중이 노는 역할 그리고 계획화사업의 과학성과 동원성을 보장함에 있어서 군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이 가지는 의의를 과학적으로 천명한데 기초하여 군중로선의 관철을 계획화의 기본원칙으로 되게 하였다.

계획화에서 군중로선의 원칙을 관철한다는것은 김일성동지가 교시한바와 같이 《생산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생산자인 로동자들과 토의하여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을 생산자들 자신의것으로》(《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에 대한 군중토의는 계획화에서 군중로선관철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또한 작성된 계획을 생산자대중자신의 것으로 만드는것은 계획수행에서 그들의 책임성을 높일수 있게 하며 계획을 집행하는데서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담보로 된다.

대안체계하에서 확립된 일원화계획체계는 계획화사업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일원화계획체계는 계획화에서 전 국가적요구와 성, 국을 비롯한 생산기관, 기업소의 요구를 가장 합리적으로 결합시킨다. 그것은 국가의 전반적계획을 작성시달하는 체계와 그 한부분으로 되는 작전 및 전투 계획을 작성시달하는 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하나의 통일적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중앙으

로부터 지방과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계획화사업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일원화계획체계는 모든 단위와 고리들에서 당의 로선과·정책에 엄격히 의거하여 전 국가적립장에서 계획화사업을 진행하여 계획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여준다.

인민경제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며 설비, 자재, 로력 등 생산자원을 극력 절약하면서 생산을 더 많이 내는것은 과학적인 경제관리운영의 기본요구이며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하나의 원칙으로 된다.

대안체계에서는 이러한 요구들을 우가 아래에 자재를 현물로 책임지고 내려다 주는 새로운 자재공급체계의 확립과 합리적인 로동조직형태들의 도입 등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였다.

자재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공급하는것은 생산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대안체계하에서 확립된 자재공급체계의 창조성은 첫째로, 우로부터의 통일적인 자재공급을 강화함으로써 생산현장들에서 모든 력량을 본신사업인 생산에 집중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생산수단의 계획적공급을 일층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이에 자재류통의 상업적형태를 합리적으로 배합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로, 협동생산조직을 조절하고 자재소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수 있도록 한데 있다. 이리하여 대안의 자재공급체계는 생산을 지도하는 기관들과 자재를 공급하는 기관들이 직접적인 생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복무하며 자재공급을 생산공정의 요구에 전적으로 적응시키는 등 이 분야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그것은 세부계획에 의한 자재의 계획적공급을 강화하여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하며 자재의 합리적인 리용을 촉진할수 있게 하여주고있다.

매개 기업소들이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밑에 경영업무상 자립적으로 활동하고있는 조건에서 그에 대한 계획적 지도의 강화와 함께 경제적공간들의 옳바른 리용은 경리운영의 과학성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정확히 결합시키고 독립채산제와 내부채산제를 강화하며 재정 및 부기 사업에 대한 대중적통제를 적극 실현할데 대한 문제 등 경제적공간들을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요구에 맞게 잘 리용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 모든것은 대안체계하에서 군중로선을 관철시키고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면서 이에 경제기술적사업을 옳게 배합하여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체계를 이룰수 있게 하고있다.

* *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함에 있어서 수많은·귀중한 업적들과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리 당이 쌓아올린 이러한 빛나는 업적과 성과들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당은 대안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경제관리원칙을 고수하고 그것을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요구에 부합되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켰다.

지난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대고조가 이룩되고 기술, 문화, 사

상 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은것은 우리 당이 인민경제의 지도관리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한것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지금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는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굳건히 다지면서 7개년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앞당기기 위하여 도처에서 높은 애국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발휘하고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오늘 모든 부문의 일군들이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고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로 제고시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계속 줄기차게 끌고나아감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안체계의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든 일군들이 대안체계의 진수를 심오하게 연구하며 그 요구대로 사업하고 행동하는것이다. 대안체계의 도입과 일반화를 위하여 김일성동지가 주신 교시들에는 사회주의경제의 지도관리를 개선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리론실천적으로 명백히 주어져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대안체계의 도입과 일반화를 위하여 주신 김일성동지의 모든 교시들을 더욱 심오하게 학습하여야 하며 현지지도과정에서 보여주신 사업방법의 모범을 체득하여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관련한 모든 교시들을 실지사업에 정확히 구현함으로써 우리는 경제관리운영전반에서 더욱 커다란 혁신을 일으킬수 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가일층 촉진하게 될것이다.

남조선혁명과 로동운동

리 기 서

1

남조선혁명을 적극 추진시키며 조국통일을 실현함에 있어서 남조선로동운동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이 혁명을 령도하여야 할 남조선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과 관련된다.

김일성동지는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동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남조선에서의 혁명은 외래제국주의의 침략세력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며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혁명이다.

남조선에서 이 혁명을 수행하는 동력은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과 제국주의 및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이다. 또한 민족자본가들도 반제반봉건투쟁에 참가할수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51페지).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동력으로부터 출발하여 로동계급은 이 혁명에서 주력부대로 되며 령도계급으로 된다. 남조선혁명은 로동계급의 령도가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철저한 반제반봉건혁명으로 될수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령도는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령도가 보장되지 않는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철저하게 수행될수 없으며 많은 경우에 혁명의 열매를 부르죠아지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남조선혁명운동의 쓰라린 경험이 이것을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4월인민봉기에 의하여 리승만괴뢰정권은 타도되였으나 그의 열매를 미제의 다른 주구에게 빼앗기게 되였다. 이것은 이 봉기에 로동자, 농민들이 광범히 참가하지 못하였고 특히 로동계급의 령도가 보장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었다.

《한일협정》을 반대하여 궐기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3.24, 6.3항쟁과 8월투쟁이 뜻을 이루지 못한것도 이에 대한 로동계급의 확고한 령도가 없었고 이 투쟁이 로동운동, 농민운동과 밀접히 결합되지 못한것과 관련된다.

오늘 남조선에서 로동계급의 령도가 보장되느냐 못되느냐 하는것이 혁명의 승리를 좌우하는 기본고리라는것을 보여준다.

로동계급은 어느 계급보다도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으로서 남조선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진 모든 계급계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을 령도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야 하며 또 이끌수 있다.

레닌은 일찌기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심지어 그들이 주민의 소수를 이루는 때에도(혹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의식적이고 진정으로 혁명적인 선봉대가 주민의 소수를 이루

는 때에도) 부르죠아지를 전복할 능력도 있으며, 또 그 다음에는 반(半)프로레타리아 및 소부르죠아대중가운데서 많은 동맹자를 자기편에 이끌어올 능력도 있다》(레닌전집 제30권, 334페지).

물론 남조선의 로동계급은 아직 수적으로 적고 녀성 및 소년 로동자들이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남조선의 로동계급은 점차 각성되여 가고있다. 오늘 남조선로동자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과 파쑈화정책을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요구하여 진출하고있다. 그들은 투쟁속에서 더욱 튼튼히 결속되여가고있으며 그들 속에서는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한 혁명가들의 대렬이 자라나고있다.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공화국북반부에 이룩된 사회주의건설의 빛나는 성과는 남조선로동계급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여주는 희망의 등대이며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남조선로동계급은 당과 수령의 옳은 령도를 따라 북반부에서 번영하는 새 시대, 로동당시대를 열어놓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통하여 조국의 미래와 자기들의 앞날을 내다보고있다.

남조선로동계급은 파쑈적폭압속에서도 항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공화국북반부에 이룩된 사회주의건설성과를 우러러보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2

남조선로동계급은 8.15후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반미구국투쟁에 적극 참가하였다. 이것은 각계각층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8.15해방직후 남조선에서는 로동운동이 급격히 앙양되였으며 그 영향하에 각계층인민들의 투쟁도 고조되였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53페지).

8.15직후 남조선에서는 일제의 패망과 함께 공장, 기업소들을 보위하기 위하여 궐기한 영등포지구 로동자들의 투쟁과 공장관리권획득을 위하여 궐기한 서울시 화물자동차회사 로동자들의 투쟁 등을 비롯하여 남조선로동운동이 급격히 장성하게 되였다.

1946년에 이르러 대중적인 파업에로 진출하기 시작한 남조선로동계급은 9월총파업을 단행하였으며 그것은 영웅적인 10월인민항쟁에로 발전하였다. 그후에도 1948년 2.7구국투쟁, 5.10망국단선반대투쟁 등 전인민적반미구국항쟁의 선두에서 용감히 싸웠다.

그러나 이 시기 남조선로동운동은 일련의 제약성을 면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로동운동은 미제의 고용간첩 박헌영도당의 파괴책동으로 말미암아 원쑤들의 발악적인 공세앞에서 많은 손실을 당하고 1948년하반기부터 일시적침체상태에 놓이게 되였다.

전후 남조선로동운동은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조선전쟁에서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은대신 새 전쟁준비에 광분하면서 식민지예속화정책과 파쑈적탄압을 강화하였다. 남조선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더욱 첨예화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새 전쟁준비책

동과 파쑈적탄압을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요구하는 로동자들의 투쟁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1959년에 이르러 남조선 로동자들의 투쟁건수는 1954년에 비하여 4.4배로 격증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로동계급은 4월인민봉기에 주동적으로 참가하여 그것을 철저한 반제반봉건투쟁으로 인도할만큼 준비되여있지 못하였다.

4월인민봉기를 통하여 남조선로동자들의 정치적각성은 제고되였다. 4월인민봉기후 남조선로동운동은 더욱 장성하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의 정치적각성과 로동운동의 장성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시키며 남조선로동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에 의하여 더욱 촉진되였다.

남조선로동운동은 군사파쑈독재의 수립으로 인한 발악적인 반혁명공세에 부딪쳐 또다시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들은 어떠한 탄압과 기만으로도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을 멈출수 없었다.

1963년하반기에 이르러 남조선로동운동은 엄혹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또다시 장성하기 시작하였다.

최근년간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에서는 급격한 량적장성과 함께 투쟁규모의 확대, 투쟁형태의 적극화, 정치투쟁에로의 진출 등 주목할만한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남조선로동운동에서 일어난 새로운 변화는 무엇보다도 투쟁의 규모가 크며 대중적운동으로 발전하고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발전추세는 최근시기에 이르러 더욱 뚜렷해졌다. 1966년에는 투쟁에 참가한 로동자들의 수가 40만이상에 달한다. 이것은 전후 로동운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진출이였다. 지난해 로동자들의 투쟁은 미군부대를 비롯하여 부두하역, 자동차운수, 해상운수 등 여러 부문에서 광범히 전개되였다. 그중에서도 미군부대내에 고용된 로동자들의 투쟁이 급격히 확대되였다. 이 부문에서 투쟁에 참가한 로동자수는 1965년의 7만명으로부터 1966년에는 20여만명으로 급격히 장성하였다. 이와 함께 《12월쟁의》이후 일시 잠잠하였던 석탄, 철도, 체신 등 13개 부문의 《정부관리기업체》 로동자들이 투쟁에 진출하였다. 이러한 투쟁들은 거의 모든 산업부문과 지역을 포괄하는 대중적투쟁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 각계각층 군중들의 투쟁에서 로동자들의 투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의 17.7%로부터 1963년에는 22.8%로, 1966년에는 32%로 계속 늘어나고있다.

최근년간 남조선로동운동에서는 의연히 임금인상, 밀린 임금의 지불 등을 요구하는 경제투쟁의 비중이 높지만 경제적요구를 정치적요구와 결부시켜가는 추세를 보여주고있다.

지난해의 로동자투쟁에서도 임금투쟁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으나 이러한 투쟁이 민주주의적권리를 전취하기 위한 투쟁과 결부됨으로써 정치적요구를 제기한 투쟁의 비중은 1963~1965년간 평균 10%로부터 18%로 높아지고있다.

로동운동에 대한 탄압반대, 어용《로조》간부의 규탄, 8시간로동제실시, 단체협약체결 등의 요구가 광범히 제기되고있으며 미군감독의 추방, 미군의 탄압반대 등 투쟁에서 반미적색채를 띤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년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있는 미군부대 로동자들 속에서 뚜렷

이 나타나고있다.

남조선로동운동에서는 또한 밑으로부터의 행동통일과 련대성을 강화하며 운동을 자주적이며 조직적으로 밀고나가려는 경향이 점차 증대되고있다.

로동자들 속에서는 관제로조의 상층어용간부를 배척하는 기세가 높아졌으며 로동자들자체가 직접 투쟁을 조직전개하거나 반동적《로동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전개하는 자주적투쟁이 늘어가고있다. 작년도에 이러한 투쟁의 비률이 높아졌으며 특히 미군부대 및 외국기관에 고용된 로동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로동자대중의 행동통일과 밑으로부터의 자주적인 투쟁기세가 높아지고 이에 끌리여 《로조》하층간부들이 투쟁에 합류하지 않을수 없게 됨에 따라 《로조》상층의 통제적기능이 적지않게 약화되여가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점차 동일산별의 련대적투쟁과 각이한 산별간의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추세로 나아가고있다.

1966년 1월 《외국기관로조》 인천특수지부산하 1,200여명의 로동자들이 부평지구의 경비로동자들의 파업투쟁에 합세하여 동정파업을 전개한 사실, 자동차운수부문로동자 10만여명이 서울시내 6,000여명의 빠스로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여 동정파업을 선언한 사실 등은 그의 대표적인 실례이다.

파업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기업소내 로동자들의 투쟁에서 이루어진 행동통일과 산별적인 련대투쟁, 지역적인 공동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투쟁은 치렬하고 완강하게 전개되여가고있다.

1966년 1월 미군부대에 고용된 부평지구내 로동자들은 최루탄을 쏘면서 발악적으로 달려드는 미제침략군에게 폭력으로 대항하여 투석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66년 2월에 미제침략군에 의한 부당해고와 민족적박해를 반대하여 파업과 시위를 단행한 《한국로무단》의 파주지구로동자 1,100여명은 최루탄을 쏘아대고 총창으로 찌르면서 달려드는 원쑤들의 류혈적탄압을 박차고 미군병영내에 밀고들어가 치렬한 투쟁을 벌리였다. 이러한 투쟁들은 최근년간의 남조선로동운동에서 류례를 찾아보기 드문 완강한 투쟁이였다.

로동자들의 투쟁이 치렬해지고 완강해짐에 따라 투쟁형태에서 파업투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의 13%로부터 1966년에는 24%로 제고되였다. 로동자들이 제기한 요구조건의 관철률도 같은 기간에 1.5배이상으로 높아졌다.

남조선로동운동의 최근추이는 로동자들의 계급적자각과 민족적각성이 제고되면서 점차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 발전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최근년간 남조선로동계급의 진출이 강화되게 된 기본요인은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파쑈적탄압과 략탈의 강화로 인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일층 심화된데 있다. 특히 박정희도당의 임금억제정책과 수탈의 증대와 로동강도의 강화는 로동자들의 생활처지를 더는 참을수 없는 지경에 몰아넣고있다. 이것은 로동자들의 불만을 더욱 크게 하였으며 그들을 보다 적극적인 투쟁에로 나서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로동자들의 투쟁이 강화발전하게 된 다른 하나의 요인은 날이 감에 따라 로동계급의 각성이 높아지고 투쟁과정에서 경험과 교훈을 얻고있으며 로동계급속에서 선진분자들의 대렬이 자라나고

있는데 있다.

그리하여 남조선로동자들은 류례없이 심해진 파쑈적탄압을 맞받아나가면서 완강하게 싸우고있으며 어느 계급계층보다도 꾸준히 진출하고있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로동운동은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에 비하여 뒤떨어져있으며 아직 일련의 본질적결함을 극복하지 못하고있다.

4월인민봉기후 최근까지의 남조선로동운동발전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로동계급은 아직도 대중적정치투쟁에 주동적으로 참가하여 광범한 군중을 반제반파쑈의 기치하에 묶어세우지 못하고있으며 각계각층인민운동을 하나의 위력한 반미구국투쟁에로 합류시키지 못하고있다.

남조선로동운동은 아직도 경제투쟁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분산성과 소극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성을 낳게 한 기본원인은 남조선로동운동에 대한 혁명적당의 통일적인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지 못하였으며 로동자들의 계급적의식과 민족적각성이 그리 높지 못한데다가 자기의 계급적리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대중조직에 결속되지 못하고있는데 있다.

그러므로 오늘 남조선로동운동앞에는 지금까지 투쟁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살려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로동자대중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대중투쟁을 가일층 발전시켜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3

오늘 남조선에서 로동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며 그것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세우는 문제는 남조선혁명수행을 위하여 제기되는 가장 절박한 과업의 하나이다.

남조선로동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로동계급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급속히 추진시키는것이 필요하다. 로동계급의 의식성과 조직성을 제고하여야만 그들의 투쟁능력을 제고하고 각계각층군중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할수 있다.

남조선로동계급을 의식화함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과업은 그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남조선혁명가들은 모든 선전선동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남조선사회제도의 반동적본질과 적대적모순관계, 남조선혁명에서 로동계급의 역할, 제국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꾸준히 해설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륭성발전하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선전은 남조선로동계급이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할것이다.

특히 4천만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대한 교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남조선로동계급에게 민족번영의 백년대계가 실현되고있는 북반부의 거창한 현실이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이루어졌고 그 빛나는 성과들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뿌리박고있다는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남조선로동계급은 높은 혁명의식으로 무장되여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목적의식적으로 투쟁할수 있으며 최후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남조선로동계급의 의식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또한 그들을 민족적자주의식으로 무장시키는것이 필요하다.

남조선로동운동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혁명의식으로 무장시킴과 동시에 조직적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은 계급적으로 각성될뿐아니라 그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됨으로써만 강력한 혁명적력량으로 전환될수 있다.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단결이다. 로동자들은 오직 계급적단결과 강력한 조직력에 의해서만 자본가계급과 대항할수 있으며 온갖 압박과 착취로부터 자신을 해방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로동계급을 조직화할 필요성은 그들의 현 조직상태의 미숙성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남조선로동자들을 의식화조직화하자면 로동계급의 전위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가져야 한다. 혁명적당이 없이는 로동운동을 맑스—레닌주의와 결합시킬수 없으며 운동에 명확한 투쟁강령을 제시할수 없고 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할수 없다.

따라서 남조선에서 혁명적당을 꾸리며 그의 합법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남조선로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남조선로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혁명적당을 꾸리며 광범한 로동자들을 대중조직에 묶어세워야 한다. 대중조직은 광범한 로동자대중을 망라하는 조직으로 되어야 하며 자기의 계급적리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민주주의적조직으로 되여야 하며 원칙상 합법적조직으로 되여야 한다. 이러한 대중적조직에 남조선로동자들이 결속될때 그들은 혁명적당의 영향하에 계급적 및 민족적으로 더욱 각성되고 조직적단결을 강화하게 될것이다.

남조선로동계급은 자신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동시에 반제민주주의적투쟁강령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이 필요하다.

남조선로동계급은 우선 임금인상과 8시간로동제, 유급휴가제의 실시, 실업자의 취업보장 등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남조선로동계급은 로동운동과 자주적인 로조활동에 대한 탄압을 반대하고 로동자들의 세가지 기본권리인 단체교섭권, 단결권, 파업권의 보장을 요구하여 싸워야 하며 나아가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와 로동계급의 당인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의 합법적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로동자들의 절실한 생활상 리익과 정치적자유는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이 보장되는 때에라야 이루어질수 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저애하는 질곡은 미제강점하의 식민지반봉건사회체제이다. 그러므로 남조선로동계급은 식민지반봉건적착취의 청산과 중요산업의 국유화 및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의 실시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제반 민주개혁은 근본적인 정치적변혁이 없이는 실현될수 없다. 민주주의적변혁을 위한 로동자들의 모든 투쟁은 괴뢰정권을 타도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정치투쟁으로 발전되여야 한다.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변혁을 위한 투쟁은 반드시 미제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과 결합되여야 한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사회경제체제를 유지하고있는 장본인이다.

남조선로동자들은 각계각층인민들을 굳게 결속시켜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체제를 철폐하기 위한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남조선로동계급이 이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자면 혁명적당의 령도하에 로농동맹을 기초로 광범한 각계각층인민들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남조선로동계급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를 등에 업고 다시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침략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된다.

남조선로동계급은 현시기 절박하게 제기되고있는 당면과업들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현시기 외래침략세력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당면과업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을 파탄시키며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94페지).

오늘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전쟁정책과 파쑈적폭압은 남조선로동자들과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들씌우고있으며 정치적무권리를 강요하고있다.

남조선로동계급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준비책동과 《국군》의 남부윁남파병을 반대하여 완강히 싸워야 한다. 남조선로동계급은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적폭압과 전횡을 저지파탄시키며 식민지파쑈통치의 가장 악랄한 집행자이며 가장 반동적인 군사특무테로집단인 현 군사파쑈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부정선거의 원흉을 처단하라》고 웨치며 박정희도당을 반대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강화되고있다. 이 투쟁은 악독한 식민지테로통치로 여지없이 짓밟힌 자유, 민주주의와 생존의 권리를 찾으려는 정의의 투쟁이며 애국적투쟁이다. 남조선의 로동계급은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 용감하게 끝까지 싸워야 할것이다.

남조선로동계급이 당의 령도밑에 혁명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되여 투쟁할 때 그들은 남조선혁명에서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될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침략을 은폐하는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

김 광 진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기여든 첫날부터 모든 권력을 자기 수중에 틀어쥐고 남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자기들의 침략적 및 략탈적 목적을 추구하여왔다.

이리하여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전락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적 및 략탈적 본성을 가리려고 음흉하고 교활한 술책을 꾸미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에 의하여 실시되고있는 신식민주의정책은 바로 그러한 침략적목적에 복무하고있다.

우리 당 대표자회에서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을 폭로하고 그들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과 남조선사회의 식민지적성격을 밝가놓아야 할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03～104페지).

남조선의 적지않은 사람들은 미제가 꾸며낸 신식민주의정책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마치 미국의 《보호》와 《원조》가 없이는 살아나갈수 없을것 같이 생각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숭미사대주의사상의 영향은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의 본질을 정확히 리해하는것은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은 식민지통치의 위기의 산물로서 그것은 남조선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은폐하기 위한 교활한 량면술책의 일환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지배는 파거 일본제국주의의 통치와 본질상 아무런 차이도 없다. 차이가 있다면 파거에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에서 총독정치를 실시하였는데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괴뢰정권을 앞잡이로 리용하여 더욱 교활한 신식민주의적방법으로 남조선을 통치하고있는것뿐이다》**(《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29페지).

신식민주의의 주요특징은 예속국들에서 형식상 정치적독립을 승인하면서 간접적인 형태와 방법으로 지배를 유지하고있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신식민주의라는 간접통치의 형식을 들고나오게 된것은 식민지인민들의 계급적 및 민족적 의식의 제고와 그들의 해방투쟁의 급격한 앙양, 식민주의자들에게 더욱더 불리하게 조성되는 국제정세 등과 관련된다.

제2차세계대전이전에는 제국주의자

들이 포화와 총검의 위협으로 공공연하게 식민지통치를 계속할수 있었으며 식민지인민들의 반항을 폭압으로써 진압할수 있었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이후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진영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면서 일떠선 수억만 인민들의 강력한 민족해방투쟁을 무력만으로써는 진압할수 없게 되였다.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조건하에서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종전의 방법과는 달리 세계적규모에서 음흉하고 교활한 신식민주의통치수법을 꾸미여내는것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신식민주의란 제국주의의 강대성의 표시가 아니라 그 취약성의 표시로 되며 멸망단계에 선 식민주의라고 말할수 있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신식민주의정책에 매달리게 된것은 공화국북반부 혁명기지의 강력한 영향력에 의하여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혁명적기세가 앙양된 실정과 직접 관련된다.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반부에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 수행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들이 달성되고있는것은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자유와 독립에 대한 지향을 강화시켰으며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기세를 높이였다.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급속히 높아가는 자유와 독립에 대한 불같은 념원과 민족해방의 투쟁기세는 미제국주의로 하여금 구식민주의자들과 같이 무력적인 강압의 방법에만 의거할수 없게 하였다.

남조선에 조성된 이러한 정세로부터 미제는 저들이 마치 《보호자》, 《원조자》인듯이 가장하고 침략과 략탈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식민주의정책을 실시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남조선에서 미제가 실시하고있는 신식민주의정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괴뢰주구들을 통하여 식민지지배를 유지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간접통치는 침략적목적을 은페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남조선을 〈독립국〉으로 선전하며 자신을 〈원조자〉로 묘사하고있으나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있는 실제적통치자는 바로 미국침략자들이다. 남조선의 소위 〈대한민국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괴뢰정권으로서 그들의 식민지통치를 가리는 위장물이며 미국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92페지).

미제는 남조선에서 괴뢰정권을 그 어떤 자주성을 가진 《민주정부》인것처럼 가장하고 그것을 앞장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정권》은 그 구성으로 보나 사회계급적지반으로 보아 철두철미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남조선의 력대괴뢰정권은 모두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여있으며 남조선인민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는 로동자, 농민의 대표는 단 한사람도 이에 참가하지 못하고있다.

리승만은 30년간이나 미제가 직접 길러낸 주구이며, 장면도 역시 미군정당시에 하지를 비롯한 미국의 고등륙무가 정계에 등장시킨자이며, 박정희로 말하면

일관하여 일제와 미제의 주구노릇을 하면서 《대통령》자리에 기여오른자이다. 괴뢰정부의 요직에 있는자들의 경우도 사정은 같다.

미제에 의하여 비호육성되였으며 괴뢰정권에 들어앉은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그의 반동적인 계급적본성으로 하여 미제의 침략의 안내자로, 그의 충실한 동맹자로 복무하고있다.

남조선《정권》은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집행하는 괴뢰기관으로서 그것은 미제의 현지지배기구와 현지감시기관들에 완전히 종속되여있다.

오늘 남조선에는 괴뢰통치기구우에 외교기관의 탈을 쓴 《주한미대사관》, 《원조》기관의 탈을 쓴 《주한미국제개발처》, 《유엔군》의 탈을 쓴 《주한미군사령부》, 문화계몽기관의 탈을 쓴 《주한미공보원》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그럴듯한 명의로 위장된 《미중앙정보국남조선지부》 등 미제의 현지통치기구가 있으며 《외교관》, 《사절단》, 《기술자》, 《고문》, 《실무일군》, 《선교사》 등 각종 현지감시인들이 있다.

미제는 이것들에 《국가적련계》, 《호상방조》, 《통상》, 《원조》 등 각종 업무를 집행하는 미국의 재외공식외교기관, 대표라는 형식을 부여하고 그것들의 《합법성》을 표방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실상 남조선괴뢰정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치외법권적권리를 행사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실제적인 《대통령》은 백악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주한미국대사》이며 괴뢰육해군의 실제적인 통수권을 장악하고있는자는 남조선강점미군사령관이며 남조선경제관리의 실권자는 《미국제개발처》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정부간의 종속관계는 각종 《조약》과 《협정》 등에 의하여 위장되고있으며 《합법화》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에 강요된 《협정》, 《조약》, 《군사동맹》은 미제의 식민지적지배를 《합법화》하는 신식민주의의 교활한 수법에 불과하다.

미제는 남조선괴뢰정부에 강요한 각종 불평등협정과 조약들을 괴뢰정부에 대한 종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리용하고있다.

1918년 괴뢰정권이 조작된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체결된 수많은 《협정》과 《조약》들에 의하여 미제와 남조선간의 종속관계는 《법》적기초를 가지게 되였으며 이것은 미제에게 무제한한 권력과 략탈적인 특권을 보장하고있다.

미제는 총검에 의하여 남조선괴뢰정부를 조작하고는 《대통령령》으로 미군정의 부속물이였던 《남조선과도정부》의 제 기구와 지방행정기구를 승인하고 계승한다는 《법적조치》를 강구하였다. 또한 그들은 《한미 재정 및 재산이양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미군정이 모든 《법률, 법령 및 규칙》을 《전적으로 계속 시행》하게 하였다.

제한없이 미국에 권력을 부여한 《한미호상방위조약》을 비롯한 60여종에 달하는 매국조약과 협정들은 미국의 현지지배기구에 종속된 남조선괴뢰정부의 예속성을 《법적》으로 규정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에 강요된 《한미호상방위조약》, 《한일조약》은 미국, 일본, 남조선간에 체결된 삼각군사동맹으로서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통제하며 미국의 손아래 동맹국의 하나인 일제에 의한 2중적예속에까지 얽어매는 수단이다.

미제는 《공동방위》를 구실로 삼고 남

조선에 150여개소에 달하는 군사기지를 두고있다. 미군의 군사기지는 사실상 남조선에서 미점령제도를 보존하며 정치적지배와 군사적종속을 강요하는 압력수단으로 된다.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의 남조선에서는 민족적자주권이 여지없이 유린말살되였으며 남조선괴뢰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자주권도 행사하지 못하고있다.

사실상 남조선에서는 《헌법》을 뜯어고치고 《법률》을 제정하는것으로부터 《예산》을 세우고 세금을 징수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의 괴뢰정권의 모든 활동이 미제에 의하여 좌우되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이 자주권을 상실하고 있는것은 괴뢰권력기구가 미제에게 완전히 종속되여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의 괴뢰군, 경찰, 특무 등 각종 폭력기구들은 저들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하고있다.

미제는 괴뢰군의 통수권은 물론 괴뢰병력의 구성, 징병, 무기보급, 군사예산 등 모든것을 관할하고있다.

괴뢰군의 통수권을 장악하고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의 명의로 괴뢰륙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작전에 대한 명령과 지시를 하달하며 그의 실행정형을 보고받고 있다.

《한미회담의사록》에는 《유엔군사령부가 대한민국방위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휘하에 둔다》라고 규정되여있다.

괴뢰군장교들에 대한 인사권도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수중에 장악되고있다. 괴뢰군대대장급이하의 중하층장교의 배치와 조동은 사단급이상에 배치된 미국수석고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련대장급이상의 괴뢰상층장교의 배치와 조동은 《주한미군사령관》의 승인하에서만 할수 있다.

남조선괴뢰정부의 폭력기구들은 사실상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폭압도구에 불과하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중요한 내용은 이루고있는것은 이른바 《원조》를 통한 경제적지배와 략탈이다.

미제는 《원조》로써 저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동정자》, 《벗》인것처럼 가장하면서 교활하게 정치군사적지배를 강화하여 민족의 분렬과 대립을 조성하고 있을뿐아니라 남조선경제의 모든 분야에 침투하고있다.

미제는 《경제원조》물자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남조선에 소요되는 주요기계설비의 거의 전부와 주요 원자재공급의 70~80%, 수입무역의 약 50%이상을 차지하고 남조선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있다.

그들은 또한 《원조》물자를 남조선시장에 비싼값으로 팔아 그 대금은 괴뢰정부의 재정예산에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남조선재정예산의 30~40%와 금융자금의 30%를 장악하고 이것을 미끼로 남조선의 내부자원과 로동력을 저들의 침략적목적에 동원하고있다.

미제의 《원조》물자판매대금의 압도적부분은 직접적군사비로 지출되고있다.

미제는 8.15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경제원조》총액의 약 80%를 주로 괴뢰정부의 재정체계에 투입하고 이것은 미끼로 해마다 괴뢰정부예산지출의 70%이상을 자기들의 침략적목적을 위한 군사경찰비로 지출케 하고있으며 그의 20%는 군수품의 현지조달과 미국과잉상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경제부문에 투하하고있다.

미제는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에서 막대한 재부를 략탈하고있다. 초보적인 계산에 의하더라도 1945~1962년간에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략탈한 총액은 100억딸라이상에 달하고있다.

미제의 정치군사적수탈은 주로 미제

강점군의 주둔, 방대한 괴뢰군의 유지와 관련되여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저들의 군사적목적을 위하여 직접 많은 재부를 략탈하고있는 동시에 《원조》를 미끼로 남조선인민들에게 막대한 군사경찰비를 비롯한 비생산적비용을 부담시키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의 군사〈원조〉는 60여만에 달하는 남조선괴뢰군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군사비의 일부로서 충당되는것이다. 남조선군대란 전적으로 미국의 침략정책에 복무하는 고용군대이다. 그런데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남조선괴뢰군 한개 사단을 유지하는데는 미군 한개 사단을 유지하는것보다 25분의 1이나 적은 비용이 드는것이다. 그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청장년들을 강제로 징모하여 미국의 침략적목적에 리용함으로써 자기들의 군사비지출을 굉장히 〈절약〉하는 동시에 남조선인민들에게 무거운 군사비부담을 들씌우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47페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원조》는 겉으로는 남조선을 도와주는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엄청난 략탈을 가져오고있다는것은 이에서 자명하여진다.

남조선주재 미고문단장이였던 로버트라는자는 《미국은 한국에서 충견(忠犬)으로서 역할을 하는 군대, 최소비용, 최대효과의 견본인 군대를 가지고있다》고 로골적으로 떠벌렸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원조》는 최근년간 일정하게 변화되고있다. 미제는 심각화되여가는 자국의 재정경제적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른바 《딸라방위조치》를 취하고있으며 그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대외원조비》지출을 축감하는 한편 그것을 《증여》형태에서 《차관》형태로 전환시키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유지하고있는 괴뢰군을 축소하지 않고 《원조》의 규모를 축감하면서 그것을 《증여》에서 《차관》으로 전환하고있다는것은 과거에 《원조》자금으로 충당하던 괴뢰군유지비의 일부마저 남조선인민들의 부담으로 되여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신식민주의정책에서 각종 사상문화적수단들을 교활하게 리용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적 지배를 실현함에 있어서 사상문화적수단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허위적인 《민족주의》구호밑에 《반공》, 숭미 사상을 가장 교활하게 류포시키고있다. 박정희도당의 《민족적민주주의론》이 그의 실례의 하나로 된다. 그들이 내세우는 《민족적민주주의》란 철두철미 예속과 무권리와 부자유를 가리기 위한 허위적인 구호의 하나이며 신식민주의의 교활한 사상적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는 《민족적민주주의》의 구호하에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감정을 오도하여 악용하려 하고있으며 그것을 교활하게 조종리용하여 《반공》의식과 숭미사상으로 전환시키려 하고있다.

그들은 《공산주의침략》이라는 허위적 구호를 류포시키면서 동족상쟁을 고취하고있으며 미제의 군사기지화정책, 침략적군사동맹을 정당화하려 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남조선에서 〈반공〉은 인민들을 탄압하며 정치적반대파를 제거하는것으로부터 전쟁소동을 일으키며 동족상쟁을 고취하는데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만병통치의 약〉으로 되고있다》**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90페지).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사상선전은 그 어떤것이나 인민들의 계급적 및 민족적 각성을 마비시키며 그들을 자기들의 침략정책수행에 내몰기 위한것이다.

제반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 괴뢰정권, 괴뢰군은 미제의 식민지지배와 침략정책수행을 위한 도구이며 《원조》는 남조선경제를 미국의 군사적부속물로 만들며 군비지장을 강요하고 군사비부담을 합리화하는 수단이며 미제와 괴뢰도당의 사상문화선전은 전쟁준비책동과 침략행위를 엄폐하고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저애해보려는 마약이다.

⁘ ⁘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랑면술책으로써도 남조선에서 그의 침략과 략탈의 본질을 가릴수 없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은 식민지통치의 정치경제적위기를 심화시킬뿐이다.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실시하고있는 신식민주의정책은 그 침략적본질로 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첨예화시켜왔다.

남조선현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떠벌리는 《복지사회》건설이라는것이 얼마나 허황한 술책인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로동자들은 하루 10~12시간이상의 고역을 당하면서도 생계비의 3분의 1도 안되는 기아임금을 받고있으며 그것마저 몇달씩 받지 못하여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고있다. 농민들은 엄청나게 많은 빚을 걸머지고 해마다 절량에 시달리고있다. 청년학생, 지식인들은 진리탐구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빼앗기고있으며 심한 경제적고통을 받고있다. 도시소부르죠아지와 민족자본가들도 외래독점자본과 매판자본의 압박밑에서 파산몰락해가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오직 한줌도 못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 등 매국배족의 무리들만이 미제에 아부굴종하고 그들의 충견노릇을 하는 대가로서 부정축재를 하고, 호화방탕한 생활을 하고있다.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은 남조선계급관계에서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대리집행하는 반동관료배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였으며 사회경제관계를 재편성함으로써 신식민주의통치에 유리하게 계급관계를 개편하였다.

미제는 남조선경제의 압도적부분을 형식상 조선인소유로 만들고있으나 그들은 사실상 남조선재정경제의 명맥을 장악하고 각 방면에서 친미세력을 길러내며 미국의 리익을 대행하는 매판자본가들을 육성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농민들의 거세찬 투쟁을 무마하기 위하여 기만적인 《농지개혁》을 실시하여 농촌에서 대지주의 토지소유를 제한하고있으나 신식민주의통치에 적합하게 중소규모의 지주적토지소유를 광범히 보존하고있으며 령세농민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이와 같이 신식민주의방법에 의거하여 남조선의 사회경제관계를 재편성함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침략과 략탈의 사회계급적지반을 꾸며놓았다. 그러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남조선주민구성에서 한줌도 못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를 제아무리 교활하게 가장한다하더라도 그것은 인민들에게 더욱 큰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으며 그들의 반항을 증대시키고있을 따름이다.

남조선인민들 속에서는 참을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 준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에 대한 불만과 증오의 기세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의 사태발전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4.19와 6.3봉기를 통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의 신식민주의 통치를 크게 뒤흔들어놓은 남조선인민들은 계속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가혹한 착취와 수탈을 반대하며 로동조건과 생활처지의 개선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고있다. 남조선농민들 속에서도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불만이 표면화되고있다. 그들은 이른바 《중농정책》을 《농민을 죽이는 정책》이며 《폐농정책》이라고 규탄하면서 온갖 농촌착취와 수탈을 반대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군사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청년학생, 지식인들의 투쟁도 강화되고있다. 이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학원과 언론에 대한 파쑈적탄압, 학원의 관제화, 언론의 어용화를 반대하면서 민주주의적권리의 옹호를 위하여 투쟁하고있으며 구속학생석방, 제적된 학생들의 복교를 요구하고 괴뢰들의 부정부패를 규탄해나서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당면한 모든 투쟁을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며 정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키는것이 미제의 신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길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간접통치기구를 분쇄하고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할 때에만 오늘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수 있다.

남조선에서는 미제를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는 혁명과업을 수행할수 있는 주체석력량이 자라나고있다. 남조선에서 로동계급과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 등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은 반미, 반《정부》 투쟁에 적극 나서고있으며 투쟁과정에서 의식성과 조직성을 점차 높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는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일제의 재침 책동은 분쇄되여야 한다

신 명 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재침야망을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길에 들어섰다. 《한일협정》체결후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강화되고있다.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날뛰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또다시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며 전 조선과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전변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우리 인민앞에는 미제의 남조선침략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동시에 미제와 결탁하여 남조선에 기여들고있는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철저히 투쟁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 ⁂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 대표자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한일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남조선침투는 더욱 적극화되고있으며 〈한일조약〉을 기초로 하여 아세아에서 새로운 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미제의 음모도 더욱 로골화되고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88~89페지).

《한일조약》은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 박정희괴뢰도당을 결탁시키면서 아세아에서 새로운 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아세아침략정책의 산물이다. 그것은 대외팽창의 야망에 불타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또다시 조선에 대한 침략의 길을 열어준 반동적조약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은 이 《조약》에 의하여 더욱 조장되였으며 모든 분야에 걸쳐 일층 적극화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한일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 벌써 남조선에 적지않게 침투하여 그 지반을 닦고있었다.

박정희도당은 집권 첫날부터 일본독점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매국적조치를 수다히 취하였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에 의하여 고무되고 안내된 일본독점체들은 각종 《사절단》을 대량 파견하여 각 분야의 실정을 탐지하는 한편 남조선의 경제명맥에 파고들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한일회담》이 최종단계에 이른 시기에는 일본의 50여개 대독점체들이 남조선에 기여들어 저들의 출장소, 지점들을 설치하였고 남조선수출입총액의 3분의 1을 장악하는데까지 이르렀다.

《한일조약》체결후 일본독점체들의 사자본과 일제의 국가자본이 결합되여

경제의 명맥적요소들을 장악하면서 전면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남조선에 밀려들고있는 일본독점자본의 침투는 주로 《한일경제협력협정》을 발판으로 하고 《청구권자금》을 미끼로 하여 진행되고있다.

《청구권자금》을 포함한 8억딸라의 《경제협력자금》을 통하여 일본독점자본은 남조선의 중요산업부문에 침투하여 더욱더 저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경제협력자금》의 많은 부분을 철도, 교량, 도로, 항만, 선박건조 등 군사적목적과 결부된 부문들에 돌리고있다.

남조선경제에 침투한 일본독점들은 벌써 일련의 공업부문들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였다. 그들은 남조선경제에 더욱 깊이 침투하기 위하여 최근 《기술협력》이라는 미명으로 일본인기술자들을 파견하고있으며 미제의 《평화부대》를 모방한 《경영자평화부대》를 조직하고 이를 남조선에 파견한것도 획책하고있다. 이와 같이 하여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략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한일조약》체결후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정치적영향력이 증대되고있으며 그들과의 군사적결탁이 로골화되고있다. 《한일협정》체결후 지난날 조선에서의 식민지통치경험을 자랑하는 형형색색의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쓸어들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무려 3만여명이나 되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들은 괴뢰정부의 상층관리, 보수정당의 상층인물, 어용학계인사, 어용언론인들과 접촉하여 친일세력을 증대시키고 그것을 지반으로 하여 저들의 침략책동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 하고있다.

최근에는 일본군국주의두목 사또까지 남조선에 기여들어 박정희도당과의 정치적결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동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도당간의 군사적결탁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한일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도 미제의 지휘하에 남조선괴뢰군과 일본《자위대》간에는 동일한 경보신호체계가 수립되였고 일본이 남조선괴뢰군의 군사장비를 보급해주며 중무기를 수리해주는 등 군사적결탁이 이루어지고있었다. 일본독점자본가들은 남조선괴뢰군에 다량의 군용수송기자재, 함선 등을 공급하였으며 남조선괴뢰군의 비행기, 중무기들의 수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한일조약》체결후 박정희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간의 군사적련계는 더욱 밀접해지고있으며 일본을 중심으로 《한일군사체계》가 구체화되여가고있다.

미제의 조종하에 체결된 《한일조약》은 본질에 있어서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도당간의 군사적조약이다. 《한일조약》이 체결된 지금 미제와 일본사또정부와 남조선괴뢰도당사이에는 사실상 3각군사동맹이 형성되였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 남조선괴뢰도당은 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을 기도한 《미일한공동작전계획》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공동군사연습을 빈번히 감행하고있다.

이미 세상에 폭로된 《세개화살작전》, 《날아가는 룡작전》, 《날리는 황소작전》 등 조선과 아세아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세밀한 작전계획을 짜놓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군부내 주요인물들을 빈번히 남조선에 파견하여 군사분계선일

대와 괴뢰군의 실태를 조사하고있다.

최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자기의 무력을 남조선에 가까운 지방으로 이동집중시키는 조치까지 취하고있다. 그들은 륙군을 큐고꾸, 기다규슈 지방에, 해군병력을 조선해협부근에 끌어모으고 많은 항공무력을 규슈지방에 옮겨놓았다.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침략을 서두르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유엔》의 간판하에 일본군대의 남조선파병을 실현해보려고 책동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군사, 정치적 침략책동이 얼마나 위험한 정도에 다달았는가 하는것을 말해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을 쉽게 하기 위하여 사상문화침략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고있다.

반동적인 사상문화침투를 통하여 그들은 남조선인민들 속에 친일사상을 부식시키며 부패타락한 사상적독소를 퍼뜨리기 위해 애를 쓰고있다.

지금 남조선에는 반동적인 일본도서가 년평균 45만부씩이나 쏟아들고있으며 일본의 영화와 노래들이 남조선에서 판을 치고있다.

일제의 군국주의적이며 퇴폐적인 문화는 양키문화와 함께 남조선사회풍조를 심히 어지럽히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침략은 《창가학회》, 《천리교》 등 종교단체들을 통하여서도 진행되고있다.

과거 《한일합병유익설》을 설교하던 《천리교》는 《한일간의 친선》을 표방하면서 일제재침의 길을 닦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정치경제적으로뿐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예속되여가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재생재무장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얼마나 깊이 침투하고있으며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광분하고있는가를 말하여준다.

* *

일제의 남조선재침책동은 미제와 그의 비호밑에 재생된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결탁에 의하여 산생된것이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시켜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리용하려 하고있다. 그들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남조선괴뢰들과 결탁시켰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조작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우와 같은 문헌, 4페지).

일본을 군사기지화하고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재무장시켜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돌격대》로 내세우는것은 미제의 아세아전략계획의 중요구성부분이다.

최근년간 미제는 자기의 아세아침략정책이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데 따라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리용하는데 더욱 큰 의의를 부여하게 되였다.

미제는 아세아에서의 저들의 침략책동이 파탄되여가는데 당황하여 하루빨리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조작하고 이 지역 괴뢰군대들을 자기들의 침략책동에 더 많이 내모는것으로써 사태를 수습해보려 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는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아세아문제에 정통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모면해보려

하고있다.

그리하여 미제는 일본군국주의무력을 《돌격대》로 하고 여기에 남조선, 대만을 망라하는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조작하려고 서두르고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아세아에서 단일한 《반공》군사쁠럭을 형성할데 대한 전략계획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이러한 계획의 실현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역할을 높이려 하고있으며 그들의 침략책동 특히 남조선에 대한 재침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은 이와 같이 하여 아세아《반공체계》를 강화하며 박정희도당의 《통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미제의 전략에 충실히 복무하는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침으로써 미제의 아세아전략수행에 복무하는 동시에 저들자신의 제국주의적야욕을 충족시키려 하고있는것이다.

일본군국주의는 일본독점자본주의에 기초를 두고있으며 그 반동적리익에 복무한다.

일본의 독점자본가들은 제2차세계대전에서의 패배에 의하여 타격을 받았으나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하에 그 정치, 경제적 지위를 보존할수 있었으며 다시 대외침략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무장에 광분하여왔다. 그리하여 오늘 일본군국주의는 27만여명의 《자위대》병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현대적군사장비들을 갖추었다.

일본독점자본은 군국주의를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인민들을 더욱 혹심히 탄압하며 대외적으로는 또다시 제멋대로 략탈하기 위한 《세력권》을 얻어내려 하고있다.

제국주의는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없이는 살아갈수 없다. 일본제국주의는 오늘 다시 살아나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는것이다.

전후시기에 다시 제국주의적팽창을 꿈꾸던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와 조장은 매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력사적으로 구미제국주의렬강을 등에 업고 《횡재》하는데 습관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편승하여 해외침략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해외침략의 중요한 대상의 하나로 남조선을 정하였다. 그것은 남조선에 기여드는것이 자기의 상전인 미제의 침략정책에 부합되기때문이며 과거와 같이 조선을 침략하고 아세아대륙을 침략하는데 남조선이 유리한 발판이라고 타산했기때문이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은 이와 같이 미제의 비호하에 재생된 일본독점자본의 침략적야욕의 발현이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은 박정희괴뢰도당과의 긴밀한 결탁하에 진행되고있다.

박정희는 본래부터 일제의 충대문은 주구이다. 그는 일본의 조선강점시기에 벌써 《혈서》를 쓰고 일본군대에 입대하여 수많은 조선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 흉악한 민족반역자이다.

박정희는 미제의 조종하에 총칼로 《정권》을 가로챈 첫날부터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애비로, 형으로 섬기면서 미일제

국주의의 두 상전에 의지하여 목숨을 부지하려 하였다.

박정희도당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끌어들임으로써 미제와 일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충실히 복무하는 동시에 그 대가로 위기에 처한 저들의 잔명을 부지하고 나라와 민족을 희생으로 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고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은 미제의 아세아에서의 침략정책,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야망, 외세와 결탁하여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려는 박정희도당의 매국배족행위에 의하여 산생된것이다. 그것은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의 공모의 산물이며 박정희매국배족도당에 의하여 조장되고있다.

⁂ ⁂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오늘 남조선인민들 앞에 나선 절박한 과업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인민들은 범죄적인 <한일협정>을 폐기하며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남조선재침략기도를 분쇄하기 위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이 투쟁은 동시에 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된다》(우와 같은 문헌, 94페지).

《한일협정》은 미제의 조종하에 침략적인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을 조작하고 일본《자위대》의 조선출병을 합법화하려는 음흉한 책동이며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저애하고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남조선을 계속 식민지예속상태에 얽매여놓으려는 흉책이다.

조일량국인민들과 세계여론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도당은 범죄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된후 그 침략적 제 규정을 실천에 옮기는 길에 들어섰다.

미제의 강점하에 신음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일제의 재침으로 말미암아 미일제국주의자들의 2중적식민지노예의 처지로 전락될 위험에 직면하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전인민적항쟁으로 일제재침의 마수를 꺾어버릴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미 3.24, 6.3항쟁, 8월투쟁 등을 통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에 타격을 주었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인민들은 범죄적인 《한일협정》을 폐기하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은 미제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미일반동들은 종속적동맹관계에 있으며 그들의 공모하에 남조선에 대한 재침이 감행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은 파산의 운명을 지니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제 또다시 <횡재>의 기회를 노리면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남조선에 기여들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책동하고있으나 이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이다.

오늘의 조선은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며 오늘의 아세아는 어제날의 아세아가 아니다. 만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력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침략의 길에 뛰여든다면 그들은 자신이 지른 불길속에서 타버리고 말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109~110페지).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하에 공화국북반부에 강력한 혁명기지를 꾸려놓았다.

공화국북반부는 튼튼한 자립적경제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되였으며 원쑤들의 어떠한 침략에 대해서도 제때에 섬멸적타격을 가할수 있는 불패의 방위체계를 가지고있다.

오늘 우리는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와 민주해방혁명이 승리하는 위대한 전환의 시기에 살고있다. 제국주의는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사회주의력량, 민주해방운동은 계속 장성하고 있다.

미제는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으나 시대의 흐름을 결코 꺼꾸로 돌릴수 없다. 미제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특히 아세아에서 련속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궁지에서 허덕이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의 아세아는 지난날의 아세아가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아세아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을 결코 용허하지 않을것이다.

일본인민들도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에서의 미일제국주의자들의 공모를 반대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일본인민들은 범죄적인 《한일협정》의 페기를 요구하며 침략적《동북아세아군사동맹》조작음모를 반대하는 투쟁,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는 투쟁, 일본의 핵기지화와 핵전쟁준비를 반대하는 투쟁 등에 적극 나서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재침책동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전체 조선인민의 견결한 반제투쟁과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 세계의 진보적인류의 거세찬 투쟁에 의하여 일본군국주의재침책동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과 함께 분쇄될것이다. 남조선이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조국이 통일되며 조선혁명이 전국적으로 승리하는 그날은 멀지않아 도래하고야 말것이다.

아랍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

김 병 호

최근 미제의 파렴치한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중근동에서 빚어진 엄중한 사태는 세상사람들의 주목을 집중케 하였다.

미제의 직접적인 사촉하에 감행된 아련, 수리아 및 기타 아랍국가들에 대한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전면적무력침공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수 있었는가.

미제국주의자들은 영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직접 사촉하여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저들의 간악한 침략적본성을 또다시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전쟁전의 정세발전과 금번 전쟁행정은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배후에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이 서있었으며 미제야말로 아랍국가들에 대한 침략의 장본인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에서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계속 확대하고있으며 조선에서 또다시 침략전쟁을 도발하려고 미쳐 날뛰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이번 중근동에서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한것은 미제가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국제헌병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전 세계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라는것을 다시한번 확증하여준다.

이미 밝혀진바와 같이 중근동전쟁에서 미제6함대는 아랍근해수역에서 이스라엘의 침략전쟁을 도와주었고 미제공중비적들은 하늘에서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엄호하여주었을뿐아니라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각종 공중작전에 직접 참가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이 전쟁의 준비과정에서도 가장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사촉하여 수리아를 비롯한 진보적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빈번히 벌려놓고는 이 지역에 조성된 사태를 《우려》하는척하면서 아련에 대해서는 《자제》할것을 권고하고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은밀히 침략전쟁도발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게 하였고 불의의 전면적무력침공을 개시하도록 사촉하여왔다.

미제는 이와 함께 저들 자신이 무력을 동원하여 공공연히 군사적공갈을 감행하면서 아랍국가들을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있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중근동사태와 관련한 《특별회의》를 벌려놓고 침략적모의를 거듭하였으며 다른편으로는 《아카바만개방을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라》, 《미국은 즉시적인 군사행동을 취해야 한다》 등의 광란적인 위협소동을 벌려놓았다.

제반사실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배후에 서서 그들을 아련과 기타 진보적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로 내몬것이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이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면 미제국주의자들이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부단히 감행하

여왔으며 이번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사촉하여 침략전쟁을 도발한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근동지역에서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이 더욱 심화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지반이 급속히 무너져가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미제의 직접적인 무력간섭과 기만적인 회유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근동에서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은 더욱 고조되고 미제의 침략적지반은 전례없이 약화되고있다. 이 지역의 진보적정부들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강화하면서 미제를 반대하고 식민주의를 청산하며 민족적독립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하였다.

반제반식민주의투쟁에서 아랍지역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은 더욱 강화되여갔고 진보적아랍나라들에서의 사회적개혁이 심화되였다.

이리하여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지반이 심히 뒤흔들리게 되였다.

특히 수리아에서는 작년 2월에 현 진보적정권이 수립된이래 지난해말까지 외국독점자본가들과 국내반동들의 수중에 있던 중소산업기업소들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국유화되였고 농촌에서 토지개혁이 진척되었다. 수리아정부는 미영소유회사들의 재산을 페쇄몰수함으로써 그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수리아에서 반동적지반은 크게 약화되였다.

대외정책면에서도 수리아정부는 철저한 반제반미립장을 견지하면서 형제적아랍국가들과는 물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수리아정부의 이러한 진보적조치는 기타 아랍나라인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아랍지역에서 제국주의 특히 미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놀았다.

바로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수리아정부의 진보적조치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으며 현정권을 전복하고 저들의 괴뢰정권을 내세울것을 획책하였던것이다.

미제는 아랍나라들에서의 진보적추향을 가로막아보려고 책동하면서 아랍련합공화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이와 함께 정치군사적타격을 가할것을 계속 노려왔다.

미제의 침략정책은 중근동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차지하고있는 경제적리권과 적지않게 관련되여있다.

중근동의 석유문제는 항상 이 지역의 중요한 정치문제로 되여왔으며 또 되고있다. 이 지역에서는 석유문제를 둘러싸고 중근동인민과 제국주의자들간, 제국주의렬강간의 분쟁이 빈번히 벌어졌던것이다.

중근동은 무진장한 석유매장량으로 하여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이 지역은 알려진 자료에만 의하여도 자본주의세계석유매장량의 3분의 2(71.2%)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석유는 중요산업원료일뿐만아니라 특히 군사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될 전략자원이다. 중근동의 석유는 그 생산원가에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나는 석유보다 훨씬 값싸다. 실례로 미국에서 석유 1톤을 생산하자면 근 15딸라가 드는데 중근동에서는 불과 2딸라좌우밖에 들지않는다. 이로부터 미제국주의자들은 중근동의 석유략탈에 의하여 매해 근 15억딸라의 추가리윤을 얻고있다.

미제가 이 지역에 대대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한것은 제2차대전후부터였다. 미제는 전후 자본주의세계에서의 저들의 유리한 지위를 리용하여 영국을 비롯한 다른 제국주의자들을 밀어내고 석유리권분배에서 압도적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미국은 현재 중근동석유생산량의 근 60%를 틀어쥐고있다.

미국은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바레인제도 등에서 석유채굴권을 독점하고있다. 일례로 《아라비아—미국석유회사》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석유총생산량의 94%이상을 틀어쥐였으며 쿠웨이트에서는 2009년까지 영국과 함께 석유를 채굴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이란에서도 미국은 영국, 프랑스, 화란과 함께 석유채굴량의 99%를 략탈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제가 아랍나라들의 사회적개혁에 대하여 그처럼 불안을 느끼며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미쳐날뛰는 리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쉽게 알수 있게 한다.

최근년간 수리아, 레바논, 이라크, 쿠웨이트 등 중근동나라들은 미영독점자본가들에게 제한조치를 취하여왔고 석유리권문제를 가지고 미국석유회사들과 투쟁함으로써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석유리권에 위협을 가하였다.

진보적아랍국가들에서 반제반미투쟁기세가 더욱 높아지고 사회적개혁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경제적리권을 보호하고 그것을 확대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더 로골화하게 되였다.

미제의 중근동지역에 대한 침략정책은 그들의 세계제패계획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고있는 군사전략상 및 교통상 위치와도 관련된다.

중근동은 아세아, 아프리카, 구라파를 련결하고 대서양과 인도양사이에 있는 지대로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요충지대로 되고있다.

이로부터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세계침략수행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 지역에서 자기의 침략적거점들을 유지하는데 특별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것이다.

❊ ❊

미제는 제2차대전직후부터 중근동지역나라들에서 경제적리권을 확보할뿐만아니라 이 지역을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며 중근동과 아프리카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백방으로 획책하여왔다.

이번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이 아랍인민들을 반대하여 도발한 전면적무력침공은 미제가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서 추구하여온 침략정책의 계속이였다.

중근동에 대한 침략적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미제는 이스라엘복고주의자들을 리용하는데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여왔다. 미제는 1947년에 유엔의 결정이라는 간판밑에 아랍의 심장부에 이스라엘국가를 조작하였고 이렇게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분쟁의 위험한 원천지를 만들어놓았으며 저들의 침략적지반을 구축하여놓았다.

미제는 이스라엘괴뢰국가를 조작한후 지난 19년간에 무려 34억딸라에 달하는 막대한 《원조》를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에게 제공하여 그들을 이발까지 무장시켰다.

그들은 중근동에서 소위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구실하에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에게 미싸일대공방위체계를 수립해주었으며 《에프104》, 《에프111》등 최신형비행기들과 수백대의 땅크를 비롯하여 수많은 현대식장비를 공급하여주었다. 미제는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무장시키는데 서독군국주의자들을 비롯한 다른 제국주의자들을 끌어넣었다. 그리하여 오늘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은 현대식장비로 무장한 25만여의 군대를 가진 침략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였다. 이스라엘침략군은 중근동에 대한 미제의 침략적군사전략에서 중요한 임억을 담당하고있으며 아랍인민들의 민족적독립과 안전을 위협하며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충실한 《별동대》로 되고있다.

미제는 이스라엘을 조작한지 불과 며칠이 안되여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사촉하여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전쟁》을 일으키고 근 7,000평방키로메터에 달하는 아랍인들의 령토를 떼내였으며 100여만의 팔레스티나인민들을 자기의 고향땅에서 국외로 내쫓았다.

그후 1956년에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은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애급에 대한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당시 미제는 이스라엘을 침략전쟁에로 내몲으로써 애급을 《곤경》에 빠지게 하고 나쎄르정부를 제거해비리려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이 준엄한 시기에 애급인민은 자기의 영웅적투쟁과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지원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파렴치한 무력침공을 물리쳤다.

미제는 1957년에 소위 《아이젠하워주의》를 선포하고 로골적인 전복책동과 무력간섭을 감행하여나섰으며 이라크에서 혁명이 승리하자 이 혁명을 교살하려는 책동을 꾸미었다. 미제는 또한 아랍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레바논에 대한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가 아랍나라들과 세계인민들의 규탄을 받고 물러서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미제는 저들의 무력침공이 실패한후 석유리권을 확장하며 중근동지역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만들어놓은 이스라엘을 무장시키는한편 아랍나라들을 리간분렬시키기 위한 음흉한 책동을 계속 감행하여왔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특히 《아랍련맹》에서 일부 나라들을 떼내여 그에 대치되는 이른바 《회교동맹》을 조작하려는데서 명백히 드러났다. 미제는 《회교동맹》을 조작함으로써 아랍의 통일을 파괴할뿐만아니라 맥을 추지 못하는 저들의 쎈토를 보강하고 아랍나라들의 진보적전진운동을 가로막아보려는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제는 1955년에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도구로서뿐만아니라 아랍인민들을 예속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침략적군사쁠럭인 《바그다드조약》을 만들어놓았다. 그러나 이것이 아랍인민들의 반대 특히 이라크혁명의 승리로 하여 붕괴되게 되자 미제는 쎈토를 조작하였다. 그런데 중근동인민들의 민족적각성의 제고와 이 지역에서의 반제민족해방운동의 고조로 하여 쎈토역시 맥을 추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제는 《회교동맹》을 새로 성립시킴으로써 아랍인민들을 분렬시키며 위기에 처한 저들의 침략적기구를 보강하려 하였던것이다.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정책의 악랄성은 이밖에도 미제의 사촉하에 감행된 요르단강 수로변경문제, 이 지역에서 비변히 감행한 진보적정부에 대한 파괴전복음모들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아련, 수리아, 이라크 등 중근동의 진보적나라들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책동은 최근년간에 이르러 더욱더 격화되였던것이다.

이 모든것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이 아랍나라들을 반대하여 감행한 전면적무력침공이 미제국주의자들이 이 지역에서 일관하게 실시하여온 강도적침략정책의 산물이며 그 계속이였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 *

미제는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직접 지원하여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파렴치한 무력침공을 감행함으로써 전체 아랍인민들속에서는 물론 세계진보적인민들로부터 한결같은 규탄을 받고있으며 더욱 철저히 고립되였다.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불의의 전면무력침공과정을 통하여 전체 아랍인민들은 미제의 간악한 침략적본성을 더욱 철저히 깨닫게 되였으며 미제야말로 아랍인민의 흉악한 원쑤이며 중근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화근이라는것을 체험하게 되였다.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불의의 무력침공이 개시되자 아랍세계는 삽시에 반미투쟁의 도가니로 화하였으며 강력한 반미감정으로 휩싸였다.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불의의 무력침공을 반대하여 아련, 수리아, 알제리, 이라크, 레바논, 예멘 등 나라들이 미영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였고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서 미국외교관들을 추방하였다. 아련, 수리아에서는 외교관들뿐만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을 추방할데 대한 명령을 발표하였다.

또한 아랍의 많은 나라들에서 강력한 반미시위들이 련이어 벌어졌는바 시위자들은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일치하게 규탄하면서 자기들의 단호한 투쟁결의를 표명하였다. 알제에서 시위참가자들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라!》, 《존슨은 살인자다!》, 《우리는 마지막 피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싸울것이다!》, 《우리에게 총을 달라!》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거리를 행진하였고 아련에서는 격분한 군중들이 미영령사관과 미국인경영도서관에 불을 질렀다. 레바논인민들은 미군기지와 미영석유회사의 저장탕크에 불을 질렀으며 대부분의 아랍나라들이 미영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일체 석유공급을 중지할것을 결정하였다.

아랍인민들을 반대하여 감행된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계기로 이 지역에서 미제와 아랍인민들간의 민족적모순은 극도로 첨예화되였는바 그것은 중근동의 심장부에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이 남아있고 미제의 침략적지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한 결코 해소될수 없는것이다.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투쟁행정은 민족적독립과 존엄, 령토완정을 고수하는 투쟁에서의 아랍인민들의 전투적단결과 련대성을 과시하였다.

아랍인민들은 그들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 공동의 원쑤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불의의 침공앞에서 종전에 있었던 의견불일치를 뛰여넘어 정치, 군사, 경제의 모든 면에서 공동

행동과 공동보조를 취하였다.

아런을 반대하는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전면적무력침공이 개시되자 모든 아랍나라들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한 전선에 단합되였다.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침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아랍인민들이 발휘한 견결한 반제투쟁의지와 그들간의 전투적단결과 련대성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것이며 그들의 위업을 종국적으로 실현하는데서 거대한 힘을 낳게 할것이다.

오늘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 하여 아랍지역에 조성된 정세는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힘을 합쳐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더욱 견결히 지원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아랍인민들의 투쟁은 그들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투쟁의 일환이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반제력량은 힘을 합쳐 미제침략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그들의 손발을 얽어맴으로써 미제의 패망을 촉진시키며 인민들의 혁명적위업을 더욱 촉진시킬수 있다.

미제는 세계에서 고립되고있으며 세계인민들로부터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당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압박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오늘 우리 시대는 위대한 혁명의 시대이며 반제, 반미 투쟁의 시대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도처에서 허세를 부리면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추구하고있지만 인민들의 강력한 진출에 의하여 마침내 멸망하고야 말것이다. 이것은 력사발전의 필연적인 법칙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이 발붙이고 있는 세계의 모든 곳에서 배격당하고있으며 고립되고있다. 그들은 아세아와 전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항거에 부닻쳐 더욱더 궁지에 빠지고있다.

제국주의는 강한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사상루각과 같은것이며 그 멸망은 불가피하다. 히틀러가 그랬고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그러하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면서 허장성세하지만 그들 역시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정의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궐기한 아랍인민들의 편에는 전 세계진보적인민들이 확고히 서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정의의 위업실현을 위한 아랍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있다.

오늘 세계진보적인민들이 아랍인민의 편에 서서 미제와 그 주구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일치하게 규탄하고 정의의 투쟁에 궐기한 아랍인민들을 지지성원하고있을 때 미제의 충신한 괴뢰들인 남조선의 박정희도당과 남부웰남의 카오 키도당과 같은 인간쓰레기들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감싸주며 그들의 령토적요구를 지지하여나서고있다. 미제의 비호하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과 서부독일복수주의자들도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남조선의 박정희도당은 미제가 길러낸 괴뢰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복고주의자들과 한패가 되여 아랍인민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일관하게 실시하여왔으며 그들의 정의의 위업을 실현하는데 각종 방해를 놀아왔다.

그러므로 미제의 손발을 얽어매고 아랍인민들의 민족적독립과 존엄,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침략자들, 이스라엘팽창주의도당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뿐아니라 미제의 뒤를 따르는 그 괴뢰들과 추종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아랍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항상 견결히 지지하여온 조선인민은 공동의 원쑤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들의 투쟁을 성심성의 지원할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조선인민은 아랍인민이 겪고있는 고통과 불행을 깊이 리해하고있으며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아랍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아랍국가수반들에게 보낸 전문에서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반대하고 아랍국가들의 민족적독립과 영예를 수호하며 팔레스티나를 해방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일떠선 전체 아랍국가인민들의 정의의 항쟁에 전적인 지지와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그 어떠한 침략세력도 정의의 위업 실현에 일떠선 아랍인민들의 [illegible]을 결코 멈춰세울수 없다.

투쟁과 전진 과정에서는 일정한 우여곡절이 있을수 있으며 난관이 동반할수 있다.

그러나 용감한 아랍인민들이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모든 난관과 시련을 대담하게 극복하고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리라는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미제의 사촉하에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은 일시적으로 강점한 아랍령토에 대한 오만무례한 요구를 제기하고있으나 그들의 이 강도적인 야욕은 결코 실현될수 없다.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은 아랍인민들의 줄기차고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아랍령토에서 종국적으로 쫓겨나고야 말것이며 최후의 승리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아랍인민들에게 있을것이다.

근로자 제 6 호 (루계 304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7년 7월 10일 발 행 · 1967년 7월 15일

ㄱ—63182 값 50전